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416-10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2016 서울서베이

2015년 기준

보고서

일 러 두 기

- 서울서베이는 도시 정책지표를 개발·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하였음
- 2003년에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최초로 서울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민선 6기 서울 시정 방향을 반영하여 도시정책지표를 리뷰·보완하고, 지표의 데이터 구축을 위한 행정자료·조사 데이터를 조사·분석하며, 시계열을 반영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울의 현황 진단 및 향후 정책 전망을 제시함
- 2016 서울서베이 보고서의 수치는 2011년도 사후가중치 적용에 따라 새로운 추정식의 적용으로 2004~2010 서울서베이 보고서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해당숫자 없음	P	잠정치(추후 확정치로 바뀜)
...	해당숫자 미상	r	수정치
0	단위 미만	e	추정치

- 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통계데이터담당관(02-2133-4278~9)에 문의

■ 참여 연구진

연구 책임 : 변미리(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연구 원 : 김진아, 박민진, 최윤석(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분야별 필진(서울연구원):

김묵한(경제), 김상일(도시발전과 주거), 백선희(문화), 반정화(관광), 윤민석·손창우(복지), 신경희(여성과 가족), 유기영(환경), 이신해(교통), 신상영(안전과 재난)

■ 자 문 위 원

강현철(호서대학교 교수)

김석호(서울대학교 교수)

서우석(서울시립대 교수)

이기홍(한림대학교 교수)

전희주(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권영심(경인지방통계청 통계분석팀장)

박승규(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성건(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한 준(연세대학교 교수)

목 차

제1장 서울서베이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연혁

- 1. 추진 배경 및 목적 8
- 2. 서울서베이 추진 연혁 9

제2절 추진 방법

- 1. 자료구축 방법 및 분야별 조사대상 지표 10
- 2. 행정자료 조사 15
- 3. 가구조사 16
- 4. 서울 거주 외국인 조사 18

제3절 추진 내용

- 1. 서울서베이 지표체계 검토 21
- 2. 서울서베이 분야별 실국 활용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 21
- 3. 서울서베이 조사 부문별 개선 방안 21
- 4. 자료병합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자료의
시너지 효과 모색 22
- 5. 국내외 사회지표체계 사례연구 및 조사대상
문항 구성 22
- 6. Seoul at a glance 한글판, 영문판 발간 22

제2장 2016 서울의 사회상

제1절 서울의 보통가구와 일상생활

- 1. 서울의 보통가구 24
- 2. 서울의 일상생활 33

제2절 서울의 사회자본과 시민행복

- 1. 서울의 차별과 통합 38
- 2. 서울의 사회지원망 41
- 3. 서울시민의 행복 46

제3절 서울의 세대와 서울거주 외국인

- 1.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49
- 2. 서울 거주 외국인 53

제3장 2016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영역별 세부 분석

제1절 인구와 가구

- 1. 서울평균인 56
- 2. 서울거주 외국인 70

제2절 경제

- 1. 경제기반 81
- 2. 기업환경 85
- 3. 인적자원역량 90
- 4. 생활환경 94

제3절 도시발전과 주거

- 1. 주거환경 101
- 2. 생활환경 105
- 3. 교육환경 110
- 4. 재정수준 117

제4절 문화

- 1. 시민문화활동 121
- 2. 시민문화진흥 128
- 3. 문화기반환경 133
- 4. 문화시장환경 139

제5절 관광

- 1. 관광자원 145
- 2. 관광산업 148
- 3. 관광서비스 155

목 차

제6절 복지

1. 사회적 약자보호	158
2. 건강한 삶	164
3. 노후생활	171

제7절 여성과 가족

1. 성평등성	180
2. 건강한 가정	184
3. 보육환경	188

제8절 환경

1. 대기환경	193
2. 수환경	196
3. 자연환경	200
4. 폐기물	203
5. 환경 거버넌스	207

제9절 교통

1. 교통인프라	212
2. 교통서비스	218
3. 환경친화적 교통	224

제10절 정보와 지식

1. 투명행정	232
2. 정보활용	234

제11절 안전과 재난

1. 재난안전	237
2. 생활안전	241
3. 교통안전	245
4. 재난대응	247

제12절 가치와 의식

1. 일과 소비	249
2. 가족규범	254
3.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258

제4장 2017 서울서베이를 위한 도시정책지표

체계 개편

제1절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개편을 위한 지표체계 검토

1. 지표 검토 추진 과정	268
2. 실국 수요조사	314

제2절 국내 · 외 지역, 사회지표 리뷰

1. 국내 지역, 사회지표 리뷰	321
2. 해외 사회지표, 정책지표 리뷰	359

제3절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 (안)

1.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개편	381
2.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안)	383

제1장 서울서베이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연혁

제2절 추진방법

제3절 추진내용

제1장 서울서베이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연혁

1. 추진 배경 및 목적

도시정책지표체계와 시정

오늘날의 도시발전은 국가단위에서 도시단위로, 거대도시에서 지역단위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대도시 서울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정운영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시정통계의 지속적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의 도시발전은 메가시티로서 도시경쟁력을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시정 목표를 견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정책을 발굴, 실행하고 있다. 서울서베이는 이러한 정책발굴을 위한 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도시정책지표체계이다.

서울서베이는 도시정책지표 구축과 통계 생산을 매년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시정을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시정책지표 체계를 만들고, 지표의 자료 구축을 위한 행정자료 및 가구조사, 외국인조사 등 서베이를 실시하여 실증 자료를 구축하며, 구축된 데이터의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서울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시정 영역별 정책 아젠더를 제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03년부터 매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 서울서베이 주요 목표

2016년에 실시하는 서울서베이는 민선6기 서울 시정 방향을 반영하여 도시정책지표를 리뷰·보완하고, 지표의 데이터 구축을 위한 행정자료·조사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시계열을 반영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울의 현황 진단 및 향후 정책 전망을 제시한다. 이는 ‘서울의 사회상’으로 분석, 보고한다. 또한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 14년 째 매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서베이는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에 근거해서 서울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2016 서울서베이 지표체계 구성과 2016년 조사 모듈

서울서베이 분야별 정책 지표의 상세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가구조사 문항 확대 및 격년 주기 순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서베이 지표체계와 모듈 구성은 <그림1-1>과 같다. 2016년 서울서베이의 조사 대상은 기본 모듈인 인구, 주거, 경제와 모듈B의 교통, 환경, 문화, 관광, 안전재난 부문이다.



| 그림 1-1 | 서울서베이 지표체계

2. 서울서베이 추진 연혁

㉠ 「서울서베이」 기본 계획 수립	2003년 1월
서울 도시정책지표 개발 및 조사설계	2003년 4월~11월
제1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3년 11월
· 가구 및 사업체조사 실시	
㉠ 제2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4년 10월
㉠ 제3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5년 10월
㉠ 제4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6년 10월
㉠ 제5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7년 10월
· 외국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 제6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8년 10월
㉠ 제7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9년 10월
· 외국인조사 표본확대(1,000명 → 2,500명)	
㉠ 제8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0년 10월
㉠ 제9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1년 10월
· 가구 순환조사(매년 조사 → 2년 주기 분야별 조사)	
㉠ 제10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2년 10월
㉠ 제11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3년 10월
㉠ 제12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4년 10월
㉠ 제13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5년 10월
· 사업체조사 분리(전국 사업체조사와 통합)	
·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공표	2016년 6월
· 2016년 서울서베이 종합보고서 및 Seoul at a Glance 발간	2016년 12월

제2절 연구 방법론

1. 자료구축 방법 및 분야별 조사대상 지표

1) 자료구축 방법

도시정책지표 체계는 지표 개념, 산출방법, 관련자료, 자료출처, 자료구축 단위, 구축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자료 구축은 서울시 각 실국별 행정 및 통계자료, 외부기관 통계자료, 서울서베이 조사(가구조사, 외국인 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과 자료출처, 생산주기를 분석하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여러 개의 자료원이 있을 수 있어 수집 후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활용될 자료를 선정한다. 자료 구축 및 분석 단위는 자료를 가공하는 단위로 시, 구, 동 단위가 될 수 있으며 자료출처 및 유형은 통계자료의 경우 통계발행기관 및 부서(홈페이지 주소 및 외부기관 시스템 이름), 행정자료의 경우 자료생성부서, 시스템인 경우 데이터 입력부서를 기록하며 서울서베이 조사의 경우 별도로 표시한다. 자료 구축방법은 크게 (1)기존 지표에 어떠한 변화 없이 그대로 구축할 수 있는 지표(기존지표), (2) 기존 지표에서 지표명, 개념, 산출 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진 지표(보완지표), (3)새롭게 추가된 지표(신규지표)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분야별 조사대상 지표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는 인구와 가구, 경제, 도시발전과 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 가족, 환경, 교통, 정보와 지식, 안전과 재난, 가치와 의식의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 세부 지표를 포함하여 총 208개 지표가 있으며 그 구성은 <표 1-1>과 같다.

| 표 1-1 | 영역별 도시정책지표

분야	영역	지 표				지표수
인구와 가구	서울평균인	·평균연령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 비율	·거주기간	8
		·혼인상태	·종교	·학력	·직업	
	서울거주 외국인	·성별	·연령	·거주기간	·출신국적	6
		·체류자격	·주거유형			
경제	경제기반	·지역내 총생산	·소득증가율	·사업체 창업률	·지식창출역량	8
		·실업률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대비 R&D 투자 비중	·고용률	
	기업환경	·사무실임대료	·노동분쟁 건수	·사무실 연상면적비율	·컨벤션 수용능력	5
		·도심권 차량속도				
	인적자원 역량	·노동유연성 비율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	·고급인적자원 역량	·서울 대학 수	5
		·서울 대학생 수				
	생활환경	·공공요금 수준	·소비자물가지수	·학교급별 외국인 학생 수	·도시위험도	8
		·(주관적)소득인식수준	·고용형태	·국내거주외국인 삶의 질 만족도	·서울시 물가수준	
도시 발전과 주거	주거환경	·생활환경 만족도	·주택보급률	·아파트거주가구 비율	·아파트 가격	6
		·미래주택유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			
	생활환경	·문화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5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교육환경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평생교육참여율	·교원 1인당 학생수	·고졸생의 대학 진학률	6
		·사설학원 수	·교육재정 지원액			
	재정수준	·재정규모	·1인당 세출액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4
문화	시민문화 활동	·예술관람률	·영화관람률	·스포츠 경기 관람률	·전통예술공연 관람률	10
		·외국인 문화활동	·여가레저 활동	·예술활동률	·문화환경 만족도	
		·축제참여도	·한강 여가레저 인구수			
	시민문화 진흥	·문화재 수	·고궁 입장객수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 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 유산 잠정목록		3
	문화기반 환경	·도서관	·전시시설	·공연시설	·공공체육시설	6
		·영화관람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시장 환경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시 지정 전문예술 단체 수	·문화관련 사업체 수	·문화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4

분야	영역	지 표				지표수
관광	관광자원	·관광자원 수				1
	관광산업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 객 수	·국제회의 개최건수	·관광사업체 성장률	·외국인 투숙률	6
		·관광숙박시설 수	·외국인 도시 관광숙박 시설 수			
	관광 서비스	·관광안내소 수 및 이 용객 수	·항공편수			2
	여가관광 환경	·서울시민의 관광활동 정도				1
복지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	·사회적약자 취업률	·사회복지시설 수	·장애인 재활시설 수	5
		·노인·장애인 수급자율				
	건강한 삶	·흡연율	·비만율	·평균수명	·자살률	6
		·건강상태	·우울도			
	노후생활	·노인의료복지시설 보 급률	·재가노인복지시설 보 급률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 동 참가형태	·노후준비방법	9
		·독거노인 비율	·노인건강관리	·노후생활 희망정도	·은퇴 후 적정 생활비	
		·노인 자살률				
여성과 가족	성 평등성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율	·성별 비정규직 비율		3
	건강한 가정	·가정생활 만족도	·부채 유형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사노동분담정도	6
		·청소년 가출건수	·한부모가구 수			
	보육환경	·보육시설이용률	·공공보육시설비율	·보육방법	·보육시설만족도	5
		·합계출산율				
환경	대기환경	·미세먼지오염도	·NO ₂ 농도	·도로변주거지역소음도	·지하시설 실내공기질	4
	수환경	·서울한강 수질오염도	·서울지천 수질오염도	·음용식수	·물재이용	4
	자연환경	·가로경관 녹시율	·녹지환경 만족도			2
	폐기물	·생활쓰레기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량	·생활쓰레기 매립의존도		3
	환경 거버넌스	·가정용 전력 소비량	·물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6
		·생활에너지 절약정도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교통	교통 인프라	· 시내버스 수	·도시철도 연장	·버스전용차로 연장	·어린이 보호구역 수	7
		·도로연장	·버스정류장수	·자동안수단 설치율		
	교통 서비스	·지하철 최고혼잡도	·교통수단이용 만족도	·보행환경 만족도	·버스통행속도	7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율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 통행속도	·저상버스 도입대수		
	환경친화적 교통	·자전거 도로율	·보도연장 및 면적	·자전거 이용률	·자전거이용환경만족도	7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 로 연장	·보행전용 거리 지정 구역 연장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분야	영역	지 표				지표수
정보와 지식	투명행정	·청렴도지수	·정보공개비율			2
	정보활용과 소비	·통신비 지출정도	·정보통신기기보유현황	·TV 시청시간	·SNS 이용률	4
안전과 재난	재난안전	·풍수해 피해액	·화재 발생건수	·화재 피해액	·화재 사상자 수	5
		·풍수해 이재민수				
	생활안전	·흉악사건 발생건수	·청소년범죄 발생건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주변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6
		·가족안전유형	·사회적 차별			
	교통안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인명 피해 수	·보행자교통사고 인명 피해 수		3
	재난대응	·구조 발생건수	·구급 발생건수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		3
가치와 의식	일과소비	·직업관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과시적 소비에 대한 태도	·외모에 대한 태도	4
	가족규범	·가족의 통합성	·자녀관	·부부관	·부모관	4
	시민의식	·사회적 신뢰	·자원봉사 비율	·시민 기부	·투표율	9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계층이동가능성	·중산층 귀속의식	
		·행복지수				

3) 조사대상 지표 자료구축 방법

조사대상 지표의 자료구축 방법은 크게 행정자료 조사, 가구조사, 외국인 조사로 구분된다. 분야별 지표 자료구축 방법은 다음 표와 같으며, 배경지표는 당해 연도 분석가치가 낮아진 지표로 데이터 구축만 하고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표를 의미한다. 일부 지표는 2개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령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의 경우, 과학기술통계, 수도권 소재 석박사 졸업자 수 등 총 3개 분야의 행정자료를 조사하여 지표를 구축하였다.

| 표 1-2 | 분야별 자료구축 방법

분 야	지 표 수		자료구축 방법
인구와 가구	2016 도시정책지표	14	- 가구조사: 5개 항목 - 외국인조사: 2개 항목 - 행정자료: 7개 항목
	배경지표	0	
경 제	2016 도시정책지표	26	- 가구조사: 3개 항목 - 외국인조사: 2개 항목 - 행정자료: 21개 항목
	배경지표	9	- 가구조사: 1개 항목 - 행정자료: 8개 항목
도시발전과 주거	2016 도시정책지표	21	- 가구조사: 3개 항목 - 행정자료: 18개 항목
	배경지표	3	- 가구조사: 1개 항목 - 행정자료: 2개 항목
문 화	2016 도시정책지표	23	- 가구조사: 8개 항목 - 외국인조사: 1개 항목 - 행정자료: 14개 항목
	배경지표	2	- 행정자료: 2개 항목.
관 광	2016 도시정책지표	10	- 가구조사: 1개 항목 - 행정자료: 9개 항목
	배경지표	0	
복 지	2016 도시정책지표	20	- 가구조사: 5개 항목 - 행정자료: 15개 항목
	배경지표	2	- 행정자료: 2개 항목
여성과 가족	2016 도시정책지표	14	- 가구조사: 5개 항목 - 행정자료: 9개 항목
	배경지표	1	- 행정자료: 1개 항목
환 경	2016 도시정책지표	19	- 가구조사: 4개 항목 - 행정자료: 15개 항목
	배경지표	1	- 행정자료: 1개 항목
교 통	2016 도시정책지표	21	- 가구조사: 4개 항목 - 행정자료: 17개 항목
	배경지표	4	- 행정자료: 4개 항목

분 야	지 표 수		자료구축 방법
정보와 지식	2016 도시정책지표	6	- 행정자료: 6개 항목
	배경지표	1	- 행정자료: 1개 항목
안전과 재난	2016 도시정책지표	17	- 가구조사: 4개 항목 - 행정자료: 13개 항목
	배경지표	1	- 행정자료: 1개 항목
가치와 의식	2016 도시정책지표	17	- 가구조사: 16개 항목 - 행정자료: 1개 항목
	배경지표	0	
계	2016 도시정책지표: 208개		- 가구조사: 58개 항목 - 외국인조사: 5개 항목 - 행정자료: 145개 항목
	배경지표: 24개		- 가구조사: 2개 항목 - 행정자료: 22개 항목

2. 행정자료 조사

행정자료 조사는 서울시 실국별 행정자료 및 기존 내 외부 통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매해 연도의 최종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한다. 2016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행정자료 조사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조사과정은 <표 1-3>과 같이 진행하였다.

| 표 1-3 | 행정자료 조사 절차

① 외부자료 통계표 점검 및 작성
② 작년기준의 자료 출처와 담당자를 현재 시점으로 재확인
③ 각 기관별로 서울시가 공문 발송
④ 담당자의 연락처, 이메일, 팩스 등을 기입, 자료협조 부탁, 자료취합기한 날짜 기 부재중인 경우, 출장인 경우, 연말 인 사이동으로 자료담당자 미파악등 기타 여러 사유로 생각보다 통화가 쉽지 않기에 수차례 재통화 시도
⑤ 각 자료별로 통계양식(통계표)을 해당 기관별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입력 후 재발송 받아 수집(서울시 해당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됨)
⑥ 각 기관별로 그날그날 자료수집 현황 체크, 수집된 자료목록 점검 후 2~3일 간격으로 자료 재 독촉
⑦ 수집된 최종자료 입력 및 검증
⑧ 기한내에 수집이 되지 않는 자료 추후 지속적으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

1) 행정자료 목록

서울시 통계연보 및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는 서울시 내부기관 자료와 외부기관 자료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서울시 통계자료는 서울시 내부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수집(각 담당자들이 입력 후 통계 정보팀 관리 담당자들이 최종 취합 점검)하거나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사이트를 참조한다. 외부기관 자료는 웹,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 표 1-4 | 외부기관 현황

• 통계청	• 행정자치부	• 특허청	• 서울시설공단
• 고용노동부	• 한국관광공사	• 서울시교육청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	• 문화체육관광부	• 유네스코와 유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제협회연합(UIA)	• 한국공항공사	• 보건복지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알투코리아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한국감정원	• 서울문화재단
• 한국메세나협회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3. 가구조사

가구조사는 서울시 거주 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보완조사 11월 1일 ~ 11월 17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인구와 가구, 경제, 도시발전과 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 가족, 환경, 교통, 정보와 참여, 안전과 재난, 가치와 의식 등 총 12개 분야별 지표에 관련된 사항과 가구조사 기본 문항이다. 가구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되 만 15세 이상 가구원 부재시 유치조사를 병행하였고 20,000가구(만 15세 이상 가구구성원 46,837명)를 조사하였다.

가구 조사의 모집단은 세대주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모집단의 크기는 주민등록DB와 과세대장DB를 연계하여 동별, 주택유형별 세대수를 파악하여 설정하였다. 서울시 모집단 크기는 4,068,308세대이며(2015년 8월 기준), 15세 이상 세대원 수는 8,744,128명(전체 세대원 수는 9,907,808명)으로 파악되었다. 표본 설계는 제1층은 25개 구, 제2층은 423개 동(행정동), 제3층은 4개 주택유형(‘단독주택/다가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거주용 건물’)으로 설정하고 층별 표본을 배분하였다.

| 표 1-5 | 구별 세대수 배분

자치구	모집단(세대)	네이만배분			비례배분		2015년
		주거환경	교육환경	월소득	단순	제곱근	
총 로 구	68,237	393	380	332	335	526	510
중 구	55,876	271	275	277	274	474	455
용 산 구	100,492	543	534	518	494	637	623
성 동 구	122,701	624	630	630	603	705	702
광 진 구	154,456	766	783	780	759	791	802
동 대 문 구	154,369	730	732	650	759	790	783
중 랑 구	171,805	829	855	814	845	834	853
성 북 구	186,154	949	923	932	915	870	872
강 북 구	136,414	699	642	679	671	746	752
도 봉 구	133,968	653	649	693	659	737	755
노 원 구	215,619	979	1,030	1,023	1,060	933	953
은 평 구	197,214	768	858	721	970	893	901
서 대 문 구	128,853	688	707	662	633	721	732
마 포 구	166,475	874	878	859	818	819	805
양 천 구	175,591	953	939	915	863	843	839
강 서 구	232,681	1,232	1,196	1,232	1,144	974	966
구 로 구	168,771	823	774	810	830	823	819
금 천 구	100,904	540	520	480	496	636	638
영 등 포 구	162,237	852	833	816	798	803	799
동 작 구	167,504	809	764	877	823	822	835
관 악 구	243,093	1,067	1,149	1,065	1,195	989	991
서 초 구	168,176	775	830	933	827	823	821
강 남 구	229,575	1,129	1,139	1,192	1,129	962	938
송 파 구	250,665	1,218	1,198	1,254	1,232	1,008	1,002
강 동 구	176,478	836	782	856	868	841	854
합 계	4,068,308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구별 표본배분은 구별 통계의 생산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별로 최소 400표본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별 세대수의 배분을 위해 주거환경, 교육환경, 월소득의 표준편차를 고려한 네이만배분과 단순 비례배분 및 제곱근 비례배분을 검토하였다. 제곱근 비례배분이 구별로 최소 400표본을 확보할 수 있고, 구별 표본크기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제곱근 비례배분에 의해 구별 세대수를 배분하였다. 동별 세대수와 주택유형별 표본배분은 단순 비례배분법을 사용하였다.

4. 서울 거주 외국인 조사

외국인조사는 국내 90일을 초과하여 서울시에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한 달(10월 1일~31일, 보완조사 11월 1일~17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서울에 서의 삶의 질, 교통 및 환경, 서울의 물가 수준, 문화시설, 결혼생활, 건강, 사회 교류 및 일상생활, 정보수준, 주거 및 작업 등 총 29개 항목이다.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되, 단 거점에서 할당된 표본에 맞게 추출하였으며 총 2,500명을 조사하였다.

외국인의 거주 특성상 표본 틀에 표시된 입국당시 주소 및 연락처는 주소변경 및 다양한 이유로 대부분 현재의 거주지 내지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아, 외국인 접촉을 위하여서는 외국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거점을 선정하여 거점 내 외국인 중에서 정해진 할당 표를 이용하여 선택 조사하였으며 조사 거점은 <표 1-6>와 같다.

| 표 1-6 | 구역별 외국인 밀집지역(조사 거점)

구 분	이 름	구 역
빌리지존	연남글로벌 빌리지 센터	마 포 구
	역삼글로벌 빌리지 센터	강 남 구
	서래 글로벌 빌리지 센터	서 초 구
	이촌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용 산 구
비즈니스존	이태원, 한남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용 산 구
	시청	중 구
	여의도	영등포구
	한국세계무역센터	강 남 구
글로벌 문화교류존	LG타워	강 남 구
	명동	중 구
	남대문시장	중 구
	동대문시장	동대문구
외국인 학교	인사동	종 로 구
	이태원	용 산 구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중 구
	하비에르국제학교	종 로 구
	국제어린이 조기학교	용 산 구
	국제크리스천학교	용 산 구
	서울독일학교	용 산 구
	지구촌기독교 외국인 학교	용 산 구
	프란치스코학교	용 산 구

구 분	이 름	구 역
외국인 학교	한국영등포화교학교	영등포구
	서울프랑스학교	서 초 구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대문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	노 원 구
	한국켄트외국인학교	광 진 구
	재한몽골학교	광 진 구
어학당	서울일본인학교	강 남 구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강 남 구
	한국외국인학교	강 남 구
	연세대학교 어학당	서대문구
	외국어문화교류원 어학당	서대문구
	건국대학교 어학당	광 진 구
	이화여대 어학당	서대문구
	서강대학교 어학당	마 포 구
	고려대학교 어학당	성 북 구
	홍익대학교 어학당	마 포 구
	서울대학교 어학당	관 악 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당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어학당	동대문구
	상명대학교 어학당	종 로 구
	성균관대학교 어학당	종 로 구
병 원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병원	구 로 구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영등포구
	서울대병원	종 로 구
	영동세브란스 병원	강 남 구
	서울적십자병원	종 로 구
	순천향대병원	용 산 구
	아산병원	송 파 구
	경희의료원	동대문구
	서울의료원	강 남 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한양대병원	성 동 구
	강남성모병원	서 초 구
	국립의료원	중 구

구 분	이 름	구 역
외국인거리 or 마을	혜화동 필리핀 거리	중 구
	광희동 몽골타워	중 구
	창신동 네팔인 거리	종 로 구
	이태원 무슬림, 나이지리아 거리	용 산 구
	연희동 차이나 타운	서대문구
	가리봉 엔벤티거리	구 로 구
	동대문운동장 러시아 중앙 아시아촌	동대문구
공 단	성수공단	성 동 구
	구로공단	구 로 구
기 타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광 진 구
	서울 이슬람 사원	용 산 구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회	구 로 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종 로 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중 구
	성동건강복지센터	성 동 구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금 천 구
	지구촌사랑나눔	구 로 구

제3절 추진 내용

1. 서울서베이 지표체계 검토

2016년 서울서베이에서는 민선 6기 시정운영 지원을 위한 도시정책지표를 검토하고 서울시의 현재의 성과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경향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표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 운영방향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지표를 검토 및 보완하고, 신규지표 및 기존 지표에 대한 산출기준 및 대표성을 검증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의 객관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국 부서 산하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다차원의 검토 및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2. 서울서베이 조사 부문별 개선 방안

1) 가구조사

가구주 조사의 경우 지금까지 서울서베이의 가구대상 기본질문을 기준으로 향후 사회변화를 고려한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변화, 신고령세대, 복지 컨센서스, 보건, 여가 등) 추가적인 질문을 발굴하여 포함하였다. 가구원 조사의 경우 심층적인 질문과 포괄적인 질문문항을 개발하되, 매년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질문이 지나치게 많아질 우려가 있고, 비표본오차를 증가시켜 조사결과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 따라, 조사영역을 부문별 모듈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순환조사 실시에 따라 2016년은 교통, 환경, 문화, 관광, 안전재난 분야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신규문항 개발을 추진하였다.

2) 외국인조사

외국인 조사의 경우 서울거주 외국인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입국목적별, 출신국별 외국인 현황과 서울생활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타겟별 조사항목 구성이 필요하다. 외국인 정책관련 실무부서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문항을 포함하며, '서울의 조선족, 서양인의 서울시민화, 다문화가정과 서울거주 외국인' 등 외국인 집중탐구 주제 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외국인의 전형성을 파악한다.

3. 자료병합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자료의 시너지 효과 모색

오늘날 도시사회 현상은 정량적 데이터 혹은 정성적 데이터만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 병합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서베이는 실시간 형성되는 행정자료(정량자료)와 서울서베이 조사를 통한 정성자료를 결합하고, 이를 더욱 확장하여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자료들과의 데이터병합(data merge)을 통해 대도시 서울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국내외 사회지표체계 사례연구 및 조사대상 문항 구성

국내 국가승인통계 사회지표체계, 조사 결과 값 등을 조사·정리하고 세계 주요도시 사회(정책)지표 사례와 비교·연구하여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와 병행 조사할 수 있는 서울서베이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사회지표, OECD 삶의 질 지표, 외국의 삶의 질 지표체계(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의 Quality of Life Reporting System, IESE의 Cities in Motion Index 등)를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지속가능한 서울시 지표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5. Seoul at a glance 한글판, 영문판 발간

2015년 10월에 실시된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의 분야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눈에 보는 서울 Seoul at a glance’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서울 시정의 신뢰를 높이 고자 하였다. 특히 Seoul at a glance 영문판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은 지도, 차트 등을 사용한 시각화와 분야별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 설명 등을 함께 제시한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

2016 서울의 사회상

제1절 서울의 보통가구와 일상생활

제2절 서울의 사회자본과 시민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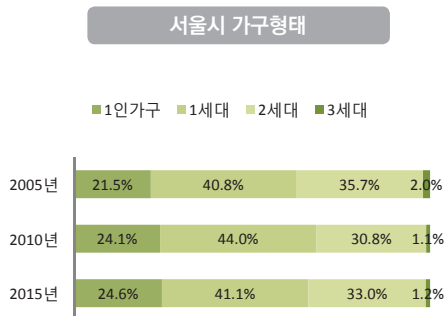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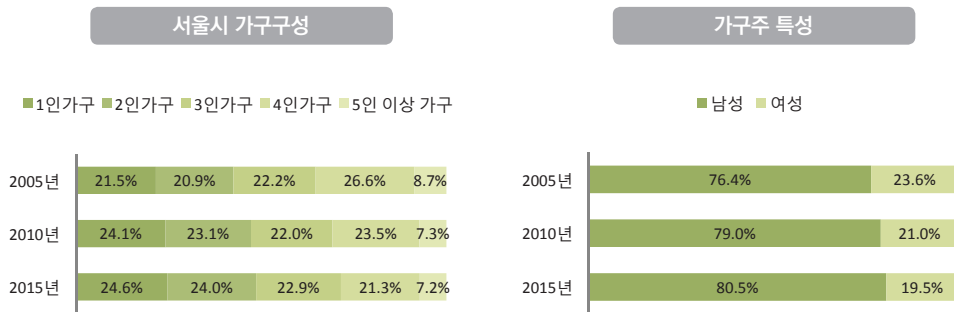
제3절 서울의 세대와 서울거주 외국인

제2장 2016 서울의 사회상

제1절 서울의 보통가구와 일상생활

1. 서울의 보통가구

2015년 서울시 가구구성은 1~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48.6%(1인가구 24.6%, 2인가구 2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42.4%)에 비해 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 부부+기타 등 동일세대로 구성된 1세대가구가 41.1%로 가장 높았다.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 세대로 구성된 2세대가구는 3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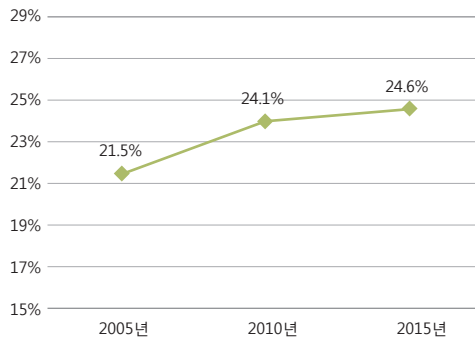
〈참고〉 일반가구의 평균가구원수와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1990	1995	2000	2005	2010
평균가구원수	3.7	3.3	3.1	3.0	2.8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세대가구	10.7	12.7	14.2	16.2	17.4
2세대가구	66.3	63.3	60.8	55.4	51.2
3세대가구	12.5	10.0	8.4	6.9	6.1
비혈연가구	1.5	1.4	1.1	1.4	1.1
1인가구	9.0	12.7	15.5	19.9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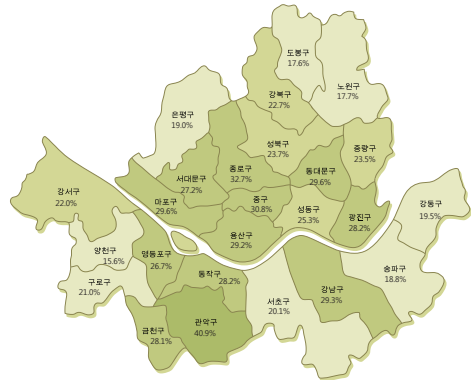
주 : 1) 일반가구는 혈연가구, 5인이하 비혈연가구, 1인가구 등을 포함
 2)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3)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출처 :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3

2015년 서울시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2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악구는 10가구 중 4가구 (40.9%)가 1인가구로 주로 청년층으로 구성된 특성이 나타났다. 종로구는 전체 가구의 32.7%, 중구는 30.8%가 1인가구로 고령자 중심 1인가구 특성을 보인다.

서울시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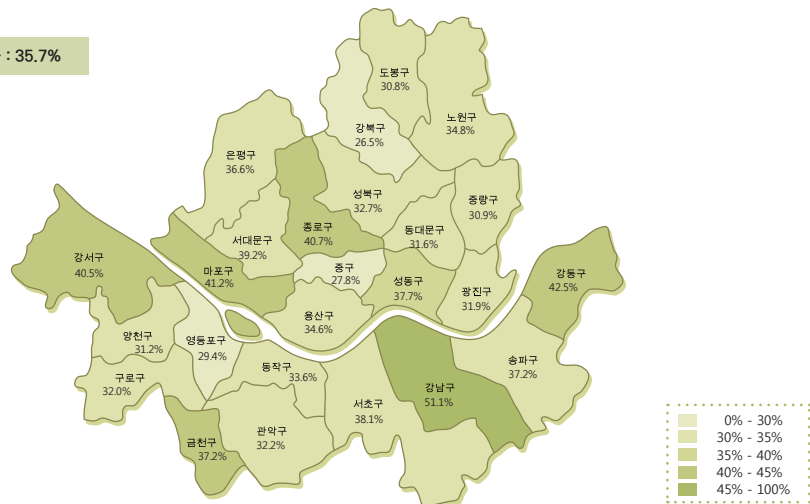
구별 서울시 1인가구(2015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전체 가구의 56.1%, 4년제 대졸이상 학력은 전체 가구의 35.7%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강남구 가구주의 51.1%가 4년제 대졸이상인 반면 강북구는 26.5%, 중구는 27.8%로 지역간 격차가 뚜렷했다.

4년제 대졸자 이상 가구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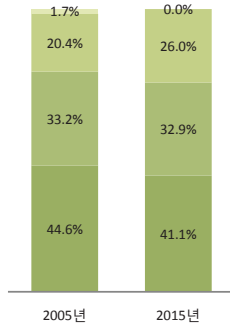
평균 :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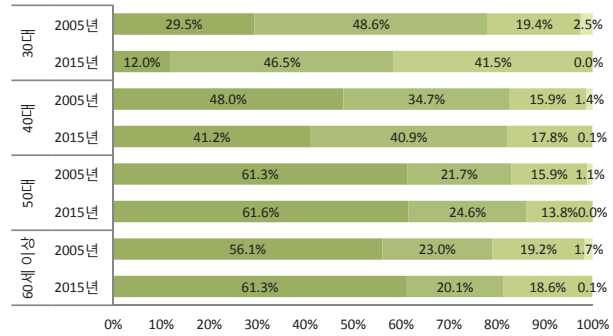
자가, 전세, 월세, 무상 및 기타로 분류해 주택소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자가비중은 2005년 44.6%에서 2015년 41.1%로, 전세 비중은 2005년 33.2%에서 2015년 32.9%로 줄고, 월세 비중은 2005년 20.4%에서 2015년 2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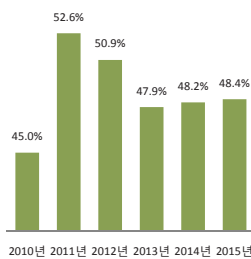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 및 기타



2015년 가구 부채율은 48.4%로 2014년(48.2%)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전히 전체가구의 절반이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가구 부채의 주된 이유는 주택임차 및 구입(66.0%)이고 교육비로 인한 부채도 13.1%로 2순위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6.7%로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의 가구 부채 이유는 교육비 관련 이유(40대 20.5%, 50대 17.8%)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60대에서는 의료비 관련 이유(19.6%)가 주택임차/구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부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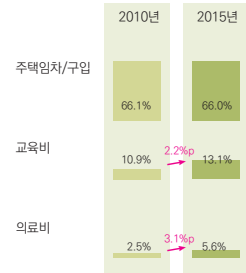
(단위 : %)



가구부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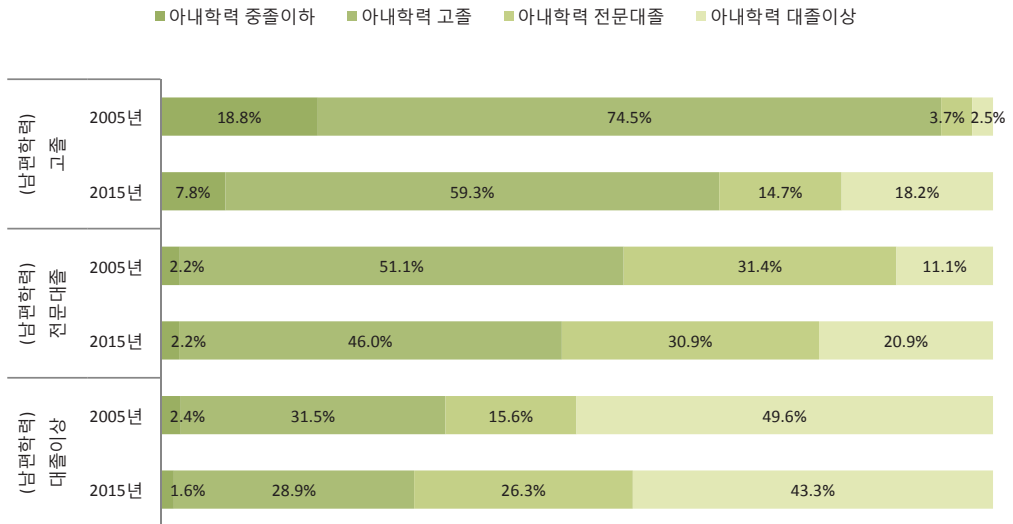
2015년	주택임차/구입	교육비	교육비/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재테크 투자	의료비
30대 이하	76.7%	7.7%	7.3%	6.4%	1.5%
40대	64.8%	20.5%	4.4%	7.9%	1.7%
50대	59.1%	17.8%	6.3%	10.7%	5.4%
60대 이상	54.1%	5.0%	12.2%	8.2%	19.6%
전체	66.0%	13.1%	6.7%	8.0%	5.6%

* 기타, 부채 없음 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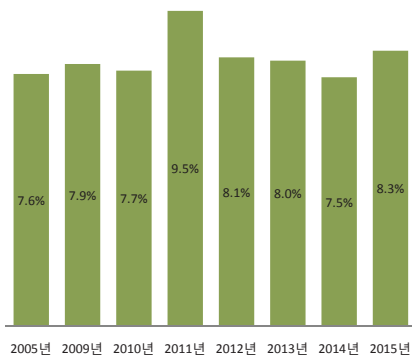
부부가구에서 남편 고졸, 아내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 비율은 2005년 6.2%에서 2015년 32.9%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남편 전문대졸, 아내 대졸이상인 가구비율은 2005년 11.1%에서 2015년 20.9%로 증가하여, 남편보다 학력이 높은 아내로 구성된 부부가구가 10년 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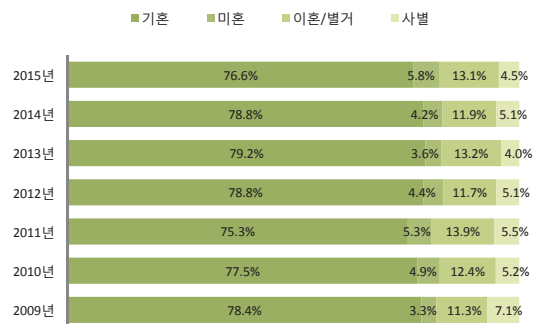


이혼·별거자 비율은 2014년 대비 0.8%p 증가한 8.3%이고, 40대와 50대 이혼·별거 비율은 전체 평균(8.3%)보다 높은 13.1%로 2014년 대비 1.2%p 늘어났다.

전체 이혼·별거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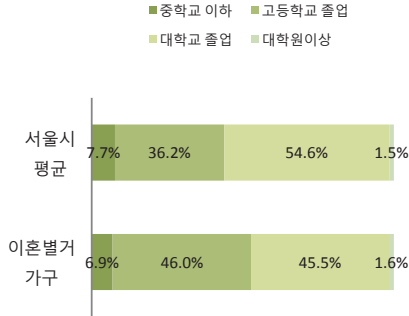


40~50대 이혼·별거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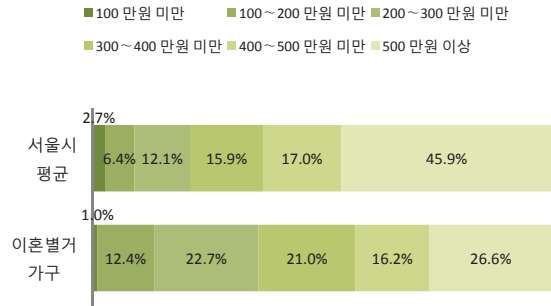


이혼·별거가구의 가구주 학력은 고졸이하가 46.0%로 서울시 평균(36.2%)보다 9.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별거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에서 400만원 미만인 비율(57.2%)은 서울시 평균(37.2%)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소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별거가구의 학력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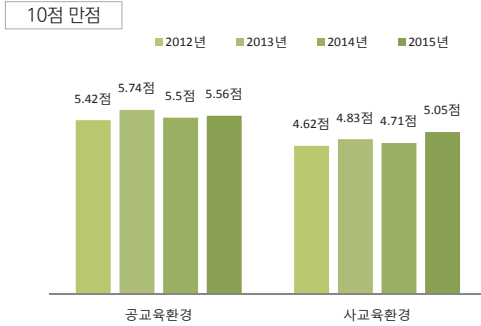


이혼별거가구의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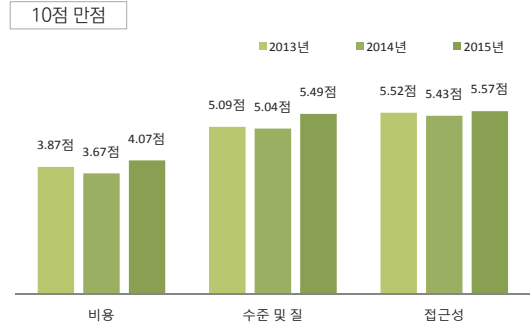
2015년 공교육 만족도는 5.56점, 사교육 만족도는 5.05점으로 공교육 만족도가 사교육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교육 만족도는 50대에서 5.38점으로 가장 낮고, 사교육 만족도는 30대에서 4.91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



가구주 연령	공교육				사교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0대	5.52점	5.68점	5.75점	5.74점	4.80점	4.65점	4.86점	4.91점
40대	5.48점	5.77점	5.48점	5.57점	4.63점	4.87점	4.68점	5.16점
50대	5.29점	5.77점	5.25점	5.38점	4.54점	4.91점	4.62점	4.98점

사교육 만족도(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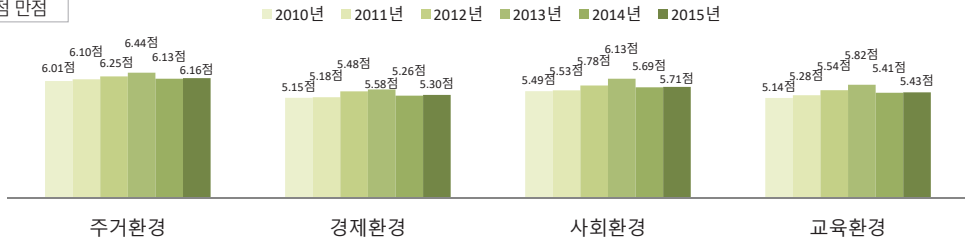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	사교육 분야별		
	비용	수준 및 질	접근성
30대	3.89점	5.24점	5.59점
40대	4.23점	5.65점	5.61점
50대	4.02점	5.41점	5.5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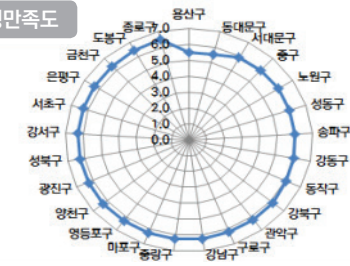
서울시 가구의 영역별 생활환경만족도에서는 주거환경 만족도가 10점 만점 기준 6.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환경만족도 5.71점, 교육환경만족도 5.43점, 경제환경만족도 5.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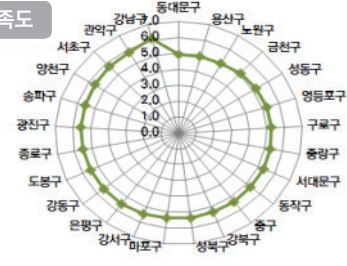
10점 만점



주거환경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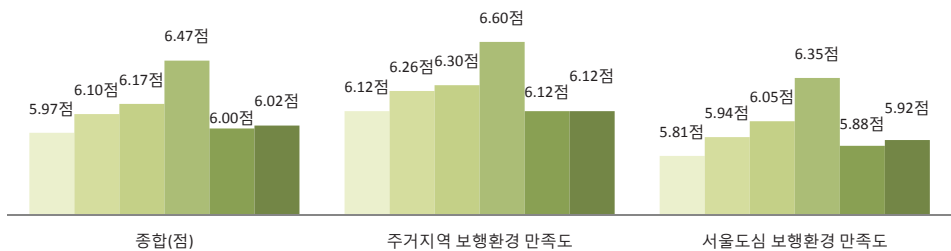
교육환경만족도



서울의 보행환경 만족도는 6.02점으로 2014년 6.00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분별로는 도심 보행환경 만족도가 2014년 5.88점에서 2015년 5.92점으로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역 보행환경 만족도는 6.12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운데, 2015년 처음 조사된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는 5.72점으로 주거지역과 서울도심 보행환경 만족도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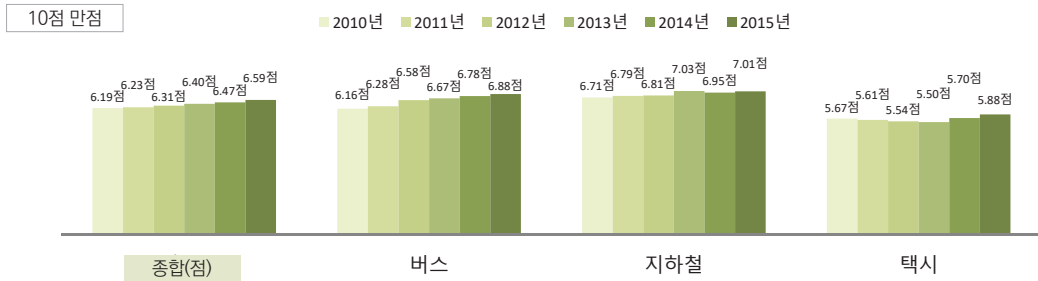
보행환경만족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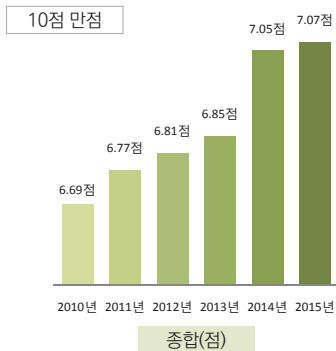
교통수단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6.59점으로 2010년(6.19점)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통수단별로는 지하철 만족도가 7.01점으로 가장 높고, 버스(6.88점), 택시(5.88점)순으로 나타났다. 택시 만족도는 2014년(5.70점) 대비 0.18점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6점 이하의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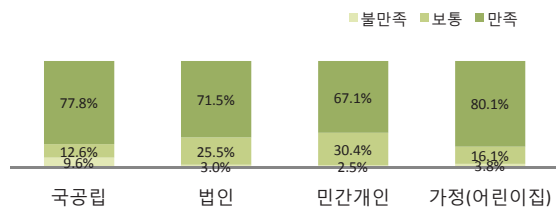


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7.07점으로 2010년 6.69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설 유형별 이용만족도는 가정(어린이집)이 80.1%로 가장 높고, 국공립은 77.8%, 법인 71.5% 순으로 만족 점수가 높았다.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상위 5개구는 금천구(7.62점), 강남구(7.54점), 동작구(7.54점), 양천구(7.42점), 중랑구(7.3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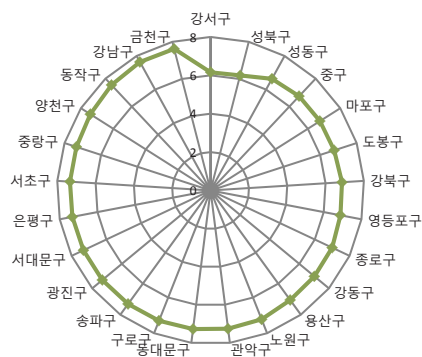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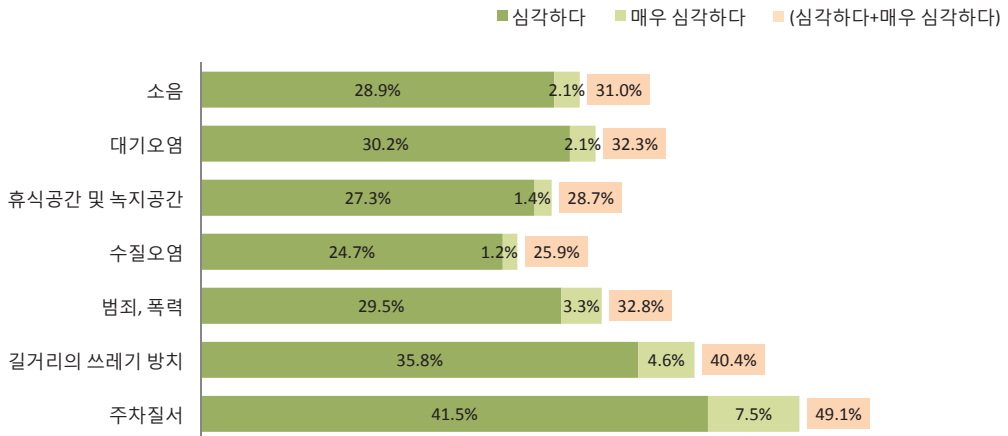
※ 사례수 30미만 제외

구별 보육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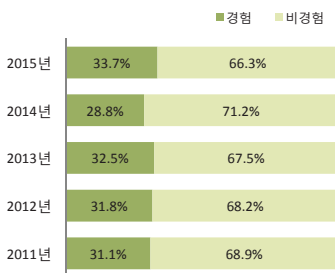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도는 주차질서(49.1%)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길거리 쓰레기 방치(40.4%), 범죄 및 폭력(32.8%), 대기오염(32.3%)의 순서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도(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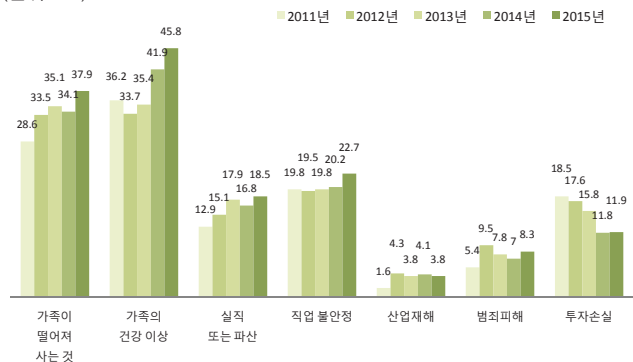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위험을 느낀 경험 비율은 33.7%로 전년(28.8%)대비 4.9%p 증가하여 2011년 최초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위험 유형으로는 가족의 건강이상이 45.8%로 가장 높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 (37.9%), 직업불안정(22.7%), 실직 또는 파산(18.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위험상황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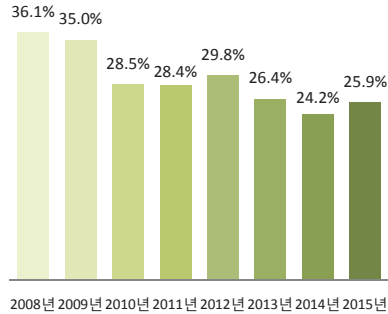
위험유형(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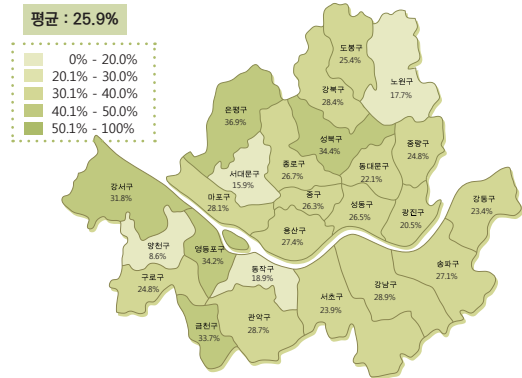


5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2013년 26.4%, 2014년 24.2%, 2015년 25.9%로 최근 3년간 25% 내외를 유지하며 현재 거주 지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계획 '있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은평구(36.9%), 성북구(34.4%), 영등포구(34.2%), 금천구(33.7%)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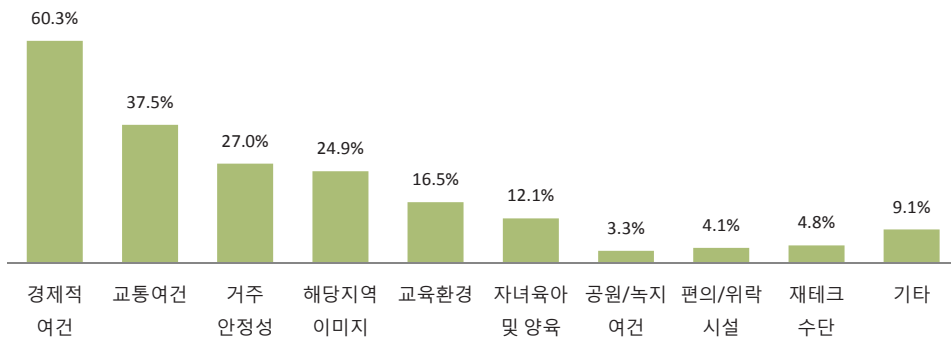


이사계획 있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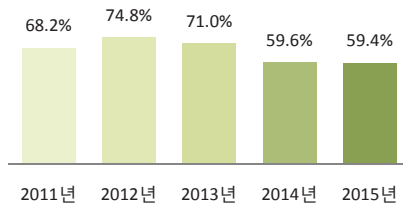
거주지 선택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중복응답)은 ‘경제적 여건’(60.3%)이었으며, ‘교통여건’(37.5%), ‘거주안정성’(27.0%), ‘해당지역 이미지’(24.9%)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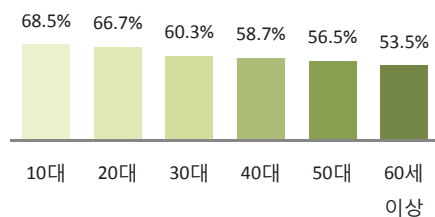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59.4%가 10년 후에도 서울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의 경우 68.5%, 20대의 경우 66.7%로 응답해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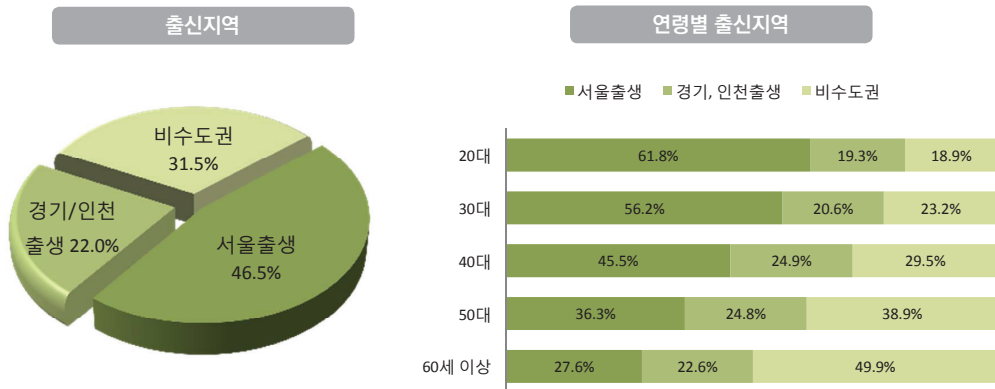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



연령별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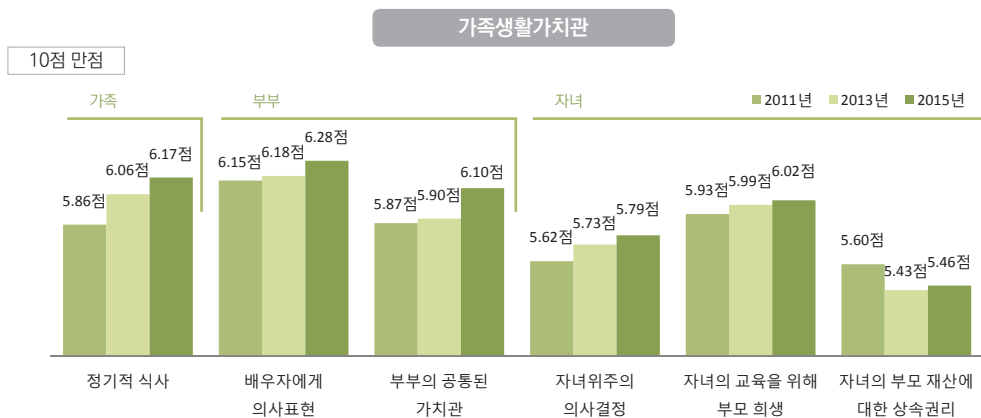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46.5%가 서울지역 출생자이며, 경기·인천지역 출생자 22%를 합하면 수도권 출생자가 68.5%에 이른다.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서울출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의 61.8%, 30대의 56.2%가 서울출생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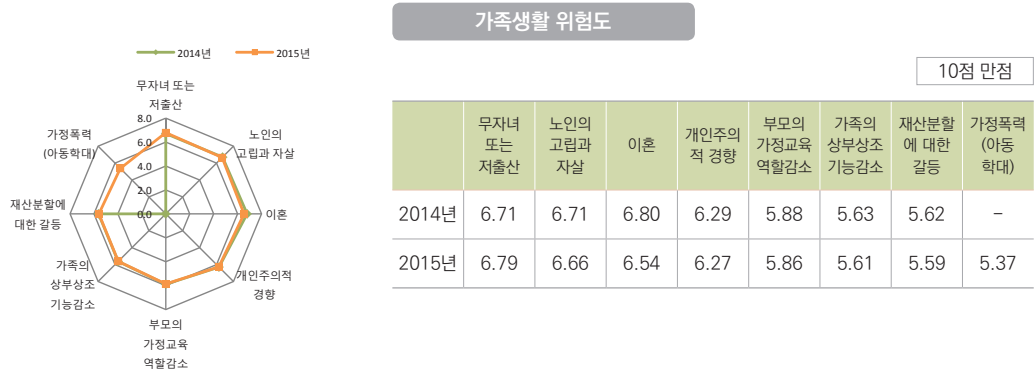
2. 서울의 일상생활

서울시민의 정기적인 가족 식사 정도는 10점 만점 기준 6.17점으로 지난 4년간 높아지는 추세이며, 부부 사이의 친밀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헌신적 태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들의 상속권리에 대해서는 5.46점으로 상대적으로 미온한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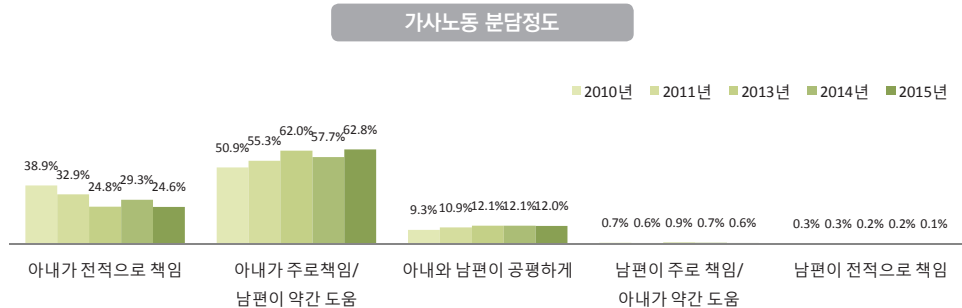


- 정기적 식사 :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한다.
- 배우자에게 의사표현 : 배우자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 부부의 공통된 가치관 : 우리부부는 생활방식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 자녀위주의 의사결정 : 우리 집은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때, 자녀를 위주로 결정하는 편이다.
-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 희생 : 우리 집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는 편이다.
- 자녀의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리 :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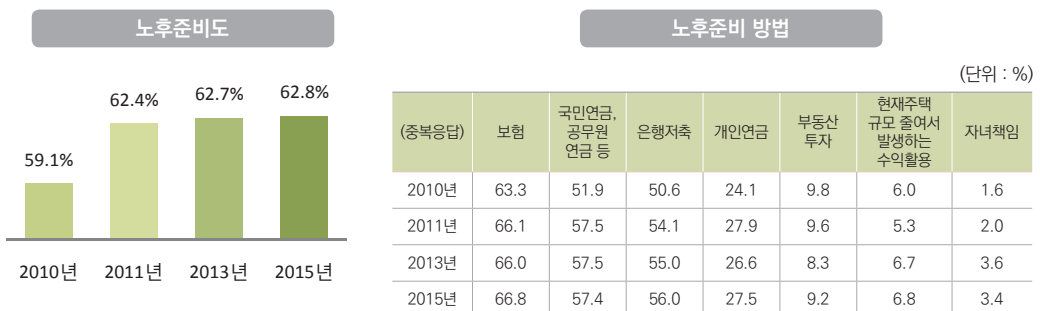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족생활의 위험요인으로 ‘무자녀 또는 저출산’이 6.79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의 고립과 자살(6.66점)’, ‘이혼(6.54점)’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는 5.37점으로 다른 위험인자에 비해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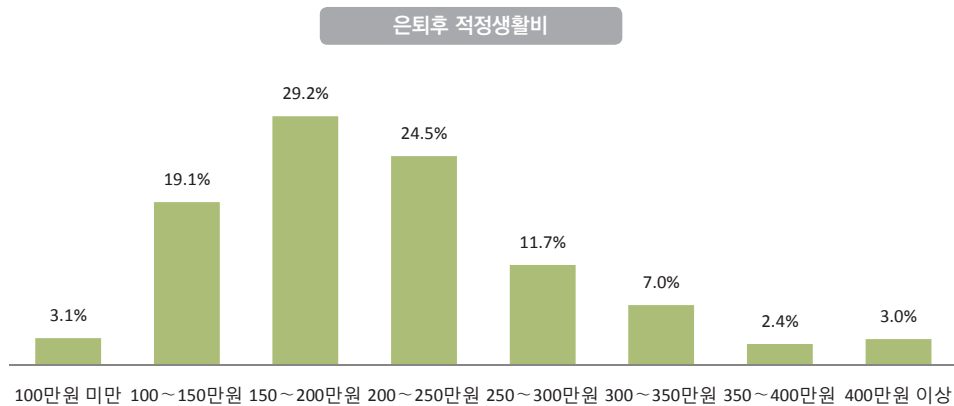
부부가구의 가사노동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라는 의견이 62.8%로 가장 높았고,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비율은 예년보다 낮아진 24.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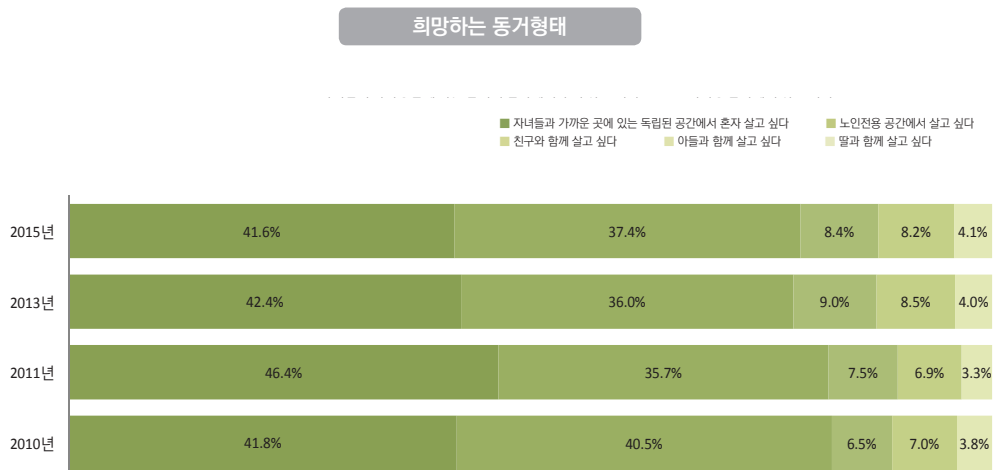
서울시민 10명중 6명(62.8%)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대비 3.7%p 상승하였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보험(종신, 암보험 등)이 66.8%로 가장 많았고,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57.4%), 은행저축(56.0%)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월 적정생활비는 '150만원~200만원 미만' 구간이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250만원 미만'(24.5%), '100~150만원 미만'(19.1%), '250~300만원 미만'(11.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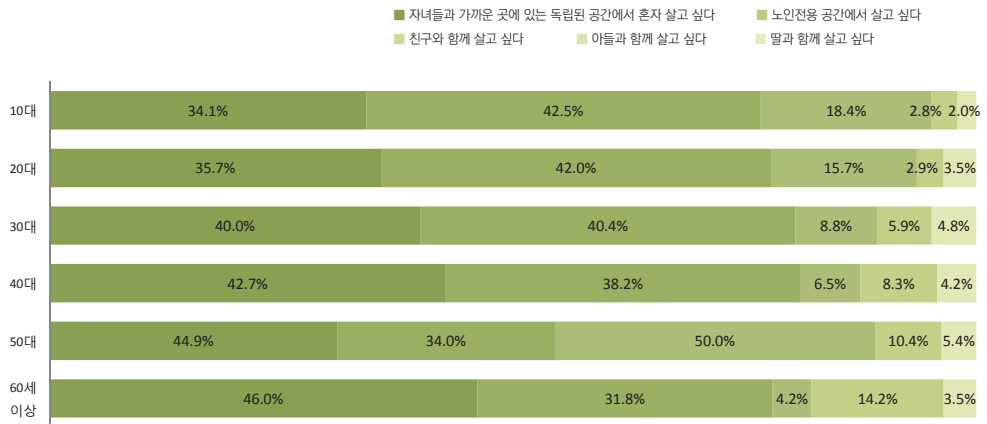


노인 10명중 4명(41.6%)은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 혼자 살고 싶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노인전용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비율은 37.4%로 2013년 대비 소폭 증가(1.4%p)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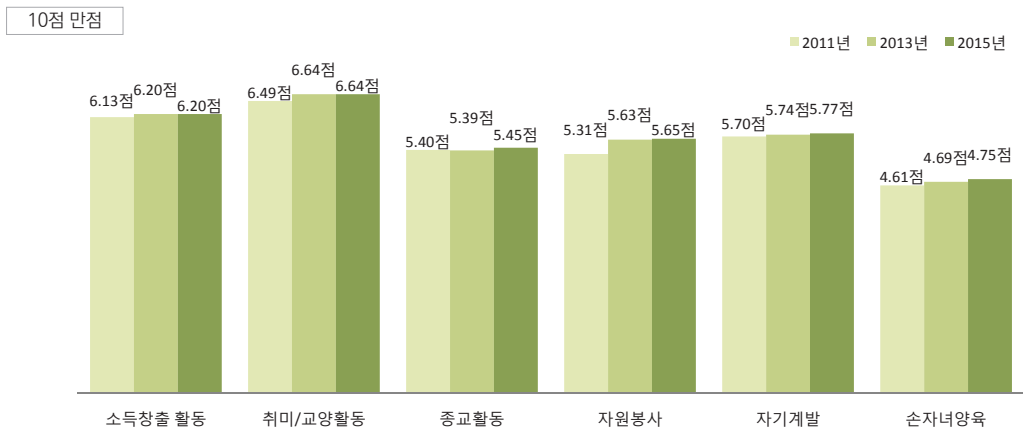
노후 주거형태에 대한 의견은 세대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10~30대는 노인전용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이상은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희망하는 동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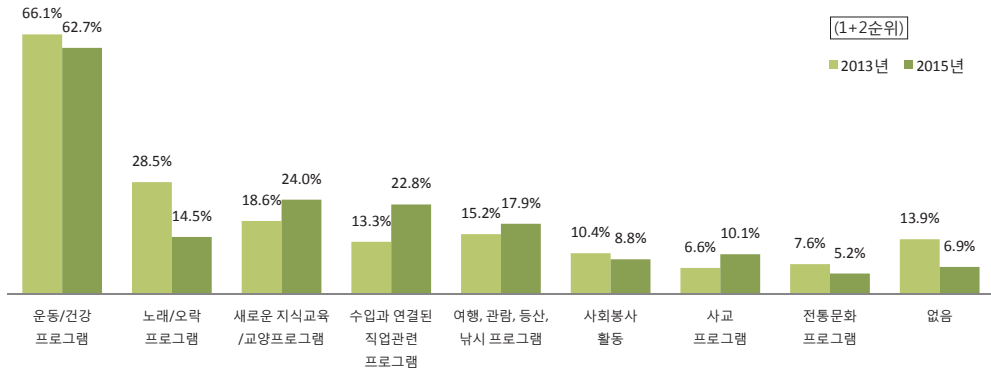
희망하는 노후 활동으로는 ‘취미/교양활동’이 6.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창출활동’이 6.2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기계발 활동(5.77점), 자원봉사활동(5.65점), 종교활동(5.45점) 또한 5점 이상으로 보통이상의 의지를 보이는 노후 활동들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노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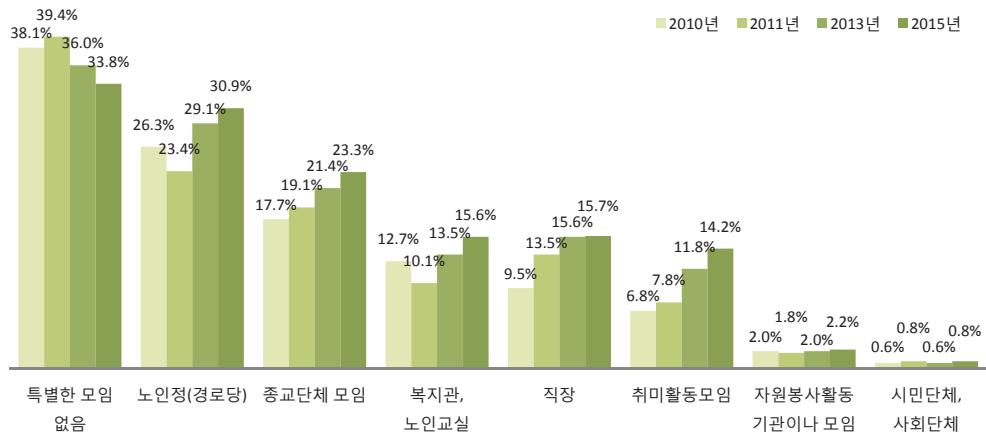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운동/건강 프로그램’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입과 연결된 직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22.8%로 2013년 대비 높은 증가(9.5%p)를 보였다.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노인 3명중 1명(33.8%)은 정기적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주로 노인정 (30.9%)과 종교단체 모임(23.3%)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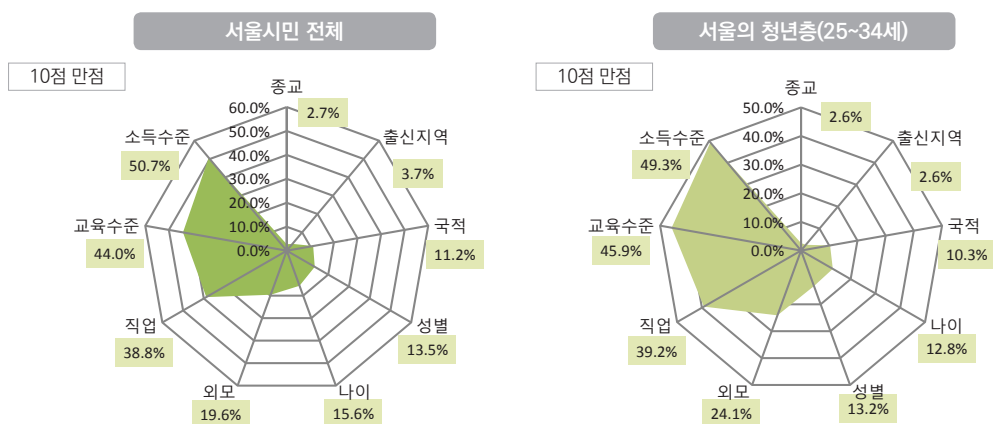
정기적 사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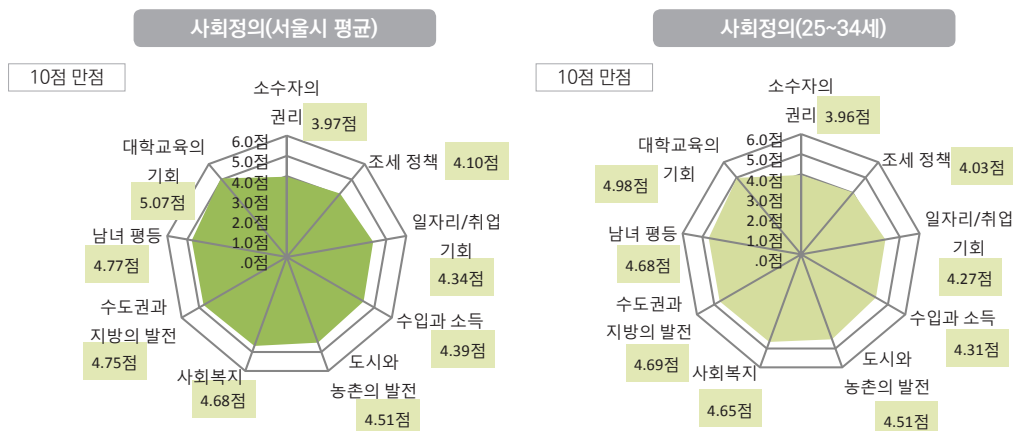
제2절 서울의 사회자본과 시민행복

1. 서울의 차별과 통합

서울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 받을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50.7%, 교육수준 44.0%, 직업 38.8%를 선택하여 경제사회적 요인을 우리사회의 주요 차별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대 좌절의식이 강한 청년층들은 전체 시민과 비슷한 의식수준을 보였지만 ‘외모’로 인한 차별(24.1%)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전체의 외모로 인한 차별 인식은 19.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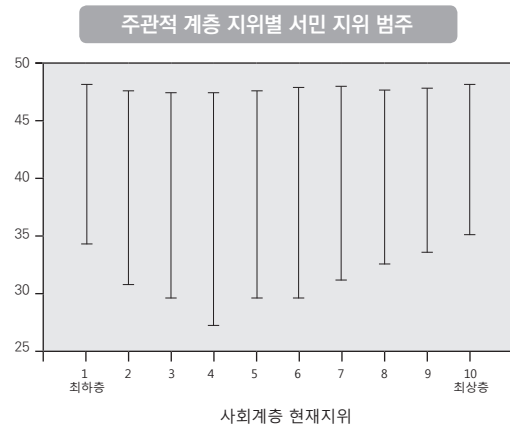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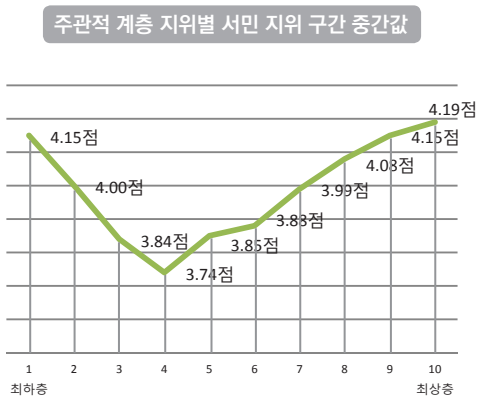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영역별 공평성 점수를 살펴보면 가장 공평한 영역으로 나타난 ‘대학교육의 기회’가 5.07점을 얻는데 그쳐 사회전반이 공평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녀평등’이 4.77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가장 공평하지 않은 영역으로 ‘소수자의 권리’(3.97점), ‘조세정책’(4.10점), ‘일자리취업회’(4.34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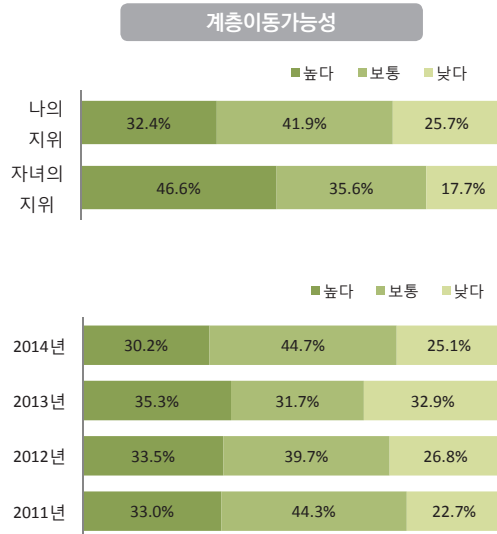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범주는 1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 제시했을 때 대략 3분위에서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3.00점부터 4.87점 사이의 사람들이 '서민'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본인의 지위를 10단계 중 중간층(4~7사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인지하는 '서민'은 자신들과 비슷하거나 한 단계 정도 낮은 계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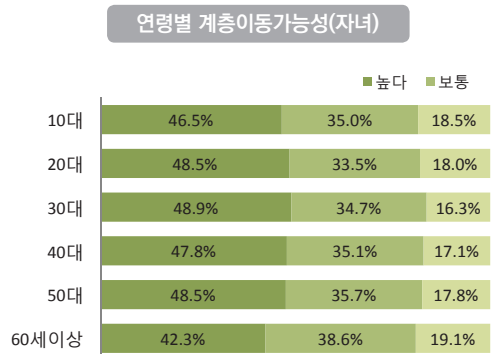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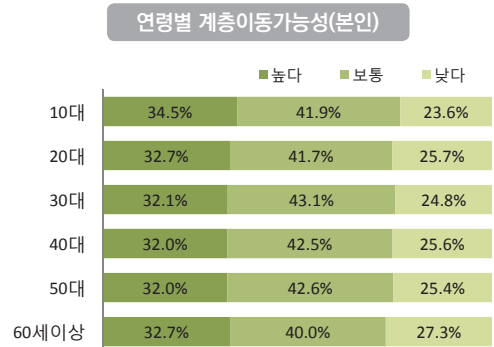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32.4%는 우리 사회에서 “나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으며, “나의 노력으로 내 자녀의 주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나(32.4%)보다는 자녀세대(46.6%)의 계층 상승가능성을 14.2%p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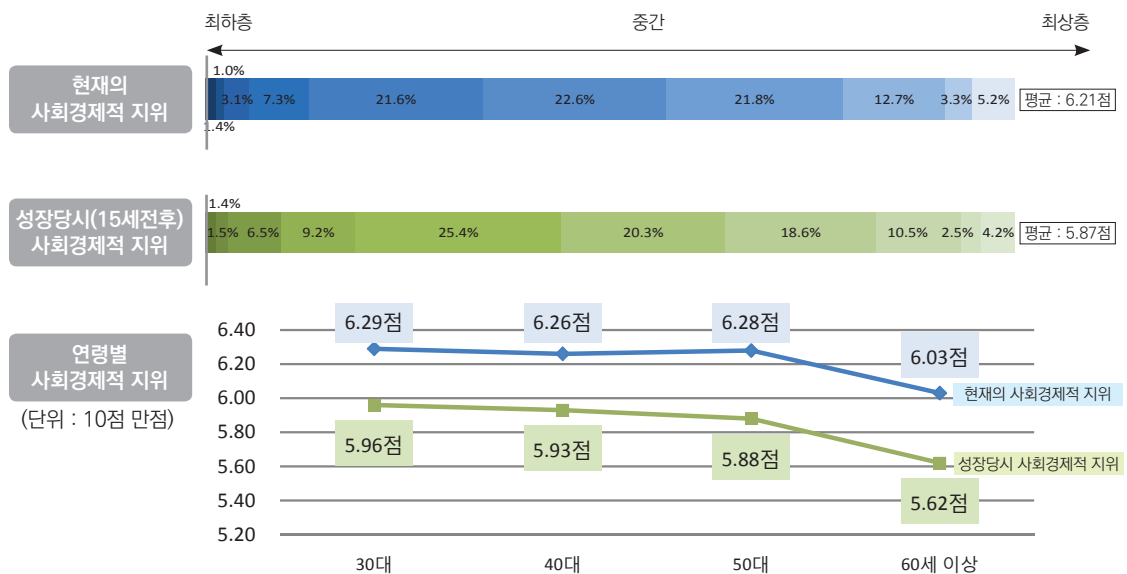


* 2015년 질문 : 우리사회에서 내가 노력하면, 나/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4년 이전 질문 :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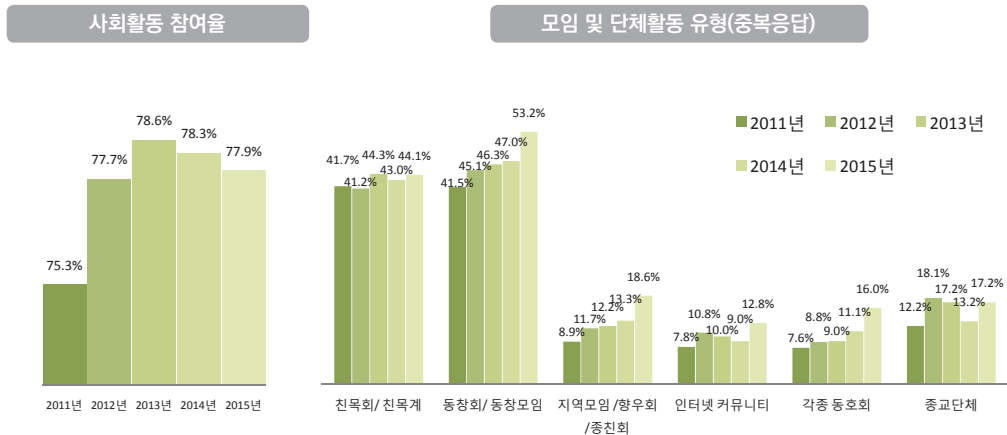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10점 만점 기준 6.21점으로, 성장 당시(15세 전후)의 사회경제적 지위점수 5.87점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의 사회지원망

서울시민의 77.9%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유형은 동창회/동창모임(53.2%, 중복응답)이 가장 많았고, 친목회/친목계(44.1%),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18.6%), 종교단체(17.2%), 각종 동호회(16.0%)의 순서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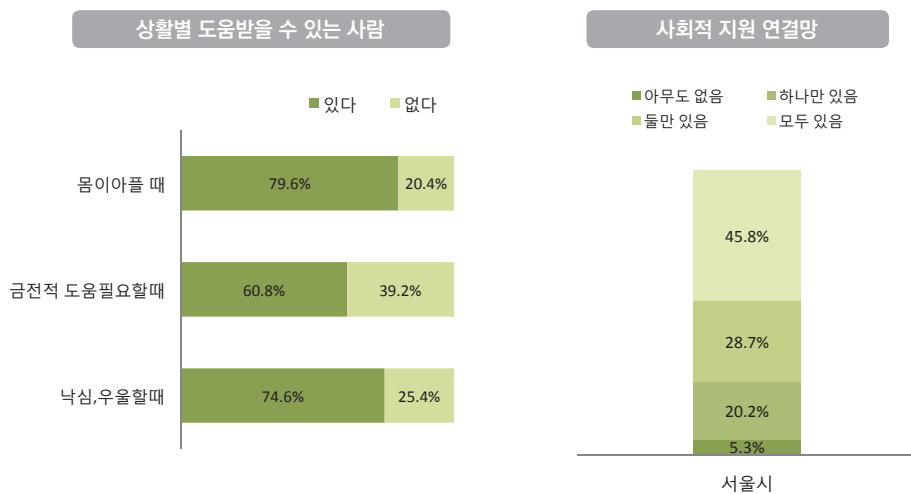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 비율은 10대 22.1%, 20대는 21.9%, 각종 동호회 참여 비율은 10대 17.7%, 20대 16.5%로 나타나 젊은층은 동창모임 외 각종 동호회와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창회/동창모임 참여 비율은 30대 63.9%, 40대 64.0%, 50대 57.5%로 나타나 중년이상층은 동창모임 중심의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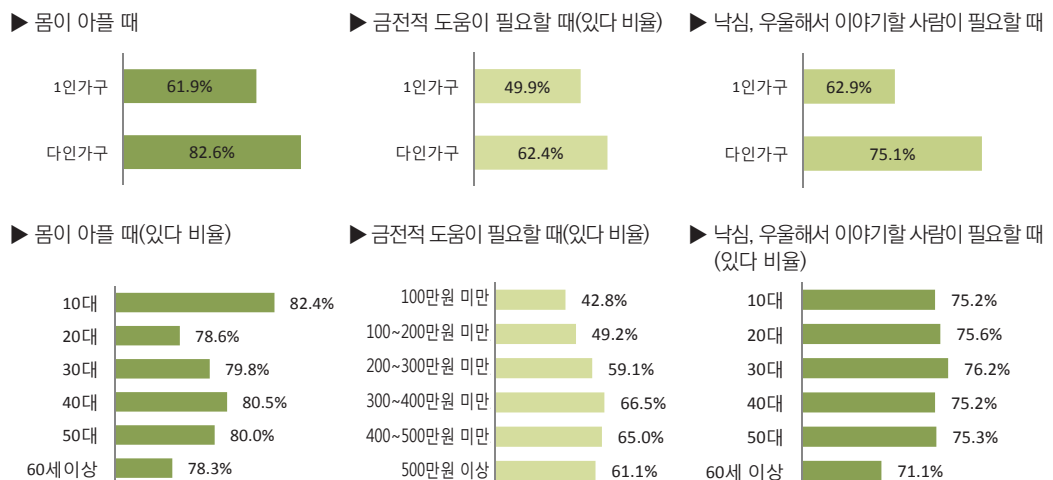
연령별 모임 및 단체 활동 유형

	동창회 /동창모임	친목회 /친목계	지역모임 /향우회 /종친회	종교 단체	각종 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	자원봉사 단체	노조 및 직능 단체	시민운동 단체	정당	참여한적 없다
10대	44.5%	16.6%	6.4%	11.6%	17.7%	22.1%	2.7%	0.9%	0.4%	0.2%	37.4%
20대	42.9%	16.1%	6.9%	12.5%	16.5%	21.9%	3.1%	0.9%	0.7%	0.2%	38.6%
30대	63.9%	38.6%	14.0%	16.7%	19.4%	15.5%	2.1%	1.7%	0.8%	0.3%	16.3%
40대	64.0%	56.0%	22.0%	19.6%	16.9%	10.6%	3.3%	2.1%	1.1%	0.6%	11.7%
50대	57.5%	63.1%	30.1%	21.7%	15.8%	8.1%	2.9%	2.3%	1.1%	1.2%	13.6%
60세 이상	41.1%	51.7%	22.6%	17.0%	11.4%	6.7%	2.0%	0.7%	0.6%	0.4%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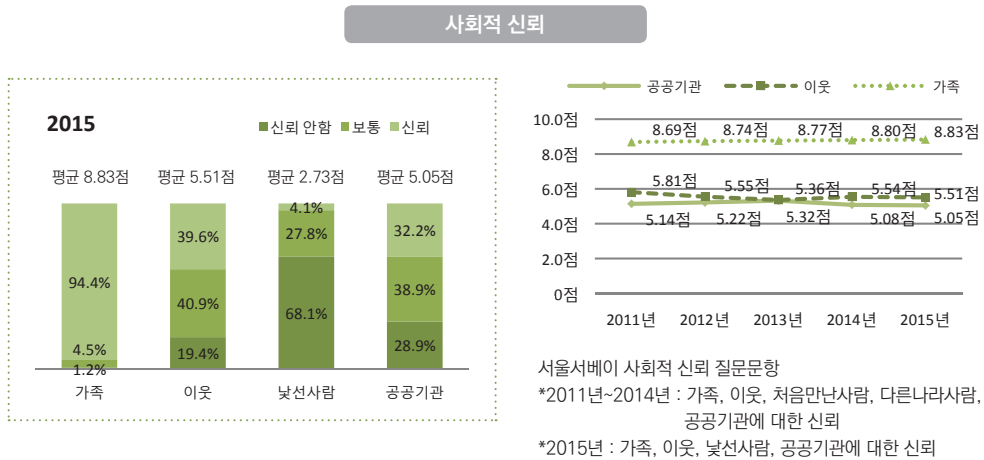
서울시민 중에서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79.6%로 조사되었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비율은 74.6%,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는 비율은 60.8%, 돈을 빌려 줄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은 39.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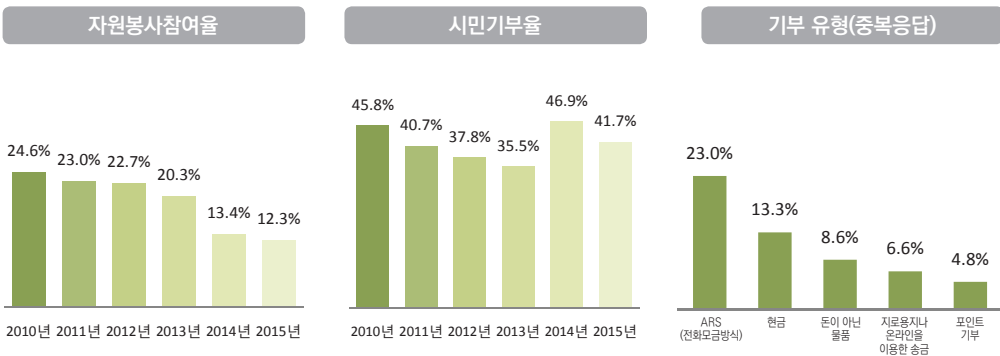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1인가구 61.9%, 다인가구 82.6%,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는 비율은 1인가구 49.9%, 다인가구 62.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비율은 1인가구 62.9%, 다인가구 75.1%로 나타나,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도움을 줄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소득가구에서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는 비율은 50%이하로, 저소득층의 금전적 도움 지원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가족신뢰는 지난 5년 간 8점~9점 사이(2010년 8.69점, 2015년 8.83점, 10점 만점 기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웃신뢰는 5점대 중·후반, 공공기관 신뢰도는 5점대 초반으로(2015년 이웃신뢰 5.51점, 공공기관신뢰 5.05점) 지난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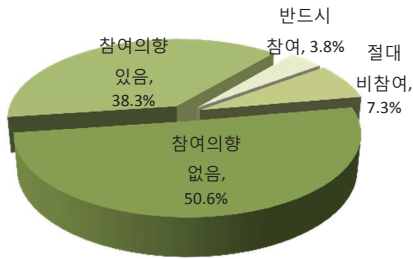


서울시민들의 기부율은 2015년 41.7%로 2014년 46.9%보다 낮아졌고,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12.3%로 2010년 24.6%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행위 유형은 ARS(23.0%)와 현금직접기부(13.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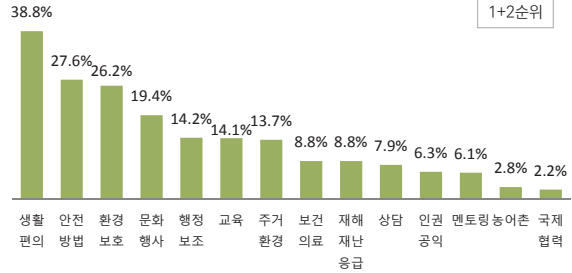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42.1%(반드시 참여 3.8%+참여의향 있음 38.3%)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생활편의'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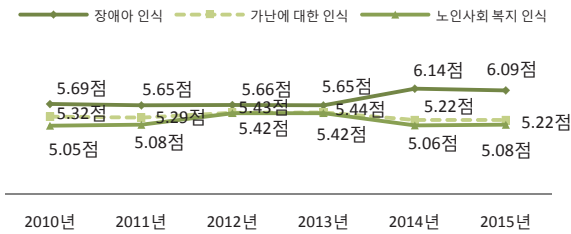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



1+2순위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에 대한 동의 정도는 10점 만점 기준 5.08점으로 전년(5.06점)과 비슷하고 ‘보통’ 수준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 ‘가난이 사회제도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5.22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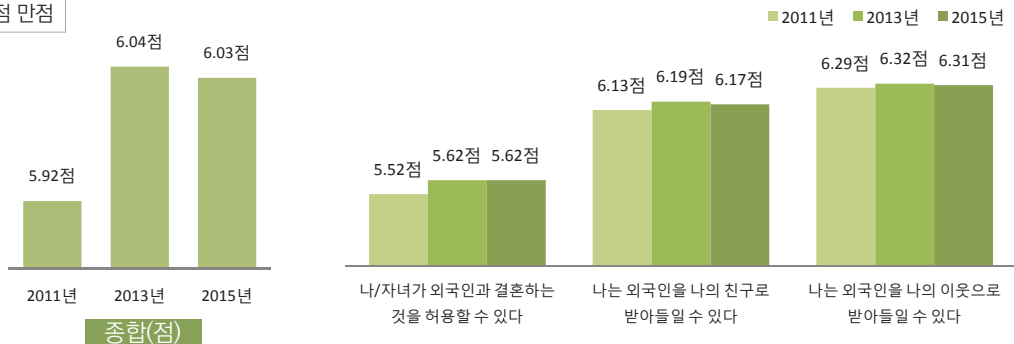
연령별 공동체 의식

10점 평균 (점)	장애아 인식	가난에 대한 인식	노인사회 복지 인식
10대	6.17점	5.34점	5.06점
20대	6.18점	5.33점	4.96점
30대	6.14점	5.28점	4.95점
40대	6.14점	5.24점	5.13점
50대	6.05점	5.13점	5.17점
60세 이상	5.94점	5.09점	5.1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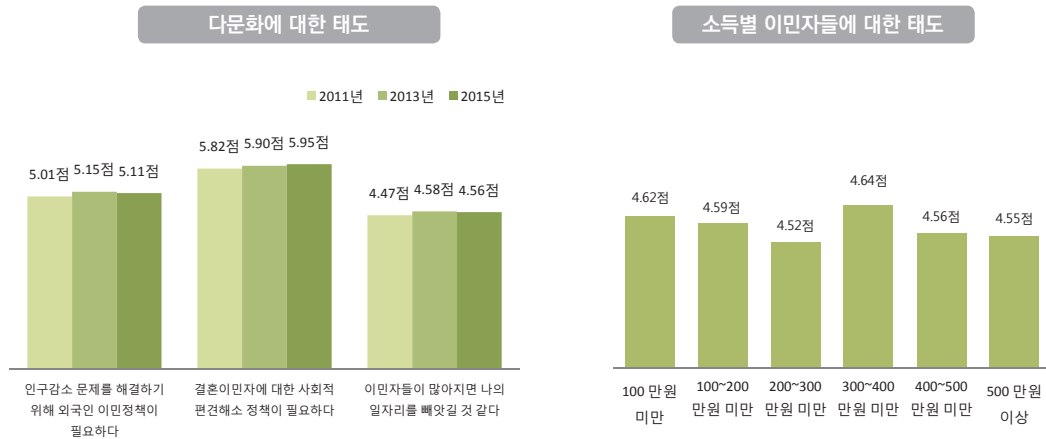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정도(종합)는 10점 만점 기준 6.03점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6.31점, ‘친구로 수용’ 6.17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허용’ 5.62점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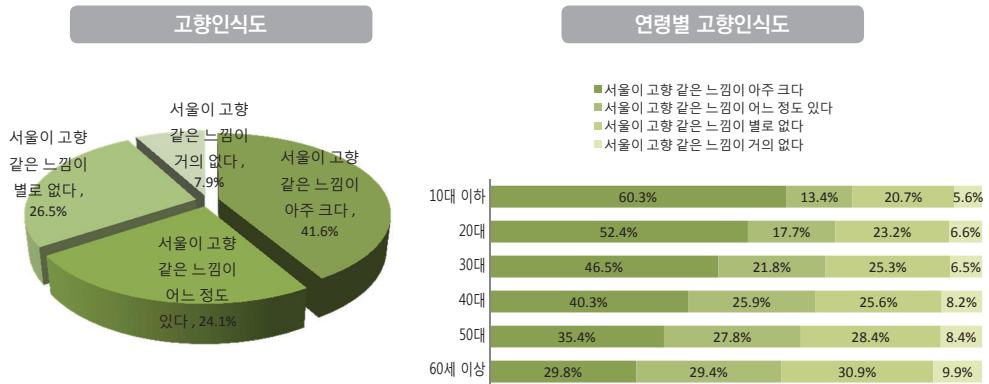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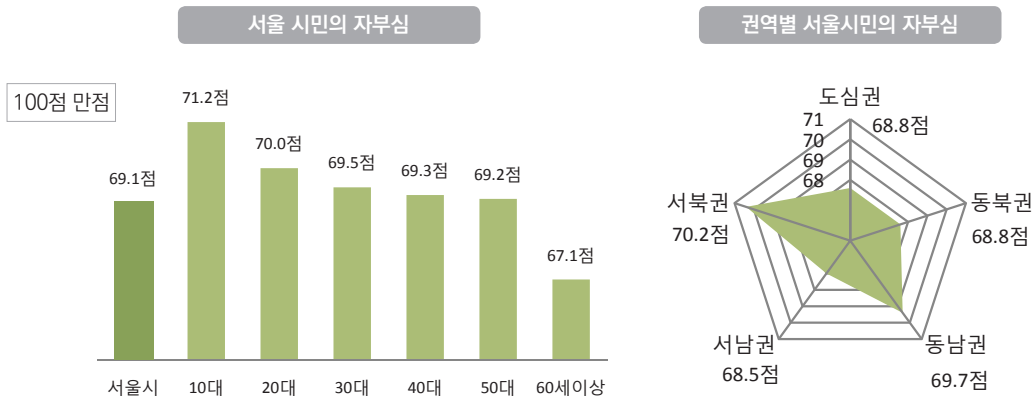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 중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동의정도가 평균 5.95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정도는 5.11점으로 보통 정도의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 의식은 낮은 편(동의정도 4.56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 중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동의정도가 평균 5.95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정도는 5.11점으로 보통 정도의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 의식은 낮은 편(동의정도 4.56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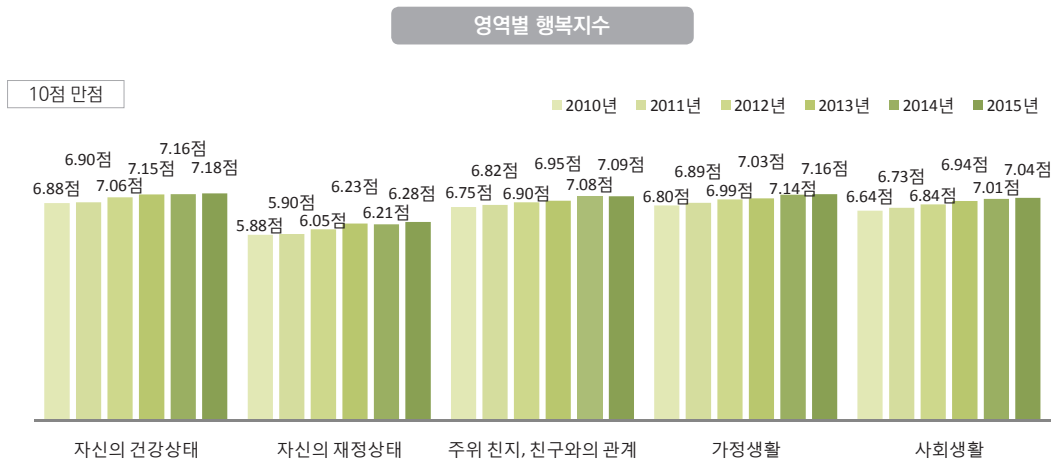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100점 만점 기준 69.1점으로, 10대 71.2점, 20대 70.0점, 30대 69.5점, 40대 69.3점, 50대 69.2점, 60세 이상 67.1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부심이 높고, 40대 이후부터 평균이하의 자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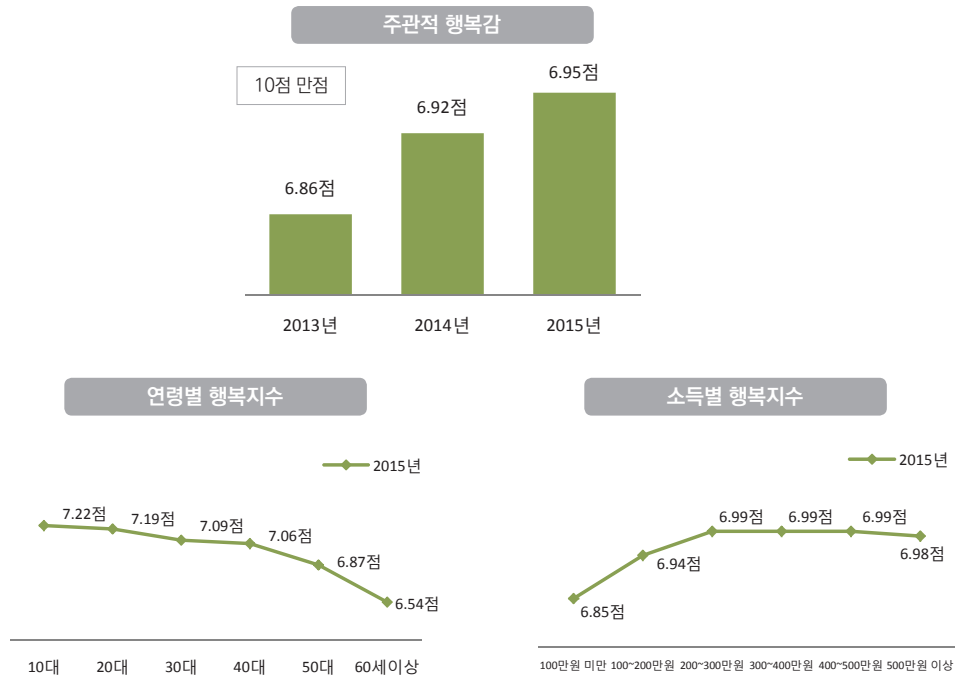


3. 서울시민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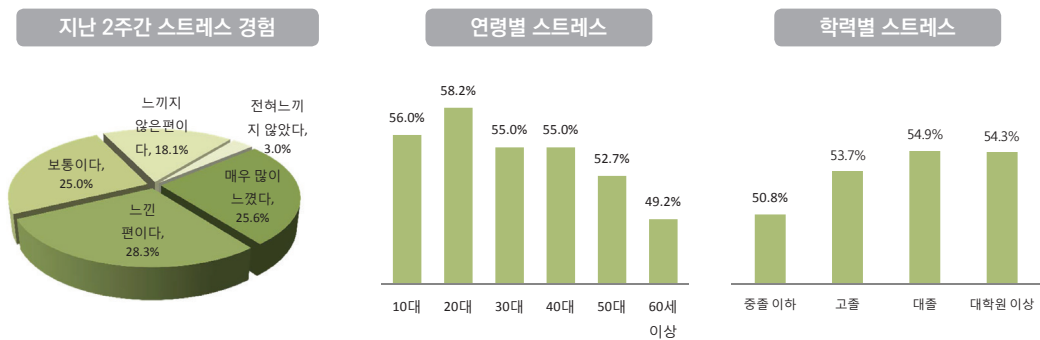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7.18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정 생활 만족도(7.16점)와 친구관계 만족도(7.09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상태 만족도는 6.2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2015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의 주관적 행복점수는 6.95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40대까지는 7점대였다가 50대부터 6.87점, 60대 이상 6.54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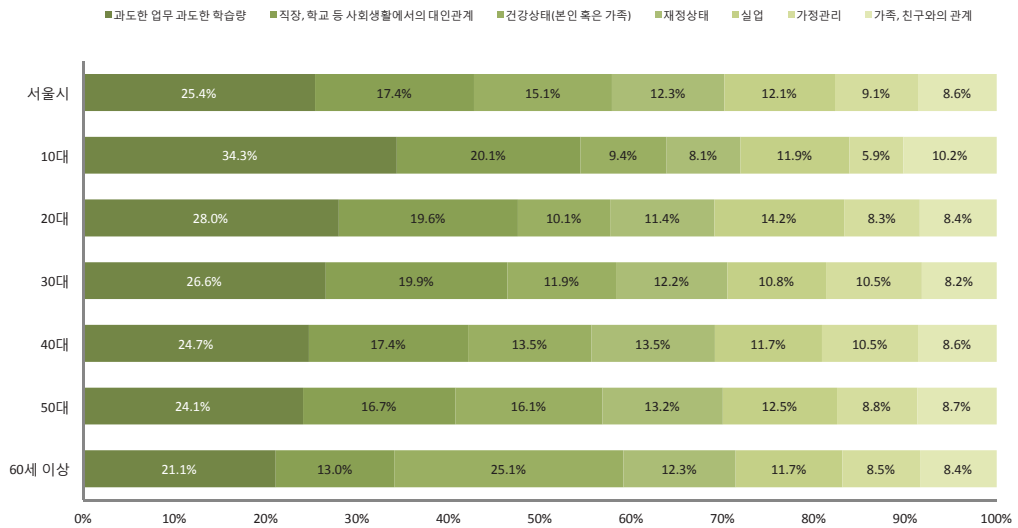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매우 많이 느낀다’ 25.6%, ‘느낀 편이다’ 28.3%로 전체 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58.2%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민의 4명중 1명(25.4%)은 과도한 업무와 학습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업무와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이 크고, 고령층은 건강상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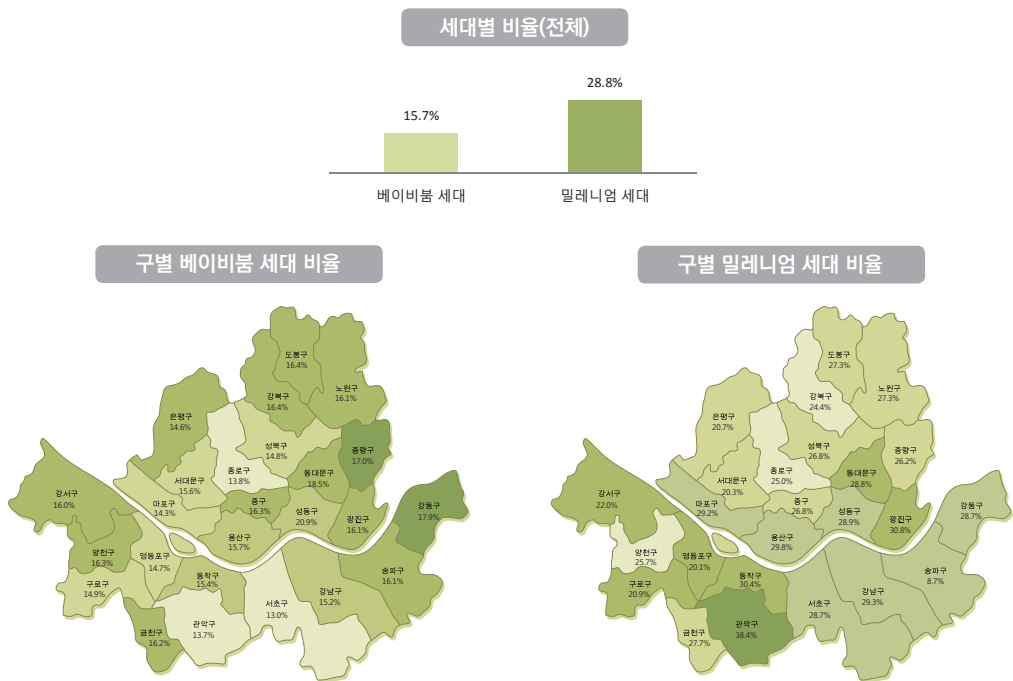
연령별 지난 2주간 스트레스의 요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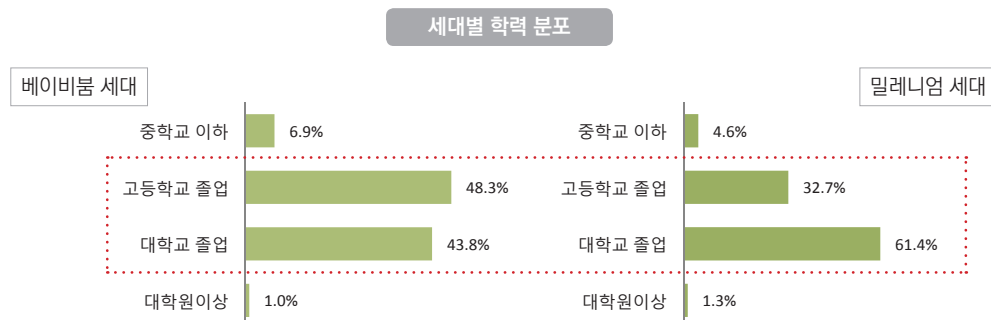
제3절 서울의 세대와 서울거주 외국인

1.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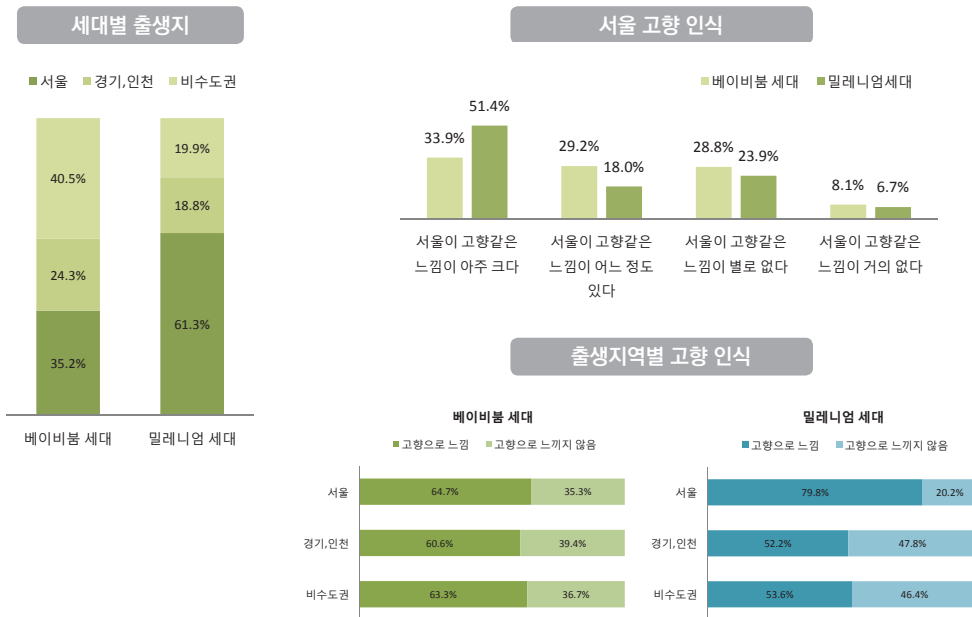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는 서울인구의 15.7%로 강동구(17.9%)와 중랑구(17.0%)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밀레니엄 세대(1981~1997년생)는 서울인구의 28.8%로 관악구(38.8%), 강서구(32.3%), 광진·구로구(30.9%)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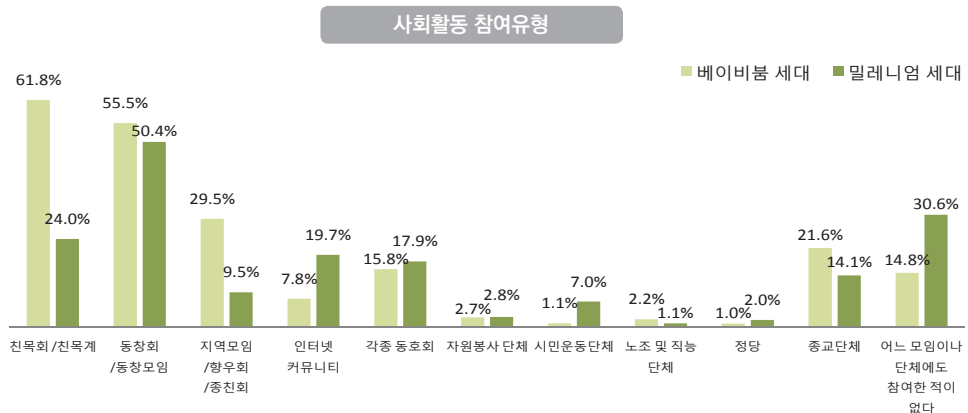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세대의 48.3%는 고졸 학력이었으나, 밀레니엄 세대의 61.4%가 대졸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밀레니엄 세대의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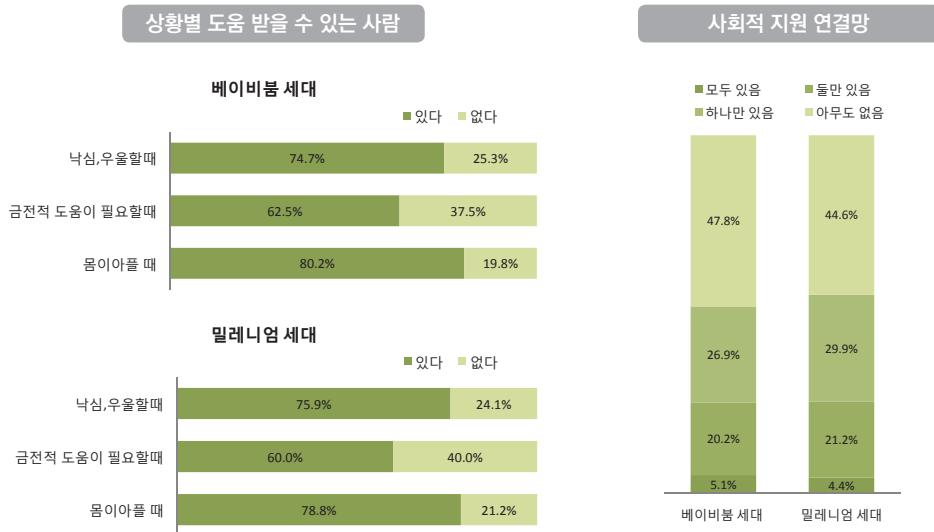
밀레니엄 세대 중 비수도권 출생자는 19.9%인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40.5%가 비수도권 출생자로 나타났다.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는 비율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63.1%, 밀레니엄 세대는 69.4%로 나타나 출생지에 따른 고향인식 차이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간이 조금 더 고향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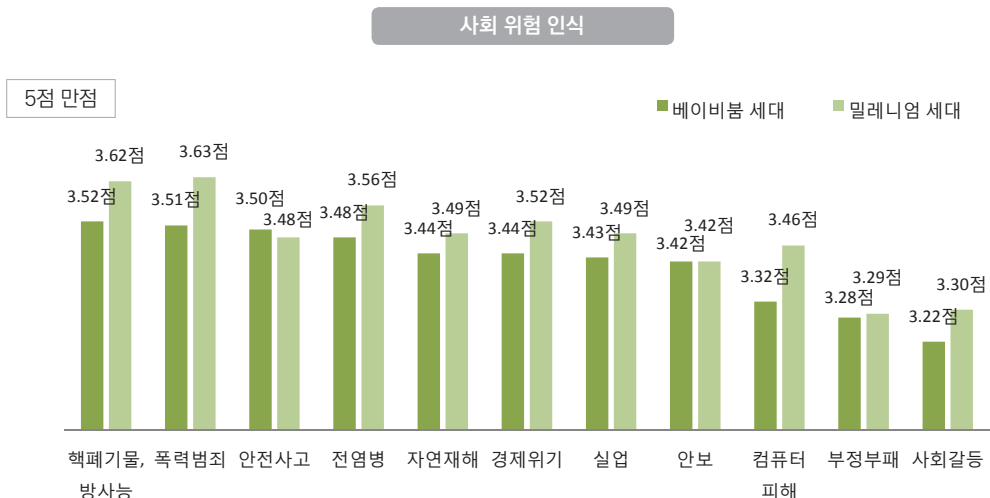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세대는 주로 친목모임(61.8%)과 동창모임(55.5%)을 통한 사회활동이 많고, 밀레니엄 세대는 주로 동창모임(50.4%)을 통한 사회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밀레니엄 세대는 30.6%로 베이비부머 세대(14.8%)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친목모임, 지역모임,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참여비율은 세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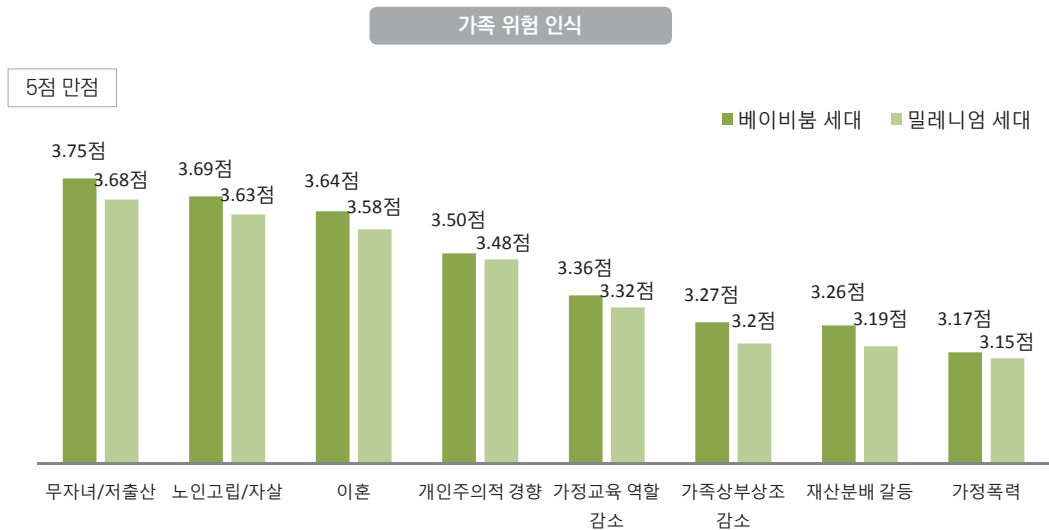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와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다’라는 응답은 베이비부머 세대(80.2%, 62.5%)가 밀레니엄 세대(78.8%, 6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라는 응답은 밀레니엄 세대(75.9%)와 베이비부머 세대(74.7%)가 비슷했다.



현대사회의 위험요인에 따른 피해 정도에 대해, 밀레니엄 세대는 안전사고와 안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베이비부머세대보다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피해, 핵폐기물/방사능, 폭력 범죄에서 밀레니엄세대가 베이비부머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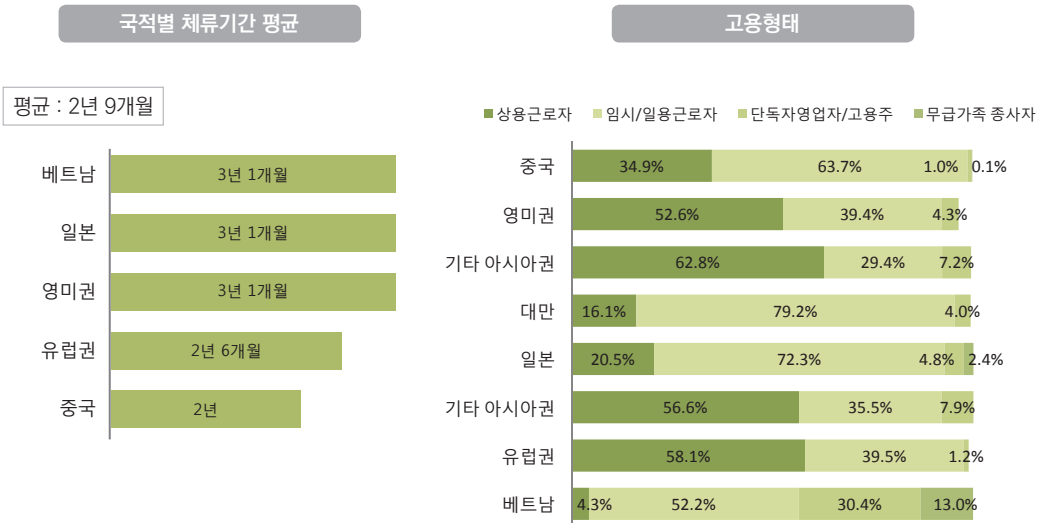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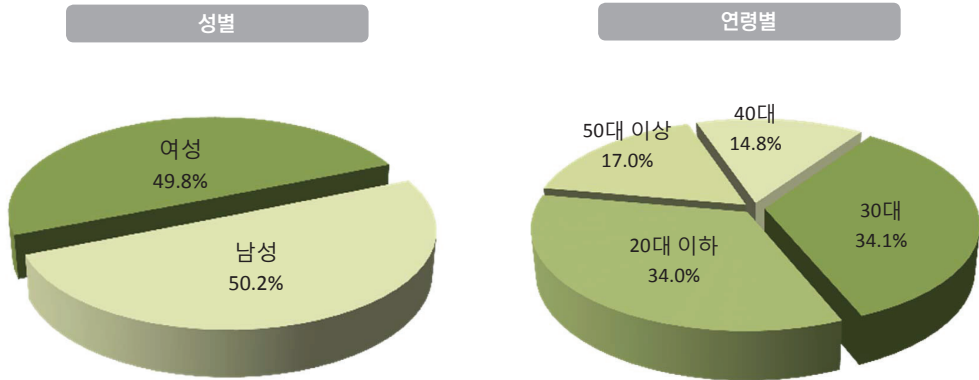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가족 위험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기준 ‘무자녀/저출산’에서 각 3.75점과 3.68점, ‘가족상부상조 감소’에서 각 3.27점과 3.20점, ‘재산분배 갈등’에서 각 3.26점과 3.19점으로 나타나 두 세대의 위험 인식 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 큰 편으로 나타났다. 가족 위험요인 중 ‘개인주의적 경향’과 ‘가정 폭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두 세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거주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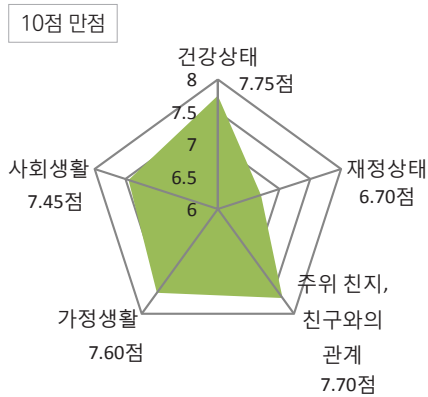
서울거주 외국인 응답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2년 9개월로 나타났으며, 여성(49.8%)보다는 남성(50.2%)이 많고, 연령별로는 30대(34.1%), 20대 이하(34.0%)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거주 외국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7.75점, 10점 만점기준), 주위 친지와 친구관계(7.70점), 가정생활(7.60점) 순으로 주관적 만족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역별 주관적 만족감 정도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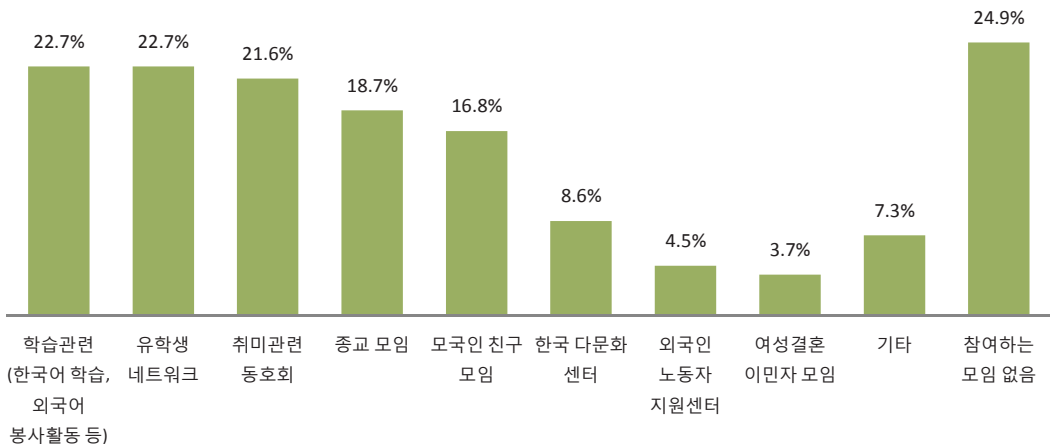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중국	7.94	6.82	7.81	7.89	7.48
일본	7.29	6.13	7.47	7.34	7.10
대만	7.38	6.40	7.41	7.54	7.14
베트남	7.65	6.34	7.44	7.54	7.29
기타아시아권	7.52	6.25	7.42	7.36	7.26
영미권	7.81	7.23	7.99	7.55	7.89
유럽권	7.87	6.81	7.99	7.32	7.41
기타	7.89	6.78	7.50	7.13	7.55

서울거주 외국인 응답자의 24.9%가 정기적 모임 없이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학습관련모임(22.7%), 유학생네트워크(22.7%), 취미관련 동호회(21.6%) 순으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현황

주 : 중복응답



제3장

2016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영역별 세부 분석

제 1 절 인구와 가구

제 2 절 경제

제 3 절 도시발전과 주거

제 4 절 문화

제 5 절 관광

제 6 절 복지

제 7 절 여성과 가족

제 8 절 환경

제 9 절 교통

제10절 정보와 지식

제11절 안전과 재난

제12절 가치와 의식

제3장 2016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영역별 세부 분석

제1절 인구와 가구

1. 서울평균인

1) 요약 및 정책제안

고령화의 가속화와 미혼인구 증가

지난 5년 간 서울시민의 평균연령은 2.4세 늘어난 40.6세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연령(40.5세)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서울시민의 평균연령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시민 가운데 혼인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혼 인구 증가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 시민 가운데 기혼인구의 비율은 65.3%로 2014년에 비해 1.9%p 감소하였으며 미혼인구의 비율은 2.2%p 증가한 16.5%를 차지하고 있다. 미혼인구의 증가는 1인가구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데 2015년 미혼 1인가구는 전체의 53.9%로 이혼 및 사별로 인한 1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1인가구를 성별로 나누어 봤을 때 남성 1인가구 중 미혼 1인가구가 64.3%, 여성 1인가구 중 미혼 1인가구가 43.3%로 남성 미혼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0대와 60대 이상 1인 가구 증가

지난 10년간 서울의 가구형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은 1인가구이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인가구는 29.5%로 지난 5년 동안 5%p 이상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서울 25구 가운데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이다. 관악구민의 40.9%가 1인가구로 집계되며, 종로구와 중구에서도 각각 32.7%, 30.8%로 1인가구 비율이 30%를 웃돌고 있다. 서울의 가구형태 중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증가현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1인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30대 1인가구가 20.7%에서 29.3%로 크게 증가하였고 60대 이상 1인가구도 2015년을 기준으로 30.6%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남성 1인가구의 경우 30대가 34.6%로 가장 많고 여성 1인가구 중에는 60대 이상이 39.1%로 가장 높다. 다시 말하면 서울의 1인가구는 30대 남성과 60대 이상의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평균거주기간 감소

서울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에서 거주하

는 기간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15년 서울시민의 서울 평균 거주기간은 29.0년으로 나타난다. 서울 시민의 서울 평균 거주기간은 2005년 26.3년을 시작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왔고 2014년에는 30.7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2014년보다 1.7년 줄어든 29.0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몇 년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민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고령화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미혼 1인가구이거나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 사는 1인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가구인 서울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인가구는 가족이란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가구로서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다. 1인가구의 직업구성을 보면 다른 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사무종사자나 전문직, 관리직 등 비교적 보수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고, 무직인 경우도 그 외의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이 불안정하여 서울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하거나 서울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1인가구가 30대와 60대 이상의 인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0대 미혼 1인가구 문제는 결혼기피, 만혼화, 출산율저하 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60대 이상의 1인가구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 문제와 떼어놓을 수 없다.

서울의 인구구성 현재적 변화와 중장기적 변화를 고려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인구와 가구는 시정 방향과 정책설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서울시는 인구 총량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구성적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 이상)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그 비율이 11.3%에 달하였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5). 2026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할 고령 인구의 수는 31.4명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 2000년의 10.2명에 비해 세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고령 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이 26년 사이 세 배로 가중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와 밀레니엄 세대(1981~1997, 2015년 기준 18~34세 연령집단)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인구부양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출생 코호트이다. 2026년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사회적 피부양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이들의 부양을 가장 많이 책임지게 될 코호트가 바로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이다. 전국의 밀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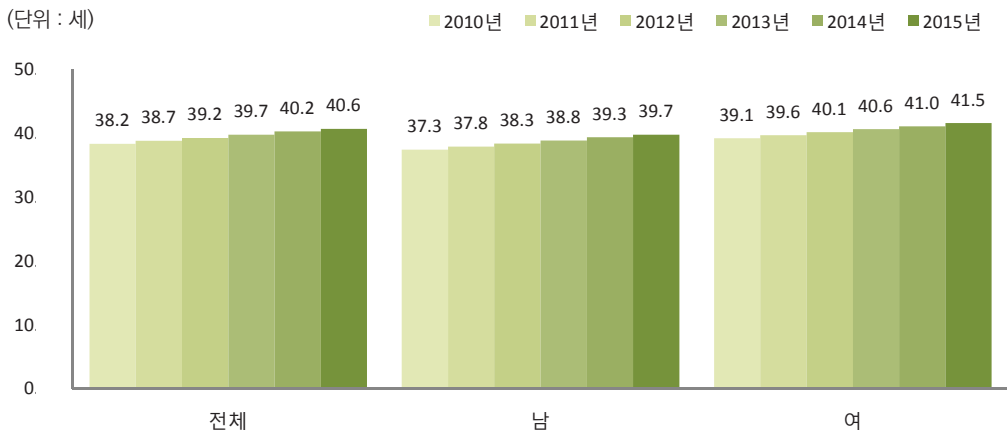
업 세대는 총 1,18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 서울의 밀레니엄 세대는 총 255만 여명으로 서울 인구의 25.4%에 달한다(2015년 기준). 특히 청년세대를 포함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주거, 결혼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서울의 인구문제가 야기할 정책이슈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또한 나이들어 가고 있다. 2005년 서울의 중위연령은 34.1세였다. 2040년 서울의 중위연령은 한국 나이로 52세. 50대 청년의 시대가 다가온다. 더욱이 65세 이상 가구주가 2035년에는 서울 가구의 38.3%를 차지한다. 이는 단순한 고령화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2040년 서울의 중앙을 차지할 세대는 현재 기준 25~26세 사이의 청년세대이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세대가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1차적으로 주거문제이지만 이들의 경제활동 공간은 서울이다. 따라서 서울의 총량적 인구는 줄지만 중간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서울의 인구정책 입안에서 생활권 단위로서 수도권을 실제적으로 고려해서, 통학권, 생활권 등 여러 차원에서 지역연계를 통해 인구기반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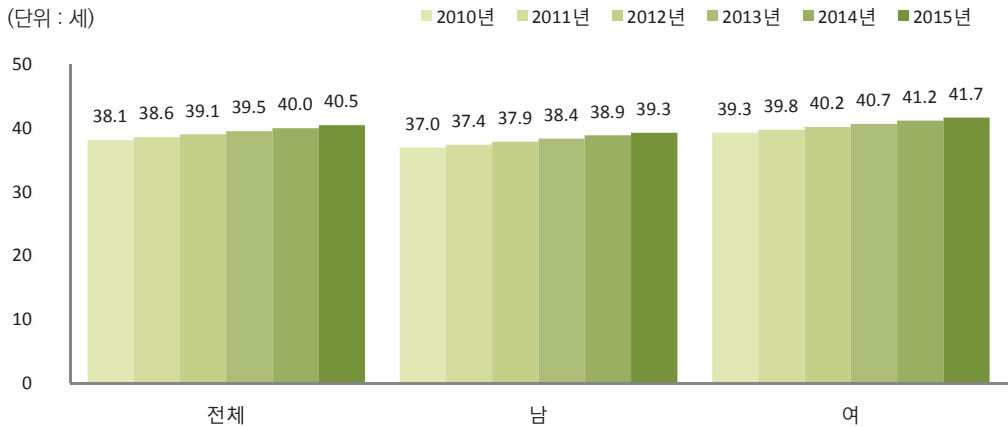
2) 지표설명

• 평균연령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평균연령은 지난 5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균연령의 증가 경향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평균연령은 전국의 평균연령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연령이 40.5세인데 반해, 서울은 40.6세이다.



| 그림 3-1 | 평균연령(서울)



| 그림 3-2 | 평균연령(전국)

평균연령의 변화를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국 남성의 평균연령은 2.3세, 서울 남성의 평균 연령은 2.4세 증가하였고, 여성의 평균연령은 전국과 서울 모두 2.4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연령의 변화량은 성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성별 평균연령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여성의 평균연령은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이 41.7세, 서울이 41.5세로 남성의 평균연령(전국 39.3세, 서울 39.7세)보다 두 살 정도 높게 나타난다.

서울의 성별 평균연령을 전국 평균연령과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서울의 평균연령이 39.7세, 전국의 평균연령이 39.3세로 서울의 평균연령이 전국 평균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서울의 평균 연령이 41.5세, 전국 연령평균이 41.7세로 전국 평균연령이 서울 평균연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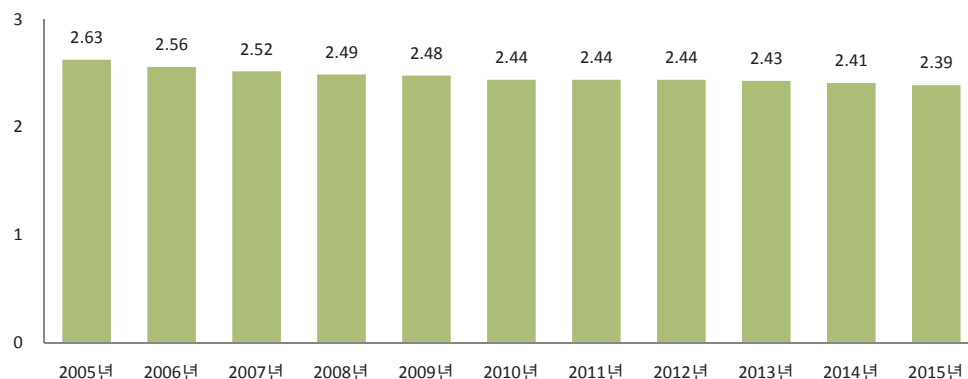
• 평균 가구원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5년 가구별 인구수는 2.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가구별 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나타나는 가구원 수 감소흐름이다. 2005년에 2.63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매년 감소하다가 2008년 처음으로 2.5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2.44명까지 감소하였다. 둘째,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나타난 정체흐름이다. 2010년 2.44명까지 감소한 평균 가구원 수는 2012년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셋째, 2013년부터 다시 나타난 감소추세이다. 2012년까지 2.44명으로 유지되던 평균 가구원수는 2013년 2.43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처음으로 2.39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평균 가구원의 감소추세는 기혼가구의 합계출산율의 저하뿐만 아니라 만혼과 비혼으로 대표되는 젊은 층의 1인가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층 부부가구, 독거노인으로 대표되는 고령층 1인가구의 증가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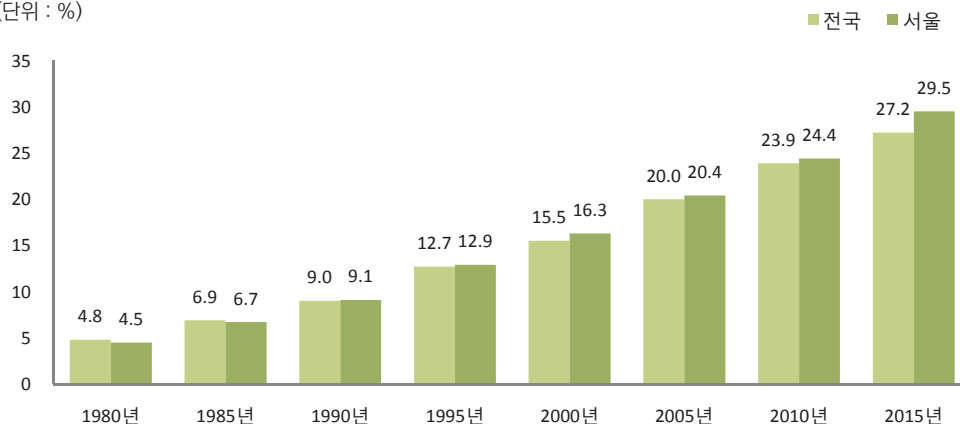


| 그림 3-3 | 세대당 인구수

• 1인가구 비율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29.5%에 달한다.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1980년 4.5%, 1990년 9.1%, 2000년 16.3%, 2010년 24.4%로 지난 30년 간 20%p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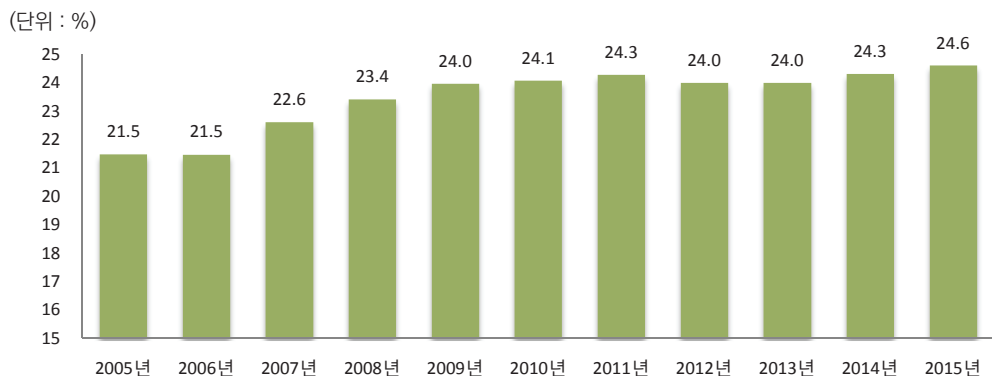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4 | 1인가구 비율(통계청)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1인가구와 전국 1인가구의 비율이 변화한 양상을 비교해보면 1980년에는 서울의 1인가구가 4.5%, 전국의 1인가구가 4.8%로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이 서울의 1인가구 비율보다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전국이 9.0%, 서울이 9.1%로 서울의 1인가구가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 1인가구와 서울 1인가구 비율의 차이도 점점 커져 2015년에는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이 29.5%,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이 27.2%로 서울에서 2.3%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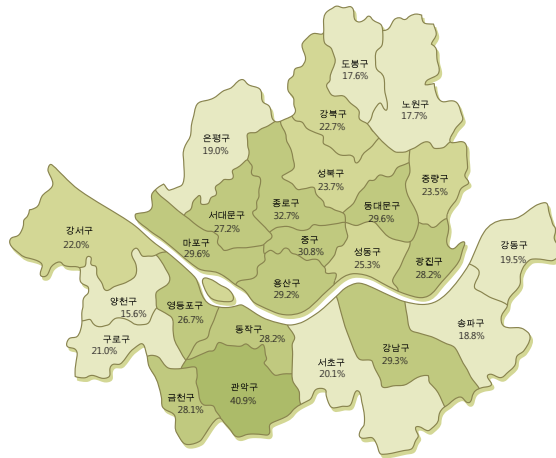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서도 1인가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정체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에는 21.5%로 유지된 반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후 2012년에 처음으로 24%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그림 3-5 | 1인가구 비율(서울서베이)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을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전체 1인가구 비율(24.6%)보다 높은 곳은 관악구(40.9%), 종로구(32.7%), 중구(30.8%), 동대문구(29.6%), 마포구(29.6%), 강남구(29.3%), 용산구(29.2%), 동작구(28.2%), 광진구(28.2%), 금천구(28.1%), 영등포구(26.7%), 서대문구(27.2%), 성동구(25.3%) 등 13개 구이며, 이 가운데 관악구는 1인가구의 비율이 40.9%로 다른 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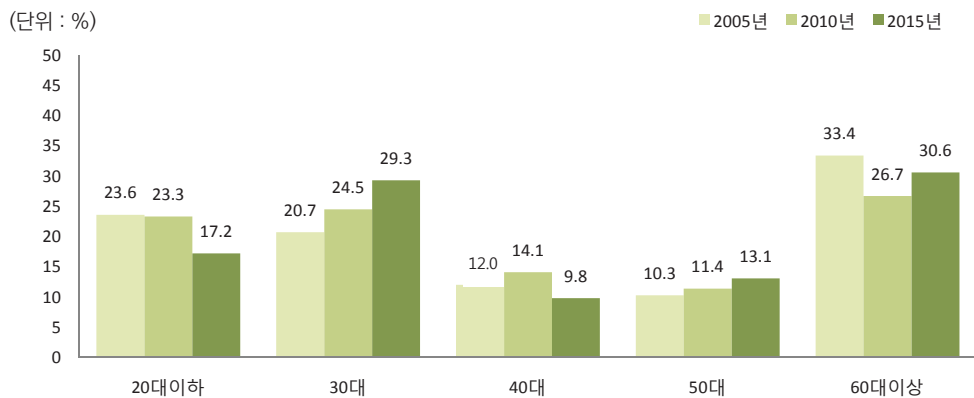
반면, 1인가구 비율이 서울 1인가구 비율보다 낮은 곳은 양천구(15.6%), 도봉구(17.6%), 노원구(17.7%), 송파구(18.8%), 은평구(19.0%), 강동구(19.5%), 서초구(20.1%), 구로구(21.0%), 강서구(22.0%), 강북구(22.7%), 중랑구(23.5%), 성북구(23.7%) 등 12개 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천구는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그림 3-6 | 1인가구 비율(구별)

연령별 1인가구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서울의 1인가구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7.2%,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9.3%,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9.8%,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30대 젊은 층에서 1인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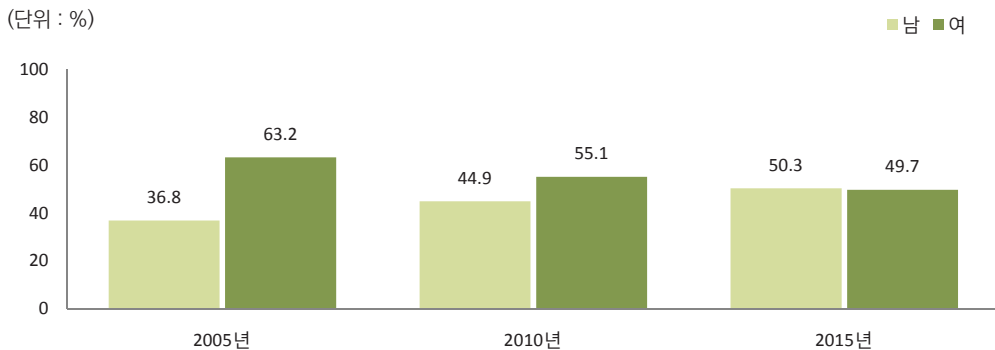
| 그림 3-7 | 연령별 1인가구 비율 추이

지난 10년간 1인가구 비율이 변화된 양상 또한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2005년 33.4%, 2010년 26.7%, 2015년 30.6%로 전체적으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20.7%, 2005년 24.5%, 2010년 29.3%로 지난 10년 간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20대의 경우 2005년과 2010년에 비해 1인가구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40대는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50대의 경우 30대처럼 지난 10년간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4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가구의 비율이 높지 않다. 이처럼 서울의 1인가구는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30대의 젊은 층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30대 젊은 층의 1인가구 증가가 최근 10년 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성별 1인가구

앞서 살펴본 연령별 1인가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1인가구 가운데 남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3%,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9.7%로 남성이 여성보다 0.6%p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인가구의 성별 차이는 2005년 26.4%, 2010년 10.2%, 2015년 0.6%로 지난 10년 동안 25.8%p나 줄어들었다. 1인가구 가운데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남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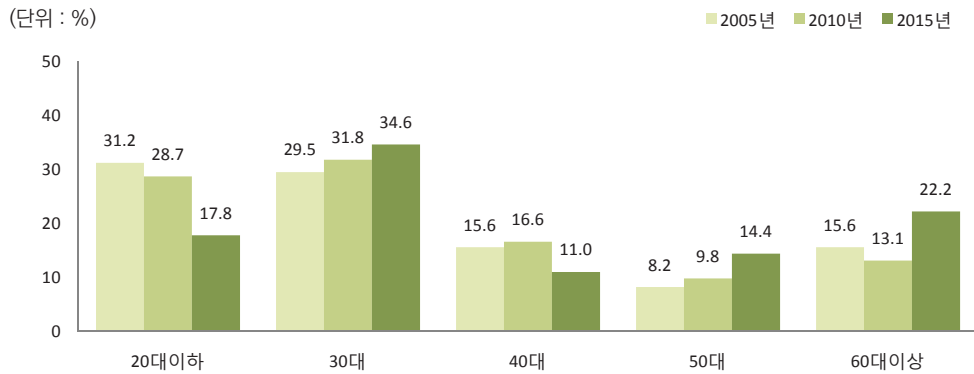
| 그림 3-8 | 성별 1인가구 추이

성별 연령별 1인가구

앞서 살펴본 1인가구 현황을 성별과 연령별로 함께 살펴보면 서울의 1인가구의 현황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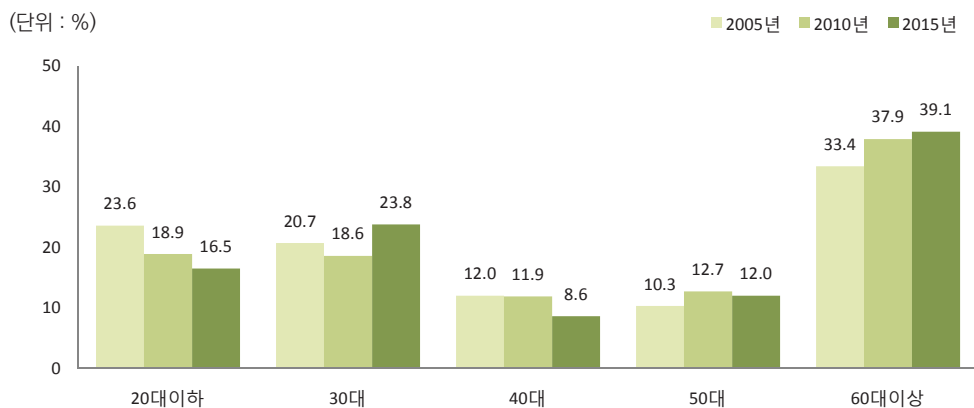
첫째, 남성 1인가구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1인가구와 40대 1인가구가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 30대, 50대, 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증가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30대 1인가구가 증가하고, 60대 이

상의 1인가구가 감소하는 1인가구 전체 경향과 다른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1인가구 전체에서는 60대 이상의 1인가구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남성 1인가구에서는 30대 1인가구의 비율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 그림 3-9 | 남성 1인가구의 연령별 비율추이

둘째, 여성 1인가구도 남성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20대 이하와 40대 1인가구가 감소경향을 보이는 반면, 30대, 50대, 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남성 1인가구와는 달리 60대 이상의 여성 1인가구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대 여성 중 1인가구 비율은 23.8%로 남성에 비해 10.8%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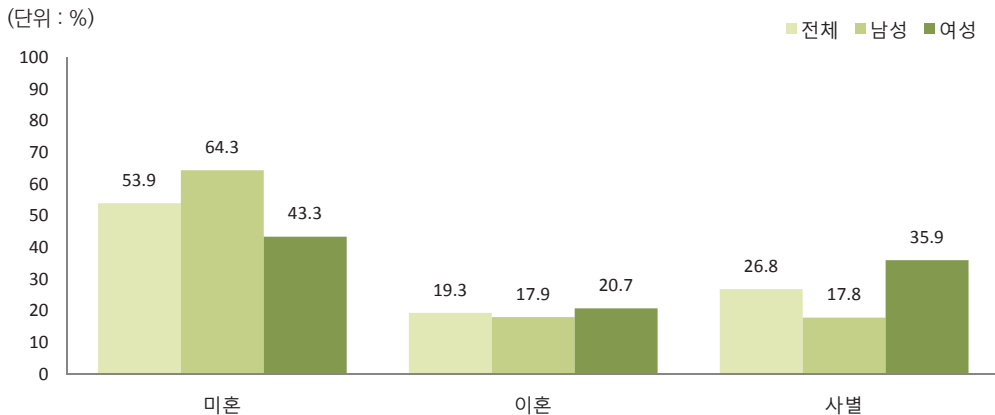


| 그림 3-10 | 여성 1인가구의 연령별 비율추이

서울의 1인가구를 성별,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남성 1인가구의 비율은 30대에서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남녀 간에 주요 1인가구의 연령대가 차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 1인가구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1인가구 가운데 미혼이 53.9%로 가장 많았고 사별이 26.8%, 이혼이 19.3%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성 1인가구가 30대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 1인가구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혼인지위도 남녀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3-11 | 혼인상태별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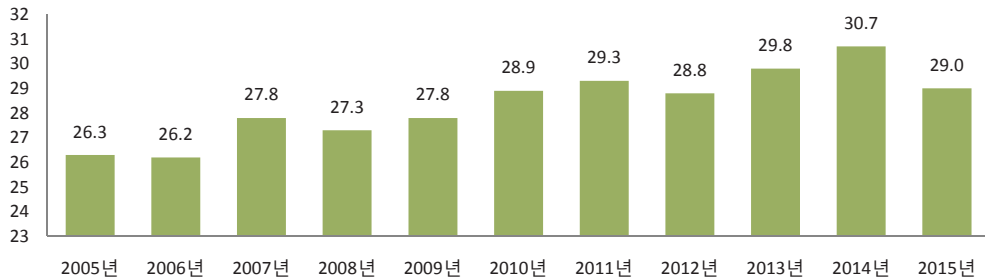
남성 1인가구의 경우 미혼이 64.3%, 이혼이 17.9%, 사별이 17.8%로 미혼의 비율이 전체 1인가구 평균(53.9%)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미혼이 43.3%, 사별이 35.9%, 이혼이 20.7%로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사별의 비율도 35.9%로 높고 남성에 비해 18.1%p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기간

2015년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서울 평균거주기간은 29.0년이다. 2005년 이후 서울시민의 서울 평균거주기간은 조금씩 증가해 왔는데 2005년 26.3년이었던 평균 거주기간은 2010년 28.9년 2015년 29년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조사된 서울 평균거주기간은 2013년 조사결과인 29.8년, 2014년 조사결과인 30.7년과 비교해 보면 최근 3년 동안 1년 정도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별로는 20~29년 거주자가 28.6%로 가장 많았고, 30~39년 거주자 26.5%, 10~19년 거주자 18.1%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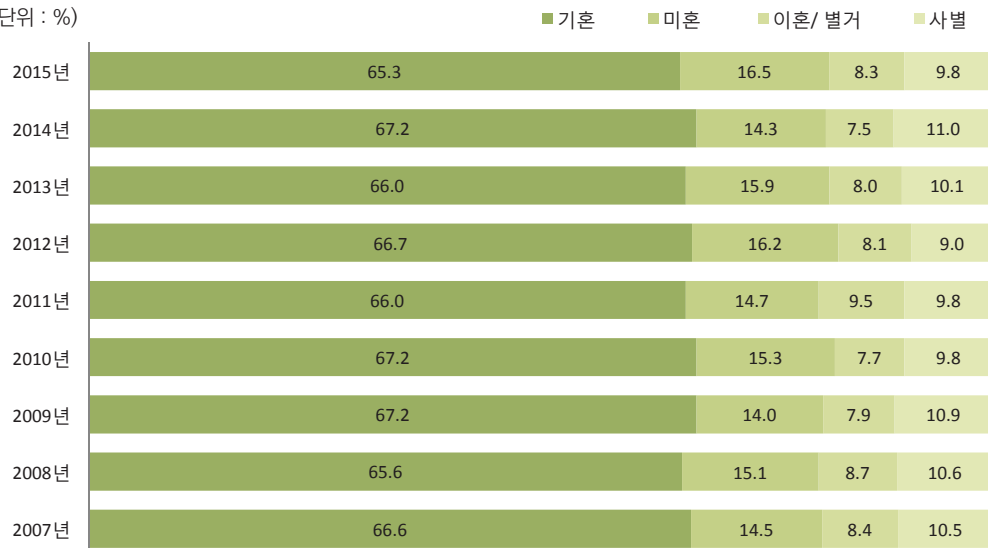
| 그림 3-12 | 서울 거주기간

• 혼인상태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서 나타난 2015년 가구주 혼인상태는 기혼 65.3%, 미혼 16.5%, 이혼 및 별거 8.3%, 사별 9.8%로 나타났다. 기혼의 비율은 지난 8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2007년과 66.6%에서 2015년 65.3%로 1.3%p 감소하였다.

미혼의 경우 기혼 비율과 마찬가지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2007년 14.5%였던 미혼의 비율은 2015년 16.5%로 지난 8년 동안 2%p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2007년 10.5%였던 사별의 비율은 2014년 11.0%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9.8%로 다시 감소하였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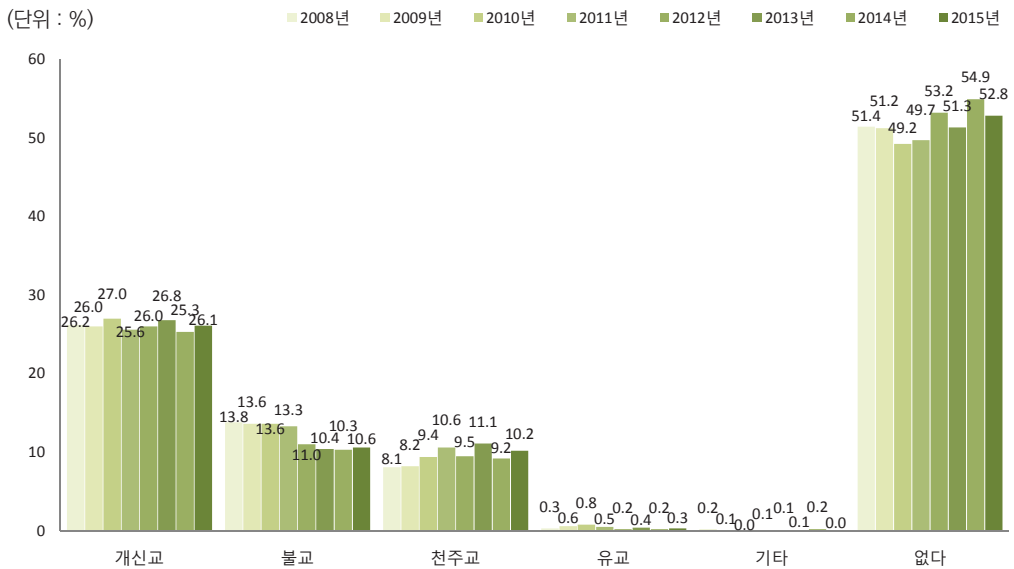


| 그림 3-13 | 혼인상태(가구주)

• 종교

가구조사에 나타난 종교현황을 살펴보면,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서울시민은 전체의 47.2%,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 5.6%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갖고 있다고 대답한 47.2%의 응답자 가운데 개신교가 26.1%, 불교가 10.6%, 천주교가 10.2%, 유교가 0.3%로 개신교의 비율이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신교의 경우 2008년에도 26.2%의 서울 시민이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7년 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불교의 경우 2008년 13.8%에서 2015년 10.6%로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의 경우 2008년 8.1%에서 2015년 10.2%로 다른 종교와 달리 지난 7년간 신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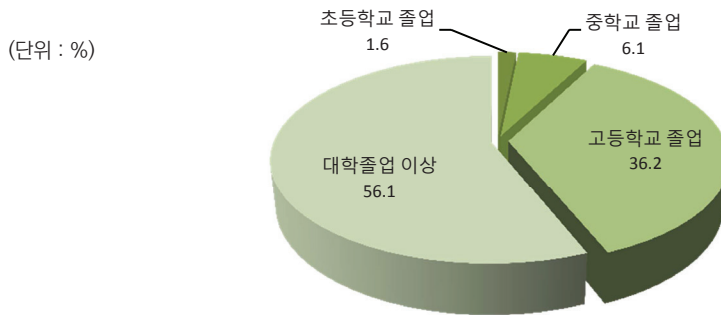
| 그림 3-14 | 종교 분포

•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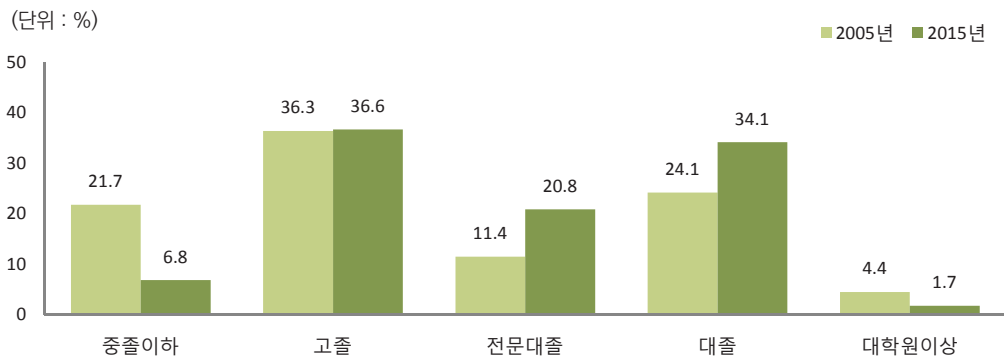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학력은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졸업이 1.6%, 중학교 졸업이 6.1%, 고등학교 졸업이 6.2%,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서울시민의 학력 수준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의 비율이 2005년 21.7%에서 6.8%로 14.9%p나 감소하여 저학력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반면,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각각 9.4%p, 10%p 증가하여 2005년에는 35.5%에 불과하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2015년에는 54.9%로 늘어났다. 그러나 고학력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2005년 4.4%에서 2015년 1.7%로 지난 10년간 감소하였다.



| 그림 3-15 |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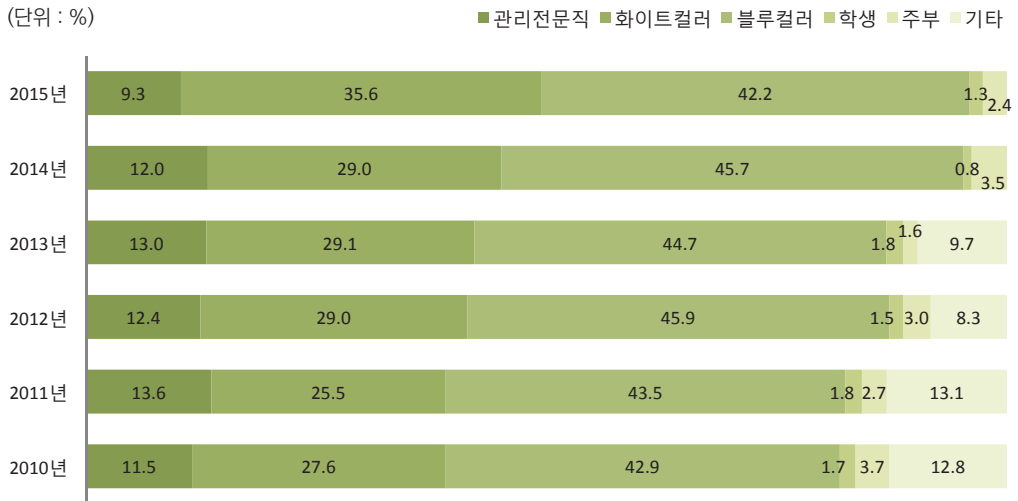


| 그림 3-16 | 서울 시민의 학력수준 추이

• 직업

가구조사에 나타난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서울시민의 가구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블루컬러(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자, 단순노무종사자 등)가 42.2%로 가장 많았고, 화이트컬러(사무종사자)가 35.6%, 관리전문직(관리자 및 전문가)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2010년과 비교해봤을 때 블루컬러는 2.8%p 증가하였고 화이트컬러는 8%p 증가하여 화이트컬러의 비율이 블루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13년 13.0%까지 증가했던 관리전문직의 비율은 2015년 9.3%로 감소하여 전체 직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17 | 직업현황(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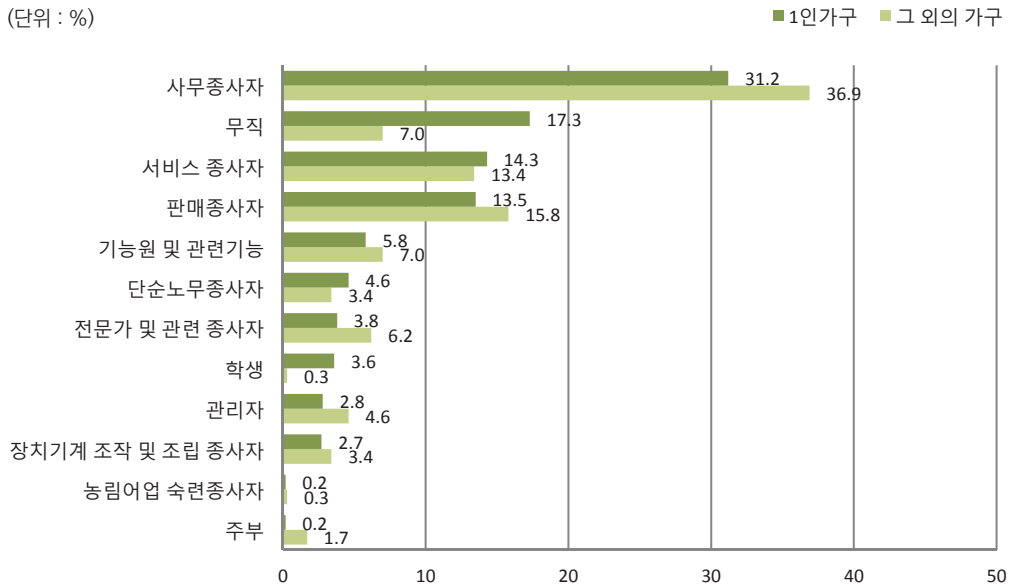
1인가구와 그 외 가구의 직업현황 비교

서울 시민 가운데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포를 1인가구와 그 외의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1인가구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사무직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하며, 무직(17.3%), 서비스종사자(14.3%), 판매종사자(13.5%), 기능원 및 관련기능(5.8%), 단순노무종사자(4.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8%), 학생(3.6%), 관리자(2.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2.7%)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1인가구 이외의 가구에서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36.9%), 판매종사자(15.8%), 서비스종사자(13.4%), 기능원 및 관련기능(7.0%), 무직(7.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6.2%), 관리자(4.6%), 단순노무종사자(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7.0%) 순으로 나타난다.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와 같은 그룹이 아닌 개별 직업으로 나누어 봤을 때 서울시민의 가구주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화이트컬러에 속하는 사무종사자이지만, 그 비율은 1인가구보다 그 외의 가구에서 5.7%p 높게 나타난다. 블루컬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1인가구가 그 외의 가구보다 0.9%p정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판매 종사자의 경우 1인가구보다 그 외의 가구가 2.3%p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1인가구가 4.6%, 그 외의 가구가 3.4%로 1인가구의 단순노무종사 비율이 1.2%p 높다. 관리전문가의 경우 1인가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3.8%인데 반해 그 외의 가구에서는 6.2%로 2.4%p 높게 나타나고, 관리자 또한 1인가구가 2.8%인데 반해 그 외의 가구에서는 4.6%로 1.8%p 높게 나타난다. 블루컬러, 화이트컬러, 전문관리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직의 비율은 1인가구가 17.3%, 그 외의 가구가 7.0%로 1인가구에서 10%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



| 그림 3-18 | 1인가구의 직업분포

2. 서울거주 외국인

1) 요약 및 정책제안

서울 거주 외국인은 체류기간, 인종별, 계층별 차이를 보이며 공존하고 있어

서울 거주 외국인은 여성이 51.8%로 남성보다 3%p 높게 나타나며, 연령은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각각 31.9%, 24.2%로, 20-40대 중간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주기간은 24개월 미만이 32.2%로 가장 많으며, 출신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가장 큰 그룹이다. 체류자격과 주거유형은 방문취업이 35.0%로 가장 많고, 영주, 유학, 결혼이민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유형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기타, 연립주택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외국인의 인구학적 구성이 다채롭다. 따라서 결혼이주민, 외교를 포함하는 전문직 외국인, 서비스 및 재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재외국적 동포와 외국인 등 비동질적 인구학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나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적이거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난립하고 있는 관련 비정부조직(NGOs)의 관심 역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복지지원센터' 역시 외국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적 법규범 내에서 제공되고 있기에 실제적인 효과면에 있어서 회의적인 반응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통계나 수치에 의

한 실적과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외국인 수요자가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행정서비스 조직과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 하에 지역화 되고 현실화된 서울시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가 요청된다.

서울거주 외국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의 필요성

서울은 다른 지방과 비교할 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체류 외국인이 공존하는 도시다. 이들을 세 가지로 그룹화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유럽에서 온 외국인으로서 주로 전문직이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다. 둘째, 서비스업종이나 재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재외한인 동포 그룹이다. 셋째, 국제결혼에 의해 정주라는 체류 특징을 보이는 여성그룹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의 글로벌 정책은 이를 일정정도 반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서비스직에 주로 종사하는 중국동포와 저개발국가 출신의 이주 여성에게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가족 내에서의 소통, 문화적 차이 그리고 자녀문제에서 오는 애로를 통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지역단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전문직 외국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문화자본 축적과 인적 연결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 구조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장 활동가들에 따르면 다문화 어린이들은 언어학습능력 저하와 정체성 관련 사회통합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에 방과 후 학습이나 상담과 같은 보조적 지원혜택이 필요하다. 최근엔 재혼가정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쪽 배우자(주로 여성)의 자녀들이 가족 재결합을 위해 중도 입국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도입국 소년들은 학교적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들의 생활적응과 학습을 위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50대 이상 재외동포 외국인들은 장기체류 내지 정주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업적응 교육과 사회안전망의 계발이 필요하다.

체류자격 별 외국인 시정서비스 기획

외국인 시정서비스 분야를 범주화해 보면 외국인들의 경제적 발전, 문화적 이해, 다문화가족의 안정화로 나눌 수 있다. 즉 방문취업자들의 직업재능교육과 민원관리 체계의 구축, 영주자나 유학생의 생활적응과 한국에 대한 문화자본의 확립을 위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은 가족단위의 통합적 행정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이 처한 다양한 문제들, 문화적 상호이해, 부부간의 소통문제 그리고 자녀교육과 정체성 문제가 각기 따로 다루어지기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지원해 주는 지역기반 제도가 필요하다.

주거형태에 따른 커뮤니티 조직화의 필요성

중국(조선족 포함)이나 아시아권 외국인들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주거 주거형태를 보이며 종족 밀집 거주지역(ethnic enclave)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먼저 아파트에 살며 종족 분산형 거주형태를 보이는 외국인들은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볼 만하다. 특히 고급 인적 자본을 소유한 외국인 인구에 대한 호감이 강한 서울시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다면,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외국인 들은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조모임이나 종족 커뮤니티가 형성된 경우가 많지만, 한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통합적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연계형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발달하지 못했다. 지역커뮤니티를 통한 참여와 협력은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 지역 협의체’ 구성 필요성

각기 다른 배경을 갖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나 준시민(quasi-citizen)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파악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 외국인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시정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각 지역별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다문화 지역협의체’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공무원, 지역시민 대표, 한국인 자원봉사자, 외국인 이주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필요에 맞는 자원구축과 네트워크는 물론 공유경제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자원 조직으로서의 협의체는 관주도의 외국인 지원시설보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다문화 국제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비영리시민단체(NPO)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한다면 경제적 비용 절감과 이질적인 외국인 그룹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시민조직의 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해외 국적 한국인 그룹, 중상계층에 위치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 그룹,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들 그룹은 지역 주민자치 그룹과의 연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다문화 지역협의체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와 생활적응, 경제생활 그리고 문화적 욕구실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다문화도시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재고하여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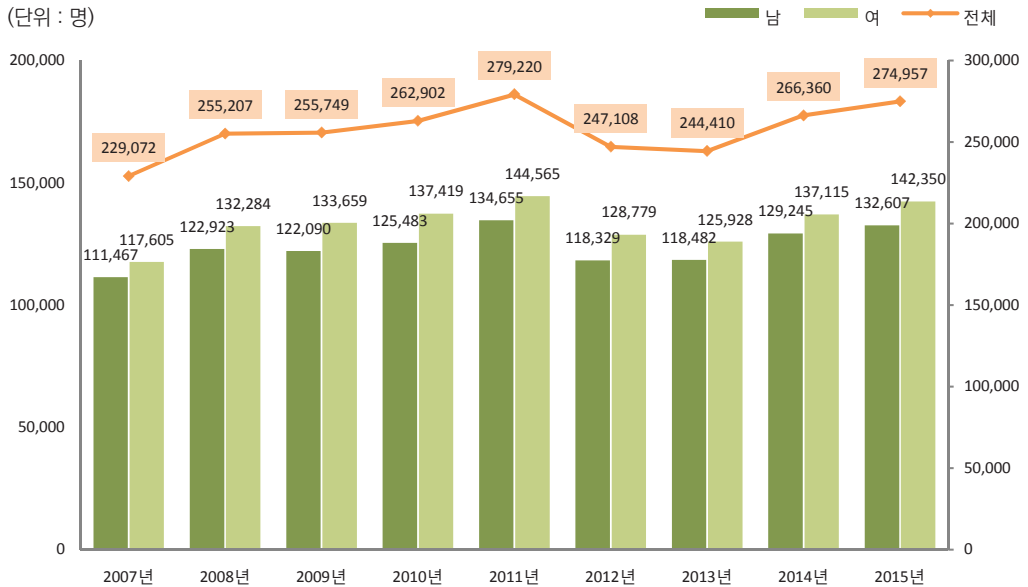
다인종 도시로의 변화에 대한 시각의 전환

글로벌 메트로폴리스의 중요 특징 중 하나가 다인종 도시이다. 국적을 가진 시민들 중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비율을 의미하는 다인종 사회지표를 보면 뉴욕은 전체 인구의 37.2%가 외국에서 태어난 시민들이며(2010년 기준), 런던 인구의 36.7%가 외국에서 태어났다(2011년 기준, 영국 전체 외국인 수는 13%). 글로벌 도시들의 다인종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서울의 외국인 비율은 4.5%(행정자치부, 2015년)로 외국 도시에 비해 외국인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의 외국인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계도시 속의 서울이라는 도시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정도는 아직 초보 단계이며, 외국인들의 거주, 교육환경 등 삶의 질 환경도 아직은 열악하다. 인구구성의 변화가 야기할 다인종 사회로서 서울이 준비해야 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2) 지표설명

• 성별

2015년 말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기준 서울거주 외국인은 274,957명(남자 132,607명, 여자 142,350명)으로 여성 외국인 수는 남성 외국인보다 3%p 정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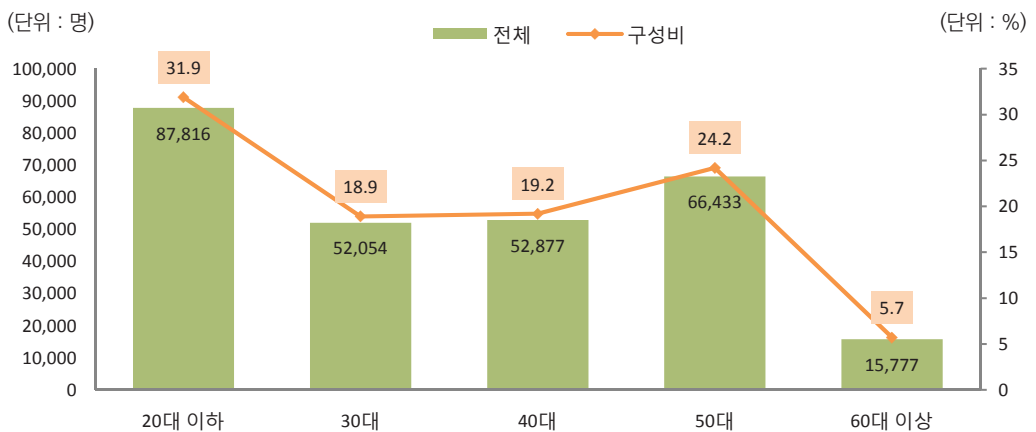


| 그림 3-19 | 서울거주 외국인 성별

최근 국제이주, 특히 아시아블록에서 여성의 규모와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1988년 이후 노동집약적 제조업분야의 노동인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남성중심의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이 한국이 다문화사회로의 변천역사의 시초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성이주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여성이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다. 첫째,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확대는 서비스직 단순 기능인력의 감소를 가져왔고, 비교적 한국어가 익숙한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여성 이주자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결혼의 증가 역시 여성의 이주를 촉진시켰다. 국제결혼은 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시장적 성격을 띠며 끊임없이 성장하였다.

• 연령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의 외국인 등록자수 중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가 31.9%로 가장 많고, 50대 24.2%, 40대 19.2%, 30대 18.9%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20대 이하에는 다문화 가족 어린이와 청소년들, 여기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도 입국 유소년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50대 이상 외국국적 인구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동포나 해외국적 한인들의 상당수가 상업과 관련된 서비스나 가사 및 돌봄과 같은 재생산노동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이 최근의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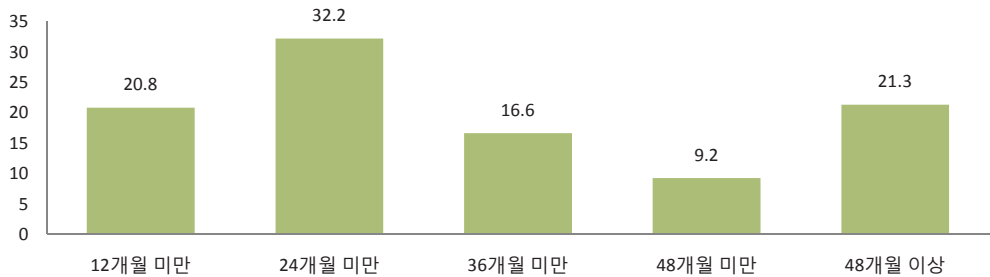
| 그림 3-20 | 서울거주 외국인 연령

• 거주기간

서울거주 90일 초과와 서울시 체류 외국인 2,500명을 조사한 결과 24개월 미만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8개월 이상이 21.3%, 12개월 미만이 20.8%, 36개월 미만 16.6%, 48개월 미만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거주자를 체류기간으로 분류할 때, 단기체류자(sojourner)와 정주자(settler)로 나눌 수 있으며, 서울에는 정주자보다 24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자가 53.0%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48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내지 실제적 정주자로 간주될 수 있는 집단 역시 21.3%를 차지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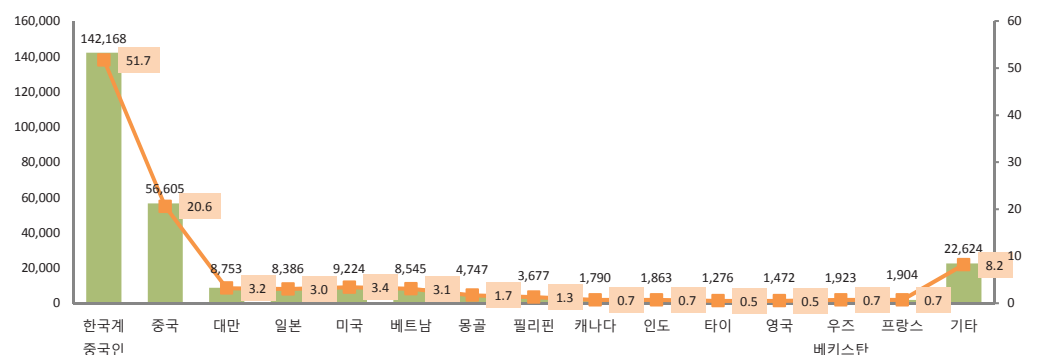


| 그림 3-21 | 서울거주 외국인 거주기간

• 출신국적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나타난 외국인의 출신국적 현황을 보면, 중국국적 외국인이 72.3%(한국계 중국인 54.2%, 중국인 18.4%)로 나타났고, 미국 3.4%, 대만 3.2%, 베트남 3.1%, 일본 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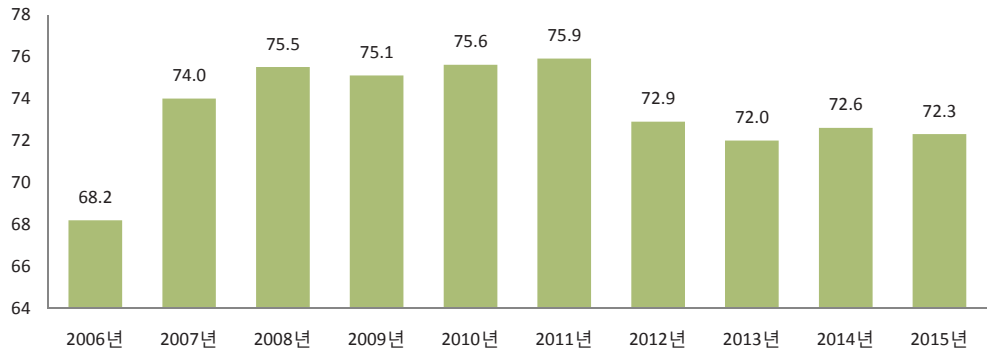
(단위 : 명)



| 그림 3-22 | 서울거주 외국인의 출신국적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2007년에 74.0%로 급증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2년부터는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한국에서 장기체류자 내지 잠재적 정주자로 간주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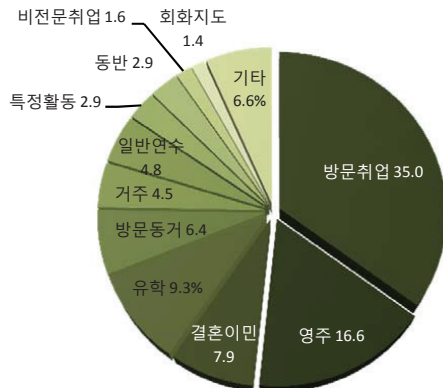


| 그림 3-23 | 중국국적 외국인 비율

• 체류자격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나타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보면, 방문취업(35.0%)이 가장 많고, 영주(16.6%), 유학(9.3%), 결혼이민(7.9%), 기타(6.6%), 방문동거(6.4%)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영주와 유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방문취업자들은 한국계 중국인이 다수이며,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각기 비동질적이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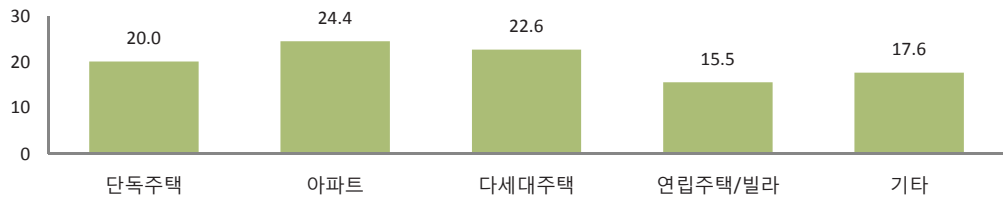


| 그림 3-24 | 서울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

• 주거유형

서울거주 91일 이상인 외국인 2,500명의 주거유형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22.6%), 단독주택(20.0%), 기타(17.6%), 연립주택/빌라(15.5%)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25 | 외국인의 주거유형

국적별로 중국 및 대만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 기타아시아권, 영미권, 유럽권에서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3-1 | 국적별 주거유형

(단위 :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기타
중국	26.1	12.8	30.9	19.5	10.6
일본	11.5	39.5	22.0	4.5	22.5
대만	32.5	27.0	20.0	4.5	16.0
베트남	25.3	29.3	18.0	15.3	12.0
기타 아시아권	15.3	20.0	20.3	20.7	23.7
영미권	12.3	38.3	14.0	15.0	20.5
유럽권	10.0	33.3	12.7	15.3	28.7
기타	11.3	31.3	15.3	10.7	31.3

서울은 다른 도시와 달리 거주 외국인들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가 24.4%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연립주택 등 다양화된 주거유형을 보이고 있다. 거주유형은 체류 외국인의 경제사회적 계층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영미와 유럽권, 일본국적 외국인 체류자들은 아파트가 주요 거주형태로 나타나며 중국과 아시아 출신 외국인 체류자들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빌라가 높은 주거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주거형태에서 계층적 차이가 드러나지만, 도시재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라는 주거 단위를 중간계층 이상의 주거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제2절 경제

현황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몇 년간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경제성장면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은 314조 원으로 전년대비 2.34% 상승하였으며, 2015년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도 482만 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05년 이래 지역내총생산, 소득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3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소득의 성장률은 감소하였다.

2005년부터 하락세를 기록했던 사업체 창업률은 2007년 11.0%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0년 14.1%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했으며, 2014년에는 2013년 13.3%와 비슷한 13.2%를 기록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건수로 가능한 지식창출역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4년에 감소하고 2015년에 다시 증가하여 총 143,688건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0년까지는 증가하였고 다시 2013년까지는 감소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였다. 2013년에는 실업률은 4.0%로서 2009년 이래 가장 낮았지만, 2014년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4.5%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4.2%로 2014년에 비해서는 0.3%p 감소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 투자건수는 2014년 1,055건에서 2015년 1,311건으로 24.3% 증가하였고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또한 2014년 5,487백만 달러에서 2015년 8,529백만 달러로 55.4%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은 작년에 비해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다소 후퇴한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무실 임대료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4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도 증가세는 약간 둔화되었지만 72,988원/3.3㎡으로 전년대비 753원/3.3㎡ 상승하였다. 한편 사무실 연상면적비율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5년에는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노동분쟁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등 일부 기업환경하락 요소도 존재하였다.

서울시-기업 소통채널 확보 필요

서울의 국내외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환경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폭이기는 하나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규제, 행정편의성 등은 상당부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관할 제도와 정책에 뿌리내리고 있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기존 제도의 운영에 있어 조정자

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재고하고 현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울시와 기업 간 소통채널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대응일 것이다. 서울시 산업·기업 집적지에서 최근 조직되는 추세인 지역포럼의 정례화·공식화가 이런 정책방향의 주요한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역량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 취업자중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유연성 비율은 2007년 이래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28.6%를 기록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측정하는 고급인적 자원의 수는 2015년 1,443명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전문인력 비중으로 측정한 고급인적자원 역량도 28.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지식·숙련 인재 육성 및 발굴 추진

현재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필요한 맞춤형 구인·구직 관련 정책 뿐만 아니라 이에 선행하는 단계인 지식·숙련 인재의 육성과 발굴에 서울시의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여성, 어르신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직무교육과 취업 연계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적별 인력양성 방식 체계화

현재 서울시의 인력양성 정책은 뉴딜일자리 사업, 직업능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크리에이티브랩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과 조직이 다소 산발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동일목적 사업은 서로 모아 운영체계를 일원화·체계화 하되,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환경 개선정책 공공·민간확산 지속 추진

현재 서울시는 생활임금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서울 일자리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동환경 기반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중장기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등으로 제도화·공식화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현재 선도하고 있는 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서울시 외에 산하·유관기관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계약 시 해당 정책과 부합했을 경우 가점부가, 노동환경 개선 관련 캠페인 등 서울시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표상으로 볼 때 일부 지표에서 소폭 상승 혹은 하락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서울의 생활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015년 공공요금 수준은 104.1%(2010=100)로 전년대비

1.7%p 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110.9%(2010=100)로 전년대비 1.3%p 상승하였다.

새로운 조사항목을 적용한 2015년 도시위험도는 6.08점이었다. 2014년과 2015년의 도시위험도 지표의 세부항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년도에 비해 종합점수는 상승하였다. 도시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지된 주요 요소 중 핵폐기물 방사능사고의 위험도가 6.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폭력범죄(6.36점), 전염병(6.27점), 경제위기(6.17점), 안전사고(6.16점), 실업(6.14점), 자연재해(6.12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거주 가구의 주관적 소득인식수준은 2015년 5.13점(10점 만점)으로 전년(5.00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5.53점), 서초구(5.46점), 성동구(5.42점)에서 상대적으로 인식수준이 높았던 반면, 양천구(4.81점), 강서구(4.86점), 구로구(4.89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67.9%로 전년대비 5.1%p 증가하였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16.4%로 전년대비 2.1%p 증가하였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10.4%로 전년대비 6.0%p 감소하였다.

서울의 다문화 학생수는 2015년 총 11,642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1.14%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8,51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삶의 질 만족도(10점 만점)는 2015년 평균 7.23점으로 2014년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7.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복지환경'(7.61점), '도시안전'(7.40점)이 그 뒤를 이었으며, '경제환경'(6.63점), '교육환경'(7.00점), '사회환경'(7.15점) 등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적별로 봤을 때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중국, 베트남, 유럽권, 영미권 출신 거주외국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일본 출신 외국인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문화적 다양성(서울시민들의 개방적이고 친밀한 정도)은 6.93점으로 유럽권이 7.22점으로 가장 높고 기타가 6.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가능성은 6.17점으로 2013년보다 하락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대만을 제외한 전 국적에서 의사소통 가능성이 하락하였다.

서울의 물가수준을 출신국가와 비교한 평균은 131.1%로 출신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년대비로는 1.2%p 낮아졌다. 국적별로는 기타 아시아권(166.6%)이 물가수준을 가장 높게 체감하고 있었고, 이외에 기타(157.8%), 베트남(155.4%)에서 서울의 물가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서울의 물가가 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은 없었다.

1. 경제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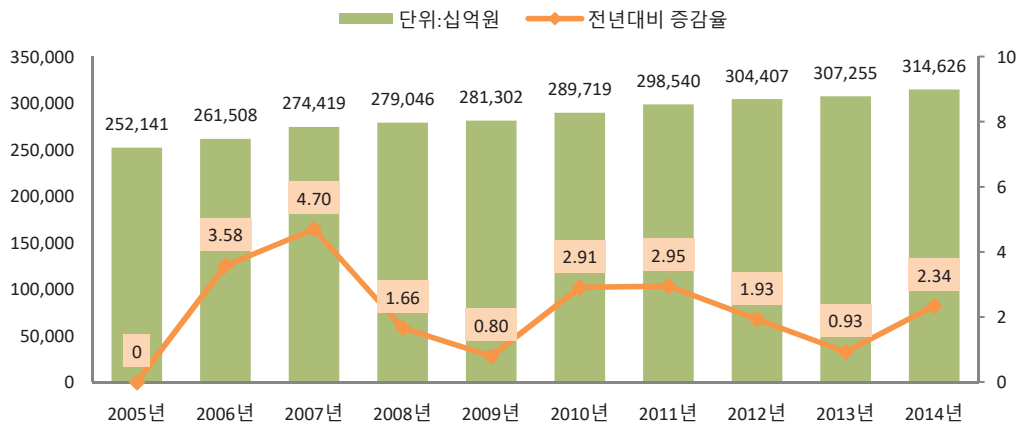
1) 지표별 현황

• 지역내 총생산

지역경제의 실태를 지역별 소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은 2014년 314,626,356원으로 전년대비 2.34% 상승하였으며, 2005년 이래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단위 : 십억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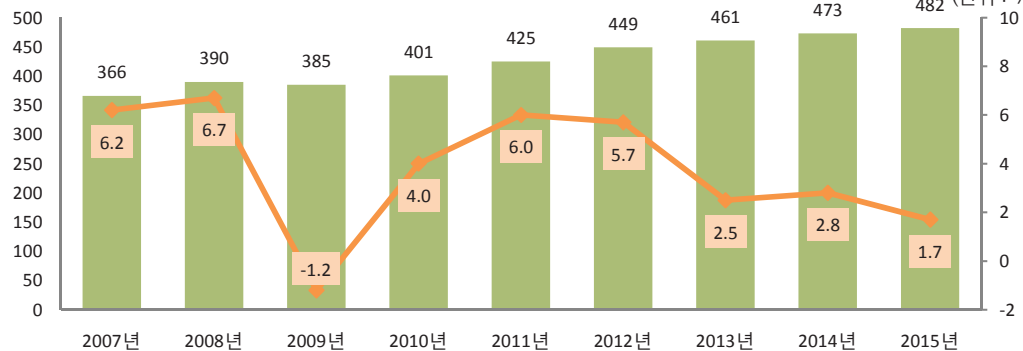
| 그림 3-26 | 지역내 총생산

• 소득증가율

2014년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482만원으로, 전년대비 1.7%p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만원)

(단위 : %)



| 그림 3-27 | 소득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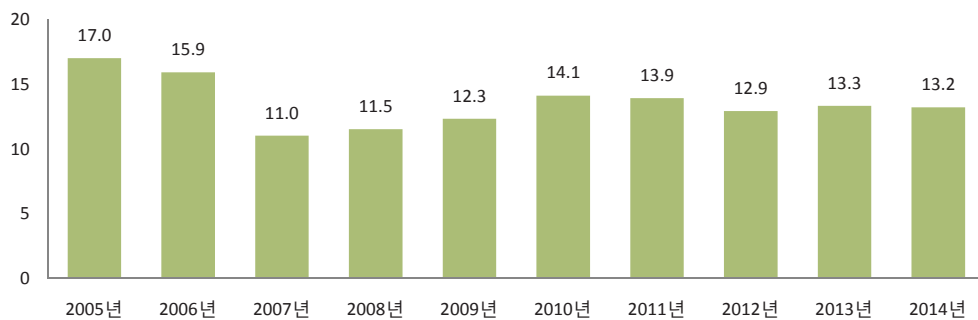
소득증가율

- 2009년 소득 및 지출부문의 항목분류 개편으로, 「가계동향조사(신분류)」의 2008년 이전 자료는 「가계동향조사(구분류)」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사업체 창업률

2005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사업체 창업률은 2007년 이래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2011년부터 다시 등락을 반복하며 2014년에는 13.2%를 기록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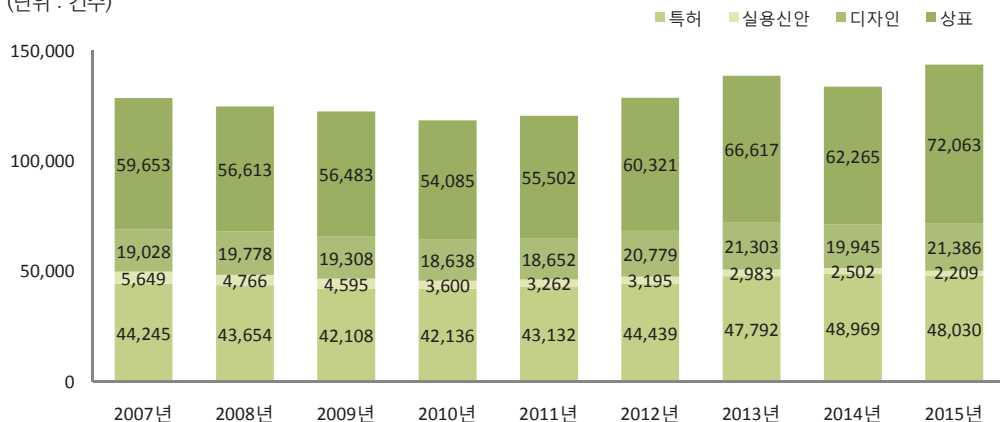


| 그림 3-28 | 사업체 창업률

• 지식창출역량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연구개발부문의 투자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민간경제분야에서의 기업 경영에, 정부분야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¹⁾ 2015년 지식창출역량은 143,688건으로 디자인과 상표는 증가하였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은 하락하였다.

(단위 : 건수)



| 그림 3-29 | 지식창출역량

1)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표 3-2 | 지식창출역량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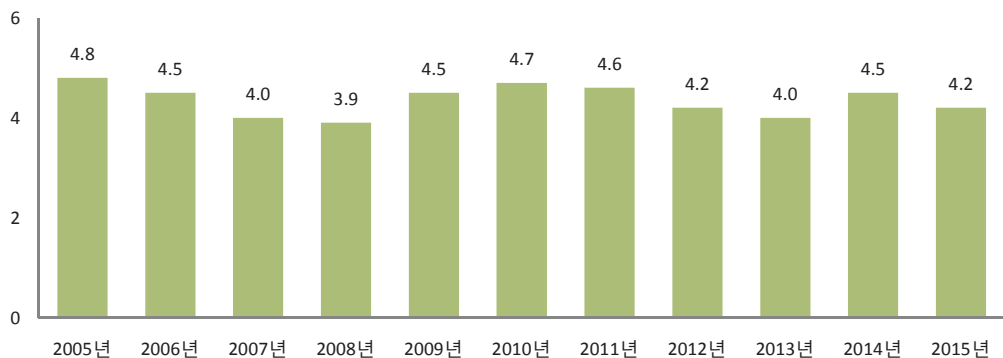
연 도	합 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2007	128,575	44,245	5,649	19,028	59,653
2008	124,811	43,654	4,766	19,778	56,613
2009	122,494	42,108	4,595	19,308	56,483
2010	118,459	42,136	3,600	18,638	54,085
2011	120,548	43,132	3,262	18,652	55,502
2012	128,734	44,439	3,195	20,779	60,321
2013	138,642	47,737	2,975	21,314	66,616
2014	133,681	48,969	2,502	19,945	62,265
2015	143,688	48,030	2,209	21,386	72,063

주석 : 수리(출원)일자 기준

• 실업률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실업률은 2010년 4.7%로 가장 높았으며, 2011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4.5%로 다시 증가하고 2015년에는 4.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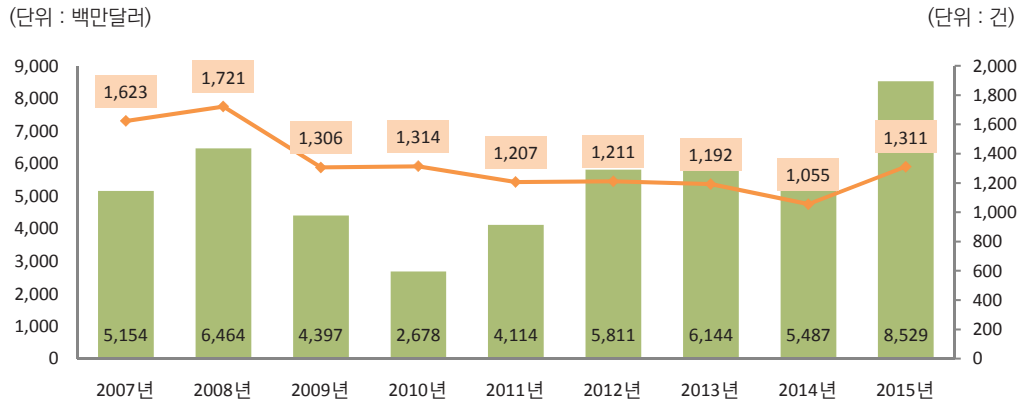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30 | 실업률

• 외국인 투자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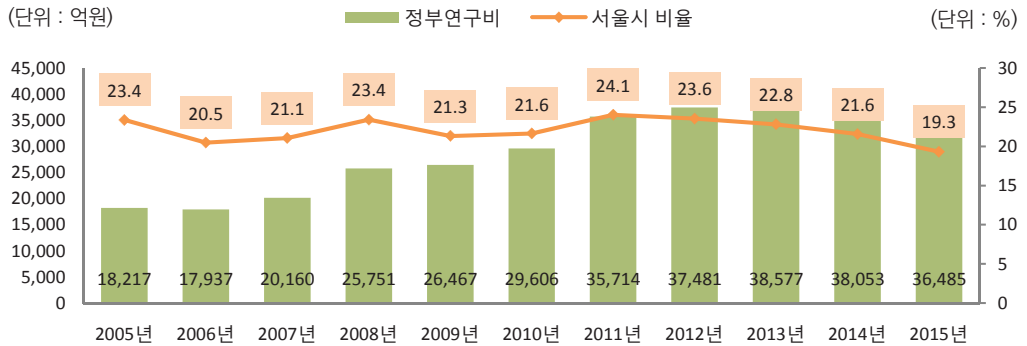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54억 8,700만 달러에서 2015년 85억 2,9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건수는 2014년 1,055건에서 2015년 1,311건으로 증가하였다.



| 그림 3-31 | 외국인 투자유치

• 전국대비 R&D 투자비중

전국대비 서울의 R&D 투자비중은 2011년 이래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조 6,485억원, 전국대비 19.3%로 나타났다.



| 그림 3-32 | 전국대비 R&D 투자비중

【지역】

-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으로 구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함
- 2) 기타는 단위 세부과제 내에서 연구비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경우로, 가령 A과제의 연구비가 대전과 전라북도에 분산되었을 경우에 해당됨

【연구수행주체】

- 1) 정부부처는 2006년부터 기타에서 분리되어 조사가 수행된 항목으로 2005년 및 투자액('05~'09)에서는 기타에 포함하여 금액 및 비중

【기준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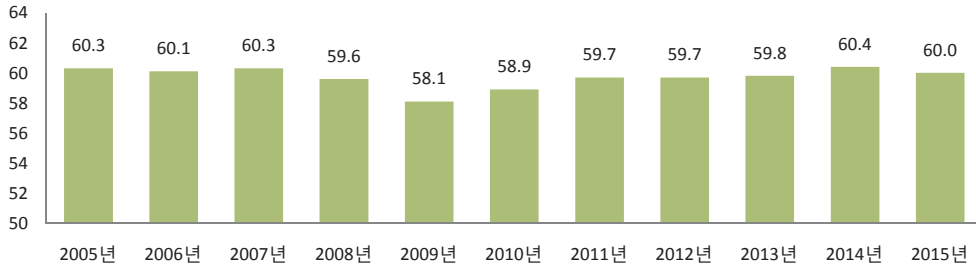
- 1) 정부연구비는 과제년도, 성과는 성과제출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 국가 R&D사업관리(<http://rndgate.ntis.go.kr/matrix.do?method=mtMain&pageNum=1&subNum=1>)

• 고용률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인 고용률은 2009년 최저수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한 60.0%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33 |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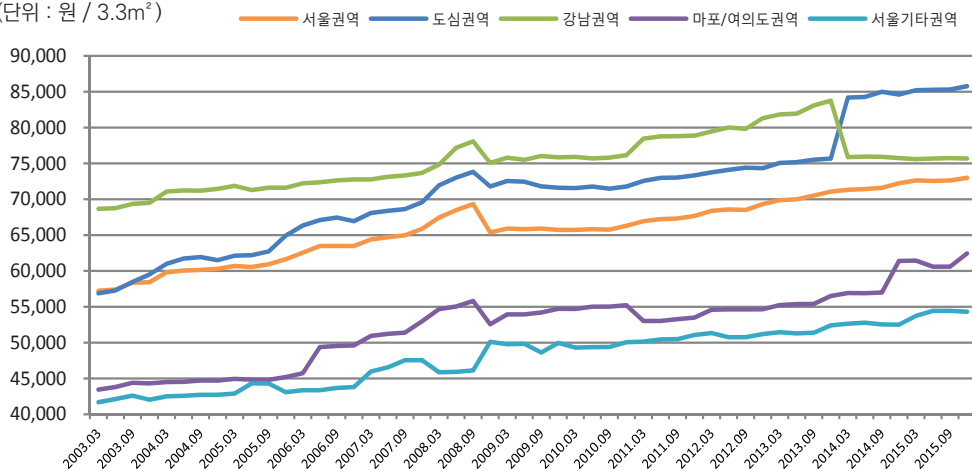
2. 기업환경

1) 지표별 현황

• 사무실 임대료

2015년 서울지역의 월 평균 임대료(4분기)는 72,988원/3.3㎡으로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임대료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원 / 3.3㎡)



| 그림 3-34 | 사무실 임대료

| 표 3-3 | 사무실 임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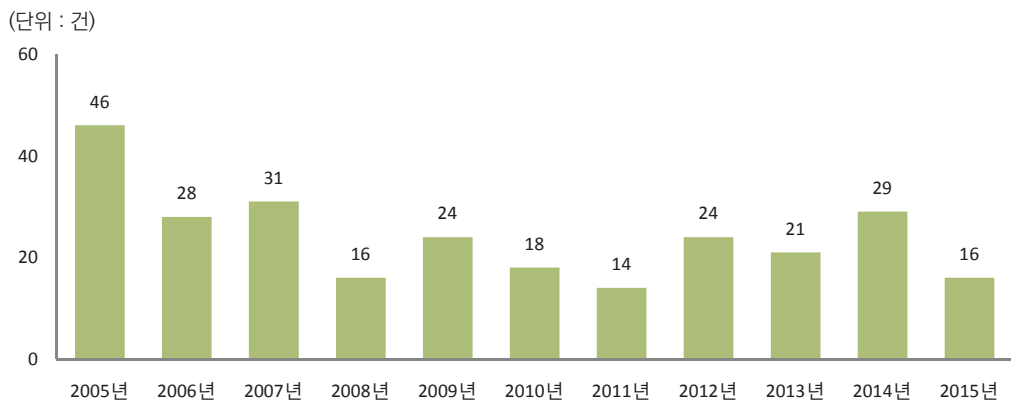
(단위 : 원 / 3.3m²)

연 도	서울권역	강남권역	도심권역	마포/여의도 권역	서울기타권역
2007	65,869	73,679	69,581	52,978	47,544
2008	65,370	75,069	71,787	52,565	50,105
2009	65,715	75,849	71,605	54,705	49,958
2010	66,294	76,150	71,776	55,220	50,056
2011	67,671	78,876	73,328	53,496	51,067
2012	69,320	81,293	74,323	54,648	51,185
2013	71,065	83,747	75,668	56,504	52,402
2014	72,235	84,599	75,737	61,395	52,506
2015	72,988	85,776	75,678	62,444	54,316

주 : 사무실 임대료는 4분기 기준

• 노동분쟁 건수

2015년 노동분쟁건수²⁾는 16건으로 2014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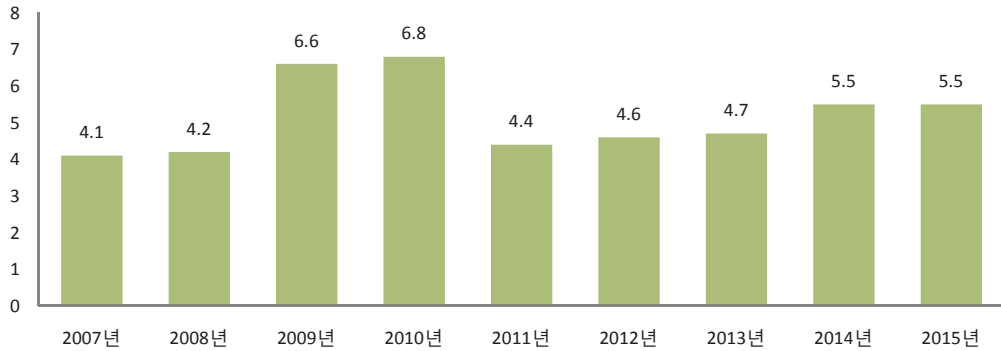
| 그림 3-35 | 노동분쟁 건수

• 사무실 연상면적비율

사무실 연상면적비율은 2015년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가 18.9%로 가장 높고, 종로구(14.8%), 강남구(11.5%) 순이었으며, 노원구가 가장 낮은 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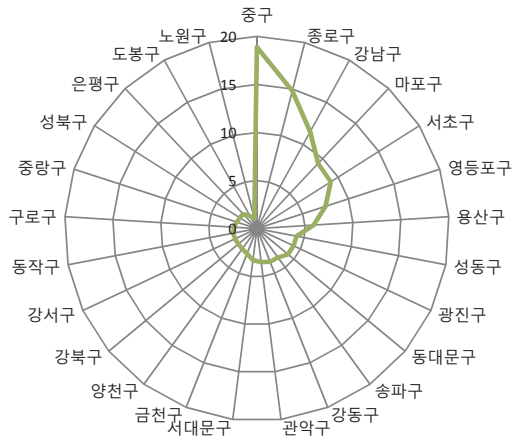
2)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단위 : %)



| 그림 3-36 | 사무실 연상면적비율

(단위 : %)



| 그림 3-37 | 사무실 연상면적비율(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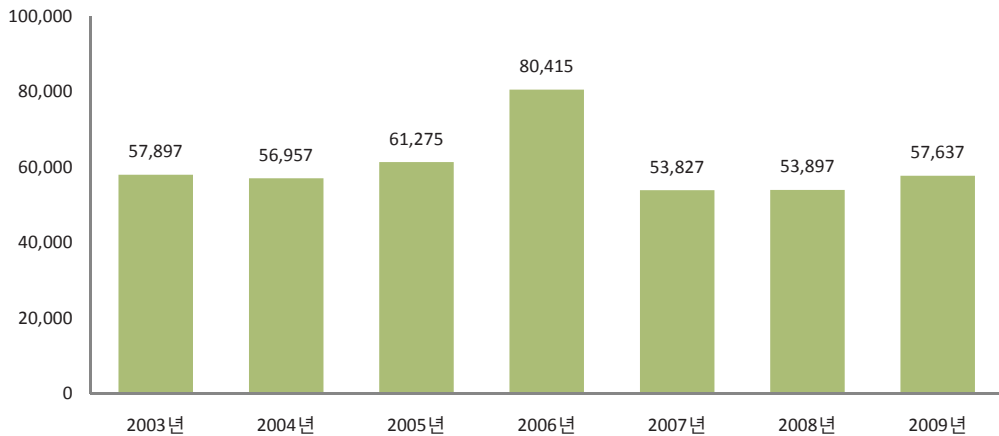
사무실 연상면적비율

- 사무실 연상면적 비율 집계방식의 변경
 - 2008년 이전, 2011년 - 일반업무시설, 사무소, 기타사무소
 - 2009~2010년: 결혼상담소, 경찰서, 국가기관청사, 금융업소, 기타사무소, 기타연구소, 동사무소, 사무소, 소개업, 신문사, 자치단체청사, 구내 파출소를 사무실연면적에 포함

• 컨벤션 수용능력

컨벤션 수용인원은 2008년 53,897명에서 2009년 57,637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단위 : 명)



| 그림 3-38 | 컨벤션 수용인원

한국관광공사의 컨벤션 수용현황은 2009년 이후 데이터 생산이 중단됨

서울시에는 총 3개의 MICE³⁾ 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총면적은 64,414㎡(전시 51,377㎡, 회의 13,03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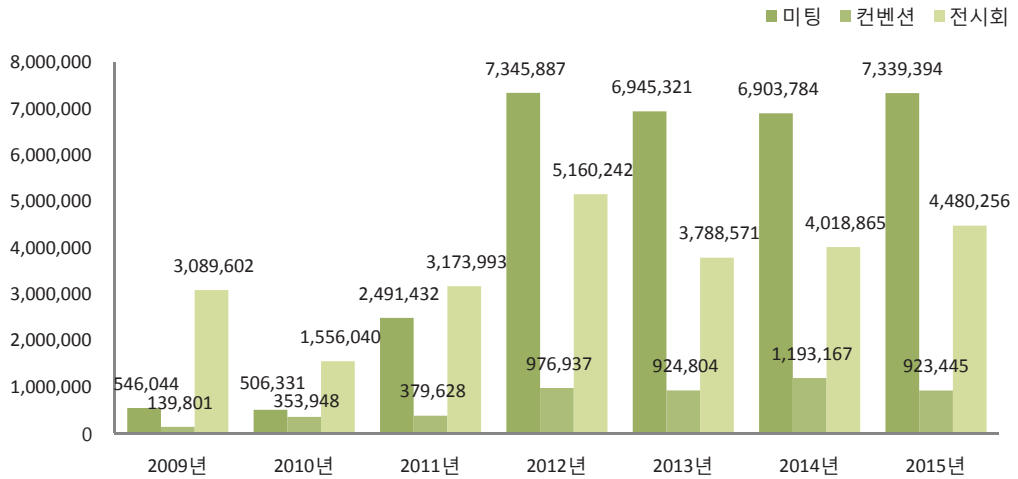
| 표 3-4 | 서울시 MICE 시설현황

센터명	전시, 회의면적	전시면적	회의면적	비 고
Coex	47,130㎡	36,007㎡	11,123㎡	2000년 개관
SETEC	8,787㎡	7,948㎡	839㎡	1999년 개관
aT센터	8,497㎡	7,422㎡	1,075㎡	2002년 개관

서울지역의 MICE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세계국제회의는 총 294건, 국제미팅은 총 83,194건(참가자 7,339,394명), 컨벤션은 총 1,899건(참가자 923,445명), 전시회는 총 340건(참가자 4,480,2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개최건수와 참가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3) Meetings, Incentive tours, Conventions, Exhibitions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회의 및 전시산업을 통칭하는 용어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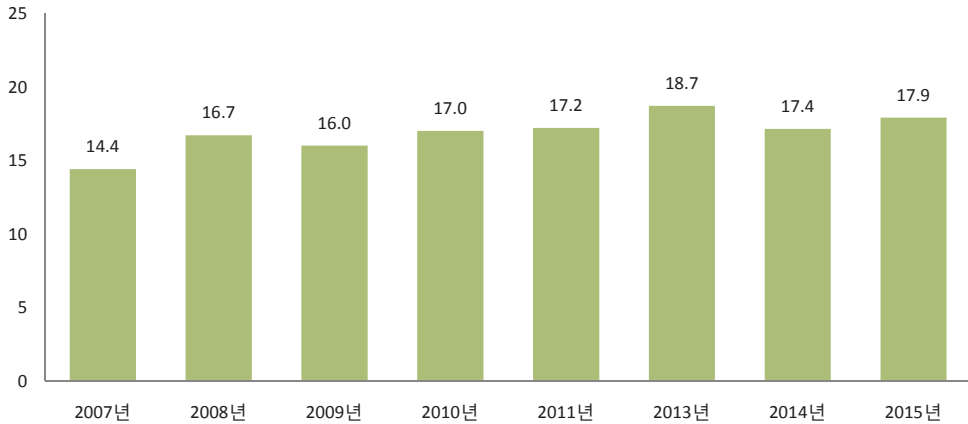


| 그림 3-39 | 서울시 MICE 참가자 수

• 도심권 차량속도

도심 평균 승용차 차량속도는 2015년 17.9km/h로 전년대비 0.5km/h 증가하였다.

(단위 : km/h)



| 그림 3-40 | 도심평균 승용차 차량속도

차량통행 속도조사의 시간대 구분 - 평균 : 06:00~ 22:00, 오전 : 07:00~09:00, 낮 : 12:00~14:00, 오후 : 18:0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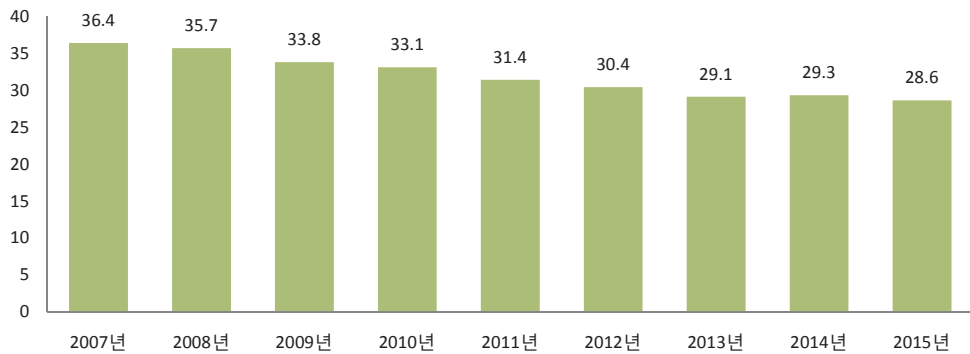
3. 인적자원역량

1) 지표별 현황

• 노동유연성 비율

2015년도 노동유연성 비율은 28.6%로 2007년 36.4% 이래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



| 그림 3-41 | 노동유연성 비율

| 표 3-5 | 노동유연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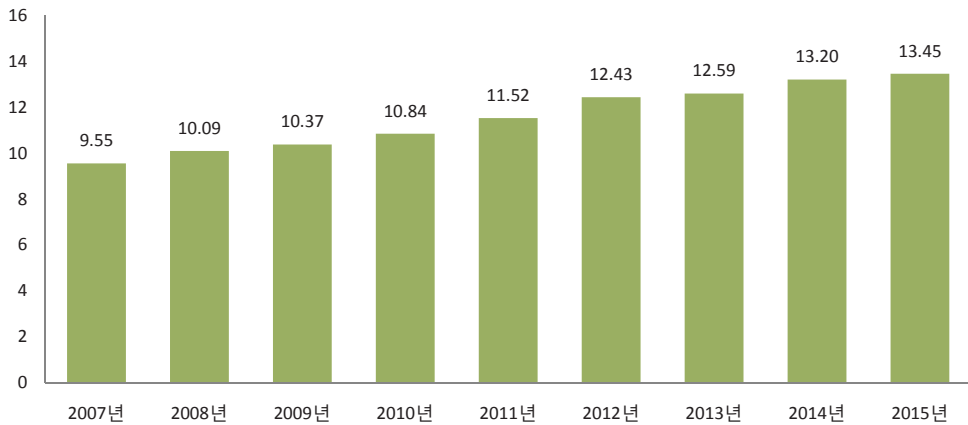
(단위 : 명, %)

연 도	전체취업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노동유연성비율
2007	4,940	1,255	542	36.4
2008	4,922	1,215	540	35.7
2009	4,835	1,162	472	33.8
2010	4,936	1,214	422	33.1
2011	5,012	1,166	409	31.4
2012	5,036	1,136	396	30.4
2013	5,097	1,116	366	29.1
2014	5,146	1,136	371	29.3
2015	5,135	1,106	363	28.6

•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

경제발전의 주된 인적자원인 연구개발 인력과 고학력 인력인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은 2007년 이후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13.45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도권 전체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로 석박사 수를 합한 인력이 13.45명이라는 의미이다.

(단위 : 천명당 연구원 수)



| 그림 3-42 |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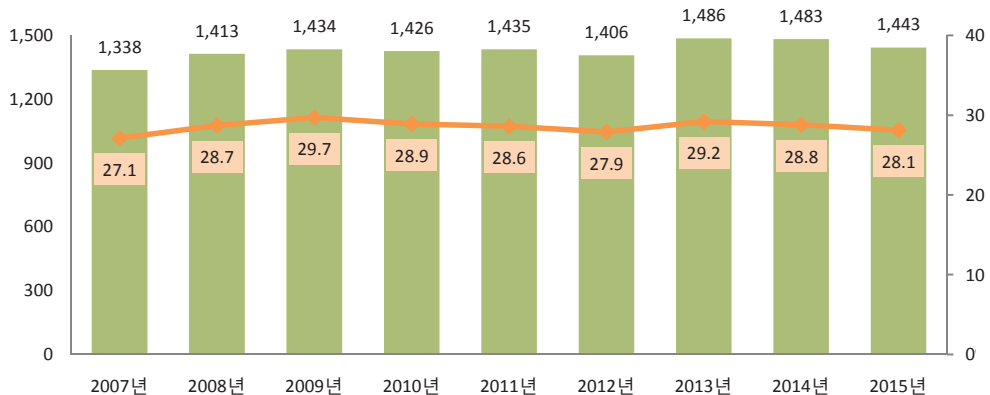
• 고급인적자원 역량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측정하는 고급인적자원의 수는 2015년 1,443천명이며 고급인적자원역량은 28.1%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단위 : 천명)

고급인적자원수 고급인적자원역량

(단위 : %)



| 그림 3-43 | 고급인적자원 역량

| 표 3-6 | 고급인적자원 역량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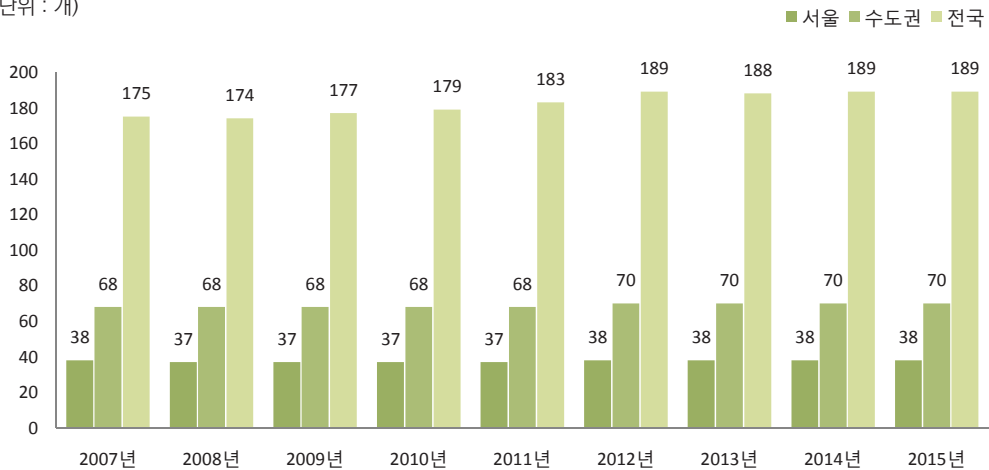
연 도	취 업 자	고급인적자원수	고급인적자원역량
2007	4,940	1,338	27.1
2008	4,922	1,413	28.7
2009	4,835	1,434	29.7
2010	4,936	1,426	28.9
2011	5,012	1,435	28.6
2012	5,036	1,406	27.9
2013	5,097	1,486	29.2
2014	5,146	1,483	28.8
2015	5,135	1,443	28.1

주 : 고급인적자원수=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전문가

• 서울 대학 수

2015년 총 38개의 일반대학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대학(189개)의 20.1%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2012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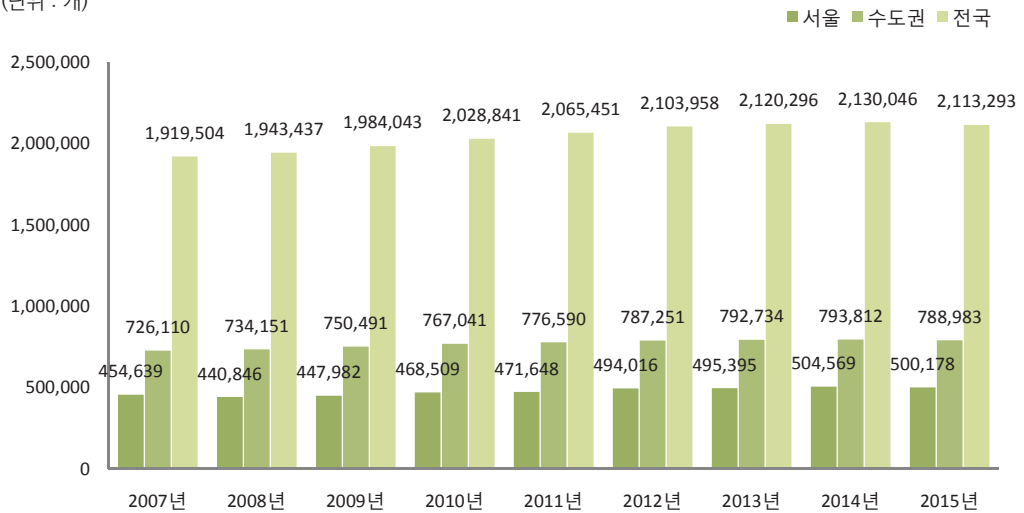


| 그림 3-44 | 서울시, 수도권, 전국의 대학 수

• 서울 대학생 수

2015년 서울 대학생은 500,178명으로 전년 대비 약 4천명 감소하였고, 전국 대학생 수의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그림 3-45 | 서울시, 수도권, 전국의 대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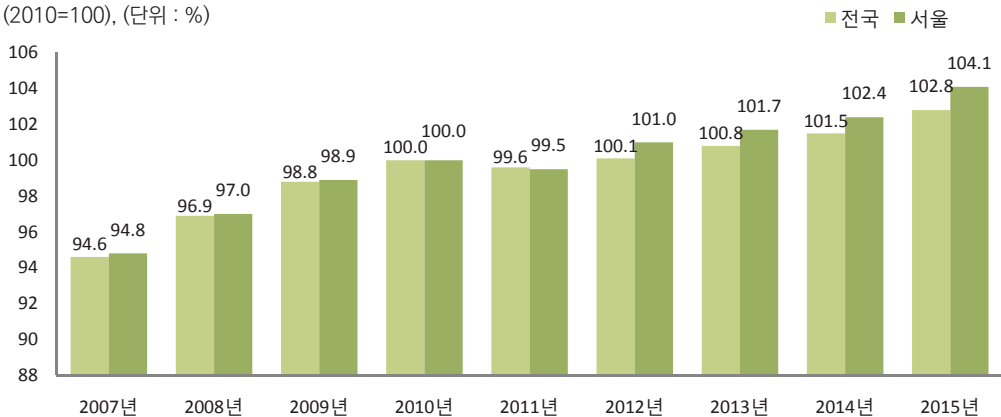
4. 생활환경

1) 지표별 현황

• 공공요금 수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의 한 가지 요소인 공공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공공요금 수준은 2015년 104.1%(2010년=100)로 2014년 대비 1.7%p 상승하였다.

(2010=1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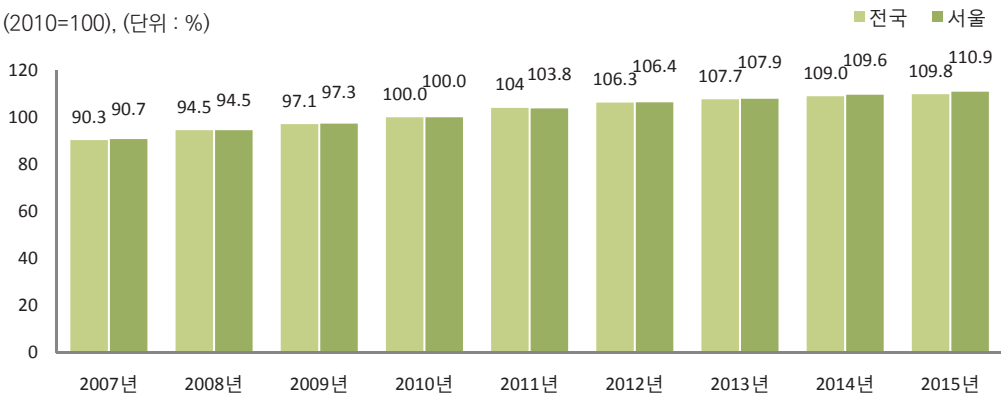


| 그림 3-46 | 공공요금 수준

•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상 소비생활에 사용할 용도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하여 도시가계의 평균 생계비 및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2015년 서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9%(2010년=100)로 전년대비 1.3%p 상승하였다.

(2010=1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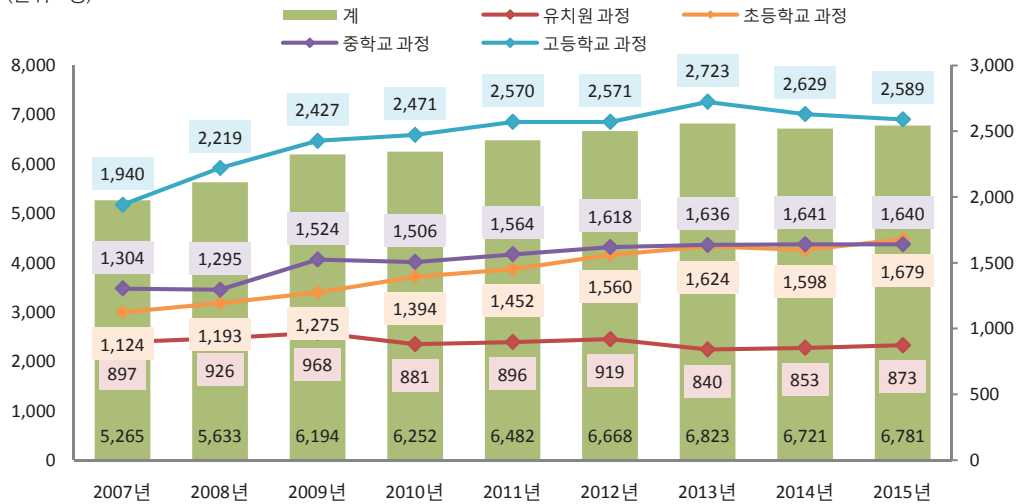


| 그림 3-47 | 소비자 물가지수

• 학교급별 외국인 학생수

2015년 외국인학교 학생수는 총 6,781명으로 유치원 과정이 873명, 초등학교 과정 2,589명, 중학교 과정 1,640명, 고등학교과정 1,679명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그림 3-48 | 학교급별 외국인학교 학생수

2015년 서울시 국제결혼 가정다문화 학생수는 총 11,642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514명(1.8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학교 2,049명(0.78%), 고등학교 1,079명(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7 |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현황

(단위: 명, %)

연 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수	비율	다문화 학생수	비율	다문화 학생수	비율	다문화 학생수	비율
2013	8,574	0.77	6,183	1.32	1,660	0.55	731	0.22
2014	9,831	0.92	6,987	1.53	1,838	0.64	1,006	0.31
2015	11,642	1.14	8,514	1.89	2,049	0.78	1,079	0.35

다문화학생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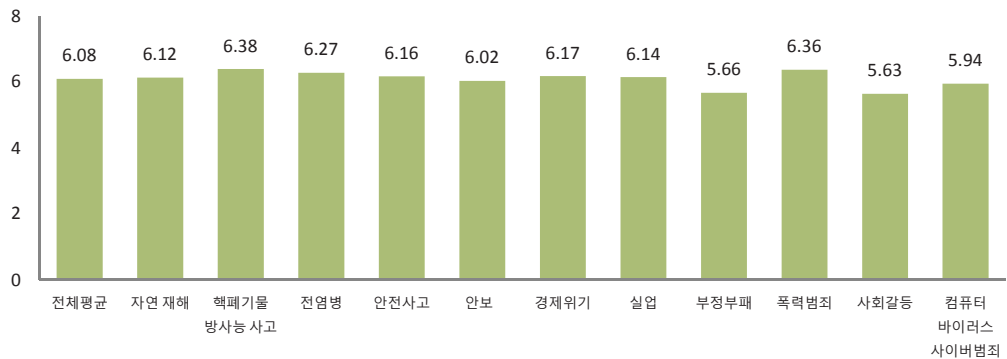
*비율은 각학교급별 전체 학생수 대비 비율임

출처 : 서울시 교육청, 2015 서울교육통계

• 도시위험도

2015년부터 조사된 도시위험도 종합점수는 6.08점으로 11개 부분별로는 핵폐기물 방사능사고가 6.38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범죄 6.36점, 전염병 6.27점, 경제위기 6.17점, 안전사고 6.16점, 실업 6.14점, 자연재해 6.12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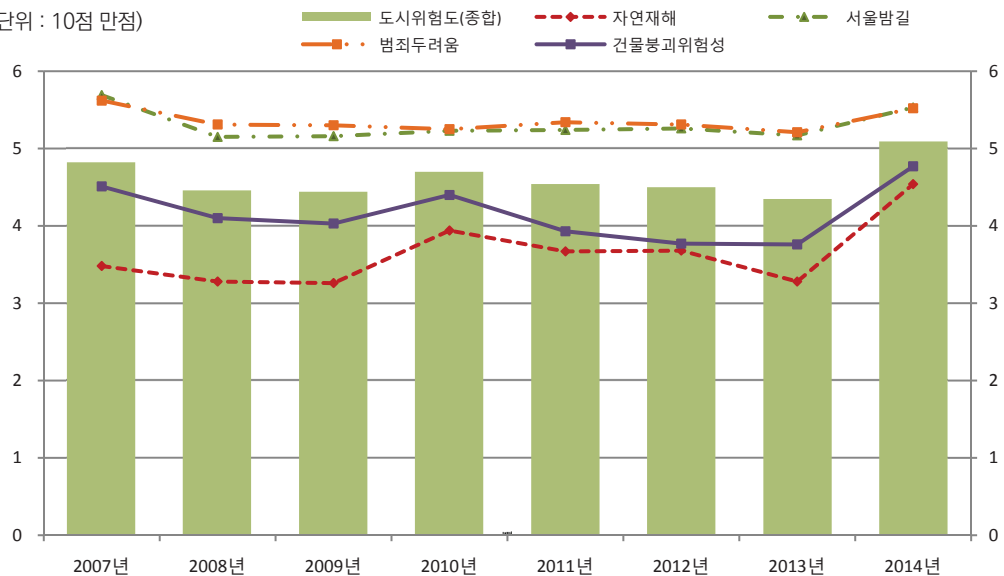
(단위 : 10점 평균)



| 그림 3-49 | 도시위험도

2014년 이전에 조사된 도시위험도는 자연재해, 서울범죄, 범죄두려움, 건물붕괴 위험성으로 구분된다. 종합위험도는 세월호 사건 등의 영향으로 위험 인식이 크게 증가한 2014년에 5.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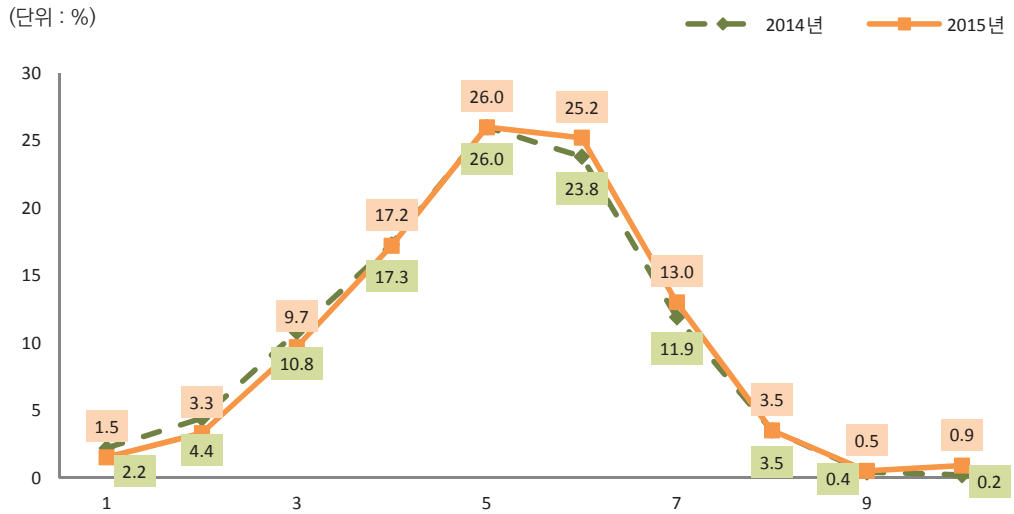
(단위 : 10점 만점)



| 그림 3-50 | 도시위험도

• (주관적) 소득인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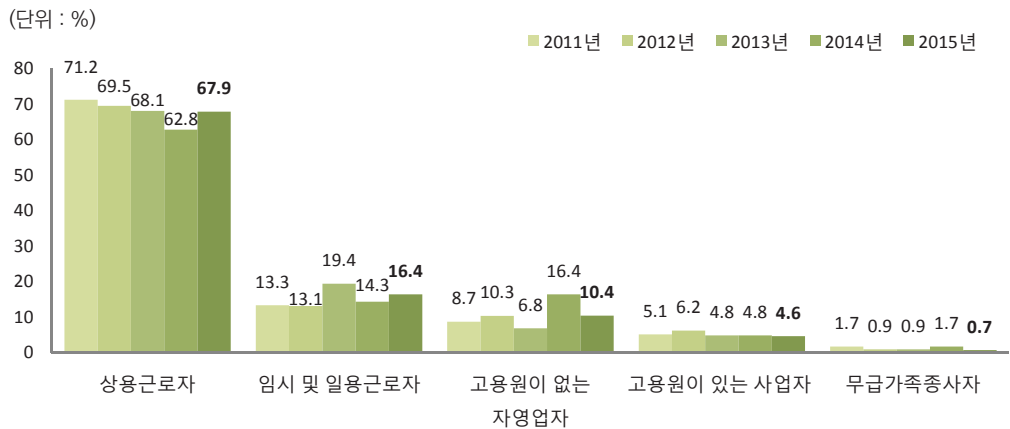
서울 거주 가구가 인식하는 주관적 소득수준을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중간 정도인 '5'가 26.0%, '6'이 25.2%로 나타났다.



| 그림 3-51 | 가구주 소득수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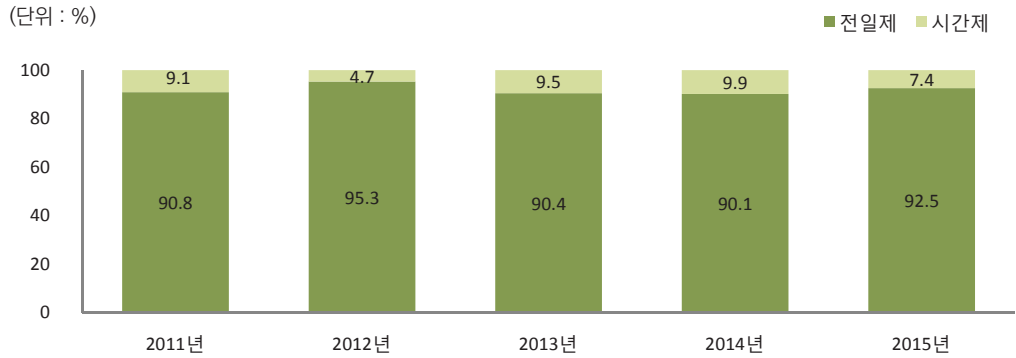
• 고용형태

서울시민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67.9%로 가장 많고,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16.4%), 단독자영업자(10.4%), 고용주(4.6%), 무급가족종사자(0.7%)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3-52 |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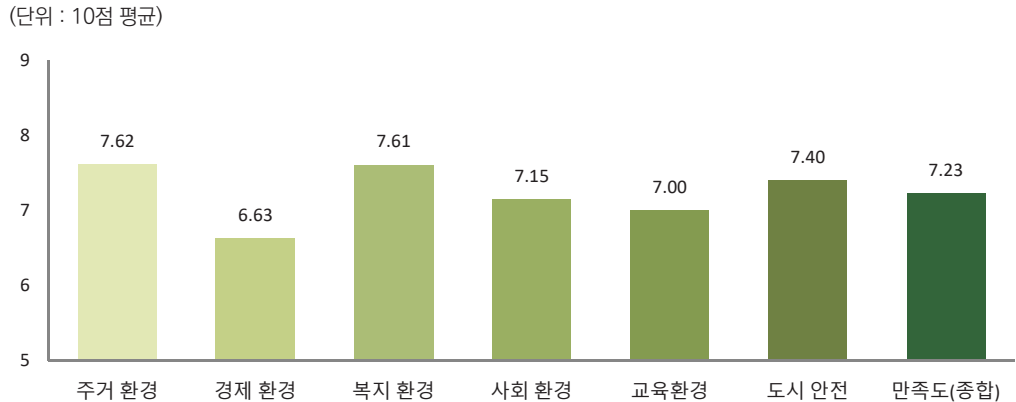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근무형태는 전일제가 92.5%, 시간제가 7.4%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무제의 경우, 10대(12.5%), 60세 이상(11.5%), 여성(11.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그림 3-53 | 근무형태

• 국내거주 외국인 삶의 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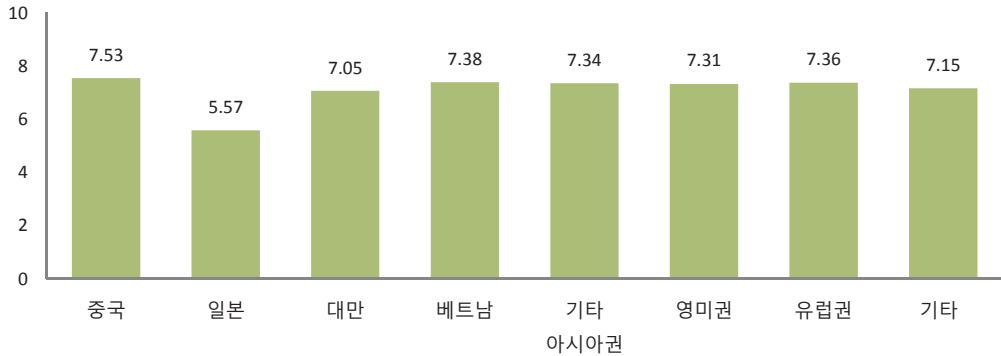
국내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는 7.23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들을 살펴보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7.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복지환경'(7.61점), '도시안전'(7.40점), '사회환경'(7.15점), '교육환경'(7.00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경제환경'(6.63점)이 낮게 나타났다.



| 그림 3-54 | 외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7.53점), 베트남(7.38점), 유럽권(7.36점), 기타 아시아권(7.34점), 영미권(7.31점)에서 높게 나타났고, 일본(5.57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10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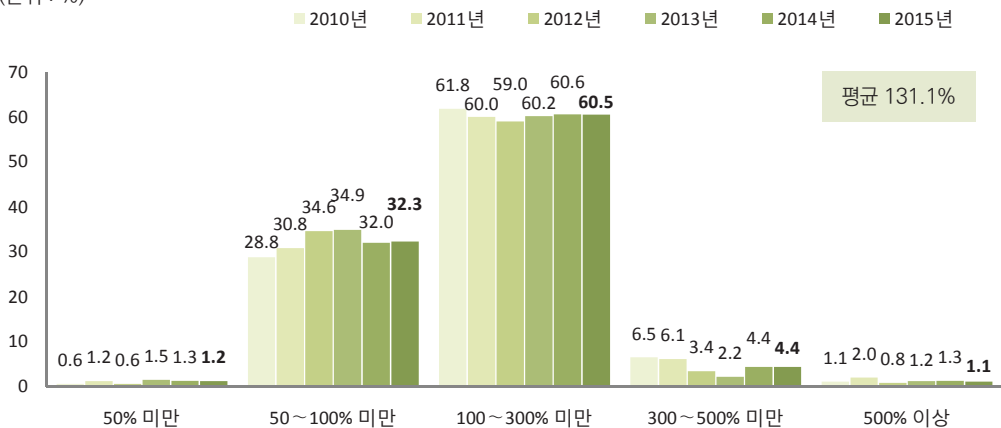


| 그림 3-55 | 국적별 외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 서울시 물가수준

서울의 물가수준을 출신국가와 비교할 때 평균 131.1%로 출신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2014년에 비해 1.2%p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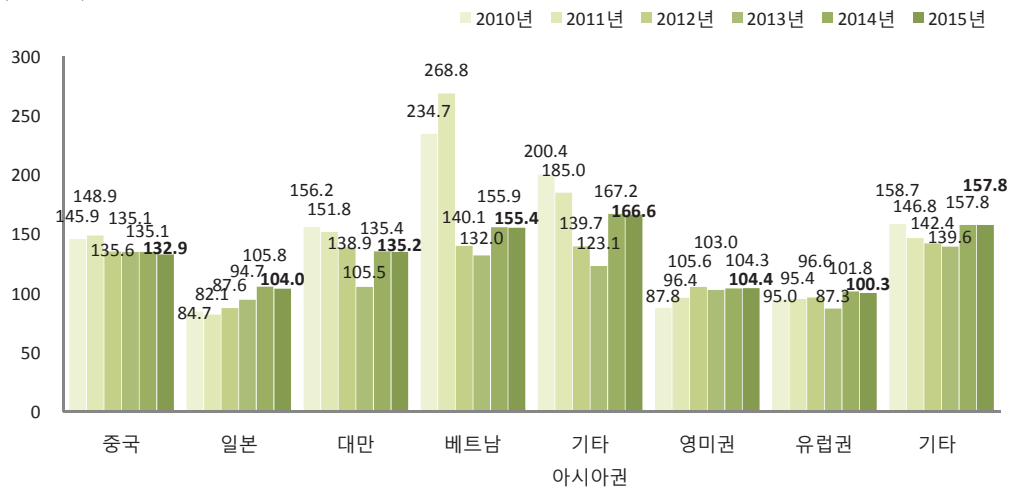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56 | 서울시 물가수준

국적별로는 기타 아시아권(166.6%)이 물가 수준을 가장 높게 체감하고 있었고, 기타(157.8%), 베트남(155.4%), 중국(132.9%), 대만(135.2%)의 순서로 서울의 물가수준이 높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전년도에는 자국보다 서울의 물가가 더 낮은 것으로 인식했던 유럽(101.0%)과 일본(105.8%) 국적 외국인도 2014년에는 서울의 물가수준이 높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단위 : %)



| 그림 3-57 | 국적별 서울의 물가수준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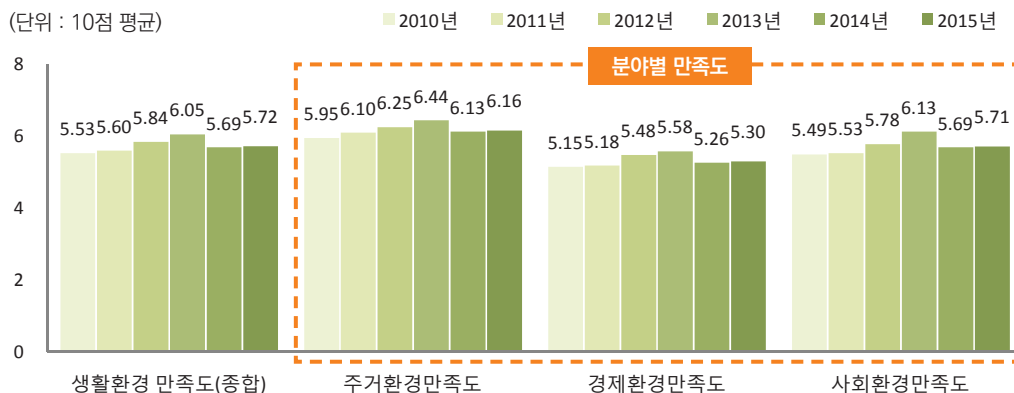
제3절 도시발전과 주거

1. 주거 환경

1) 지표별 현황

• 생활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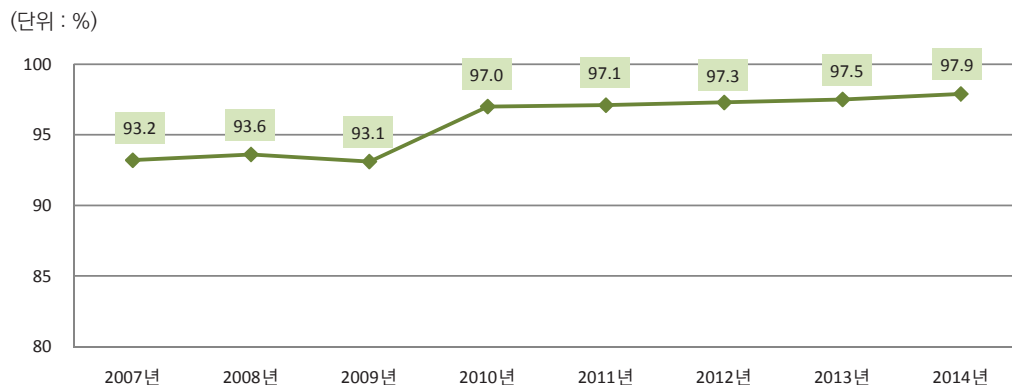
2015년 생활환경 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한 5.72점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만족도를 분야별로 살펴 보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6.16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환경(5.71점), 경제환경(5.30점)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3-58 | 생활환경만족도

• 주택보급률

2014년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97.9%로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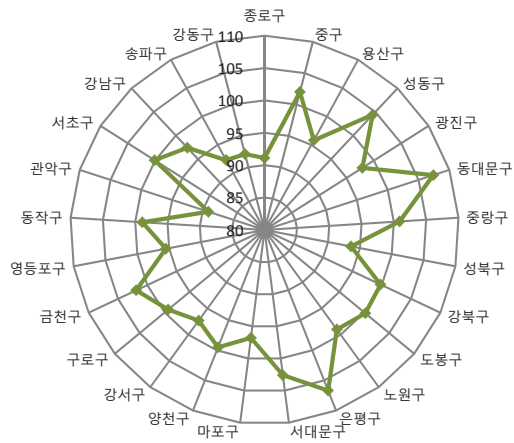
| 그림 3-59 |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이란?

- 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해양부 보고 산정기준)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
- 주택보급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구가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반영되기 직전 해의 주택수나 가구수 집계는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서초구의 자치구별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악구가 8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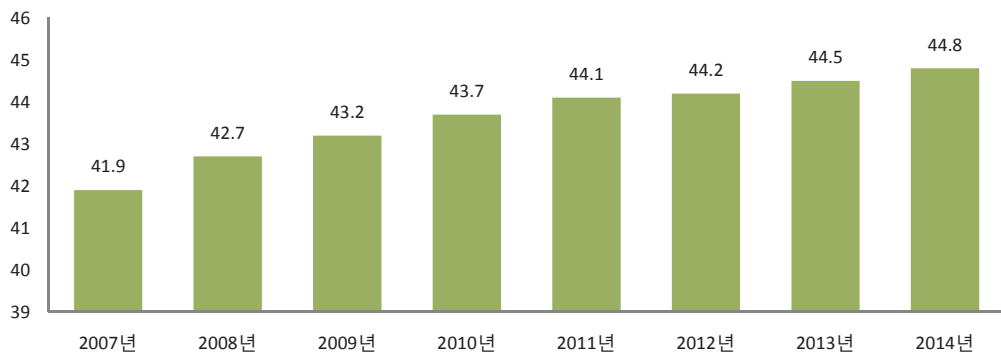


| 그림 3-60 | 주택보급률(구별)

• 아파트 거주가구비율

2014년 아파트 비율은 44.8%로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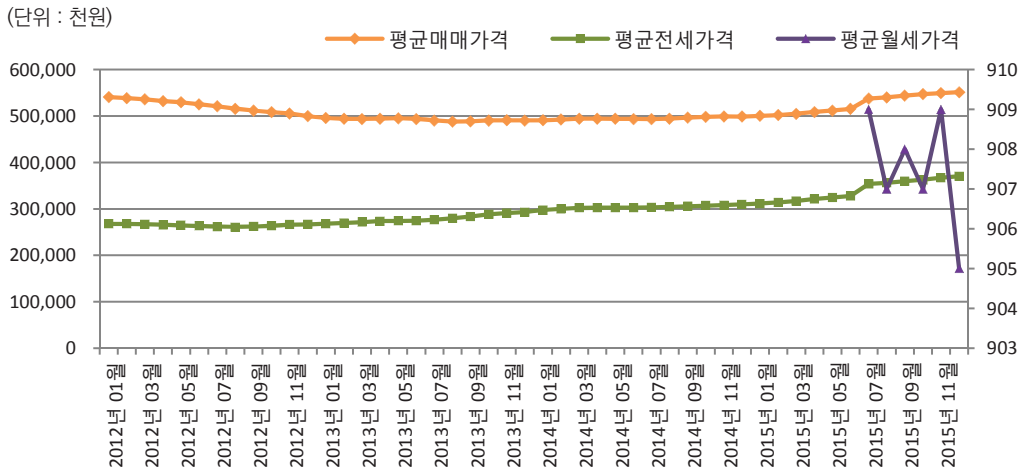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61 |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

● 아파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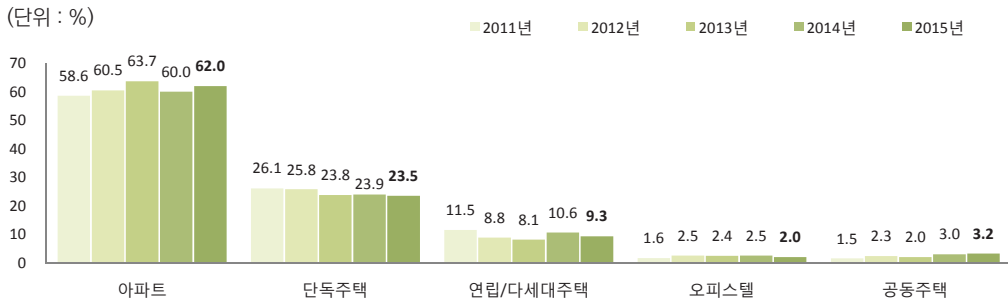
서울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2년 1월 기준 5억 4,095만원에서부터 2013년 8월 기준 4억 8,812만원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 12월 기준 5억 5,1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012년 1월 기준 2억 6,766만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12월 기준 3억 7,0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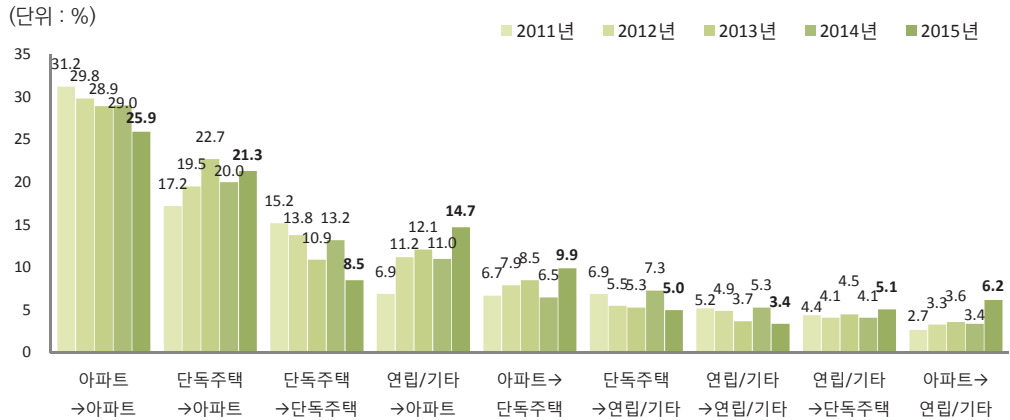
| 그림 3-62 | 연도별 아파트 가격

● 미래주택유형

서울 거주 가구의 10년 후 예상주거형태는 '아파트'(62.0%)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23.5%), '연립/다세대 주택'(9.3%)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10년 후 예상주거 형태로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2.0%p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은 0.4%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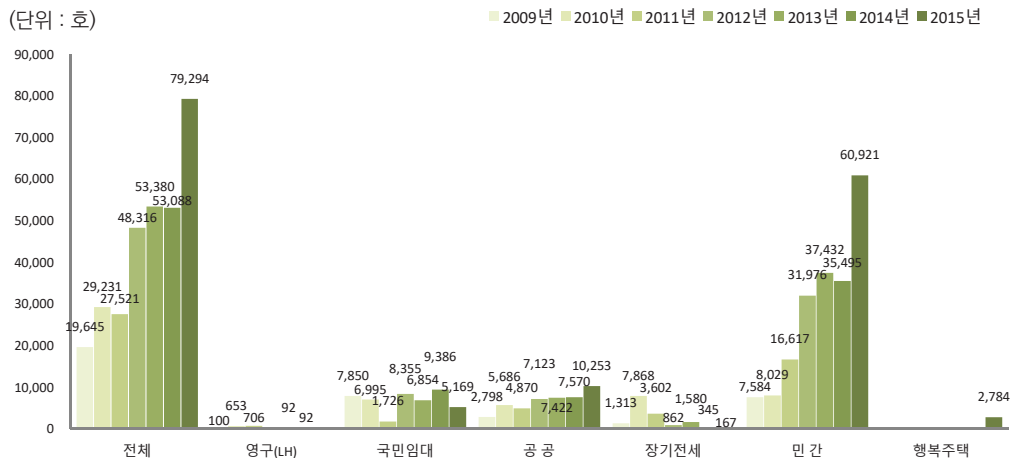
| 그림 3-63 | 10년 후 주택 형태



| 그림 3-64 | 미래주택 형태 변화

●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공공임대주택은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공급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고 일종의 정부가 구축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2009년 19,645호에서 2015년에는 79,294호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약 26,000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 임대주택이 60,921호로 가장 많았고, 공공 10,253호, 국민임대 5,169호, 장기전세 167호였으며, 행복주택은 2015년부터 집계되어 2,784호가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65 |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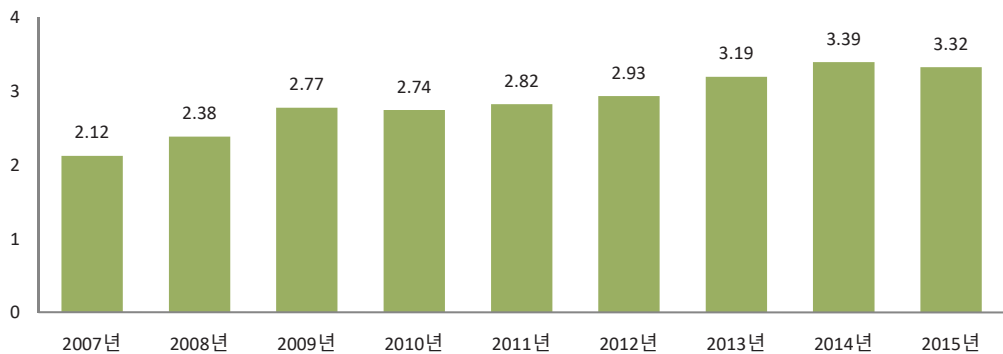
2. 생활환경

1) 지표별 현황

•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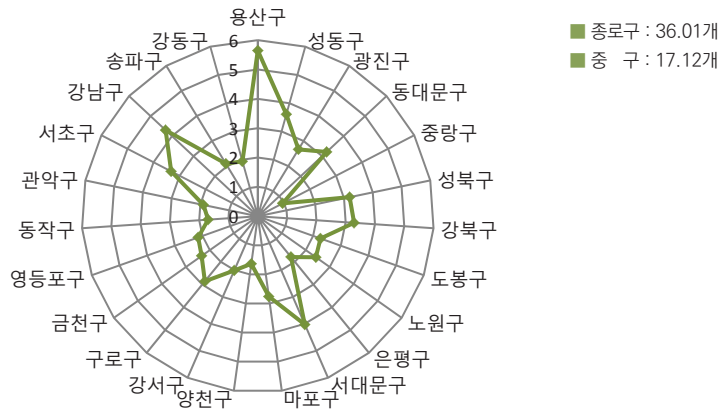
인구십만명당 문화시설수(2015년)는 3.32개소로 2014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구별로 살펴보면 종로구가 36.01개, 중구 17.12개로 도심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중랑구가 0.96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 : 개)



| 그림 3-66 |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 수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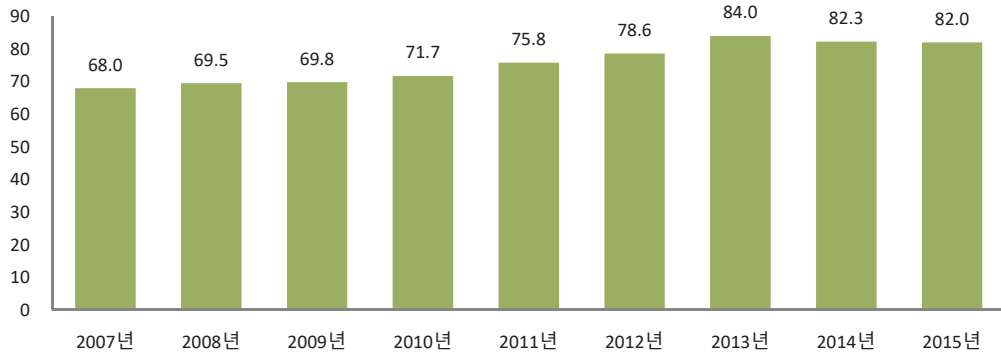


| 그림 3-67 |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 수(구별)

•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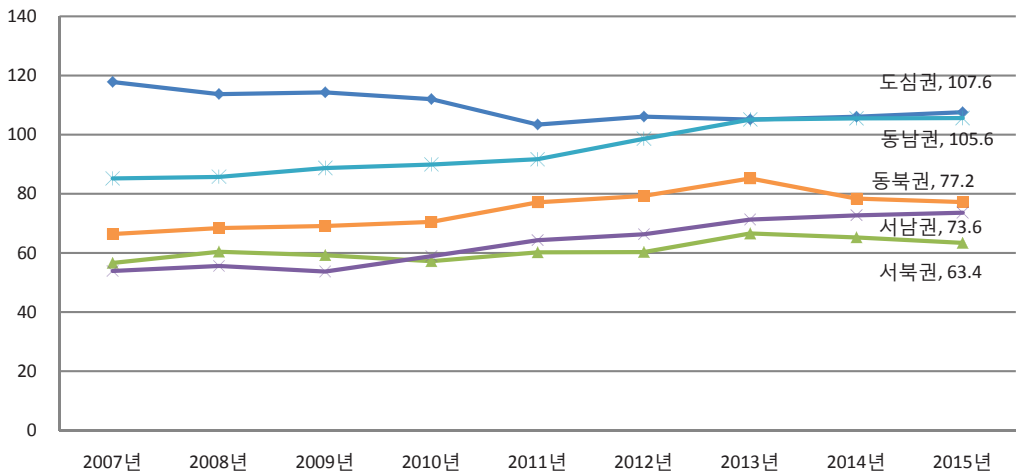
2015년 인구만명당 의료시설 수(병상수)는 82.0개로 전년 대비 0.3개 감소하였으며,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에서 병상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종로구에서 인구만명당 202.4개로 가장 많았지만, 마포구는 15.3개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구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인구 만명당 시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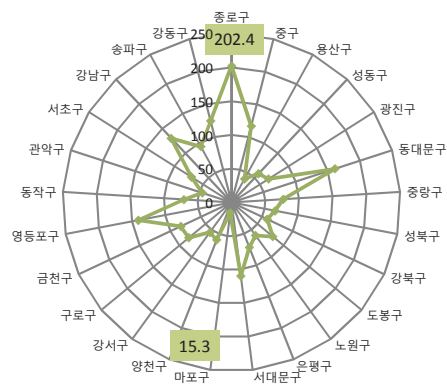
| 그림 3-68 | 인구 만명당 의료시설 수

(단위 : 인구 만명당 시설수)



| 그림 3-69 | 인구 만명당 의료시설 수(권역별)

(단위 : 인구 만명당 시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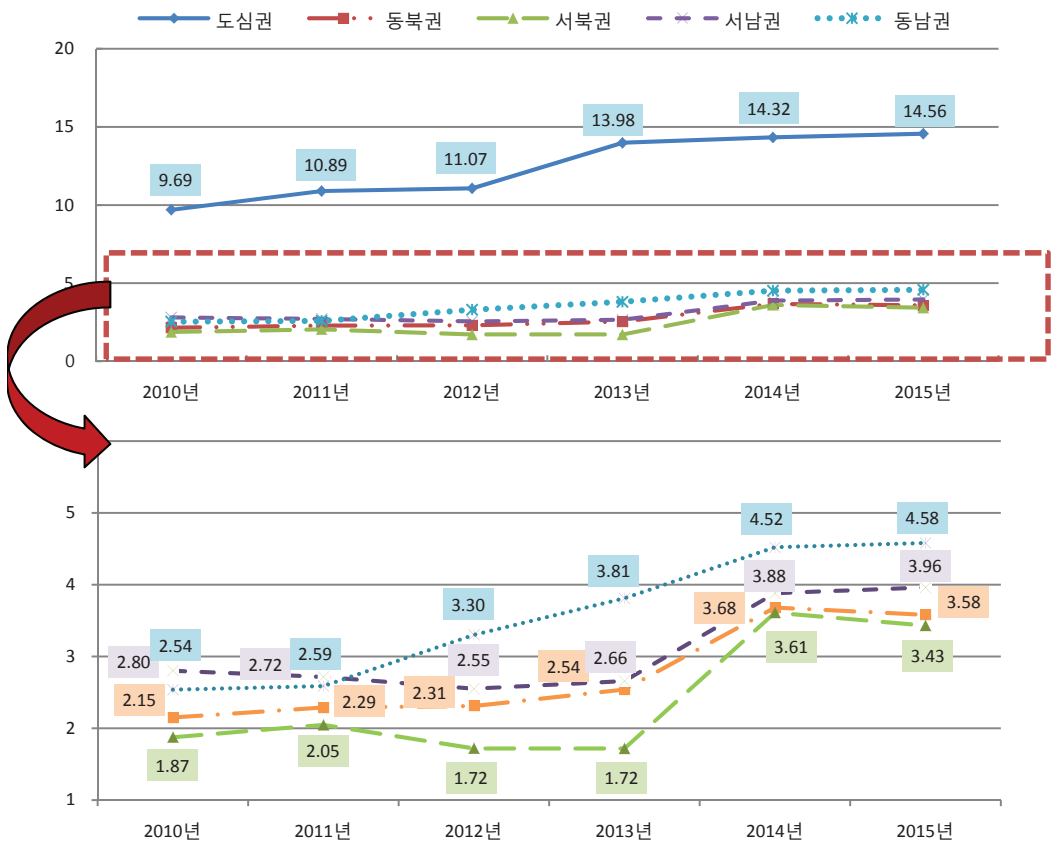


| 그림 3-70 | 인구 만명당 의료시설 수(구별)

• 유통시설

유통시설이란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도매센터 등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2015년 서울시의 인구십만명당 유통시설은 4.48개로 나타났다. 2015년 권역별 유통시설은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에서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동북권, 서북권에서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인구 십만명당 시설수)



| 그림 3-71 | 유통시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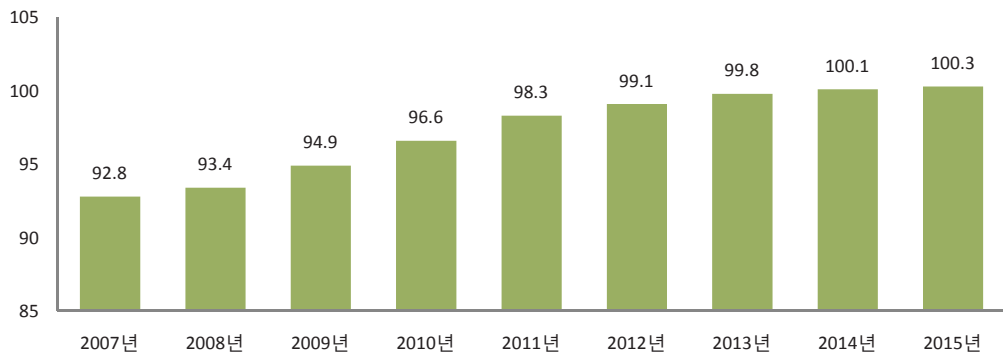
통계작성기준 변경

- “일반시장(market)”이 “기타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면서 본 그래프에서 생략됨(2009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통합·조정됨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거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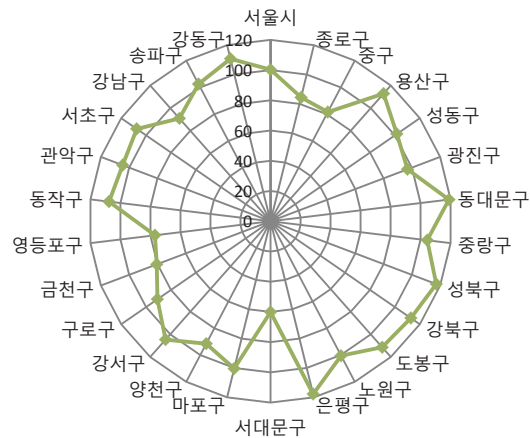
주택가 주차장은 노상(의(구영+거주자우선), 노외의 구영, 건축물 부설 중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주차 면수를 의미한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그린파킹을 포함한 생활권역 내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에는 100.3%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장 확보율의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높은 동대문구가 118.9%인 반면, 서대문구는 동대문구의 1/2수준인 6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차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차장 공급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 그림 3-72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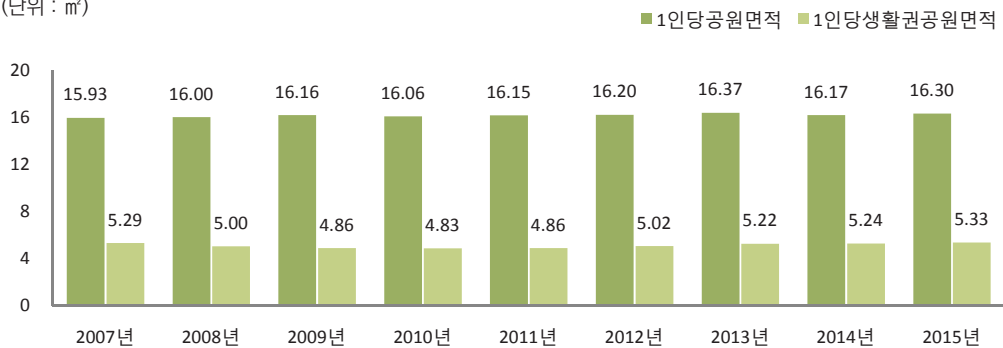


| 그림 3-73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구별)

•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생활권공원이란 공원이용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공원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도시자연공원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단, 묘지공원, 서울대공원, 국립공원은 제외). 서울에는 산을 포함한 모든 공원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은 2010년 이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은 5.33㎡로 전년보다 0.0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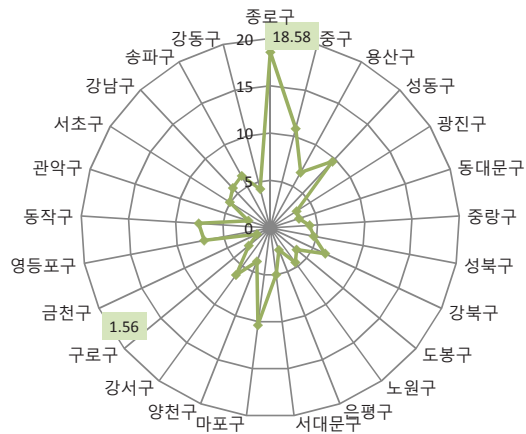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74 | 1인당 공원면적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의 구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으며 종로구가 18.58㎡로 가장 크고, 금천구는 1.56㎡로 가장 작았다.

(단위 : ㎡)



| 그림 3-75 |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구별)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도시자연공원 × 0.08) +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 소공원 + 체육공원 + 문화공원 + 역사공원 + 수변공원 + 기타공원} ÷ 인구수
※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면적에서 서울대공원 면적은 제외

3. 교육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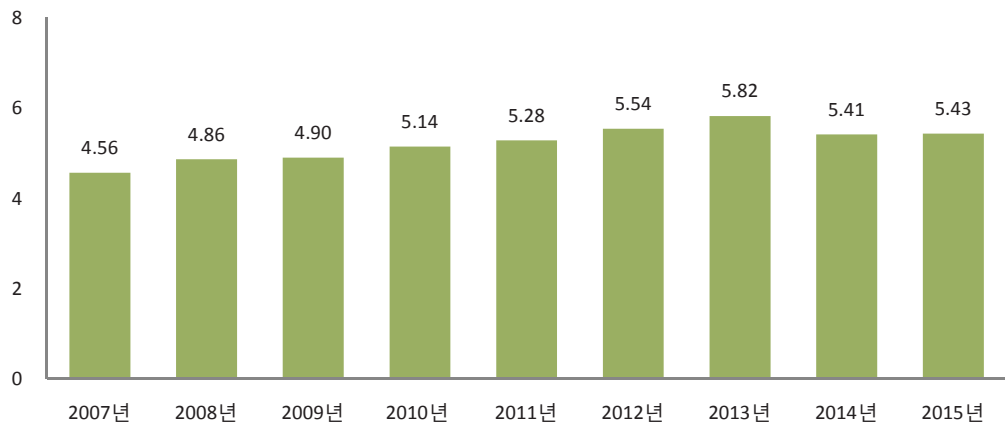
1) 지표별 현황

•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거주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 5.43점으로 전년대비 0.0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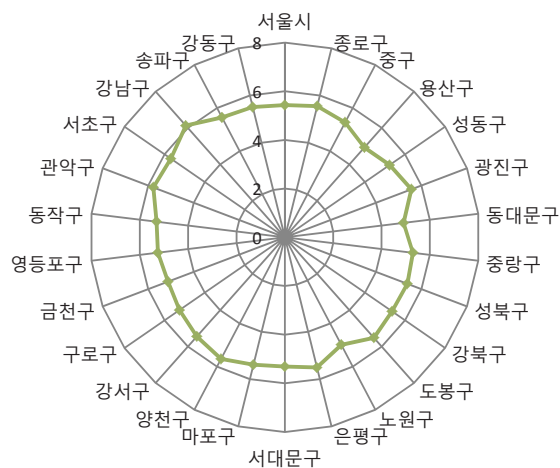
구별 교육만족도는 강남구(6.52점)와 서초구(6.47점)가 높게 나타났고, 금천구(4.25점)와 중구(4.72점)가 낮게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 그림 3-76 |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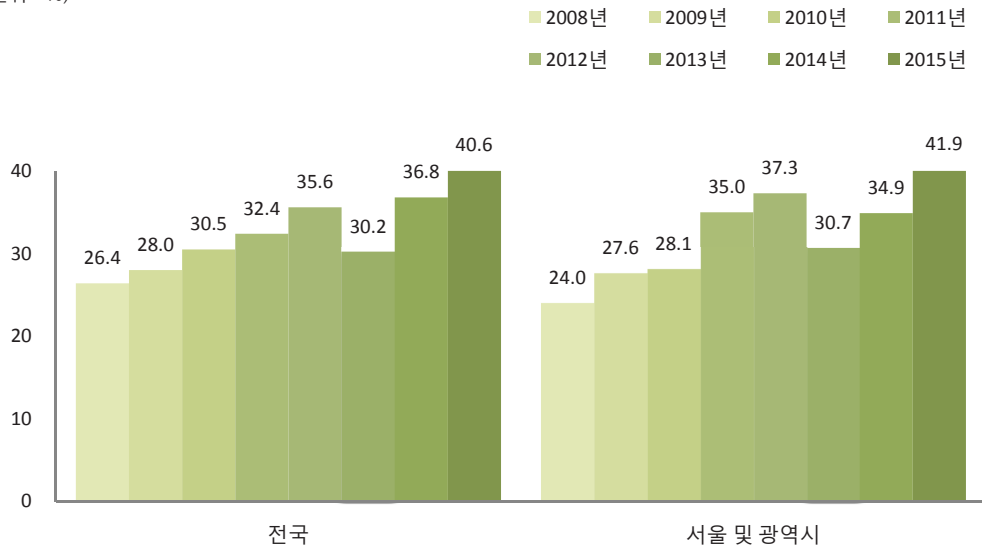


| 그림 3-77 | 거주지역 교육만족도(구별)

• 평생교육참여율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평생교육참여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3년 감소하였고,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2015년 서울 및 광역시의 평생교육참여율은 41.9%로 전국(40.6%) 대비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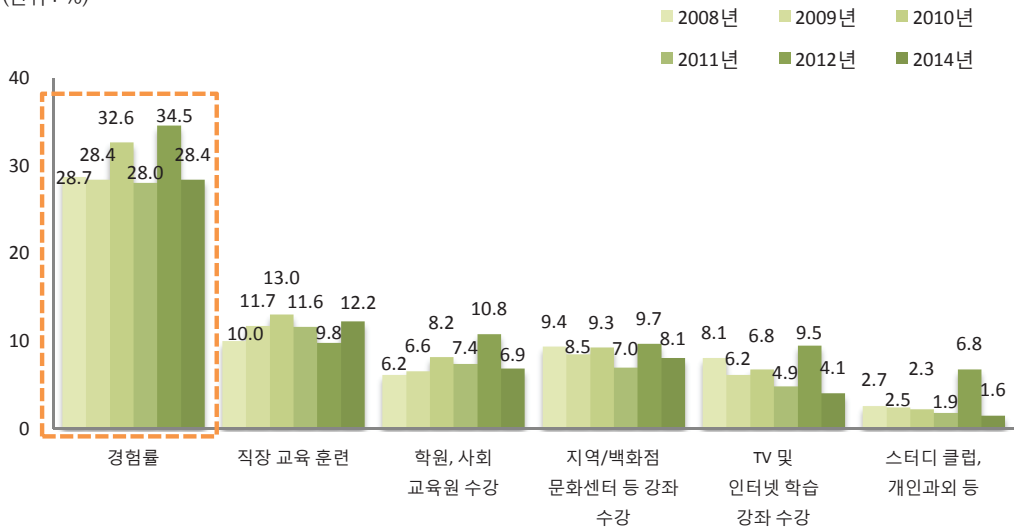
| 그림 3-78 | 평생교육 참여율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 평생학습 참여율이란 지난 1년간(조사기준일: 전년도 7월 1일~당해년도 6월 30일까지) 만25세부터 만64세까지 한국 성인 인구 중에서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을 의미함
- 형식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을 말하며,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석사, 박사), 학점은행제, 검정고시를 포함함
- 비형식교육은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함.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 수강, 주민자치 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 강좌,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등을 포함함
- 비형식교육은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함.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 수강, 주민자치 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 강좌,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등을 포함함

2014년 실시한 서울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시민의 28.4%가 학교 교육을 제외한 평생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대비 6.1%p 감소하였다. 또한 경험해 본 평생교육(1순위)으로는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12.2%), '지역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강좌 수강'(8.1%), '학원, 사회(평생)교육원 수강'(6.9%),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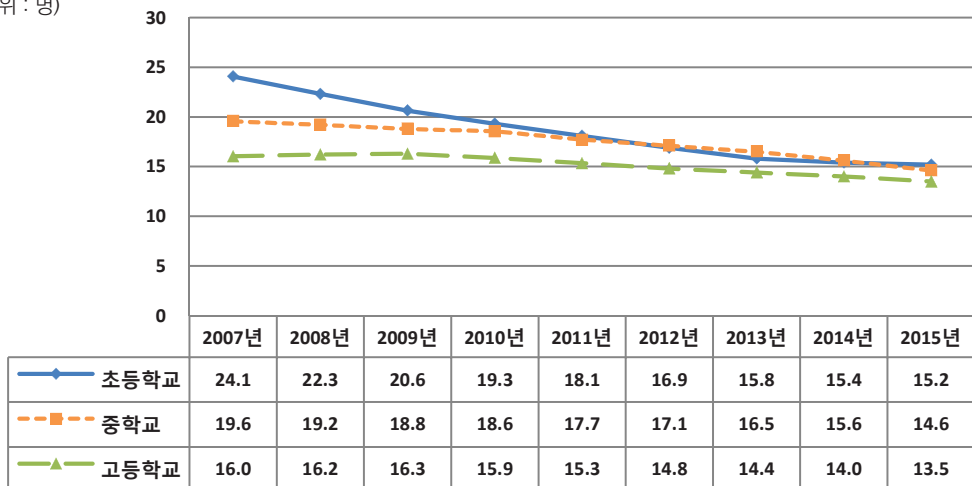


| 그림 3-79 | 평생교육 경험률

• 교원1인당 학생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4.6명, 고등학교 13.5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 여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단위 : 명)



| 그림 3-80 | 교원1인당 학생수

OECD 교육지표(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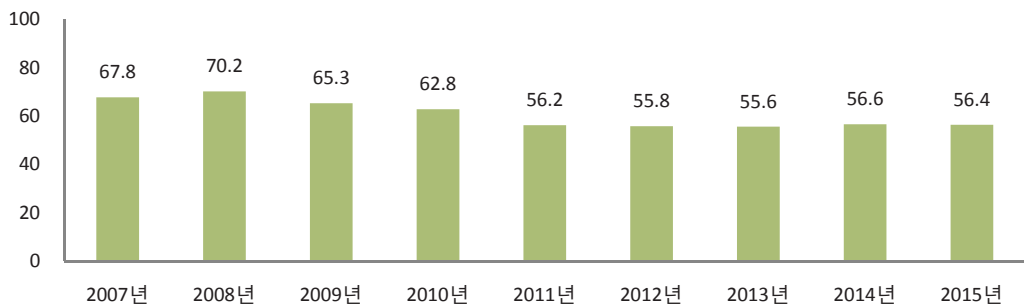
•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2012)

	교사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OECD 평균	15.3	13.5	13.8	21.3	23.5
한국	18.4	18.1	15.4	25.2	33.4

• 고졸생의 대학 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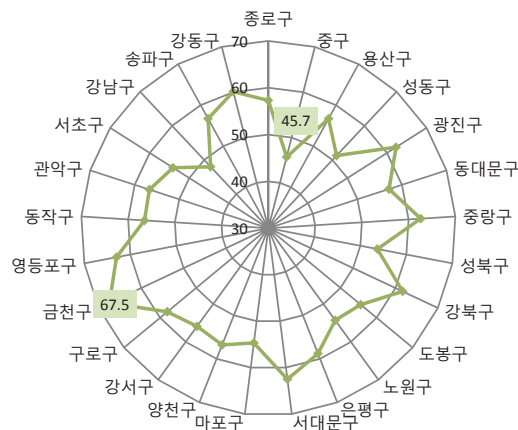
서울시 전 지역의 고졸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5년 56.4%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구별 현황을 보면 금천구가 67.5%로 가장 높고 중구가 4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4년제 이상 종합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 재수나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위 : %)



| 그림 3-81 | 고졸생의 대학 진학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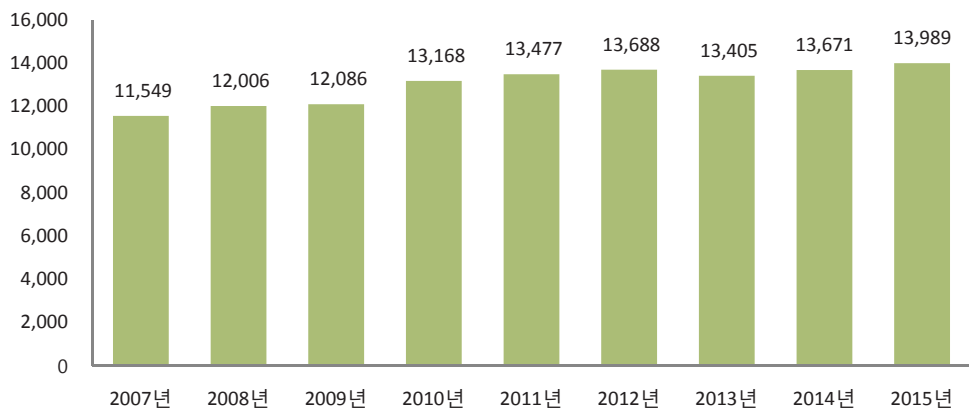


| 그림 3-82 | 고졸생의 대학 진학률(구별)

• 사설학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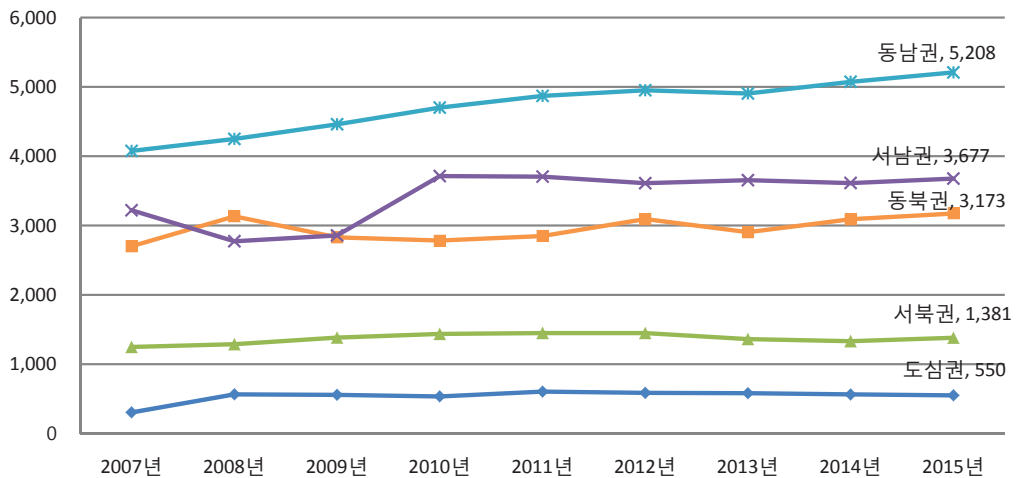
사설학원 수는 2015년 13,989개로 전년대비 318개가 증가하였다. 권역별 교육시설 격차를 살펴보면, 동북권(3,173개)과 동남권(5,208개)이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하락하였다. 구별로 살펴본 결과 강남구(2,196개), 서초구(1,181개), 송파구(1,100개)에 사설학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구(126개)와 용산구(163개)에서 사설학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및 구별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 사설학원수로 대표되는 사교육의 권역별, 구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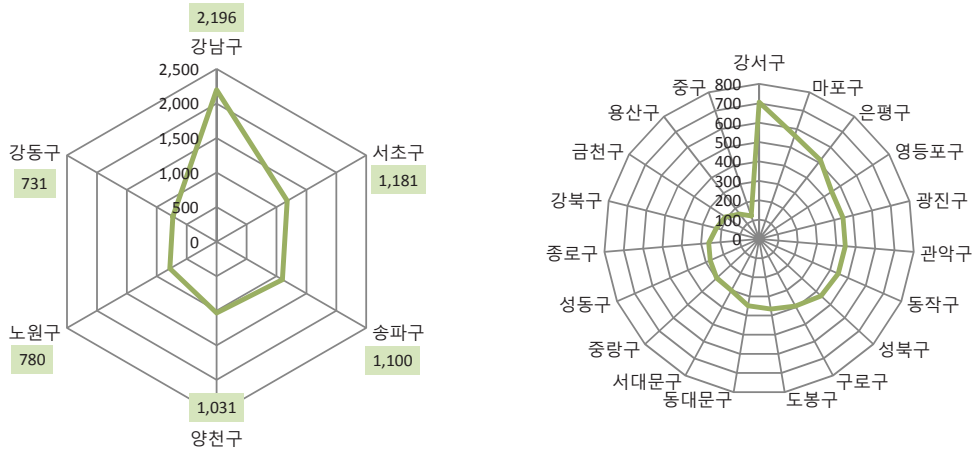
| 그림 3-83 | 사설학원 수

(단위 : 개)



| 그림 3-84 | 사설학원 수(권역별)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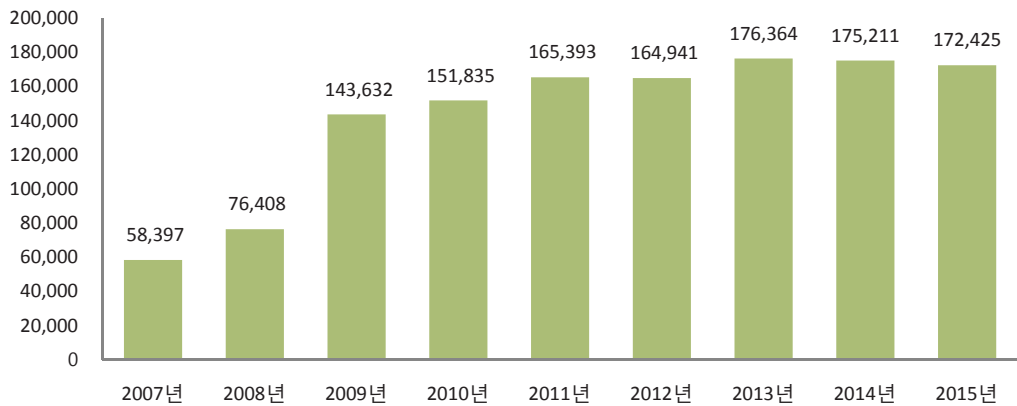


| 그림 3-85 | 사설학원 수(구별)_좌) 상위집단/ 우) 하위집단

• 교육재정 지원액

2015년 교육재정 지원액은 172,425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2,786백만원 상승했다. 교육재정 지원액의 권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으며 작년대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은 교육재정지원액이 상승하였고, 서북권, 서남권은 감소하였다. 구별로 살펴본 결과, 강남구(17,701백만원)와 송파구(10,320백만원)가 가장 많았고, 금천구(2,947백만원)와 용산구(3,256백만원)가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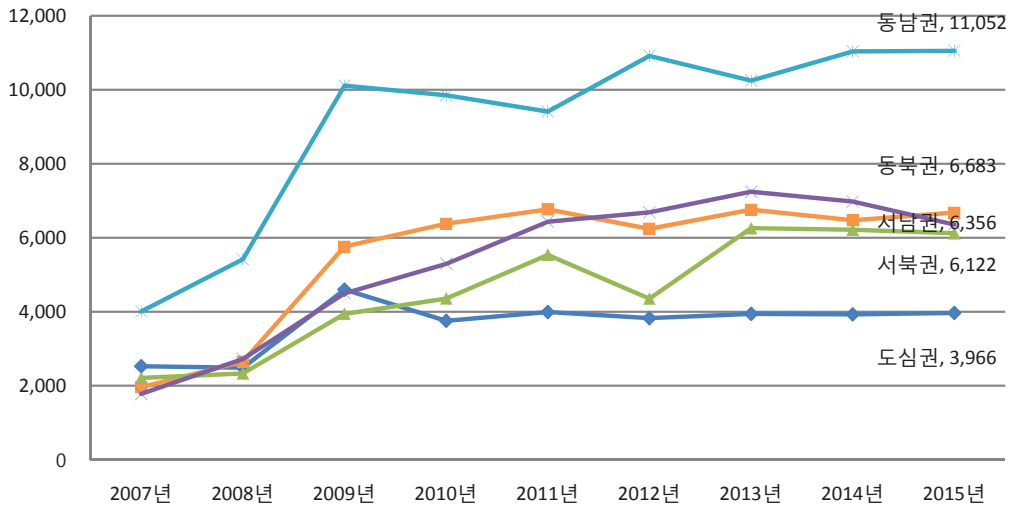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주 : 본청 편성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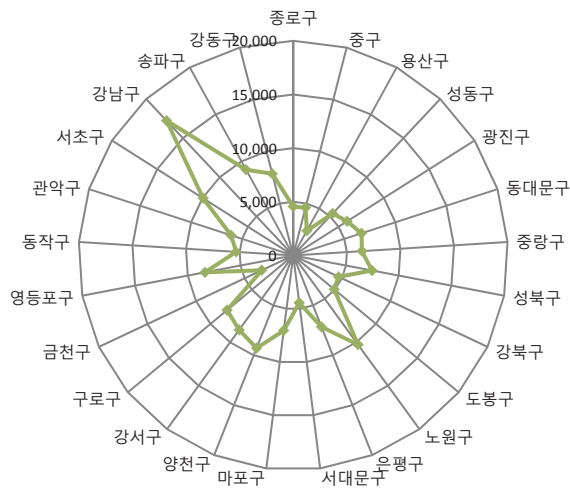
| 그림 3-86 | 교육재정 지원액

(단위 : 백만원)



| 그림 3-87 | 교육재정 지원액(권역별)

(단위 : 백만원)



| 그림 3-88 | 교육재정 지원액(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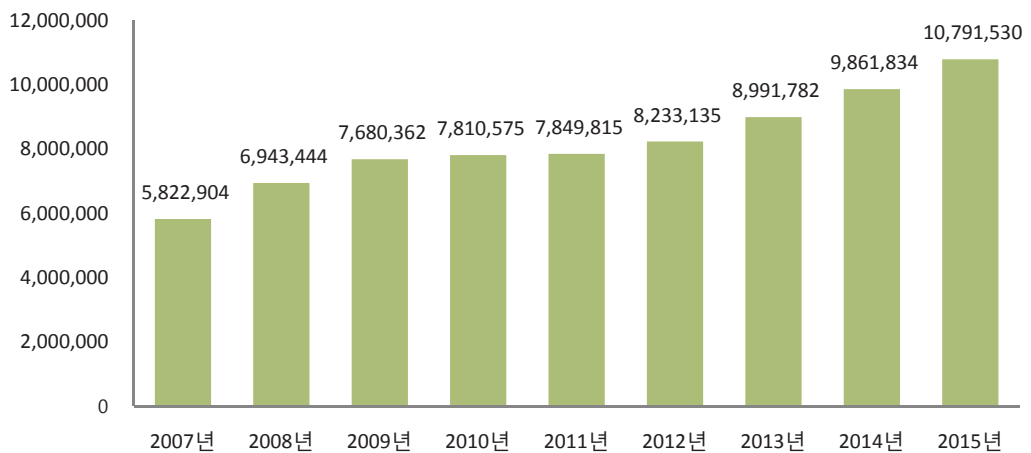
4. 재정수준

1) 지표별 현황

• 재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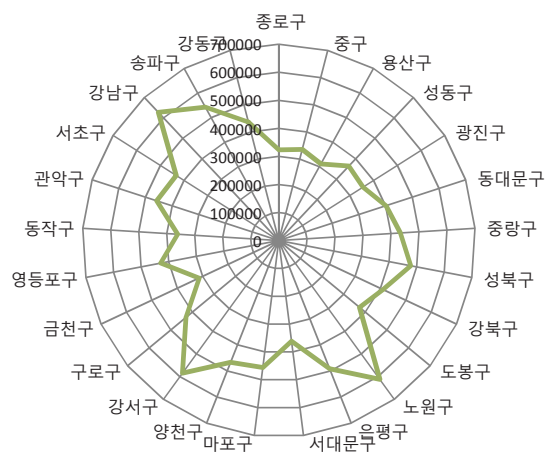
2015년 서울시의 재정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10조 792억 원이며, 업무기능이 발달하고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 그림 3-89 |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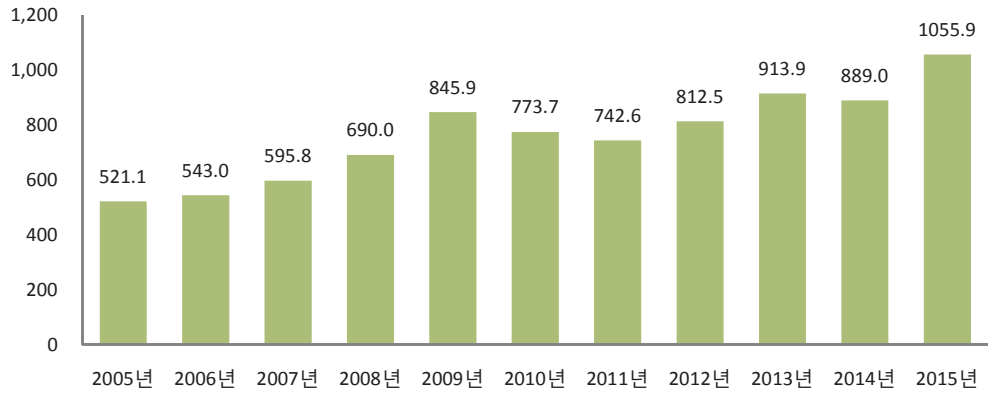


| 그림 3-90 | 재정규모(구별)

■ 1인당 세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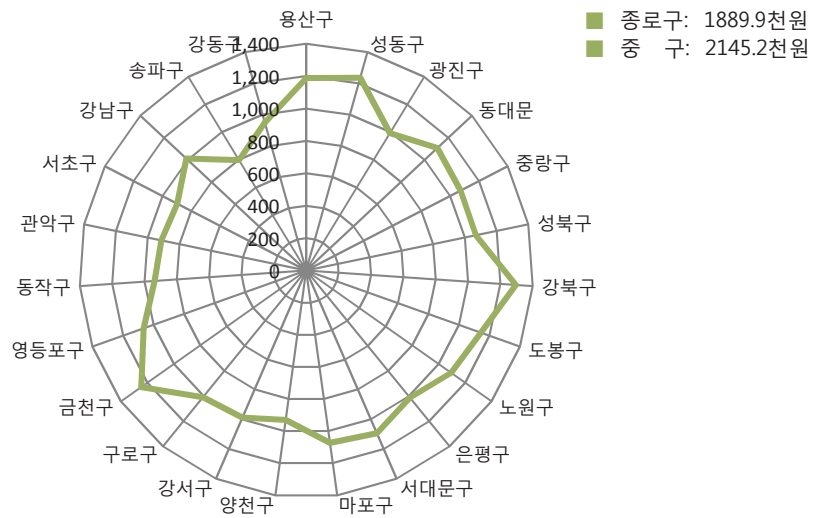
2015년 1인당 세출액은 105만 5천원으로 2013년 대비 16만 6천원 감소하였으며, 구별 세출액은 중구가 2,14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가 798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 : 천원)



| 그림 3-91 | 1인당 세출액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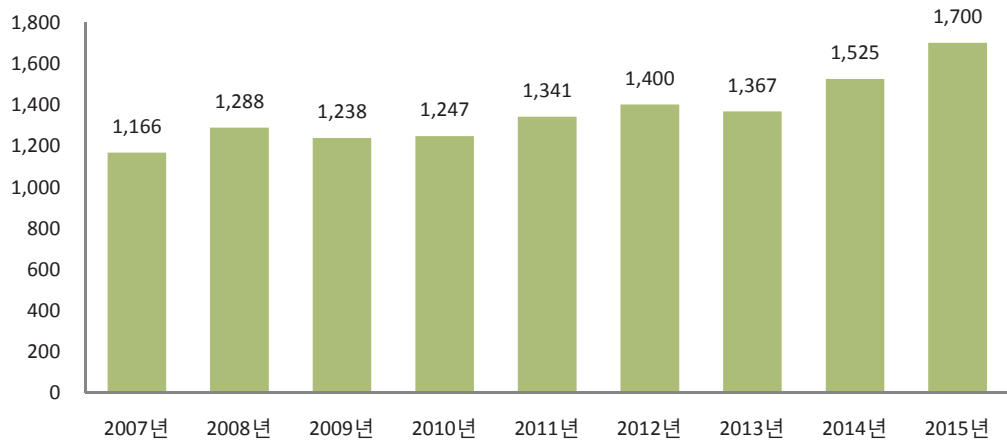


| 그림 3-92 | 1인당 세출액(구별)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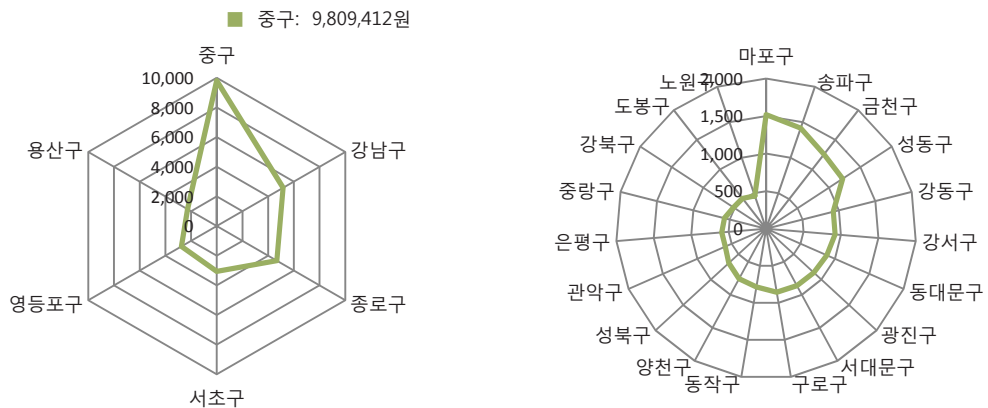
2015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8만원 상승하였으며, 구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중구가 981만원으로 가장 높고 노원구가 4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 : 천원)



| 그림 3-93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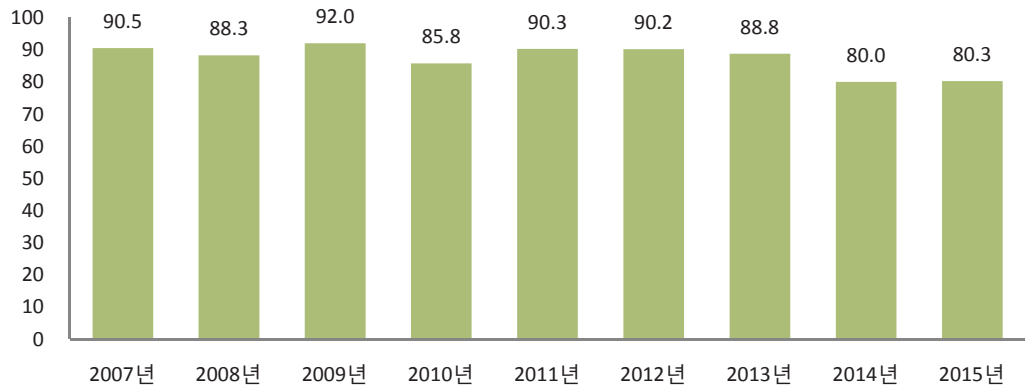


| 그림 3-94 | 1인당 지방세 부담액(구별)_(좌) 상위집단/ (우) 하위집단

•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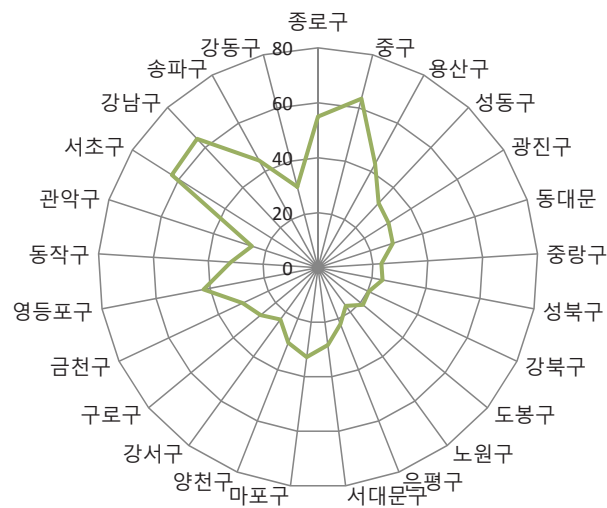
2015년 서울시 전체 재정자립도는 80.3%로 전년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구별 재정자립도는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3%)가 높았고 노원구(15.9%), 강북구(18.6%)가 낮았다.

(단위 : %)



| 그림 3-95 | 재정자립도

(단위 : %)



| 그림 3-96 | 재정자립도(구별)

제4절 문화

1. 시민문화활동

1) 요약 및 정책제안

시민의 문화소비 활동 욕구 다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설계 필요

2014년 시민 문화활동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문화활동이 위축되면서 문화예술계 전반의 침체가 동반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이다. 예를 들어 연극(뮤지컬)의 경우, 참여횟수가 0.25회(2010년)에서 0.33회(2014년)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지출비용도 52,000원(2010년)에서 66,500원(2014년)으로 늘어났다.

시민의 문화활동 확대는 문화활동 욕구 다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2012년과 2014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주말 여가활동(중복응답, 1+2+3순위) 중 TV 시청은 77.9%에서 76.8%로, 휴식은 47.1%에서 27.4%로, 컴퓨터게임은 27.3%에서 23.8%로 감소한 반면, 문화예술관람은 21.4%에서 24.4%로, 여행은 38.4%에서 43.0%로 증가하였다. 창작적 취미활동과 운동경기관람 역시 미세한 수준이나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의 문화활동이 전통적인 소극적 방식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화활동욕구 변화에 부응하여 문화정책 역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활동의 양극화 해소 필요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문화활동을 향유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경향을 보인다. 문화활동 횟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치구별로도 8.0회부터 2.2회까지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활동 횟수의 차이는 특히 40대 이상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족단위 문화활동에서 경제적 제약요인이 주요 장애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문화관람 횟수 상위 20%가 전체 인구 문화관람의 61%(상위 10%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이와 관련한 지출금액은 상위 20%가 전체의 72%(상위 10%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으로서는 '비용'이 56.3%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경제적인 요인이 문화활동 참여율과 크게 관련을 가지면서, 문화활동에서도 소위 20:80 법칙에 근사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문화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다 양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환경의 질적 업그레이드 필요

서울시 문화환경 만족도는 2013년 6.41점에서 2014년 5.91점, 2015년 5.63점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문화환경 만족도가 2006년(5.18점)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점, 그리고 최근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상승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문화환경 만족도의 저하는 주의를 요구한다.

서울문화재단과 자치구 회원대상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활동 수준과 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치구 공공 문화시설과의 서비스 접점에 의존도가 높을수록, 서울시 전체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문화활동 고관여자의 경우 어느 정도 문화활동의 횟수가 확보된 이후에는 단순한 횟수의 증가가 만족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문화환경의 개선을 위해 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문화활동이 다변화되고 시민의 욕구가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시민 만족도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문화활동 욕구 및 문화활동 참여자의 활동패턴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을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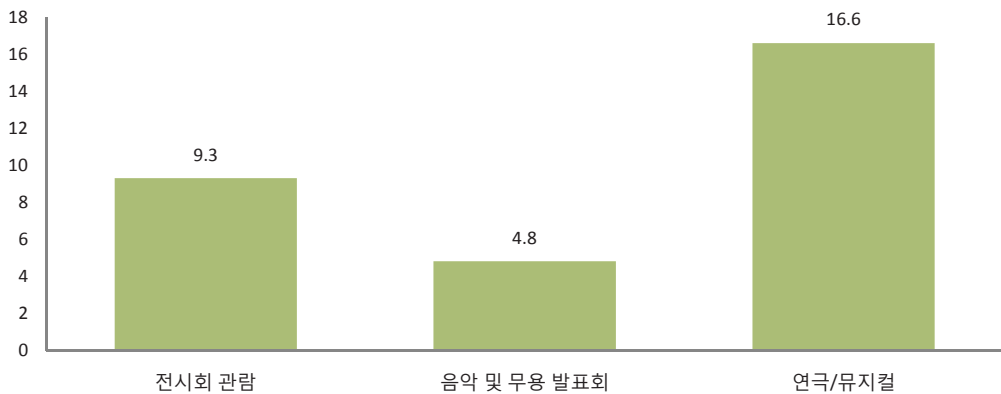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문화공간은 '서울에 위치한 전통문화공간'(60.6%)이다. 그러나 전통문화공간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에게는 박물관이나 전통공연장소 등도 모두 한국의 전통문화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통문화공간 방문 비율보다 영화관, 대중음악 콘서트장 등의 방문 경험자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술관, 대중음악 콘서트장의 경우 비 중국권 외국인의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표설명

• 예술관람률

서울시민의 지난 1년동안 문화활동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 전시회 관람률은 9.3%, 음악 및 무용 발표회는 4.8%, 연극/뮤지컬은 16.6%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97 | 예술관람률

• 영화관람률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활동은 '영화관람'이며 2014년 63.2%로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화관람률은 여성, 20대, 미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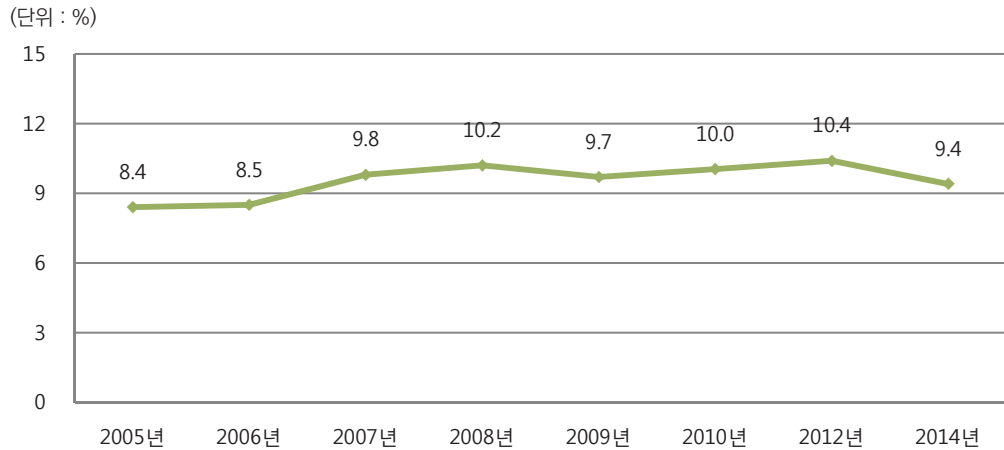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98 | 영화관람률

• 스포츠 경기 관람률

2014년 서울시민의 스포츠 경기 관람률은 9.4%로 2012년에 1.0%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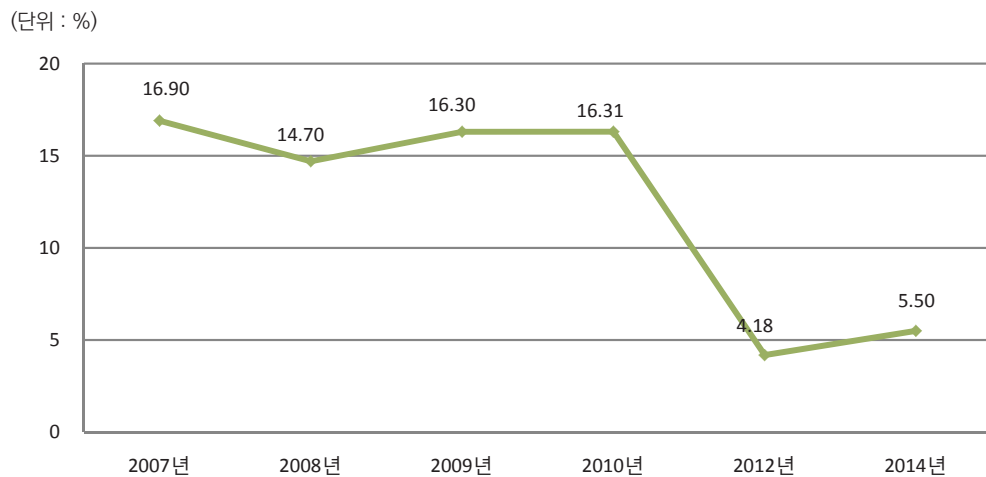


주: 2010년부터 격년조사

| 그림 3-99 | 스포츠 경기 관람률

• 전통예술공연 관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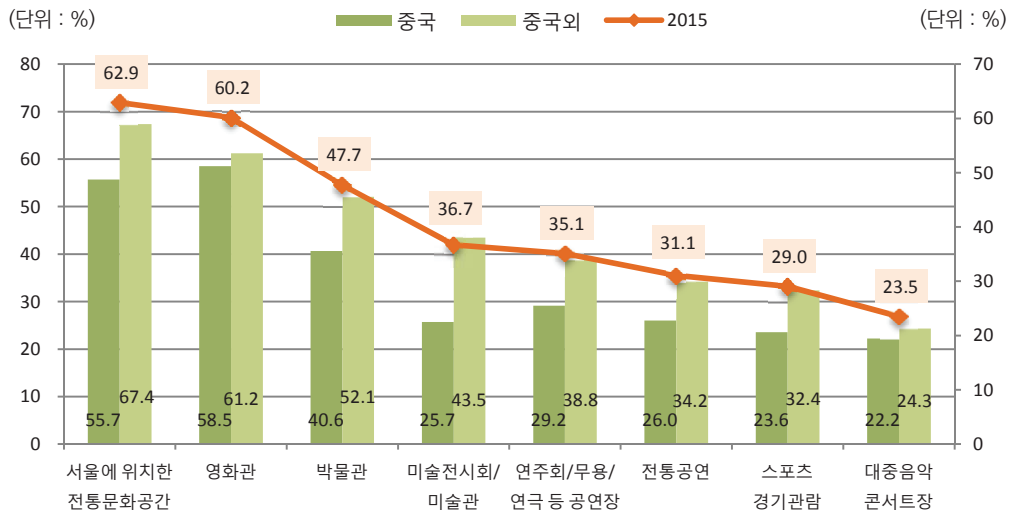
2014년 한해 서울시민의 전통문화관람률은 5.50%로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 그림 3-100 | 전통예술공연 관람률

• 외국인 문화활동

서울거주 외국인의 2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영화관’(60.2%)이나 ‘서울에 위치한 전통 문화공간’(고궁, 북촌마을, 한옥마을, 인사동, 선사유적지 등)’(62.9%)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박물관(47.7%), ‘미술전시회, 미술관’(36.7%),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35.1%), ‘전통공연(국악, 판소리, 사물놀이, 마당놀이, 고전 무용 등)’(31.1%), ‘스포츠 경기 관람’(29.0%), ‘대중음악 콘서트장’(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관’은 유럽권(70.0%)과 영미권(69.3%)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 위치한 전통 문화공간’은 유럽권(76.7%), 영미권(73.3%), 베트남(67.3%), 여성(65.4%)에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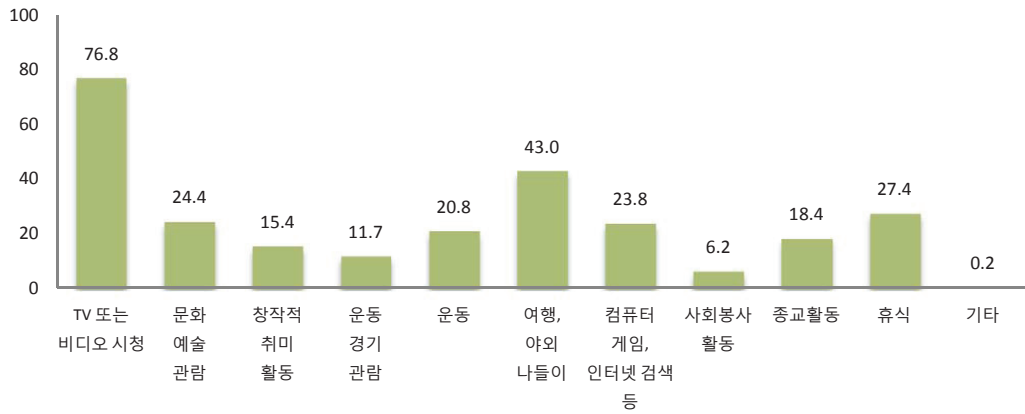


| 그림 3-101 | 외국인 문화활동

• 여가레저 활동

문화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말/휴일 여가활동의 유형은 주로 TV 또는 비디오(DVD)시청(7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여행/야외 나들이’(43.0%), ‘휴식’(27.4%), ‘문화예술관람’(24.4%),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23.8%), ‘운동’(20.8%), ‘종교활동’(18.4%), ‘창작적 취미 활동’(15.4%), ‘운동경기관람’(11.7%), ‘사회봉사활동’(6.2%)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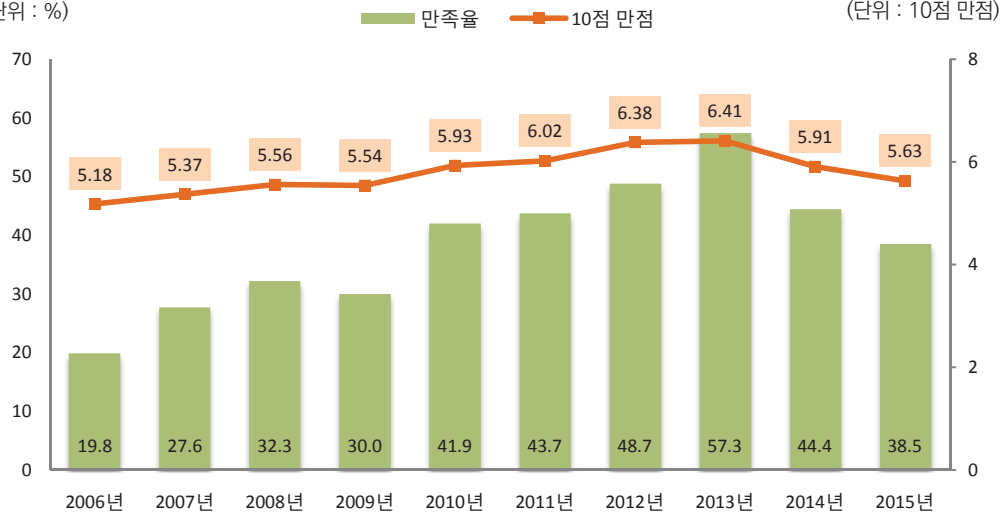
주 : 가구원 Base, 1+2+3순위

| 그림 3-102 | 여가레저활동

• 문화환경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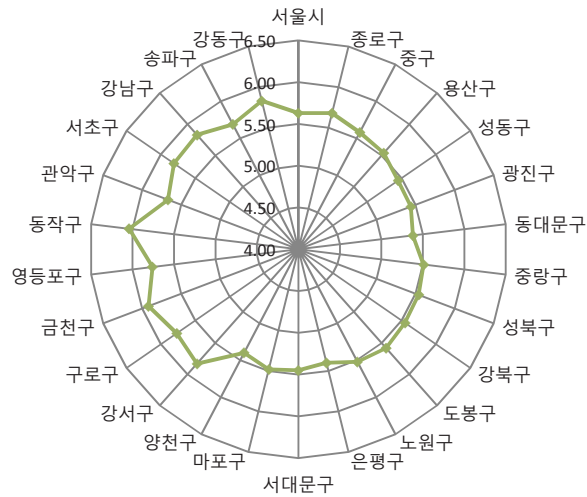
서울의 문화환경만족도는 2009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 5.91점으로 전년대비 하락하고, 2015년 5.63점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문화환경만족도는 저연령, 고학력에서 높게 나타났다으며, 구별로는 동작구(6.04점), 금천구(5.92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103 | 문화환경만족도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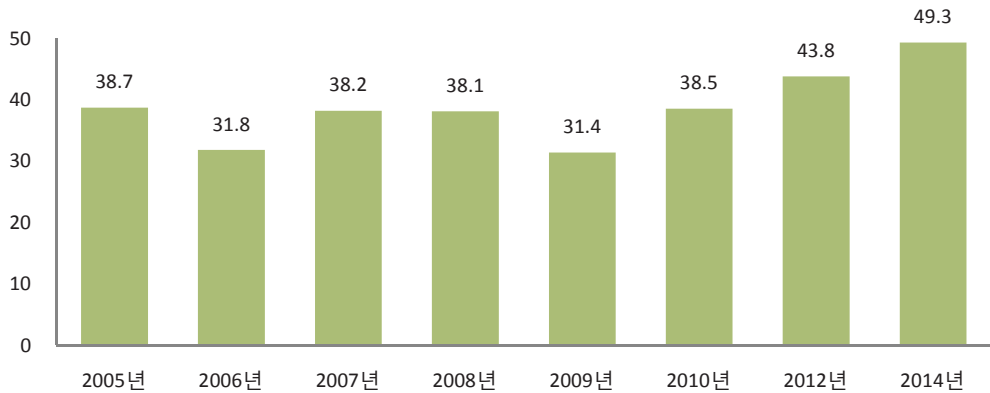


| 그림 3-104 | 문화환경만족도(구별)

• 축제 참여도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축제 참여율은 49.3%로, 2009년부터 지속적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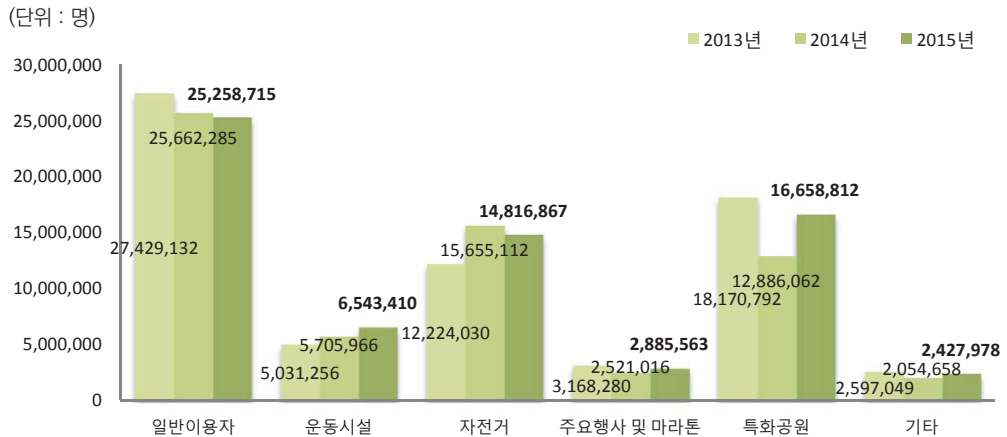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105 | 축제참여도

• 한강 여가레저 인구수

2015년 한강공원 이용자수는 68,591,345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부분별로는 일반이용자가 2,52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무대, 음악분수 등 특화공원 이용자 1,666만명, 자전거 이용자 1,482만명의 순서로 많았다. 운동시설, 기타 이용자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06 | 한강 여가레저 인구수

2. 시민문화진흥

1) 요약 및 정책제안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극적 보존정책 필요

서울의 문화재수는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1,618개에 이른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3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한양도성의 등재가 목전에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인 고궁 방문객수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에 더해 활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경우 2012년 41만 명에서 2014년 3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종묘 자체의 관광 매력이나 프로그램의 부족 차원뿐만 아니라 관광버스의 접근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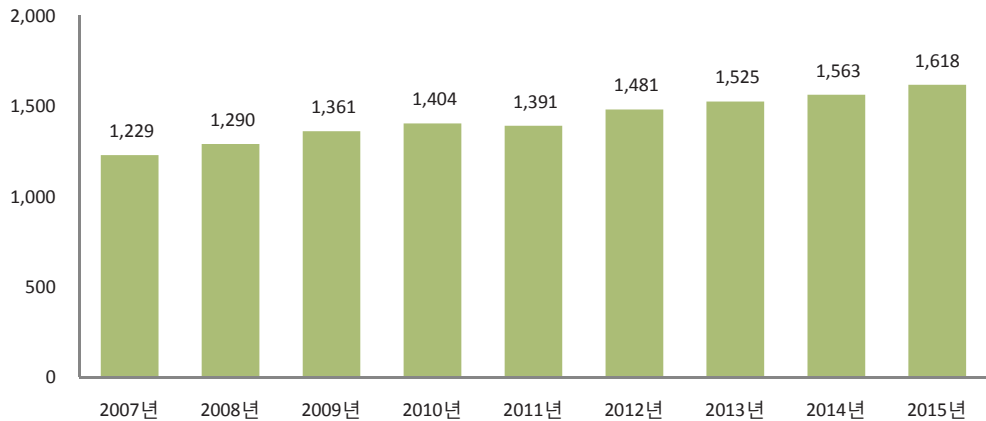
또한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 탐방에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재미있고 매력적인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재현과 체험 등 다양한 기법을 더해 이해와 재미를 높이고 있다. 우리 역시 단순한 보존과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표설명

• 문화재수

2015년 문화재수는 1,618개(국가지정문화재 932개, 등록문화재 170개, 시지정문화재 458개, 문화재 자료 58개)로 전년대비 55개 증가하였다.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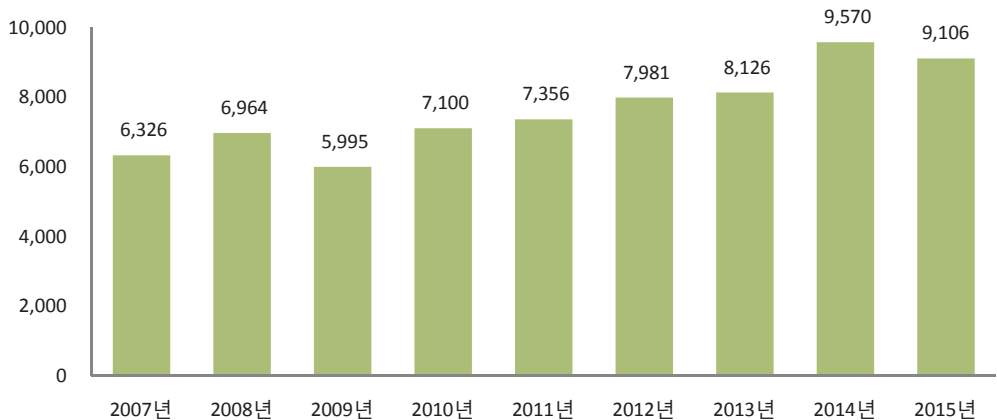


| 그림 3-107 | 문화재수

• 고궁 입장객수

2015년 고궁방문객수는 9,106,333명으로 전년대비 약 5% 감소하였다. 덕수궁, 경복궁, 종묘의 입장객 수는 감소한 반면, 창덕궁, 창경궁의 입장객수는 증가하였다.

(단위 : 천명)



| 그림 3-108 | 고궁입장객수

| 표 3-7 | 고궁입장객수

(단위 : 명)

	합계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종묘
2007년	6,325,701	1,219,702	725,602	500,894	2,864,170	1,015,333
2008년	6,963,892	1,467,868	835,181	523,688	3,144,791	992,364
2009년	5,995,485	1,314,067	879,061	462,974	3,115,169	224,214
2010년	7,100,549	1,098,316	1,172,397	519,423	3,819,684	490,729
2011년	7,355,658	1,183,977	1,413,636	590,802	3,799,804	367,439
2012년	7,980,757	984,446	1,458,968	598,205	4,522,171	416,967
2013년	8,126,033	1,180,217	1,574,701	637,394	4,400,320	333,401
2014년	9,569,679	1,333,888	1,610,233	739,967	5,575,704	309,887
2015년	9,106,333	1,286,981	1,631,997	849,089	5,061,533	276,733

•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 유산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2014~5년 전 세계 1,007곳의 유산(문화유산 779곳, 자연유산 197곳, 복합 유산 31곳)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중 한국에는 총 12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 표 3-8 |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 보유 현황

구 분	국 문 명	연 도	위 치
문화유산	석굴암과 불국사	1995	경주
문화유산	종묘	1995	서울
문화유산	해인사 장경판전	1995	경남
문화유산	수원 화성	1997	수원
문화유산	창덕궁	1997	서울
문화유산	경주역사 유적지구	2000	경주
문화유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0	전북/전남/인천
문화유산	조선왕릉	2009	서울/경기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	경북
문화유산	남한산성	2014	경기도 광주시·성남시·하남시 일원
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자연유산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	2007	제주

세계기록유산이란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또는 전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및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관련된 것으로 한국은 총 11건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 표 3-9 |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유 현황

구 분	국 문 명	연 도	위 치
기록유산	훈민정음	1997	간송 미술관 소장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1997	서울대 규장각
기록유산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2001	프랑스 국립도서관
기록유산	승정원 일기	2001	서울대 규장각
기록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해안사 소장
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	2007	서울대 규장각
기록유산	동의보감	2009	국립중앙도서관 및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일성록	2011	서울대규장각
기록유산	1980년 인권기록 유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한국 국가기록원 외 여러 정부기관 부처 및 관련단체
기록유산	난중일기	2013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기록유산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새마을운동 중앙회
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5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KBS, 국가기록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현재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강진 도요지, 염전, 대곡천 암각화군 등 모두 18건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서울도성은 조선왕조 건국 직후인 태조 5년에 백악산과 인왕산, 남산, 낙산의 정상과 능선을 따라 축조한 18.6km에 달하는 대규모 성곽이다.

또한 유네스코 유산 추가 발굴을 위해 세계유산 분야 덕수궁 포함 정동일대, 한성백제 유적(올림픽 공원주변 몽촌토성, 풍납토성 등), 용산 일제강점기 군사유산, 동묘(관우를 모시는 신앙 공간) 등 일류 무형문화유산 분야 등이 고려중에 있다.

| 표 3-10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구 분	국 문 명	소 재 지	등록일
문화유산	강진 도요지	전남 강진군	1994. 9. 1
	공부·부여 역사유적지구	충남 공주시, 부여군	2010. 1.11
	중부내륙 산성군	충북 보은군, 청주시, 괴산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2010. 1.11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2010. 1.11
	익산 역사유적지구	전북 익산시	2010. 1.11
	염전	전북 신안군, 영광군	2010. 1.11
	대곡천 암각화군	경북 울산시	2010. 1.11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2011. 3.11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2011. 3.11
	한국의 서원	경북 영주시, 경주시, 안동시, 경남 함양군, 전북 전읍시, 전남 장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남 논산시	2011.12. 9
	한양도성	서울시	2012.11.23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김해시, 함안군	2013.12.11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고령군	2013.12.12
	한국의 전통산사	순천시, 해남군, 보은군, 공주시, 양산시, 영주시, 안동시	2013.12.12
자연유산	설악산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속초시 등	1994. 9. 1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전남 해남군, 보성군, 화순군, 여수군, 경남 고성군 등	2002. 1.25
	서남해안 갯벌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보성군, 무안군, 신안군 등	2010. 1.11
	창녕 우포늪	경남 창녕군	2011. 1.11

3. 문화기반환경

1) 요약 및 정책제안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에 더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필요

2000년 이후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인구 5만 명 당 1개소를 목표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전시시설, 공연시설, 공공체육시설, 영화관람시설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공연시설의 경우 2014년 344개소에서 2015년 381개로 37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견인한 것은 소공연장이다.

그러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율 증가는 다소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시회 관람률은 2012년 8.1%에서 2014년 9.3%로, 연극(뮤지컬) 관람률은 15.1%에서 16.6%로 증가폭이 크지 않다. 게다가 전시회 관람률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기 이전인 2007년 16.9%와는 격차가 매우 크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순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만으로 시민의 문화향유율을 견인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자체에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들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문화향유 저해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화행태와 욕구의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의 확충 노력

시민의 문화활동 다변화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와 맞닿아 있다. ‘마을예술창작소’가 시민의 자생적 문화활동 거점으로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소규모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마을공동체 조성, 생활예술 활성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를 고려했을 때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모호하여 통계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별도의 생활문화시설 조성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기 조성된 문화시설이나 공공 유휴공간들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공간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문화밀집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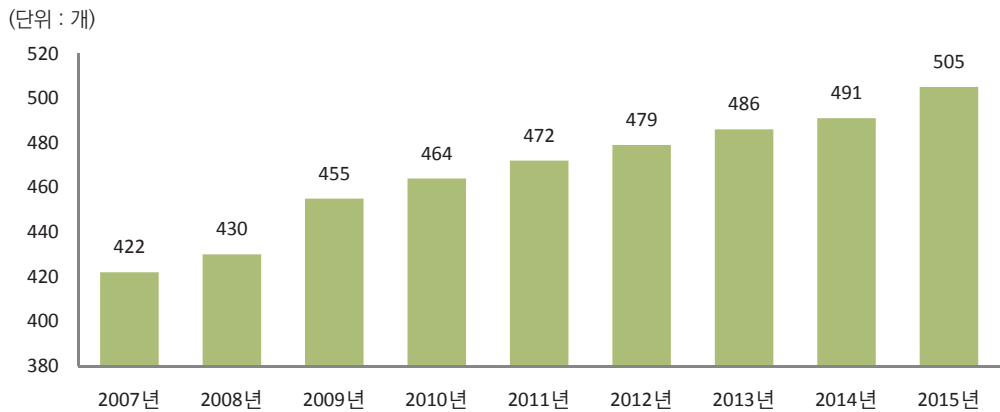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들은 전통적으로 도심권과 동남권에 밀집되어 있으나,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밀집지역들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밀집지역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탄생과 성장, 쇠퇴의 주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

케이션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밀집지역의 형성 원인이 되었던 예술적 특성이 지역의 상업화에 밀려 사라지거나, 정책적 개입이 오히려 지가 상승을 야기하면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문화밀집지역을 서울시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각 문화밀집지역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맞는 세심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2) 지표설명

• 도서관

학교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수는 2014년 491개에서 2015년 505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 그림 3-109 | 도서관수

| 표 3-11 | 도서관수

(단위 : 개)

	도 서 관 수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2007년	422	3	66	67	286
2008년	430	3	78	74	275
2009년	455	3	94	84	274
2010년	464	3	101	85	275
2011년	472	3	109	85	275
2012년	479	3	116	85	275
2013년	486	3	123	85	275
2014년	491	3	132	88	268
2015년	505	3	146	88	268

주 : 학교 도서관은 제외

* 공공도서관 : 공공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및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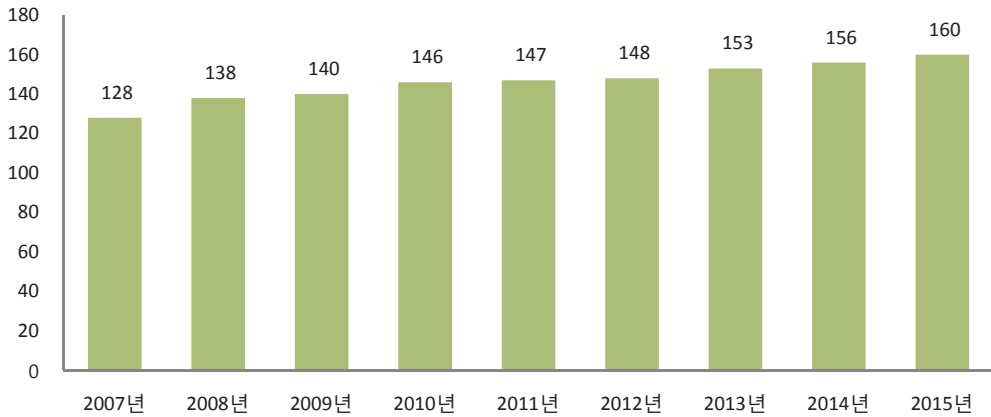
* 대학도서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서관

* 전문도서관 : 해당 설립기관 · 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전시시설

전시시설은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 전시시설 수는 160개(박물관 119개, 미술관 41개)로 나타났다.

(단위 : 개소)



| 그림 3-110 | 전시시설

| 표 3-11 | 전시시설

(단위 : 개)

	전 시 시 설		
	합 계	박 물 관	미 술 관
2007년	128	96	32
2008년	138	106	32
2009년	140	108	32
2010년	146	112	34
2011년	147	114	33
2012년	148	114	34
2013년	153	115	38
2014년	156	117	39
2015년	160	119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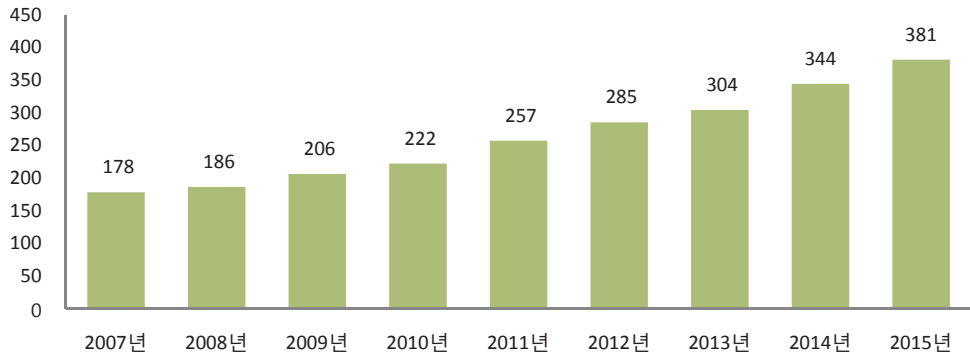
* 박물관과 미술관만 포함.

* 비등록 박물관, 비등록 미술관 제외.

• 공연시설

공연시설은 2014년 344개에서 2015년 381개로 37개가 늘어났으며,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이 251개, 300~999석의 일반공연장이 112개, 1,000석 이상의 대공연장이 18개이다. 대공연장을 제외한 일반공연장과 소공연장이 2014년 대비 늘어났으며 특히 소공연장은 2014년 216개에서 2015년 251개로 가장 많이 확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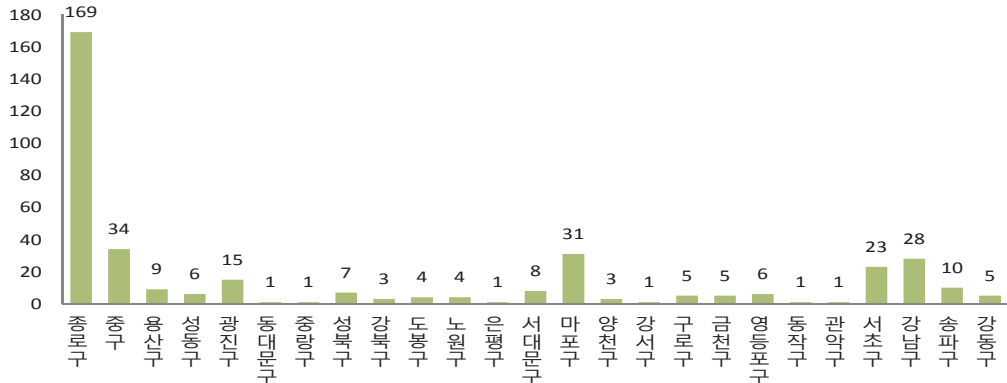
(단위 : 개)



| 그림 3-111 | 공연시설

공연시설의 경우 도심권에 전체 공연시설의 55.6%가 도심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남권에는 전체공연장의 5.8%만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 자본의 투자에 의한 전문 공연장의 확충과 공공 투자에 의한 시민 활동을 위한 공연 확충을 면밀히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로 등 일부 클러스터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효과를 지역 간 균형이라는 논리로 제어할 필요는 없다.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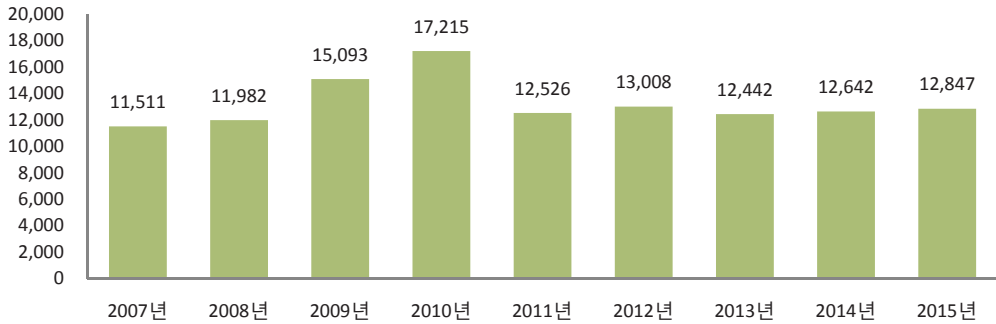


| 그림 3-112 | 공연시설(구별)

• 공공체육시설

2015년 서울시의 공공체육시설 면적(부지면적)은 1,285만 평방미터로 2014년 대비 약 20만 평방미터 증가하였다.

(단위 : 천평방미터)



| 그림 3-113 | 공공체육시설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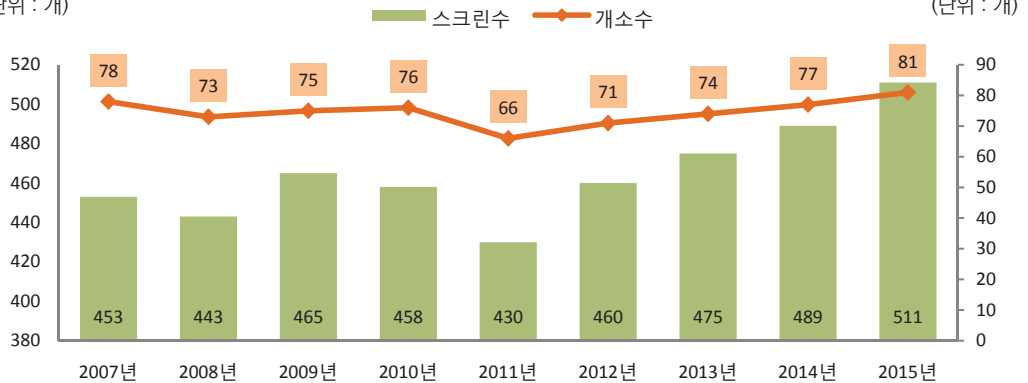
공공체육시설 면적(부지면적)

- 자치구별, 종목별 면적 합산시 중복 계산된 오류 수정으로 2011년도 공공체육시설 면적 감소
- 기타(광명시)는 합계에서 제외함
- 기타에 론볼장(lawn bowling) 등 포함

• 영화관람시설

영화관람시설⁴⁾은 2010년 76개에서 2011년 66개로 급감하였으나 2012년부터 상승하여 2015년에는 81개소로 나타났다. 영화관람시설의 스크린수 또한 200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2년 다시 상승하여 2015년 511개로 나타났다.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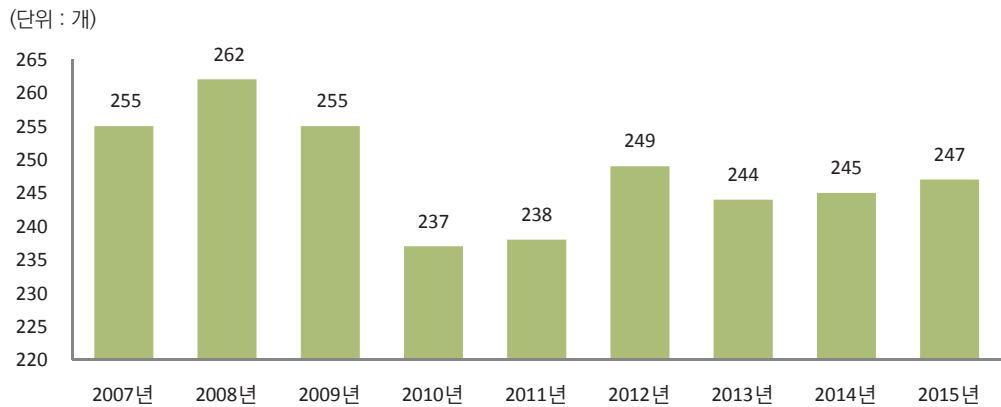


| 그림 3-114 | 영화관람시설

4) 집계 대상 극장은 전국 상설 영화관으로, 특수 목적의 비상설 상영 시설 및 자동차극장은 제외함

•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종합복지회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등의 지역문화복지시설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문화의 집’ 지정·지원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2015년 지역문화복지시설수는 247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진흥법 발표 후 생활문화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피상적인 정의보다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생활문화 시설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그림 3-115 | 지역문화복지시설

| 표 3-13 | 지역문화복지시설

(단위 : 개)

연 도	합 계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문화의집	종합복지회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시설)
2007년	255	14	24	30	95	34	58
2008년	262	15	24	30	95	37	61
2009년	255	15	24	21	95	38	62
2010년	237	16	24	-	95	38	64
2011년	238	16	24	-	96	38	64
2012년	249	18	24	-	98	46	63
2013년	244	16	24	-	98	41	65
2014년	245	16	24	-	98	44	63
2015년	247	16	24	-	98	46	63

주 : 2009년 문화의 집을 지정·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 지원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통계를 제외함
구민회관 중 종로, 성동, 광진,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구민회관은 문화회관내 복합시설로 운영되며, 금천구는 금나래 아트홀, 서초구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

4. 문화시장환경

1) 요약 및 정책제안

건강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순수예술 창작기반 지원 확대 필요

최근 몇 년 간 문화시장은 성장세를 보였다. 전시회 및 공연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출판, 영화, 방송 등 문화관련 사업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시장 규모 확대가 순수예술시장의 창작기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건수와 관객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상업자본의 영향력이 큰 대중음악콘서트와 뮤지컬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미술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출판산업의 경우 2007년 사업체당 13.8명이 종사했던 것이 2013년 10.7명으로 줄어들어 소규모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영화, 방송산업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이처럼 문화시장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예술시장 전반적으로 균형잡힌 성장이라기보다는 상업자본의 영향력이 큰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을 뿐, 오히려 순수예술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시장의 위축은 순수예술의 창작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 한 나라의 문화수준은 순수예술의 창작 수준과 직결된다. 따라서 순수예술의 창작기반을 지원하는 노력이 다각도로 요구된다.

예술인 지원정책의 진입장벽과 사각지대 해소 필요

문화시장의 특성상 민간 시장영역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기여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재원은 예술가들의 순수창작활동에 대한 창작지원사업 및 예술교육, 문화복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금액은 2009년 180억 규모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4년에는 81억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의 예술창작지원 제도가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체제 중심으로 변경된 이후, 중앙정부의 매칭 지원금의 지속적인 축소에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서울시의 문화재정 악화에 따라 향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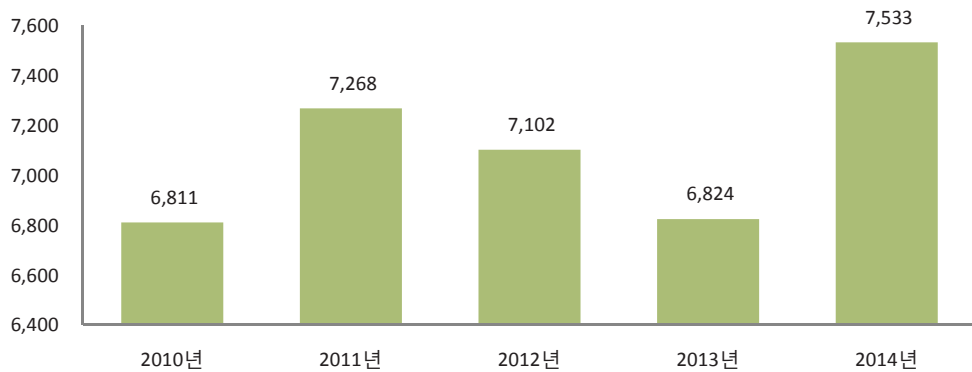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들은 열악한 창작환경과 생활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52.1%가 월평균 개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였다. 특히 현행 예술인 지원정책은 예술활동 경력 증명 등의 장벽이 있어, 청년 예술인 배제와 같은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예술인 희망플랜’을 수립하여 청년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지속적인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칭 “서울예술기금”과 같은 별도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지표설명

• 공연건수 및 전시회수

서울에서 개최된 2014년 시각예술 건수(전시회)는 총 7,533건으로 전년대비(6,82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은 전체 시각예술 건수의 56.9%를 차지해 서울지역 쏠림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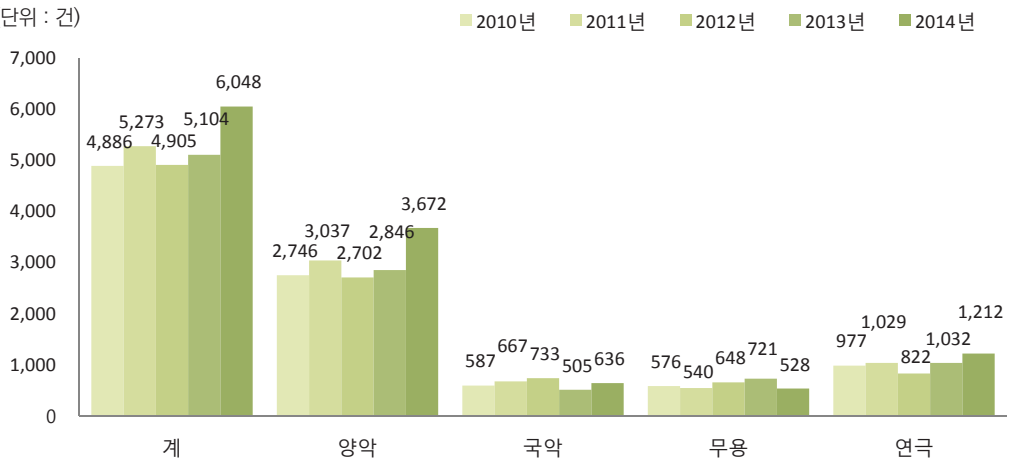
(단위 : 건)



| 그림 3-116 | 시각예술 건수(전시회)

2014년 분야별 공연건수는 6,048건으로, 양악(기악, 성악, 오페라 등)이 3,672건, 국악 636건, 무용 528건, 연극 1,212건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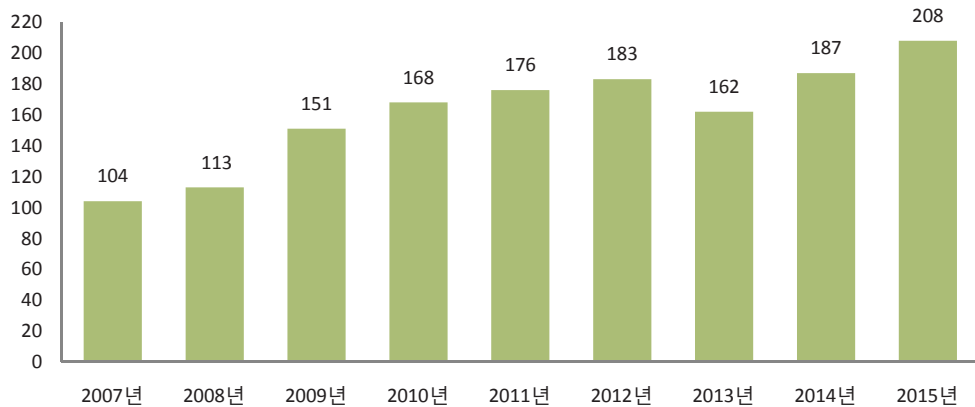


| 그림 3-117 | 공연건수

• 시 지정 전문 예술 단체수

전문예술단체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점차 지원의 차등을 둔 결과 많은 단체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수가 2015년 208개(민법인 77개, 단체 131개)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민법인 7개, 단체가 14개 증가하였다.

(단위 : 개)



| 그림 3-118 | 시지정 전문 예술단체 수

| 표 3-14 | 전문예술법인 지정 단체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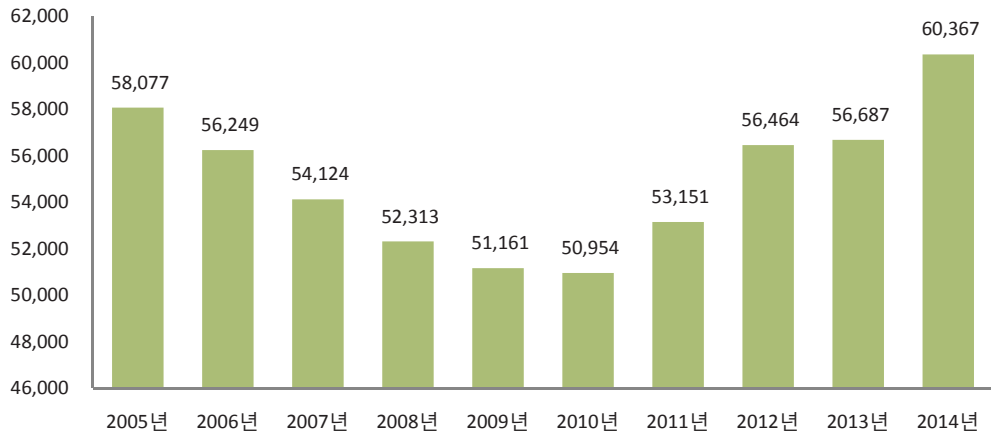
	전문예술법인 지정 단체수			
	계	민 법 인	상 법 인	단 체
2007년	104	40	19	45
2008년	113	42	19	52
2009년	151	55	20	76
2010년	168	60	27	81
2011년	176	54	29	93
2012년	183	56	29	98
2013년	162	60	-	102
2014년	187	70	-	117
2015년	208	77	-	131

주 : 2013년 11월부터 상법인(영리법인)은 전문예술법인지정 단체로 인정 안 됨

• 문화관련 사업체 수

문화관련 사업체 수는 2014년 60,367개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부분별로는 출판산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기타 문화산업에서 사업체가 증가하였다.

(단위 : 개)



| 그림 3-119 | 문화관련 사업체 수

| 표 3-15 | 문화관련 사업체수

(단위 : 개)

	출판산업	음반산업	게임산업	영화산업	방송업	공연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문화산업
2005년	14,232	7,121	11,712	2,818	470	626	-	-	21,098
2006년	13,894	7,069	10,483	2,497	466	621	-	-	21,219
2007년	12,166	7,175	10,166	2,243	501	730	-	-	21,143
2008년	11,249	7,044	9,426	1,896	512	782	-	-	21,404
2009년	10,772	7,034	8,985	1,781	536	854	-	-	21,199
2010년	10,375	7,191	8,432	1,683	597	995	-	-	21,681
2011년	8,930	-	-	-	226	-	2,404	21,383	20,208
2012년	10,239	-	-	-	245	-	2,778	21,450	21,752
2013년	10,742	-	-	-	261	-	2,823	21,122	17,632
2014년	12,708	-	-	-	284	-	3,344	20,937	23,094

주 : 2011년부터 사업체조사 분류기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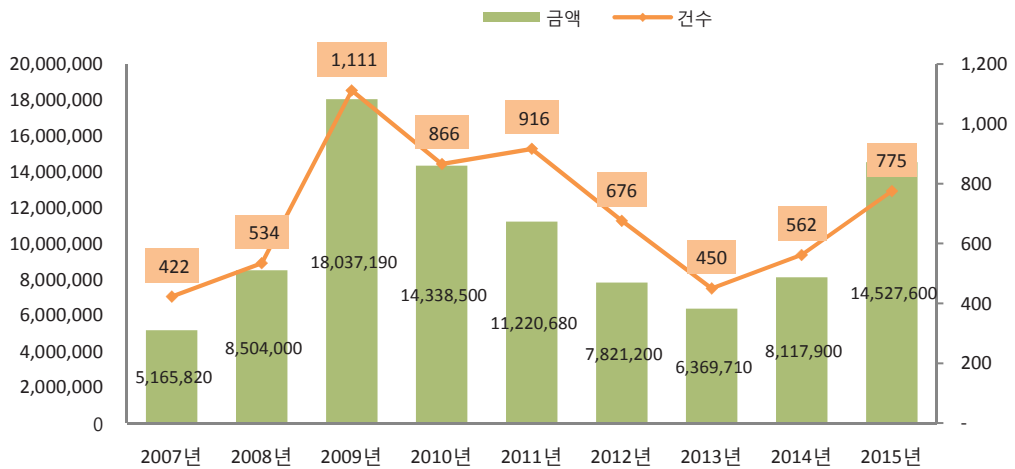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문화사업: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전문디자인업, 광고업 등

• 문화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2015년 서울시는 연극/뮤지컬, 전통예술, 무용, 음악, 다원예술, 문학, 문화일반, 미술/시간예술, 축제 등 총 7개 영역에 걸쳐 775건, 14,527,600천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문화예술지원은 201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문화 도시 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 천원)

(단위 : 건)



| 그림 3-120 | 문화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 표 3-16 | 문화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2015년)

(단위: 건, 천원)

	건 수	금 액
시민문화예술 지원	48	99,700
예술창작활성화 지원	442	5,524,000
젊은(유망)예술가지원	20	289,900
공영장상주단체육성지원	33	2,842,000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4	350,000
예술가지원	16	160,000
서울예술축제지원	47	3,602,000
기타지원사업	165	1,658,200
총계	775	14,527,600

주 : * 동일 사업 내의 예산 출처에 따라 예술창작지원/창작활성화지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예술창작지원으로 합산

* 장르별로 나눠 집계하지 않던 시민문화예술지원을 장르별로 집계

* 젊은예술가지원사업 사업명 변경 : 2012년 유망예술육성지원 / 2013년 유망예술지원

* 기타지원사업에 시민축제지원, 공연단체집중육성지원, 공영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 예술로 희망드림 사업 포함

* 2015년 기타지원 사업은 메세나지원, 메르스(예술인창작활동) 지원 사업임. 예술창작활성화지원에 창작활성화 지원 포함됨

| 표 3-17 |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분야별)

(단위 : 건,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50	6,369,710	562	8,117,900	775	14,527,600
연극/뮤지컬	48	1,078,000	56	1,254,000	115	2,981,900
전통예술	68	707,000	72	765,000	103	1,535,400
무용	52	680,370	56	775,900	66	1,478,900
음악	67	856,800	72	869,000	107	2,041,000
다원예술	51	754,025	48	805,000	56	824,100
문학	40	40,000	40	400,000	49	494,700
문화일반	72	209,725	51	116,000	48	99,700
미술/시각예술	9	102,790	136	1,139,000	184	1,469,900
축제	42	1,911,000	30	1,764,000	33	1,801,000
기타	1	30,000	1	230,000	14	1,801,000

제5절 관 광

1. 관광자원

1) 요약 및 정책제안

지속가능한 서울형 관광모델 개발

프랑스는 '2022 관광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수도 지역의 새로운 역사 및 문화자원, 신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꺾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유명 관광지 외에 지역에 숨어있는 새로운 볼거리, 지역의 고유성을 담고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치구 차원의 지역 자원들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과 같은 방법을 접목하여 서울형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자연적 자원 및 역사적 자원 이외에도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자원들로 관광자원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0년 도쿄올림픽 등과 관련된 스포츠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의 특성이 반영된 관광특구 지정

서울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개소수 등은 기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관광자원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는 관광특구 개소수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서울의 경우 관광특구로 개소수는 큰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의 관광특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잠실관광특구에 이어, 2014년 12월에 서울 관광·MICE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를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하였다. 강남 마이스특구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백화점, 호텔(3개), 면세점, 쇼핑몰, 무역센터, 도심공항터미널 등이 집적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일대(190,386㎡)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말에는 홍대마포관광특구 한곳이 더 추가될 예정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자원 중심의 특징들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서울의 도심부에 밀집되었던 서울의 주요 관광지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주요 관광자원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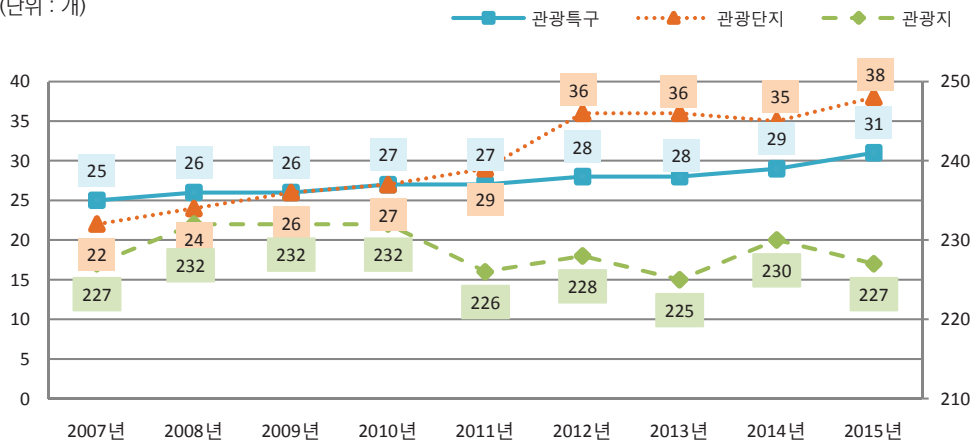
관광특구가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대표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관광특구의 개소수만으로는 서울의 관광자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서울시만의 기준을 통해 서울시의 관광자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해당 부분은 문화분야의 지표와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 정책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표설명

• 관광자원수

전국기준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관광지는 227개소, 관광특구 31개소, 관광단지 38개소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그림 3-121 | 관광자원수(전국기준)

관광자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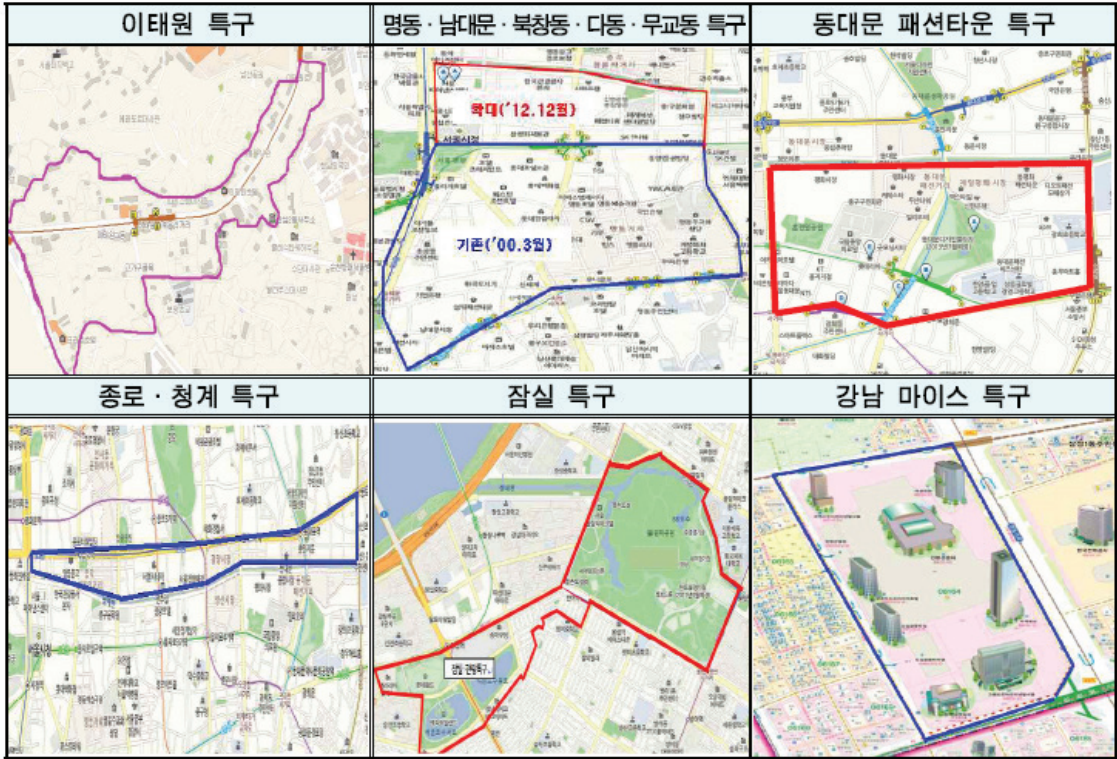
- 관광지 :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 제한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관광단지 :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
-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광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배제하는 등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문화관광부, 2012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서울지역의 경우, 2014년 12월 강남관광특구가 추가 지정되어 총 6개의 관광특구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 3-18>과 같다.

| 표 3-18 | 서울시 관광특구 지정현황(2014년 12월 31일 기준)

특 구 명	면 적 (단위: km ²)	관 광 지 명	지 정 시 기
이태원	0.38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1997.09.29
명동·남대문·북창·다동·무교동	0.8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북창동, 다동, 무교동 일원	2000.03.30 (변경 2012.12.27)
동대문 패션타운	0.5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4,5,가동, 신당 1동, 광희동 일원	2002.05.23
종로, 청계	0.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신문로 1가, 종로1~6가, 창신동 일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 전역	2006.03.30
잠실	2.31	잠실, 신천, 석촌, 송파, 방이동 일부	2012.03.15
강남미이스	0.19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2014.12.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2015.8)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그림 3-122 | 관광특구 위치

2. 관광산업

1) 요약 및 정책제안

안정적 외래관광시장 확보, 중국 및 일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다양화 필요

서울의 외래관광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일본 및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 지난 2015년 MERS사태나 환율문제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위기상황에서 관광 사업 환경을 매우 어렵게 만들 우려가 높다. 현재 동남아 및 중동시장 등으로 확장세가 보이는 만큼 타 시장 확대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유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인 성장 보다는 질적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한 서울관광 정책 필요

외래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적인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증가 하면서 특정 관광지에 대한 혼잡도 및 불편사항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관광호텔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서비스 수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된 관광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서비스 수준, 일관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서울시 MICE 산업의 성장세,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세 유지필요

2015년 서울관광 MICE가 목표치인 세계 3위를 달성하였다.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는 얼마나 규모가 있는 회의를 개최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 MICE산업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인 만큼 현재 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용자 수준 및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프라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 또한 MICE의 4개 분야의 비중이 골고루 안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컨벤션 중심으로 되어있는 구조에서 전시산업이나 기타 분야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MICE 세계 도시 3위 서울 달성

국제회의 개최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점유율은 물론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을 위해 전문국제회의를 위한 컨벤션 시설 확대에 대한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건수의 경우 전국 비중의 약 39.2%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내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을 겨룰 만큼 성장해가고 있다. 2015년 국제회의 개최건수의 도시별 순위에서 서울은

싱가포르 1위(736건), 브뤼셀(2위, 636건)에 이어 총 494건으로 세계 3위 MICE 도시를 차지했다. 예년보다 국제회의 건수의 증가 등 서울 MICE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 컨벤션 시설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컨벤션 시설의 확충을 위해 한전부지 및 인근 주변지역을 활용한 영동권 계획, 서울역 북부지역으로 활용한 전문 회의시설 등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실제 공급가능한 시기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의 호텔시설에 대한 회의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검토되고 있다. MICE 개최 세계 3위 도시를 달성한 만큼 성장세를 유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한 새로운 전략 추진들이 마련되고 있다.

숙박시설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의 달성, 그리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의 도입

숙박시설 공급이 확대되면서 관광숙박시설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1~3급 호텔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다. 관광숙박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저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증가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시설들이 확대되면서 이용객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은 저렴하면서도 이용이 편리하여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한옥체험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과 비제도권하에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AirBnB와 같은 공유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들도 나타나면서 새로운 기준의 제시와 적합한 제도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광숙박시설은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임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서울관광 정책의 변화 필요

모바일환경, SNS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관광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관광형태 또한 새롭게 바뀌고 있다. 개별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기존 단체관광객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서비스 인프라가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개별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서 관광안내센터 및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여행사 및 가이드가 하던 역할을 관광안내센터 및 모바일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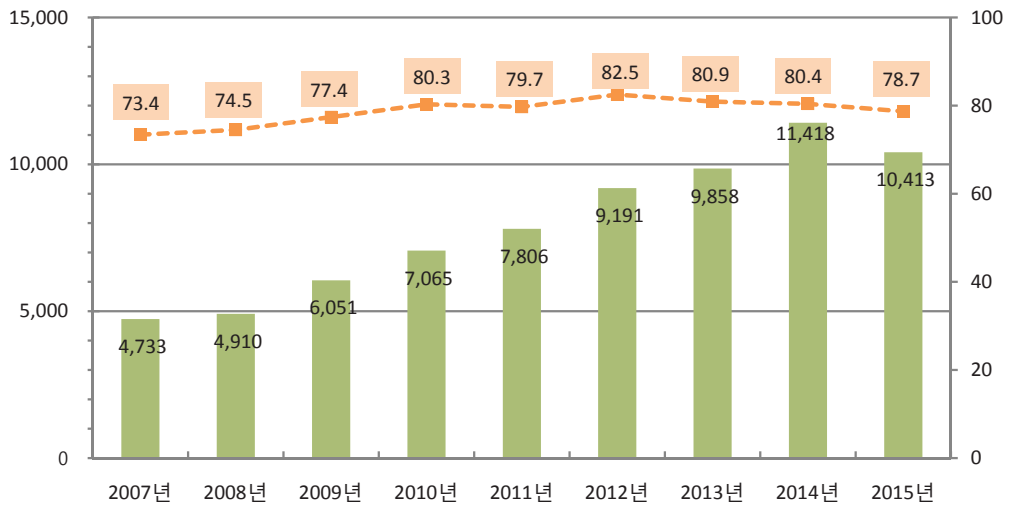
2) 지표설명

•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2015년도 한국방문 전체 외래 관광객 수는 1,323만명이며, 이중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41만명으로 전체 외래 관광객 수의 78.7%가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천명)

(단위 : %)



| 그림 3-123 |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수

| 표 3-19 |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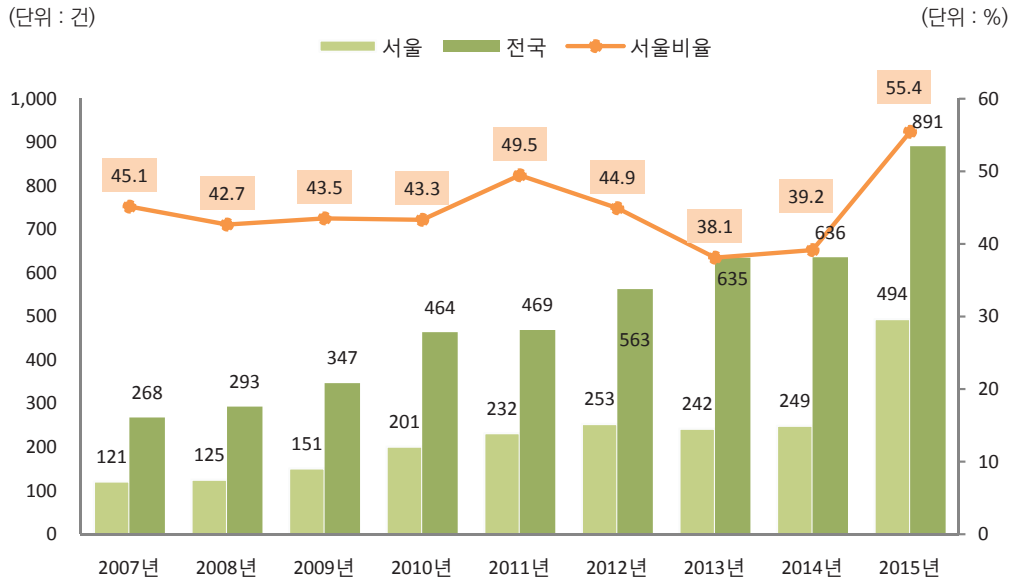
	서울방문비율*	서울방문객수**	전국 입국인원
2007년	73.4	4,733,008	6,448,240
2008년	74.5	4,910,176	6,890,841
2009년	77.4	6,050,771	7,817,533
2010년	80.3	7,064,519	8,797,658
2011년	79.7	7,806,452	9,794,796
2012년	82.5	9,190,523	11,140,028
2013년	80.9	9,858,110	12,185,550
2014년	80.4	11,418,019	14,201,516
2015년	78.7	10,413,309	13,231,651

* 서울방문비율: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한국여행 중 방문권역 비율

** 서울방문객수: 전국 입국인원에서 서울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정

● 국제회의 개최건수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891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서울시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494건으로 전국의 55.4%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16.2%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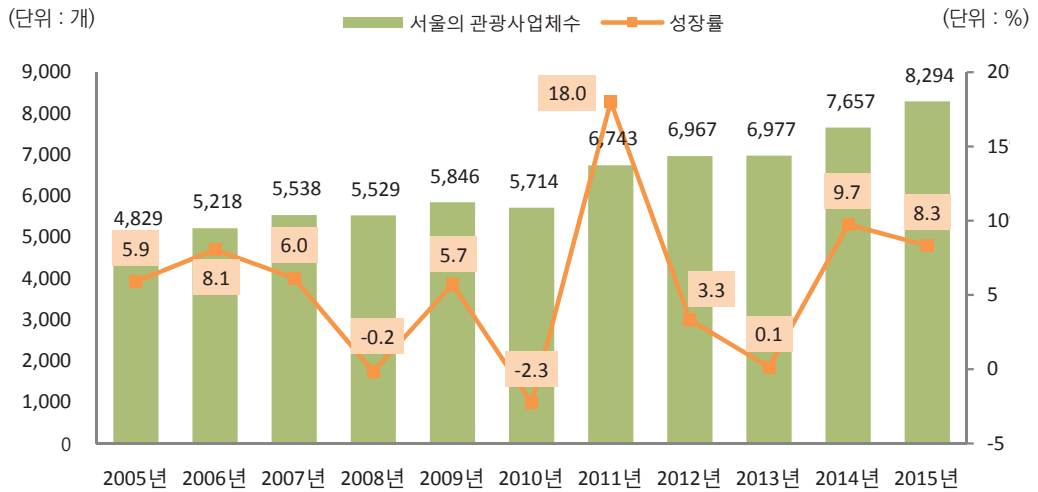
| 그림 3-124 |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서울시 비율

국제협회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국제회의 기준

- ① 국제기구 주최(후원) 회의로 참가자 50명 이상
- ② 국제기구의 국내지부 또는 단체 주최 회의로 5개국, 참가자 300명(또는 전사회 동반), 외국인 참가 비율 40%, 회의기간 3일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회의

• 관광사업체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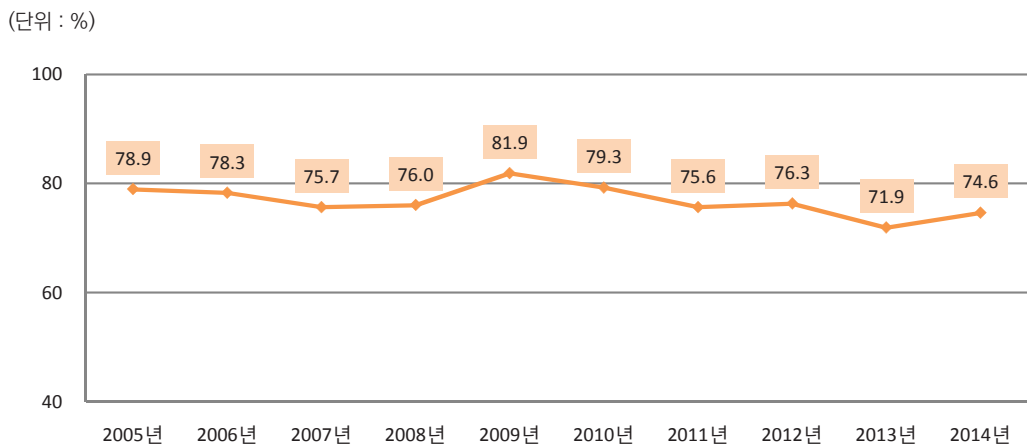
2015년 서울시 관광사업체수는 총 8,294개소이며 관광사업체 성장률은 2014년 대비 8.3% 상승하였다.



| 그림 3-125 | 관광사업체 성장률

• 외국인 투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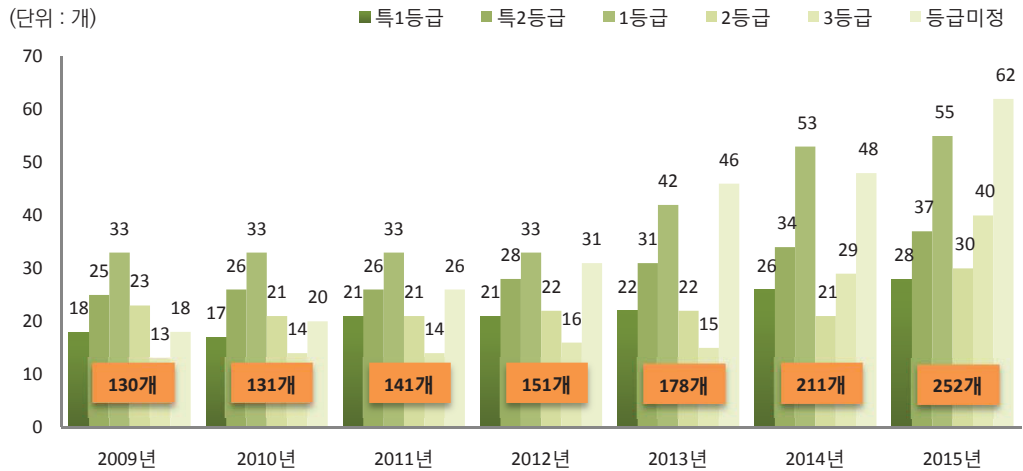
서울시내 관광숙박업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숙률은 2014년 74.6%로 전년도에 비해 2.7%p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26 | 외국인 투숙률

• 관광숙박시설 수

서울시의 관광숙박시설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252개로 특1등급이 28개, 특2등급이 37개, 1등급 55개, 2등급 30개, 3등급 40개, 등급미정(신규등록업체 및 등급유효기간 만료업체로서 현재일 기준 등급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 62개로 나타났다.



| 그림 3-127 | 관광숙박시설 수

또한 관광호텔 객실수는 39,325개로 특1등급이 12,303개, 특2등급이 9,080개, 1등급 7,052개, 2등급 2,257개, 3등급 2,354개, 등급미정 6,279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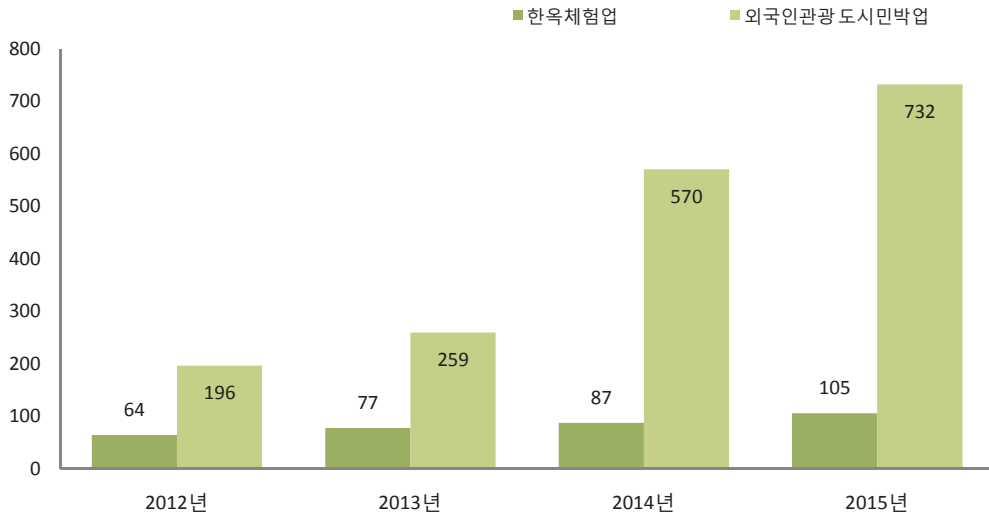
| 표 3-20 | 서울시내 관광호텔 객실수

객실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특1등급	9,399	8,701	10,924	10,366	10,742	11,889	12,303
특2등급	5,924	6,192	5,823	6,436	6,891	7,457	9,080
1등급	3,656	3,820	3,740	3,833	4,811	6,481	7,052
2등급	1,412	1,309	1,309	1,293	1,336	1,482	2,257
3등급	666	720	716	842	739	1,626	2,354
등급미정	1303	1,408	1,942	2,940	3,823	3,814	6,279
총계	22,360	22,150	23,824	25,710	28,342	32,749	39,325

• 외국인 도시 관광숙박시설 수

2015년 서울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수는 732개, 한옥체험업수는 105개로 2012년 조사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그림 3-128 | 외국인 도시 관광숙박시설 수

3. 관광서비스

1) 요약 및 정책제안

서울 관광안내소의 접근성 제고

서울시 관광안내소는 2015년 기준 10개의 고정 관광안내소와 10개의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각각의 안내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정 관광안내소의 경우 2012년 597,883명에서 2015년 846,172명으로 증가하였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도 2012년 1,203,177명에서 2015년 2,030,244명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하여 인력을 확대하고 교육과 처우 개선을 통해 관광안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장애인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관광안내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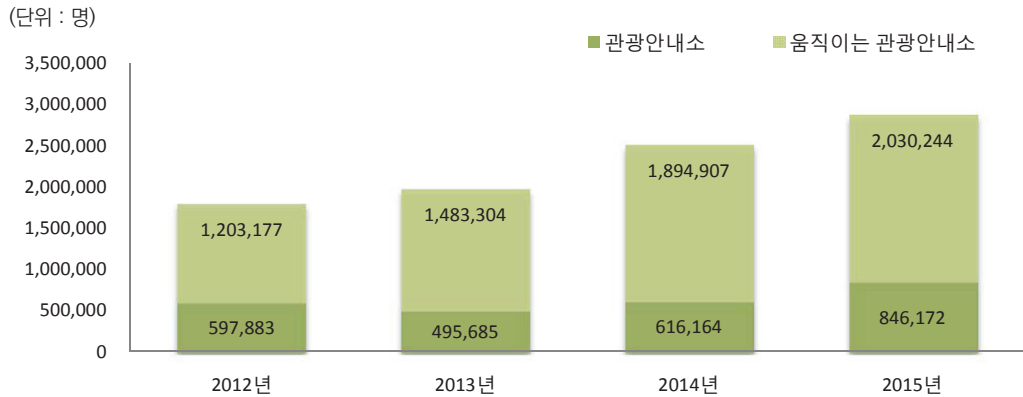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을 서울관광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

서울시는 2018년 2천만 관광객 유치로 목표인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관광객은 2천만 목표 달성을 위한 제1시장으로서 중국 관광객 대상의 저가 관광상품 근절을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16년은 서울관광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관광불편사항 개선 및 고질적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관광안내센터의 구축 및 개별관광객 증가에 맞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가격의 숙박시설의 제공, 중국관광객 가이드, 다양한 볼거리 증대, 저가 관광상품 근절, 안내체계 개선 및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2) 지표설명

• 관광안내소 수 및 이용객수

서울시에는 광화문 종합관광 안내소를 비롯하여 총 10개의 고정식 관광안내소, 명동, 남대문시장, 신촌(이대앞), 이태원, 동대문, 인사동, 광장시장 등에 총 10개의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인천공항, 명동정보센터, 김포공항에 총 3개의 관광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철도공사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중인 관광안내소가 22개 설치되어 서울시에는 총 45개의 안내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빨간 조끼를 입은 관광안내원들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통역, 지리정보를 비롯한 관광코스 소개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가이드 서비스로, 2009년 1월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개소가 운영중이다. 고정식안내소와 움직이는 안내소 이용객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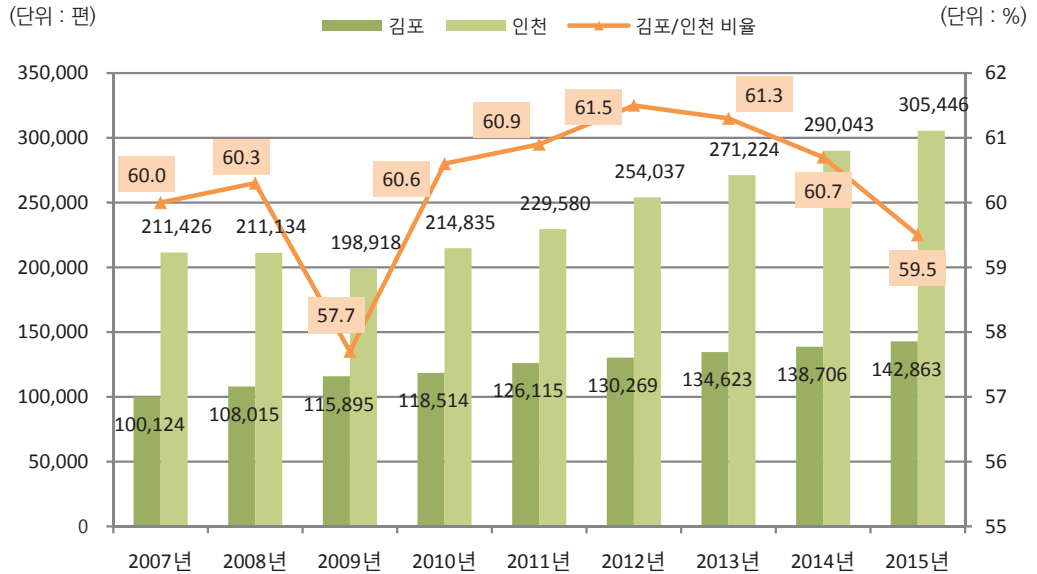
| 그림 3-129 | 관광안내소 이용자수

| 표 3-21 | 관광안내소 현황

연번	구 분	설치수(개소)	운영 위탁기관	수탁기관 / 업체
1	고정식 안내소/움직이는 안내소	20	서울시	(사)서울시관광협회
2	관광정보센터	3	서울시	서울관광마케팅(주)
3	강남관광정보센터	1	강남구	강남구(관광진흥과), 강남문화재단
4	송파관광정보센터	1	송파구	송파구청
5	코엑스관광정보센터	1	코엑스	코엑스
6	북인사 안내소, 남인사 안내소, 인사동홍보관	3	종로구	종로구 문화과
7	정독도서관, 북촌재동	2	종로구	종로구 관광체육과
8	마포관광정보센터/홍카	2	마포구	마포구 문화관광과/ (주)프리미엄패스인터네셔널
9	관광공사(청계천)	1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10	경복궁, 명동, 이태원	3	문체부 (관광산업과)	여행업협회(KATA)
11	여행센터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4	철도공사	철도공사(서울본부, 수도권서부, 수도권동부)
12	인천국제공항역 트래블센터	1	공항철도	공항철도
13	서울글로벌문화 체험센터	1	서울시 (다문화담당관)	서울시 관광마케팅
14	서초관광정보센터	1	서초구	서초구
15	신촌플레이버스	1	서대문구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

• 항공편 수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별 항공통계에 따르면 인천이 305,446편, 김포가 142,863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공편수에서 김포와 인천은 약 5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포는 2007년 이래로, 인천은 2009년 이래로 편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30 | 항공편 수

제6절 복 지

1. 사회적 약자보호

1) 요약 및 정책제안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201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2.52%로 최근 10년 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증가의 원인은 기존에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 생계, 교육 등 모든 급여를 받았으나, 2015년 7월부터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내용을 분야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복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수급자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경제상황의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적 약자의 취업률은 감소

사회적 약자 취업률을 살펴 본 결과 장애인 취업률은 2015년 59.7%로 전년 대비 1.7%p 감소, 65세 이상 노인취업률은 2015년 26.0%로 전년보다 5.3%p 감소, 여성취업률은 51.0%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다. 2016년 실업률이 10%가 넘어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취업률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일자리의 증가 등으로 이 분야의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증가폭은 둔화 그러나 구별 편차는 점진적 개선 필요

사회복지시설 수는 2015년 기준 인구 십만명당 7.51개로 전년대비 0.07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성격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애인 재활시설 수는 2015년 540개소로 201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시설이 증가하고,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를 전담하는 50+재단이 발족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설의 증가가 예상된다. 시설증가보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별편차의 폭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수는 도봉구가 15.00개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가 2.29개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구별 복지시설의 배치를 균등하게 유지하거나 인구대비 일정 개수의 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복지대상자 출현에 대비한 유연성 있는 예산 정책 필요

수급권자에게 주어져던 급여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로 개편되면서

복지욕구를 세분화해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복지대상자 범주로 인식되던 대상들이 분리되면서 특정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업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계층에서 복지와 관련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대상자의 지원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으로 기존의 동주민센터로 찾아오는 수동적인 복지가 아닌 복지분야 담당자가 직접 수혜자를 찾아다니는 능동적인 복지제도로 변화할 것에 대한 준비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적 약자 취업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살필 수 있는 취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원인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거나, 처우가 열악하여 근무기간이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 등의 문제로 2교대인 근무체계를 3교대 근무로만 변경해서 운영해도 예산이 증가하는 부담은 있으나,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복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종을 세분화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확충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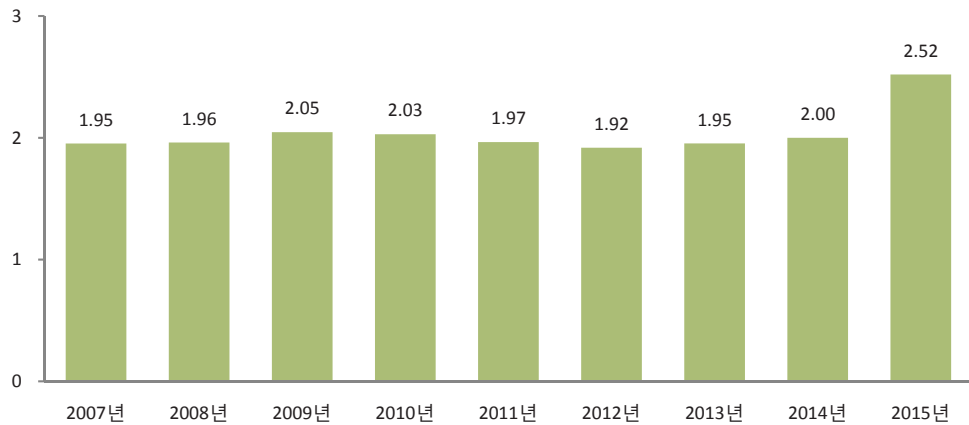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건립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운영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세분화되면서 기존의 서울시 산하 복지기관들이 다양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의 상호교류, 서비스 연계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지표설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2.52%로 최대 비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전년보다 0.52%p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큰 증가 폭이었다.

(단위 : %)



| 그림 3-131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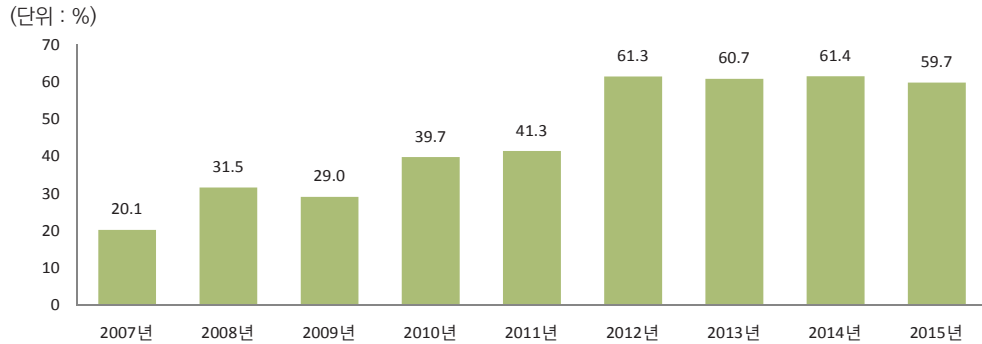
| 표 3-2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위 : 명)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2007년	203,536	187,342	11,743	4,451	-
2008년	205,059	188,311	11,808	4,940	-
2009년	214,130	198,236	11,354	4,540	-
2010년	214,602	198,301	12,059	4,242	-
2011년	206,893	190,776	12,051	4,066	-
2012년	200,371	153,776	12,354	3,917	30,324
2013년	202,991	153,628	12,511	6,503	30,349
2014년	207,736	150,238	12,928	10,570	33,626
2015년	259,446	197,620	12,866	9,121	39,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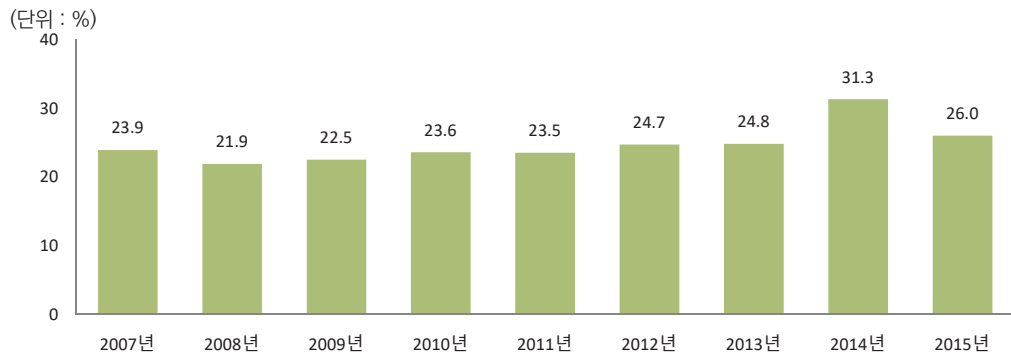
• 사회적약자 취업률

장애인취업률은 2015년 59.7%로 전년 61.4% 대비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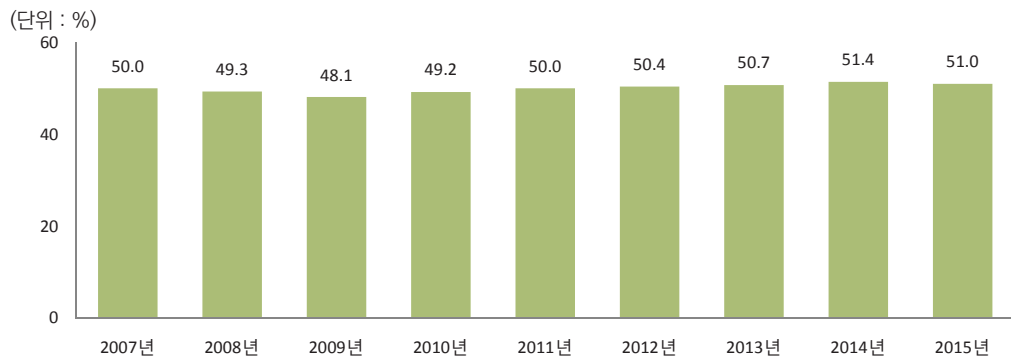
| 그림 3-132 | 장애인취업률

65세 이상 노인취업률은 2015년 26.0%로 전년보다 5.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33 | 노인취업률

여성취업률은 2009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여 51.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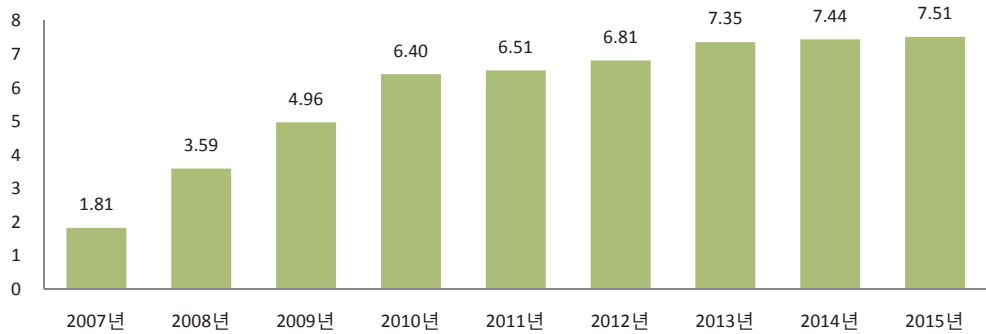


| 그림 3-134 | 여성취업률

•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는 2015년 7.51개로 2005년 이래로 사회복지시설수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0.07개로 전년 증가폭 0.09개 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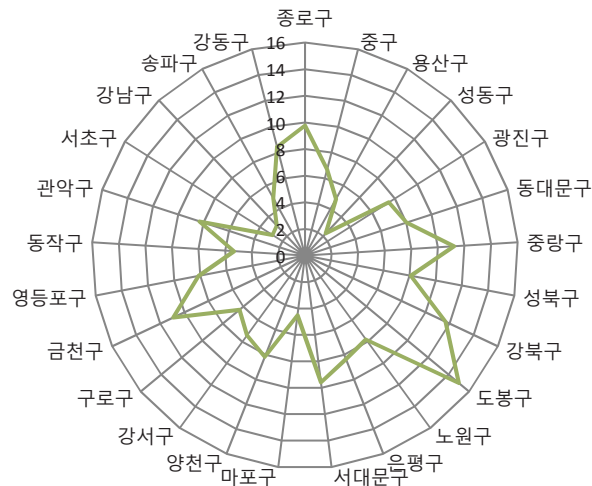
| 그림 3-135 | 사회복지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기준

- 사회복지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이 포함됨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 복지시설 기준(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제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봉구가 15.00개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가 2.29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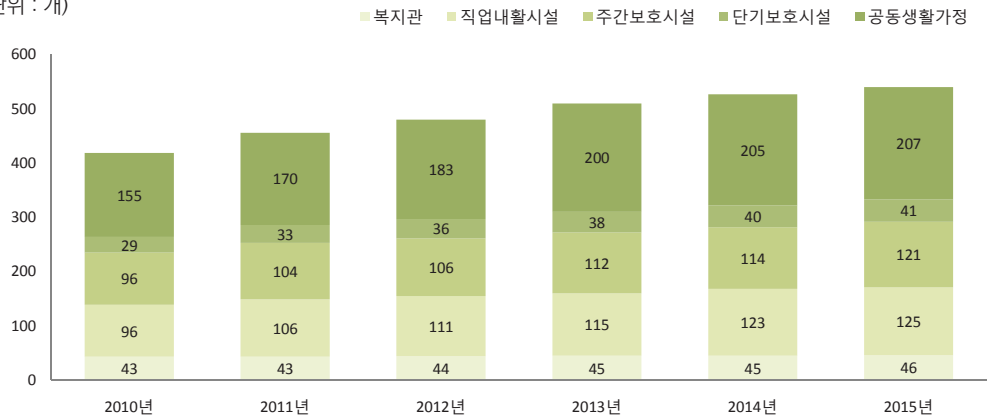


| 그림 3-136 | 사회복지시설 수(구별)

• 장애인 재활시설 수

장애인 재활시설수는 2015년 540개소로 201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설 종류별로는 공동생활가정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단기보호시설순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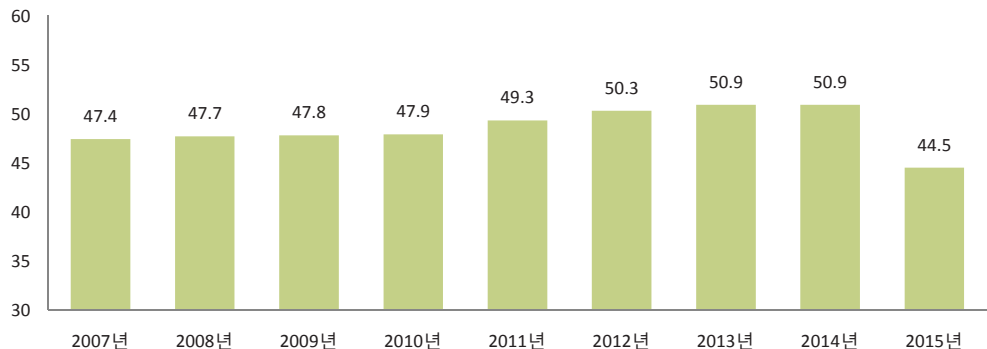


| 그림 3-137 | 장애인 재활시설 수

• 노인·장애인 수급자율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중 노인·장애인가구 비율은 2015년 44.5%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전년대비 약 34만 가구 증가하였으나 노인·장애인 수급자 가구수는 약 6만 가구 증가에 그쳐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 그림 3-138 | 노인·장애인 수급자율

2. 건강한 삶

1) 요약 및 정책제안

흡연을 1.1%p, 자살률 인구십만명당 1.4명 감소 그러나 비만율은 0.9%p 증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서울의 흡연율은 20.3%로 전년대비 1.1%p 하락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2014)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자살률도 2006년 이래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는 서서히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자살률은 인구십만명당 23.0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4명 하락하였다.

그러나 비만율의 경우 2015년 조사에서 24.5%로 나타나 전년대비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별로는 금천구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초구가 2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수명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증가

2014년 전국 평균수명은 82.4세로 남자는 79.0세, 여자는 85.5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5년 78.6세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평균수명 역시 2014년 83.6세로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평균수명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경우 2015년 47.5%로 전년대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 본 결과 남성이 50.7%, 여성이 40.9%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도 고연령보다 저연령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표개발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자료 확보 노력 필요

서울시의 경우 시민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사를 확충하는 등 시민과 가까워지면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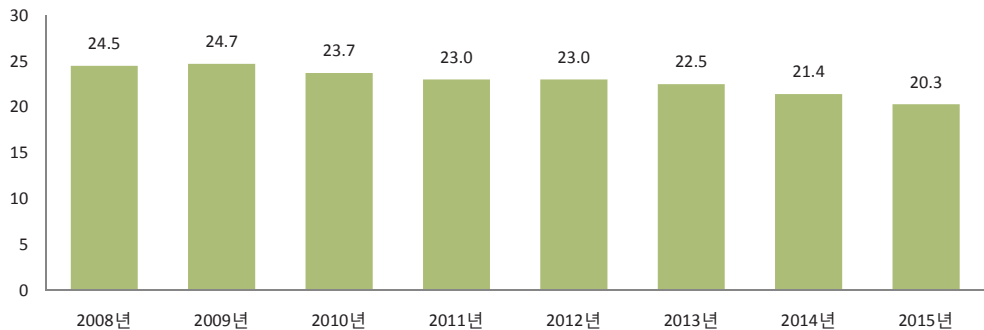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시민건강과 관련된 분야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2) 지표설명

• 흡연율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2015년 흡연율(서울)은 20.3%로 전년대비 1.1%p 하락했으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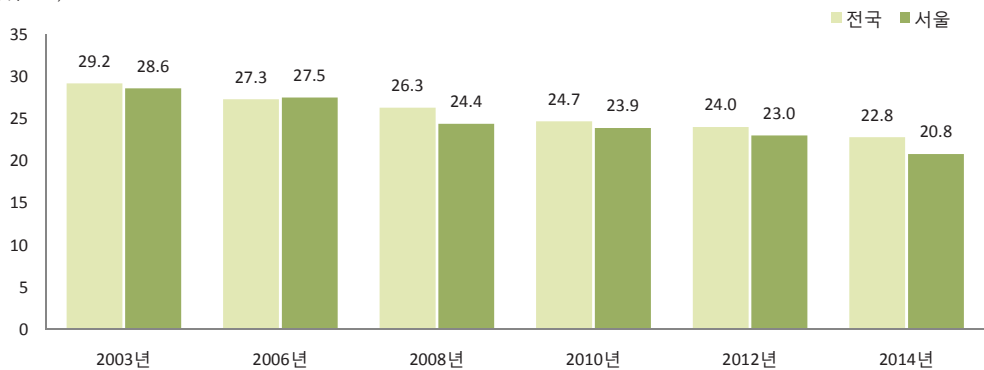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139 | 흡연율(지역사회 건강조사 기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2014년)에 의하면, 20세 이상 인구(전국) 중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22.8%로 1999년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서울지역에 사는 20세 이상 인구 중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20.8%로 전국평균에 비해 2.0%p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140 | 흡연율(사회통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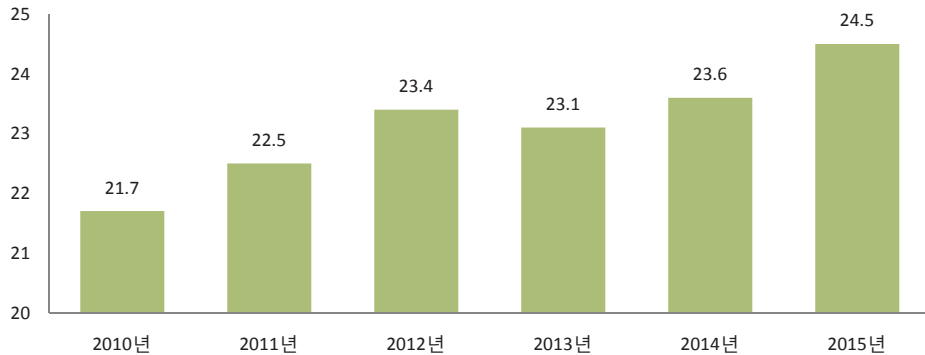
흡연율 기준

-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흡연율을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음, 표준화 값 사용
- 통계청에서는 흡연율을 20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현재 흡연자)로 정의하고 있음

● 비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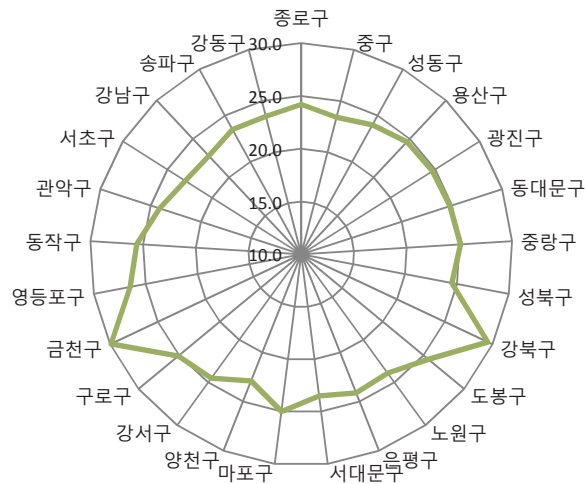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2015년 비만율(자기기입)은 24.5%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금천구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초구가 2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141 | 비만도(지역사회 건강통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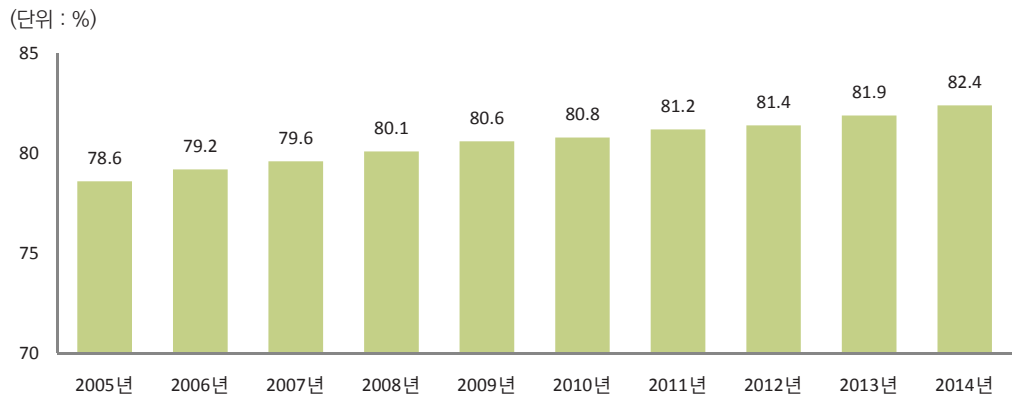
| 그림 3-142 | 비만도(지역사회 건강통계 기준) - 구별

비만율

-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비만율을 체질량지수(kg/m²) 25이상인 사람의 비율로 정의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표준화값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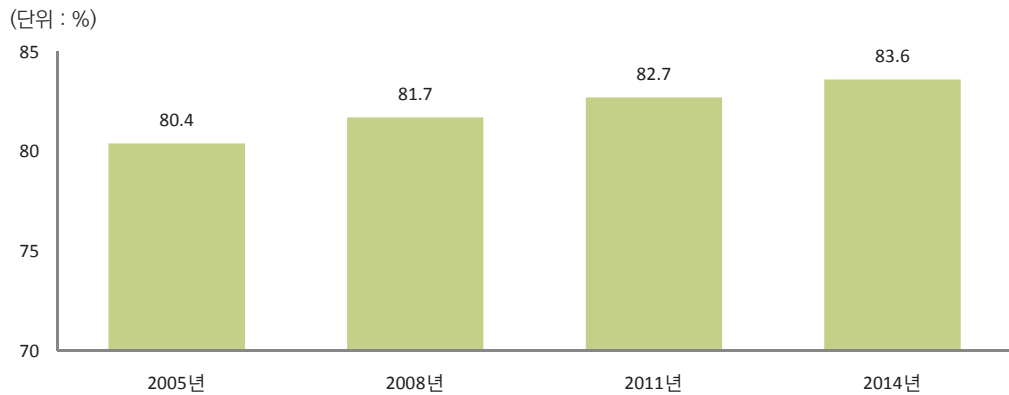
• 평균수명

2014년 평균수명(전국)은 82.4세(남자 79.0세, 여자 85.5세)로 2005년 78.6세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울의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3-143 | 평균수명(전국)

서울시 평균수명 역시 200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서울시 평균수명은 83.6세(남자 80.6세, 여자 86.6세)로 나타났다.



| 그림 3-144 | 평균수명(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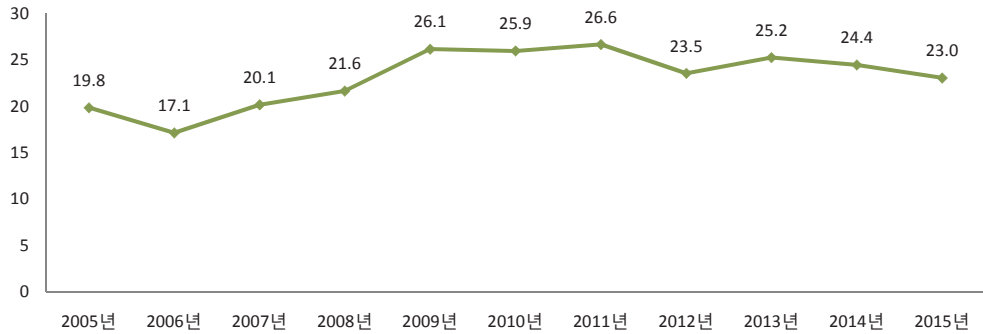
평균수명

- 평균수명이란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를 의미함
(※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 통계청은 시도별 생명표는 2007년(2005년 기준)에 처음 작성하였으며, 3년주기로 자료를 생성하고 있음.

• 자살률

2006년 이래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자살률은 2011년 이후 서서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은 23.0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4명 하락하였다.

(단위 : 십만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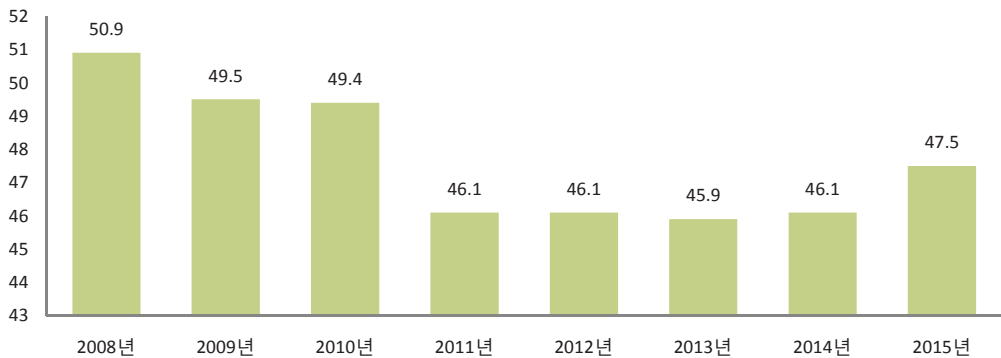


| 그림 3-145 | 자살률

• 건강상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47.5%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남성(50.7%)이 여성(4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146 |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표 3-23 |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	50.9	49.5	49.4	46.1	46.1	45.9	46.1	47.5
남	55.6	53.4	53.8	50.5	50.0	49.9	49.1	50.7
여	46.4	45.4	44.0	40.2	40.2	39.2	40.0	40.9
19-29세	73.0	67.8	65.0	62.5	60.7	61.4	61.5	63.6
30-39세	57.9	53.6	55.1	49.3	50.6	50.3	49.9	51.8
40-49세	48.1	49.4	49.2	44.0	43.6	43.8	44.8	43.9
50-59세	40.7	41.8	42.6	40.1	40.3	40.1	40.4	40.1
60-69세	28.3	30.5	30.8	31.1	31.8	30.8	31.1	35.3
70세 이상	18.9	20.9	21.6	22.8	23.7	21.4	21.4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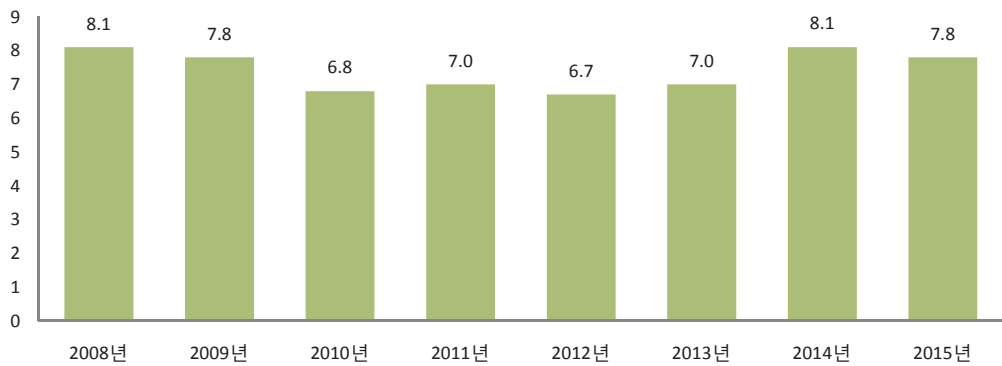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을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함. 표준화 값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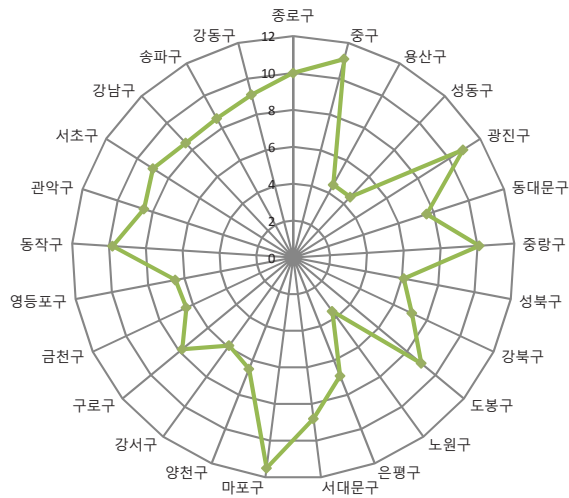
• 우울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수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8%인 것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마포구 11.5%, 중구 11.1%로 높게 나타났고, 노원구 3.6%, 용산구와 성동구가 4.5%로 나타나 자치구별 차이가 있었다.

(단위 : %)



| 그림 3-147 | 우울도



| 그림 3-148 | 우울도(구별)

3. 노후생활

1) 요약 및 정책제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전년대비 인구십만명당 2.88개 감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8개 증가

2015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보급률은 인구십만명당 41.97개로 2014년 44.85개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인들이 증가함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보급률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비현실적인 수가, 복잡한 판정체계외에도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늦춰주면서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 대상자들이 장기요양 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을 목표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후준비율은 62.8%로 전년대비 소폭증가, 노후생활에서 취미/교양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노후준비율은 6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상, 고학력, 관리전문직 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후준비방법으로는 보험의 비중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후준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보험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준비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노후생활희망정도에 대한 종합점수는 5.74점으로 2013년에 비해 0.02점 상승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취미/교양활동에 대한 점수가 6.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창출 활동이 6.20점으로 응답하였다. 취미/교양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창출 활동에 대한 점수도 높은 것으로 볼 때, 대부분 노후생활에서 경제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노인 자살률은 십만명당 53.1명으로 전년대비 증가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수를 나타내는 독거노인비율은 2010년 20.2%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 22.2%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여성(15.2%)이 남성(7.0%)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5년 인구십만명당 53.1명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전년대비 2.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부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변화 필요

서울의 노인인구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관련 예산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노인관련 정책은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립이나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도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의존적이거나 노인관련 정책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노인관련 시설을 의료나 복지분야를 탈피하여 접근할 필요성 증대

노인관련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장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은데, 노인 인구의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고령사회를 맞는 서울의 경우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민간과 협력하여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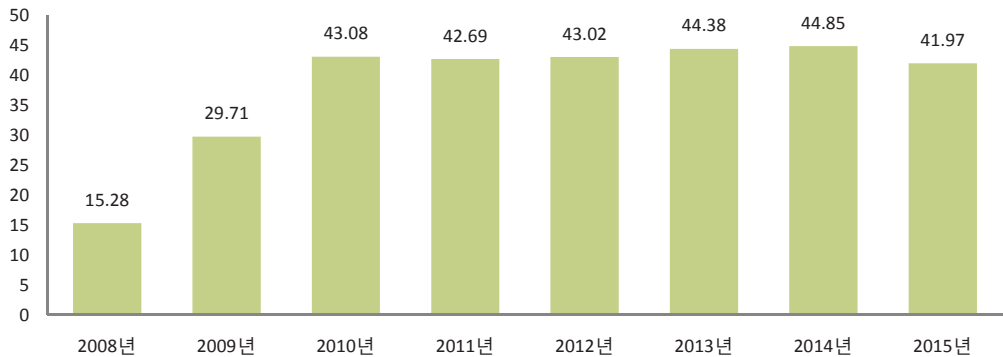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인 제도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건강한 노인은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리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은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하여 65세에 도래한 노인들을 방문, 상담하여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지표설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보급률

2015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보급률은 인구십만명당 41.97개로 복지시설 종류별로는 노인요양시설 176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56개가 있었다.

(단위 : 인구 십만명당 시설수)



| 그림 3-149 | 노인의료복지시설 보급률

| 표 3-24 | 노인의료복지시설

(단위 : 인구십만명당 시설수)

	합 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2008년	136	84	49	3
2009년	278	127	145	6
2010년	432	231	195	6
2011년	448	227	215	6
2012년	478	227	251	-
2013년	518	159	359	-
2014년	533	173	360	-
2015년	532	176	3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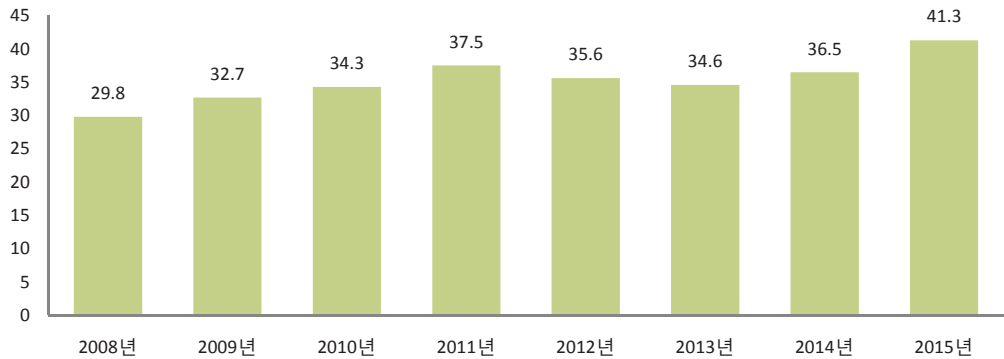
노인의료복지시설 보급률 기준 변경

- 2008년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분류체계변경 - 2007년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수는 무료양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함

●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급률

2015년 재가노인복지시설보급률은 인구십만명당 41.3개이며 방문요양서비스 103개, 주야간보호 서비스 267개, 단기보호서비스 51개, 방문목욕서비스 75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8개소로 나타났다.

(단위 : 인구 십만명당 시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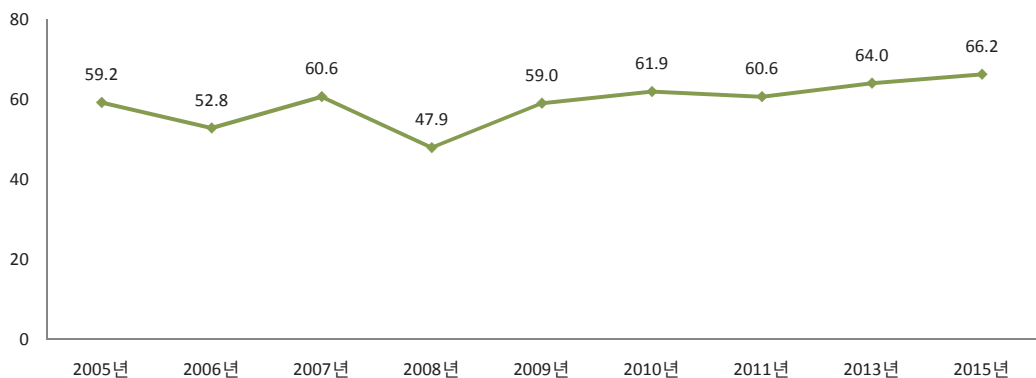


| 그림 3-150 |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급률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형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015년 66.2%로 2013년 64.0% 대비 2.2%p 높아졌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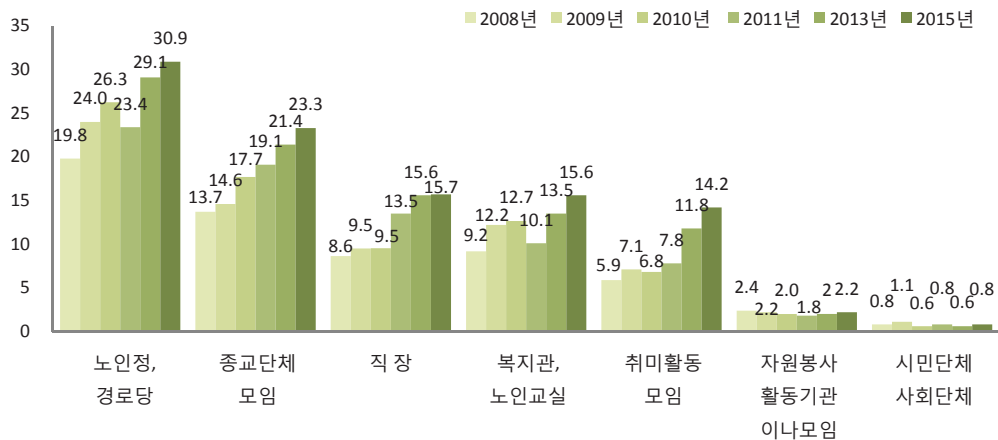
| 그림 3-151 |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율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율이란?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형태에서 특별한모임이 없음을 제외한 비율을 의미함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형태를 살펴보면 정기적인 사회활동의 형태는 ‘노인정’이 30.9%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모임’ 23.3%, ‘직장’ 15.7%, ‘복지관, 노인 교실’ 15.6%, ‘취미활동모임’ 14.2%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2.2%)이나 시민단체, 사회단체(0.8%) 등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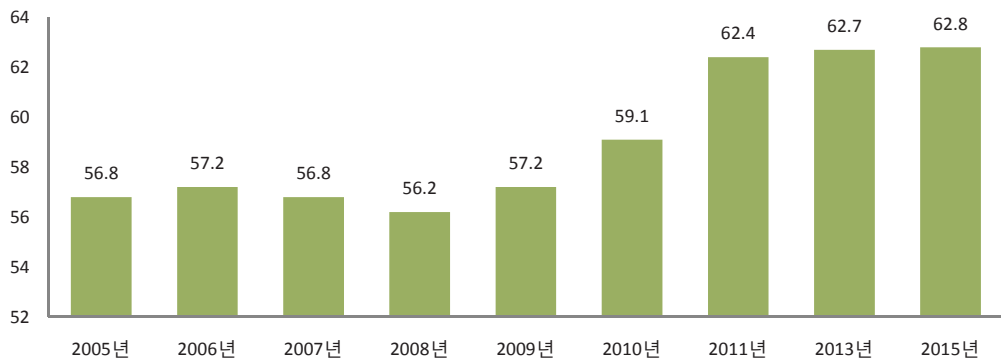


| 그림 3-152 | 노인의 정기적인 사회활동 참가형태

• 노후준비방법

노후준비율은 62.8%로 2013년(62.7%) 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이다. 특히, 노후준비율은 30대 이상, 고학력, 관리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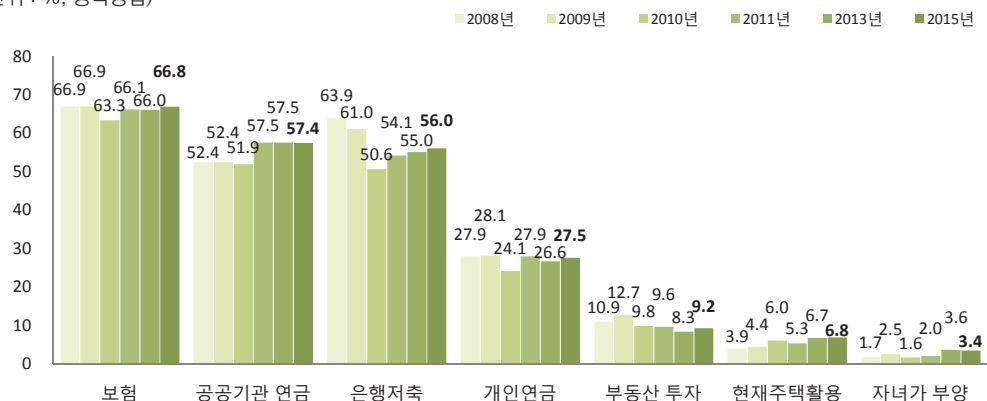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153 | 노후준비율

노후준비방법으로는 ‘보험’(66.8%),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57.4%), ‘은행 저축’(56.0%), ‘개인연금’(27.5%), ‘부동산투자’(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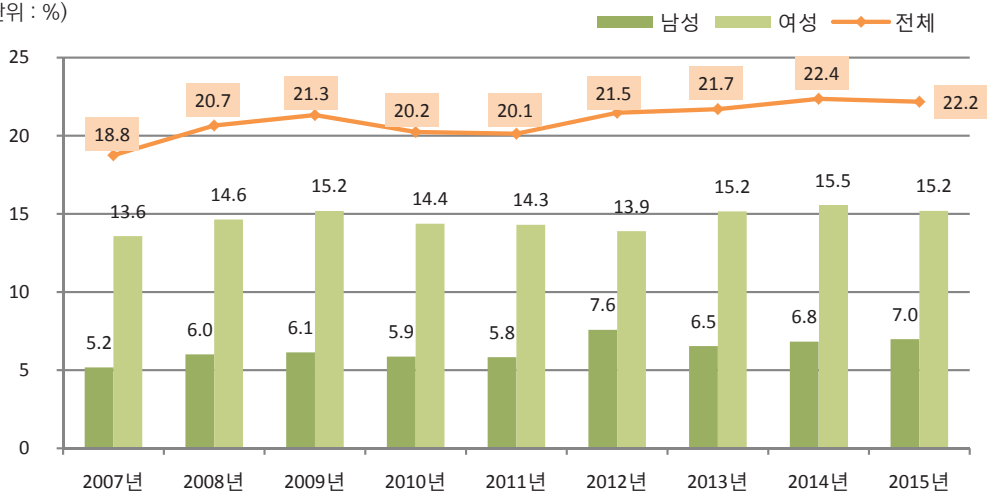


| 그림 3-154 | 노후준비방법

• 독거노인비율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수를 나타내는 독거노인비율은 2010년 20.2%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 22.2%로 전년대비 소폭(0.2%p)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여성(15.2%)이 남성(7.0%)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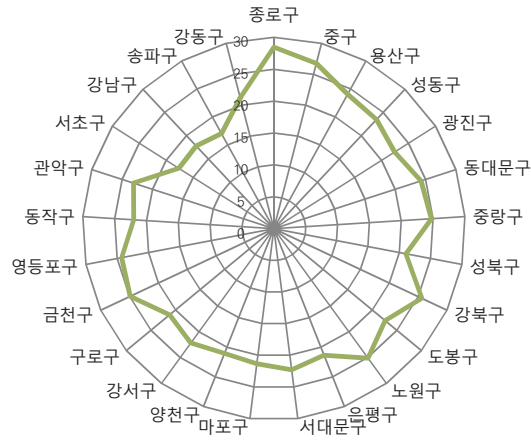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3-155 | 독거노인비율

구별 독거노인 비율은 종로구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송파구가 1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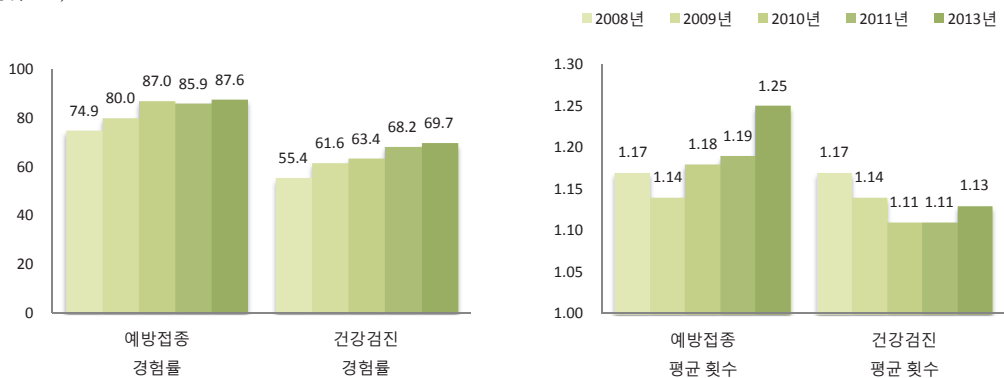


| 그림 3-156 | 독거노인 비율(구별)

• 노인건강관리

노인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가구조사에서의 예방접종 경험률은 2008년 74.9% 이후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87.6%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평균횟수는 1.25회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율도 2008년 55.4% 이후 매 해 증가하여 2013년에는 69.7%에 이르렀으나, 예방접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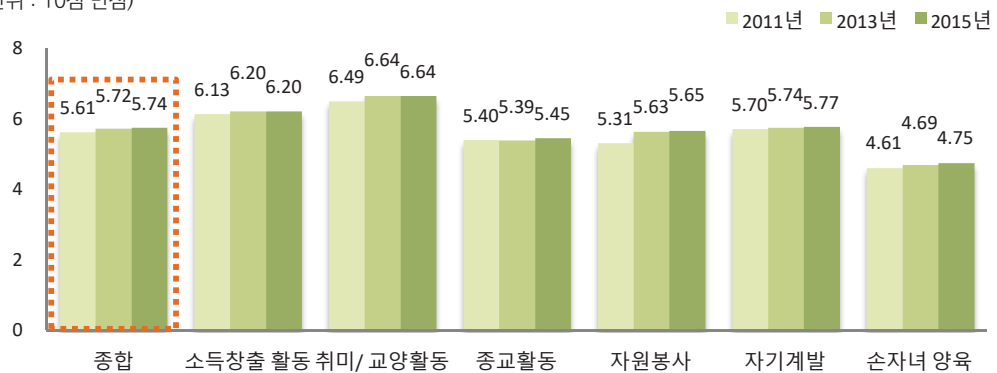
| 그림 3-157 | 노인건강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86.0%, 건강검진 수진율은 77.5%로 나타났다.

• 노후생활 희망정도

노후생활 희망정도에 대한 종합점수는 5.74점으로 2013년에 비해 0.02점 상승하였다.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분야를 보면, '취미/교양활동'이 6.64점, '소득창출 활동'이 6.20점으로 높게 응답된 반면, '손자녀 양육'은 4.75점에 불과하였다. 노후생활희망정도는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취미/교양활동'은 60세이상, 서북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득창출 활동'은 남성, 10대와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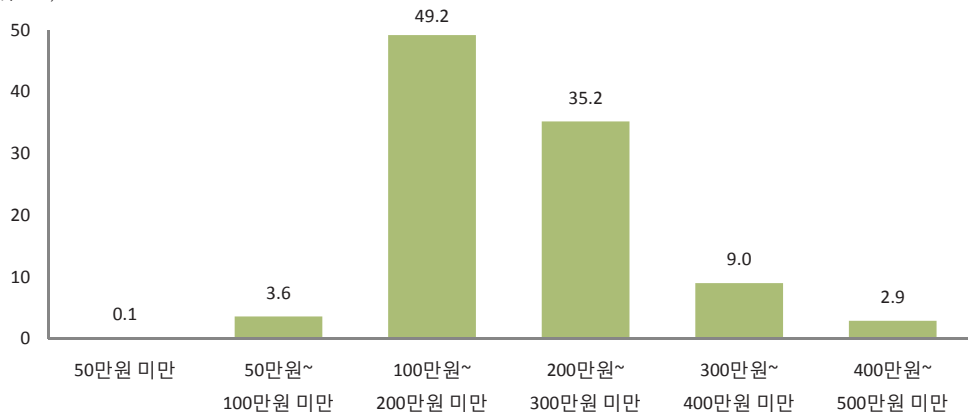


| 그림 3-158 | 노인생활 희망정도

• 은퇴 후 적정 생활비

2015년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는 '100~200만원 미만'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300만원 미만(35.2%)', '300~400만원미만(9.0%)'이 뒤를 이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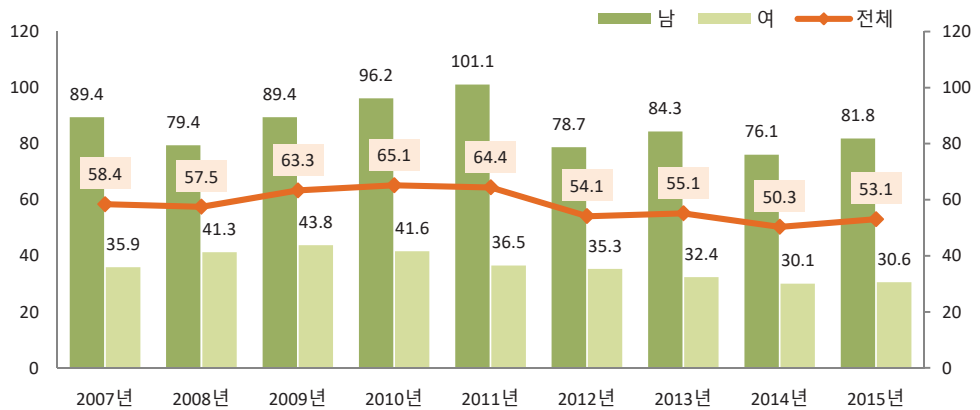
| 그림 3-159 | 은퇴 후 적정 생활비

• 노인 자살률

노인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족, 노년세대를 위한 대책 미비, 우울감 증대 등으로 인해 노인 자살률 증가하고 있으며, OECD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5년 인구십만명당 53.1명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전년대비 2.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 자살률이 인구십만명당 81.8명으로 여성 노인 자살률 30.6명보다 약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십만명당 명)

(단위 : 십만명당 명)



| 그림 3-160 | 노인 자살률

제7절 여성과 가족

1. 성평등성

1) 요약 및 정책제안

경제활동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정책 모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05년 52.0%, 2015년 53.2%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남성은 2005년 75.3%에서 2015년 72.9%로 소폭감소하였다. 성별 임금격차율을 전국 기준으로 보면 2006년 여성은 남성임금의 61.5%를 받았고, 2015년에는 62.8%를 받아, 임금 격차율이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남성의 60%정도 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전국 기준으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43.7%에서 2010년 41.8%, 2015년 40.2%로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 남성 비정규직 비율이 26.5%인 것에 비하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다. 이처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비정규직 비율, 성별 임금격차율의 성별 격차는 지난 10년간 소폭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남성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일자리 양적 확충과 병행하여, 고임금·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책 다각화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의 선순환 구조 구축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양육기인 30~40대에 하락하는 M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한다. 즉 기혼 여성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면, 현재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현재 서울의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 또한 낮으며, 경제활동 여성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인 상황이다. 특히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은 공적 연금수급 수준과 연동되어, 여성의 노후 빈곤화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여성 경제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대부분이 여성인 노인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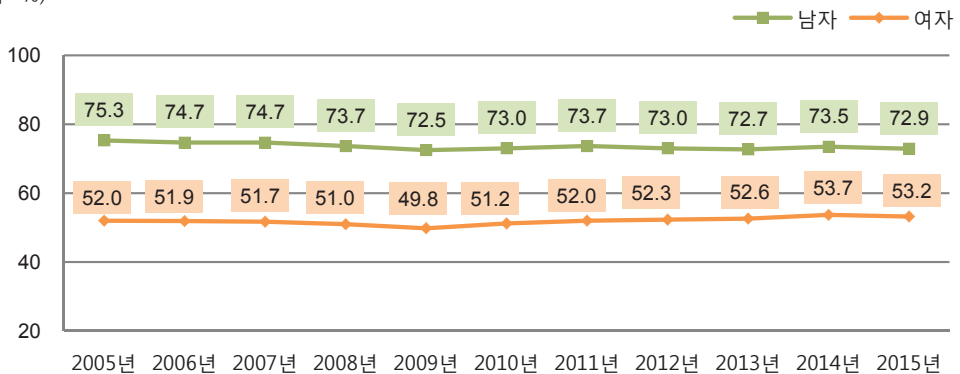
여성 경제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출산과 육아로 여성이 차별 받지 않고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참여기업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지표설명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0년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5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9%, 여성은 53.2%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161 | 성별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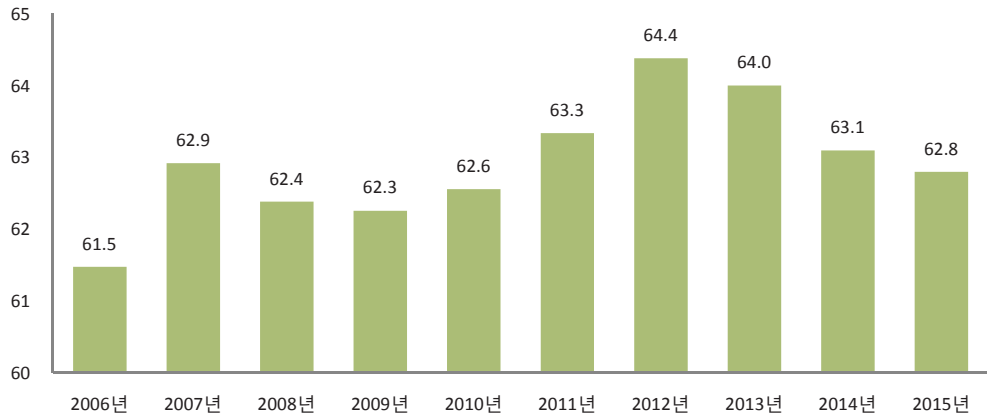
-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 성별 임금 격차율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UNDP 여성권한척도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⁵⁾ 남성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여성의 임금 비율은 2015년 62.8%로 2006년 61.5%보다 증가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임금 격차율이 64.4%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5)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단위 : %)



| 그림 3-162 | 성별 임금 격차율(전국)

| 표 3-25 | 성별 임금 격차율(전국)

(단위 : 천원, %)

연 도	남 성 월급여액	여 성 월급여액	여성 월급여액 남성대비비율
2006	2,030	1,248	61.5
2007	2,144	1,349	62.9
2008	2,265	1,413	62.4
2009	2,284	1,422	62.3
2010	2,361	1,477	62.6
2011	2,444	1,548	63.3
2012	2,569	1,654	64.4
2013	2,664	1,705	64.0
2014	2,761	1,742	63.1
2015	2,837	1,781	62.8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 OECD 주요회원국 중 남여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37% 정도 임금을 덜 받음

연도	OECD 평균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필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2012년	15	14	19	8	19	14	14	27	37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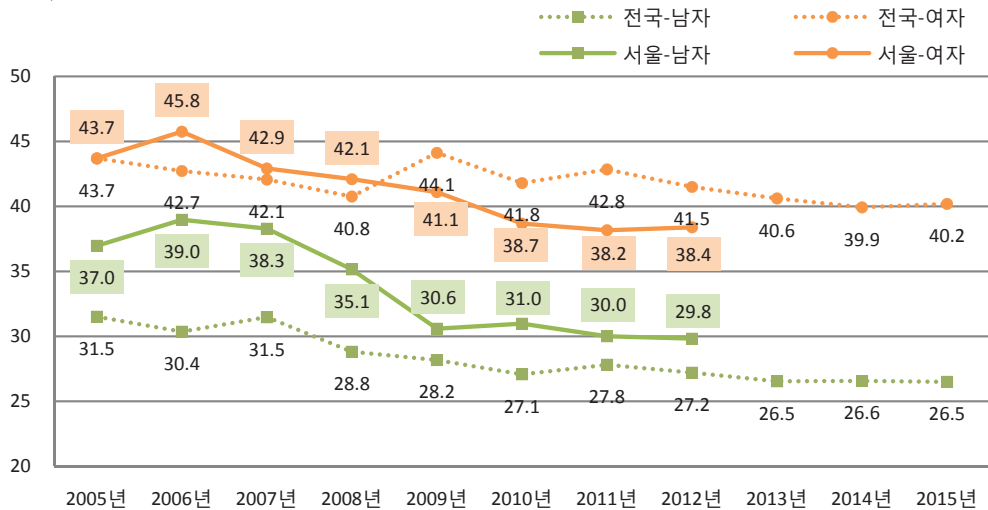
- OECD의 남녀 임금격차는 남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4/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성별 비정규직 비율

전국의 2015년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26.5%,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0.2%로 나타났다. 남녀간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는 2009년 16.0%p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격차가 점차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0%p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3.7%p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163 | 성별 비정규직 비율

성별 비정규직 비율

● 서울시 비정규직 비율 데이터는 2013년 이후 중단되어, 전국데이터를 사용함

비정규직 비율 (서울)			비정규직 비율 (전국)		
연 도	남 자	여 자	연 도	남 자	여 자
2005년	37.0	43.7	2005년	31.5	43.7
2006년	39.0	45.8	2006년	30.4	42.7
2007년	38.3	42.9	2007년	31.5	42.1
2008년	35.1	42.1	2008년	28.8	40.8
2009년	30.6	41.1	2009년	28.2	44.1
2010년	31.0	38.7	2010년	27.1	41.8
2011년	30.0	38.2	2011년	27.8	42.8
2012년	29.8	38.4	2012년	27.2	41.5
2013년	-	-	2013년	26.5	40.6
2014년	-	-	2014년	26.6	39.9
2015년	-	-	2015년	26.5	40.2

2. 건강한 가정

1) 요약 및 정책제안

가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가족정책 사업 추진

서울시민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2005년 6.86점에서 2015년 7.16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005년 3,484건에서 2015년 6,93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사노동을 남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률이 2008년 4.7%에서 2015년 7.8%로 나타나 남성의 가사참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은 여전히 높다. 청소년 가출건수는 2006년 2,054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270건으로 증가해, 현재 2015년에는 3,118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2000년 8.8%에서 2010년 10.0%, 2015년 10.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정폭력발생과 청소년 가출건수는 증가하였고 한부모 가구 비중도 증가추세이다. 이는 가정 해체 예방과 가정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예방 차원의 가족지원사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가정폭력피해자, 가출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한 사후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비 대출 부담 경감 방안과 생계비를 위한 대출금융 제도 마련

2015년 서울 가구의 48.4%가 부채가 있다. 부채의 주된 원인은 '주택임차 및 구입'이 65.9%로 가장 많으며, 이는 2013년 56.0%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이는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주택임차나 주택구입의 과정에서 가구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구 부채율 증가는 개별가구 수준을 넘어 경제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차원에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를 확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장기적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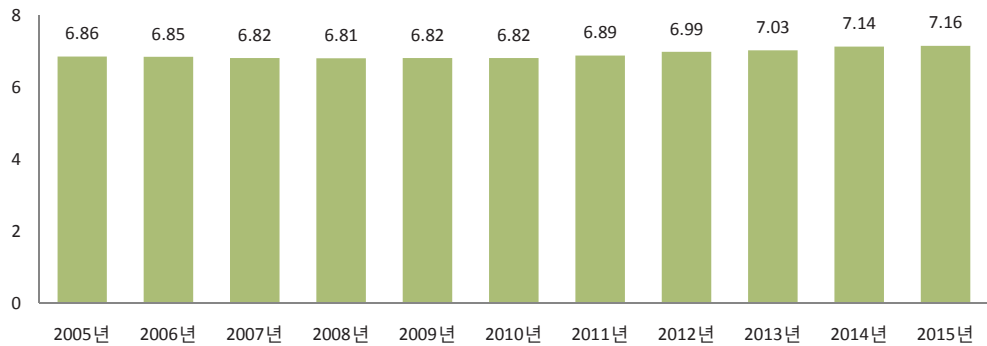
주거비를 제외한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비가 13.2%를 차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끝으로 기타생활비가 6.6%, 의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원인은 저소득층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가구부채요인 중 의료비와 기타생활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하락과 빈곤가구 증가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비롯한 긴급생계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소액대출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지표설명

•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는 2015년 7.16점으로 200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가정생활 만족도는 남성, 저연령, 고학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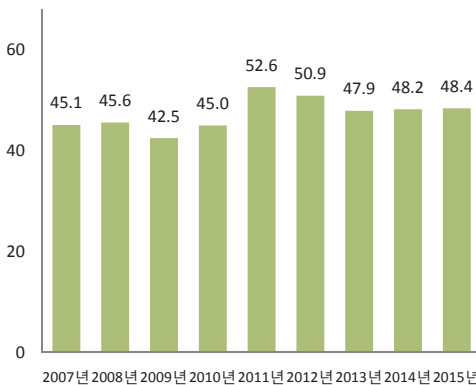


| 그림 3-164 | 가정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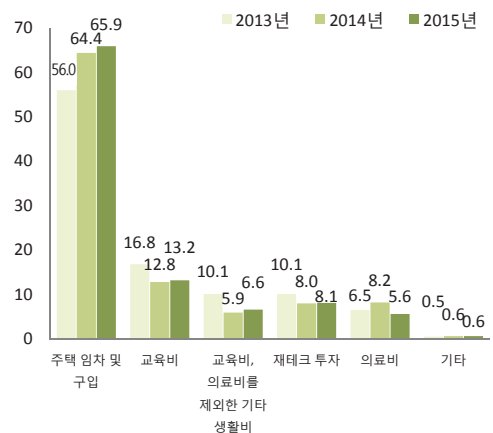
• 부채유형

서울 거주 가구의 48.4%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채유형은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주택임차 및 구입'이 65.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비', '재테크 투자' 및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 순이었다.

(단위 :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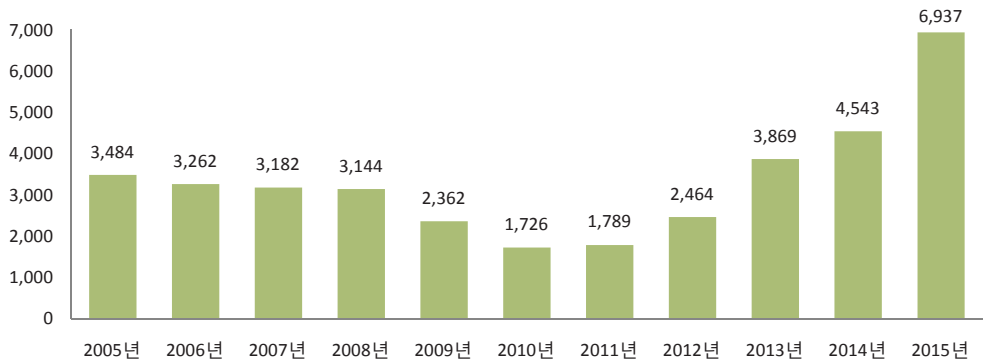


| 그림 3-165 | 부채율(좌), 부채이유(우)

•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005년 3,484건 이래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0년에는 1,726건으로 최저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부터 가정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에는 6,937건으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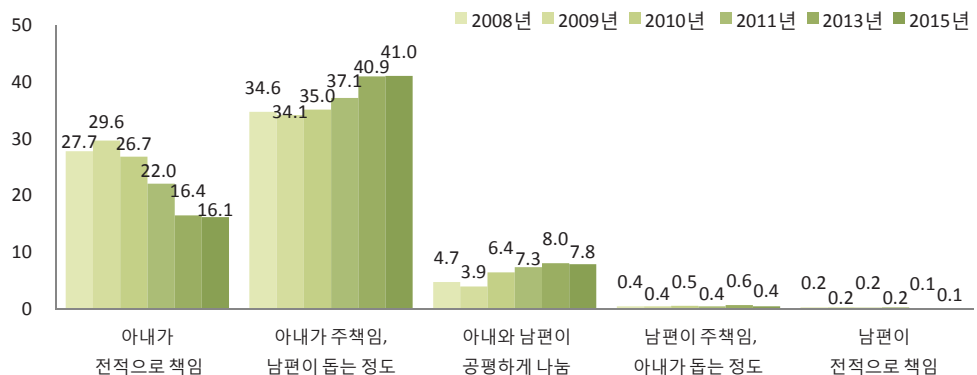


| 그림 3-166 | 가정폭력발생건수

• 가사노동 부담정도

가사노동을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16.1%),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7.8%)순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에서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비율은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공평하게 나누는' 비율의 증가 정도는 낮은편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사노동에서 여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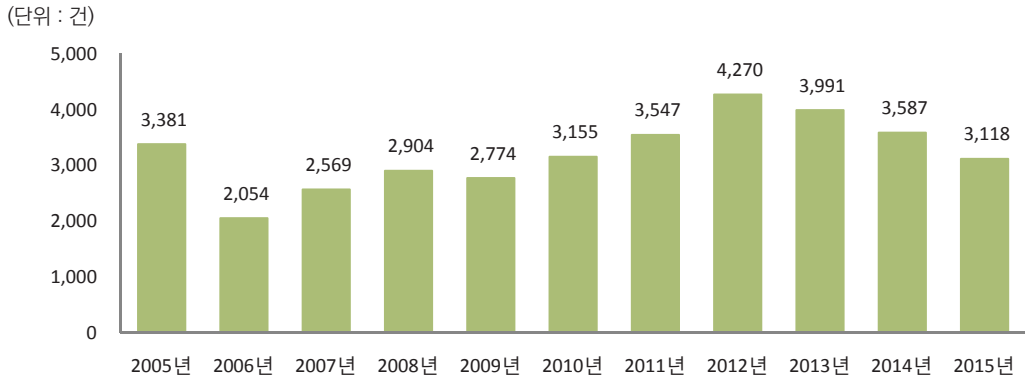


주 : 2011년부터 격년조사

| 그림 3-167 | 가사노동분담정도

• 청소년 가출건수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의 증가와 가족해체로 증가했던 청소년 가출건수는 2006년 하락하였으나 2007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15년 3,118건(남자 1,439건, 여자 1,679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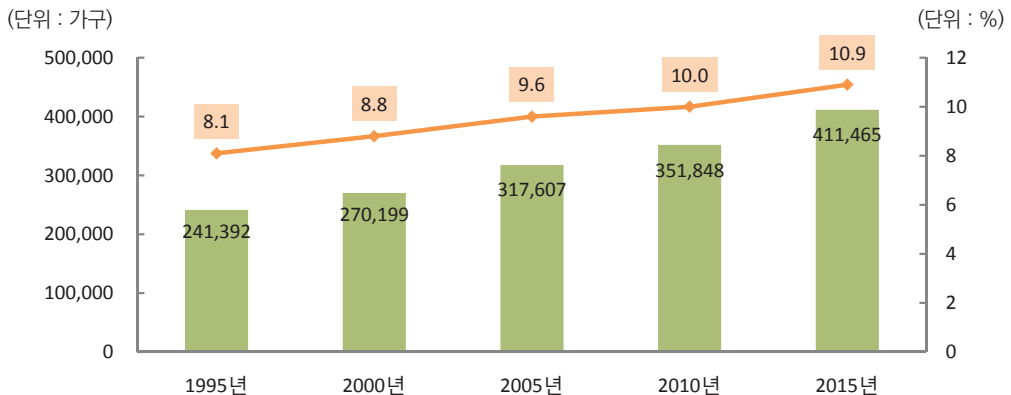
| 그림 3-168 | 청소년 가출건수

청소년 가출건수 산출 연령 변경

- 2012년 이전 청소년 연령은 14-19세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 청소년 연령이 9-18세로 조정됨

• 한부모 가구 수

일반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1995년 241,392가구에서 2015년 411,465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95년 8.1%에서 2015년 1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부모 형성 원인은 사별, 이혼, 미혼가구 증가 등에 기인함에 따라 한부모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3-169 | 한부모 가구수

3. 보육환경

1) 요약 및 정책제안

공공 및 직장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필요

서울시보육시설정원수 대비 보육아동수로 산출된 보육시설이용률은 2007년 84.7%에서 2015년 86.9%로 소폭 증가하였다. 영유아 의무보육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보육시설이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61.5%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시설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보육시설 만족도(10점 만점)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 보육시설 만족도 6.42점에서 2013년 6.85점, 2014년 7.05점, 2015년 7.07점으로 보육시설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 공공보육시설 확충 노력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5%로 제 자리 걸음을 하던 공공보육시설 비율이 2013년 14.2%, 2014년 15.6%, 2015년 17.4%로 높아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개인보육시설이나 법인보육시설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2015년 7.10점을 기록하였다. 직장보육시설수는 전체 보육시설의 0.7% 수준이나, 2015년 만족도가 7.92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고, 대기자도 많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과 함께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 지원 모색

2015년 보육시설 중 민간개인 어린이집이 50.5%, 개인가정 놀이방이 14.3%, 법인시설이 10.9%로 전체 보육시설의 75.7%가 민간시설이다. 공공보육시설에 비해 민간 보육시설 만족도가 낮으나, 점차 상승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만족도가 2012년 6.50점에서 2015년 6.98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가정 놀이방도 2012년 6.79점에서 2015년 7.37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아졌다. 법인보육시설은 2012년 6.56점에서 2015년 6.93점으로 높아졌다.

공공 보육시설은 단기간에 대폭 확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란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시설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설 유형간 보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그 결과 서울시의 민간보육시설 중 약 39%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 보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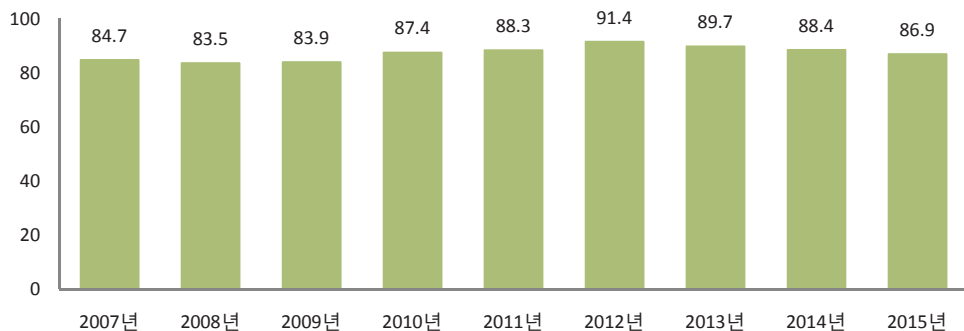
향상 및 보육료 인하가 실현되었다. 이처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아동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과 같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보육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은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지표설명

• 보육시설 이용률

보육시설정원수 대비 보육아동수로 산출된 보육시설이용률은 2008년 83.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최대치인 91.4%로 나타났으나, 2013년부터는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 2015년에는 86.9%로 전년대비 1.5%p 감소하였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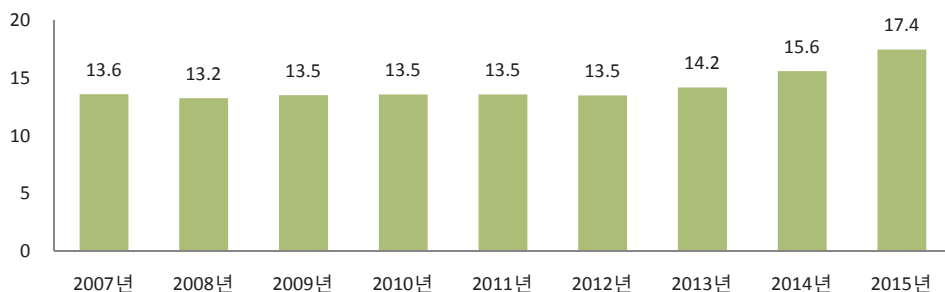


| 그림 3-170 | 보육시설 이용률

• 공공보육시설 비율

국공립시설, 직장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수를 합해서 산출한 공공보육시설 비율은 2015년 17.4%로 전년대비 1.8%p 상승하였다.

(단위 : %)



| 그림 3-171 | 공공보육시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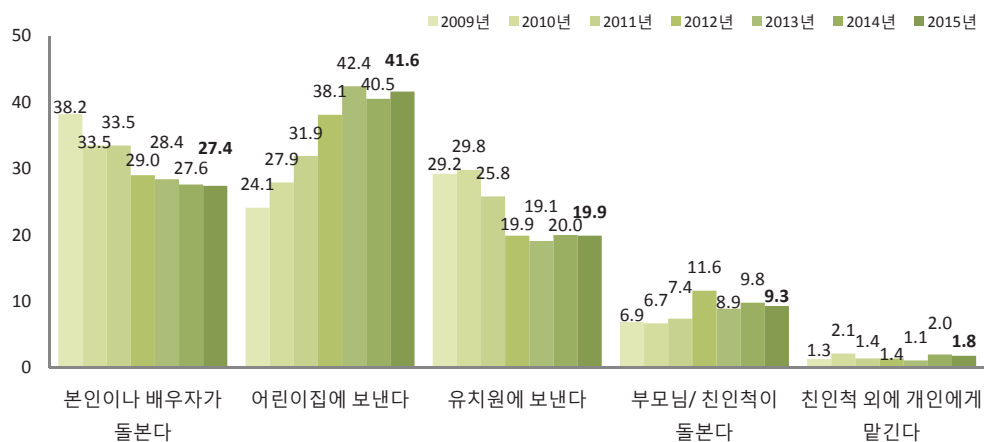
| 표 3-26 | 공공보육시설 현황

	전 체	합 계	국공립	직 장	법 인
2007년	5,532	751	637	83	31
2008년	5,600	741	618	91	32
2009년	5,684	766	626	96	44
2010년	5,870	795	643	109	43
2011년	6,105	827	658	126	43
2012년	6,538	881	690	149	42
2013년	6,742	954	750	165	39
2014년	6,787	1,056	844	176	36
2015년	6,598	1,151	922	194	35

• 보육방법

서울거주 가구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12.3%로 2014년(12.2%)에 비해 0.1%p 증가하였으며, 자녀 보육 방법으로는 ‘보육시설(어린이집 41.6% + 유치원 19.9%)’에 맡기는 경우가 10가구 중 6가구(6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는 27.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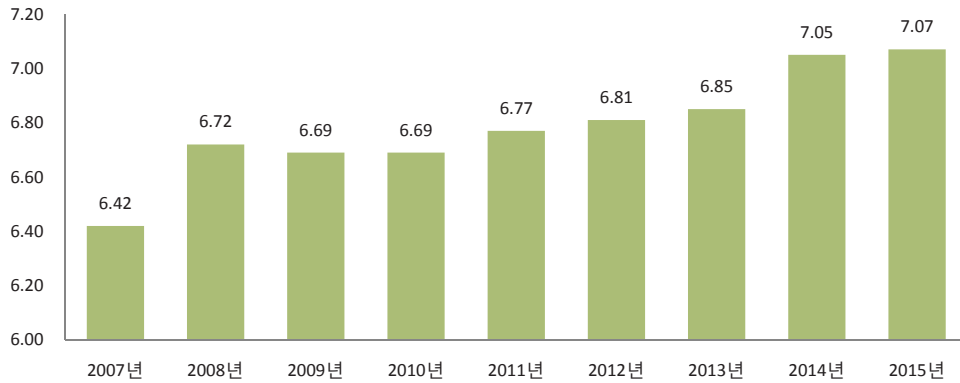


| 그림 3-172 | 보육방법

• 보육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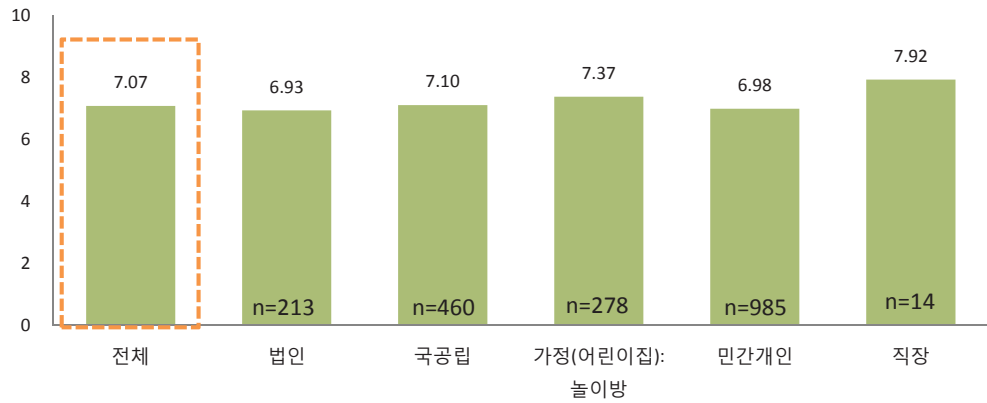
보육시설 만족도는 7.07점(10점 평균)으로 전년(7.05점)대비 0.02점 상승하였으며, 직장(7.92점), 가정 놀이방(7.37점), 국공립(7.10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 그림 3-173 | 보육시설만족도(연도별)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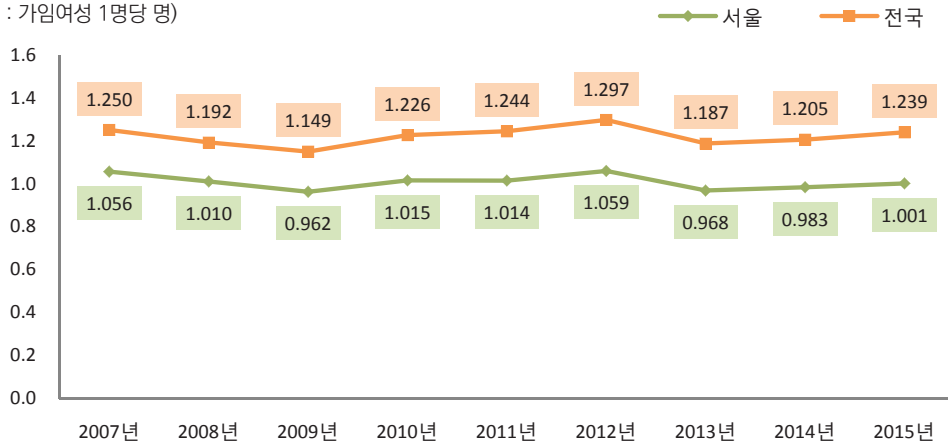


| 그림 3-174 | 보육시설 만족도

• 합계출산율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소폭하락하였으나, 2014년부터 상승하여 2015년 1.00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1.239명)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 및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로 나타나 초저출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 그림 3-175 |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제8절 환 경

1. 대기환경

1) 요약 및 정책제안

2012년 이후 서울의 대기환경 오염도는 소폭 증가추세

서울의 대기환경은 2000년대에 들어 미세먼지, NO₂, 실내공기질, 주거지역 소음도 등 전 영역에서 개선되어 왔다. 특히 2012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PM-10)가 41 $\mu\text{g}/\text{m}^3$ 로 국가와 서울시 기준을 넘어 크게 개선되었고, NO₂는 처음으로 국가 또는 서울시의 환경기준인 0.03ppm에 도달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2015년에는 미세먼지 46 $\mu\text{g}/\text{m}^3$, NO₂ 0.032ppm 등 대기오염물질의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음 또한 67.4 Leq dB로 소폭 증가 추세이며 주거지역의 주간소음기준인 55 Leq dB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 관련 정책, 건강을 고려한 지표설정과 관련 사업 필요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저공해차량 보급, 승용차 요일제,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로물청소와 같은 사업에 힘입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미세먼지와 NO₂ 등의 오염도 반등은 대기질관리정책을 다잡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즉 효과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동차 점검도 강화하여 정기점검 외에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시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시 점검은 운행 중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많은 기술진전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차 외에 가정용 난방기기 같은 소량배출원으로 관리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대기환경은 쾌적성을 넘어 시민의 건강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PM-2.5, NO₂ 같은 물질의 감축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저공해화, 단속 등을 넘어 전기자동차 보급, 수요억제와 같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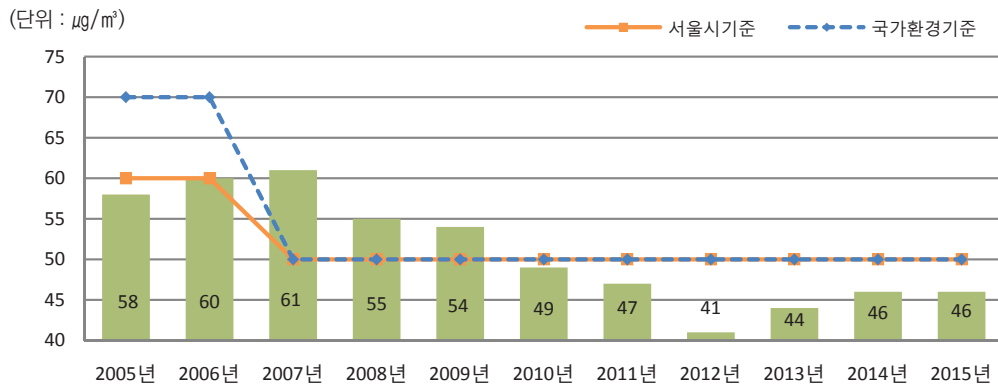
소음, 악취 등 체감형 환경오염물질 제어 기제는 대기환경 만족도 제고에 중요

대기환경 만족도는 소음, 악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음, 악취와 같은 체감환경, 생활밀착형 환경관리가 향후 환경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할 것이다. 특히 엔진개조차량(이륜차 포함)과 과속차량(이륜차 포함)의 적절한 통제, 주거지역의 특정시간 차량 통행제한, 속도제한 등의 근본적인 소음대책이 필요하다. 분뇨정화조,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점 관리, 공공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적환장) 등 철저한 악취배출원의 관리도 요구된다.

2) 지표설명

• 미세먼지오염도(PM-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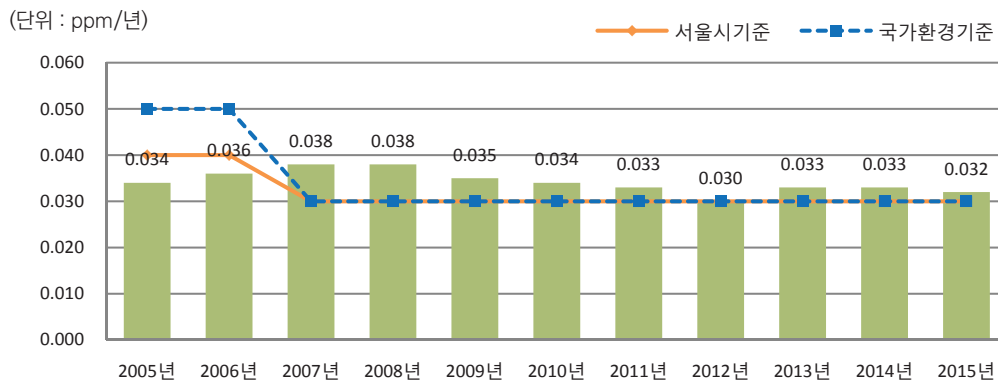
국가와 서울시는 2007년부터 미세먼지 오염도 기준을 $50\mu\text{g}/\text{m}^3$ 로 강화하였다. 그 이전까지 기준은 국가 $70\mu\text{g}/\text{m}^3$ 이하, 서울시 $60\mu\text{g}/\text{m}^3$ 이하였다. 2010년부터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국가와 서울시 기준인 $50\mu\text{g}/\text{m}^3$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46\mu\text{g}/\text{m}^3$ 로 나타났다.



| 그림 3-176 | 미세먼지오염도

• NO₂농도

NO₂는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형성되거나 다른 형태의 오염물질들이 화학적으로 반응한 결과물이다. 그 동안 대기 중 NO₂의 농도는 일정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9년부터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국가와 서울시의 환경기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2015년에는 0.032ppm/년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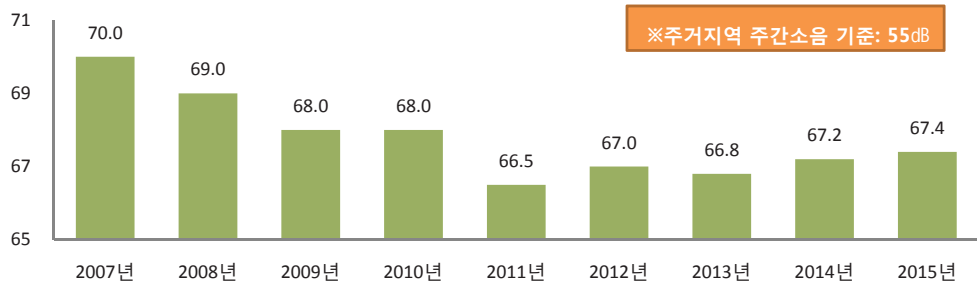


| 그림 3-177 | NO₂ 농도

•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도로변 주거지역의 낮 평균 소음도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0Leq dB로 변화가 없었으나, 2008년 ~2011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등락을 반복하다 2015년에는 67.4 Leq dB까지 증가하였다. 2015년 소음도는 주거지역 주간소음기준인 55Leq dB보다 많이 높은 수준이다.

(단위 : Leq dB)



| 그림 3-178 |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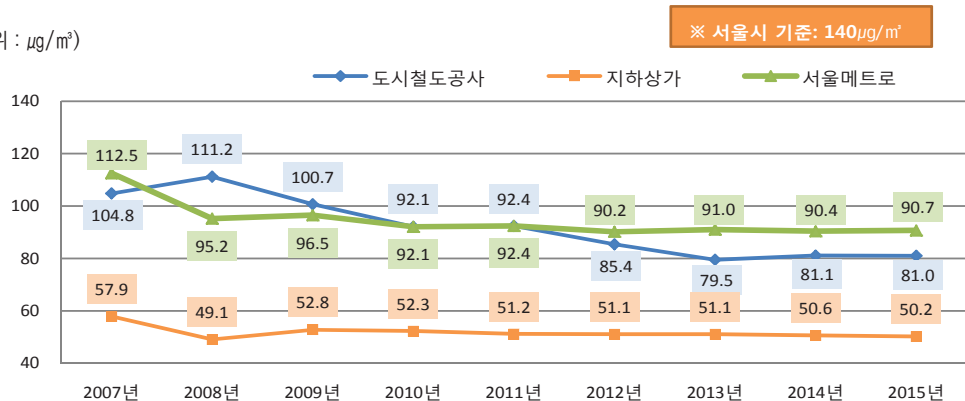
소음도

- 서울시는 녹지, 주거, 상업지역 등 30개 지역 150개의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
 - "가"지역 : 녹지지역(2), 주거전용(2), 종합병원(2), 학교(3)
 - "나"지역 : 주거지역(11), 준주거지역(2)
 - "다"지역 : 상업지역(5), 준공업지역(3)
- 본 지표인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는 "가"지역 및 "나"지역의 도로변 낮 소음도임

• 지하시설 실내공기질

2015년 서울시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은 연간 PM-10 농도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사공간 81.0 $\mu\text{g}/\text{m}^3$, 지하상가 50.2 $\mu\text{g}/\text{m}^3$, 서울메트로 역사공간 90.7 $\mu\text{g}/\text{m}^3$ 으로, 서울시 지하시설 미세먼지 기준인 140 $\mu\text{g}/\text{m}^3$ 이하를 모두 만족하고 있다.

(단위 : $\mu\text{g}/\text{m}^3$)



| 그림 3-179 | 지하시설 실내공기질(연간 PM10 농도)

2. 수환경

1) 요약 및 정책제안

한강본류 수질오염도는 높아지고 지천은 개선

서울시는 2007년부터 4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서울의 한강 중류인 노량진과 하류인 행주 지점의 수질이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은 전년대보다 다소 악화되어 노량진의 경우 BOD 3.0mg/L, 행주 4.9mg/L로 상승했다. 반대로 주요지천은 BOD 4.9mg/L, 소지천은 BOD 2.9mg/L로 2005년 이후 가장 개선된 상태를 보였다. 물놀이가 가능한 수질을 BOD 3.0 mg/L으로 볼 때 서울 한강은 상류에서 노량진 구간까지 그리고 소지천은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수돗물 자체 음용률도 지속적으로 감소

2014년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은 74.1%로 전년대보다 0.1% 감소했다. 마시는 방법도 직접 마시는 경우는 0.7%에 불과하고 정수하거나 끓여서 마시는 경우가 73.4%로 절대적으로 높다.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시는 경우가 전년대보다 0.8% 증가한 24.3%라는 사실 또한 우려되는 점이다.

한강 수질관리의 목표는 시민의 수상을 즐기는 한강에 두는 것이 바람직

수질오염배출량 총량규제,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시설 고도화사업 등 물관리 사업의 추진이 한강의 수질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고, 완결되면 한강과 지천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서울 한강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염도가 상승하는 징후를 보였다. 반대로 지천의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한강상류의 수질과 4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적정한지 의문을 준다. 차제에 한강수질의 목표도 BOD, COD 같은 생물화학적 기준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즉 시민들이 바라는 한강수질은 바라만 보는 물이 아닌 물놀이를 하고 수상을 즐기는 한강, 투명하고 감촉 좋고 비린 냄새가 없는 한강이라 할 수 있다. 물놀이 가능기준인 BOD 3.0 mg/L의 수질도 실제로 쾌적함을 느끼는 수질과는 차이가 있다. 차제에 현재 추진 중인 물관리사업이 시민이 원하는 한강의 모습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도 있다.

수돗물의 음용확대를 위해서는 물맛 개선과 교육 필요

음용식수로서 수돗물은 여전히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2014년 수돗물 음용가구 74.1%). 그런데 음용식수로 수돗물을 마시는 가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매해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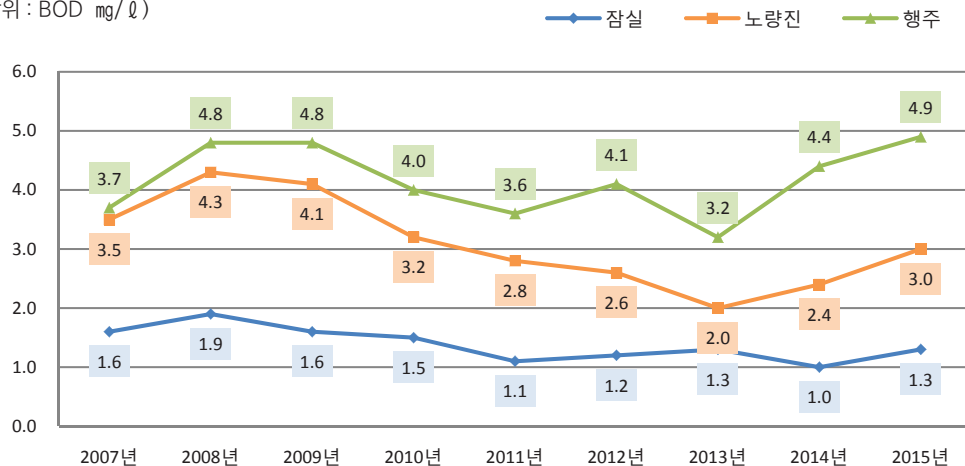
서울시 수도사업의 목표는 수돗물 음용인구의 확대이고 기왕이면 끓이거나 정수하지 않고 직접 음용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수시설 고도화사업, 급배수 배관 정비 사업 등의 지속추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옥내 정수기 설치, 포장용기를 이용한 수돗물 공급 등 수도사업의 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시는 시민들은 20대 이하(60.4%), 1인가구(47.1%), 여성(36.0%) 등의 속성이 있으므로 교육홍보도 이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지표설명

• 서울한강 수질오염도(BOD)

서울의 한강분류 중 상류에 해당하는 잠실지점의 수질오염도는 1998년부터 시작된 상수원수질개선평가대책에 힘입어 BOD 1.0~1.6mg/L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1.3mg/L으로 나타났다. 하류로 갈수록 수질은 약간씩 악화되어 2015년의 경우 노량진 3.0mg/L, 행주 4.9mg/L의 BOD를 나타냈다. 물놀이 가능한 수질을 BOD 3.0mg/L이하로 보면 서울한강 중 상류에서 노량진까지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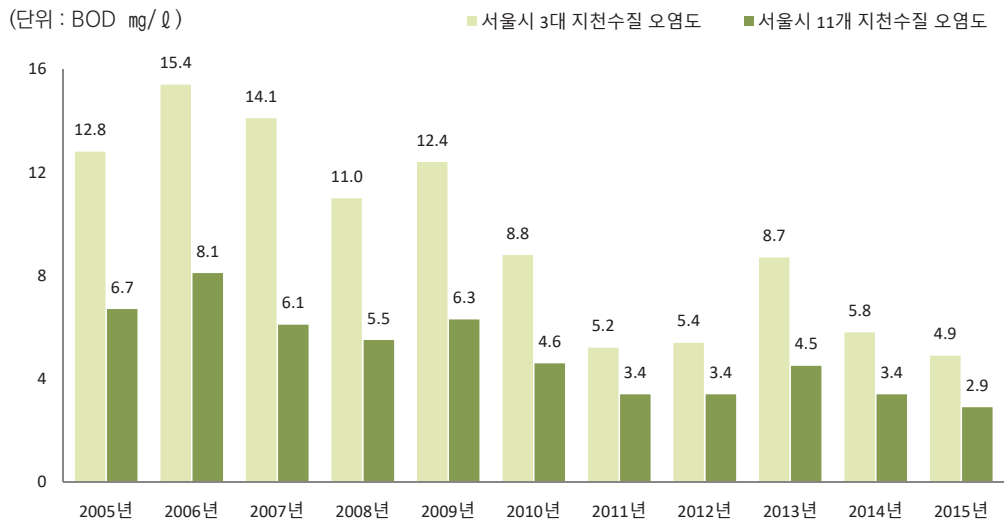
(단위 : BOD mg/ℓ)



| 그림 3-180 | 서울한강 수질오염도

• 서울지천 수질오염도(BOD)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3대 서울지천의 BOD는 매해 개선되어 2011년에는 5.2mg/L까지 낮아졌고 2015년에는 BOD 4.9mg/L까지 감소했다. 3대 지천으로 유입되는 소지천 또는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11개 소지천의 수질도 2014년 3.4mg/L에서 2015년 2.9mg/L로 개선되었다. 즉 주요지천과 소지천 모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질오염도를 나타냈다.



| 그림 3-181 | 서울지천 수질오염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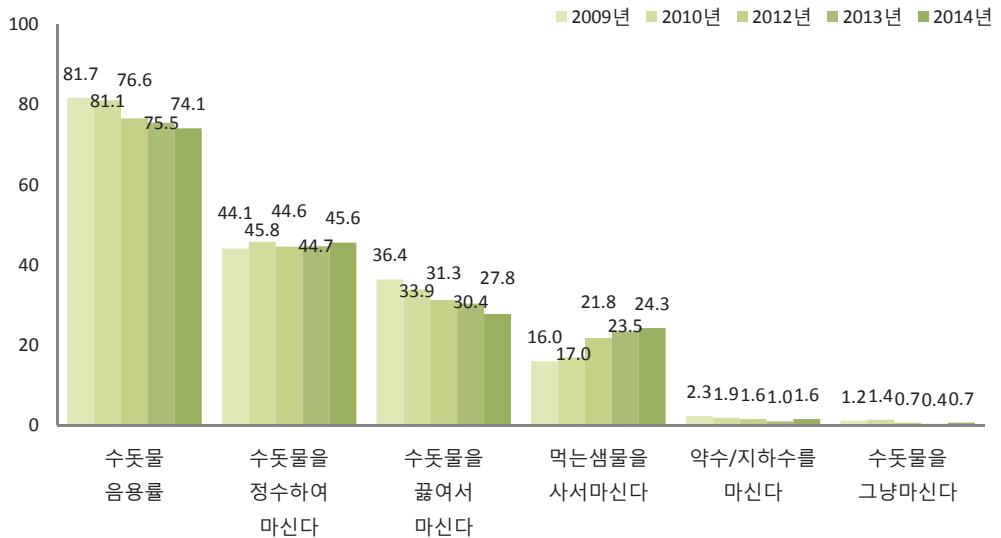
서울지천 수질오염도 기준

- 1) 서울시 3대 지천 = 탄천(5), 중랑천(4), 안양천(5)
- 2) 서울시 11대 지천 = 탄천(5)+중랑천(4)+안양천(5)+홍제천+양재천+정릉천+도림천+목감천+고덕천+성내천+청계천(1)
- 3) 개화천의 2010년, 2011년 값의 경우, 데이터 부재로 2009년도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목감천 자료로 대체됨

• 음용 식수

2014년 수도물 음용률은 74.1%로 2008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거주 가구의 주 음용 식수로 '정수한 수도물을 마신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고, '수도물을 끓여서 마신다'라는 응답이 27.8%로 그 뒤를 잇는다. 특히 '수도물을 정수하여 마신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남성(50.9%), 40~50대, 고학력, 아파트 거주(52.0%), 고소득층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는 시민들은 여성(36.0%), 20대 이하(60.4%), 저학력, 1인가구(47.1%), 도심권(30.7%)이라는 보편성이 있다.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 시민은 2011년부터 1% 이하로 감소하여 2014년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단위 : %)



| 그림 3-182 | 서울시민의 음용식수

3. 자연환경

1) 요약 및 정책제안

국지 도로의 녹시율 향상은 지역사회와 공동사업을 통해 모색

가로경관 녹시율은 2002년부터 집중적 개선사업으로 매해 증가하여 2015년에 22.6%에 이르렀다. 녹시율의 가치는 서울을 푸르게 보이게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녹시율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로수의 식재면적과 녹음이 우거지는 수목을 선택하고 풍성하게 보이도록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야를 차단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각종 도로시설물, 불법 적치물 등의 정비와 함께 추진하면 녹시율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 한편 도로 종류별 녹시율 증가율은 국지도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지도로는 동네도로, 이면도로 등을 말하며, 수목을 식재할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 국지도로의 한계는 내집 화분 갖기, 지역 화단가꾸기 등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녹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녹지 기능의 업그레이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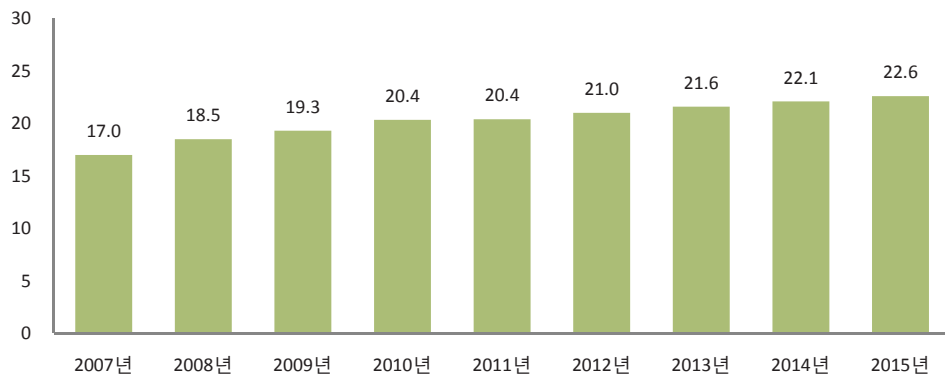
서울은 천혜의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1인당 공원면적이 2015년 16.17㎡이고, 서울시의 공원 확보 노력으로 매해 증가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생활권공원은 2014년 1인당 5.29㎡에 불과하고 구별 편차가 크다. 협소한 생활권공원면적 및 공원의 구별편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녹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음을 서울시민의 녹지 환경 만족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6.55점이던 녹지만족도가 2014년에는 5.98점으로 감소했다. 10점 척도 만족도에서 평가점수 5.98점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며 2014년은 전년보다 만족도가 감소했으므로 서울시 녹지분야의 분발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용산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과 같은 도심권 구시가지는 공원 확보가 어렵고 자연공원이 멀리 존재하는 등 여러 한계가 중첩되어 있어서 담장 허물기, 자투리 공원, 옥상정원, 주택내 화분가꾸기 등 해당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서울시의 향후 녹지정책은 역사성과 결합한 스토리텔링, 시민의 정신적 치유공간과 새와 같은 생물의 안락한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생활공간에서 공원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의 발굴 등 기능적, 영역적 확장도 요구된다.

2) 지표설명

• 가로경관 녹시율

가로경관 녹시율은 2002년부터 집중적인 개선사업으로 매해 증가하여 2015년에 평균 22.6%에 이르렀다. 도로 종류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 모두에서 전년보다 녹시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183 | 가로경관 녹시율

| 표 3-27 | 도로종류별 녹시율

	전 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2007년	17.0	20.6	18.9	18.6	10.1
2008년	18.5	21.9	19.8	21.4	10.9
2009년	19.3	21.4	23.3	21.6	11.0
2010년	20.4	21.5	25.4	23.0	11.6
2011년	20.4	20.9	25.0	24.0	11.7
2012년	21.0	21.5	25.1	25.4	12.1
2013년	21.6	22.3	25.5	25.6	13.1
2014년	22.1	23.8	26.4	25.7	12.5
2015년	22.6	24.1	27.8	26.0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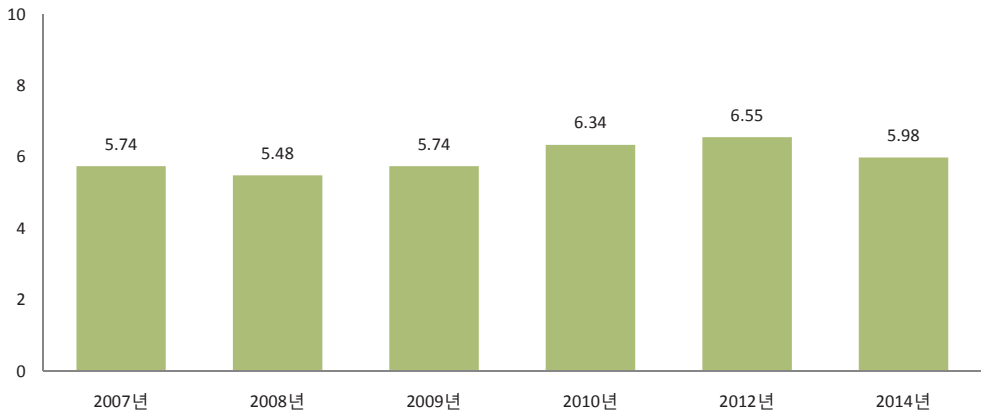
녹시율

'일정 지점에서 있는 사람의 시계(視界)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 기존에 사용되는 녹지율이 평면적이고 수평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본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가로 녹시율 산출방법은 우선적으로 대상지 내 가로 유형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지를 선정 후, 각 표본지에서 50mm 표준렌즈를 장착한 일안반사식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가로 중용에 서서 1.5m 내외의 눈높이에서 가로의 소실점을 사진 중앙에 위치시킨 입면 가로경관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에서 사진 전체 면적 중 살아 있는 식물 잎의 영상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산출한다. 단, 관찰자의 이동경로가 차량이용자와 보행자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경우 별개로 녹시율을 산출한다.

• 녹지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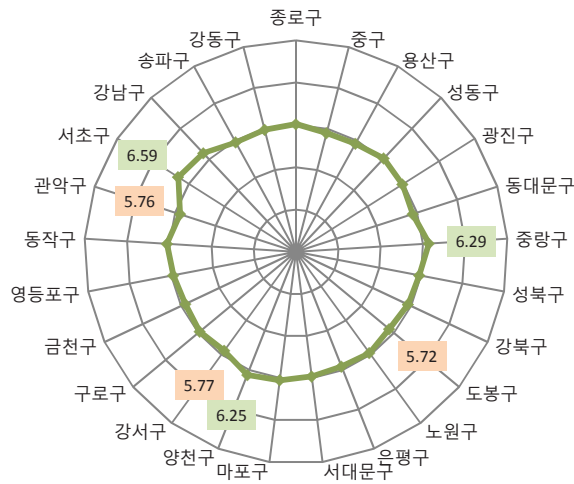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거주지역 녹지환경 만족도는 2014년 5.98점으로 2012년 대비 0.57점 하락하였다. 권역별 녹지환경 만족도는 동남권(6.19점)에서 높고, 도심권(5.89점)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구별 녹지환경 만족도는 서초구(6.59점)와 중랑구(6.29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 그림 3-184 | 녹지환경 만족도

(단위 : 10점 만점)



| 그림 3-185 | 녹지환경 만족도(구별)

4. 폐기물

1) 요약 및 정책제안

2007년 이후 감소경향이던 생활폐기물 양과 재활용량이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서울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구의 선진도시들(1인당 1일 1.3~1.5kg)보다 낮은 1인당 1.0~1.1kg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에 처음으로 1kg이하로 감소했고 2013년에는 0.82kg까지 줄었다. 그러나 2014년에 1일 9,614톤, 1인당 0.95kg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매립량도 2013년의 경우 2007년 매립량의 1/3 수준까지 줄었으나 2014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천톤에 육박했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공간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매립량의 증가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폐기물관리의 최우선 목표는 직매립 제로화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2016년까지 부여된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을 기간명시 없이 103만㎡의 면적에 대해서만 신규로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패하는 경우 추가로 106만㎡이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며 제한된 범위에서 더 오래 사용하려면 매립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4개 소각시설을 통해 1일 2,300톤의 정도의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여전히 1일 1천톤의 생활폐기물 매립했다. 결론은 무조건 줄여야 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줄이고 재활용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모든 사업장의 종량제봉투 실명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이 필요하다. 4개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히 소각처리에서 벗어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연료로 생산하는 자원화기지로 변모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재 등도 앞으로는 건설자재로 이용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그래도 남은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앞서 경기도 소재 여유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새로운 시설의 건설에 서울시가 공동 참여하여 일정 처리권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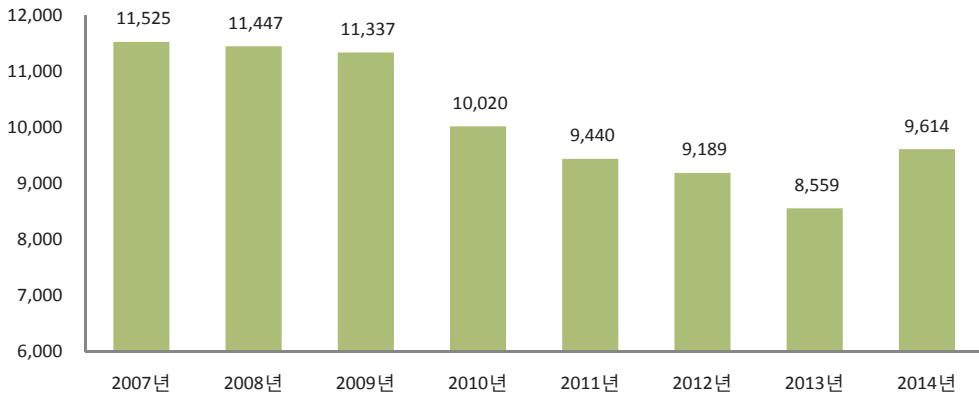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2016년 6월 28일)
 - 수도권매립지는 103만㎡을 매립지로 사용하고 그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며 실패하는 경우 추가로 106만㎡을 매립지로 사용함
 - 서울시와 환경부가 보유한 매립면허권, 재산권,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함
 - 매립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넘기며 인천시의 경영참여를 확대함
 -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반입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함
 -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지원함
- * 4자협의체는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를 말함

2) 지표설명

• 생활폐기물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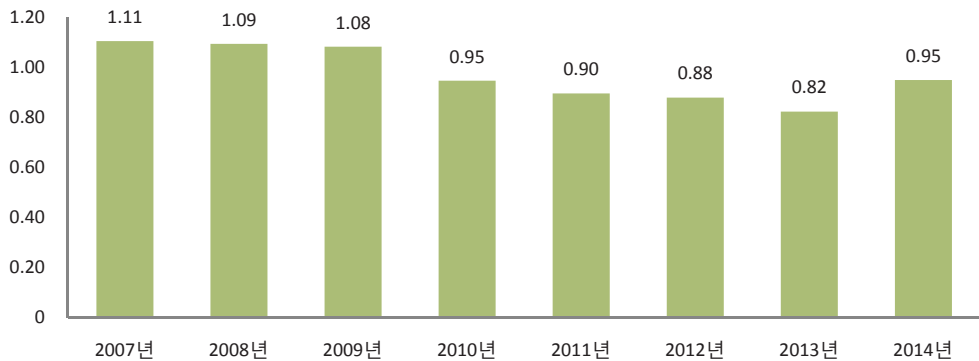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 1일 9,614톤, 1인당 0.95kg에 이르렀다.

(단위 : 톤/일)



| 그림 3-186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kg/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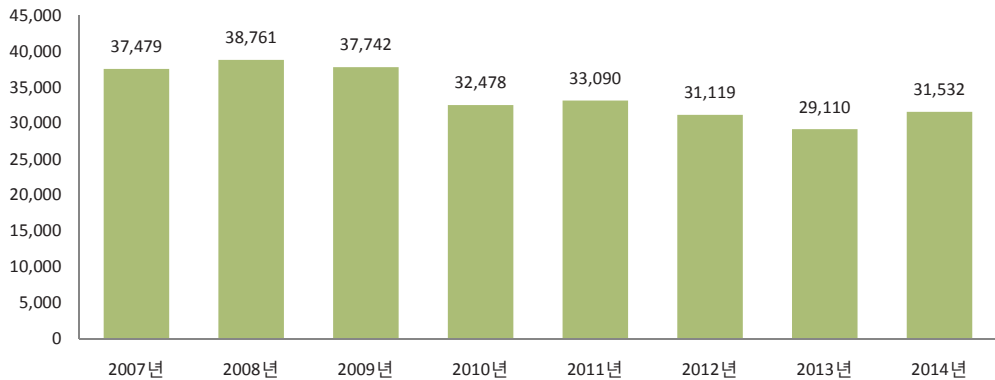


| 그림 3-187 |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재활용량

폐기물 재활용량은 2007년 이래로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추세를 보였고, 2014년에는 전년보다 늘어난 3만 1,532톤이었다. 전반적인 감소현상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활용량의 감소는 재활용에 관한 열정이 식거나 시스템이 바뀌어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줄어 나타난 현상이다.

(단위 : 톤/일)



| 그림 3-188 | 폐기물 재활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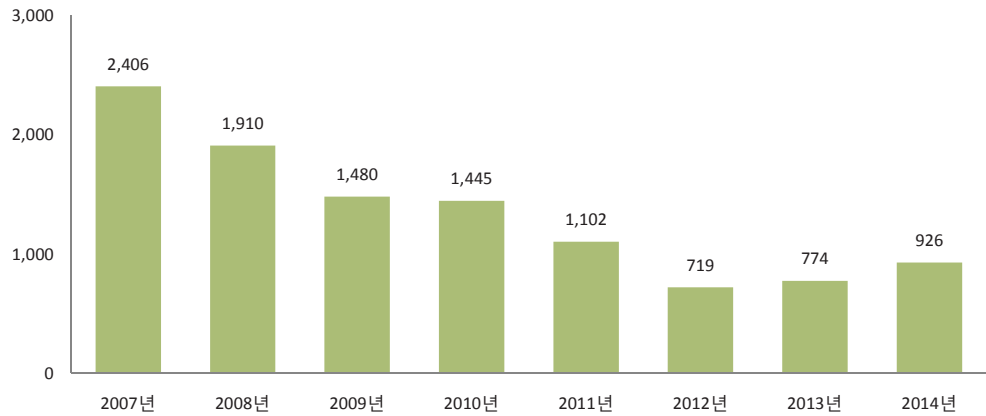
| 표 3-28 |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량

	계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2005년	31,165	3,999	3,188	737	23,241	74
2006년	38,859	4,104	3,273	598	30,883	72
2007년	37,479	4,096	3,350	953	29,080	79
2008년	38,761	4,104	3,405	1,151	30,102	82
2009년	37,742	4,274	3,447	2,657	27,363	88
2010년	32,478	3,207	3,385	1,228	24,584	74
2011년	33,090	2,607	3,386	342	26,755	90
2012년	31,119	2,704	3,301	685	24,430	77
2013년	29,110	2,409	3,072	532	23,097	80
2014년	31,532	3,243	3,181	805	24,303	79

● 생활폐기물 매립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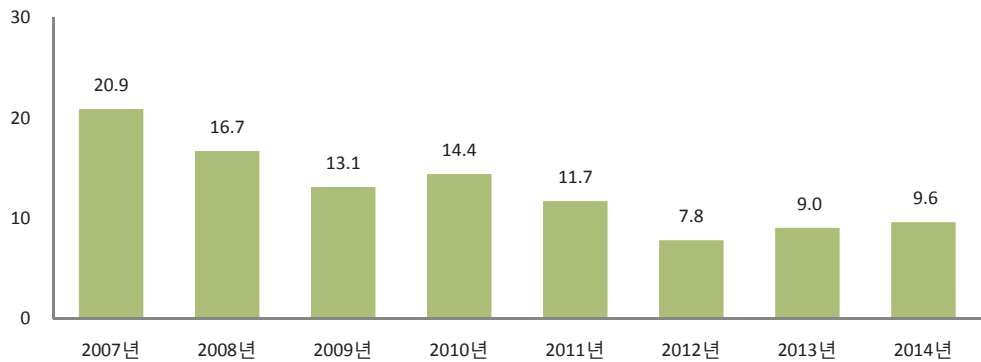
서울의 생활폐기물 중 매립에 의해 처리하는 양은 2014년 1일 926톤, 9.6%이다. 매립의존도는 201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7년(20.9%)과 비교하면 11.3%p 줄었다. 매립량 감소의 원인은 자원화량과 소각량의 증가 때문이다.

(단위 : 톤/일)



| 그림 3-189 | 생활폐기물 매립량

(단위 : %)



| 그림 3-190 | 생활폐기물 매립의존도

● 통계청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단위 : 개소, m³, %)

2014	매립장 수	잔여매립 가능용량(m³)	매 립 량	
			매립량(톤/년)	매립량 비율(%)
전국	224	194,957,940	6,879,194	100
서울/인천*	5	105,133,963	3,175,596	46

* 주 : 서울의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어, 인천과 통합하여 기재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2015)

5. 환경 거버넌스

1) 요약 및 정책제안

생활자원 소비량은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에코마일리지제도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

서울의 가정에서는 1인당 연간 1.26MWh(2015년)의 전력을 소비하고 수돗물의 경우 1인당 1일 301리터(2015년)를 소비했다. 수돗물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전력소비량 또한 2013년을 지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70만 명을 넘었다. 서울시 가정에서의 전기와 수돗물 소비량 감소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에 나타났듯 시민들의 실천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원의 다양화 방안 모색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연료전지, 폐기물 등으로 다양하며, 2011년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양이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78%에 이를 정도로 폐기물(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2015년 폐기물 의존도가 52.9%로 감소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서울은 물리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기반확보에 불리하고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서울의 한계를 보여준 불리한 여건이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는 회수 효율의 제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반면에 나머지 신재생에너지원은 벽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하수처리장 등의 공공기반시설 활용과 같이 서울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충할 수 있다. 사업장과 가정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구조를 개선하고 건물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울형 RPS사업⁵⁾의 지속적 시행과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잡이가 가능한 교육시설을 우선사업지역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생활자원 절약 실천시민 확대 필요

생활자원의 사용량 감축은 정부의 제도, 기반구축, 그리고 시민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 주체인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활동을 실천하는 시민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시민실천정도는 분야에 따라 4.74점에서 7.69점(10점 만점 기준) 사이로 편차가 크고, 적게는 23%, 많게는 53%의 시민이 생활자원의 절약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폐기물 감량 부분이 4.74점

5)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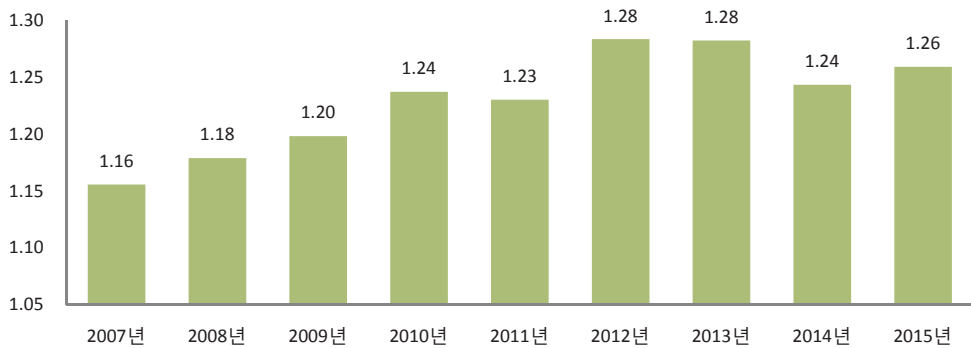
~6.33점으로 실천하지 않는 시민의 수가 타 분야보다 많다. 따라서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은 앞으로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2) 지표설명

• 가정용 전력소비량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2007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2013년에 1인당 연간 1.28MWh까지 도달하였다.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1.26MWh의 수준이다.

(단위 : M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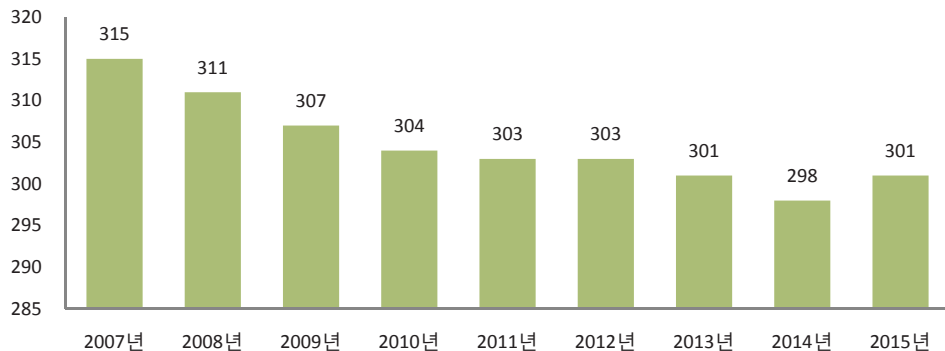


| 그림 3-191 |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

• 물 소비량

1인당 1일 급수량은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301리터로 소폭 증가했다. 급수량은 가정용, 상업용 등 서울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단위 : 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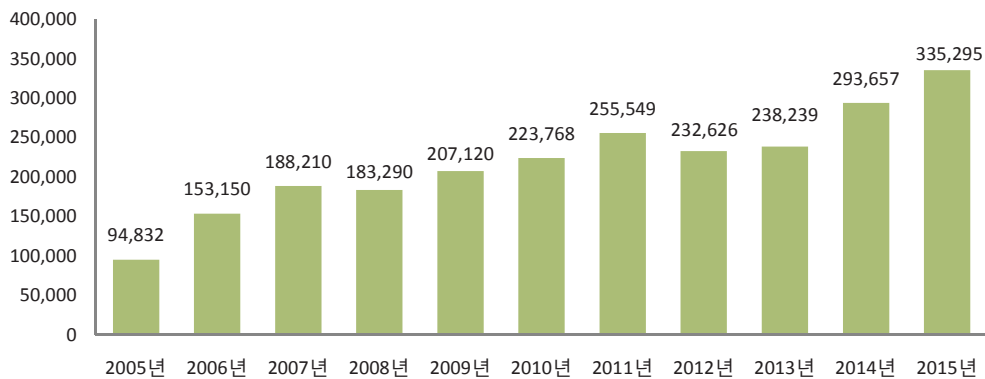


| 그림 3-192 | 1일 1인당 급수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05년 이래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4년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컸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은 335,295toe로 전년대비 41,638toe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종류별 신재생에너지 회수량은 2011년 78%였던 폐기물의 비중이 2015년에는 52.9%로 감소하고, 태양광, 지열, 바이오, 연료전지로부터의 회수량 비중이 증가하였다.

(단위 : toe)



| 그림 3-193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표 3-29 |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생산량

(단위 : toe)

연도	합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2007년	188,210	653	2,476	653	63,986	38	-	456	119,948
2008년	183,290	1,072	2,211	1,184	31,986	38	-	494	146,305
2009년	207,120	1,947	2,077	1,934	35,523	38	-	2,660	162,941
2010년	223,768	2,799	1,659	2,567	33,667	38	-	5,582	177,456
2011년	255,549	4,462	1,333	3,770	40,255	38	-	5,580	200,111
2012년	232,626	5,804	1,109	5,132	36,658	41	-	6,333	177,549
2013년	238,239	7,011	1,076	6,191	46,236	41	-	5,263	172,422
2014년	293,657	11,813	1,043	7,250	98,477	41	240	11,949	162,844
2015년	335,295	16,676	976	8,790	94,251	43	301	36,968	177,290

신에너지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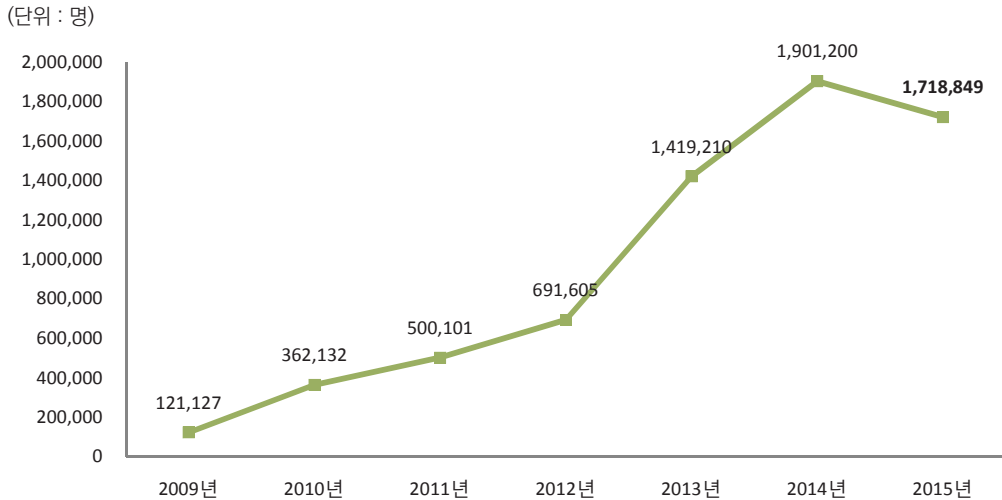
-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기준

- 단위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는 각종 에너지의 열량을 석유 1톤당 열량값인 107Kcal로 환산한 것임
- 2005년부터 항목양식 변경

•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서울시는 2009년 9월부터 에너지절감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까지 총 171만 8,8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2015년부터 고객번호 미등록된 준회원수를 제외함

| 그림 3-194 | 에코마일리지 가입현황

에코마일리지(Eco-Mileage)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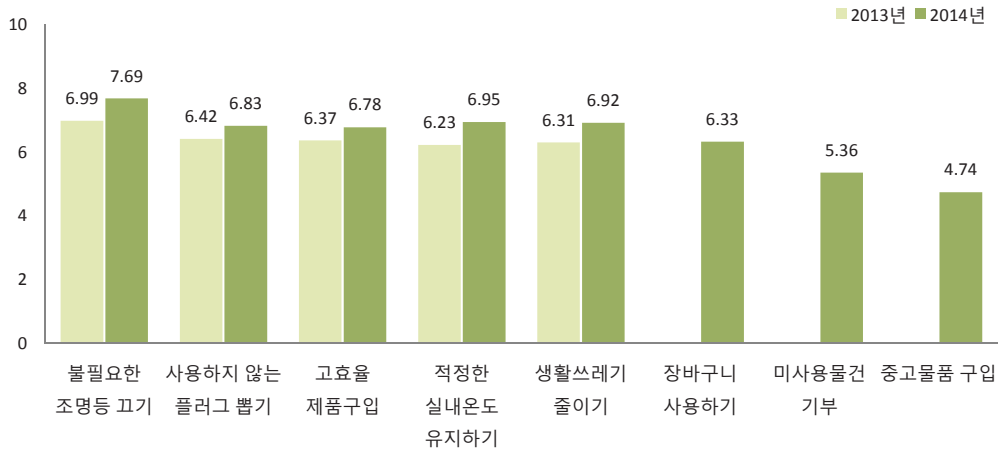
- 에코마일리지란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
-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성명, 주소, 고객번호 등 입력)하면 매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사용량을 수집 및 관리
- 수집된 에너지사용량(전기, 수도, 도시가스)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회원에게는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 되는 인센티브 제공

출처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 생활에너지 절약 정도

서울거주 가구에서 실천하고 있는 생활 에너지 절약 정도는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전 영역에서 상승하였다. 분야별로는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에 대한 실천도가 7.6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하기’(6.95점), ‘쓰레기 줄이기’(6.92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6.83점), ‘고효율 제품 구입’(6.78점), ‘장바구니 사용하기’(6.3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물품 구입하기’(4.74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 그림 3-195 | 생활에너지 절약 정도

제9절 교통

1. 교통인프라

1) 요약 및 정책제안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투자 필요

2015년 기준 서울시 인구 만명당 시내버스 수, 버스전용차로 연장, 버스정류장 수는 각각 7.26대, 0.211km/만명, 6,068개로 집계되었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시내버스 총 인가대수는 7,482대로 2014년보다 미미하게 줄어들었으나, 인구감소로 만명당 시내버스 수는 증가했다. 만명당 버스전용차로 연장은 2004년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수는 2011년 이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된 것을 고려하면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및 도로는 지속적인 증가추세, 시설 유지관리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인구 만명 당 도시철도 연장은 9호선의 개통으로 2012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연장되어 소폭 증가하였다. 현재 공사 중인 몇몇 노선들이 완공되면 향후 도시철도관련 지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연장은 2007년 이후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8,215km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현재 공사 중인 도로들이 완공되면 도로연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활도로 제한속도 제한 정책과 연계 필요

서울시는 교통약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에서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차량과속방지 및 안전표지와 도로부속시설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등 꾸준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704개소로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설치, 특별 정비계획 등이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사고에 대한 어린이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낮추는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의 질 개선

서울시는 보행약자 중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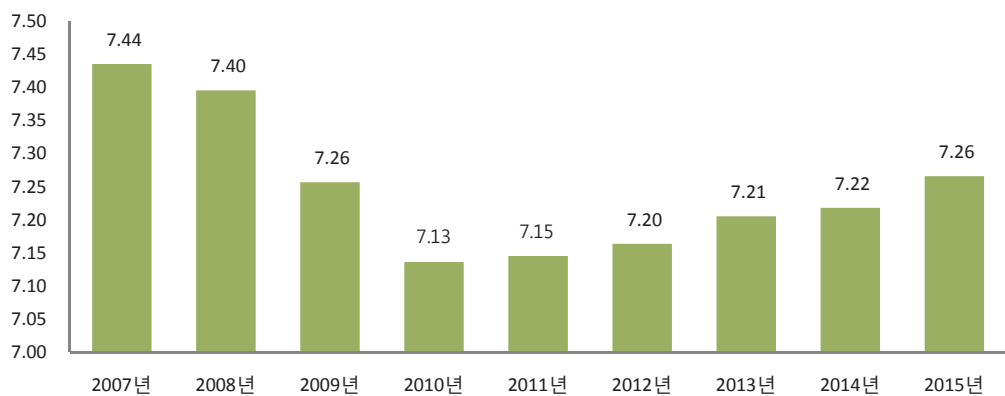
그중 하나가 도시철도역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 도시철도역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엘리베이터 96.7%, 에스컬레이터 86.6%, 휠체어리프트 62.2%, 수평자동보도 보급률 8.5%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휠체어리프트가 여전히 62.2%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표설명

• 시내버스 수

시내버스의 인가대수로 본 2015년 인구 만명당 시내버스 수는 7.26대로 나타났으며, 2015년 12월말 기준 시내버스 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대/만명)



| 그림 3-196 | 인구만명당 시내버스 수

| 표 3-30 | 시내버스 수

(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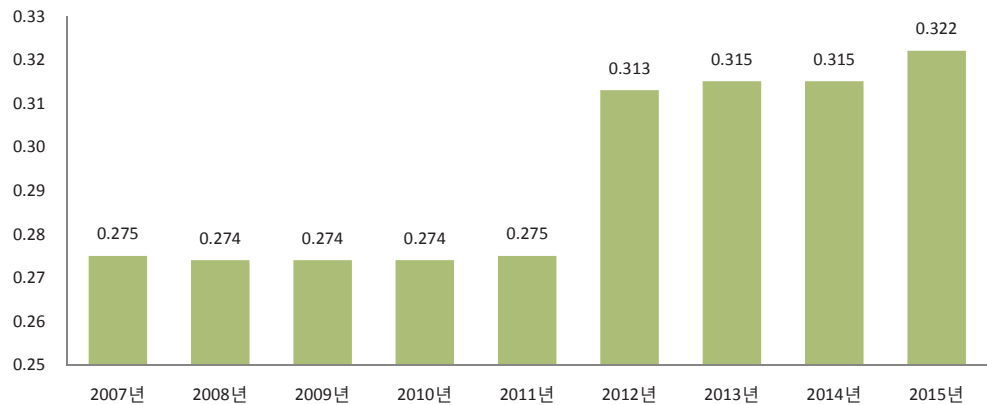
구 분	노 선 수	인 가 대 수
간 선	122	3,698
지 선	211	3,474
광 역	11	249
순 환	3	14
심 야	8	47
소 계	355	7,482

주 : 2015년 12월말 기준

• 도시철도 연장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인구당 도시철도 연장은 2007년(0.275km/만명) 이후 인구수의 증가로 인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2012년부터 도시철도 연장이 증가하였고, 2015년 10월 기준 인구 만명당 도시철도는 0.322km/만명으로 나타났다.

(단위 : km/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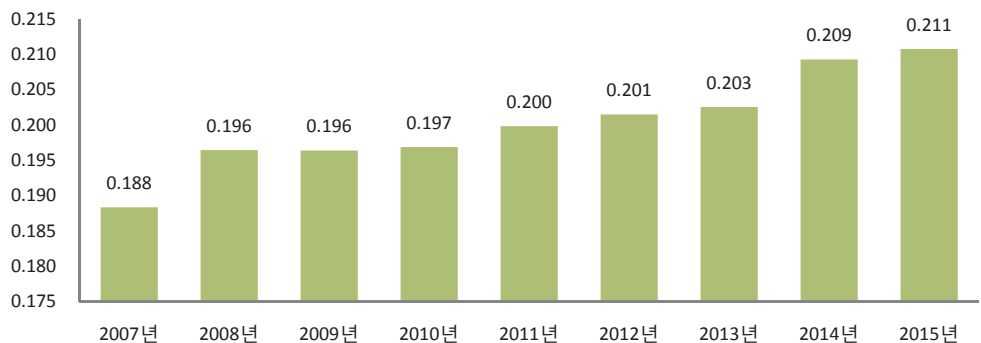


| 그림 3-197 | 인구 만명당 도시철도 연장

• 버스전용차로 연장

2015년 버스전용차로 연장은 217.0km(가로변 버스전용차로 90.9km, 중앙버스전용차로 126.1km)이며 인구만명당 버스전용차로 연장은 0.211km/만명으로 나타났다.

(단위 : km/만명)



| 그림 3-198 | 인구 만명당 버스전용차로 연장

| 표 3-31 | 버스전용차로 현황

(단위 : km)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앙버스 전용차로*		67.9	82.7	99.4	107.2	121.1	122.1	122.1	124.3	126.1
가로변버스 전용차로	전일제	82.1	66.6	58.8	55.3	46.3	46.3	46.3	46.3	46.3
	시간제	48.8	49.2	49.2	45.7	43.0	42.0	42.0	46.4	44.6

* 경부고속도로(1개구간 6.8km 포함)

버스전용차로

1)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전일제 : 평 일 : 07:00 ~ 21:00 [1일 14시간 운영]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미 운영

- 시간제 : 평 일 : 07:00 ~ 10:00 (3시간), 17:00 ~ 21:00(4시간)[1일 7시간 운영]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미 운영

▷ 중앙 버스전용차로 : 24시간 전일운영

▷ 기 타 : 경부고속도로 양재IC ~ 서초IC 구간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운영방법과 동일

2)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버스가 시간당 60~120대 통행시 가로변 또는 전일제, 120대 이상 통행시 전일제 설치

3) 구간수 및 거리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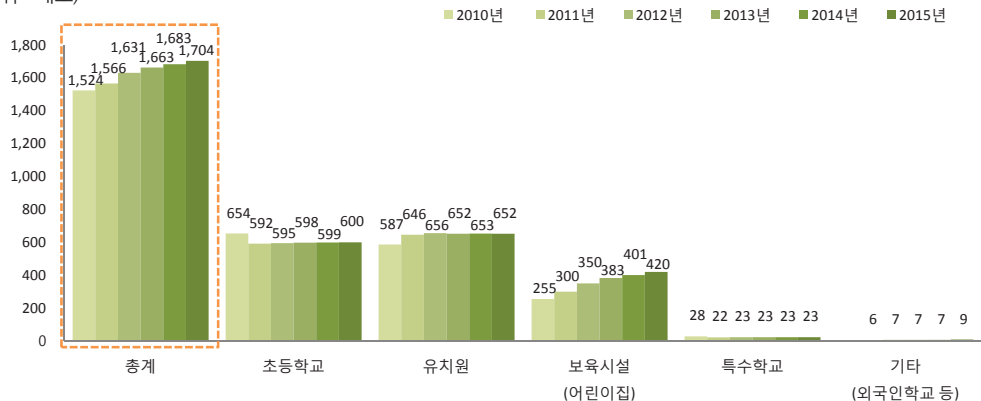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서울특별시 고시자료(도로명 기준)

▷ 중앙 버스전용차로 : 세부 도로명 기준인 서울특별시 고시자료를 도로축 개념으로 재 산정

• 어린이 보호구역 수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대상시설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총 1,704개소가 지정되었다.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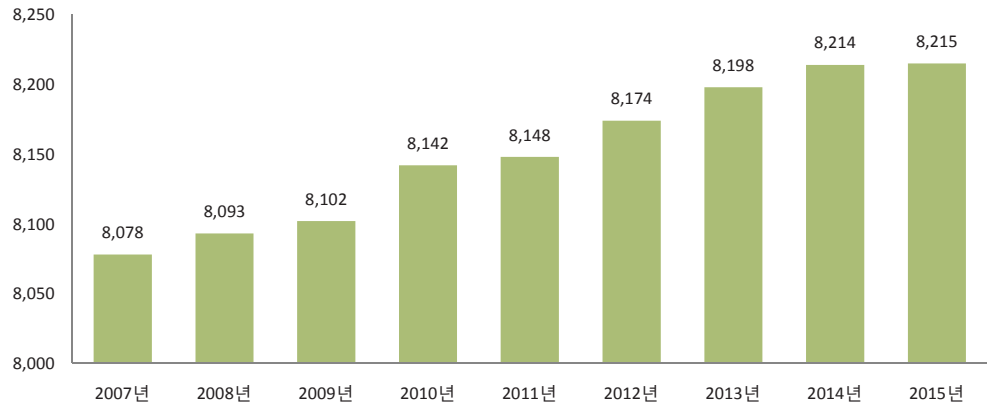


| 그림 3-199 | 어린이 보호구역 수

• 도로연장

도로연장은 도로의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도로연장은 2007년 이후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8,215km로 나타났다.

(단위 :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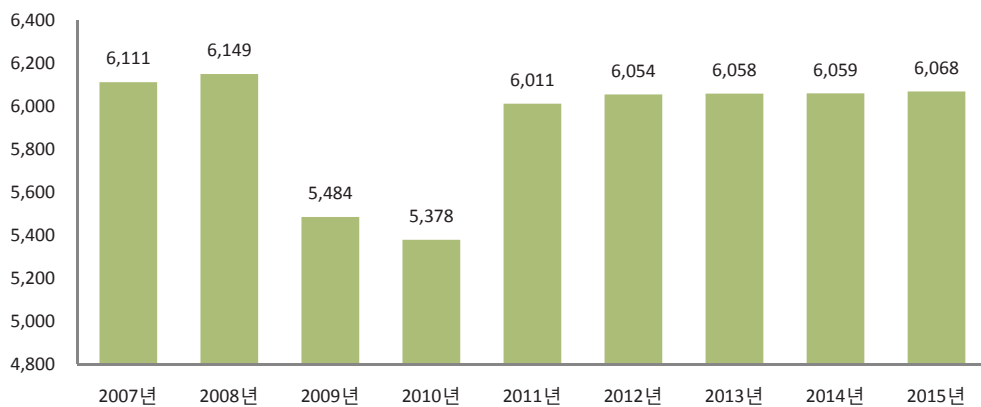


| 그림 3-200 | 도로연장

• 버스정류장수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버스정류장 수를 살펴본 결과, 2015년 버스정류장수는 6,068개로 나타났다. 가로변 정류장은 2011년 이후 변동없이 5,712개로 나타났으며,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그림 3-201 | 버스정류장수

| 표 3-32 | 버스정류장수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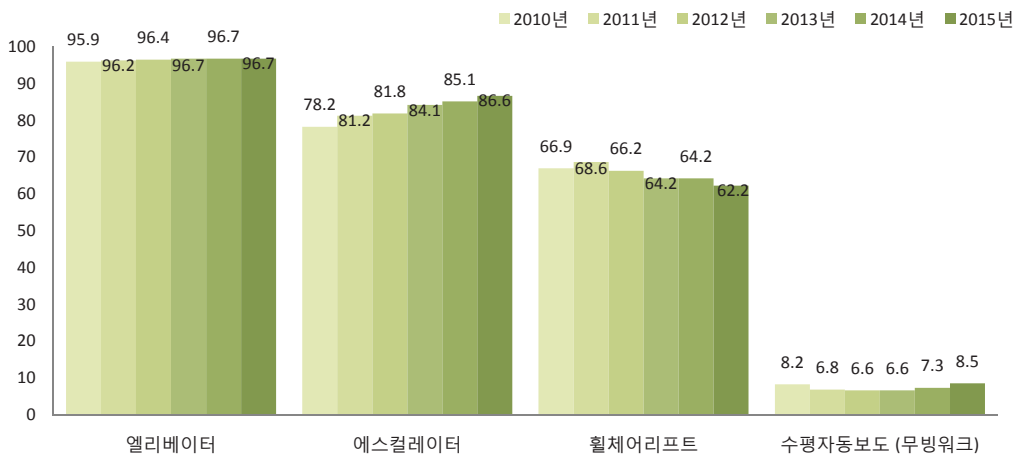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202	-	271	292	299	342	346	347	356
가로변 버스 정류장	5,909	5,909	5,213	5,086	5,712	5,712	5,712	5,712	5,712

* 경부고속도로(1개구간 6.8km 포함)

• 자동이동수단 설치율

시민의 이동 편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도시철도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수평자동보도 설치율을 파악한 결과, 2015년 10월 현재 엘리베이터는 96.7%, 에스컬레이터 86.6%, 휠체어리프트 62.2%, 수평자동보도(무빙워크) 8.5%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202 | 자동이동수단 설치율

2. 교통서비스

1) 요약 및 정책제안

대중교통시설의 보행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의 개선사업을 통한 교통수단이용만족도 증가

서울시는 대중교통시설의 보행 접근성과 대중교통시설의 이용편의성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이용 만족도(종합)는 6.59점(10점 만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지하철'(7.01점), '버스'(6.88점), '택시'(5.8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는데, 모든 수단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전년도 소폭 하락한 지하철의 만족도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물리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

2009년 개통된 9호선은 2, 3단계 연장 개통과 함께 극심한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서울시는 2단계 조기 증차하였지만,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조기증차 편성 및 주요구간 출근전용 급행순환버스를 운영하여 혼잡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역간 균형적인 보행환경 개선 필요

서울시 보행환경만족도는 2015년 기준 6.02점(10점 만점)으로 전년대비 0.02점 상승하였지만, 2013년에서 2014년의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했다. 주거지역의 만족도가 도심보다 조금 높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을 제외한 전 권역의 보행환경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서초구(6.19점)와 강남구(6.18점)의 보행환경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획일적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아닌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서울 모든 지역에서 만족도 높은 보행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속도개선 및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 비율 높여야

버스통행속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신규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015년 기준 서울시 버스 통행속도는 19.5km/h로 전년(2014년 19.6km/h)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버스통행속도는 2015년에는 19.2km/h로 전년(19.9km/h)대비 0.7km/h 감소하였다.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2010년(21.8km/h)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확대될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더불어 승객이 집중되는 정류소 증대 사업 및 정체구간 모니터링을 통해 통행 속도 및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버스통행속도의

개선정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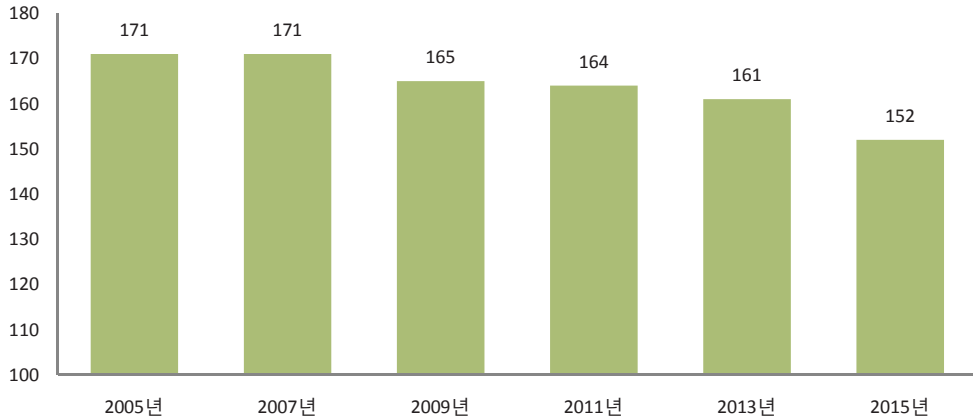
서울시 버스정류장 중 버스이용정보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된 비율은 2011년과 2014년에 급증하여 2015년 기준 50.3%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2003년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 208대가 추가되어 누적 2,650대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시는 저상버스를 꾸준히 증가시킬 예정이며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추가 배치 및 정류장 휠체어 편의시설 개편 등 서비스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2) 지표설명

• 지하철 최고혼잡도

최고 혼잡구간의 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재차인원을 통해 산출하는 서울시의 지하철 최고 혼잡도는 2015년 152%로 2013년에 비해 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호선별로 살펴보면 9호선 급행열차의 최고혼잡도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호선이 1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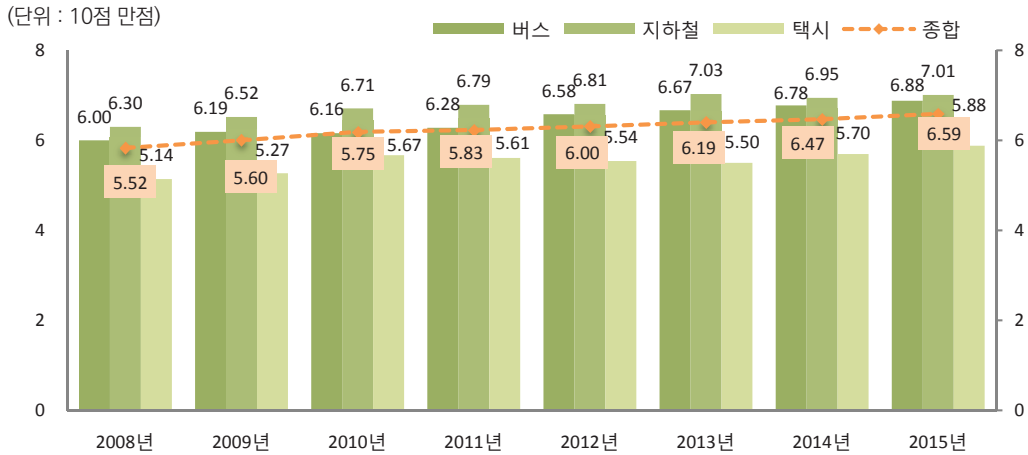
| 그림 3-203 | 지하철 최고 혼잡도

지하철 최고 혼잡도 조사 시기

- 지하철 혼잡도는 승차인과 좌석수가 일치할 경우를 혼잡도 34%으로 산정, 2005년부터 2년주기 조사, 홀수년도에 조사(단, 9호선 혼잡도는 급행기준)

• 교통수단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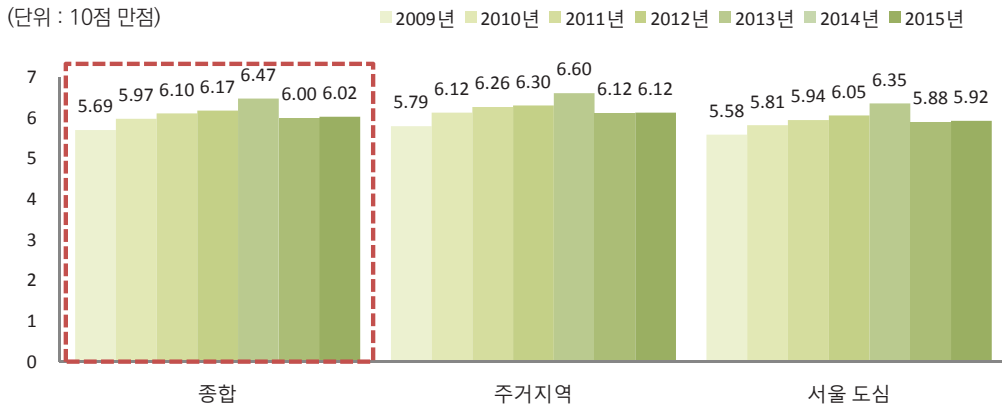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이용 만족도(종합)는 6.59점(10점 평균)으로 200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지하철'(7.01점), '버스'(6.88점), '택시'(5.8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3-204 | 교통수단이용 만족도

• 보행환경 만족도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의 '보행환경' 만족도는 2015년 6.02점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6.12점)가 '서울도심 보행환경' 만족(5.92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부터 조사된 야간보행 만족도는 5.72점으로 나타났다.



| 그림 3-205 | 보행환경 만족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북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보행환경(주거지역과 서울도심)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6.19점)와 강남구(6.18점)의 보행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보행 만족도는 도심권(5.88점)에서 가장 높고 서북권(5.57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성북구(6.31점), 강남구(6.24점)에서 야간보행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3 | 보행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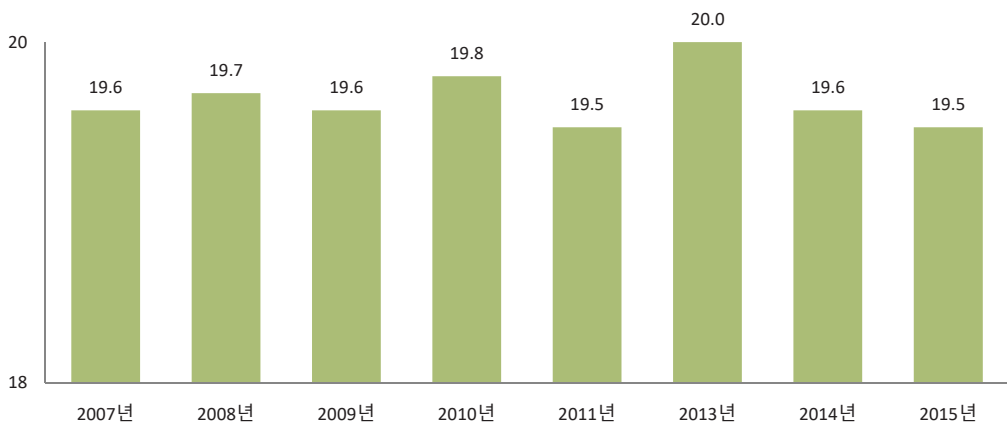
(단위 : 10점 만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야간보행
도심권	5.80	5.95	6.13	6.04	5.98	6.07	5.88
동북권	5.82	6.10	5.95	6.43	6.05	5.87	5.76
서북권	5.85	6.02	5.98	6.25	5.71	5.92	5.57
서남권	6.06	6.04	6.36	6.51	6.00	6.11	5.68
동남권	6.17	6.23	6.39	6.74	6.12	6.15	5.77

• 버스통행속도

버스통행속도는 버스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높은 통행속도는 통행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다양한 버스 운영방법의 도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2015년 버스 통행속도는 19.5km/h로 전년(19.6km/h)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 : k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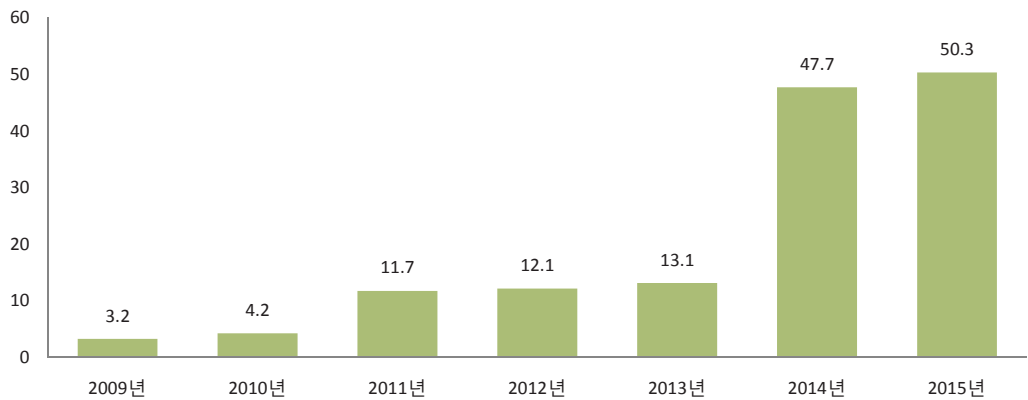


| 그림 3-206 | 버스통행속도

•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율

전체 버스정류장 중 버스이용정보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비율을 의미하는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47.7%까지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2.6%p 증가한 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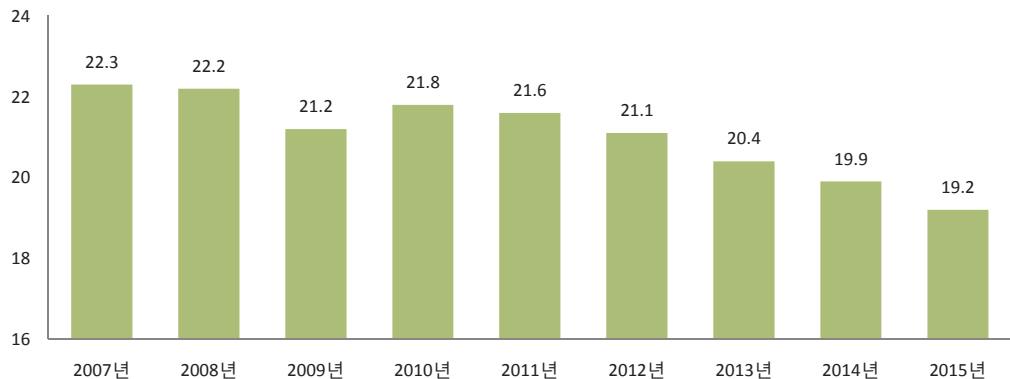


| 그림 3-207 |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율

•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통행속도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버스통행속도는 2010년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9.2km/h로 전년(19.9km/h)대비 0.7km/h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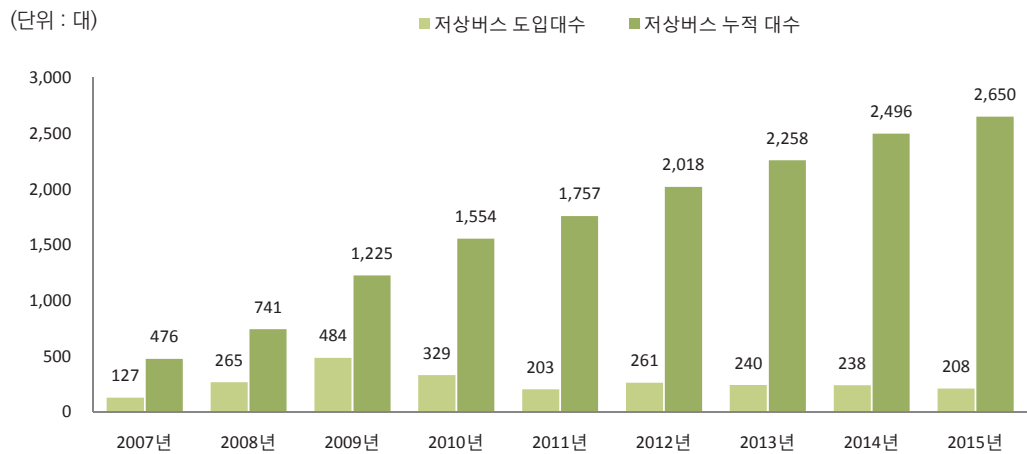
(단위 : km/h)



| 그림 3-208 |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통행속도

• 저상버스 도입대수

저상버스(CNG, 전기 디젤 등) 도입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표로, 2015년 208대가 도입되었으며, 누적대수는 2,650대로 나타났다.



| 그림 3-209 | 저상버스 도입대수

3. 환경친화적 교통

1) 요약 및 정책제안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인식개선 필요

서울시는 친환경교통수단의 하나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서울시 자전거도로는 총 480개 구간 775.9km으로 전체도로 중 자전거 도로율은 9.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민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4년 20.0%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 자전거 이용자 중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5.0%, 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15.0%로 나타났다.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2014년)는 6.40점으로 2012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자전거 도로 안전성 제고, 대중교통 연계, 공공자전거 확대 등 일상생활에서의 자전거의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를 기반으로 이용률 및 만족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정책과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연계 필요

서울시는 2012년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을 수립하고, 2013년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발표하며, 보행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이다.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는 2013년 2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 총 13개의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도, 횡단보도, 보행전용거리 및 여러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꾸준히 설치해 왔다. 보행전용거리는 2015년 기준 총 69개소 21,833m이며 시간제(13개소), 요일제(24개소), 전일제(32개소)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행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함에 있어서, 보행자 우선도로 및 전용거리 증가와 더불어 대중교통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연계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체연료차량에 대한 꾸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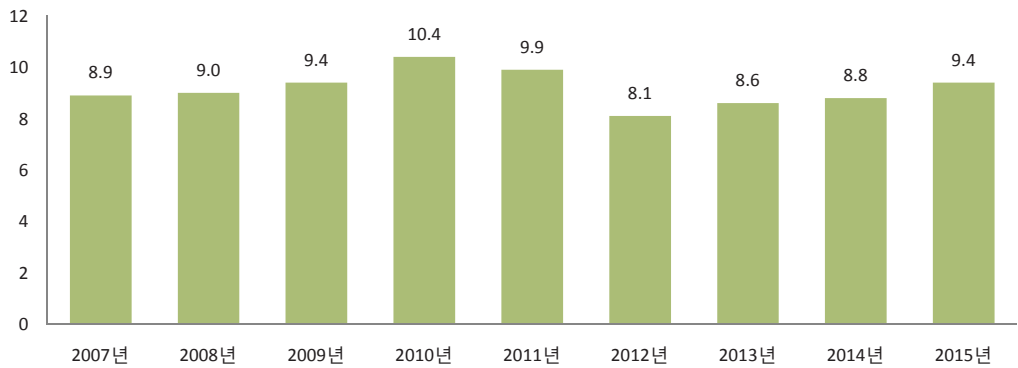
2015년 기준 서울시내 대체연료차량은 45,070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연료차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에 의해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체연료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체연료차량 보급 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버스, 청소차 등도 점진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2) 지표설명

• 자전거 도로율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한다. 2015년 자전거도로는 480개 구간, 775.9km 길이로 서울시 전체 도로연장 대비 자전거 도로연장 (자전거 도로율)은 9.4%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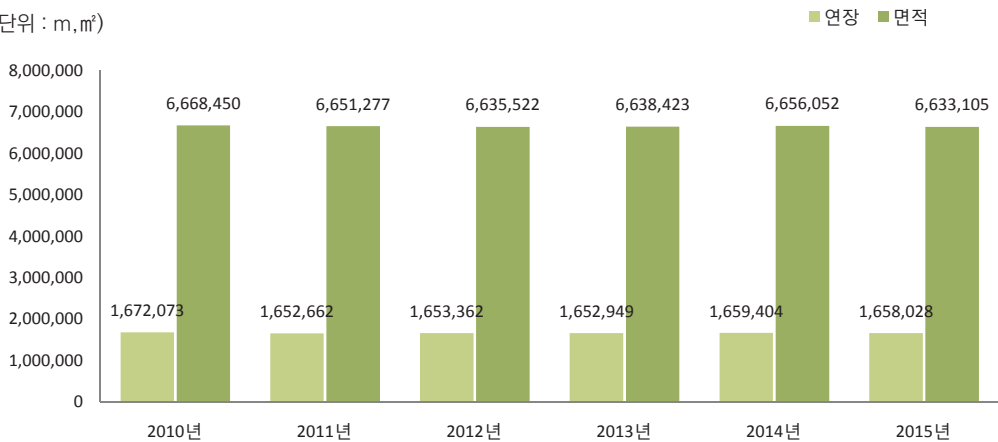


| 그림 3-210 | 자전거 도로율

• 보도연장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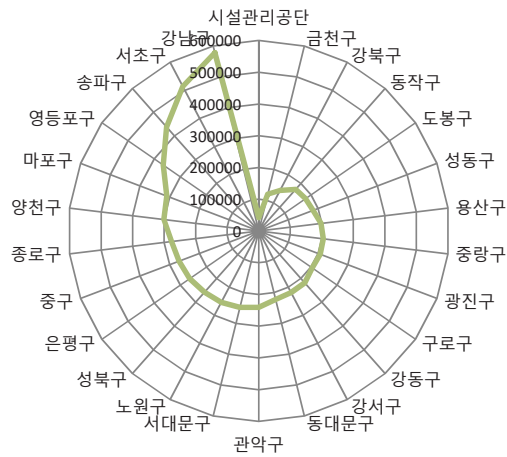
2015년 보도면적은 6,633,105㎡으로 강남구(578,142㎡)와 서초구(513,961㎡), 송파구(437,622㎡)등 동남권의 보도면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m,㎡)



| 그림 3-211 | (특별시도상) 보도면적

(단위 : m²)



| 그림 3-212 | (특별시도상) 보도면적(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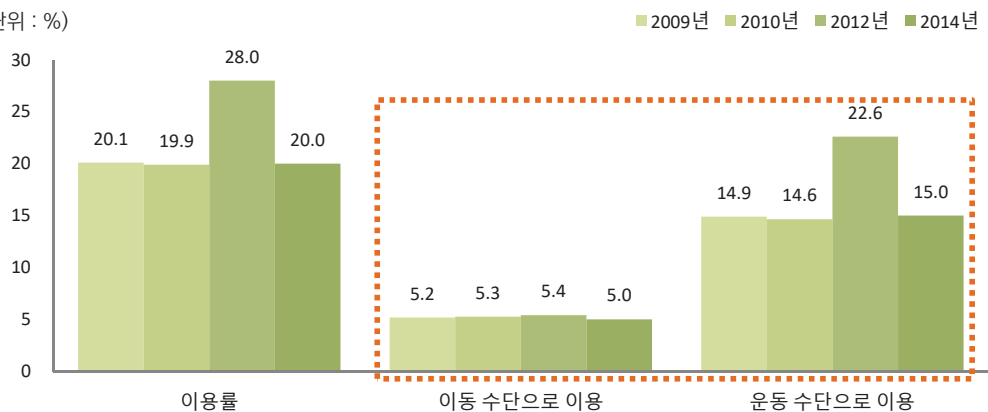
보도면적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자전거 이용률

서울시민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4년 20.0%로 2010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자전거 이용자 중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5.0%, 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15.0%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213 |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환경만족도

서울시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2014년)는 6.40점으로 2012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에서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가 높은 반면 도심권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에서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 그림 3-214 |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연장

서울시는 2012년 12월 27일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에 따라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3년 2개의 시범사업지(구로구, 중랑구 각 1개소)를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8개, 2015년 13개의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였다.

| 표 3-34 |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연장

연도	자치구	위치	폭	연장
2013	구로구	개봉로3길	10m	490m
	중랑구	면목로48길	8m	410m
2014	종구	동호로11길	8m	500m
	노원구	상계로3길	8m	370m
	구로구	경인로15길	8m	400m
	강동구	고덕로38길	10m	430m
	종로구	북촌로5가길	6m	240m
	금천구	금하로 23길	10m	420m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m	325m
	은평구	연서로21길	9m	380m
2015	종로구	우정국로2길, 종로10길	8m	360m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5m	380m
	구로구	시흥대로163길	8m	150m
	서대문구	명지대2길	8m	170m
	강서구	까치산로4길	8m	300m
	동작구	노량진로16길	8m	300m
	강동구	동남로65길	8m	160m
	광진구	능동로10길	5m	180m
	금천구	시흥대로122길	8m	300m
	성북구	인촌로27길	6m	150m
	은평구	은평로21길	8m	520m
	관악구	국회단지길	12m	190m
	중랑구	상봉중앙로8나길	6m	360m

보행자 우선도로

●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도로

• 보행전용거리 지정 구역 연장

서울시는 1996년 종로구를 기점으로 보행전용거리(차없는 거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기준 보행전용거리는 69개소 21,833m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행전용거리는 3개소(세종대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자치구 관리 보행전용거리는 총 66개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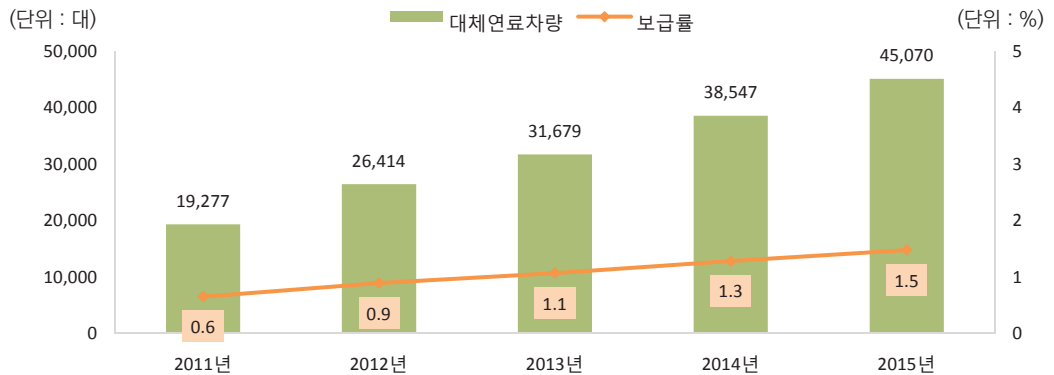
| 표 3-35 | 보행자전용거리 지정 구역

관리청	위 치	규 모		특징	유형
		폭	길이		
서울시 (3개소)	청계천로 광장~삼일교간	-	L=880m	문 화	요일제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세종로사거리)	-	L=550m	도 심	요일제
	덕수궁길(덕수궁~ 분수대 회전교차로)	B=6~12m	L=300m	문 화	시간제
종로구 (7개소)	인사동길(전통문화의 거리)	B=9~15m	L=340m	쇼핑,문화	시간제
	관철동길(젊음의 거리)	B=15m	L=150m	쇼핑,문화	전일제
	낙원동길(명품악기 떡전거리)	B=15m	L=200m	쇼핑,상가	요일제
	혜화동 대명거리	B=10m	L=350m	문화	요일제
	대학로 마로니에길	B=6~8m	L=950m	문화	요일제
	감고당길(북인사마당 ~ 아트선제센터)	B=6m	L=480m	쇼핑,문화	요일제
	대학로 8길(동숭동 1~111 남단)	B=6	L=100m	문화	전일제
	중앙로(명동4,6,7,8길)	B=5~14m	L=1,300m	쇼핑,문화	시간제
중 구 (4개소)	명동길(명동차없는거리)	B=14m	L=480m	쇼핑,문화	시간제
	명례방길(명동10길)	B=5~8m	L=500m	쇼핑,문화	시간제
	남대문 시장내(남대문시장길, 2, 4, 6길)	B=6~10m	L=1,040m	쇼핑,상가	시간제
	이태원로27가길(해밀턴호텔 후면도로)	B=4~8m	L=460m	쇼핑,상가	요일제
성동구 (1개소)	금호로 1길	B=5~6m	L=170m	아파트지역	전일제
동대문구 (1개소)	풍물시장앞 난계로28길	B=8m	L=150m	쇼핑,문화	요일제
종랑구 (2개소)	신내동 봉화산로 45길	B=4.8m	L=400m	산책로	요일제
	중화2동 208-4~208-23	B=7.3m	L=65m	상가, 문화	전일제
성북구 (1개소)	하나로 거리(동소문로20길~동소문로22길)	B=5~6m	L=740m	쇼핑,상가	시간제
도봉구 (2개소)	마들로11가길(창동길)	B=5~8m	L=250m	쇼핑,상가	전일제
	마들로11길	B=7~20m	L=164m	문화	전일제
노원구 (4개소)	노원로24길(당현천길)(새싸교 ~ 당현2교)	B=8m	L=780m	하천길	요일제
	우이천길 일부(월계2교~롯데캐슬(아)121동)	B=7.5m	L=383m	하천길	요일제
	한글비석로 46나길(간촌서3길)	B=3m	L=250m	아파트지역	요일제
	노해로 81길(문화의거리)	B=8~12m	L=280m	쇼핑,상가	요일제
은평구 (1개소)	연서로29길(연서로29길 19~연서로225)	B=8m	L=190m	쇼핑,상가	요일제
서대문구 (1개소)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	B=20m	L=550m	쇼핑, 문화	요일제

관리청	위 치	규모		특징	유형
		폭	길이		
마포구 (2개소)	어울마당로(홍익로~와우산로21길)	B=4.5~17m	L=220m	쇼핑,상가	요일제
	홍익로20~ 어울마당로 136, 어울마당로107~135	B=3~17m	L=300m	쇼핑,상가	요일제
양천구 (6개소)	도원길(신정4동 1112)	B=6m	L=130m	산책로	전일제
	안양천로(목5동 목동교)	B=4m	L=120m	하천길	전일제
	안양천로(이대목동병원)	B=4m	L=200m	하천길	전일제
	신정이펜1로(신정이펜1로 51)	B=6m	L=220m	아파트지역	전일제
	목동남로(신정7동 74~15)	B=4m	L=110m	산책로	시간제
	신정이펜 2로	B=7m	L=120m	주택가	전일제
	우장산동 우장산공원길(내발산동 산 62-1)	B=5m	L=158m	공원산책로	요일제
강서구 (5개소)	염창동 양천로 69길	B=8m	L=110m	공원산책로	전일제
	염창동 양천로 67길	B=6m	L=120m	공원산책로	전일제
	우장산동 우장산로10길 (주차장~한국폴리텍대학)	B=5m	L=360m	공원산책로	요일제
	금남화로24가길	B= 5.5m	L=115m	산책로	전일제
	구로3동 디지털로 32나길(구 창조2길)	B=4m	L=190m	쇼핑, 상가	요일제
구로구 (3개소)	구일로 8길	B=4.7m	L=170m	주택가	전일제
	구로5동 공원으로 41	B=13m	L=450m	아파트지역 공원인접	요일제
	금천구 (2개소)				
영등포구 (7개소)	시흥동 금하로 25길	B=6.0m	L=180m	시장길	전일제
	독산동 시흥대로 149길	B=4.0m	L=90m	시장길	전일제
	여의도 30번지(목화아파트~여의도고등학교)	B=6m	L=300m	아파트지역	전일제
	문래로 10길(문래6가 13, 영문초교 정문)	B=8m	L=88m	아파트지역	전일제
	문래동 선유로 9길(문래5가 22~3두레, 진주아파트)	B=8m	L=135m	아파트지역	전일제
	문래동 선유서로 13길	B=8m	L=120m	아파트지역	전일제
	가마산로 49길(신길3동 367)	B=11m	L=140m	산책로	전일제
	디지털로37나길(대림2동1069~1072 대림중앙시장)	B=6m	L=115m	시장길	시간제
	영등포로 22길	B=6m	L=110m	일반도로	전일제
동작구 (3개소)	여의대방로 46길	B=8m	L=100m	산책로	전일제
	매봉로 4가길(상도동7-169~ 흑석동204-10)	B=5m	L=110m	산책로	시간제
	도림천로(신대방1동 640~ 보라매공원 남문)	B=4m	L=300m	하천길	전일제
관악구 (8개소)	관악로 30길	B=15m	L=550m	아파트지역	요일제
	관악로24길(행운동 738~3봉천중부시장)	B=6m	L=100m	시장길	전일제
	남부순환로248길(인현동1637~10 원당시장)	B=6m	L=150m	시장길	전일제
	남부순환로176길(서원동 1640 신림순대타운)	B=6m	L=150m	쇼핑, 상가	시간제
	관악로14길(낙성대동1613-1, 낙성대시장)	B=6m	L=110m	시장길	전일제
	신림로59길(서원동1640-48, 순대타운)	B=5.5m	L=100m	쇼핑, 상가	시간제
	남부순환로143-나길(조원동 541 신림중앙시장)	B=6m	L=150m	시장길	전일제
	신림동 순대타운(남부순환로1602)	B=3.5m	L=150m	쇼핑, 상가	전일제
서초구 (2개소)	원터2길(원지동 원마을길)	B=6m	L=133m	산책로	요일제
	방배천로(방배천로4길1~방배천로68)	B=3.3~3.6m	L=500m	쇼핑, 상가	요일제
강남구 (1개소)	강남대로 124길, 126길 학동로 4길	B=6m	L=330m	시장길	전일제
송파구 (1개소)	마천로 45길(마천시장길)135-5~162-2	B=4m	L=350m	쇼핑,상가	시간제
강동구 (1개소)	동남로 75길	B=8m	L=830m	쇼핑, 상가	전일제

•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2015년 서울시내 대체연료차량은 45,070대로 전체자동차 등록대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저공해 자동차는 전년대비 약 17% 증가하였다.



| 그림 3-215 |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 표 3-36 | 등록차량 대수 및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단위 : 대, %)

연 도	전체 차량 대수	대체연료차량 대수	보 급 률
2011	2,977,599	19,277	0.6
2012	2,969,184	26,414	0.9
2013	2,973,877	31,679	1.1
2014	3,013,541	38,547	1.3
2015	3,056,588	45,070	1.5

제10절 정보와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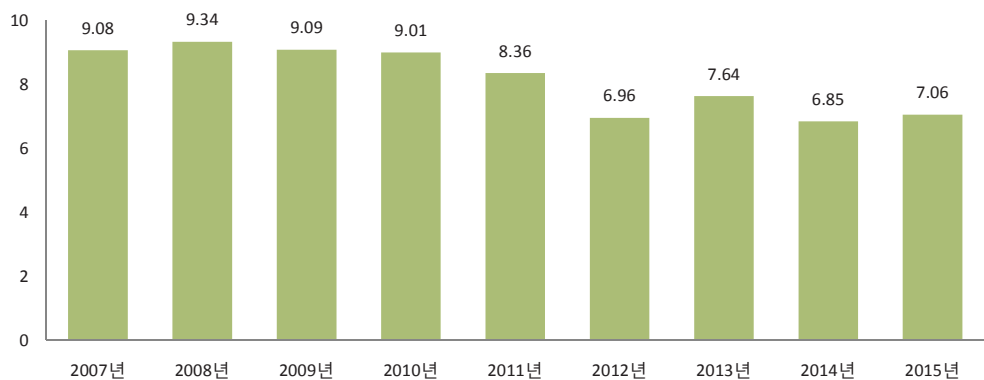
1. 투명행정

1) 지표별 현황

• 청렴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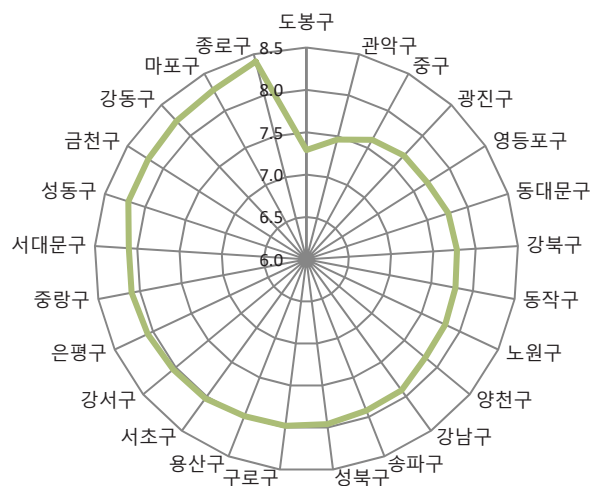
청렴도 지수는 2008년 9.34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으며, 2012년 가장 낮은 청렴도 지수를 보였다. 2015년 청렴도 지수는 7.06점으로 전년대비 0.21점 상승하였다. 구별 청렴도 지수에서는 종로구가 8.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마포구 8.28점, 강동구 8.24점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 그림 3-216 | 청렴도 지수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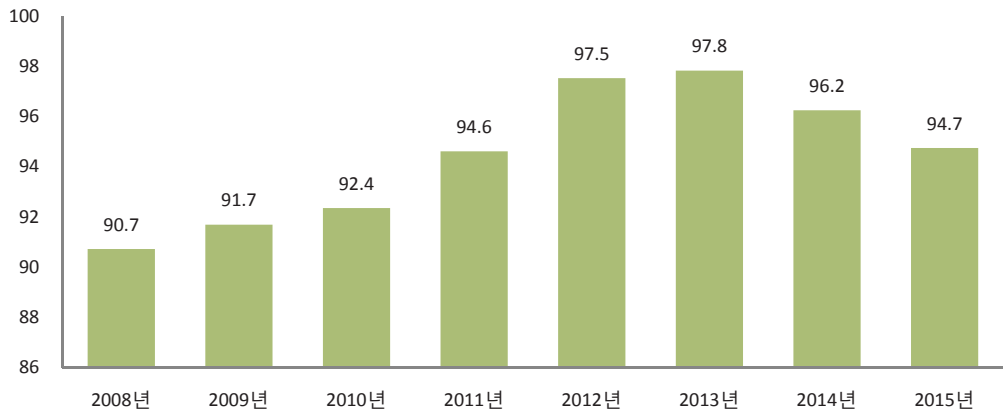


| 그림 3-217 | 청렴도 지수(구별)

• 정보공개비율

정보공개비율은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건수를 처리건수로 나눈 비율로 2014년 96.2%에서 2015년 94.7%로 소폭 하락하였다.

(단위 : %)



| 그림 3-218 | 정보공개비율

| 표 3-37 | 정보공개 처리건수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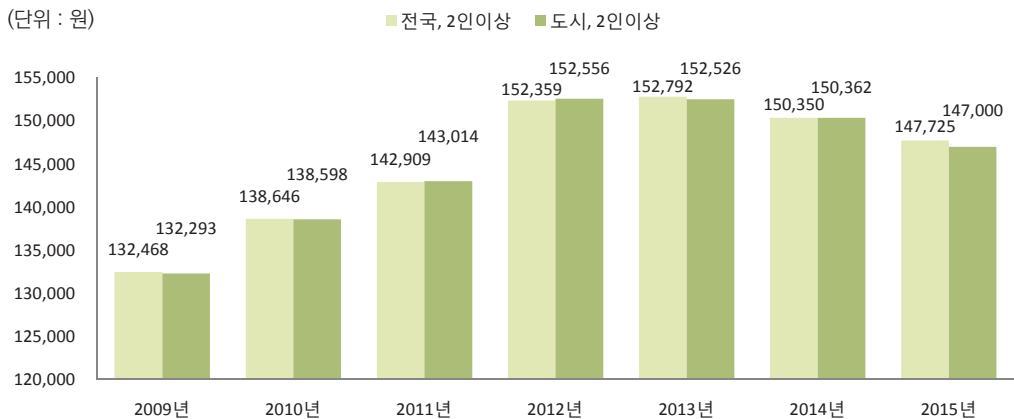
기 간	청구건수	처 리 건 수				기타 (취하, 부존재 등)	정보 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	3,649	2,036	1,666	181	189	1,613	90.7
2009	4,127	2,540	2,055	274	211	1,587	91.7
2010	3,746	2,274	1,883	217	174	1,472	92.4
2011	5,077	2,521	2,153	232	136	2,556	94.6
2012	9,133	3,387	2,955	348	84	5,746	97.5
2013	5,367	3,263	2,781	411	71	2,104	97.8
2014	6,327	3,617	2,944	537	136	2,710	96.2
2015	8,320	4,332	3,281	823	228	3,988	94.7

2. 정보활용

1) 지표별 현황

• 통신비 지출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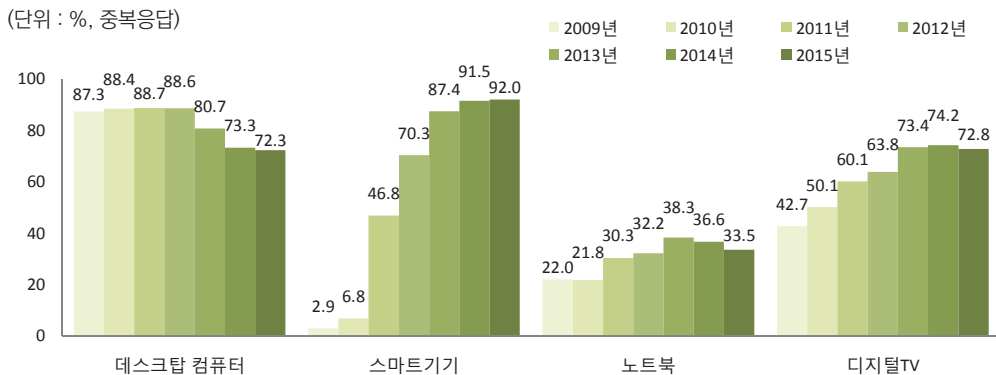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계통신비는 2012년 152,55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 가계통신비는 전국(2인 이상)이 147,725원, 도시(2인 이상)가 147,000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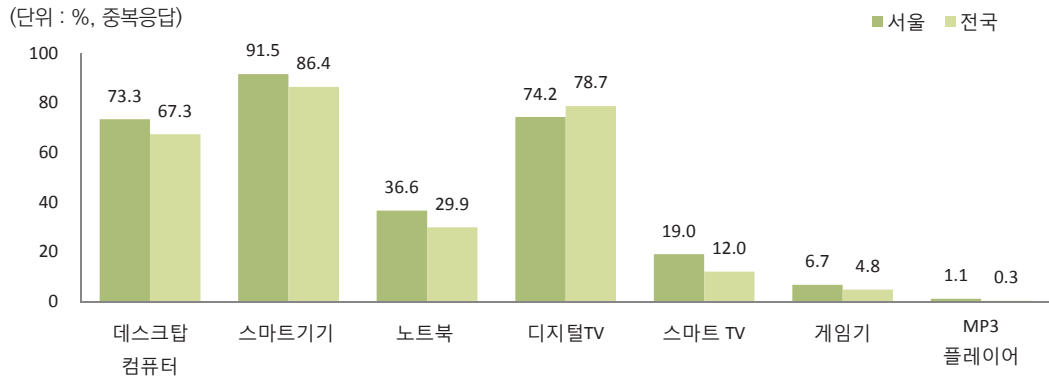
| 그림 3-219 | 가계통신비

•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2015년 서울 전체 가구의 72.3%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등)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92.0%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은 전국대비 정보통신기기(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기기, 노트북, 스마트 TV 등)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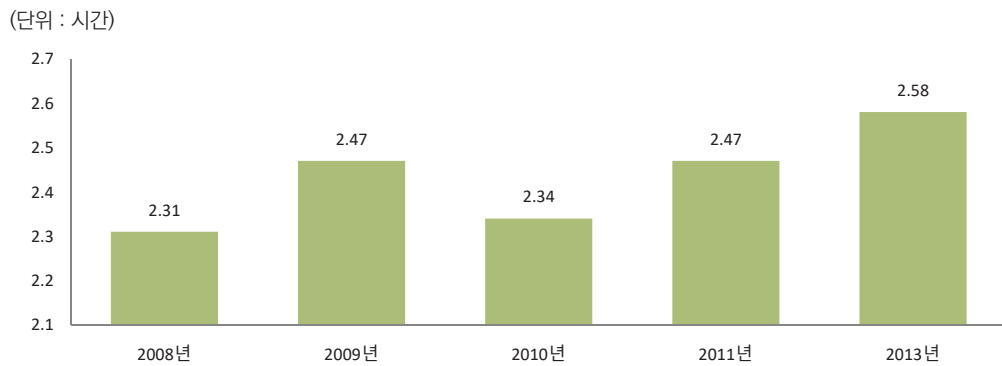
| 그림 3-220 |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 그림 3-221 |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서울/전국)

• TV 시청시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일평균 TV시청시간은 2014년 기준 1.77시간(1시간 46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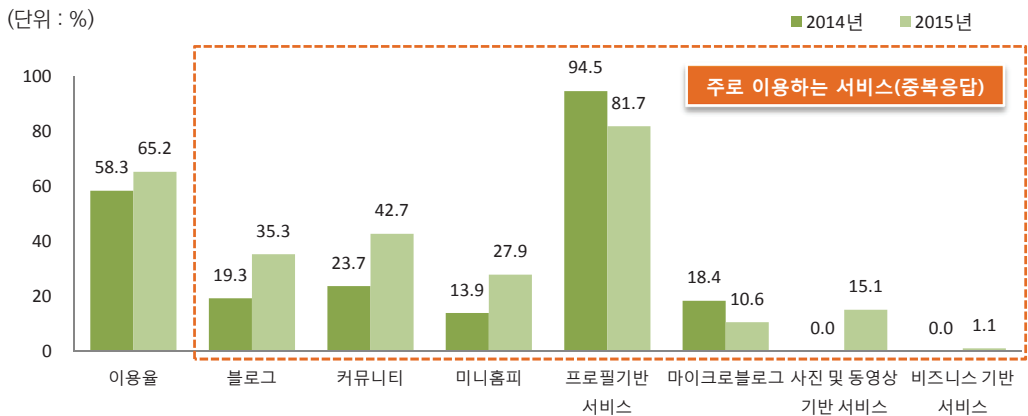
| 그림 3-222 | 평균 TV 시청시간(서울서베이)



| 그림 3-223 | 평균 TV 시청시간(생활시간조사)

• SNS 이용률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5.2%가 2015년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6.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유형별로는 '프로필 기반 서비스(81.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커뮤니티(42.7%)', '블로그(35.3%)', '미니홈피(27.9%)'등의 순이었다.



| 그림 3-224 | SNS 이용률과 이용 유형

| 표 3-37 | SNS 이용률

(단위 : %, 중복응답, 인터넷 이용자 Base)

연 도	이용률	SNS 이용 유형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미니홈피	프로필 기반 서비스	마이크로 블로그 (트위터 등)	사진 및 동영상 기반 서비스	비즈니스 기반 서비스
2014	58.3	19.3	23.7	13.9	94.5	18.4	-	-
2015	65.2	35.3	42.7	27.9	81.7	10.6	15.1	1.1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SNS 기준

- 블로그 : 네이버블로그, 다음티스토리 등
- 커뮤니티 :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클리앙 등
- 미니홈피 :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
- 프로필 기반 서비스 :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등
- 마이크로블로그 : 트위터, 텀블러 등
- 사진 및 동영상 기반 서비스 : 인스타그램, 네이버 플라 등
- 비즈니스 기반 서비스 : 링크드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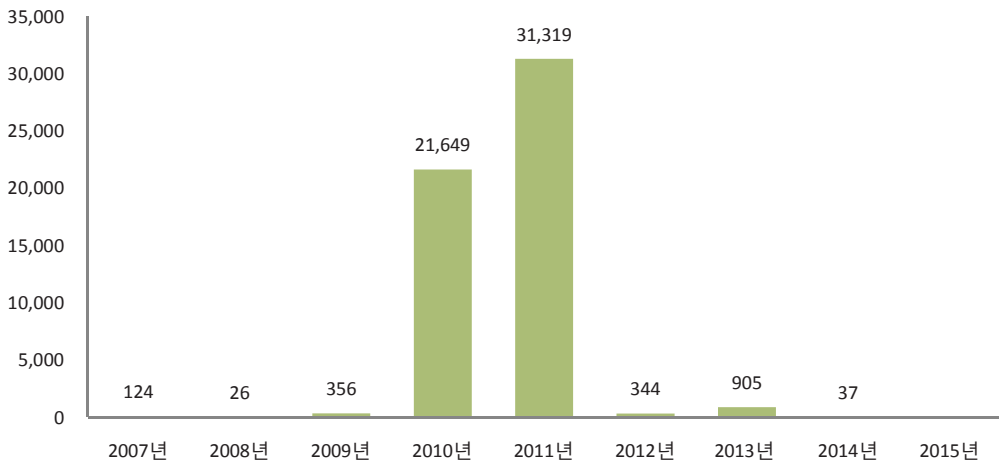
제11절 안전과 재난

1. 재난안전

1) 지표별 현황

• 풍수해 피해액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피해 상황 총괄표 기준에 따르면, 2015년은 자연재해로 인한 발생 피해가 없어 풍수해 피해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풍수해 피해액은 3천 7백만 원으로 주로 건물에서 발생하였다.



주 : 2015년은 자연재해로 인한 발생재해 없었음

| 그림 3-225 | 풍수해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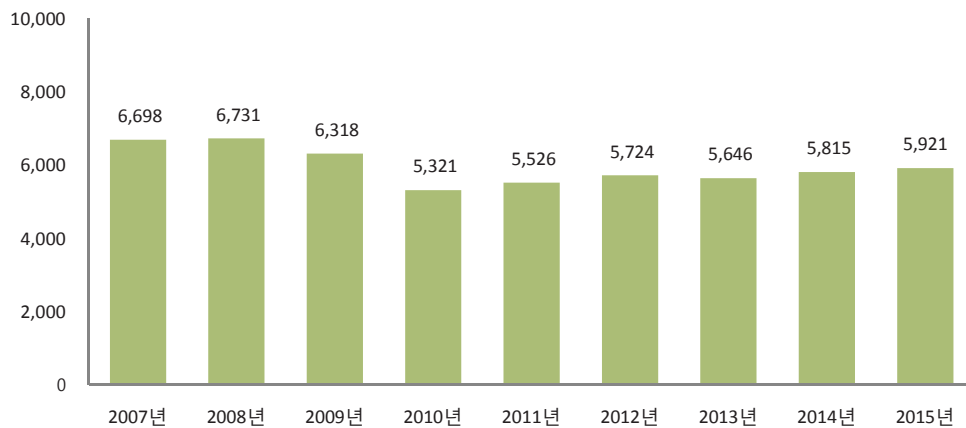
풍수해 개념 및 작성기준

- 풍수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조3항에 따르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풍수해 피해액은 NDMS 피해상황총괄표 기준으로 소상공피해집계 제외됨. 또한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지원액임
- 출처 : 하천관리과, 국가재난정보센터「재난통계」

• 화재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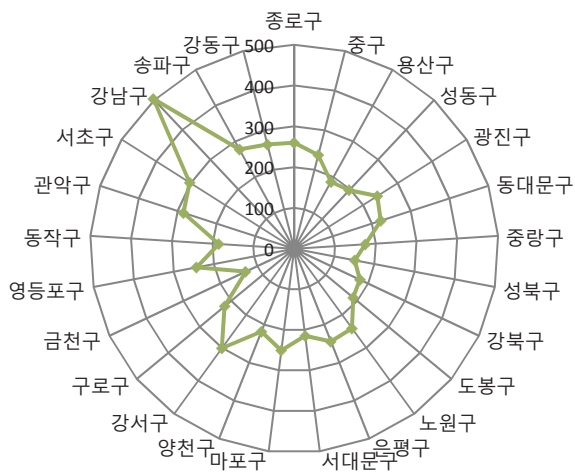
2015년 화재발생건수(실화 5,191건, 방화 195건, 기타 535건)는 5,921건으로 2014년 대비 106건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504건)에서 화재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금천구(131건)가 가장 적게 발생했다.

(단위: 건)



| 그림 3-226 | 화재발생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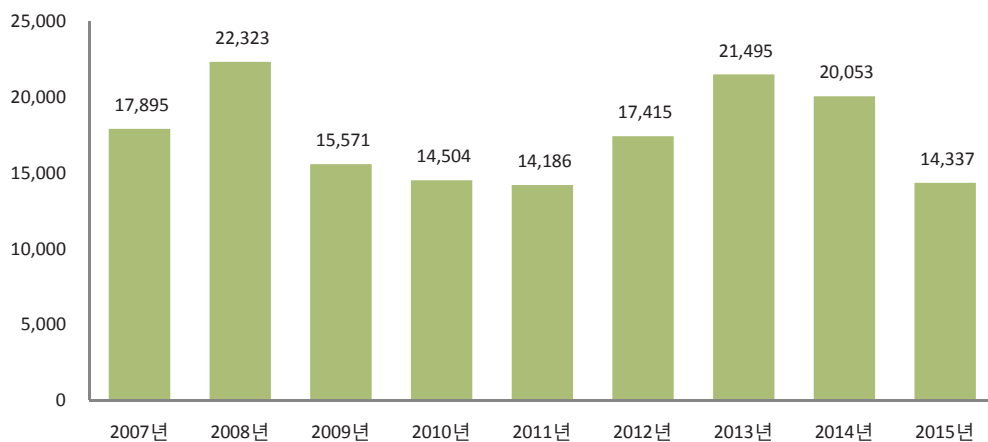


| 그림 3-227 | 화재발생건수(구별)

• 화재피해액

2015년 화재피해액은 143억 3,727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다. 유형별 피해액은 부동산 60억 7,964만원, 동산 82억 5,7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 그림 3-228 | 화재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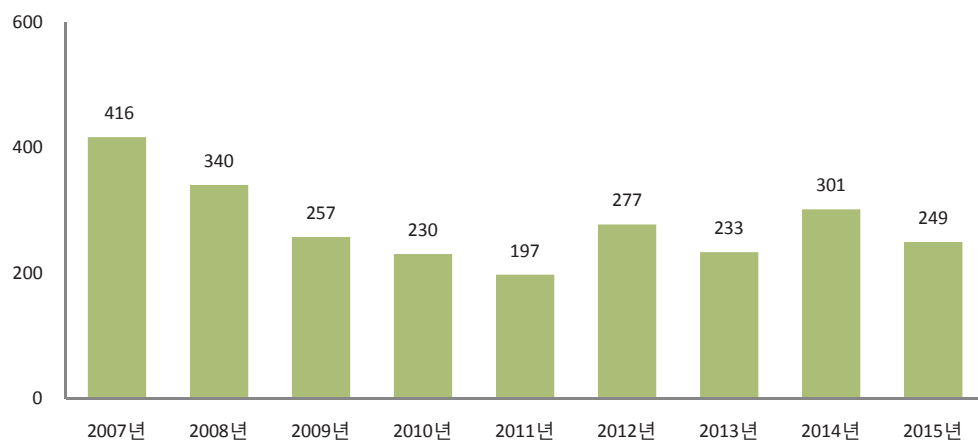
화재피해액 기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 1. 1) 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사상자수

화재사상자수는 2015년 249명(사망 27명, 부상 222명)으로 2014년 대비 20.9% 하락하였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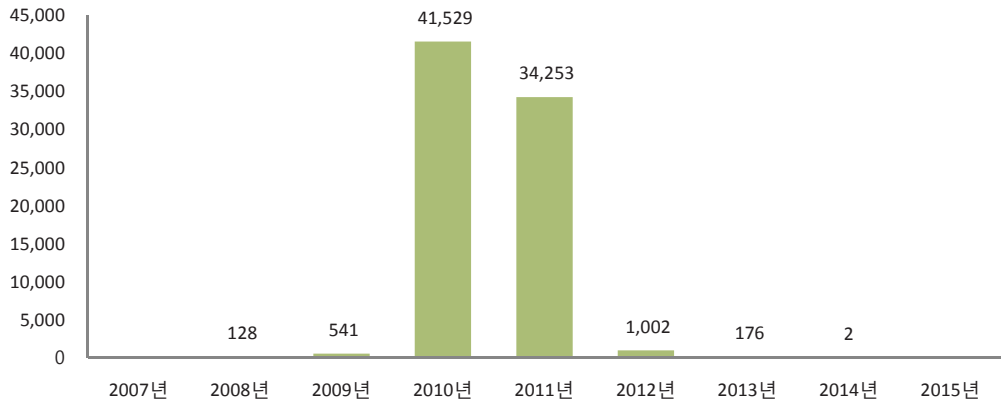


| 그림 3-229 | 화재 사상자수

• 풍수해 이재민수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것은 2010년이며, 당해 9월 갑작스런 게릴라식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로 41,52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2014년에도 주택침수로 인해 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2015년에는 이재민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주 : 2015년은 자연재해로 인한 발생재해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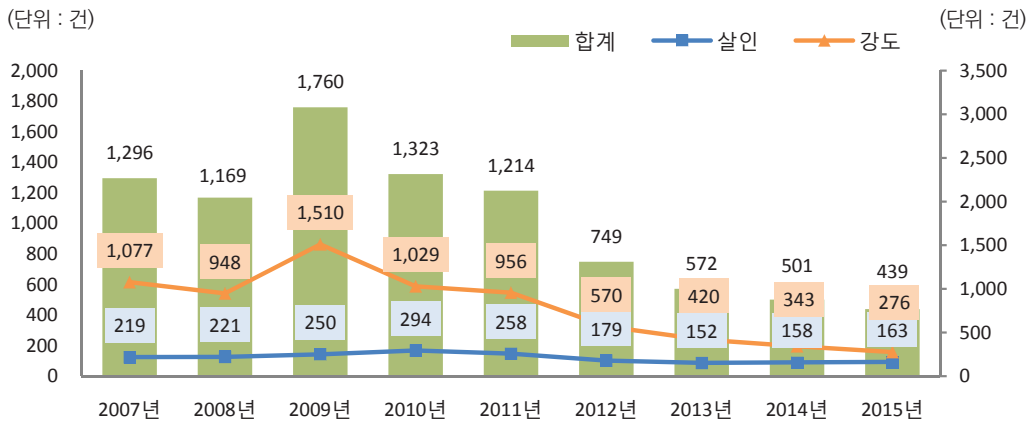
| 그림 3-230 | 풍수해 이재민수

2. 생활안전

1) 지표별 현황

• 흉악사건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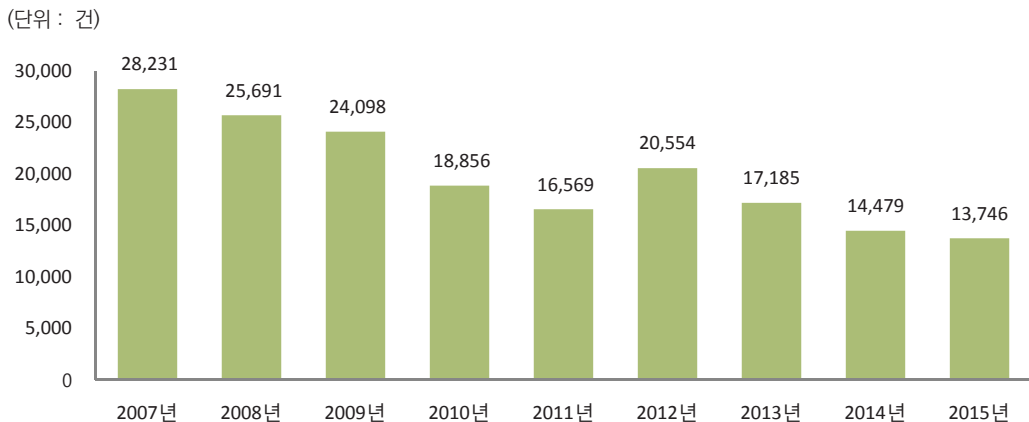
흉악사건(5대 범죄 중 살인, 강도사건) 발생건수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그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흉악사건 발생건수는 총 439건(강도 276건, 살인 163건)으로 나타났다.



| 그림 3-231 | 흉악사건 발생건수

•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이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3,746건으로 최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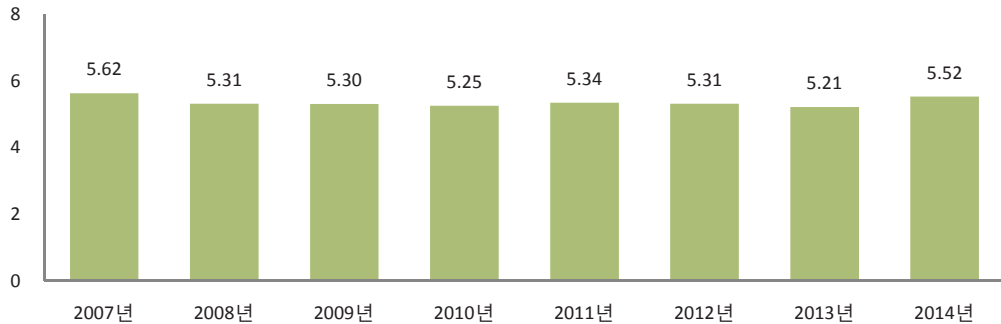


| 그림 3-232 |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2014년 5.52점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되었다. 특히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여성과 10~2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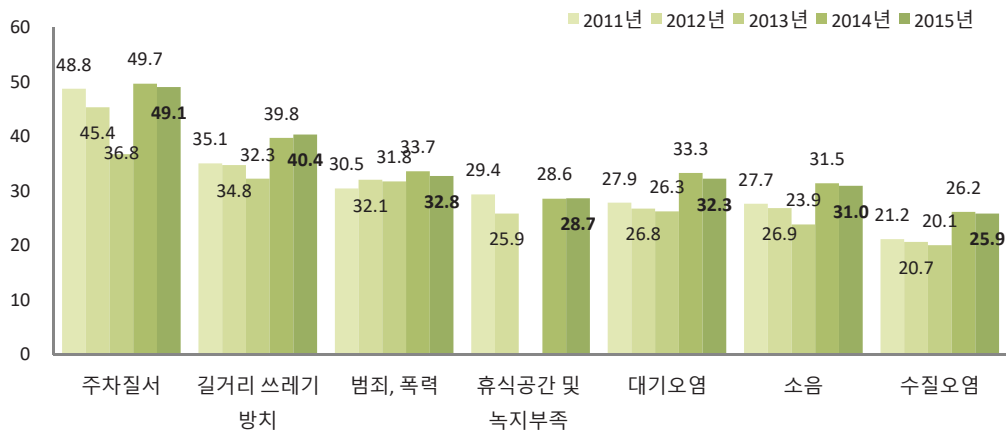


| 그림 3-233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주변환경의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

주변환경의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각 위험상황별로 심각하다는 비율이 20~50% 대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질서(4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길거리의 쓰레기방치'(40.4%), '범죄, 폭력'(32.8%), '대기 오염'(32.3%), '소음'(31.0%), '휴식공간 및 녹지부족'(28.7%), '수질 오염'(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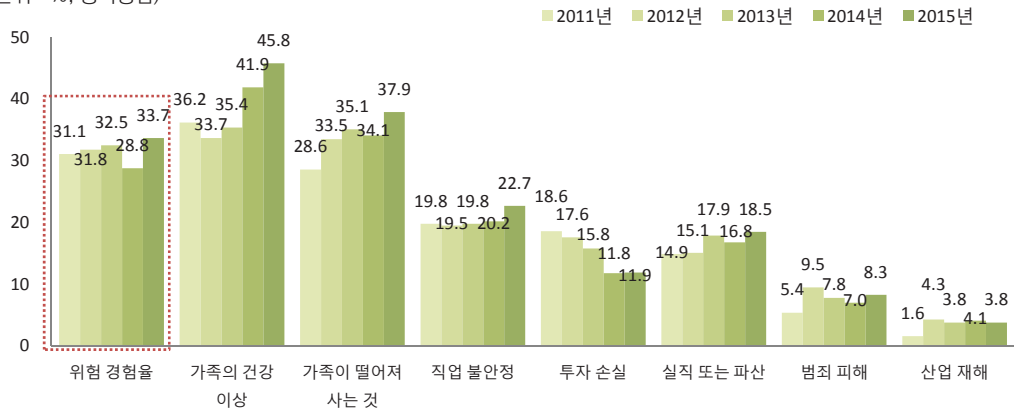


| 그림 3-234 | 주변환경의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

• 가족안전유형

서울 거주 가구 중 지난 1년간 가족 안전에 위험을 느낀 적이 있는 가구는 33.7%로 2014년 대비 4.9%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건강 이상(입원, 수술 등)’으로 위험을 경험한 경우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37.9%), ‘직업 불안정’(22.7%), ‘실직 또는 파산’(18.5%), ‘투자 손실’(11.9%)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건강 이상’은 여성(57.0%), 50대(49.9%), 월소득 100만원 미만(54.5%), 1인가구(49.0%), 다세대주택(50.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은 여성(49.0%), 50대(43.8%), 월소득 100만원 미만(47.9%), 1인가구(41.3%)에서, ‘직업 불안정’은 30대(28.1%), 대학원 이상(29.9%), 동북권(25.1%)에서, ‘실직 또는 파산’은 60세 이상(20.5%), 월소득 100만원 미만(2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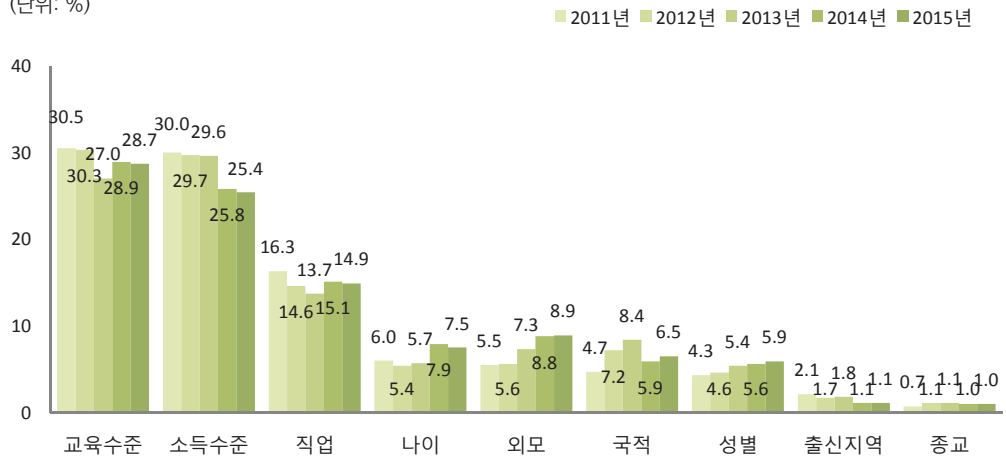


| 그림 3-235 | 가족안전 위험 유형

• 사회적 차별

우리 사회에서 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1순위)으로 ‘교육수준’(2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소득수준’(25.4%), ‘직업’(14.9%), ‘외모’(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차별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3-236 | 사회적 차별 요인(1순위)

3. 교통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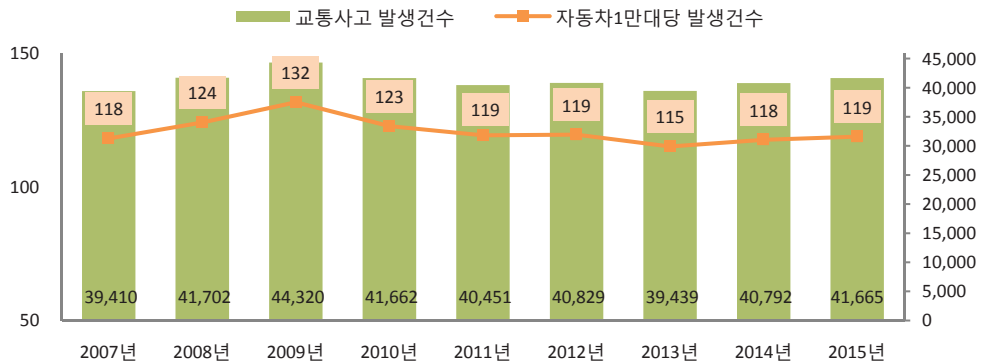
1) 지표별 현황

•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5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1,665건이며,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9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조금씩 상승하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건 / 1만대당)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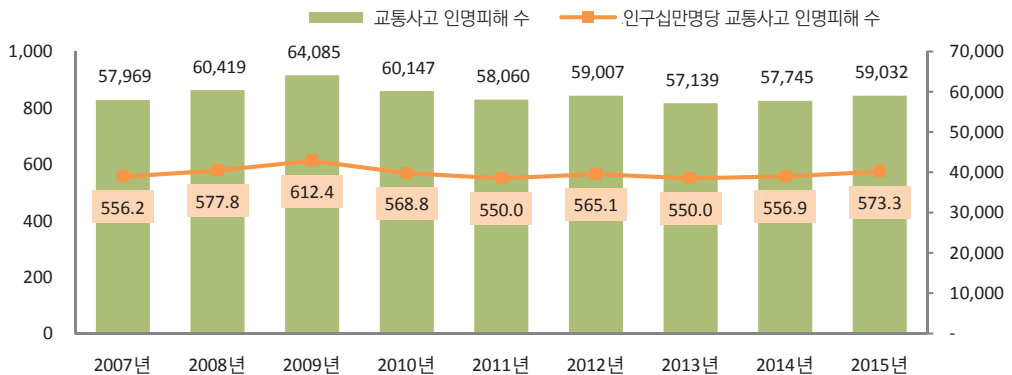
| 그림 3-237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교통사고 인명피해 수

2015년 인명피해수는 총 59,032명(사망자 376명 + 부상자수 58,656명)이며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73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래로 상승하던 인명피해 수는 2010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십만명당)

(단위 : 명)



| 그림 3-238 |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 인명피해 수

• 보행자교통사고 인명피해 수

2015년 보행자교통사고 인명피해수는 11,890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횡단보도 횡단중’이 전체 보행자사고의 약 1/4(약 2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그림 3-239 | 보행자 교통사고 인명피해 수

| 표 3-38 | 보행자 교통사고 인명피해 수

(단위 : 명)

	차도 통행중		횡단보도 횡단중		횡단보도부근 횡단중		육교부근횡단중		기타 횡단중		보도 통행중		기타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2007	21	1,429	51	2,448	10	728	0	58	103	2,326	10	974	29	1,950
2008	19	2,094	56	2,693	17	864	11	64	106	2,405	3	661	45	2,105
2009	20	2,100	49	2,785	16	824	7	64	98	2,536	4	524	47	2,684
2010	21	1,820	59	2,777	27	819	3	48	70	2,495	5	484	42	2,788
2011	20	1,707	64	2,768	17	731	2	23	91	2,558	6	513	47	3,006
2012	10	1,598	58	2,869	25	699	2	21	95	2,397	4	448	48	3,327
2013	9	908	50	2,611	11	671	2	19	89	2,463	3	443	52	3,996
2014	10	856	60	2,776	16	624	1	16	82	2,481	3	474	48	4,320
2015	13	994	55	2,904	20	579	0	16	82	2,484	5	526	38	4,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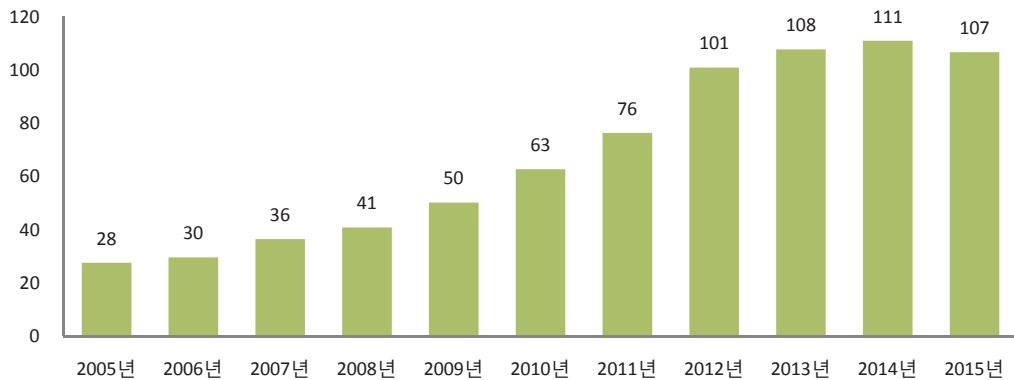
4. 재난대응

1) 지표별 현황

• 구조 발생건수

2015년 119구조 발생건수는 109,767건으로 인명구조 14,761건, 안전조치 87,900건, 기타활동 7,106건으로 나타났다. 인구만명당 구조발생건수는 107건으로 전년대비 4건 감소하여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단위 : 건 / 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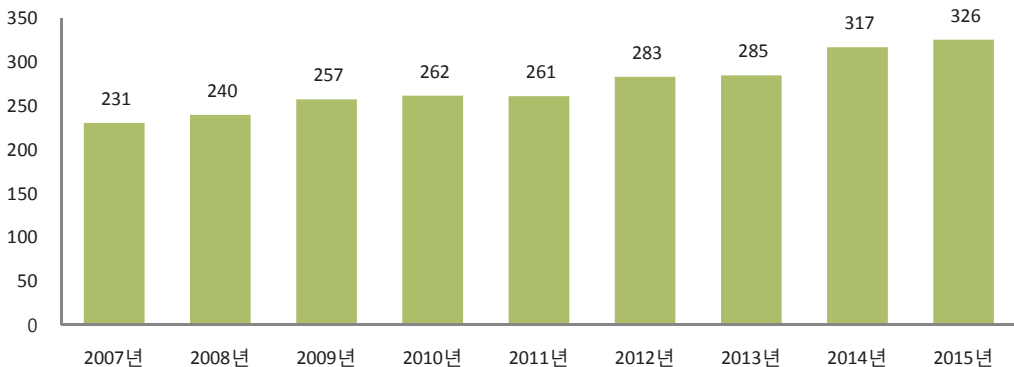


| 그림 3-240 | 인구만명당 구조발생건수

• 구급 발생건수

2015년 인구만명당 119구급발생건수(이송인원)는 326명으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위 : 명 / 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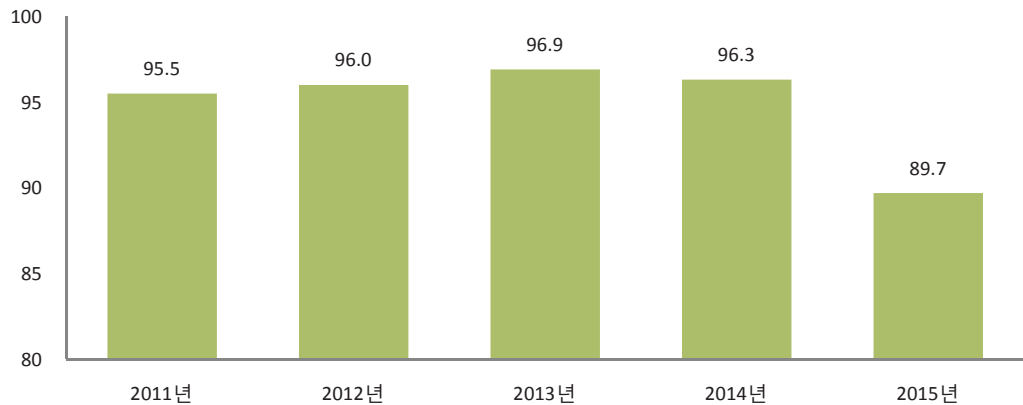


| 그림 3-241 | 인구만명당 구급발생건수

•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은 재난·사고 발생시 신고 후 구조대가 현장출동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황금시간(Golden Time)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이다. 2015년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은 89.7%로 전년대비 6.6%p 하락하였다.

(단위 : %)



| 그림 3-242 |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

제12절 가치와 의식

1. 일과 소비

1) 요약 및 정책제안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평생직업 선호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우리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인력채용시장이 이원화되고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왔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 40~50대에 집중되었던 인력구조개편으로 숙련인력부족을 경험하였던 기업들은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에 20~30대의 신규채용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이라는 일자리의 의미에 대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해 왔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명예·명성, 안정성과 같은 직업의 도구적 가치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내재적 가치의 약화로 이어졌고, 소득·임금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등 직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직업가치의 변화도 가져왔다.

이러한 일자리의 의미와 직업가치의 변화는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이직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0.6%p 증가한 63.1%가 수입을 위한 이직 가능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긍정적 견해가 가장 낮았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0.2%p나 증가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비율은 2013년 대비 0.1%p 감소한 15.1%에 그쳤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외재적이고 단기적인 직업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은 젊은 층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피로사회! 제대로 쉴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및 여가정책의 추진

주40시간 근무제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과 함께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서울시민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큰 변화를 야기해온 것은 사실이다.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저녁시간과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어 왔다. 또한 일과 여가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서 다양한 여가유형을 개발하여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2015년 기준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평균 노동시장이 긴(2,113시간)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OECD 평균(1,766

시간)보다 43일 더 일하고 있는 셈이어서(OECD, 『2016 고용동향』),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강도 높은 근로시간에 지쳐있다. 또한 고용노동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 재취업의 기회가 다시 찾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가를 위해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한 일 보다는 여가시간 갖고 싶다'는 비율이 2013년에 비해 0.7%p 증가한 47.6%로 가장 많지만, 여전히 과반수이상의 서울시민들은 망설이거나(37.1%) 여가보다는 일을 선택(15.2%)하고 있으며 일을 선택한 비율은 2013년에 비해 0.8%p 증가하였다.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이 보장된다면 누구나 일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거나 삶의 여유를 향유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들은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여가의 균형을 위해 무조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책일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에 잘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가일수는 예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피로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활동'(62.2%)에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가주도의 주5일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사·정간의 충분한 합의부족으로 인한 실효성의 부족, 그리고 적극적인 여가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노사합의를 통해 일-여가의 균형을 보장해주는 기업 환경의 조성과 함께 여가시간의 증가가 삶의 질로 연계될 수 있는 여가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베블런 효과? 과시적 소비가 아닌 소통을 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소비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경제적 행위이다. 그러나 이제 소비는 경제적 행위를 넘어서 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수단이자, 완성된 자아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자아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한 사회적 행위로 전환되어 왔다(성영신, 2013).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비는 더 이상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흔히 남들보다 돋보이거나 뽐내고 싶어서 고가의 재화를 사려는 심리를 경제용어로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고 부르는 과시적 소비가 만연되어 있다. 2015년 서울서베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비싸더라도 유명상표를 선호한다'에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비율이 26.5%로 명시적으로 과시적 소비에 찬성함을 드러내지는 않거나(41.3%) 찬성하는 비율(32.2%)에 비해 현저히 낮다. 소비를 통해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 하거나 인공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과시적 소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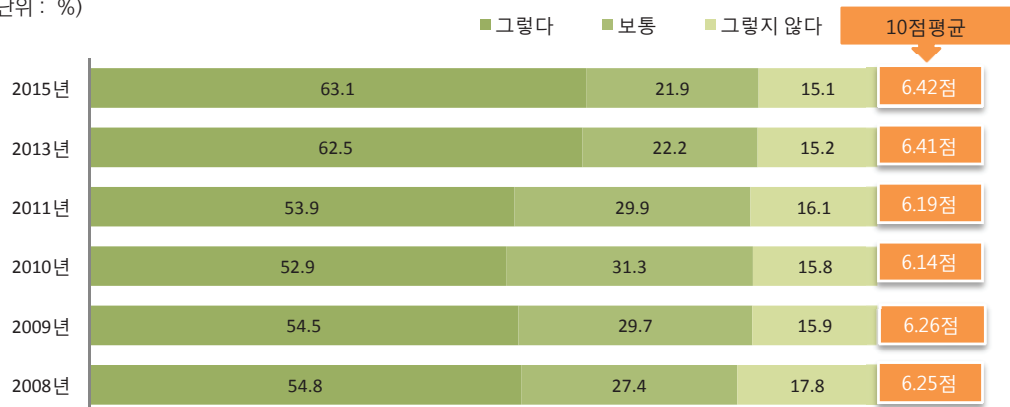
또한,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추세로 2015년의 경우 2008년에 비해 15.3%p 증가한 36.8%에 이른다. 이처럼 과시적 소비와 허세소비의 증가는 사람들 간의 진솔한 소통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적 소비이다. 하지만, 우리가 1960~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강조했었던 근검절약의 캠페인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유효하지 않다. 개인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소비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인의 욕구와 목표에 적합한 소비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 바람직한 소비모델을 개발과 소통을 위한 소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2) 지표설명

• 직업관

2015년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이직하겠다’는 비율은 63.1%로 2013년 대비 0.6%p 상승하였다. 이직의사는 남성, 동남권,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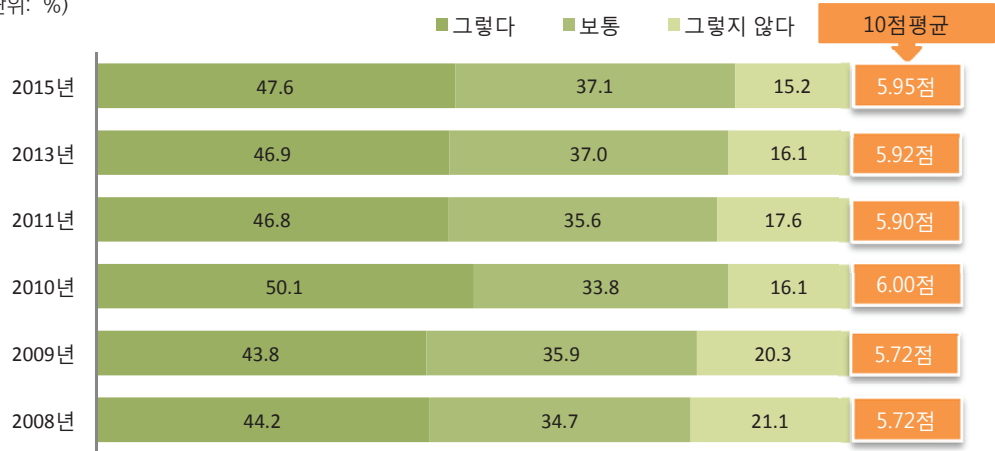


| 그림 3-243 | 좋은 직장으로 이직 의사

•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2015년 ‘수입을 위한 일 보다는 여가시간 갖고 싶다’는 비율은 47.6%로 2013년에 비해 0.7%p 상승하였다. 일과 여가선호 의향은 남성, 동남권,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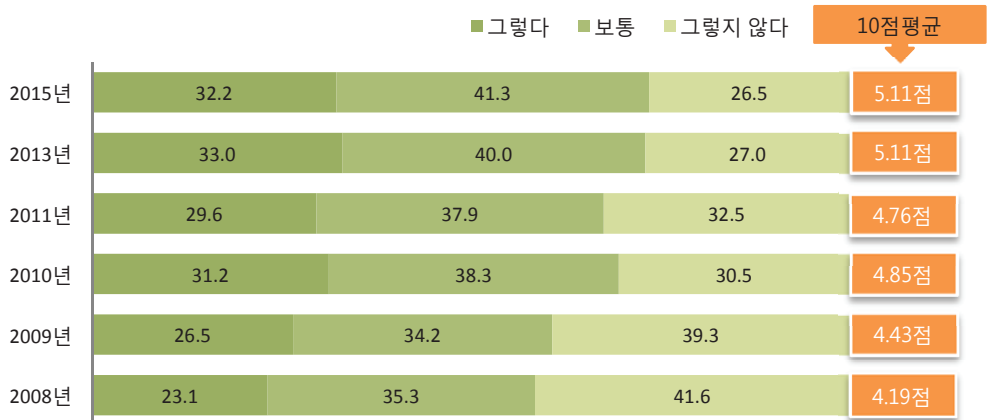


| 그림 3-244 |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 과시적 소비에 대한 태도

2015년 ‘비싸더라도 유명상표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32.2%로 2013년(33.0%)에 비해 0.8%p 하락하였다. 과시적 소비에 대한 태도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동남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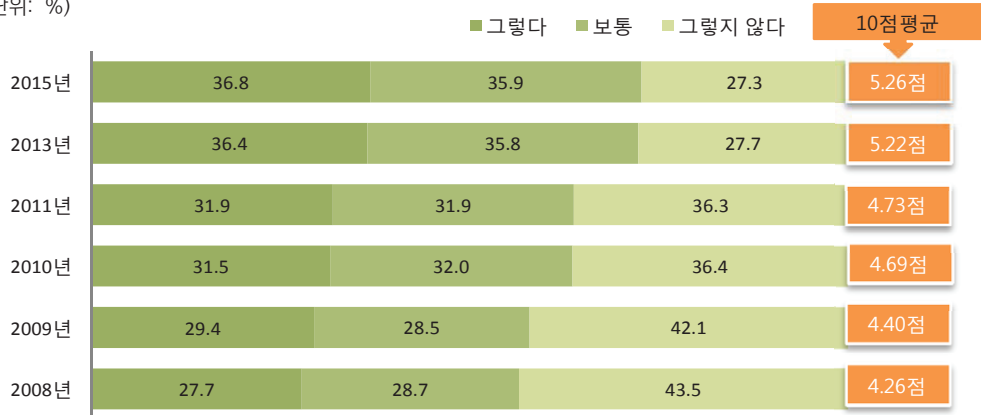


| 그림 3-245 | 과시적 소비에 대한 태도

•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36.8%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동남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위: %)



| 그림 3-246 | 외모에 대한 태도

2. 가족규범

1) 요약 및 정책제안

가족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작은 시작: 가족 간 식사가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하루 일과 중에서 가족보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물론, 가족의 개념과 범위, 그것의 구조와 관계는 변화되어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1차 사회화의 기관일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가족원들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대면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심리적 소외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 간의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생물학적 행위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소속감, 가족과의 유대감을 높이며, 자기 통제 및 정서적 안녕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긍정적 자기개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서울서베이의 결과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2011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과거에 비해 근로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2011년에 비해 4.2%p 증가한 51.4%가 정기적으로 가족과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갖지 못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2008년 대비 2015년 8.5%p 감소) 과거에 비해 가족 간 통합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과 같이 정기적인 식사의 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 간 식사가 가족 간 소속감과 유대감 증진을 통한 통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함에 주목한다면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복해졌지만 전통적 가족주의와 탈근대적 개인화의 충돌을 경험하는 가족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고등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엄연한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지만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한층 향상되어 왔다. 이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평등한 부부중심의 가족 가치관으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15년 서울서베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부부 간에 솔직한 표현을 하는 정도는 6.28점으로 2008년 이후 소폭 증가세에 있다. 또한 부부 간에도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도 6.10점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간의 감정 교류와 가치관의 공유 확대가 행복감의 높이고 가족의 통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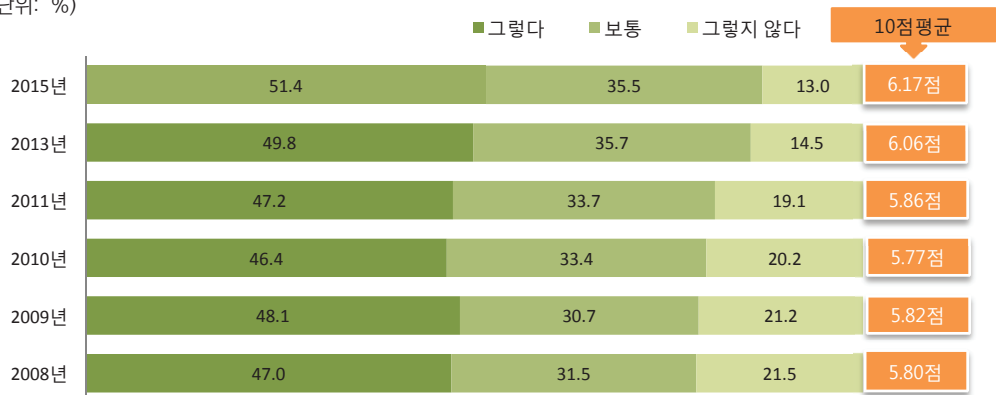
모든 것을 핵가족 책임론으로 귀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전과 다른 가족구조 및 구성, 그리고 규모에 있어 현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전환이 이뤄졌다 기 보다는 우리의 가족 가치관이 오랜 시간 진행되어온 산업사회로부터 탈산업사회로 이행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주의적 가족주의와 탈근대적 개인화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 2015년 서울서베이에서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소비와 여가가 자녀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비율이 5.79점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2015년 현재 6.02점으로 과거에 비해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자녀관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리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5.46점으로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탈근대적 개인화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녀 중심주의와 상속과 혈연계승에 기초한 친족주의라는 전통적 가족주의를 함께 지니고 있다.

2) 지표설명

• 가족의 통합성

가족의 통합성을 묻는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식사한다’라는 비율은 2015년 6.17점으로 2013년 (6.06점) 대비 0.11점 상승했다. 정기적 식사는 남성, 10대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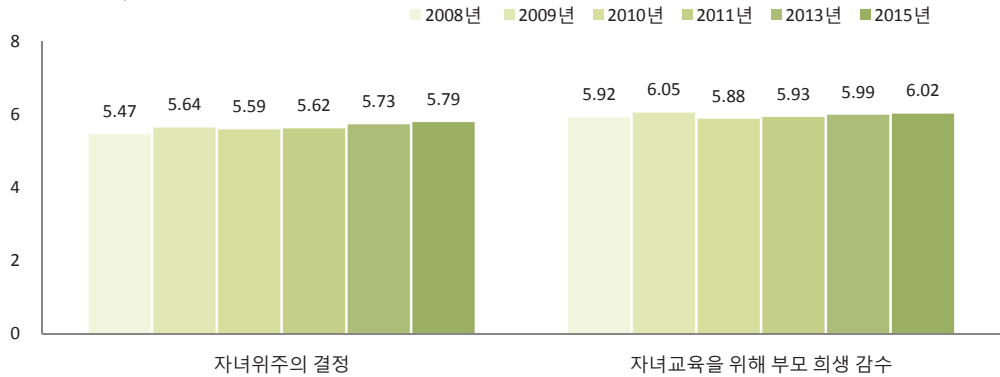


| 그림 3-247 | 가족의 통합성

• 자녀관

가족의 자녀관에 대해 자녀중심의 소비와 여가를 결정하는 비율은 2015년 5.79점이며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희생정도는 2015년 6.02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위주의 결정 및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수한다는 의견은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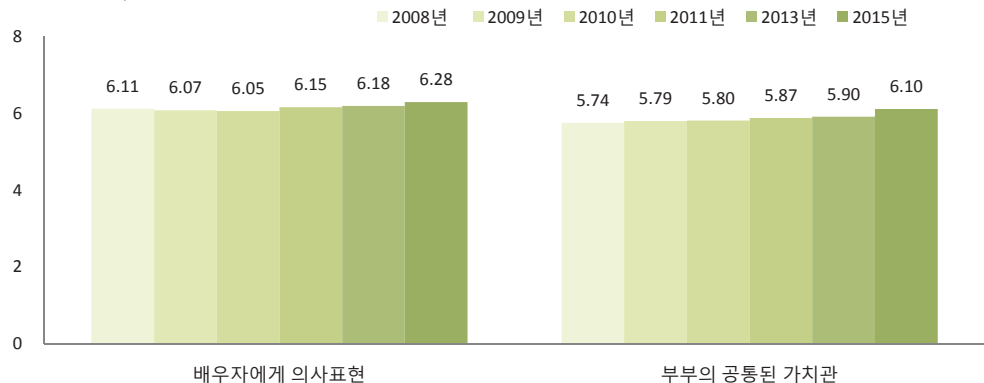


| 그림 3-248 | 자녀관

• 부부관

배우자에게 솔직한 감정표현에 대한 항목은 가족생활 만족도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항목으로 2015년 6.28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2015년 6.10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솔직한 의사표현과 부부의 공통된 가치관은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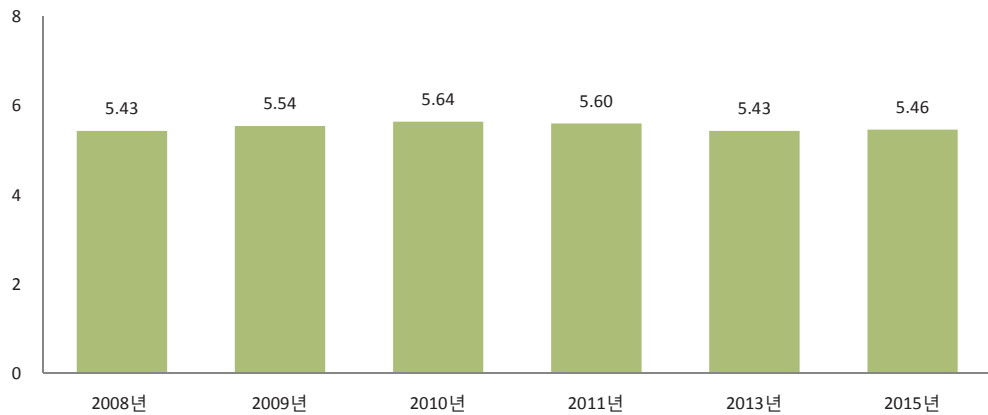


| 그림 3-249 | 부부관

• 부모관

자녀의 부모재산에 대한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2015년 5.46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50대의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위 : 10점 만점)



| 그림 3-250 | 부모관

3.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1) 요약 및 정책제안

사회신뢰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응집성 강화 방안 마련

최근 저출산, 사회갈등 심화, 자살 증가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등장하고 사회적 통합이 약화됨에 따라 GDP 중심의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추진의 한계에서 벗어나 ‘삶의 질’ 또는 ‘사회의 질’ 향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질에서 사회적 응집성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 관계와 이것의 토대가 되는 입법제도, 시민성과 관련된 규칙이나 가치, 관용, 존중, 다원주의 등과 같은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생성 및 보존, 파괴의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응집성은 다양한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와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을 들 수 있다. 2015년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의 종합점수는 5.58점으로 2013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반등하였으나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가난이나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태도)은 6.03점으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웃이나 친구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자신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는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고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용성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신뢰나 사회·정치 참여는 사회적 역동성을 저해시키고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는 5.53점으로 2014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지만, 이웃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의 중요한 축인 자원봉사 비율 역시 2010년 24.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12.3%p나 감소한 12.3%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시민기부 경험은 41.7%로 2014년 대비 5.2% 감소하였다. 다만, 최근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대두로 인한 투표 외의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통령 투표율은 2007년에 비해 12.3%p 상승한 75.2%를 보였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신뢰가 낮은 수준이며 사회참여 역시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응집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복잡성과 다양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희망격차가 없는 서울을 위한 사회복지의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

우리 사회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단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가시화된 소득의 양극화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이와 유사하게 야마다 마사히로(2010)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소수의 상층과 그렇지 않은 다수의 하층으로 양극화되는 사회를 가리켜 희망격차 사회로 명명한 바 있다. 누구나 노력을 통해 상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되고, 이는 경제적 역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확대로 이어지지만, 최근 논란이 되었던 ‘수저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점차 우리 사회가 경제적 불평등은 가속화되고 계층의 고착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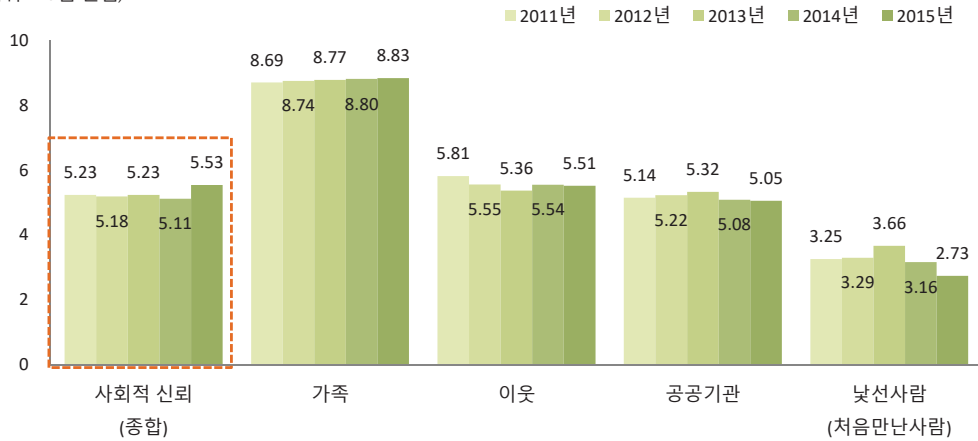
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서울서베이의 조사결과에서 보다 잘 드러나고 있는데,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10명 중 3명만이(32.4%)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저학력자일수록 계층이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위 사다리 척도로 알려진 Cantril latter 척도(10점 척도)를 통해 측정된 중산층 귀속의식을 살펴보면 2015년 65.6%가 스스로를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2008년 74.6%에 비하면 9%p나 감소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행복도는 2009년 6.54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은 6.95점에 이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건강상태, 친지/친구관계, 가정 및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높은 수준이지만,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상황이 서울시민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 계층별로 현재의 행복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확충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 지표설명

• 사회적 신뢰

2015년 사회적 신뢰에 대한 종합점수는 5.53점으로 전년대비 0.42점 상승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가족’이 8.8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이웃’(5.51점), ‘공공기관’(5.05점), ‘낯선사람’(2.7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2011년 이후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특히 3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웃신뢰도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50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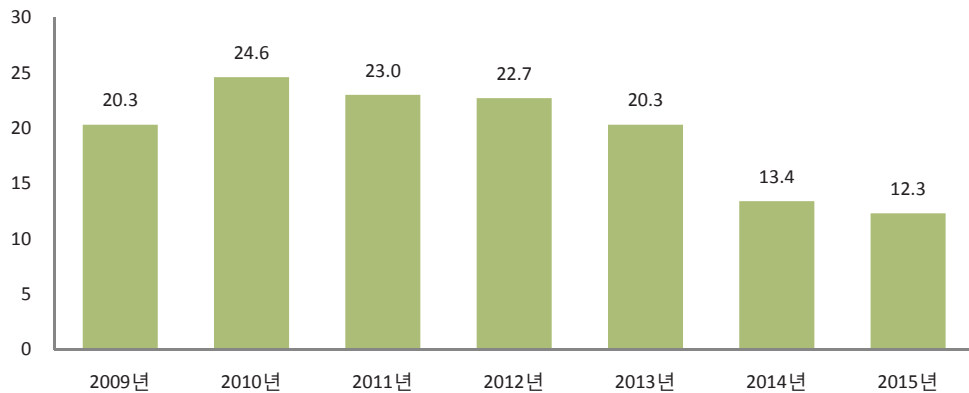


| 그림 3-251 | 사회적 신뢰

• 자원봉사 비율

2015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12.3%로 2010년 이래로 하락하고 있다.

(단위 : %)



| 그림 3-252 |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자 등록률

- 자원봉사 등록률 =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 주민수) × 1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91%	8.86%	10.49%	11.79%	13.58%	15.07%	17.69%	20.24%	2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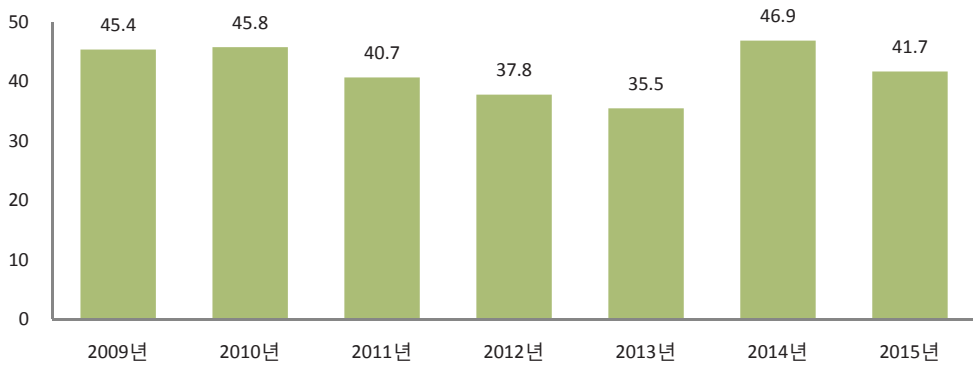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정보화기획담당관(<http://stat.seoul.go.kr>)

주석: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합계에 서울시(본청)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포함

• 시민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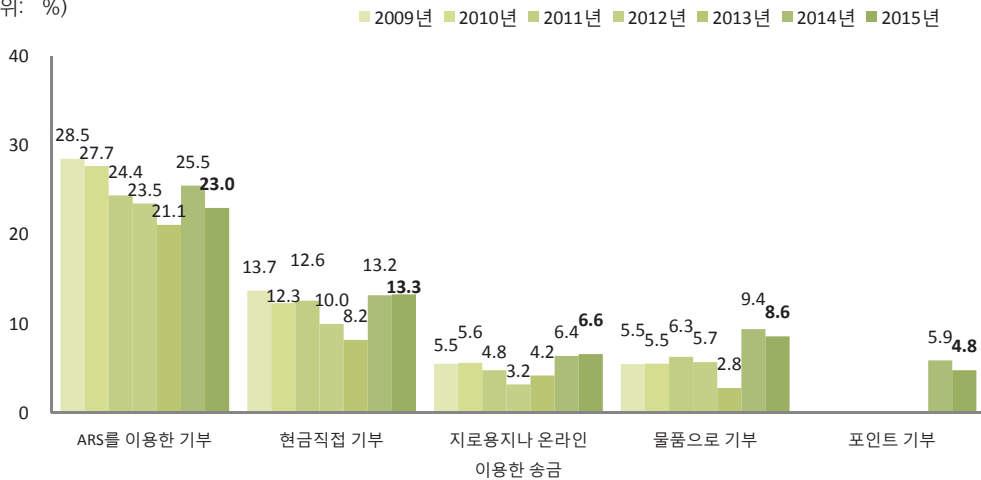
2015년 서울 시민의 기부경험(중복응답)은 41.7%로 2014년 대비 5.2%p 하락하였으며, 기부 방법은 ‘ARS를 통한 기부’가 23.0%로 가장 높았으며, ‘현금 직접 기부’(13.3%),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8.6%),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6.6%), ‘포인트 기부(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 그림 3-253 | 기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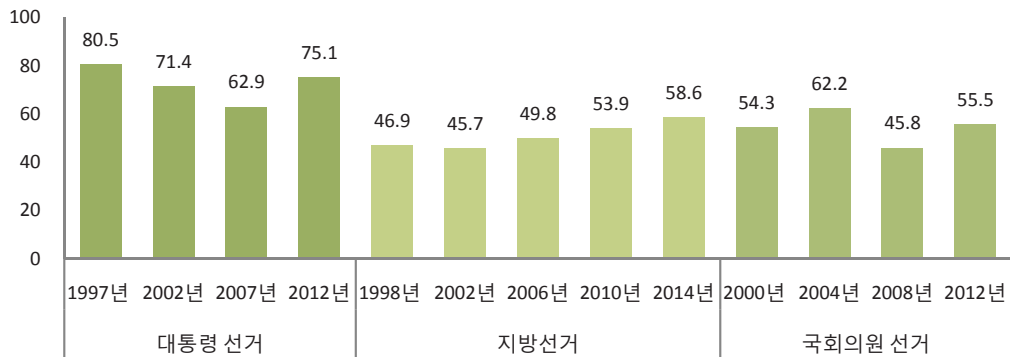


| 그림 3-254 | 기부형태

• 투표율

감소추세이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12년 75.2%로 2007년에 비해 12.3% 상승하였다. 지방선거는 2002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58.6%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2년 55.5%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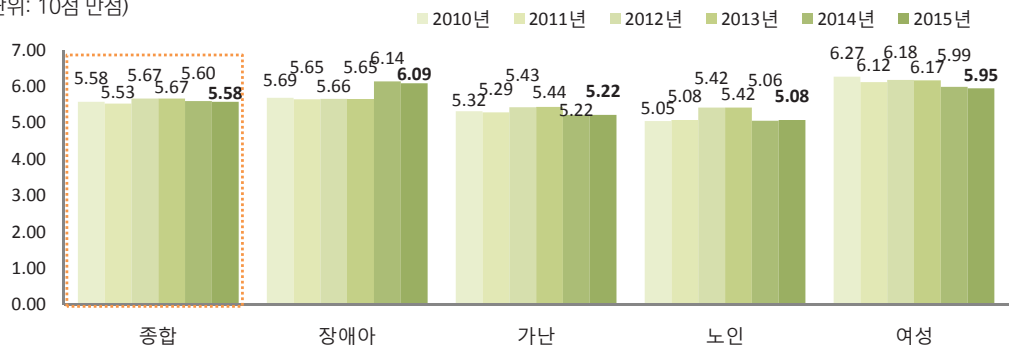


| 그림 3-255 | 투표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2015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종합점수는 5.58점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아(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6.09점), ‘여성제도 개선(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5.95점), ‘가난(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5.22점), ‘노인사회복지(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5.0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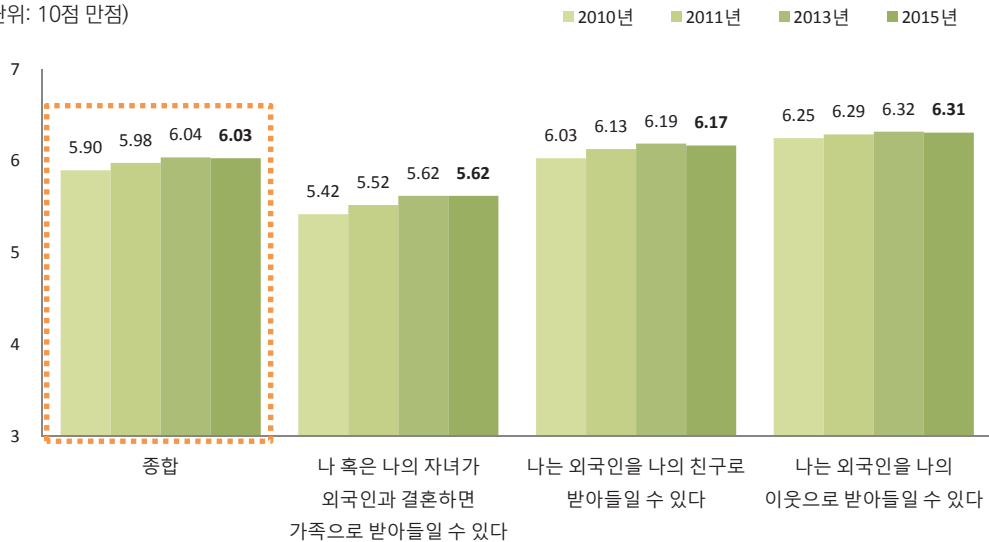


| 그림 3-256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관적 태도

•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2015년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종합점수는 6.03점으로 201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웃으로 수용’(6.31점), ‘친구로 수용’(6.17점)이 상대적인 공감이가 높은 반면, ‘결혼 후 가족으로 수용’(5.62점)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자, 서남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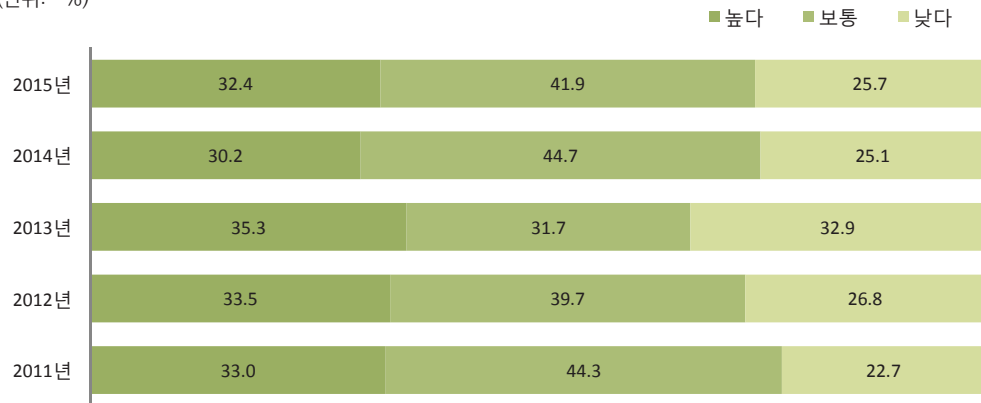


| 그림 3-257 |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 계층이동가능성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32.4%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한 반면, 25.7%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 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났고,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다’는 저학력일수록, 화이트칼라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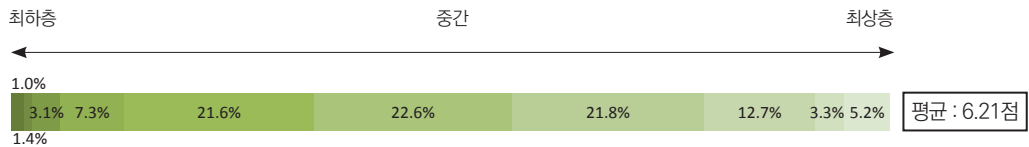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258 | 계층이동 가능성

• 중산층 귀속의식

2015년 서울시민의 절반이상(65.6%)이 자신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보통 이상'(6점 이상)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점 만점에서 6.21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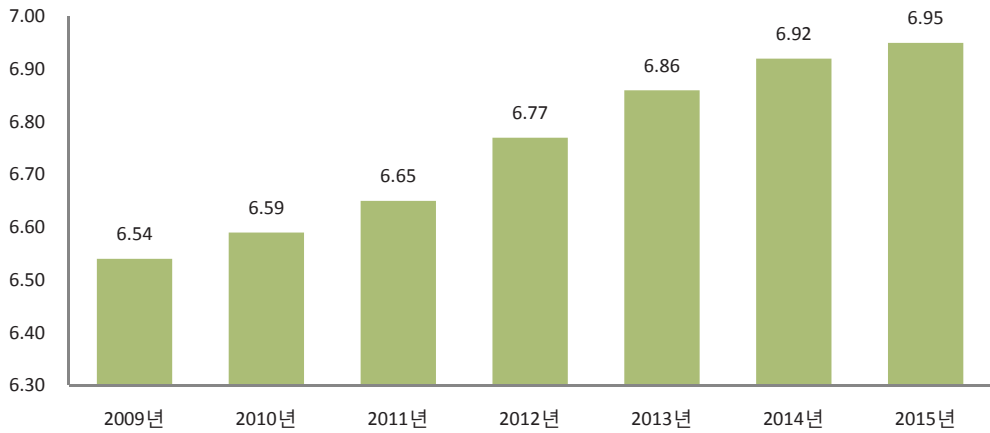


| 그림 3-259 | 중산층 귀속의식

•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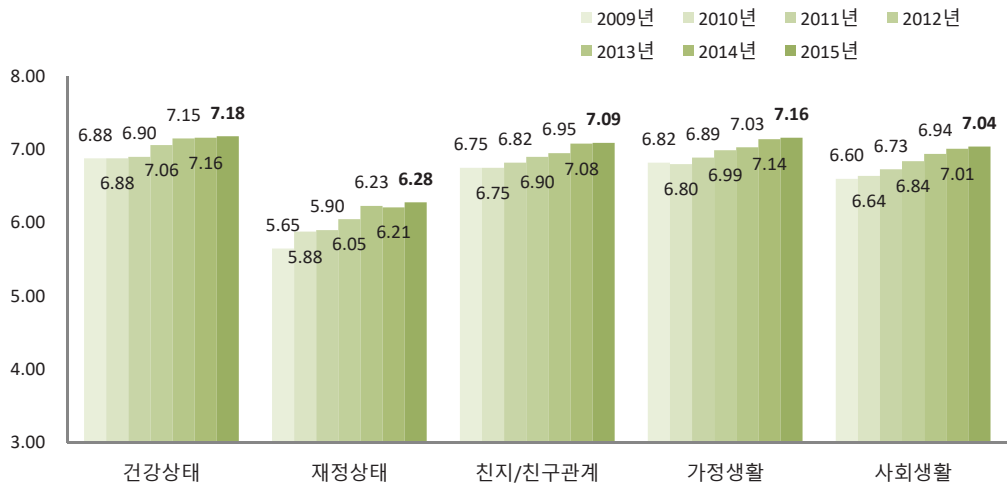
2015년 서울 시민의 종합행복지수는 6.95점으로 2009년 이래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 항목별로는 '건강상태'(7.18점), '가정생활'(7.16점),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7.09점), '사회생활'(7.04점), '재정상태'(6.28점) 순이다. 전 항목이 전년대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단위: 10점 만점)



| 그림 3-260 | 종합 행복지수

(단위: 10점 만점)



| 그림 3-261 | 분야별 행복지수

제4장

2017 서울서베이를 위한 도시정책지표 체계 개편

제1절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개편을 위한
지표체계 검토

제2절 국내·외 지역, 사회지표 리뷰

제3절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안)

제4장 2017 서울서베이를 위한 도시정책지표 체계 개편

제1절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개편의 필요성

1. 지표 검토 추진 과정

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개선 논의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체계는 2003년 ‘서울형 서베이’라는 타이틀 하에 처음 착수, 구축되었다.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체계는 2003년 당시 시정의 방향성과 최고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 전체에 걸친 영역을 포괄하는 지표체계를 서울시 실국에 대응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지표의 데이터 구축과 분석 결과를 시장회의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서베이는 지난 14년 동안 서울시정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울시민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시민들의 가치와 의식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하여 시정의 영향력과 정책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역할하였다.

서울서베이는 2007년부터 포괄적 도시정책지표체계에서 ‘서울의 사회상’과 ‘서울 도시정책지표’로 이원화하였으며,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현황과 분석을 포함하였다. 한편 2011년부터는 12개 조사영역이 갖는 포괄성으로 인해 질문지가 단순하게 구성되어 심층 분석의 한계가 있고, 세분화된 분석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하에 조사영역을 모듈화 하였다. 즉, 인구영역, 경제영역, 도시발전과 주거 영역은 기본 영역으로 하고 나머지 영역을 A모듈과 B모듈로 구성하여 한 모듈만을 한 해 연도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 수행 과정에서는 서울시정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거나 조사시기의 시정을 둘러싼 환경의 요청에 의해 모듈방식은 원칙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웠다.

그동안 각 실국에서는 자신들의 영역에 부합하는 조사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시정 전체에서는 민선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 희망서울 생활지표도 구축하여 시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다. 이에 포괄적으로 시정을 모니터링하는 도시정책지표체계로서 서울서베이를 오늘날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2016 지표검토위원회 구성 및 검토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개편을 위해 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연구원 내 부문별 전문가들의 지표 리뷰를 실시하고, 사회지표와 도시지표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지표 개편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울연구원 내 전체적인 지표 검토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 지표 검토는 2015년 11월, 2차 지표검토는 2016년 7월에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총괄 검토 이외에도 원내 부문별 전문가들과의 수시 회의를 통해 지표 유용성, 지표 개념, 데이터 산출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울연구원	
연구책임	변미리(사회학, 도시행정)
연구원	김목한 (경제) 김상일 (도시발전과 주거) 백선훈 (문화) 반정화 (관광) 윤민석, 손창우 (복지) 신경희 (여성과 가족) 유기영 (환경) 이신해 (교통) 신상영 (안전과 재난) 박민진, 김진아, 최윤석 (총괄 연구원)

자문위원	
강현철(호서대학교 교수)	권영심(경인지방통계청 통계분석팀장)
김석호(서울대학교 교수)	박승규(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서우석(서울시립대 교수)	이기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기홍(한림대학교 교수)	이성건(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전희주(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한 준(연세대학교 교수)

지표개발위원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3) 1차 지표검토 안

분야	영역	지표				지표수
인구 (14)	서울보통사람	•평균연령 •혼인상태	•평균가구원수 •종교	•1인가구 비율 •학력	•거주기간 •직업	8
	서울거주 외국인	•성별 •체류자격	•연령 •주거유형	•거주기간	•출신국적	6
경제 (18)	경제기반	•지역내 총생산 •실업률	•소득증가율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체 창업률 •전국대비 R&D 투자비중	•지식창출역량 •고용률	8
	기업환경	•사무실임대료 •도심권차량속도	•노동분쟁 건수	•사무실 연상면적비율	•컨벤션수용능력	5
	인적자원역량	•노동유연성 비율 •서울 대학생 수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	•고급인적자원 역량	•서울 대학 수	5
	주거환경	•생활환경 만족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	•주택보급률	•아파트거주가구 비율	•아파트가격	5
주거와 생활 (16)	생활환경	•문화시설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주관적)소득인식 수준 •의사소통 가능성	•의료시설 •공공요금 수준 •고용형태 •서울시 물가수준	•유통시설 •소비자물가지수 •국내거주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수 •문화적 다양성(친밀도)	11
	건강한 삶	•흡연율 •건강상태	•비만율 •우울도	•평균수명 •주당 평균운동시간	•자살률 •만성질환여부 및 객사	8
건강과 안전 (20)	생활안전	•도시위험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정도 •인구1000명당 의사 수와 병상수	•5대강력범죄 발생건수 •주변환경의 위해 요인에 대한 인식	•청소년범죄 발생건수 •식중독사고 발생건수 및 환자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감염병 환자수	9
	사회적 안전	•가족안전유형	•사회적 차별	•사회적 신뢰		3
교통 (27)	교통인프라	• 시내버스수 •도로연장 •자전거 도로율	•도시철도 연장 •버스정류장수 •공유 차량대수	•버스전용차로 연장 •자동안동수단 설치율 •전기 차량대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역수 •저상버스 도입률 •장애인콜택시 대수	12
	교통서비스	•지하철 최고혼잡도 •자전거 이용률 •65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수	•교통수단이용만족도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시내버스 배차 정시성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율 •공유차량, 전기차량 이용률 •장애인콜택시 30분이내 답승률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통행속도 •대중교통 이용객수	11
	보행환경	•보행환경 만족도	•보도연장 및 면적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연장	•보행전용 거리지정 구역 연장	4

분야	영역	지표				지표수
환경 (24)	대기와 녹지	•미세먼지 오염도(PM-10)	•미세먼지 오염도(PM-2.5)	•NO2농도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11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외국인의 대기환경만족도	•가로경관 녹시율	
		•녹지환경 만족도	•녹지접근성	•건강한 숲		
	수질과 폐기물	•서울한강 수질오염도	•서울지천 수질 오염도	•음용식수	•물재이용	7
		•생활쓰레기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량	•생활쓰레기 매립의존도		
	에너지	•가정용 전력 소비량	•물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절약 시민참여	6
		•자원절약재활용 시민참여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문화와 여가 (33)	문화활동과 향유	•예술관람률	•영화관람률	•스포츠 경기 관람률	•여가레저 활동	17
		•예술활동률	•문화환경 만족도	•축제참여도	•한강여가레저인구수	
		•고궁입장객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문화예술 자원봉사 경험률	•문화예술 중요도	
		•문화예술 관심도	•문화예술 여가활동시간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권수	•예술관람비용	
		•영화관람비용				
	문화기반	•문화재 수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유산 잠정목록	•도서관	•전시시설	8
		•공연시설	•공공체육시설	•영화관람시설	•지역문화시설	
거버넌스 (10)	문화시장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시 지정 전문예술 단체 수	•문화관련 사업체 수	•출판사 수	8
		•문화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문화예술 고등 교육기관 수	•문화예술 고등 교육기관 졸업생 수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 수	
	투명행정	•청렴도지수	•정보공개비용			2
	정보와 지식 활용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사이버 피해경험	•TV 시청시간	•SNS 이용률	5
		•인터넷 이용률				
	시민참여	•자원봉사자 비율	•시민 기부	•투표율		3
사회통합 (24)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사회적약자 취업률	•사회복지시설 수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수	8
		•장애인재활시설수	•장애인사망률	•노안·장애인 수급자율	•장애인사망연령	
	고령자 생활	•노인의료복지시설 보급률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급률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형태	•노후준비방법	13
		•독거노인 비율	•노인건강관리	•노후생활 희망정도	•예상은퇴시기	
		•은퇴 후 소득활동	•은퇴 후 희망소득	•노인 자살률	•노인빈곤율	
		•노인 1인당 또는 가구당 의료비 비중				
	성 평등성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율	•성별 비정규직 비율		3
가치와 의식 (25)	가족규범과 가치	•가족의 통합성	•자녀관	•부부관	•부모관	10
		•가정생활 만족도	•부채 유형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사노동 분담정도	
		•한부모가구 수	•다문화 가족가구			
	노동과 소비의식	•직업관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과시적 소비에 대한 태도	•외모에 대한 태도	5
		•직업만족도				
	사회적 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중산층 귀속의식	•행복지수	10
		•계층이동경험	•서민귀속의식	•계층이동가능성1	•계층이동가능성2	
		•사회적자본 유무	•정치참여			

(1) 인구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서울 보통 사람	•평균연령	•서울시민의 평균연령 파악	•서울시 인구의 평균연령	•행정자료 - 행정자치부: 1세별 주민등록인구	○		
	•평균 가구원수	•가구당 가구의 평균 구성원수	•세대당 평균 인구수	•행정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1인가구 비율	•1인가구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1인가구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조사	○		
	•거주기간	•서울에 거주한 기간조사	•가구원이 서울에 거주한 평균 기간 산출	•가구조사	○		
	•혼인상태	•현재 서울시민의 혼인상태 파악	•가구의 미혼, 결혼, 이혼, 사별, 별거 등의 혼인상태에 대한 세부사항 조사	•가구조사	○		
	•종교	•서울시민의 종교현황 파악	•가구의 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세부적인 종교활동 조사	•가구조사	○		
	•학력	•15세 이상 시민의 학력 분포 파악	•가구의 학력 구성비 파악	•가구조사	○		
	•직업	•서울시민의 직업별 현황 파악	•가구의 직업별 종류에 따른 서울시민 직업조사	•가구조사	○		
서울 거주 외국인	•성별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의 성별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별 조사	•행정자료 -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 현황	○		
	•연령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의 연령현황 파악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의 연령	•행정자료 - 통계청: 체류외국인 통계_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거주기간	•서울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거주 기간을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출신국적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 파악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의 국적	•행정자료 -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 추이	○		
	•체류자격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조사	•행정자료 - 서울시: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		
	•주거유형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주거유형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거 유형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2) 경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경제 기반	•지역내 총생산	•서울의 거시경제규모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 지역내총부가가치 (기초가격) + 순생산물세 (2005년 기준)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		
	•소득증가율	•인구규모와 지역내 총생산과 함께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써, 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을 기능 할 수 있음	•{(당해년도 가구소득/전년 도 가구소득)-1} × 100	•행정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신분 류), 도시(명목), 도시2인 이상 근로자 가구 기준	○		
	•사업체 창업률	•연간 경제활동의 성과, 특히 사업활 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당해년도 창업 업체 수/당 해년도 총 사업체수)×100	•행정자료 - 서울시: 사업체 기초통계조 사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	출처 추가
	•지식창출역량	•도시경제의 혁신활동의 성과를 종합 판단하기 위한 지표	•총 출원건수 = 특허+실용신 안+디자인+상표(당해년도)	•행정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권 등록출 원현황	○		
	•실업률	•경기의 주기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 한 일차자료로 정책적 대응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 (취 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외국인 투자유치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적 중심 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 및 투 자건수	•행정자료 -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현황	○		
	•전국대비 R&D 투자 비중	•서울경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 연구개발 인건비등의 경상지 출과 기계장치, 토지, 소프트웨어 등 에 지출된 자본지출 등의 상대적 규모	•서울의 R&D 투자규모/전 국의 R&D 투자 규모)×100	•행정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s.go.kr)_ 연구개발활동조사	○		
	•고용률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기업 환경	•사무실임대료	•도시내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의 임대료를 파악하여 기업활동과 기업유치에 필수적 요소로 분석함	•서울 지역의 사무실 임대료 값(4분기 기준)	•행정자료 - 부동산 114/메이트플러스 - 국토교통부 ·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	출처 추가
	•노동분쟁 건수	•근로 종사자들의 노동분쟁 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여건 개선을 추구	•고용노동부의 연차별 노사 분규 발생건수 조사	•행정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 시도별 노사분규건수	○		
	•사업환경 만족도	•국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국내의 사업환경 정도를 파 악할 수 있는 지표임	•서울시의 사업 환경과 관련 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사업 체의 만족도조사	•사업체 조사(국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
	•사무실 연상면적 비율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허부구조로서 오피스의 수급 여건을 판단	•(사무실 면적/건축물 총면적)×100	•행정자료 - 건축기획과: 건축물 연면적	○		
	•컨벤션수용 능력	•동북아 컨벤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물적 인프라 환경 파악	•서울 소재 컨벤션수용 인원 •서울소재 MICE 참가자수	•행정자료 - 한국관광공사: 컨벤션 수용현황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tour.go)_MICE 행사통계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기업 환경	•도심권차량 속도	•도시간의 차량속도를 파악 하여 시간손실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킴	•도심의 승용차 차량 속도	•행정자료 - 교통정보센터: 차량통행속도	○		
	•기업의 조세부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의 부담정도를 통한 기업환경정책수립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정도에 대한 태도조사	•사업체 조사 (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사업상의 규제	•사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환경에 대한 태도 조사	•사업체 조사 (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행정편의성	•사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처리절차의 편리성에 대한 조사	•사업체 조사 (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인적 자원 역량	•인건비 부담정도	•노동력의 임금수준으로 파악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국제적 비교우위를 평가 동 지표는 도시 경제의 노동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부담 정도 조사	•사업체 조사 (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노동유연성 비율	•임시직, 일용직 근로 형태 파악	•{(임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전체 취업자} ×100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	•경제발전의 주된 인적자원으로 연구개발 인력과 고학력 인력을 파악하여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지표임	•{(수도권 소재 연구원 당해년도 연구원 수+수도권대학 석박사 졸업자수)/인구}×1,000	•행정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통계, 연구개발활동조사 -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 소재 석박사 졸업자수 - 통계청: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한국인)	○		
	•숙련노동력 구득 용이성	•숙련된 인력 확보를 통해 경제 산업활동의 활력성을 높임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숙련노동력의 즉시 획득 가능 정도 조사	•사업체 조사 (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고급인적자원 역량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존재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직업별 취업자 수)×100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_행정구역(시도)_직업별취업자	○		
	•서울 대학 수	•고급인력 배출 Capa 측정 지표	•서울시내 일반대학 학교수	•행정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cesi.kedi.re.kr)	○		
	•서울 대학생 수	•고급인력 배출 Capa 측정 지표	•서울시내 일반대학 대학생 수	•행정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cesi.kedi.re.kr)	○		

경제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기업 환경	•정보구득용이성	•서울소재 외국인투자사업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업여건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임	•사업관련 정보수집의 용이성 등을 조사함	•사업체조사(외국인 투자 사업체)			○
	•논스톱으로 접근 가능한 도시 수	•도시의 국제적 접근성에 의한 사업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시의 수	•행정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	○		
	•공항화물처리 규모	•항공물류의 허브로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항공화물 처리규모 파악	•당해년도 인천공항 항공화물 처리량(톤)	•행정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	○		
	•사무실 공실률	•사무실 공실률을 통한 경제적 여건파악	•사무실 공실률	•행정자료 - 알투코리아 홈페이지(http://www.r2korea.co.kr)	○		
	•실질임금 상승률	•구매력을 파악함으로써 가계 생활수준의 변화추이를 가늠할 수 있음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행정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부문(4월기준)	○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에 필요한 벤처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서울소재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의한 연간 벤처자본투자액	•행정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 벤처자본투자금액	○		
	•수도권내 연구기관 수	•기업의 연구기술개발 활동과 공공의 기술개발투자 등 혁신활동을 위해 공공, 민간 연구기관 수를 파악	•연구개발조직(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체)의 수	•행정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인적 자원 역량	•석박사 학위자수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수	•전문 인력 및 전문기술직 측정	•서울 소재 석박사 산업기술 인력 수(현원)와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취득자수	•행정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_지역별-종목별 취득자현황(주소지역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3) 주거와 생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주거 환경	•생활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주의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설문	•가구조사	○		
	•주택보급률	•주택의 양적 충족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정책의 대표지표	•(주택현황/일반가구수) × 100	•행정자료 -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2005년부터)	○		
	•아파트거주가구 비율	•주거환경을 특징짓는데 있어 주택유형별 비율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특히 아파트는 서울을 대표하는 주택 유형으로 거주 편의성과 환금성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유형	•(아파트 수/총 주택수) × 100	•행정자료 -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 (2005년부터)	○		
	•아파트가격	•거주지 마련에 드는 경제적 부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아파트 평당 가격(매매평균/전세평균)	•행정자료 - 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자료	○		
	•미래주택유형	•향후 계획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주 대상 향후 예상되는 주택유형에 대해 설문	•가구조사			○ (질문 삭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행정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 임대주택건설실적	○		
생활 환경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등 주민들의 기초적인 문화접근성을 보장하는 인프라	•((공공도서관+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문예회관+지방문화원)/인구수) × 100,000	•행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 인구	○		
	•의료시설	•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을 포함하는 시설로 의료분야의 기초생활서비스 제공판단	•((의원+병원+종합병원+치과+한의원+부속의원+특수병원+조산소...)의 병상수/인구수) × 10,000	•행정자료 - 보건 의료정책과 : 의료기관(구별)	○		
	•유통시설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도매센터 등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일반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도매센터/인구수) × 100,000	•행정자료 - 소상공인지원과 : 유통업체현황(구별)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주거지 주차시설 공급수준 파악(아파트와 기타주거 구분) •주택가주차장 = 노상의(구영+거주자우선) + 노외의 구영 + 건축물 부설 중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주차면수를 의미함	•(주택가 주차장 주차면수/자가용 승용차 등록대 수) × 100	•행정자료 - 주차계획과 : 주택가주차장	○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생활주변 녹지공간의 양을 측정하여 녹지사업의 개선점 발굴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공원면적 현황	•행정자료 - 공원녹지정책과 : 공원(1인당 공원면적)	○		

(4) 건강과 안전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건강한 삶	•흡연율	•흡연은 개인건강의 위협 요인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 요인임	•흡연여부 설문 •표준화 값 사용, 현재 흡연율은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분율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비만율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며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주원인임	•BMI(체중/신장)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15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사람수×100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서울시: 서울시민보건지표(4년주기)→조사중단		○ 지표명: 비만도 → 비만율	
	•평균수명	•시민들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지표임	•0세기초의 기대여명	•행정자료 - 통계청: 생명표(전국) - 통계청: 시도별 생명표(3년주기)	○		
	•자살률	•정신적인 건강문제와 관련되는 지표임	•(고의적 자해 및 자살자수/인구수)×100,000	•행정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건강상태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임	•가구원 대상 조사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가구조사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우울도				○		
건강한 삶 신규 지표 제안	•주당 평균운동시간					신규	
	•만성질환여부 및 갯수					신규	
생활 안전	•도시위험도	•자연재해를 포함한 사고(아간통행의 안전성, 위험지역의 존재)로부터의 도시 안전성을 파악	•가구원의 아간통행/범죄/건물붕괴/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계산	•가구조사	○		
	•5대강력범죄 발생건수	•강력, 폭력으로 인한 살인, 강도사건의 발생빈도	•5대 범죄 중 살인, 강도사건 발생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 발생현황		○ 지표명 변경	
	•청소년범죄 발생건수	•청소년의 극단적인 사회일탈 행위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 보호 대책 및 교화수요를 파악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소년범죄 현황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평상시 범죄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지 인식정도를 조사	•가구원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조사	•가구조사	○		
	•아간통행에 대한 두려움 정도	•아간통행시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간범죄 위험성 조사	•가구원의 아간통행에서 느끼는 두려움 정도 조사	•가구조사	○		
	•주변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주거지역의 생활안전 관련 심각성 정도를 파악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역의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범죄/폭력, 쓰레기 방치, 주차 질서 등의 심각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설문	•가구조사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생활 환경	•공공요금 수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의 한 가지 요소인 공공시설 및 서비스(전기, 수도 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지급하는 공 서비스 요금의 가격 변동을 측정(2010=100)	•행정자료 -통계청 : (품목성질별) 소비자 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시민경제생활의 추이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행정자료 - 통계청: (품목성질별) 소비자 물가조사	○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제도교육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에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를 파악	•행정자료 - 서울시 교육청: 2013 서울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주관적)소득인식 수준	•가구 소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설문(1~10점)	•가구조사	○		
	•고용형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상용고용, 임시고용, 자영업 등) 및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 등) 조사	•가구조사	○		
	•국내거주외국인 삶의 질 만족도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도시 삶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파악	•도시 삶의 질 파악 - 서울거주 외국인의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서울시민 개방 및 친밀정도, 의사소통정도 등을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문화적다양성 (친밀도)	•문화활동 및 엔터테인먼트의 향수기회,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과 친밀도 등을 측정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문화적 친밀도 정도를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의사소통 가능성	•의사소통(영어) 정도를 파악하여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파악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의사소통 정도를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서울시 물가수준	•외국인 느끼는 서울 물가수준	•서울 물가수준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주거와 생활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생활 환경	•아파트 임대료	•서울생활의 거주지 마련에 드는 경제적 부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외국인 가족의 거주와 연계	•아파트 임대료 평균(아파트 전세가를 기준으로 최고 최하의 평균값을 산출함)	•행정자료 - 부동산 114: 아파트 임대료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아파트 실거래 지수		○ (출처 변경)	
	•월평균 소득	•지역별 월평균 소득액의 정도의 비교를 통해서 지역격차를 비교	•가구의 월 평균소득	•가구조사			○ (질문 보기 변경)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생활안전 신규지표 제안	•식중독사고 발생 건수 및 환자수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지표	•식중독 사고 발생건수 •식중독 사고 환자수	•행정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 독통계시스템	신규		
	•감염병 환자수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신규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행정자료	신규		
사회적 안전	•가족안전유형	•전년도 경험한 가족안전 유형 에 대해 파악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난 1 년간 경험한 가족 위험 유형 설문	•가구조사	○		
	•사회적 차별	•우리 사회의 사회적 차별 가능 성 고수준 요인 파악	•가구원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되는 요인에 대해 설문	•가구조사	○		
	•사회적신평	•가구원의 중산층 귀속의식에 대한 설문	•가구조사	•가구조사	○		

건강과 안전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사회적 약자 보호	•소득1분위 가구 평균소득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분 위 가구수를 파악하여 저소득 층에 대한 현실적 정책수요 파악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 수지(도시, 2인 이상) 중 소 득1분위 가구평균소득 조사	•행정자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신분류)-도시(명목), 소 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 수지	○		

(5) 교통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교통 인프라	• 시내버스수	• 도시간 비교지표로 도시의 인구대비 시내버스 공급수준 척도로서 대중교통의 시설공급수준을 파악	• (도시형버스+좌석버스+순환버스)/서울시 주민등록인구(단위: 만명)	• 행정자료 - 교통개선통발반: 서울시 시내버스 현황			○
	• 도시철도 연장	• 도시간 비교지표로 도시의 인구대비 도시철도시설 공급수준척도로서 대중교통의 시설공급수준 파악	• 서울시 지하철 연장(서울시계내)/서울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	• 행정자료 - 교통정책과: 지하철 운행현황	○		
	• 버스전용 차로 연장	•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	• 버스전용차로연장(가로변버스전용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서울시 주민등록인구(단위: 만명)	• 행정자료 -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역수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확충해 나감으로서 점차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구역 수(보호시설물, 노면표지변경 등)	• 행정자료 - 보행자전거과: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 도로연장	• 도로의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그 대상으로 함	• 도로연장	• 행정자료 - 도로계획과: 도로율	○		
	• 버스정류장 수	•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	•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수 + 가로변 버스정류장 수	• 행정자료 - 버스정류장 현황	○		
	• 자동차동수단 설치율	• 시민의 이동 편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도시철도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수평자동보도설치를 파악	• {자동차동수단(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수평자동보도) 설치역/서울시 모든 도시철도역 수}×100	• 행정자료 - 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 승강 편의	○		
	• 저상버스 도입률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표	•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대수, 누적 도입대수	• 희망서울 생활지표		○ (영역, 지표명 변경)	
	• 자전거 도로율	•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율을 파악	• {자전거 도로연장 / 전체도로 연장}×100	• 행정자료 - 보행자전거과: 자전거 도로 현황 - 도로계획과: 도로율		○ (영역 이동)	
교통인프라 신규지표 제안	• 공유차량 대수		• 공유차량 대수, 대여소수, 우선주차면수	• 행정자료			신규
	• 전기차량 대수		• 전기차량 대수, 대여소수, 우선주차면수	• 행정자료			신규
	• 장애인콜택시 대수		• 장애인콜택시 대수	• 행정자료			신규
교통 서비스	• 지하철 최고 혼잡도	• 대중교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하철의 이용실태와 서비스여건 파악	• 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이용승객의 평균재차인원(노선별 최고 혼잡)으로 2년마다 홀수년도에 조사	• 행정자료 - 교통정책과: 지하철 운행현황	○		
	•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 교통수단이용 만족도 및 불만이유를 조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 파악	• 가구원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의 시민이용만족도 조사	• 가구조사	○		
	• 버스통행 속도	• 버스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높은 통행속도는 통행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다양한 버스 운영방법의 도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	• 연도별 버스통행속도	• 행정자료 - 교통정보센터: 차량통행속도			○
	•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율	• 버스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이용안내 단말기 설치율	• {단말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수/전체 버스정류장수}×100	• 행정자료 - 교통정보센터: 정류소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대수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교통 서비스	•중양버스 전용차로 버스 통행속도	•버스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높은 통행속도는 통행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다양한 버스 운영 방법의 도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	•연도별 버스통행속도	•행정자료 - 교통정보센터: 차량 통행속도	○		
	•자전거 이용률	•에너지절약과 대체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도 파악	•가구의원 이동수단 및 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	•가구조사		○ (영역 이동)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가구원 대상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설문	•가구조사		○ (영역 이동)	
	•공유차량, 전기차량 이용률	•전기차 등 대체연료차량이 최근 점차 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대체연료차량대수/전체 차량등록대수)×100	•행정자료 - 친환경교통과		○ (지표명 영역 이동)	
교통서비스 신규지표 제안	•대중교통 이용객수			•행정자료		신규	
	•65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수			•행정자료		신규	
	• 시내버스 배차 정시성			•행정자료		신규	
	•장애인 콜택시 30분 이내 탑승률			•행정자료		신규	
보행환경	•보행환경만족도	•보행자의 질적 보행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향후 보행자 우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표로 중요	•가구원 대상 보행자의 주거지, 도심의 보행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영역 이동)	
	•보도연장 및 면적	•보행환경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요 보행로에 대한 시민 보행의 쾌적한 정도를 파악	•보도면적	•행정자료 - 보도환경개선과: 특별시도상 보도현황		○ (영역 이동)	
	•생활권 보행자 우선 도로 연장	•최근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 필요	•생활권 보행자 도로연장	•행정자료 - 보행자전거과		○ (영역 이동)	
	•보행전용 거리 지정 구역 연장	•최근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 필요	•도로연장 (혹은 면적)	•행정자료 - 보행자전거과		○ (영역 이동)	

교통분야 배경지표

교통 인프라	•도로 연장 Km당 횡단보도 수	•시민 이동의 편리성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건널목수를 파악	•도로연장 횡단보도수	•행정자료 - 교통운영과: 횡단보도	○		
	•도로율	•도시의 면적 대비 도로시설 공급수준 척도로서 교통인프라 수준 파악	•도로면적/시가화면적(=행정구역면적중 공원, 하천, 녹지등을 의미함)	•행정자료 - 도로계획과: 도로율	○		
교통 서비스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교통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이용수준 척도이자 정책기초 활용	•버스, 택시,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	•행정자료 - 교통계획과: 1일 교통수단별 통행현황(분담률)	○		
	•1인당 1일 통행수	•1인당 1일 통행수	•서울시 총 목적통행량/인구수	•행정자료 - 서울연구원: 2006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5년주기)	○		

(6) 환경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대기와 녹지	•미세먼지오염도 (PM-10)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도와 도로먼지 오염도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점 발굴	•PM-10의 서울시 환경기준 및 오염 농도	•행정자료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NO ₂ 농도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점 발굴	•서울시 환경기준 및 NO ₂ 농도	•행정자료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서울시민의 가장 큰 민원인 소음 실태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도로변을 대상으로 측정	•일반 주거지역의 도로변 낮 소음도	•행정자료 - 생활환경과: 소음도	○		
	•지하시설 실내공기질	•시민들이 장시간 체류하는 공공시설 실내공간의 공기질을 측정하여 개선의 필요성 파악	•지하철,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의 PM-10 농도	•행정자료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역사내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공기질 측정결과	○		
	•외국인의 대기환경만족도	•서울시 공기질 만족도를 외국인의 체감수준으로 파악하여 개선의 필요성 검토	•서울거주 외국인이 느끼는 대기의 쾌적한 정도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	○		
	•가로경관 녹시율	•일상생활에서 도시민이 눈으로 체감하는 녹음의 양을 측정하여 도로변 식재와 관련된 녹지사업의 개선점 발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평균	•행정자료 - 조경과: 가로녹시율	○		
	•녹지환경 만족도	•서울시 녹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공원 및 녹지정책에 반영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녹지 접근성	•거주지로부터 10분 이내에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녹지유무를 파악하여 녹지확보정책의 성과 분석	•가구를 대상으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녹지여부를 조사	•가구조사	○		
대기와 녹지 신규지표 제안	•미세먼지오염도 (PM-2.5)	•시민의 건강에 영향이 자동차 및 기타오염의 오염도 지표로서 오염	•PM-2.5 서울시 환경기준 및 오염 농도	•행정자료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신규		
	•건강한 숲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시민의 건강에도 이로운 숲조성의 정책성과 분석	•건강한 숲 체험장으로 조성된 장소 수	•행정자료 - 공원녹지정책과 : 체험숲 현황	신규		
수질과 폐기물	•서울한강 수질오염도(BOD)	•서울한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파악하여 관련 효과평가 및 정책방향 설정	•잠실, 노량진, 행주의 BOD	•행정자료 - 물관리 정책과: 수질 현황	○		
	•서울지천 수질오염도(BOD)	•서울시 지천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조사하여 오염도 정도와 개선점 파악	•서울 지천의 BOD	•행정자료 - 물관리 정책과: 수질 현황	○		
	•음용식수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음용식수를 조사하여 상수도 사업의 개선점 발굴	•가구주의 수도물 이용정도과 주 음용식수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물재이용	•빗물, 하수처리수 등을 청소, 조경, 화장실 등에 재사용하는 양으로 도시물순환량 파악	•자치구 빗물이용량, 중수도량,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을 자치구로부터 집계	•행정자료 - 물관리정책과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수질과 폐기물	•생활쓰레기 발생량	•쓰레기 무 배출의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일반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을 줄임	•생활쓰레기 배출량	•행정자료 -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재활용량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 음식, 건설,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상태 파악	•생활, 음식, 건설, 지정 부문 별 재활용량	•행정자료 - 자원순환과: 폐기물 재활용 현황	○		
	•생활쓰레기 매립 의존도	•서울의 자체처리기반 확보 및 처리과정의 부산물도 최대한 자원화하는 정도를 파악	•생활폐기물 대비 매립지 반입량	•행정자료 -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자원순환과 폐기물기획팀: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		
에너지	•가정용 전력 소비량	•서울 시민의 전력 소비량을 파악해 에너지량 확보 대비	•서울 시민의 가정용전력소비량	•행정자료 - 한국전력공사 출자관리팀: 전력사용량(용도별)	○		
	•물 소비량	•서울 시민의 물 소비량(상수도 비량으로 제한)을 파악해 상수량 확보에 대비	•서울 시민의 상수량 소비량	•행정자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상수도급수현황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파악해 에너지 정책수립에 기여	•서울시의 연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행정자료 - 맑은환경본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에너지절약 시민 참여	•에너지·자원절약에 참여하는 활동형 시민의 발굴 확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행정자료 -기후대기과: 에코마일리지 사업성과	○		
	•생활 에너지 절약 정도	•서울시민들이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파악	•가구별 생활 에너지 절약 정도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구매습관 파악	•GR제품, 환경마크제품의 구매실적을 가구별로 조사	•가구조사	○		
에너지 신규지표 제안	•자원절약·재활용 시민참여	•서울시민의 장바구니 사용, 불용품 기부, 중고품 구매, 재활용제품 구매, 음식물 옥내처리 실천여부 파악	•장바구니 휴대, 아름다운가게 나눔장타 중고품점 녹색가게 이용, 음식물 옥내처리기 사용 등의 여부를 가구별로 조사	•가구조사	신규		

환경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대기와 녹지	•옥상공원화 면적	•건축물 옥상녹화 면적 확충은 투수토양면적의 증가로 이어져 자연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나감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사업 실적자료 중 옥상공원화 확충 면적	•행정자료 - 조경과: 건물주변녹지 현황	○		

(7) 문화와 여가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문화 활동과 향유	•예술관람률	•시민들이 지난 1년간 얼마나 문화 활동을 관람하였는지 살펴 보는 지표	•가구의 문화활동(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관람률	•가구조사	○		
	•영화관람률	•지난 1년간 영화 관람횟수와 총비용을 알아보는 지표	•가구의 지난 1년간 영화관람률	•가구조사	○		
	•스포츠 경기 관람률	•지난 1년간 스포츠 경기 관람 횟수와 총비용을 알아보는 지표	•가구의 지난 1년간 스포츠 경기 관람률	•가구조사	○		
	•전통예술공연 관람률	•전통문화활동의 관람경험과 정도 파악	•가구의 지난 1년간 전통예술공연 관람률	•가구조사	○		
	•외국인 문화활동	•문화활동을 위해 찾는 시설 및 이용정도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및 이용행태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	○		
	•여가레저 활동	•시민들이 지난 1년간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한 여가 및 레저 활동 분야 및 활동일 수 지표조사	•가구의 지난 1년간 활동한 등산, 자전거, 트레킹, 낚시, 골프, 수영, 베드민턴, 테니스 등 활동분야 및 활동일 조사	•가구조사	○		
	•예술활동률	•지난 1년간 시민들이 활동한 예술활동 경험 분야 지표 조사	•가구의 지난 1년간 음악, 미술, 축제, 연극, 전통무용, 댄스 등 예술 분야 활동 분야 조사	•가구조사	○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	•가구의 서울의 문화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축제참여도	•서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축제의 시민참여 여부를 통해 시민참여형 축제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	•가구의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축제 참여 여부 조사	•가구조사	○		
	•한강여가레저 인구수	• 시민들이 한강에서 활동한 여가레저 인구 및 만족도 조사	•축제, 캠핑, 자전거, 수영, 트레킹, 마라톤 등에 참여한 수	•행정자료 -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이용실태 현황	○		
	•고궁 입장객수	•대표적인 전통적 문화유산인 고궁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왔느냐로 문화유산의 홍보관리실적 파악	•고궁(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종묘) 입장객수	•행정자료 - 문화재청 공능활용과: 고궁이용자 현황	○		
문화 활동과 향유 신규지표 제안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도 파악	•지난 1년 간 학교 교육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무	•서울서베이 <도시발전과 주거>파트 <교육환경> 문항 일부 변형		신규	
	•문화예술 자원봉사 경험률	•문화예술 관련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정도 파악	•지난 1년 간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무 중 문화예술관련 건	•서울서베이 <가치와 의식>파트 <자원봉사 비율> 문항		신규	
	•문화예술 중요도	•문화예술의 중요도 인식 정도 파악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	•가구조사		신규	
	•문화예술 관심도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파악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가구조사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문화 활동과 향유 신규지표 제안	•문화예술 여가활동 시간	•여가 활동 중 문화예술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파악	•주말 여가활동 우선 순위 중 문화예술의 선택 비중 확인	•서울서베이 〈여가활동형태〉 문항		신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권수	•대표적인 문화활동의 하나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 실태 파악	•해당년도의 공공 도서관 도서대출 총 수 (백만권)	•행정자료 : 도서관 관리시스템		신규	
	•예술관람비용					신규	
	•영화관람비용					신규	
문화 기반	•문화재수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에 대한 관리 및 발굴정도 파악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등)+등록문화재+시정문화재+문화재자료	•행정자료 - 역사문화재과: 문화재현황	○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유산 잠정목록	•관광자원에 대한 확대 노력 및 가치 보유정도	•세계문화유산 및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수 파악 •세계문화유산 등재후보수에 대한 파악	•행정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도서관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생활 기초시설	•국공립, 공공, 대학, 전문 도서관 개소 수	•행정자료 - 전국도서관통계조사 (http://culturestat.mcst.go.kr)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index.do)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현황	○		
	•전시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로 전시시설은 박물관, 미술관을 포함하며 시민의 문화접근성 담보	•전시시설 수(박물관, 미술관 수)	•행정자료 - 역사문화재과, 문화정책과 : 문화공간(전시시설)	○		
	•공연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로 공연시설은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을 포함하며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담보	•공연시설 수(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행정자료 - 문화정책과: 문화공간(공연장)	○		
	•공공체육시설	•국공립 체육시설은 일반시민들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케 하며 체력 증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서 역할	•공공체육시설 면적	•행정자료 -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현황	○		
	•영화관람시설	•공연시설 중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화된 시설로 시민의 문화접근성 정도를 보여줌	•영화관 수, 스크린수	•행정자료 - 문화산업과: 문화공간(영화관)	○		
	•지역문화시설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시설로 각 지역의 문화환경의 척도가 됨	•지역문화시설수	•행정자료 - 문화정책과 문화기반팀: 지역문화시설현황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문화 시장	•공연 건수 및 전시회수	•공연건수와 전시 회수를 통해서 문화시장 환경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미술 전시회수, 국악 행사건수, 음악행사 건수, 무용행사건수, 연극행사 건수	•행정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		
	•시지정 전문예술 단체수	•문화생산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시지정 전문 예술 법인 지정 단체수	•행정자료 - 문화예술과: 전문예술 법인 지정단체	○		
	•문화관련 사업체수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기타)	•문화관련 사업체수	• 행정자료 - 서울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출판사수	•전국출판의 95% 이상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주요 문화생산업 파악 필요성	•서울시 소재 출판사 수	•행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지역별 등록현황(년도별)	○		
	•문화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문화예술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문화프로그램별 지원 건수 및 액수	•행정자료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현황		○	
문화 시장 환경 신규 지표 제언	•문화예술 고등 교육기관 수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 인프라 현황과 과부족 여부 판단	•문화예술 관련 학과가 1개 이상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과 수	•행정자료 - 교육통계		신규	
	•문화예술 고등 교육기관 졸업생 수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등 문화예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문화예술 인력의 규모 파악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 수	•행정자료 - 교육통계		신규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 수	•문화예술 상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등 문화예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 인력 규모를 파악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도 파악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	•행정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신규	

문화와 여가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문화시장	•민간문화활동 지원액	•기업들이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활동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기업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액 조사	•행정자료 - 한국메세나협회 : 연차보고서		○	
문화 시장 환경 신규 지표 제언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문화예술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 예산 현황 파악	•본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 총액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행정자료 - 재정고 기능별 세출총괄표		신규	
	•외국인 관광객 수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의 추이 파악	•매년 입국자 중 서울 방문자 추산	•행정자료 - 관광통계		신규	

(8) 거버넌스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투명 행정	•청렴도지수	•서울시의 청렴도지수 조사를 활용, 공표하여 대상기관의 부패 방지에 일조하기 위한 지표	•자치단체별 청렴도 지수	•행정자료 - 감사담당관,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지수(자치단체별)	○		
	•정보공개비용	•행정정보가 얼마나 공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표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건 수÷처리건수)×100	•행정자료 -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자 치부 정보공개시스템 (http://open.go.kr)	○		
정보와 지식활용	•통신비 지출정도	•계종별 정보격차의 특성을 보기 위해 인터넷, 휴대폰, 전화, 케이블 등을 포함하는 통신비지출 파악	•소득대비 정보통신비 지출정도를 조사	•행정자료 - 한국 정보화 진흥원: 2013 국가정보화백서 •가구조사			○ (질문 삭제)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무선통신 비중의 증가 속에 새로운 정보기기의 보급사항을 파악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 기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TV등 보유현황 조사	•행정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		
	•사이버 피해 경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한 사이버 피해 경험을 파악하여 정보화의 악영향을 줄여나감	•가구를 대상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명예훼손, 사기, 해킹 등의 사이버 피해 경험정도와 피해항목 조사	•가구조사	○		
	•TV시청시간	•TV시청을 하는 시간 파악	•가구의 일평균 TV시청 시간 파악	•가구조사	○		
	•SNS 이용률	•최근 스마트폰 등 발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이용실태 파악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파악(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가구조사	○		
정보와 지식활용 지표제안	•인터넷 이용률				신규		
시민 참여	•자원봉사 비율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상태를 지수화 함	•가구조사	•가구조사	○		
	•시민 기부	•가구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관적 행복상태에 대한 설문	•가구조사	•가구조사	○		
	•투표율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파악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율	•행정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현황	○		

거버넌스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정보와 지식활용	•인터넷 이용자 수	•인터넷 이용자수를 통한 정보활용 정도를 파악	•만3세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자	•행정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9) 사회통합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전체 인구에서 법으로 지정된 저소득층 인구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인구수)×100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시스템)	○		
	•사회적약자 취업률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지표의 대표적 성과지표(outcome)	•장애인 취업률 •노인취업률(65세 이상) •여성취업률	•행정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구인구직 취업동향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회복지시설 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공급(input)지표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16시도)	○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수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로 생산적인 복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재활시설 수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능력 함양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시설+주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사망률	•장애인사망률을 산출하여 향후 장애인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장애인사망자수/장애인구수)×100	•행정자료 - 장애인자립지원과	○		
	•노인·장애인 수급자율	•전체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장애인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노인·장애인 수 / 노인·장애인 수)×100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	○		
사회적 약자보호 신규지표 제안	•장애인사망연령	•장애인사망연령을 확인하여 평균수명 확인			신규		
고령자 생활	•노인의료 복지시설 보급률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임	•{(노인의료복지시설수(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전문병원)/노인수} ×100,000	•행정자료 - 어르신복지과: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급률	•치매노인, 외병노인 증가로 지역사회내 이들 노인을 위한 이용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재가노인복지시설수(방문요양 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노인수} ×100,000	•행정자료 -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형태	•노인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기존함으로 건강과 활력을 얻음	•가구원(65세 이상 대상)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유형별 사회활동에 대한 참가 여부 조사	•가구조사	○		
	•노후준비방법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여부와 형태를 파악하는 지표	•가구원(65세 이상 대상)이 노후를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독거노인 비율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복지측면의 보조 필요성 증대를 보여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인구수/전체 노인수)×100	•행정자료 - 어르신복지과: 독거노인 현황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고령자 생활	•노인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	•가구원(65세 이상 대상)의 정기검진과 예방접종 여부	•가구조사	○		
	•노후생활 희망 정도	•노후에 희망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정도(소득창출활동, 취미/교양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자기계발, 손자녀 양육)를 설문	•가구조사	○		
	•예상은퇴시기	•예상되는 은퇴시기 및 실제 은퇴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예상은퇴시기 및 실제 은퇴시기 설문	•가구조사	○		
	•은퇴 후 소득 활동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방식(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창업 등)을 설문	•가구조사	○		
	•은퇴 후 희망 소득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에 대해 설문(현재 물가 기준)	•가구조사	○		
	•노인 자살률				○		
	•노인 빈곤율				○		
고령자 생활 신규지표 제안	•노인 1인당 또는 가구당 의료비 비중				신규		
성평등성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이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로서 여성 고용 증진정책의 수요를 판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성별 임금 격차율	•남성 근로자의 임금(100으로 기준)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	•(여성월급여액/남성월급여액)×100	•행정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전국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성별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을 포함	•(비정규직근로자/근로자수)×100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사회통합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사회적 약자 보호	•소득1분위 가구 평균소득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분위 가구수를 파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현실적 정책수요 파악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중 소득1분위 가구평균소득 조사	•행정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신분류)-도시(명목),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		

(10) 가치와 의식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가족 규범과 가치	•가족의 통합성	•가족생활중 가족의 통합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가치관을 파악	•가구의원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조사	•가구조사	○		
	•자녀관	•가족생활 중 자녀관에 대한 서울시민의 가치관을 파악	•가구의원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조사	•가구조사	○		
	•부부관	•가족생활 중 부부관에 대한 서울시민의 가치관을 파악	•가구의원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조사	•가구조사	○		
	•부모관	•가족생활 중 부모관에 대한 서울시민의 가치관을 파악	•가구의원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조사	•가구조사	○		
	•고민의원대상	•가정내에서 고민을 함께 의논하고 조언 받을 수 있는 대화상대를 파악	•가구의원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조사	•가구조사			○ 설문 삭제 (2011)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측정	•가구의원의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상태에 대해 설문 (0~10점)	•가구조사	○		
	•부채 유형	•가정생활의 부채 유형 파악	•가구의원의 부채 원인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아동인권의 사각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며 각종 범죄 발생 원인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발생 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 가정폭력 발생현황	○		
	•가사노동분담정도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분담정도를 통해 성차별적 역할정도를 파악	•가구의원의 남녀별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역할 분담정도 조사	•가구조사	○		
	•청소년 가출건수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충동적이어서 현실을 탈피하려는 욕망이 강한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과잉보호, 경제적인 어려움 등 때문에 시도하는 가출은 원활한 가정생활을 파괴로 만드는 주요 원인	•청소년 가출신고 접수 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 청소년 가출현황			○ 삭제 ¹⁾
가족 규범과 가치 신규지표 제안	•한부모 가구 수	•일반가구 중 한부모(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 가구/일반가구)×100	•행정자료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한부모 가구 현황 - 통계청 : 인구주택 총조사	○		
	•다문화 가족가구	•다문화 가족가구는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미취득자+한국 국적 취득자)+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	•행정자료 -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 다문화가족현황		신규	

1) '가정폭력 발생건수' 지표가 청소년 가출건수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임. 청소년 가출건수 연도별 변화추이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음.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수정	삭제
노동과 소비의식	•직업관	•더 좋은 직장에 대한 이직의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업관을 파악함	•가구의원의 직업관에 대한 가치관 설문	•가구조사	○		
	•일과여가에 대한 태도	•수입증대를위해일하기보다여가 시간확보정도를 파악함	•가구의원의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 설문	•가구조사	○		
	•과시적 소비에 대한 태도	•브랜드 선호도등을 통한 과시적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관을 파악함	•가구의원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가치관 설문	•가구조사	○		
	•외모에 대한 태도	•성형수술에 대한 인지도를 통해 시민들의 가치관을 파악함	•가구의원의 외모에 대한 가치관 설문	•가구조사	○		
노동과 소비의식 신규지표 제안	•직업만족도	•현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업이 있는 가구의원의 현재 직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가구조사	신규		
사회적 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가구의원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주관적 태도 설문	•가구조사	○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가족,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가구의원에게 외국인을 가족,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	•가구조사	○		
	•중산층 귀속의식	•서울시민의 계층의식 파악	•가구의원의 중산층 귀속의식에 대한 설문	•가구조사	○		
	•행복지수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상태를 지수화 함	•가구의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관적 행복상태에 대한 설문	•가구조사	○		
사회적 태도 신규지표 제안	•계층이동경험	•서울시민의 계층이동 경험 파악	•어릴적 계층지위(부모의 지위)와 자신의 현재 지위 비교를 통해 세대간 계층 이동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	•가구조사	신규		
	•서민귀속의식	•서울시민의 서민 의식 파악	•서민지위에 대한 가구원 설문	•가구조사	신규		
	•계층이동 가능성 I	•본인의 노력에 따른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정도를 파악	•가구원 대상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정도를 설문	•가구조사	신규		
	•계층이동 가능성 II	•본인의 노력에 따른 자식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파악	•가구원 대상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정도를 설문	•가구조사	신규		
	•사회자본 유무	•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존재 여부 파악	•신체, 경제,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존재 여부를 묻는 설문	•가구조사	신규		
	•정치참여	•단순 문의부터 시위 참가까지 서울시민의 다양한 정치참여 경험 파악	•소극적 정치 참여부터 적극적 정치참여까지 가구원의 강도별 정치개입 실태조사	•가구조사	신규		

3) 2차 지표검토

(1) 경제

- 출처를 2개 이상 쓴 지표는 실제 사용하는 출처 하나로 수정하고, 출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년도를 표기함
- 「소득증가율」의 개념에 따르면 「지역내 총생산」과 중복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표에 포함될 필요가 없음. 「소득증가율」 지표를 유지하려면 개념을 재정의.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경제 기반	•지역내 총생산 (2014)	•서울의 거시경제규모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 지역내총부가가치(기초가격) + 순생산물세 (2005년 기준)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소득증가율	•인구규모와 지역내 총생산과 함께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음	• $\{(\text{당해년도 가구소득}/\text{전년도 가구소득})-1\} \times 100$	•행정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신분류), 도시(명목), 도시2인 이상 근로자 가구 기준	○	
	•사업체 창업률 (2014)	•연간 경제활동의 성과, 특히 사업 활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 $(\text{당해년도 창업 업체 수}/\text{당해년도 총 사업체수}) \times 100$	•행정자료 - 서울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	
	•지식창출역량	•도시경제의 혁신활동의 성과를 종합 판단하기 위한 지표	•총 출원건수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당해년도) 개별인지? 분석인지?	•행정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	
	•실업률	•경기의 주기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자료로 정책적 대응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외국인 투자유치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적 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	•행정자료 -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현황	○	
	•전국대비 R&D 투자 비중	•서울경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 연구개발 인건비등의 경상지출과 기계장치, 토지, 소프트웨어 등에 지출된 자본지출 등의 상대적 규모 (해석에 주의. 서울시 예산반영X. 중앙정부예산)	• $(\text{서울의 R\&D 투자규모}/\text{전국의 R\&D 투자 규모}) \times 100$	•행정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s.go.kr)_연구개발활동조사	○	
	•고용률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기반 산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 개념이 모호하여 수정이 필요한 지표: 「노동분쟁 건수」, 「도심권차량 속도」
-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 「고급인적자원 역량」, 「고등교육인력」의 세 지표는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개념과 산출방법의 수정이 필요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기업 환경	•사무실 임대료	•도시내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의 임대료를 파악하여 기업 활동과 기업유치에 필수적 요소로 분석함	•서울 지역의 사무실 임대료 값 (4분기 기준)	•행정자료 - 부동산 114/메이트플러스 국토부자료인지? (작년 건의 내용)	○	
	•노동분쟁 건수	•근로 종사자들의 노동분쟁 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여건 개선을 추구	•고용노동부의 연차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조사	•행정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시도별 노사분규 건수	○	
	•사업환경 만족도	•국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국내의 사업환경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서울시의 사업 환경과 관련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사업체의 만족도조사	•사업체 조사(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사업체 조사
	•사무실 연상면적 비율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하부구조로서 오피스의 수급여건을 판단	•(사무실 면적/건축물 총면적)×100	•행정자료 - 건축기획과: 건축물연면적	○	
	•컨벤션 수용능력	•동북아 컨벤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물적 인프라 환경 파악	•서울 소재 컨벤션 수용 인원 •서울소재 MICE 참가자수	•행정자료 - 한국관광공사: 컨벤션 수용현황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tour.go)_MICE 행사통계	○	
	•도심권 차량속도	•도시간의 차량속도를 파악하여 시간손실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킴	•도심의 승용차 차량 속도	•행정자료 - 교통정보과: 차량통행속도보고서	○	
	•기업의 조세부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의 부담정도를 통한 기업환경정책수립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정도에 대한 태도조사	•사업체 조사(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사업체 조사
	•사업상의 규제	•사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환경에 대한 태도조사	•사업체 조사(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사업체 조사
	•행정편의성	•사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처리절차의 편리성에 대한 조사	•사업체 조사(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사업체 조사
기업환경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인적 자원 역량	•인건비 부담정도	•노동력의 임금수준으로 파악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국제적 비교우위를 평가 동 지표는 도시 경제의 노동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부담 정도 조사	•사업체 조사(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열로 분석?	○	사업체 조사
	•노동유연성 비율	•임시직, 일용직 근로 형태 파악	• $\{(\text{임시직 근로자} + \text{일용직 근로자}) / \text{전체 취업자}\} \times 100$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 (2014)	•경제발전의 주된 인적자원으로 연구개발 인력과 고학력 인력을 파악하여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지표임	• $\{(\text{수도권 소재 연구원 당해년도 연구원 수} + \text{수도권대학 석박사 졸업자수}) / \text{인구}\} \times 1,000$ ↑ 중복여부 체크필요 연결 혹은 분리? (연구원만) 다다면 2개로 분리.	•행정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통계_연구개발활동조사 -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 소재 석박사 졸업자수 - 통계청: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한국인)	○	
	•숙련노동력 구득 용이성	•숙련된 인력 확보를 통해 경제 산업활동의 활력성을 높임	•서울소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숙련노동력의 즉시 획득 가능 정도 조사	•사업체 조사(국내, 외국인투자사업체)	○	사업체 조사
	•고급인적자원 역량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존재	• $(\text{관리자} + \text{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text{직업별 취업자 수}) \times 100$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_행정구역(시도)_직업별취업자	○	
	•서울 대학 수 ↑ 늘어나지 않을 텐데 지표로서 가 치가 있는지	•고급인력 배출 Capa 측정 지표	•서울시내 일반대학 학교수	•행정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시도별 설립별 학교수	○	
인적자원 역량 신규지표 제안	•서울 대학생 수	•고급인력 배출 Capa 측정 지표	•서울시내 일반대학 대학생 수	•행정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시도별 설립별 학생수(재적, 재학, 휴학)	○	
	•대학원/대학원생 수	•서울시 대학은 신설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수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 따라서 대학/대학생 수 보다는 신설 가능한 대학원/원생 수를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신규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생활 환경	•공공요금 수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의 한 가지 요소인 공공시설 및 서비스(전기, 수도 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지급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의 가격 변동을 측정(2010=100)	•행정자료 - 통계청: (품목성질별) 소비자 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시민경제생활의 추이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행정자료 - 통계청: (품목성질별) 소비자 물가조사	○	
생활 환경	•학교급별 외국인 학생 수	•제도교육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에 학교급별 외국인 학생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다문화 학생수 •외국인학교 학생수	•행정자료 - 서울시교육청: 외국인학교 현황 - 서울시 교육청: 서울 교육 통계 분석자료집	○	
	•도시위험도	•자연재해를 포함한 사고(야간통행의 안전성, 위험지역의 존재)로부터의 도시 안전성을 파악	•가구의 야간통행/범죄/건물 붕괴/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계산	•가구조사	○	
	•(주관적)소득인식 수준	•가구 소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설문 (1~10점)	•가구조사	○	
	•고용형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상용고용, 임시고용, 자영업 등) 및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 등) 조사	•가구조사	○	
	•국내거주외국인 삶의 질 만족도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도시 삶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파악	•도시 삶의 질 파악 - 서울거주 외국인의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서울시민 개방 및 친밀정도, 의사소통정도 등을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문화 변경
	•문화적 다양성 (친밀도)	•문화활동 및 엔터테인먼트의 향수기회,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과 친밀도 등을 측정 ↑ 최근 Global Startup 사업 서울 내 시행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문화적 친밀도 정도를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기존 문화 삭제 /변경
	•의사소통 가능성	•의사소통(영어) 정도를 파악하여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파악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의사소통 정도를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서울시 물가수준	•외국인 느끼는 서울 물가수준	•서울 물가수준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생활환경 신규지표 제안						

경제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기업 환경	•정보구득용이성	•서울소재 외국인투자사업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업여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사업관련 정보수집의 용이성 등을 조사함	•사업체조사(외국인 투자 사업체)	○	
	•논스톱으로 접근 가능한 도시 수	•도시의 국제적 접근성에 의한 사업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시의 수	•행정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	○	
	•공항화물처리 규모	•항공물류의 허브로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항공화물 처리규모 파악	•당해년도 인천공항 항공화물처리량(톤)	•행정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	○	
	•사무실 공실률	•사무실 공실률을 통한 경제적 여건파악	•서울시 오피스 공실률 → 앞의 오피스 임대료와 자료원이 다른 이유?	•행정자료 - 알투코리아: Office Martket Report 분기별 자료 국토부 자료? (작년 건의)	○	
	•실질임금 상승률	•구매력을 파악함으로써 가계 생활수준의 변화추이를 가늠할 수 있음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행정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부문(4월기준)	○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에 필요한 벤처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서울소재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의한 연간 벤처자본 투자액	•행정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자본투자액	○	
	•수도권내 연구기관 수 ↑정의 조정 필요	•기업의 연구기술개발 활동과 공공의 기술개발투자 등 혁신활동을 위해 공공, 민간 연구기관 수를 파악	•연구개발조직(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체)의 수 ↑대학원 혹은 대학부설연구소 정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업 조사 사업체?	•행정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인적 자원 역량	•석박사 학위자수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자수	•전문 인력 및 전문기술직 측정	•서울 소재 석박사 산업기술인력 수(현원)와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취득자수	•행정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 지역별종목별취득자현황(주소지역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생활 환경	•아파트 임대료	•서울생활의 거주지 마련에 드는 경제적 부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외국인 가족의 거주와 연계	•아파트 임대료 평균(아파트 전세가를 기준으로 최고 최하의 평균값을 산출함)	•행정자료 - 부동산 114: 아파트 임대료	○	
	•월평균 소득	•지역별 월평균 소득액의 정도의 비교를 통해서 지역격차를 비교	•가구주의 월 평균소득 ↑임금 or 자산소득/ 둘 다? 체크 필요	•가구조사	○	

(2) 문화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시민 문화 활동	•예술관람률	•시민들이 지난 1년간 얼마나 문화 활동을 관람하였는지 살펴보는 지표	•가구의 문화활동(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관람률	•가구조사	○	
	•영화관람률	•지난 1년간 영화 관람횟수와 총비용을 알아보는 지표	•가구의 지난 1년간 영화관람률	•가구조사	○	
	•스포츠 경기 관람률	•지난 1년간 스포츠 경기 관람횟수와 총비용을 알아보는 지표	•가구의 지난 1년간 스포츠 경기 관람률	•가구조사	○	
	•전통예술공연 관람률	•전통문화활동의 관람경험과 정도 파악	•가구의 지난 1년간 전통예술 공연 관람률	•가구조사	○	
	•외국인 문화활동	•문화활동을 위해 찾는 시설 및 이용정도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및 이용행태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	○	
	•여가레저 활동	•시민들이 지난 1년간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한 여가 및 레저 활동 분야 및 활동일 수 지표조사	•가구의 지난 1년간 활동한 주말 및 휴일 여가활동(문화예술관람, 운동, 여행, 사회봉사 등) 조사	•가구조사	○	
	•예술활동률	•지난 1년간 시민들이 활동한 예술활동 경험 분야 지표 조사	•가구의 지난 1년간 공예,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분야 ²⁾ 의 활동 조사	•가구조사	○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	•가구의 서울의 문화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축제참여도	•서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축제의 시민참여 여부를 통해 시민참여형 축제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	•가구의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축제 참여 여부 조사	•가구조사	○	
	•한강 여가레저 인구수	•시민들이 한강에서 활동한 여가레저 인구 및 만족도 조사	•축제, 캠핑, 자전거, 수영, 트레킹, 마라톤 등에 참여한 수	•행정자료 -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보고(연도별)	○	
시민 문화 활동 신규지표 제안	•문화예술교육경험률	•지난 1년간 시민들이 학교교육 외에 경험한 문화예술교육(강좌 또는 강습 등) 경험 유무 조사	•가구가 지난 1년간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공예,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의 교육 경험 유무 및 기간 조사	•가구조사		신규
	•동호회 활동유무	•공동체 강화를 위한 서울시민들의 동호회 활동유무 파악	•가구의 예술, 체육, 지역단위의 동호회 활동 참여유무 ³⁾	•가구조사		신규

2) 음악의 경우 전통음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등으로 세분

3) 예술(장르별), 체육(종목별), 지역 등 다양한 단위의 동호회 활동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시민 문화 진흥	•문화재수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에 대한 관리 및 발굴 정도 파악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등)+등록문화재+시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행정자료 - 역사문화재과: 문화재현황	○	
	•고궁 입장객수	•대표적인 전통적 문화유산인 고궁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왔느냐로 문화유산의 홍보관리실적 파악	•고궁(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종묘) 입장객수	•행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유산 잠정목록	•관광자원에 대한 확대 노력 및 가치 보유정도	•세계문화유산 및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수 파악 •세계문화유산 등재후보수에 대한 파악	•행정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or.kr/)	○	
시민문화진흥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문화 기반 환경	•도서관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생활기초시설	•국공립, 공공, 대학, 전문 도서관 개소 수	•행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전시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로 전시시설은 박물관, 미술관을 포함하며 시민의 문화접근성 담보	•전시시설 수(박물관, 미술관 수)	•행정자료 - 역사문화재과, 문화정책과 : 문화공간(전시시설)	○	
	•공연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로 공연시설은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을 포함하며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담보	•공연시설 수(대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행정자료 - 문화정책과: 문화공간(공연장)	○	
	•공공체육시설	•국공립 체육시설은 일반시민들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케 하며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서 역할	•공공체육시설 면적	•행정자료 -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현황	○	
	•영화관람시설	•공연시설 중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화된 시설로 시민의 문화접근성 정도를 보여줌	•영화관 수, 스크린수	•행정자료 - 문화산업과: 문화공간(영화관)	○	
	•지역문화복지시설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시설로 각 지역의 문화환경의 척도가 됨	•지역문화복지시설수	•행정자료 -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아동청소년담당관: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기반 환경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문화시장 환경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공연건수와 전시 횟수를 통해서 문화시장 환경의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한 지표	•미술 전시횟수, 국악행사건수, 음악행사건수, 무용행사건수, 연극행사 건수	•행정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 연감		
	•시지정 전문예술 단체수	•문화생산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시지정 전문 예술 법인 지정 단체수	•행정자료 - 문화예술과: 전문예술법인 지정단체		
	•문화관련 사업체 수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기타)	•문화관련 사업체수	• 행정자료 - 서울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문화예술지원 건 수 및 액수	•문화예술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문화프로그램별 지원건수 및 액수	•행정자료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지 원 현황		
문화기반 환경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문화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문화 시장 환경	•출판사수	•전국출판의 95% 이상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주요 문화생산산 업 파악 필요성	•서울시 소재 출판사수	•행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_ 지역별 등록현황(년도별)	○	
	•민간문화활동 지 원액	•기업들이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활동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지표	•기업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액 조사	•행정자료 -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 서	○	

(3) 관광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도시 브랜드 이미지	•도시브랜드 이미지	•서울에 대한 태도, 관광, 거주 등에 대한 호의 및 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가우원의 서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조사	•가우조사		
도시브랜드 이미지 신규지표 제안	•신규 도시브랜드 인지도	•서울시 새로운 도시브랜드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가우원의 서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조사(신규 브랜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조사)	•가우조사	신규	
					신규	
관광 자원	•관광자원 수	•자연, 인문, 사회, 산업, 도시기반 시설 등 관광관련 자원조사	•기존자원외의 매년 각종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미래 관광자원 조사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단지의 합계	•행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관광자원지원현황)		
관광자원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관광산업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서울방문 외국인 수의 증가 위해 서울의 매력과 마케팅을 활성화 시킴	•(서울 방문객수/전체 외국인 관광객수)×100	•행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래관광객 실태조사(각년도)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국적별 외국인 방문객		
	•국제회의 개최건수	•인적교류에 기초한 서울의 국제화 및 마케팅수준	•당해년도 국제회의 개최건수	•행정자료 - 국제협회연합(UIA): UIA 보고서		
	•관광사업체 성장률	•서울시 관광산업 현황	•전년대비 성장률 파악	•행정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사업체 현황(지역별/기간별 분포현황)		
	•외국인 투숙률	•서울시내 관광숙박업 이용자 중 외국인 투숙률 파악	•(외국인연숙박객수/외국인과 내국인의 연숙박객수 합)×100	•행정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전국숙박업 이용실적 현황(지역별, 호텔자료)		
	•관광숙박시설 수	•관광산업 중 가장 주력산업인 숙박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관광산업 수준을 측정	•서울시내 관광호텔수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서울시내 관광호텔객실수	•행정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전국관광숙박업 현황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수		•외국인 도시 관광 민박업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수(옹어가 틀림) (한옥체험업수도 포함가능)	•행정자료 - 서울시 관광과 등록자료		
관광산업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관광 서비스	•관광안내소 수 및 이용객 수 (언어권별)	•서울소재 관광안내소 수를 파악하여 관광안내서비스 정책에 반영	•서울소재 관광안내소수 및 외국인관광객 이용인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인원수	•행정자료 - 관광사업과: 관광안내소 수		
	•항공편수	•서울시 접근 항공편수를 파악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적 서비스 정책 개선	•인천 및 김포공항 항공편수	•행정자료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공항별 통계		
	•서울시 관광웹사이트 서비스 조사	•서울시 관광웹사이트 서비스 실태 조사 •서울시 관광어플 서비스 조사	•가구원의 서울시 관광웹사이트 인지도 조사 •접속건수 조사(언어제공별 접속건수)	•가구조사 •행정자료 - 서울시 현황자료		
	•서울시민의 관광 개방정도	•서울시민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 정도	•가구원의 직접적인 관광개방 인지도 조사	•가구조사		
	•서울관광만족도	•외래관광객들의 서울관광에 대한 만족도	•서울시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만족도 자료	•서울시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자료 활용		
관광서비스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여가관광 환경	•서울시민의 관광 활동 정도	•서울시민의 국내외 여행활동 정도 파악	•해외여행빈도 및 지출 비용 •국내여행빈도 및 지출 비용	•가구조사		
여가관광 환경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4) 복지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율	•전체 인구에서 법으로 지정된 저소득층 인구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인구수)×100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시스템)	○	
	•사회적약자 취업률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지표의 대표적 성과지표(outcome)	•장애인 취업률 •노인취업률(65세 이상) •여성취업률	•행정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구인구직 취업동향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회복지시설 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공급(input)지표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16시도)	○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수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로 생산적인 복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재활시설수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능력 함양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시설+주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사망률	•장애인사망률을 산출하여 향후 장애인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장애인사망자수/장애인구수)×100	•행정자료 - 장애인자립지원과	○	
	•노인·장애인 수급 자율	•전체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장애인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노인·장애인수/노인·장애인수)×100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건복지부 행복e시스템)	○	
사회적 약자보호 신규지표 제안	•복지분야 예산비율	•전체 서울시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		•행정자료		신규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건강한 삶	•흡연율	•흡연은 개인건강의 위협 요인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 요인임	•흡연여부 설문 •표준화 값 사용, 현재 흡연율은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비만율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며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주원인임	•BMI(체중/신장)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평균수명	•시민들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지표임	•0세기초의 기대여명	•행정자료 - 통계청: 생명표(전국) - 통계청: 시도별 생명표(3년주기)	○	
	•자살률	•정신적인 건강문제와 관련되는 지표임	•(고의적 자해 및 자살자수/인구수)×100,000	•행정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건강상태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임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우울도	•시민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지표임	•가구원 대상 조사	•가구조사	○	
건강한 삶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노후생활	•노인의료 복지시설 보급률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임	• {(노인의료복지시설수(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전문병원)/노인수} ×100,000	•행정자료 - 어르신복지과: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급률	•치매노인, 외병노인 증가로 지역사회 이들 노인을 위한 이용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 {재가노인복지시설수(방문요양 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노인수} ×100,000	•행정자료 -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형태	•노인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기증함으로 건강과 활력을 얻음	•가구원(65세 이상 대상)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유형별 사회활동에 대한 참가 여부 조사	•가구조사		
	•노후준비방법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여부와 형태를 파악하는 지표	•가구원(65세 이상 대상)이 노후를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노후 생활	•독거노인 비율	•해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복지측면의 보조 필요성 증대를 보여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인구수/전체 노인수)×100	•행정자료 - 어르신복지과: 독거노인 현황	○	
	•노인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	•가구원(65세 이상 대상)의 정기검진과 예방접종 여부	•가구조사	○	
	•노후생활 희망 정도	•노후에 희망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정도(소득창출활동, 취미/교양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자기계발, 손자녀 양육)를 설문	•가구조사	○	
	•예상은퇴시기	•예상되는 은퇴시기 및 실제 은퇴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예상은퇴시기 및 실제 은퇴시기 설문	•가구조사	○	
	•은퇴 후 소득활동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방식(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창업 등)을 설문	•가구조사	○	
	•은퇴 후 희망 소득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에 대해 설문(현재 물가 기준)	•가구조사	○	
	•노인 자살률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노인 자살률의 추이를 파악하는 지표	•(65세이상 노인자살자수/65세 이상 노인인구)×100,000	•행정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노인 빈곤율				○	
노후생활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복지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사회적 약자 보호	•소득1분위 가구명 균소득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분위 가구수를 파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현실적 정책수요 파악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중 소득1분위 가구명균소득 조사	•행정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신분류)-도시(명목),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	
건강한 삶	•음주율	•세계 1위 수준인 성인 남녀의 음주율은 각종 암과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음주여부(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음주한 사람의 비율) 설문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5) 여성과 가족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성평등성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이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로서 여성고용 증진정책의 수요를 판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성별 임금 격차율	•남성 근로자의 임금(100으로 기준)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	•(여성월급여액/남성월급여액)×100	•행정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전국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성별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계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을 포함	•(비정규직근로자/근로자수)×100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성평등성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건강한 가정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측정	•가구원의 가정생활에 대한 행태상태에 대해 설문(0~10점)	•가구조사	○	
	•부채 유형	•가정생활의 부채 유형 파악	•가구주의 부채 원인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아동인권의 사각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며 각종 범죄 발생원인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발생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가정폭력 발생현황	○	
	•가사노동분담정도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분담정도를 통해 성차별적 역할정도를 파악	•가구주의 남녀별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역할 분담 정도 조사	•가구조사	○	
	•청소년 가출건수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충동적이어서 현실을 탈피하려는 욕망이 강한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과잉보호, 경제적인 어려움 등 때문에 시도하는 가출은 원활한 가정생활을 파국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	•청소년 가출신고 접수 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청소년 가출현황	○	
	•한부모가구 수	•일반가구 중 한부모(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 가구/일반가구)×100	•행정자료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한부모 가구현황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건강한 가정 신규지표 제안	•외국인과 한국인 결혼 건수	•총 결혼 건수 중 매년 차지하는 비중	•인구분야 서울거주 외국인 영역으로 배치 또는 건강한 가정 영역으로 배치 •건강한 가정 영역명을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여 변경 필요. (ex: 가정 안정성)		신규	
	•다문화가정 비율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정 비중 파악			신규	
보육 환경	•보육시설이용률	•건강한 가정기준을 위한 서울시 아동, 여성정책의 핵심사업이며, 아동과 여성복지의 기초적 지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보육 대상 아동수)×100	•행정자료 - 출산육아담당관: 보육시설 이용(구별)	○	
	•공공보육시설비율	•공공보육시설수의 증가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공공보육시설수(국공립보 육시설수+직장보육시설수+ 법인시설수)/전체보육시설} ×100	•행정자료 - 출산육아담당관: 보육시설 (구별)	○	
	•보육방법	•미취학자녀의 보육방법 •보육시설 이용률로 대체할 수 있는 지표	•가구주의 미취학아동 보육방 법 조사	•가구조사	○	
	•보육시설만족도	•보육시설 이용 및 양육에 대한 전 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가구주의 보육시설별 이용만 족도 조사	•가구조사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 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가임여성 1만명당 합계출산 율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보육환경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여성과 가족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건강한 가정	•조이혼율	•현대사회 가정해체의 한 단면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	•(연간이혼건수/당해 연양인 구)×1000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보육시설이용률	•건강한 가정기준을 위한 서울시 아동, 여성정책의 핵심사업이며, 아동과 여성복지의 기초적 지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보육대 상 아동수)×100	•행정자료 - 출산육아담당관: 보육시설 이용(구별)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보육 환경	•공공보육시설비율	•공공보육시설수의 증가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공공보육시설수(국공립보육시설수+직장보육시설수+법인시설수)/전체보육시설} ×100	•행정자료 - 출산육아담당관: 보육시설(구별)	○	
	•보육방법	•미취학자녀의 보육방법 •보육시설 이용률로 대체할수 있는 지표	•가구주의 미취학아동 보육방법 조사	•가구조사	○	
	•보육시설만족도	•보육시설 이용 및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가구주의 보육시설별 이용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가임여성 1만명당 합계출산율	•행정자료 - 통계청 : 인구동향조사	○	
보육환경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여성과 가족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건강한 가정	•조이혼율	•현대사회 가정해체의 한 단면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	•(연간이혼건수/당해 연앙인구)×1000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6) 환경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대기 환경	•미세먼지오염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도와 도로먼지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점 발굴	•PM-10의 서울시 환경기준 및 오염 농도	•행정자료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NO ₂ 농도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양과 2차 생성 오염물질량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	•서울시 환경기준 및 NO ₂ 농도	•행정자료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서울시민의 가장 큰 민원인 소음 실태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도로변을 대상으로 측정	•일반 주거지역의 도로변 낮 소음도	•행정자료 - 생활환경과: 소음도	○	
	•지하시설 실내공기질	•시민들이 장시간 체류하는 공공 시설 실내공간의 공기질을 측정하여 개선의 필요성 파악	•지하철,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등의 PM-10 농도	•행정자료 - 서울시시설도공사, 서울메트로: 역사내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공기질 측정결과	○	
	•외국인의 대기환경만족도	•서울시 공기질 만족도를 외국인의 체감수준으로 파악하여 개선의 필요성 검토	•서울거주 외국인이 느끼는 대기의 쾌적한 정도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	○	
대기환경 신규지표 제안	•미세먼지오염도	•시민의 건강에 영향이 자동차 및 기타오염의 오염도 지표로서 오염도를 파악하고 개선점 발굴	•PM-2.5 서울시 환경기준 및 오염 농도	•행정자료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신규
						신규
수 환경	•서울한강 수질오염도(BOD)	•서울한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파악하여 관련 효과평가 및 정책방향 설정	•잠실, 노량진, 행주의 BOD	•행정자료 - 물관리 정책과: 수질현황	○	
	•서울지천 수질오염도(BOD)	•서울시 지천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조사하여 오염도 정도와 개선점 파악	•서울 지천의 BOD	•행정자료 - 물관리 정책과: 수질현황	○	
	•음용식수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음용식수를 조사하여 상수도 사업의 개선점 발굴	•가구의 수도물 이용정도과 주 음용식수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물재이용	•빗물, 하수처리수 등을 청소, 조경, 화장실 등에 재사용하는 양으로 도시물순환량 파악	•자치구 빗물이용량, 중수도량,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을 자치구로부터 집계	•행정자료 - 물관리정책과	○	
수환경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자연 환경	•가로경관 녹시율	•일상생활에서 도시민이 눈으로 체감하는 녹음의 양을 측정하여 도로변 식재와 관련된 녹지사업의 개선점 발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평균	•행정자료 - 조경과: 가로녹시율	○	
	•녹지환경 만족도	•서울시 녹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공원 및 녹지정책에 반영	•가구원을 대상으로 현재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녹지 접근성	•거주지로부터 10분 이내에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녹지유무를 파악하여 녹지확보정책의 성과 분석	•가구원을 대상으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녹지여부를 조사	•가구조사	○	
자연환경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폐기물	•생활쓰레기 발생량	•쓰레기 무 배출의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일반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을 줄임	•생활쓰레기 배출량	•행정자료 -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재활용량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 음식, 건설,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상태 파악	•생활, 음식, 건설, 지정 부문 별 재활용량	•행정자료 - 자원순환과: 폐기물 재활용 현황	○	
	•생활쓰레기 매립의존도	•서울의 자체처리기반 확보 및 처리과정의 부산물도 최대한 자원화하는 정도를 파악	•생활폐기물 대비 매립지 반입량	•행정자료 -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자원순환과 폐기물기획팀: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	
폐기물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환경 거버 넌스	•가정용 전력 소비량	•서울 시민의 전력 소비량을 파악해 에너지장 확보 대비	•서울 시민의 가정용전력소비량	•행정자료 - 한국전력공사 출자관리팀: 전력사용량(용도별)	○	
	•물 소비량	•서울 시민의 물 소비량(상수소비량으로 제한)을 파악해 상수량 확보에 대비	•서울 시민의 상수량 소비량	•행정자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상수도급수현황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파악해 에너지 정책수립에 기여	•서울시의 연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행정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에너지·자원절약에 참여하는 활동형 시민의 발굴 확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행정자료 - 녹색에너지과: 2014 에너지백서	○	
	•생활 에너지 절약 정도	•서울시민들이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파악	•가구별 생활 에너지 절약 정도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구매 습관 파악	•GR제품, 환경마크제품의 구매실적을 가구별로 조사	•가구조사	○	
환경 거버넌스 신규지표 제안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량	•서울시 온실가스배출 감축 정책에 활용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량 조사	•행정자료 -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월보		신규
						신규

환경 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자연 환경	•옥상공원화 면적	•건축물 옥상녹화 면적 확충은 투수토양면적의 증가로 이어져 자연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나감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사업 실적자료 중 옥상공원화 확충 면적	•행정자료 - 조경과: 건물주변녹지 현황	○	

* 타 영역 신규 지표 제안

추가지표1. 반려동물 보유가구수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여성과 가족 (건강한 가족)	•반려동물 보유가구수	•건강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수요 파악	•반려동물 보유실태(개, 고양이, 새 등 기타 동물)	•가구조사		신규
						신규

(7) 교통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교통 인프라	• 시내버스수	• 도시간 비교지표로 도시의 인구 대비 시내버스 공급수준 척도로써 대중교통의 시설공급수준을 파악	• (간선버스+지선버스+광역버스+순환버스+심야버스)/서울시 주민등록인구(단위: 만명)	• 행정자료 -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현황	○	
	• 도시철도 연장	• 도시간 비교지표로 도시의 인구 대비 도시철도시설 공급수준척도로써 대중교통의시설공급수준 파악	• 서울시 지하철 연장(서울시계내)/서울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	• 행정자료 - 교통정책과: 지하철운영 현황	○	
	• 버스전용차로 연장	•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	• 버스전용차로연장(가로변버스전용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서울시 주민등록인구(단위: 만명)	• 행정자료 -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역수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확충해 나감으로서 점차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구역 수 (보호시설물, 노면표지변경 등)	• 행정자료 - 보행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 도로연장	• 도로의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그 대상으로 함	• 도로연장	• 행정자료 - 도로계획과: 도로율	○	
	• 버스정류장수	•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	•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수 + 가로변 버스 정류장 수	• 행정자료 -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정류장 현황	○	
	• 자동이동수단 설치율	• 시민의 이동 편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도시철도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수평자동보도 설치율 파악	• {자동이동수단(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수평자동보도) 설치역/서울시 모든 도시철도역 수}×100	• 행정자료 - 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 승강 편의	○	
교통인프라 신규지표 제안	• 보행환경개선장소 수	• 서울시의 보행환경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가능)	• 서울시의 다양한 보행환경개선 사업 실시 개소수	• 행정자료 - 보행정책과: 보행환경개선 사업 현황		신규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교통 서비스	•지하철 최고혼잡도	•대중교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하철의 이용실태와 서비스 여건 파악	•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이용승객의 평균재차인원(노선별 최고혼잡)으로 2년마다 흡수년도에 조사	•행정자료 - 교통정책과: 지하철운행현황	○	
	•교통수단이용 만족도	•교통수단이용 만족도 및 불만이유를 조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 파악	•가구원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의 시민이용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보행환경만족도	•보행자의 질적 보행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향후 보행자 우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표로 중요	•가구원 대상 보행자의 주거지, 도심의 보행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버ست통행속도	•버스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높은 통행속도는 통행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다양한 버스 운영방법의 도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	•연도별 버ست통행속도	•행정자료 - 교통정보센터: 차량통행속도	○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율	•버스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이용안내 단말기 설치율	•(단말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수/전체 버스정류장수)×100	•행정자료 - 교통정보센터: 정류소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대수	○	
교통 서비스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 통행속도	•버스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높은 통행속도는 통행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다양한 버스 운영방법의 도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	•연도별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통행속도	•행정자료 - 도시교통본부,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http://traffic.seoul.go.kr/archives/417)	○	
	•저상버스 도입대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표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대수, 누적도입대수	•행정자료 - 희망서울 생활지표 -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대수 및 누적대수	○	
교통서비스 신규지표 제안					신규	
					신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환경 친화적 교통	•자전거 도로율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율을 파악	•(자전거 도로연장/전체도로연장)×100	•행정자료 - 보행자전거과: 자전거 도로 현황 - 도로계획과: 도로율	○	
	•보도연장 및 면적	•보행환경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요 보행로에 대한 시민 보행의 쾌적한 정도를 파악	•보도면적	•행정자료 - 보도환경개선과: 특별시 도상 보도현황	○	
	•자전거 이용률	•에너지절약과 대체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도 파악	•가구의 이동수단 및 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	•가구조사	○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가구원 대상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설문	•가구조사	○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연장	•최근 보행자를 우선하는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 필요	•생활권 보행자 도로연장	•행정자료 - 보행정책과: 보행자우선 도로 조성현황	교통인프라 신규 제안지표로 통합 제안	
	•보행전용 거리 지정 구역 연장	•최근 보행자를 우선하는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 필요	•도로연장 (혹은 면적)	•행정자료 - 보행자전거과: 보행전용 거리조성 및 운영	교통인프라 신규 제안지표로 통합 제안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전기차 등 대체연료차량이 최근 점차 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대체연료차량대수/전체 차량 등록대수)×100	•행정자료 - 친환경교통과	○	
환경친화적 교통 신규지표 제안	•공공자전거 이용률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공공자전거 이용실적	•행정자료 - 자전거정책과	신규	
					신규	

교통분야 배경지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속성 여부	
					유지	삭제
교통 인프라	•도로 연장 Km당 횡단보도 수	•시민 이동의 편리성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건널목수를 파악	•도로연장 횡단보도수	•행정자료 - 교통운영과: 횡단보도	○	
	•도로율	•도시의 면적 대비 도로시설 공급 수준 척도로써 교통인프라 수준 파악	•도로면적/시가화면적(=행정구역면적 중 공원, 하천, 녹지 등을 의미함)	•행정자료 - 도로계획과: 도로율	○	
교통 서비스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교통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이용수준 척도이자 정책기초 활용	•버스, 택시,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	•행정자료 - 교통계획과: 1일 교통수단별 통행현황(분담률)	○	
	•1인당 1일 통행수	•1인당 1일 통행수	•서울시 총 목적통행량/인구수	•행정자료 - 서울연구원: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5년주기)	○	

2. 실국 수요조사

서울서베이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가구 및 외국인 조사 문항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실국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실국수요조사는 2016년 1월, 2차 조사는 2016년 8월에 실시하였다.

1) 서울서베이 활용도

(1) 1차 수요조사

부서	활용 여부	활용수단	업무도움정도	개선점
서초구 기획예산과	○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아주 많은 도움	-
용산구 기획예산과	○	- 정책결정 기초자료 - 업무계획 수립시 활용 - 대시민만족도 및 업무의 평가 자료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아주 많은 도움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 정책결정 기초자료 - 업무계획 수립시 활용 - 대시민만족도 및 업무의 평가 자료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아주 많은 도움	- 매년 질문지 변동으로 인해 연도 별 추이를 분석하기가 어려움(지 역별 지표는 최대한 지속 유지) - 가능하면 자치구별로 분석 결과가 나오길 바람
평생교육담당관	○	- 정책결정 기초자료 - 업무계획 수립시 활용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아주 많은 도움	- 실생활에 밀접한 자료(지표) 필요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도움이 되는 편	-

(2) 2차 수요조사

부서	활용 여부	활용수단	업무도움정도	개선점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 업무(사업)계획 수립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아주 많은 도움	-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 측정에 필요한 '도서관 방문자수', '대출책수' 등 실제적인 지표를 포함시키면 좋겠음
물재생계획과	○	-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 업무(사업)계획 수립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도움이 되는 편	- 통계자료의 정확도 향상 필요
평생교육담당관	○	- 정책결정 기초자료 - 업무계획 수립시 활용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아주 많은 도움	- 실생활에 밀접한 자료(지표) 필요
중랑구	○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도움이 되는 편	- 자치구별 비교자료를 포함했으면 좋겠음 - 발표시기를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음
강북구	○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도움이 되는 편	- 분석단위의 세분화(자치구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도움이 되는 편	-
종로구	○	- 연구, 학술, 학습 등	도움이 되는 편	- 서울서베이의 목적상 서울시 전체를 아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치구에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쓰기엔 좀 미흡. 자치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하면 좋겠음
서대문구	○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 연구, 학술, 학습 등	아주 많은 도움	- 분석단위가 좀 더 세분화되면 좋겠음
마포구	○	-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도움이 되는 편	- 표본조사의 한계는 있지만, 자치구 간의 비교가 가능한 항목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음 - 현장 조사 결과와 실제 행정자료 간의 조합 필요

2) 조사항목 보완 및 추가관련사항

(1) 1차 수요조사

부서	자료구분	보완 또는 추가 항목	보완 및 추가해야 할 세부 내용	
			현행내용	보완 또는 추가 항목의 세부내용
용산구 기획예산과	외국인조사	자치구별로 분석결과 도출 요청 (우리국민의 현황파악 어려움)	현재는 지역별로 분석이 안되고 서울시 전체 분석 임	지역별(자치구별)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각 자치구에서 정책결정 및 평가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가구조사 (경제)	자치구별로 분석결과 도출요청함		지역내 총생산, 소득증가율, 사업체 창업률, 실업률 등의 지역별(자치구별)로 분석결과를 도출 필요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가구조사 (거버넌스/정보와 지식활용)	사이버 피해 경험(보완)	가구를 대상으로 컴퓨 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명예훼손, 사기, 해킹 등 의 사이버 피해 경험정도 와 피해항목 조사	사이버 피해경험 정도와 피해항목 조사 시 물카(물래카메라) 피해경험, P2P사이트 유통 피해 정도 보완 또는 건강과 안전/생활안전/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 도 : 물카 피해 두려움 정도 조사(성별) 추가
	행정자료 (사회통합/ 성평등성)	공공기관 대표성 (의사결정) (추가)		공공기관 여성 비율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 각 기관장, 이사, 감사 성별 비율 - 서울시 위원회, 산하기관 이사회 여성비율 - 지역내 의사결정 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여 성비율
	행정자료 가구조사	장애(추가)		서울시민의 장애(성별) 현황 파악 추가
	가구조사 (교통/보행환경)	보행환경만족도 (보완)	가구원 대상 보행자의 주 거지, 도심의 보행만족도 조사	가구원 대상 보행자의 주거지, 도심의 보행만족도 조사 시 성별, 장애 구분 보완
	행정자료 가구조사		분야별 성별분리통계 추 가	지표별 성별 조사 및 분석 (특히 경제, 건강과 안전, 사회통합, 가치와 의식 분야 등)
평생교육 담당관	가구조사		•격년조사 •질문문항 2개 ①평생교육 참여여부 ②향후 받고 싶은 교육 은(3개 선택)	•서베이조사 격년에서 매년 조사로 변경 •질문문항 추가 : 2개내용 추가 ① 평생교육 참여여부 ② 평생교육 참여 장애요인(추가) ③ 평생교육 환경 만족도(추가) - 교육접근성, 교육수준 및 질, 비용 ④ 향후 받고 싶은 교육은

(2) 2차 수요조사

부서	자료구분	보완 또는 추가 항목	보완 및 추가해야 할 세부 내용		
			현행내용	보완 또는 추가 항목의 세부내용	
서울도서관 도서관 정책과	행정자료	도서관 지표	개념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생활기초시 설	•도서관법에 의한 문화기반시설로 효율적인 지식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이용의 격차해소 와 정보접근성을 담보
			산출 방법	•국공립, 공공, 대학, 전문 도서 관 개소 수	•국립, 공공(자자체,교육청,사립) 도서관 수 조사는 필수로 하되, 대학, 학교, 전문 도서관 수 조사는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및 도서관법을 참조함
			출처	•행정자료 - 전국도서관통계조사 (http://culturestat.mcst.go. kr)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in dex.do)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현황	•행정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11316호이며, 특히 공 공도서관 통계는 2015.12월 기준 통계자료 제공함 - 전국도서관통계조사 (http://culturestat.mcst.go.kr) - 도서관정책과(서울시 도서관 현황)
재생계획과	가구조사	3자녀 이상 가구의 수 (자녀수별 가구 통계)	가구구성원수별 가구 통계	기존의 가구구성원수별 세대 통계에 추가하여 자 녀수별 세대 통계 필요 (ex) 1자녀 가구 xx세대, 2자녀 가구 xx세대, 3 자녀 가구 xx세대 등	
평생교육 담당관	가구조사	조사시기, 설문추가	- 격년조사 - 질문문항 2개 ①평생교육 참여여부 ②향후 받고 싶은 교육은 (3개 선택)	- 격년조사에서 매년 조사로 변경 - 질문문항 추가 : 2개내용 추가 ① 평생교육 참여여부 ② 평생교육 참여 장애요인(추가) ③ 평생교육 환경 만족도(추가) - 교육접근성, 교육수준 및 질, 비용 ④ 향후 받고 싶은 교육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	가구조사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24.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 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 관련한 다음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 이 있으십니까? 받아 보신 적이 있는 항 목을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② 학원, 사회(평생)교육원 수강 ③ 지역 문화 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주 민센터 등 강좌 수강 ④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 ⑤ 스터디클럽, 개인과외 등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 ⑦ 받아 본 적 없다	문24.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 관련한 다음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 보신 적 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②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③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TV/인터넷 강좌 수강) ④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⑤ 학습동아리 ⑥ 개인교습 ⑦ 기타 (구체적으로 : ____) ⑧ 받아 본 적 없다	

부서	자료구분	보완 또는 추가 항목	보완 및 추가해야 할 세부 내용	
			현행내용	보완 또는 추가 항목의 세부내용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	가구조사	참여 희망 프로그램	문24-1. 귀하는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정의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컴퓨터 관련 교육 ②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 교육 ③ 일반기술직업교육 ④ 어학 관련 교육 ⑤ 취미, 문화, 교양, 여가선용 관련 교육 ⑥ 사회봉사 관련 교육 ⑦ 정규교육 과정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 ⑨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귀하는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정의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음악, 미술, 스포츠 강좌) ② 인문교양교육(외국어, 컴퓨터, 취미교양 강좌) ③ 직업능력향상교육(공인점수 및 자격증 취득,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④ 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 독학사, 검정고시 등) ⑤ 문해교육(한글교실, 산수교실 등) ⑥ 시민교육(지역지도자, 시민참여, 사회봉사 등) ⑦ 정규교육과정(대학(원) 학위취득 과정)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 ⑨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참여하지 못한 이유	(신규) 교육부 시행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와 동일 문항	귀하는 지난 1년간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없었음 ② 건강상의 이유로 ③ 동기, 자신감 부족 ④ 직장업무로 인해서 ⑤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⑥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강사, 프로그램 등) ⑦ 교육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⑧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⑨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 기관이 없어서 ⑩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⑪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정보 접근성	(신규) 교육부 시행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와 동일 문항	귀하는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접한 적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접한 적 없었음 ② 가족, 이웃, 친구 ③ 직장동료 및 상사 ④ 경력개발 안내기관(고용지원센터 등)의 전화 상담 및 직접 방문 ⑤ 교육훈련기관(학교, 대학, 평생학습센터 등)의 전화 상담 및 직접 방문 ⑥ 인터넷이나 기관 홈페이지, 휴대폰(스마트폰 등) ⑦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전단광고 등) ⑧ 지역자치단체의 소식지 ⑨ 인쇄매체(책, 잡지 등) ⑩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부서	자료구분	보완 또는 추가 항목	보완 및 추가해야 할 세부 내용	
			현행내용	보완 또는 추가 항목의 세부내용
서울 50플러스재단 ⁴⁾	행정자료 가구조사	서울의 50+세대 ⁵⁾ 일반현황	서울의 베이비부머 세대 조사	서울시 50+정책 대상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 ※ 현재 보통사람(베이비부머) 대상 조사항목을 서울시 주요 정책 대상인 50+세대 조사로 전환하는 것 검토 희망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협의 필요)
	행정자료	50+세대 시설 ⁶⁾ 보급률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노인으로 복지시설 보급률 항목	50+세대 관련 지원정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행정자료	50+세대 취업률	사회적 약자 취업률> 장애인, 노인, 여성 (65세 이상) 취업률	은퇴시기가 5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50+세대 취업률' 추가 (다만, 사회적 약자 보호 영역보다 다른 영역으로 넣을 필요)
	가구조사	50+세대 소득활동 (급여수준, 근로시간 포함)	6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은퇴 후 소득활동 항목	50+세대의 은퇴 후 소득활동 정도를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조사	노후 필요자금 준비	6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방법 항목	50+세대의 노후 필요자금 준비 여부와 형태를 파악하는 지표 (전 연령층 대상 조사)
	가구조사	예상/희망/실제 은퇴시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예상은퇴시기 항목	50+세대 및 전 연령층 대상으로 예상/희망/실제 은퇴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	50+세대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만족도 조사(은퇴 전, 후 비교)
	가구조사	50+세대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정도	-	50+세대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 실태(50+세대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수) 사회적 관계망 욕구(새로운 유형의 관계망 확장 욕구) 등 조사
	가구조사	사회봉사에 대한 희망 정도/인식	시민의식) 자원봉사 비율 조사하고 있음	사회봉사에 실제 참여하는 비율과 함께 사회봉사/사회활동 참여에 희망/욕구하는 정도 및 인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가구조사	50+세대의 건강실태	6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노인건강관리 항목	50+세대의 건강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신체적 건강/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정기적 점검 여부)
	가구조사	삶의 만족도	-	50+세대의 삶의 만족도 조사 : 전반적 만족도, 항목별 만족도(일/직업, 소득/자산,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사회참여, 건강) 조사
	사업체 조사	50+세대 채용 의사	-	50+세대 채용의사 여부 : 채용기준 및 조건, 1인당 월평균 인건비 지불의사(일반직원 평균 급여와 비교해서 몇 % 정도 지불가능)

4) 현재 베이비부머와 중장년층 구분에 덧붙여(or 베이비부머 세대 대체) 50+세대(만 50~64세, 1952~1966) 정보 구축 희망

5) 50+세대 정의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167호)에 근거, 만 50~64세를 지칭

6) 50+시설 정의 : 50+캠퍼스, 50+센터 등 50+세대를 위한 전용공간 (※인생이모작지원과 검토 필요)

부서	자료구분	보완 또는 추가 항목	보완 및 추가해야 할 세부 내용																																		
			현행내용	보완 또는 추가 항목의 세부내용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가구조사	문 25 (보완)	문25. 귀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환경개선, 독거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노숙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중요 ④ 약간 중요 ③ 보통이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문25. 귀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환경개선, 이웃돌봄, 공동체회복)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중요 ④ 약간 중요 ③ 보통이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문 26 (추가/ 보완)	문26.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참여횟수 및 1회당 평균 활동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table><tr><th>활동분야</th><th>연간 참여횟 수</th><th>1회당 평균 활동 시간</th></tr><tr><td>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td><td>회</td><td>시간</td></tr><tr><td>2) 자녀교육 등과 관련 (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td><td>회</td><td>시간</td></tr><tr><td>3) 아동, 청소년,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과 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 등)</td><td>회</td><td>시간</td></tr><tr><td>4) 문화예술관련(문화교육, 안내, 재능기부 등)</td><td>회</td><td>시간</td></tr><tr><td>5) 참여한 적 없음</td><td></td><td></td></tr></table>	활동분야	연간 참여횟 수	1회당 평균 활동 시간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시간	2) 자녀교육 등과 관련 (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회	시간	3) 아동, 청소년,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과 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 등)	회	시간	4) 문화예술관련(문화교육, 안내, 재능기부 등)	회	시간	5) 참여한 적 없음			문26.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27로) 문26-1.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 각 분야별로 연간 참여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table><tr><th>활동분야</th><th>연간 참여횟수</th></tr><tr><td>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td><td>회</td></tr><tr><td>2)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자원봉사</td><td>회</td></tr><tr><td>3) 환경보존·보호를 위한 자원봉사</td><td>회</td></tr><tr><td>4) 재능나눔, 문화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td><td>회</td></tr><tr><td>5) 국제사회 관련 자원봉사</td><td>회</td></tr><tr><td>6) 기타 자원봉사활동</td><td>회</td></tr></table>		활동분야	연간 참여횟수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회	2)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자원봉사	회	3) 환경보존·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회	4) 재능나눔, 문화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회	5) 국제사회 관련 자원봉사	회	6) 기타 자원봉사활동	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횟 수	1회당 평균 활동 시간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시간																																	
		2) 자녀교육 등과 관련 (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회	시간																																	
3) 아동, 청소년,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과 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 등)	회	시간																																			
4) 문화예술관련(문화교육, 안내, 재능기부 등)	회	시간																																			
5) 참여한 적 없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횟수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회																																				
2)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자원봉사	회																																				
3) 환경보존·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회																																				
4) 재능나눔, 문화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회																																				
5) 국제사회 관련 자원봉사	회																																				
6) 기타 자원봉사활동	회																																				
문 27 (보완)	문27.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④ 반드시참여 ➡ (문27-1로) ③ 참여 의향 있음 ➡ (문27-1로) ② 참여 의향 없음 ➡ (문27-2로) ① 절대 비참여 ➡ (문27-2로)	문27.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④ 반드시참여 ➡ (문27-1로) ③ 참여 의향 있음 ➡ (문27-1로) ② 참여 의향 없음 ➡ (문27-3로) ① 절대 비참여 ➡ (문27-3로)																																			
문 28 (보완)	문28.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 중 가장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 ①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② 봉사자의 자질 향상 ③ 봉사기관의 이해와 협조 ④ 봉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 ⑤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⑥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⑦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28.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 중 가장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 ①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확대 ② 봉사기관의 이해와 협조 ③ 봉사자에 대한 교육 확대 ④ 봉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 ⑤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⑥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제공 ⑦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제2절 국내·외 지역, 사회지표 리뷰

1. 국내 지역, 사회지표 리뷰

1) 한국의 사회조사 7)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조사대상 : 전국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
- 조사주기 : 매년 (각 부문별 2년 주기)
- 조사시기 : 각 년도 5월 (16일 간)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자기기입(응답자 기입)”방법 병행
- 표본추출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의 보통조사구(1), 아파트조사구(A) + 2013년 10월까지의 신축 아파트조사구 + 세종시 특별선서스 조사구를 대상으로 함
 - 층화 : 시도별 추정이 가능하도록 7대 특·광역시와 세종시 및 9개 도지역에 대한 동/읍면부로 층화 (총 27개 층)
- 표본추출
 - 27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 수(MOS)를 기준으로 확률비례 계통추출방법(PPS :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으로 표본조사구를 추출했으며, 표본 가구는 단순임의추출로 시작가구를 추출 후 시작 가구를 기준으로 연속된 12가구를 선정
 - 표본조사구 : 1,548개. 목표표본가구 : 18,576가구, 실제표본가구 : 25,233가구
 - 1,548개 조사구, 조사구 당 16~17가구

(3) 조사내용

- 전체부문 :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 2015년 조사부문(5개) :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2016년 조사부문(5개) :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7) 2016년 사회조사 지침서 참조

| 표 4-1 | 한국의 사회조사 조사부문과 조사항목

조사부문		조사항목	
기본사항 (14)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주관적 만족감,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거주종류, 점유형태, 배우자의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가구소득	
2015	복지 (17)	- 생활여건의 변화 -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 선호 장례방법 -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 여부 - 사회의 장애인 차별 정도 - 장애인에 대한 견해 - 장애인 관련 시설	-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성 - 우선 확대 실시 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본인의 노후준비 방법 -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 생활비 마련 방법 -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사회참여 (18)	- 사회적 관계망 - 단체참여 - 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 - 기부 내용 - 기부의 정기성 - 기부 희망분야 - 기부대상 인지 경로 - 향후 기부 의사 - 유산 기부 의사	- 기부 문화 확산 -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의 정기성 -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 -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 계층의식 - 본인세대의 계층이동 - 다음세대의 계층이동
	문화와 여가 (11)	- 신문 - 독서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 레저시설 이용 횟수 - 국내 관광 여행횟수 -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 여가활동 동반자 - 여가활동 만족도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소득과 소비 (6)	- 주관적 소득수준 - 소득과 부채의 변화 -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	- 긴축소비 지출항목 - 소득 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노동 (9)	- 직업선택요인 -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여성취업 장애요인 - 알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 고용의 안정성 -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 근로여건 만족도 -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016	보건 (16)	- 건강평가 - 건강관리 - 흡연 - 금연시도 - 금연이 어려운 이유 - 음주 - 절주·금주 시도 - 절주·금주가 어려운 이유	- 유병기간 - 치료방법 - 의료 서비스 만족도 - 의료 서비스 불만족 이유 -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 여부 - 스트레스 정도 - 자살에 대한 총동 - 자살 총동 이유

조사부문		조사항목	
	교육 (20)	- 학생 여부 - 재학생 여부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 수준 - 학생의 기대 교육 목적 - 대학생 여부 -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 교육 기회의 충족도 -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 여부 - 현재 및 과거 취업 여부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학교교육의 효과 - 학생 자녀 유무 -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 -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목적 -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 - 자녀 유학 이유 - 교육비에 대한 인식 - 교육비 부담 요인
	안전 (9)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5년 전) -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5년 후) -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	- 자신의 준법 수준 - 공공질서 준수 수준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가족 (20)	- 부모 생존 여부 -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 부모와 동거자 - 부모 동거 여부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가족 중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 결혼에 대한 견해 - 이혼에 대한 견해	- 재혼에 대한 견해 - 입양에 대한 견해 -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가사분담 실태 - 가족 관계 만족도 -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 분가가족 - 가족분거 이유 및 기간
	환경 (9)	- 현재 체감 환경 - 환경 상황 변화(5년 전) - 환경 상황 변화(5년 후) - 환경보호 비용 부담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환경오염 방지 노력 - 요일제 참여 현황 - 자동차 운전 여부 - 친환경 운전 습관

2) 한국일반사회조사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한국인의 사회적 행위와 태도, 한국 사회의 구조와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사회과학 조사자료를 창출하여, 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공익적 학술조사 사업
- 조사대상 :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시기 : 각 년도 6월(2개월)
- 조사단위 : 2,500명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방문을 통한 대면심층면접(in-depth interviews)방법으로 실시
- 표본추출
 - 다단계지역확률표집: 여러 단계를 거쳐 인구비례확률로 층화된 지역별 집락표본을 추출
 - ① 최종 표집블럭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전국의 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
 - ② 각 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큼의 1차표집단위인 읍면동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
 - ③ 추출된 각 읍면동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블럭(동의 경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로 선정
 - ④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서 표집원이 가구의 표집틀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두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무작위로 표집
 - ⑤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지정

(3) 조사내용

| 표 4-2 | KGSS의 조사부문과 조사항목

조사부문		조사항목	
반복핵심조사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별 - 연령 - 응답자 소득	- 배우자 소득 - 가구 총소득 - 응답자와 배우자 및 부/모의 교육수준
	정치	- 정치성향 -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 지지정당	- 투표행위 - 한국정치에 대한 전망 - 현 정권의 국정 운영평가

조사부문		조사항목	
반복핵심조사	북한/민족	- 북한에 대한 태도 - 남북통일의 필요성	- 한국 거주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경제	-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사회적 신뢰	-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 - 사람들에 대한 신뢰	-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일상생활/종교	- 종교유형	- 종교집회 참석빈도
	가계/계층	- 가계상황 만족도 - 가계의 변화 - 소득수준에 대한 평가	- 가계에 대한 전망 - 계층귀속감 - 생활수준 변화 예측(부모/자녀)
	가족/결혼	- 혼인상태 - 자녀유무 - 동거 및 별거가족 - 가족 이외 동거인수	- 가족 및 가구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응답자와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동거여부, 비동거사유, 취업여부, 미취업사유)
ISSP 주제모듈 조사	시민권 II	- 응답자의 취업상태 - 직업 - 고용상태 - 평균 근무시간 - 근속가능성 - 근무부문 - 노조가입여부 - 부하직원 여부 - 자영시 피고용인수	- 실업시 구직노력 - 배우자의 취업상태 - 배우자의 직업 - 배우자의 고용상태 - 배우자의 평균 근무시간 - 배우자의 근속가능성 - 배우자의 부하직원 여부 - 배우자의 실업시 구직 노력
		- 시민의 덕목 - 시민의 권리 - 정치적 관용도 - 매체를 통한 정치뉴스 접촉정도 - 사회단체 참여여부 및 활동정도 - 정치적 참여의사 및 참여여부 - 정치적 효능성	- 정치인에 대한 의견 및 정치에 대한 관심도 - 국제 기구 -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평가 - 부정부패 만연 정도 -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평가
특별 주제모듈 조사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의 중요성 - 차별 - 부패 - 교육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정부의 역할	- 계급갈등 인식 - 주관적 계층의식 - 주관적 사회이동 - 소득 정당성 - 사회에 대한 이미지
	위험사회	- 한국사회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 -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	- 한국사회의 위험 발생 가능성 -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주) 2014년 기준

3) 사회통합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2015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 조사주기 : 매년(1년 주기)
- 조사시기 : 각 년도 6월(2개월)
- 조사연혁

- 2011년 : ‘사회통합 실태조사’, ‘사회갈등 실태조사’, ‘공정성 실태조사’ 최초 실시
- 2012년 :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2013년 :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실시, ‘사회통합 실태조사’ 총 7개 부문으로 조사항목 전면 개편, ‘13.7.9. 통계청 국가승인(협의)통계 지정(일반·조사 통계, 승인번호: 41701)
- 2014년 :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실시, 조사항목 추가(공정성 부문 추가, 7개 부문 → 8개 부문), 표본규모 확대(5,000명 → 7,500명)
- 2015년 :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실시, 조사항목 추가(주관적 안녕감 및 역능성(권리부여) 부문 등 보완), 표본규모 확대(세종시 분리, 7,500명 → 7,700명)

(2)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함
- 단,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기입식조사」 방법을 병행

(3) 조사내용

- 8개 부문으로 구성
 - 주관적 안녕감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공정성, 관용성 (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표 4-3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부문과 조사항목

조사부문	조사항목	
기본사항	• 성별	• 일자리가 없었을 경우 하고 있었던 일
	• 생년월일	• 직장 내 지위
	• 가구주와의 관계	• 직장구분
	• 혼인상태	• 월 평균 개인·가구 소득
	• 교육정도	• 해당 지역 정주 기간
	• 일주일 간 일자리 보유 여부	
	• 직업	
주관적 안녕감 및 역능성(권리부여)	•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걱정·우울 정도)	
	• 삶에 대한 만족도	
	•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전성 정도	
	• 삶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정도	
	•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 살고 있는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속감	

조사부문	조사항목
	•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가능성(본인, 자녀) •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 만족도 • 향후 정치·경제 상황 전망 • 북한에 대한 시각 • 성장·분배 가치에 대한 생각 •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가치 •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국가목표
사회 참여	• 사회적 당위와 개인의 이타심 정도 • 개인의 문제를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생각 • 사회단체 활동 정도
정치 참여	•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정부 업무에 대한 관심 등 시민의식에 대한 중요도 •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개인의 정치 효능감 •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타인의 인지 정도 •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피력 경험 여부 • 대통령 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여부 • 지지 정당 유무 • 본인의 이념적 성향
사회적 소통	•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와 접촉방식 • 위기 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경제적·신체적·정신적 위기) •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정도 •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신뢰	• 일반적 인간관계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 집단별 신뢰 정도 • 기관별 신뢰 정도 • 기관별 청렴도 인식 정도 • 집단 간 협력 정도
공정성	•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관용성 (사회적 포용)	•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 •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 • 사회갈등의 원인 • 우리 사회 갈등 정도에 대한 생각 •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에 대한 인식
사회보장	•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 가입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종류 •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 • 중병 발병 시 대처 가능 경제력 정도 •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 안정 정도 •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여부

4) 통계청 지역사회지표 매뉴얼⁸⁾

(1) 지역통계

지역통계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분석 및 각종 정책의 수립, 집행, 관리, 평가, 환류를 목적으로 단위 행정구역별로 작성되는 통계이다. 통계청에서는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과정, 참고 지표체계 등이 담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2) 지역사회지표작성 과정 10단계⁹⁾

- ① 작업팀(working group) 구성
 - (구성) 지역사회의 규모와 다양성을 고려하여 5~25명으로 구성
 - (역할) 구축과정 설계, 기술적 내용 검토, 자료 수집 및 결과물 확산
- ② 목적의 명료화
 - (목적) 시민교육, 정책의 기초정보 제공, 성과평가
- ③ 지역의 공유된 가치와 비전 확인
 - (정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치이며, 비전은 가치가 미래로 투영된 이미지
 - (방법) 비전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영역의 대표들이 참여해야 함
- ④ 기존 모델 지표 및 자료 검토
 - 지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보고서를 가능한 초기에 작업팀에서 검토 필요
- ⑤ 제안용 지표체계 작성
 - 프로젝트의 목적, 비전 및 기존자료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지표 개발
- ⑥ 지표선정과 타당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구성
 -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하고, 주민참여도 필수적
- ⑦ 기술적 검토 수행
 - 실제로 측정가능하고 기술적 문제가 없어야 함
- ⑧ 자료 수집
 - 지표 자료 수집과정에서 작업팀은 자료의 질과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지표의 유지와 제의를 판단
- ⑨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⑩ 규칙적인 보고서 개선

8) 통계청, 2015 국가통계백서, 87-94.

9) 통계청,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 지역사회지표 작성방법, 2013.

(3) 지역사회지표: 11개 영역, 총99개 지표¹⁰⁾

| 표 4-4 | 지역사회지표 목록

지표	정의 및 측정	자료출처
1. 인구		
주민등록인구,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	주민등록인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인구 자연증가율: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1,000분비 조출생률=연간출생아수/당해연도의 연앙인구*1000 조사망률=연간출생아수/당해연도의 연앙인구*1000 자연증가율=조출생률-조사망률 인구성장률: 출생,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율과 인구가동에 의한 사회적증가율의 합으로,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율 인구성장률=[(해당연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100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성 및 연령별 인구	5세 간격별 성별 주민등록인구와 연령별 및 성별 구성비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평균연령: 총인구에 대한 연령의 평균 중위연령: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우면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총 부양비: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지표 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0~14세)/생산가능인구(15~64세)]*100 노년부양비=[고령인구(65세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100 노령화지수: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령층인구의 비율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 지수는 증가함. 노령화지수=[고령인구(65세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성별 혼인상태	가족의 형성과 해체, 가족의 구성형태에 관련되는 원인행위(결혼, 이혼, 사별 등)에 관한 자료로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배우관계 기준 성별혼인상태=혼인상태별인구/해당성별인구*10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특정연령의 가임기 여성인구 1천명당 해당연령의 모가 출산한 아이 수 연령별출산율=(모의연령별출생아수/당해연령별여자인구)*100 합계 출산율: 특정연도에 출산한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따르다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성 및 연령별 사망률	성 및 연령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총괄, 출생, 사망)」
전·출입 및 순이동률	전 거주지와 현재주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이상 이동한 인구의 해당 시·군·구 인구에 대한 비율 순이동자수=전입자수-전출자수 순이동률=(순이동자수/현재주지인구)*100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등록외국인 수	시도별 등록된 외국인의 수	각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 보건		
주요 사인별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사망순위 1위~5위 원인에 의한 사망자 및 치매사망자 분율 주요사인별 사망률=(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당뇨·치매로 인한 사망자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결과」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공복혈당치가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가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분율 당뇨병 유병률=(당뇨병 환자 수/만30세이상 검진대상자 수)*100 고혈압 유병률: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 고혈압 유병률=(고혈압 환자 수/만30세이상 검진대상자 수)*100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10) 통계청, '지역사회 지표 작성 매뉴얼', 공통지표, 2013.

지표	정의 및 측정	자료출처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분율 스트레스 인지율=(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 수/만15세이상 대상자 수)*100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주관적 건강평가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응답자 수/만15세이상 대상자 수)*100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흡연율: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흡연율=(흡연자 수/만20세이상 대상자 수)*100 고위험음주율: 연간 음주자 중 1회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5잔)이상을 주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분율 고위험음주율=(고위험음주자/만19세이상 연간음주자)*100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신체활동실천율 및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20분 이상, 주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 또는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신체활동실천율=(신체활동한 사람의 수/만19세 이상 대상자 수)*100 비만율: 체질량지수 25kg/m ² 이상인 분율 비만율=(비만자 수/만19세이상 대상자 수)*100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의사, 간호사 및 병상수	활동의사(간호사): 인구 1000명당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의사(간호사) 수 활동의사(간호사)=(활동의사(간호사)수/당해연도 총 인구수)*1000 병상분포: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 병상분포=(시도별 급성기 병상수/당해 연도 총 인구수)*1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암 검진 수검률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포함된 5대 암종별 검진대상자 중 암 검진을 받은 수검자의 분율 암 검진 수검률=(5대 암 검진 수검자 수/5대암 검진 대상자 수)*100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국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의료서비스 만족도	도내의 의료서비스 이용자 중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하는 자의 분율 의료서비스 만족도=(의료서비스 만족자/응답자 중 의료서비스 이용자)*100	시도, 「지역사회조사」
3. 가족과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가구원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가구, 2인가구, ..., 6인가구 이상으로 구분한 가구형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혈연가구의 세대수별 가구분포	혈연가구는 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함. 세대별 가구구성은 1세대가구, 2세대가구, 3세대가구, 4세대이상가구로 분류함. cf)1세대가구는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를 말하며 부부, 형제자매, 부부와 기타친척이 사는 가구를 의미함. 2세대가구는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로 부부와 자녀, 한부모와 자녀, 부부와 양친부모, 부부와 자녀와 부부의 형제자매 등이 같이 사는 가구를 말함. 3세대가구는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로 부부와 자녀와 양친 또는 한부모, 양친 또는 한부모와 부부와 그 자녀 등이 같이 사는 가구를 의미함. 4세대이상 가구는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이상에 걸쳐 사는 가구를 의미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족형태별 가구분포	가족을 핵가족과 직계가족, 기타 가족의 형태로 나누어 각 형태별 혈연가구의 비율을 파악. cf)핵가족은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함. 직계가족은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부모로 구성된 가족,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함. 기타가족은 핵가족과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의 가족을 의미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분거가족과 분거이유	분거가족: 가구주는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타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를 의미함	시도, 「지역사회조사」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1년간 발생한 총 혼인(또는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 비로 나타낸 것 조혼인율=(1년간 총 혼인건수/연앙인구)*1000 조이혼율=(1년간 총 이혼건수/연앙인구)*1000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부모 부양책임자	생존 부모님의 동거여부와 주요 생활비 제공자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먼저 응답자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존여부를 묻고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응답자에게 주요 생활비 제공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질문함. 생활비 제공자의 응답범주는 장남 또는 만며느리, 아들(장남 포함)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스스로 해결, 기타로 되어 있으며 동거하는 사람의 응답범주는 장남 또는 만며느리, 그 외의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 기타 친척, 기타로 구성됨.	시도, 「지역사회조사」

지표	정의 및 측정	자료출처
미취학자녀의 양육방식 및 보육시설 만족도	미취학자녀의 낮 시간 동안의 주요 양육방식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 보육시설 만족도의 경우 응답 범주별(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보통=보통,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응답자 비율로 제시	시도, 「지역사회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각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5점척도)를 측정함 5점척도를 통해 측정한 각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	시도, 「지역사회조사」
4. 교육		
유치원 취원률 및 교원1인당 아동수	유치원 취원율: 3~5세 인구수에 대한 원아수의 비율 유치원취원율=(유치원재원학생수/3~5세 인구수)*100 교원 1인당 아동수: 유치원 교원수에 대한 원아수의 비율 교원1인당아동수=유치원재원학생수/유치원교원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취학률	취학 적령인구 대비 실제 취학자의 비율 취학률=(취학적령학생수/취학적령인구수)*10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 진학률=((유형별)상급학교 진학자수/졸업자수)*10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학업중단율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사유로 인해 재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 학업중단율=((재적+중퇴+휴학자수)/재적학생수)*10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율 현황」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자녀의 월평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금액을 자녀의 학교급별로 파악하여 교육비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공교육비: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사교육비: 학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	시도, 「지역사회조사」
학생과 부모의 학교생활만족도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생활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학부모의 만족도도 파악하여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파악. (전반적 학교생활, 교육내용, 학교시설,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주변환경) 5점척도를 통해 측정한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	시도, 「지역사회조사」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급별 총학생수를 총교원수로 나눈 값 교원1인당 학생수=총학생수/총교원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학급당 학생수	초중등학교의 학교급별 학생수를 학급수로 나눈 값 학급당 학생수=총학생수/총학급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졸업생 취업률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대상자는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와 군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제외한 사람 고등학교졸업생취업률=[취업자수/(졸업생수-진학자수-군입대자수)]*100 전문대및대학졸업생취업률=[(건강보험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졸업자-(진학자+취업불가능자+재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100	고등학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연보」 전문대및대학: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15세이상인구를 대상으로 '귀하는 현재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통해 지식·기술습득, 인격형성, 생활·직업에의 활용, 국가관 및 사회관정립 등의 각 분야에 대한 학교교육의 효과를 5점척도로 측정.	시도, 「지역사회조사」
5. 노동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 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실업자)/15세이상인구]*100 고용률: 생산가능인구중에서 특정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 실업자는 취업할 뜻이 있으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자.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참가인구)*100 장기실업자비율=(6개월이상실업자/경제활동참가인구)*100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각 업종에 속한 근로자의 비율. 산업별 구성비=(산업별 종사자 수/전체 취업자 수)*100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지표	정의 및 측정	자료출처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전체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각 직종에 속한 근로자의 비율. 직업별 구성비=(직종별 종사자 수/전체 취업자 수)*100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뉨. 임금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나뉨.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18시간미만근로자비율=(18시간 미만 근로자 수/전체 취업자수)*100 임금근로자 비율=[임금근로자 수/(전체취업자-18시간미만근로자)]*100 비임금근로자 비율=[비임금근로자 수/(전체취업자-18시간미만근로자)]*100 상용/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상용·임시·일용임금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100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 수	전체 취업자의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분포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근로여건 만족도	근로여건과 관련하여 하는 일,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근로시간의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 5점척도로 측정한 결과	시도, 「지역사회조사」
6. 소득과 소비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지역내총생산: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 1인당 GRDP=경상GRDP/연앙인구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가구 월평균 소득	지난 1년간 세금납부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시도, 「지역사회조사」
소득만족도	자기의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로서, 지역별, 소득계층별 및 직업별로 구분이 가능. 5점척도로 응답함.	시도, 「지역사회조사」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가구에서 가구원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	시도, 「지역사회조사」
소비자물가지수 및 상승률	일반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표.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1]*100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연보」
소비생활 만족도	‘귀하는 현재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설문문항을 통하여 조사함.	시도, 「지역사회조사」
가구부채여부와 이유	가구의 마이너스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가구의 부채여부와 부채가 있다면 부채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	시도, 「지역사회조사」
조세부담률	국세 및 지방세 부담액을 해당 시도 인구로 나눈 값 1인당 부담액=조세징수액/주민등록인구	시도 지방국세청 및 세정담당부서
7. 주거와 교통		
주택보급률과 인구 천명당 주택수	주택보급률은 주택재고의 부족 또는 충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주택보급률=(다가구 구분거처 미만영 주택수/보통가구수)*100 신주택보급률=(일반가구수/다가구 거처구분 반영 주택수)*100 인구천명당 주택수도 주택보급률과 마찬가지로 주택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로 가구가 아닌 인별로 주택보급을 측정하는 지표. 인구천명당 주택수=[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미만영 또는 반영)/총인구]*100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시도, 「통계연보」
주택건설실적	주택유형별 신규주택건설실적	시도, 「통계연보」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가격 및 전세값의 조사치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시점에 표본주택거래가 없는 경우 매매(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사용함. 매월 조사된 매매가격 및 전세값 조사치를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거점유형태별 가구분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 질문	시도, 「지역사회조사」
주거만족도	현재 살고 계신 전반적인 주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질문	시도, 「지역사회조사」
자동차 등록현황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 1대당 도로연장 = 총 도로연장/자동차 등록대수 1인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인구수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가구수	시도, 「통계연보」
자동차주차장 확보율	주야간 관계없이 운행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 주로 주차하는 장소 자동차 1대당 주차면수=주차면수/등록자동차수	시도, 「통계연보」

지표	정의 및 측정	자료출처
통근·통학 교통수단 및 통근시간	출근하거나 등교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통근, 통학시 걸리는 평균시간 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버스, 택시, 지하철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고려했을 때 만족도	시도, 「지역사회조사」
8. 환경		
생활폐기물 발생량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합한 양 생활폐기물의 연감 발생량	시도, 「통계연보」
1일 1인당 급수량	급수량은 상수도 시설을 가동, 생산하여 하루동안 공급한 양, 이를 1인당 사용한 급수량으로 산출함 1일 1인당 급수량=1일 총급수량/총인구	시도, 「통계연보」
전력사용량	용도별 전력사용 점유율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용,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파악하고 1인당 전력사용량은 총 전력사용량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 총 전력사용량/주민등록인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대기오염도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아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의 연평균 오염도를 각각 표시	시도, 「통계연보」
수질오염도	하천 수질오염도=주요 하천의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호소 수질오염도=주요 호소의 연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	시도, 「통계연보」
환경체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지표	시도, 「지역사회조사」
상수도 보급률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백분율. 급수인구: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 상수도 보급률=(상수도급수인구/총인구)*100	시도, 「통계연보」
하수도 보급률	총인구에 대한 하수도서비스 수혜인구의 백분율. 하수도 보급률=(총하수처리인구/총인구)*100	시도, 「통계연보」
9. 안전		
태풍, 호우 및 대설 발생빈도와 피해액	태풍, 호우, 대설의 발생은 각각의 주의보와 경보 수로 측정함.	기상청, 「기상연감」; 시도, 「통계연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자동차에 의한 사고 부상자수와 사망자수	시도, 「통계연보」; 도로교통공단, 「지역별 교통사고통계」
화재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화재의 발생건수와 건당 피해액, 1000건당 사망자수를 통해 화재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안전행정부, 「화재통계연감」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 각 분야에 대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 국가안보, 범죄위험, 교통사고, 정보보안, 신종전염병, 건축물, 자연재해 등	시도, 「지역사회조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	시도, 「지역사회조사」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공동체효율성과 사회무질서 5점척도로 측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자조사」
주요범죄 발생건수	각 유형(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의 범죄발생건수	시도, 「통계연보」
주요범죄별 소년범죄자 비율	각 유형(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의 범죄 발생중 소년범죄자(만10~19세미만)발생 건수의 비율 소년범죄자 비율=(소년범죄자 수/총 범죄자 수)*100	대검찰청, 「범죄분석」 ; 지방경찰청자료
주요범죄 검거율	유형별 범죄의 발생 건수 대비 범죄자 검거건수의 비율 검거율=(검거건수/발생건수)*100	대검찰청, 「범죄분석」 ; 지방경찰청자료
10.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시설 수	시도별 문화예술시설 수를 파악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	시도, 「통계연보」
공공체육시설 수	공공체육시설수를 시도별로 파악.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지난 1년간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시도, 「지역사회조사」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주말과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방법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	시도, 「지역사회조사」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여가활동 만족여부를 파악함. 불만족하는 사람의 이유를 측정.	시도, 「지역사회조사」

지표	정의 및 측정	자료출처
생활시간 압박	일상생활에서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 정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4점척도 측정.	시도, 「지역사회조사」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시간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인터넷이용률=(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자수/만3세이상 인구)*100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1. 사회통합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투표율	선거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지표. 투표율=(투표에 참석한 사람)/(선거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지방선거 투표율분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과 평균시간	조사대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해당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참여한 적 있는 사람들의 비율과 1회 평균활동시간	시도, 「지역사회조사」
후원(기부) 참여율	후원이나 기부를 한 사람들의 비율과 후원 경로별 연간 평균 기부 횟수	시도, 「지역사회조사」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및 지역정체성	자부심: 한국 국민인 것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KGSS에서 매년 조사되는 국민자긍심 문항을 토대로 구성 지역정체성: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4점척도로 측정	시도, 「지역사회조사」
지역 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지역민들의 지역 내 거주기간과 현재 시도에서의 정주의사를 보여주는 지표로 거주기간에 따라 정주의사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음 거주기간은 5년단위로 제시, 정주의사는 10년후에도 거주하고 싶은 정도를 제시	시도, 「지역사회조사」
자살률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수 인구십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관적 귀속계층	계층의 단위를 가족으로 보고 '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여 6분법으로 조사함.	시도, 「지역사회조사」
사회적관계별 소통정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와 그 수로 측정.	시도, 「지역사회조사」
일반인에 대한 신뢰	불특정 다수에 대해 개인들이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한 지표 KGSS 일반신뢰 문항을 기반으로.	시도, 「지역사회조사」
기관 신뢰	제도가 기관을 운영하는 살마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측정한 지표. KGSS의 기관신뢰 관련 문항을 기반으로.	시도, 「지역사회조사」
공적연금수급자와 수급자 비율	18세이상 취업자 중 연금별 가입자수를 파악하여 공적연금의 적용정도를 파악하고, 연금별 가입자 중 연금혜택을 받은 수혜자의 비율 파악. 수급자=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수급자수 수급자비율=공적연금 수급자수/공적연금 가입자수*100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진율과 1인당 연평균 급여액	건강보험적용자가 연평균 외래진료를 몇 번 하는지 파악. 외래수진율=지급건수/건강보험 적용인구*1000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1인당 급여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인구 중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파악하는 지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총인구*100 1인당급여액=(총급여비)/(연평균 대상 인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사회복지시설수, 종사자수, 수용인원	시설 및 수용자수	시도, 「통계연보」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OECD에서 권고하는 5개 항목으로 구성. 전반적인 만족도, 삶에 대한 가치정도, 정서경험을 포함	시도, 「지역사회조사」

출처 : 통계청,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 지역공통지표의 통계표 구성과 측정방법, 2013.

5) 종로구 사회조사¹¹⁾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종로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종로구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종로구내 2,000여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
 - 2012년 : 2년(통계청 고시 제2012-196호)
 - 2013년 : 3년(변경: 통계청 고시 제2013-10호)
 - 2015년 : 4년(변경: 통계청 고시 제 2015-71호)
- 조사시기 : 총 1회 실시(2012년 9월 12일 ~ 10월 12일)
 - 2015년 : 통계작성 중지승인(통계청 고시 제2015-358호, 사유 “예산 미확보”)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면접 타계식 및 자계식 병행조사
- 표본추출틀 : 2011년 주민등록 DB와 과세대장 DB 연동자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통/반의 동일한 주택유형을 갖는 세대들을 묶어 만든 군집 이용 (종로구 군집 개수는 2,788개임)
- 표본추출 :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사용
 - 동일한 통/반의 동일한 주택유형을 갖는 세대들을 군집(cluster)으로 묶어, 먼저 군집을 추출한 후 각 군집별로 5개 이하의 세대수를 추출
 - 층 : 동
 - 집락(1차 추출단위) : 통/반
 - 조사단위(2차 추출단위) : 세대(가구)
 - 동별 세대수에 의한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
 - 유효표본 : 2,000가구 4,665명

(3) 조사내용

- 종로구 사회지표는 ‘관리지표(76개)’와 ‘배경지표(80개)’로 구성
- 관리지표 : 12개 분야, 26개 영역, 76개 지표로 구성 (객관지표 30개, 인식지표 46개)
 - 객관지표 : 행정자료(주민등록통계, 서울통계연보, 종로통계연보, 서울서베이, 인구총조사 및 기타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
 - 인식지표 : 46개 중 42개는 종로구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

11) 2012년 종로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 통계청 통계설명 자료 참조

| 표 4-5 | 종로구 사회조사 관리지표 목록

분야	영역	지표	객관 지표	인식 지표
인구(2)	종로 평균인	종로구 거주기간		○
	출 생	출산율	○	
경제(2)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
	재정수준	지방재정자립도	○	
도시발전과 주거(15)	생활환경	교통질서 준수 만족도		○
		자연훼손 행태 만족도		○
		노상방뇨 행태 만족도		○
		음주소란, 인근 소란 행태 만족도		○
		금연장소 흡연행태 만족도		○
		쓰레기 무단투기 행태 만족도		○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	
		의료시설	○	
	주거환경	정주의향		○
		주거 여건 만족도		○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
		환경(대기/수질/녹지) 여건 만족도		○
		개인 생활수준 만족도		○
		교통환경 만족도		○
교육(17)	교육환경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도		○
		학원 폭력 안전도		○
		유해환경 안전도		○
		학교주변 교통 안전도		○
	공교육	공교육 비용 만족도		○
		공교육 수준 만족도		○
		공교육 접근성 만족도		○
		교원 1인당 학생수	○	
		진학률	○	
		학급당 학생수	○	
	사교육	사교육 비용 만족도		○
		사교육 수준 만족도		○
		사교육 접근성 만족도		○
		사교육 참여 경험		○
		시설학원수	○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
		평생교육 경험 프로그램		○
문화와 여가(7)	문화기반환경	공공체육시설	○	
		도서관	○	
		도서관 연간 이용자수	○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

분야	영역	지표	객관 지표	인식 지표
		영화관람시설	○	
		지역문화행사 인지도		○
		지역문화행사 참여도		○
보건과 복지(3)	노후생활	노인복지시설 및 생활 인구	○	
	보육	공립보육시설 개소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	
가족과 청소년(3)	보육 서비스	보육시설 만족도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	
		보육시설 이용률	○	
환경(11)	자연환경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	
		녹지비율	○	
		녹지환경 만족도		○
	도시농업	도시농업 참여의사		○
	수 환경	폐수발생량 및 1인당 생활하수	○	
		하천 수질현황	○	
	폐기물	생활쓰레기 발생량	○	
		생활폐기물처리 만족도		○
		음식물쓰레기처리 만족도		○
		재활용량	○	
		재활용쓰레기처리 만족도		○
교통(4)	교통 인프라	승용차 요일제 참여도	○	
		주차장 확보율	○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대수	○	
	보행환경	보행환경 불만족 이유		○
안전과 재난(8)	교통 안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	
		교통사고 안전도		○
	사회 안전	무인감시시스템 설치율	○	
		범죄안전도		○
		야간보행 안전도		○
	재해/재난 안전	각종 건축물 사고 등 재난 안전도		○
		화재, 홍수, 산사태 등 재해 안전도		○
		화재 발생건수	○	
가치와 인식(2)	시민참여	시민 기부		○
		자원봉사자 비율		○
공공 행정(2)	민원서비스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
	동 자치회관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경험		○

- 배경지표 : 11개 분야, 34개 영역, 80개 지표로 구성
- 행정자료 14개, 종로구 사회조사 자료 : 66개

| 표 4-6 | 종로구 사회조사 배경지표 목록

분야	영역	지표	행정자료	사회조사
인구(9)	종로 평균인	직업		○
		초·중·고 자녀비율	○	
		평균 가구원수		○
		학력		○
		혼인상태		○
	인구규모	연령별 및 성별인구	○	
		총인구추이, 인구밀도	○	
		동별 인구(성별 추이)	○	
경제(9)	가구소득	노년인구	○	
		노령화지수	○	
		가계 지출 비중		○
		주로 정보는 장소		○
	경제활동	가계 부채 및 이유		○
		경제적 여건 전망		○
		구직활동 경험		○
		구직활동 경로		○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방안		○
도시발전과 주거(3)	주거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
		거주 이유		○
		거주지 선택 요인		○
교육(5)	공교육	주거환경 조성방안		○
		공교육 활성화 방안		○
	사교육	학교 안전도 강화 방안		○
		자녀 1인당 사교육비 및 가구당 사교육비		○
		평생교육 참여 장애요인		○
문화와 여가(9)	문화기반환경	적합한 평생프로그램(희망프로그램)		○
		지역문화행사 비참여 이유		○
	시민문화활동	예술 관람률		○
		공연장 관람률		○
		영화 관람률		○
		스포츠경기 관람률		○
	효문화	효 문화 진흥 방안		○
		인터넷 이용시간	○	
	여가	주된 여가활동		○
		TV시청시간	○	
보건과 복지(16)	건강한 삶	운동여부 및 횟수		○
		운동하지 않는 이유		○
		주요하는 운동		○
		운동시 이용시설/공간		○
	노후생활	독거노인 비율	○	
		보건의료 서비스		○
	보건	스트레스 정도		○
		자살충동여부 및 이유		○

분야	영역	지표	행정자료	사회조사
보건과 복지(16)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		○
	사회적 약자	여성 복지 서비스		○
		노인 복지 서비스		○
		부모님 생존 여부 및 부양 의무		○
		부모님 생활비 마련 방법		○
		부모님 생활비 부담 정도		○
		본인 노후 생계 책임		○
		청소년 복지 서비스		○
가족과 청소년(11)	가족의식	정기적 함께 식사 여부		○
		자녀 위주 의사결정 여부		○
		부모의 희생 감수에 대한 인식		○
		부부간 의사 표현의 솔직함 정도		○
		부부간 공동된 가치관 보유 여부		○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저출산 해결방안		○
	가족형태	여성가구주	○	
	보육서비스	보육방법	○	
	청소년	청소년 고민거리		○
		청소년 고민상담		○
환경(2)	자연환경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
	폐기물	쓰레기처리 불만족 이유		○
교통(5)	교통 서비스	종로구의 교통문제		○
	교통 인프라	주차 공간		○
	보행환경	보행환경 만족도		○
	자전거이용환경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시 개선사항		○
가치와 인식(5)	시민참여	사회자본	○	
	시민의식	계층 귀속 의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일과 소비	일과 소비를 위한 태도	○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	
공공 행정(6)	민원서비스	행정기관 방문 경험		○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
	동 자치회관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 이유		○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행정서비스	늘려야 할 공공 편의시설		○
		행정정보 획득매체 및 홍보		○

6) 중랑구 사회조사¹²⁾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중랑구 주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 정책 욕구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 측정
- 조사대상 : 중랑구 관내 75개 표본조사구의 1,500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 (통계작성승인 : 2009년 3월)
 - 2009년 : 2년(통계청 고시 제2009-63호)
 - 2013년 : 3년(변경 : 통계청 고시 제2013-70호)
 - 2014년 : 4년(변경 : 통계청 고시 제2014-121호)
- 조사시기
 - 1회 : 2009년 3월
 - 2회 : 2011년 9월 20일~ 9월 30일
 - 2016년 : 통계작성 중지승인(통계청 고시 제2016-26호) : 사유 “예산미편성”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타계식)을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 기입방식(자계식)과 병행
- 표본추출: 층화군집추출법
- 표본규모: 75개 조사구(1,500가구), 조사구당 20가구

(3) 조사내용

- 조사부문 : 10개 부문

| 표 4-7 | 중랑구 사회조사 부문별 주요 항목

부문	항목수	주요항목
개인관련사항	5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주거·생활	6	중랑구 거주이유, 향후 중랑구 거주 의향 및 거주지 선택 요인, 생활환경 만족도, 이웃에 대한 신뢰·소속감, 이웃과의 소통·화합
교육	11	공교육 만족도, 사교육 만족도, 사교육비 지출액, 자녀 교육환경만족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육지원정책 방향, 학력신장 방향, 교육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 평생프로그램 경험 및 희망 프로그램
교통	5	교통문제, 야간보행 두려움 및 이유, 차량 주차장소, 자전거보유 및 이용 현황, 교통변화에 따른 생활변화
경제	6	지역경제 활성화, 구직활동 경험 여부, 시장이용도, 전통시장 이용 빈도, 전통시장 이용 이유, 전통시장 비이용 이유
여성과 가족	4	저출산 해결방안, 영유아 보육 지원, 청소년 고민거리, 청소년 고민상담
복지	8	사회복지시설 인지도, 노인 복지서비스, 여성 복지서비스, 영유아복지서비스, 청소년 복지서비스, 자원봉사 참여 의향,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노인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12) 제2회 중랑구 사회조사 보고서(2011.12) 참조

부문	항목수	주요항목
문화와 여가	7	주된 여가 활동, 문화 활동 현황, 지역문화 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 지역문화 행사 비참여 이유, 지역문화 행사 선호도, 구립도서관이용 현황
공공행정	12	자치회관 이용 경험, 자치회관에 필요한 시설, 쓰레기 처리 만족도,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민원업무 처리방법 인지도, 주민 정보화교육인지도, 주민 정보화교육 희망 과정, 공공 편의시설 확대 우선순위, 행정정보 획득매체, 웰빙도시 우선 사업, 중랑구 웰빙도시 이미지, 도시미관을 위한 우선 사업
가구 관련사항	5	주택형태, 점유형태, 가구구분, 중랑구 거주기간, 가구소득

7) 성북구 사회조사¹³⁾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 정책 욕구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 측정
- 조사대상 : 성북구 관내 거주 가구의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
- 통계작성승인 : 2011년 5월
- 조사주기 : 1년(통계작성승인: 2011년 5월)
- 조사시기
 - 1회 : 2013년 6월 5일 ~ 7월 19일
 - 2회 : 2015년 6월 17일 ~ 8월 5일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가구방문면접조사
- 표본추출 : 층화군집추출법 사용
 - 표본크기 : 유효표본 2,000가구 4,541명

(3) 조사내용

- 사회지표 : '관리지표'와 '배경지표'로 구성
- 관리지표 : 12개 분야, 32개영역, 80개 지표로 구성
 - 객관지표 37개는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 인식지표 43개는 성북구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

13) 2015 성북구 사회지표조사 보고서 참조

| 표 4-8 | 성북구 사회조사 관리지표 목록

분 야	영역	지표
인 구	성북 평균인	• 성북거주기간
	출생	• 출산율
경 제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 인지도 • 협동조합 참여여부
	재정수준	• 지방재정자립도
도시발전과 주거	도시정체성	• 성북구 거주 의사
	생활환경	•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주거환경	• 개인생활수준 만족도 • 대기/수질/녹지여건 만족도
교 육	공교육	• 공교육 비용 만족도 • 공교육 수준 만족도 • 공교육 교수 수준 및 질 만족도 • 공교육 접근성 만족도
		• 교원 1인당 학생수 • 진학률 • 학급당 학생수
	사교육	• 사교육 비용 만족도 • 사교육 수준 만족도 • 사교육 수준 및 질 만족도
	자기주도학습	• 사교육 접근성 만족도 • 사교육 참여 경험 • 사설학원 수
문화와여가	문화기반환경	• 자기주도학습센터 인지도
	도서관	• 공공체육시설 • 영화관람시설
		• 지역문화행사 참여도
보건과 복지	보육	• 구립도서관 이용 현황 • 구립도서관 인지도
	인권	• 도서관 연간 이용자수
	사회적 약자	• 국공립보육시설 개소
	건강한 삶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여성과 가족	보육서비스	• 인권교육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환 경	자연환경	• 비만율
	환경보호 및 실천	• 자살율
	수환경	• 보육시설 만족도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 보육시설 이용률
	폐기물	• 어린이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족도 •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 기후변화 대응방안 • 성북절전소 참여 의향
교 통	교통 인프라	• 폐수 발생량 및 1인당 생활하수 • 성북천·정릉천 시설물 이용 만족도
	주차 환경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처리 만족도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만족도
	보행환경	• 재활용량 • 재활용쓰레기 처리 만족도
안전과 재난	교통 안전	• 차량 보유 여부 및 배기량
	사회 안전	• 야간보행 두려움 정도
	재해/재난 안전	•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가치와 인식	시민 참여	• 무인감시시스템 설치율 • 범죄 안전도
	마을 민주주의	• 각종 건축물 사고 등 재난 안전도, 화재 발생건수
		• 화재, 홍수, 산사태 등 재해 안전도

분 야	영역	지표
공공행정	민원 서비스	•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주민자치센터	•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 경험
교 통	교통 인프라	• 교통환경 만족도 • 승용차 요일제 참여도
	주차 환경	• 주차장 확보율
	보행환경	• 보행환경 만족도
안전과 재난	교통 안전	•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회 안전	• 무인감시시스템 설치율 • 범죄 안전도
	재해/재난 안전	• 각종 건축물 사고 등 재난 안전도, 화재 발생건수
		• 화재, 홍수, 산사태 등 재해 안전도
가치와 인식	시민 참여	• 시민 기부, 자원봉사자 비율
	마을 민주주의	• 지역이슈 관심도
공공행정	민원 서비스	•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주민자치센터	•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 경험

- 배경지표 : 12개 분야, 29개영역, 72개 지표로 구성
- 객관지표 16개는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 인식지표 56개는 성북구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

| 표 4-9 | 성북구 사회조사 배경지표 목록

분야	영역	지표
인 구	성북 평균인	• 직업 • 평균 가구원수
	인구규모	• 연령별 및 성별 인구
	노인인구	• 노령화지수
경 제	경제활동	• 전통시장 이용 여부
	사회적 경제	• 협동조합 참여 의향
도시발전과 주거	주거환경	• 거주이유
교 육	공교육	• 공교육 방향성 • 교육재정 우선순위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중도탈락	• 학업 중단 도민 경험
	자기주도학습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선호 프로그램
	평생교육	•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문화와여가	도서관	• 구립도서관 개선점 • 구립도서관 이용 이유
	여가	• 공원 이용 빈도 • 공원 비용 이유
보건과 복지	노후생활	• 독거노인 비율
	보건	•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적 약자	• 노인복지서비스 • 여성복지서비스 • 등록 장애인수
여성과 아동친화	가족형태	• 여성가구주
	보육서비스	• 보육방법 • 어린이 방과후 활동 •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분야	영역	지표	
환경과 지속가능성	환경보호 및 실천	• 환경문제 시급도	• 도시농업 비참여 이유
교 통	주차환경	•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방식 선호도 •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시간대별	• 공유에 대한 인식
	보행환경	• 야간보행 두려움 이유	
	교통서비스	•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인지도	•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만족도
안전과 재난	사회 안전	• 범죄발생건수	• 도시안전에 위한 지원사항
가치와 인식	주민 참여	• 사회적 자본(단체활동 참여)	•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
	마을 민주주의	• 공적인 모임/단체 참여도 • 마을행사 참여율	• 마을 행사 참여 시 역할 • 지역이슈 인지경로 및 의견 제시 경험
	시민의식	• 계층 귀속의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반부패 투명성) 뇌물제공 경험 여부
	일과 소비	• 일과 소비에 대한 태도	•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공공행정	민원 서비스	• 민원서비스 이용 여부	•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유
	주민자치센터	•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 이유	•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비이용 이유
	동마을 복지센터 전환 관련	• 동 마을복지센터 기능 선호도	• 동 마을복지센터 마을계획 수립 우선순위

8) 도봉구 사회조사¹⁴⁾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도봉구민의 삶의 질, 복지정도,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도봉구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통계를 작성하여,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여 구 정책 방향 설정 및 각종 사업의 계획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도봉구내 1,700여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 (통계작성승인: 2012년 5월)
 - 2012년 : 2년(통계청 고시 제2012-84호)
 - 2014년 : 4년(변경: 통계청 고시 제2014-190호)
- 조사시기
 - 2012년 본조사 : 2012.5.16 ~ 6.27(43일간)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을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타계식 및 자계식 조사 병행)
- 표본추출
 - 주민등록DB와 과세대장DB를 연계하여 동별, 주택유형별 세대수 파악
 -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14) 2011 도봉구 사회지표조사 보고서 참조

- 집락 추출 후 가구는 단순임의 추출
- 층화는 행정구역 동 사용
- 표본크기 : 유효표본 1,700가구 총 4,132명

(3) 조사내용

- 가구주(79문항), 만 15세 이상 가구원(61문항)
- 조사항목 : 주거 및 생활, 교육, 교통, 가계경제, 여성 및 가족, 복지, 보건위생, 문화/레저, 행정 서비스, 자료 분류용 질문
- 조사표는 10개 분야, 57개 영역, 79개 문항으로 조사
- 사회조사 지표 : 13개 분야 41개 영역의 행정지표 65개와 조사지표 133개(보조항목 포함), 총 198개 지표로 구성(아래표는 133개 조사지표)

| 표 4-10 | 도봉구 사회조사 조사지표 목록

분야	영역	지표
인구	가족형태	• 평균 가구원수
	혼인상태별 인구	• 혼인상태
경제	가구소득	• 가구소득 • 지출액 • 가계 소비 비중 • 가계 지출 비중 • 가계 부채 • 재테크 유형
	경제활동	•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인식	• 작년(2011년) 대비 경제적 여건 • 가계경제 기대수준
	전통시장	• 전통시장 이용률 • 전통시장 이용 시 불편사항
주거 및 생활	주거여건	• 도봉구 거주기간 • 도봉구 거주이유 • 도봉구 지속 거주 의향 • 주거 여건 만족도 • 전·월세 용자 및 주택바우처 참여 의향 • 도봉구 거주 추천의향
	생활환경	• 도봉구 생활환경 만족도 • 환경 여건 만족도 •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 • 확대해야할 공공 편의시설
	보건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문화활동	•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가구인식	• 개인적인 생활수준 만족도
교통	교통인프라	• 도로환경 만족도 • 도로시설 • 이면도로 포장 • 도로조명 • 주차공간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탄력적 운영에 대한 의견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탄력적 운영 찬성 이유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탄력적 운영 반대 이유 • 교통 환경 개선사항
	교통서비스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대중교통수단 만족도 • 대중교통수단 불만족 이유
안전	사회안전	• 도봉구 안전도 • 야간보행 안전도 • 방법 안전도 • 어린이·청소년 대상 범죄 안전도
	재해/재난안전	• 자연재해 안전도 • 건축물 사고 안전도
환경	도시환경	• 도시환경 필요성 • 도시디자인 • LED조명 간판 확대 • 불법광고물 제거 •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

분야	영역	지표	
	자연환경	• 주로 방문하는 하천	• 하천 환경 만족도
	생활환경	• 도봉구 관내 하천 및 휴식공간 •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 하천 내 시설물
	폐기물	• 쓰레기처리 만족도 • 음식물 쓰레기 수거과정 • 재활용 쓰레기 수거과정	• 생활 쓰레기 수거과정 • 쓰레기처리 불만족 이유
보건위생	건강한 삶	• 도봉구 흡연율 • 도봉구 음주율 • 주관적 건강수준 • 도봉구 주로 하는 운동	• 걷기 운동 횟수 및 시간 • 운동하는 장소 • 운동 횟수 • 운동하지 않는 이유
	보건서비스	• 보건소 방문여부 • 보건소 미이용 이유	• 보건소 확대 의료서비스
	보건/위생사업	• 위생시설 • 서비스 우수성 • 가격 적정성 • 위생 청결성 • 공중화장실 만족도	•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구축 상태 • 공중화장실 접근성 •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 공중화장실 소모품 비치상태
복지	노후생활	•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노인 복지 서비스
	사회적 약자	• 청소년 복지 서비스	• 여성 복지 서비스
	보육	• 영유아 보육 지원	•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요인
	경제활동	• 일자리/창업지원 기관 인지도 • 도봉 여성센터	• 일자리 지원센터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여성 및 가족	경제활동	• 여성 취업 지원	
	가족의식	• 도봉구 가족관계 만족도 • 배우자와의 관계 • 자녀와의 관계	• 본인 부모와의 관계 •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형제·자매와의 관계
	건강한 삶	• 여성 체육 프로그램	
교육	공교육	• 도봉구 공교육 만족도 • 공교육 비용	• 공교육 수준 및 질 • 공교육 접근성
	사교육	• 도봉구 사교육 만족도 • 사교육 비용 • 사교육 수준 및 질	• 사교육 접근성 • 도봉구 사교육비 지출액
	양육환경	• 도봉구 자녀 양육환경 안전도 • 교내 및 학교주변 먹거리	• 도래, 선·후배간 학교폭력 •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 • 학교주변 교통
	교육지원	• 교육지원 정책방향	
	평생교육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무 •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 도봉구 평생교육 경험 프로그램 • 도봉구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문화 및 여가	문화활동	• 주된 여가활동 • 인터넷 사용실태 • 문화활동 현황	
	도서관	• 구립도서관 이용 실태 • 구립도서관 비이용 이유	
	문화시설	• 돌리미술관 인지도	
공공 행정	행정서비스	• 행정기관(구청·동주민센터)을 통한 민원처리 •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 행정민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 행정정보 획득매체 • 주민 정보화교육 인지도 • 주민 정보화교육 희망 과정 • 도봉구청에 대한 건의사항
기타	가구수준	• 교육 수준 • 도봉구 직업 현황 • 향후 희망 직업	
	가구의식	• 계층 의식	

9) 마포구 사회조사¹⁵⁾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마포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마포통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마포구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 마포구내 2,000여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통계작성승인 : 2006년 11월)
 - 2007 ~ 2010년 : 1년
 - 2011년 이후 : 2년
- 조사시기
 - 2006년 시험 조사, 2007~2010년 매년 실시
 - 2011, 2013, 2015년 조사 실시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을 통한 면접 타계식 및 자계식 병행조사
- 표본추출 : 동별(16개동) 주택유형별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 표본크기 : 유효표본: 2,000가구 총 4,004명(2015년 기준)

(3) 조사내용

- 가구주(79문항), 만 15세 이상 가구원(69문항)
- 조사항목 : 10개 부문(주거·생활, 교육, 교통, 경제, 여성과 가족, 보건과 복지, 문화와 여가, 공공·행정, 노후생활, 기타)

| 표 4-11 | 마포구 사회조사 지표 목록

분야	영역	지표	
주거·생활(7)	주거	① 마포구 거주 이유 ② 향후 마포구 거주의향	③ 거주지 선택 요인
	생활환경	① 생활환경 만족도 ② 기초질서 의식수준	③ 도시 안전도 ④ 생활소음 여부
교육(12)	교육환경	① 공교육 만족도 ② 사교육 만족도 ③ 사교육비 지출액 ④ 교육환경 안전도	⑤ 안전한 학교 만들기 ⑥ 공교육 방향성 ⑦ 학력신장 방향

15) 2015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참조

분야	영역	지표	
	평생교육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③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④ 주민 정보화교육 희망 과정 ⑤ 청소년 교육센터 역점 프로그램
교통(6)	교통문제	① 전반적인 교통환경 만족도	② 교통환경 개선사항
	보행	① 야간보행 두려움	② 야간보행이 두려운 이유
	자전거	① 자전거 이용 목적	②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한 점
경제(7)	가계	① 가계 지출 비중 ② 물가 상승과 가계 지출	③ 물품 구입 경로
	일자리	① 구직활동 경험 여부 ② 구직활동 경로	③ 구직활동시 애로사항
	지역경제	① 일자리 정책	
여성과 가족(5)	가족	① 가족에 대한 가치관	
	출산·보육	① 미취학 자녀 유무 ② 미취학 자녀 보육 방법	③ 저출산 해결방안
	여성	① 여성 취업 지원	
보건과 복지(12)	운동	① 운동 횟수 ② 운동하지 않는 이유	③ 주로 하는 운동 ④ 운동시 이용시설(공간)
	복지 서비스	① 노인 복지 서비스 ② 여성 복지 서비스 ③ 청소년 복지 서비스	④ 장애인 복지 서비스 ⑤ 보건의로 서비스 ⑥ 다문화 가정 지원
	자원봉사	① 자원봉사 경험	
	기부	① 기부참여 경험	
문화와 여가(9)	문화·여가 활동	① 주된 여가 활동 ② 마포관광지 방문현황 ③ 문화 활동 현황	④ 마포관광 강약점 방문 ⑤ 독서량
	도서관 이용	① 공공도서관 이용 여부 ②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③ 공공도서관 활용증대 방안 ④ 마포중앙도서관 희망 프로그램
공공·행정(15)	쓰레기 처리	①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자치행정	① 주민센터(자치회관) 이용경험 ② 주민센터(자치회관) 이용 이유 ③ 주민센터(자치회관) 비이용 이유	④ 행정민원서비스 방문 ⑤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⑥ 행정민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행정 서비스 수요	① 행정서비스 만족도 ② 행정서비스 요구도	③ 행정정보 인지경로
	소통	① 집단간 소통	② 공동체의 효율성
	마을공동체사업	①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경험 ③ 마을공동체사업 미참여 이유	②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이유
노후생활(5)	은퇴 및 활동	① 노후생활 희망정도	② 예상 은퇴시기
	경제	① 은퇴 후 예상 경제생활수준 ② 퇴직 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분야	③ 퇴직 후 희망소득
기타(1)	통계처리	① 가구소득	

10) 강서구 사회조사¹⁶⁾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강서구의 특성을 반영한 구민의 관심사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여 구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함과 동시에 강서구 행정정책의 방향 설정 및 각종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강서구내 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통계작성승인: 2013년 9월)
 - 2013년 : 2년
 - 2015년 : 4년(변경 : 통계청 고시 제2015-91호)
- 조사시기 (2013년 기준)
 - 시험조사 : 2013. 9. 7. ~ 9. 11.(기간 중 3일)
 - 본 조 사 : 2013. 9. 24. ~ 10. 9.(총 15일)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을 통한 타계식 및 자계식 면접조사 병행
- 표본추출 : 동별, 주택유형별 층화임의추출법
- 표본크기 : 유효표본 2,000가구 총 4,618명

(3) 조사내용

- 조사항목 : 총 8개 부문
 - 주거·생활, 교육, 교통, 경제, 보건과 복지, 문화와 여가, 공공행정, 가치의식 등

| 표 4-12 | 강서구 사회조사 지표 목록

분야	영역	지표	
주거·생활(7)	주거환경	① 강서구 거주 이유 ②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③ 생활소음여부
	생활환경	① 생활환경 만족도 ② 기초 질서 의식수준 만족도	③ 놀려야 할 공공 편의시설 ④ 에너지 절약방법 실천여부
교육(5)	교육	① 공교육 만족도 ② 사교육 만족도 ③ 교육환경 안전도	
교육(5)	평생교육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16) 2013 강서구 사회조사 보고서 참조

분야	영역	지표	
		②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교통(4)	교통환경	① 주차공간 ② 자전거 이용 여부	③ 자전거 이용 개선사항 ④ 교통 환경 개선사항
경제(11)	경제활동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② 구직활동 경험 여부 ③ 구직활동 경로 ④ 물품구입 경로 ⑤ 전통(재래)시장 이용 여부 ⑥ 전통(재래)시장 이용 이유	⑦ 전통(재래)시장 비이용 이유 ⑧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⑨ 협동조합 참여 여부 ⑩ 역점을 두어야 할 일자리 정책 ⑪ 도시농업 희망 체험활동
보건과 복지(19)	복지	① 저출산 해결방안 ② 여성 취업 지원 ③ 노인복지 서비스 ④ 여성복지 서비스 ⑤ 청소년복지 서비스	⑥ 영유아 보육 서비스 ⑦ 장애인 복지 서비스 ⑧ 시민기부 ⑨ 노후 준비
	아동 및 청소년	① 미취학 자녀 보육방식 및 보육시설 만족도	② 청소년 고민
	보건	① 운동횟수 ② 운동하지 않은 이유 ③ 운동시 이용시설(공간)	④ 보건의료 서비스 ⑤ 의료관광 활성화 필요 사업
	자원봉사	① 자원봉사 참여 의향 ② 자원봉사 희망 분야	③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문화와 여가(9)	문화	① 지역문화 행사별 인지 및 참여, 만족도 여부	② 지역문화행사 비 참여 이유
	마을공동체	① 마을공동체 참여 희망 사업	
	도서관	① 공공도서관 활용증대 방안	② 작은 도서관 참여 희망 프로그램
	여가	① 강서 둘레길 인지도 및 이용률 ② 강서 둘레길 개선사항	③ 근린공원 체육시설 이용 현황 ④ 근린공원 체육시설 불편사항
공공행정(15)	민원서비스	① 쓰레기 처리 만족도 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 ③ 행정민원서비스 방문	④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⑤ 행정민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⑥ 행정서비스 개선 제감도
	자치회관	① 자치회관(주민센터) 이용경험 ② 자치회관(주민센터) 이용 이유	③ 자치회관(주민센터) 비이용 이유 ④ 자치회관(주민센터)에 필요한 시설
	정책	① 강서구 발전 저해 요인 ② 마곡지구 개발 강서발전 영향분야 ③ 공원녹지 정책	④ 강서구 중점 추진 분야 ⑤ 강서구 추진사업 만족도
가치의식(2)	가치의식	① 은퇴시기 ② 계층의식	

11) 금천구 사회조사¹⁷⁾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금천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금천구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금천구 내 1,500여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지역 : 금천구(가산동, 독산 1~4동, 시흥 1~5동 등 총 10개 동)
- 조사주기 (통계작성승인 : 2011년 12월)
 - 2년(2011년 12월)
 - 3년(변경 : 통계청 고시 제2013-368호)
 - 4년(변경 : 통계청 고시 제2015-370호)
 - 5년(변경 : 통계청 고시 제2015-370호)
- 조사시기
 - 기준시점 : 2011년 12월 31일 기준
 - 본 조 사 : 2012년 1월 6일 ~1월 31일(25일간)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을 통한 면접 타계식 및 자계식 병행조사
- 표본추출 :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사용
 - 유효표본 : 1,540가구 총 3,578명

(3) 조사내용

- 조사항목 : 총 10개 부문 (주거생활, 교육, 교통, 경제, 여성과 가족, 보건과 복지, 문화와 여가, 공공행정, 가치관 및 사회관계망 등)

17) 2012년 금천구 사회조사 보고서 참조

| 표 4-13 | 금천구 사회조사 지표 목록

분야	지표	
주거·생활(9)	① 금천구 거주이유 ② 향후 금천구 거주 의향 ③ 거주지 선택 요인 ④ 주택에 대한 만족도 ⑤ 생활환경 만족도	⑥ 도시 안전도 ⑦ 분야별 주요 활동 지역 ⑧ 놀려야할 공공 편의시설 ⑨ 시급 개선 과제
교육(7)	① 공교육 만족도 ② 사교육 참여도 ③ 사교육 만족도 ④ 사교육비 지출현황	⑤ 자녀 교육환경 안전도 ⑥ 평생학습관 이용 현황 및 이용 의향 ⑦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교통(6)	① 차량 보유 여부 및 배기량별 대수 ② 주차공간 ③ 통근·통학 교통수단	④ 마을버스 만족도 ⑤ 버스노선 확대 시급 구간 ⑥ 교통환경 개선 사항
경제(8)	① 가구 소득 수준 ② 소득과 부채의 변화 ③ 경제 소비 장소 ④ 구직활동 경험 여부	⑤ 구직활동 경로 ⑥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⑦ 사회적기업 인지도 ⑧ 배우자 경제활동 상태
여성과 가족(5)	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② 미취학 자녀 보육 현황 ③ 영유아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④ 저출산 해결 방안 ⑤ 여성 취업 지원
보건과 복지(12)	① 운동 횟수 ② 주로 하는 운동 ③ 운동 시설 ④ 관악산 및 안양천 이용 현황 ⑤ 청소년 복지 서비스 ⑥ 필요한 노인 복지 서비스	⑦ 노인 생활비 마련방안 ⑧ 향후 놀려야할 복지 서비스 ⑨ 건강상태 ⑩ 보건소 이용 여부 ⑪ 보건소 이용 만족도 ⑫ 받고 싶은 보건의료 서비스
문화와 여가(7)	① 주된 여가 활동 ② 문화 활동 현황 ③ 주된 문화 활동 지역 ④ 금천구 문화시설 이용 현황	⑤ 지역 문화시설 비이용 이용 ⑥ 도서관 이용 현황 ⑦ 도서관 활용 증대 방안
공공행정(6)	①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경험 ②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③ 행정민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④ 금천구 구민참여 정책 인지도 및 참여의향 ⑤ 구청 정보원 ⑥ 쓰레기 처리 만족도
가치관 및 사회관계망(6)	① 행복지수 ② 단체 참여 여부 ③ 기부 여부	④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⑤ 자원봉사활동 분야 ⑥ 계층적 귀속 의식
기타(5)	① 가구소득 ② 직업 ③ 고용형태	④ 근무형태 ⑤ 직장 및 학교 위치

12) 강남구 사회조사¹⁸⁾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강남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로 강남구민의 삶의 양적·질적 수준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등을 조사하여 변화된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조명, 나아가 구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방향 설정 및 각종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강남구내 2,000 가구 및 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 : 2년 (통계작성승인: 2006년 12월)
- 조사시기 : 2015년 9월 1일 ~ 9월 15일(2015년 기준)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사용
 - 유효표본 : 2,0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4,177명

(3) 조사내용

- 조사항목 : 총 10개 분야
 - 기본항목, 가족·가구, 주거·교통, 건강, 교육, 경제, 사회 보장, 문화와 여가, 환경, 공공행정 및 공동체

| 표 4-14 | 강남구 사회조사 지표 목록

지표분야	지표	
기본항목	①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② 가구주 및 가구원 성별, 혼인상태 ③ 강남구 거주기간	④ 가구주 및 가구원 연령 ⑤ 가구주 및 가구원 최종학력 ⑥ 가구주 및 가구원 직업
가족·가구	① 가족 친밀도 ② 분거가족	③ 분거이유 ④ 저출산 해결방안
주거·교통	① 강남구 거주 이유 ② 향후 이주 의향 및 지역 ③ 생활환경 만족도 ④ 야간보행 두려움 ⑤ 기초질서 수준	⑥ 통근·통학 지역 ⑦ 통근·통학 시간 ⑧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⑨ 교통환경 개선
건강	① 보건의료 서비스 ② 건강문제 악화 요인 ③ 치매 유병률	⑥ 대사증후군 인지율 ⑦ 대사증후군 인지경로 ⑧ 운동여부 및 일수, 시간

18) 2015 강남구 사회조사 보고서 참조

지표분야	지표	
	④ 치매환자 가족 지원 정책 ⑤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⑨ 걷기 실천 여부 및 일수, 시간 ⑩ 운동시설 이용시설(공간)
교육	① 미취학 아동 교육 ② 영유아 교육시설 선택 ③ 사교육 현황 ④ 학교보안관제 만족도 ⑤ 교육환경 안전도 ⑥ 공교육 지원사업 수요	⑦ 해외유학 현황 ⑧ 해외유학 계획 ⑨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⑩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⑪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경제	① 일자리 정책 ② 여성취업 지원 ③ 근로 여건 만족도 ④ 월평균 소득 ⑤ 가계지출 비중	⑥ 물가상승과 가계지출 ⑦ 물품 구입 경로 ⑧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⑨ 월평균 통신요금
사회보장	① 노인복지 서비스 ② 여성복지 서비스 ③ 청소년복지 서비스 ④ 어르신행복타운 인지도	⑤ 어르신행복타운 이용의향 시설 ⑥ 노후활동 희망 정도 ⑦ 예상 은퇴시기 ⑧ 퇴직 후 희망소득
문화와 여가	① 문화환경만족도 ② 주된 여가활동 ③ 여가생활 동반자 ④ 여가생활 만족도	⑤ 지역 문화행사 인지 및 참여 ⑥ 지역 문화행사 미참여 이유 ⑦ 강남구 대표 명소
환경	① 체감환경 개선도 ② 쓰레기 처리 만족도	③ 에너지 절약생활실천도
공공행정 및 공동체	① 강남구 소속감 ② 시민활동 참여 의향 ③ 집단간 소통 ④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⑤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	⑥ 기부 참여 경험 ⑦ 행정민원서비스 이용 경험 ⑧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⑨ 행정민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⑩ 행정정보 인지경로 ⑪ 늘려야할 공공 편의시설

13) 강동구 사회조사¹⁹⁾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강동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강동구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 강동구내 2,000여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 : 2년 (통계작성승인: 2008년 11월)
- 조사시기
 - 2008년 시험 조사
 - 2009년, 2011년, 2013년 실시
 - 2015년 본조사 : 2015.9.1 ~ 9.18(12일간)

19) 2015 강동구 사회조사 보고서 참조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을 통한 면접타계식 및 자계식 병행조사
- 표본추출 : 동별(18개동) 주택유형별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 표본틀 : 2014년 주민등록 DB 및 과세대장 DB
 - 유효표본 : 2,000가구 총 4,559명

(3) 조사내용

- 조사항목 : 총 10개 부문(주거·생활, 교육, 교통, 경제, 여성과 가족, 보건과 복지, 문화와 여가, 공공·행정, 노후생활, 기타)

| 표 4-15 | 강동구 사회조사 지표 목록

분야	영역	지표	
주거·생활(7)	주거	① 강동구 거주 이유 ② 향후 강동구 거주 의향	③ 거주지 선택 요인
	생활환경	① 생활환경 만족도 ② 기초질서 의식수준	③ 도시 안전도 ④ 에너지절약 방법 실천
교육(14)	교육	① 공교육 만족도 ② 사교육 만족도 ③ 사교육비 지출액 ④ 교육환경 안전도 ⑤ 안전한 학교 만들기 ⑥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 인지도	⑦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 인지경로 ⑧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인지도 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용 프로그램 ⑩ 친환경급식 확대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③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④ 평생교육 수강 시 적정 수강료
교통(7)	교통문제	① 교통환경 개선사항 ② 대중교통 이용 시간	③ 전반적 교통환경 만족도
	차량	① 차량 보유 여부 및 배기량별 대수	② 주차공간
	자전거	① 자전거 이용 여부	②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점
경제(13)	일자리	① 구직활동 경험 여부	② 구직활동 경로
	도시농업 사업	① 도시농업 참여경험 ② 도시농업 만족도	③ 도시농업 참여의향 및 비참여 이유 ④ 강동구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① 전통시장 이용 여부	② 전통시장 이용 불편사항
	협동조합	① 협동조합 참여 여부	② 협동조합 희망영역

분야	영역	지표	
	사회적 기업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②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립(투자) 의향 여부
여성과 가족(4)	가족	① 가족에 대한 가치관	
	출산·보육	① 저출산 해소방안	
	청소년	① 청소년 고민거리	
	다문화 가족	① 다문화가족의 융화	
보건과 복지(21)	운동	① 운동 횟수 ② 주로 하는 운동	③ 운동시 이용시설(공간)
	보건사업	① 보건사업 중점 대상 ② 건강도시 강동 ③ 소금 줄이기 사업 ④ 자살 예방	⑤ 치매 서비스 ⑥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인지도 ⑦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도
	복지 서비스	① 노인 복지 서비스 ② 여성 복지 서비스 ③ 영유아 보육 서비스 ④ 보건건강서비스 인지 및 받고 싶은 서비스	⑤ 건강100세 상담센터 이용 인지도 ⑥ 건강100세 상담센터 이용 효과 ⑦ 치솔질(잇솔질) 실천율
	자원봉사	① 자원봉사 참여 의향 ② 자원봉사 참여 희망 분야	③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기부	① 시민 기부 참여 방법	
문화와 여가(6)	문화·여가 활동	① 주된 여가 활동 ② 지역문화 행사 참여도 및 비참여 이유	③ 서울 암사동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도서관 이용 및 책임기	①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및 개선점	② 책임기 장소 ③ 책임기 생활화 정책
공공·행정(7)	쓰레기 처리	①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자치행정	① 행정민원서비스 방문 경험 ②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	③ 행정민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주민참여예산제	①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강동 도시디자인	① 강동 이미지	② 정책 추진방향
노후생활(5)	노후생활	① 노후생활 희망정도 ② 예상 은퇴시기 ③ 은퇴 후 예상 경제생활 수준	④ 퇴직 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분야 ⑤ 퇴직 후 희망소득
기타(3)	통계처리	① 가구소득 ② 교육정도	③ 직업

14) 중구 사회조사²⁰⁾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중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중구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 중구 관내 100개 조사구 2,000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 : 2년 (통계작성승인: 2017년 8월)
- 조사시기 (2011년 12월 중지통계)
 - 1회 : 2008년 10월
 - 2회 : 2010년 9월 1일~ 9월 30일

(2) 조사방법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표본추출 : 동별(15개동) 주택유형별 층화임의추출법
 - 표본틀 : 2010년 주민등록등본 DB

(3) 조사내용

- 조사부문 : 총 9개 부문
 - 주거·생활, 교육, 교통, 경제, 여성과 가족, 보건과 복지, 문화와 레저, 행정서비스, 기타
- 조사항목 : 총 74개

분야	지표	
기본(5)	①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별	④ 생년월일 ⑤ 중구 거주기간
주거·생활(7)	① 생활환경 만족도 ② 도시안전도 ③ 중구 거주 이유 ④ 향후 중구 거주 의향	⑤ 거주지 선택 요인 ⑥ 늘려야 할 공공편의시설 ⑦ 기초 질서 확립
교육(10)	① 공교육 만족도 ② 사교육 만족도 ③ 양육 환경 안전도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⑤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⑥ 사교육비 지출액 ⑦ 사교육비 부담 요인 ⑧ 공교육 활성화 ⑨ 안전한 학교 만들기 ⑩ 영어교육 활성화

20) 2010년 중구 사회조사 보고서 참조

분야	지표	
교통(8)	① 차량 보유 여부 및 배기량별 대수 ② 주차공간 ③ 승용차 요일제 참여 여부 ④ 승용차 요일제 비참여 이유	⑤ 자전거 이용 목적 ⑥ 자전거 이용시 불편한 점 ⑦ 보행환경 만족도 ⑧ 교통문제
경제(9)	① 가계 지출 비중 ② 물가상승과 가계 지출 ③ 재테크 유형 ④ 가계 부채 ⑤ 구직활동 경험 여부	⑥ 구직활동 경로 ⑦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⑧ 취업정보센터 이용여부 및 만족도 ⑨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과 가족(7)	① 가족관계 만족도 ② 저출산 해결방안 ③ 여성의 취업에 관한 지원 ④ 청소년 복지	⑤ 청소년 고민거리 ⑥ 여성 복지 증진 ⑦ 영유아 복지 서비스
보건과 복지(8)	① 운동 횟수 ② 운동하지 않은 이유 ③ 주로 하는 운동 ④ 노인 복지 서비스	⑤ 보건소 역점 사업 ⑥ 보건의료 서비스 ⑦ 흡연 ⑧ 음주 여부 및 음주량
문화와 레저(6)	① 주된 여가 활동 ② 문화 활동 현황 ③ 지역문화행사 인지도	④ 지역문화 행사 인지 및 참여여부 ⑤ 지역문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⑥ 구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행정서비스(11)	① 쓰레기처리 만족도 ② 쓰레기처리 불만족 이유 ③ 주민센터(자치회관) 이용경험 ④ 주민센터(자치회관) 이용 이유 ⑤ 주민센터(자치회관) 비이용 이유	⑥ 자치행정 민원서비스 방문 ⑦ 자치행정 민원서비스 만족도 ⑧ 자치행정 민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⑨ 주민 정보화교육 인지도 ⑩ 주민 정보화교육 희망 과정 ⑪ 행정정보 획득 매체 및 홍보
기타(3)	① 가구소득 ② 교육정도 ③ 직업	

4. 국외 사회지표, 정책지표 리뷰

1) OECD SOCIAL INDICATORS: Society at a Glance

OECD에서는 2001년부터 회원국과 핵심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지표인 Society at a glance를 발표하고 있다.

(1) 2014년 Society at a Glance 지표체계²¹⁾

지표	정의 및 측정	자료출처
1. 일반현황 지표(General Context Indicators)		
가구소득	미국내 연간 가계 가처분 소득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출산	출산율	Civil population registers or other administrative records
이민	외국태생인구(전체인구 중 백분율) 평균 연간 총 이주율(인구 천명당 특정기간의 유입 및 유출량의 차이)	OECD by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2013)
가족	가구 구성(구조)	Gallup World Poll
노인 지원 비율	65세이상 인구 대비 20-64세 인구 비율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2. 자족 지표(Self-sufficiency Indicators)		
고용	15-64세 인구의 고용비율	Labour force surveys of OECD
실업	15-64세 인구 중 실직한 사람 비율	Labour force surveys of member countries
취업,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청년(NEETs)	취업,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청년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예상은퇴시기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 유효기간을 계산한후 남은 기대수명 계산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교육기간	1년차 연차교육(연구개발활동 포함)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3. 형평성 지표(Equity Indicators)		
소득불평등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세후 및 사회이전 - 또는 사람들의 가계소득 - 세전 및 이전 & 지니계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
빈곤	OECD 국가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빈곤지수는 존재하지 않음 소득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빈곤 측정의 출발점은 가계 가처분 소득임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

지표	정의 및 측정	자료출처
사회보장급여	(주택 보조금을 포함하여) 순 소득급여 수준은 중위 가계 소득의 50~60의 빈곤기준치와 비교	Median disposable incomes(before housing costs): th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사회보장지출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	national sources for non-European OECD countries, and/or the OECD Economic Outlook, No. 93, May 2013, and the European Union's Annual Macroeconomic Database (AMECO)
실업수당	1차 실업급여: 실업 보험 또는 실업 보조금 2차 실업급여: 실업보조, 사회보조, 학자금 융자	OECD Social Benefit Recipients Database (SOCR)
4. 보건 지표(Health Indicators)		
기대수명	평균연령별 사망률을 기준으로 평균 수명 산정	OECD Health Statistics 2013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World Bank for non-OECD countries
인지된 건강상태	신체적, 정신적 차원을 포함하여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 인식("당신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OECD Health Statistics
자살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기대에 따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한 행위	WHO Mortality Database
보건지출	건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종소비와 건강관리 인프라에 대한 자본 투자	OECD by Health at a Glance 2013
의료보험	공공프로그램 및 개인건강보험을 통해 건강 관리 상품 및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인구 비율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survey (EU-SILC)
5. 사회 통합 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		
삶의 만족도	총 11개의 사다리 가운데 0이 바닥, 10이 최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현재 사다리의 어떤 단계에 서있다고 느끼십니까??	the Gallup World Poll
관용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도시)이 이민자들에게 살기 좋은 지역입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도시)가 소수민족이 살기에 좋은 지역입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게이 또는 레즈비언들이 살기 좋은 지역입니까?	the Gallup World Poll
기관신뢰	이 국가에서, 당신은 중앙정부, 금융기관, 은행에 대해 각각 신뢰하십니까?	the Gallup World Poll
안전 및 범죄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도시)은 밤에 혼자 걷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경찰력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the Gallup World Poll, crime rates: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UNODC) Database
사회자본	지난달에 당신은 다음의 것을 수행한적이 있습니까? 기부금을 낸적이 있습니까? 낯선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운적이 있습니까? 시간을 내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the Gallup World Poll

21) <http://www.oecd.org/social/societyataglance.htm>

2) GSS(General Social Survey)²²⁾

GSS 설문은 매해 실시되는 일반 설문(Permanent questions), 3년에 2번 실시되는 순환 설문(rotating questions: 1973, 1974, and 1976, or 1973, 1975, and 1976), 그리고 투표조사와 같이 특정 이슈에 따른 특별 설문(a few occasional questions)으로 구성된다.

(1) GSS 서베이 조사 연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	1980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	1993	1994	-	1996	-	1998	-	2000
-	2002	-	2004	-	2006	-	2008	-	2010
-	2012	-	2014						

(2) 조사 내용

| 표 4-16 | 연도별(1985-2014) GSS 설문지 내용

모듈	주제	연도
1. General Social Survey Topical Modules	Social Networks	1985, 2004
	Socio-Political Participation	1987, 1994
	Religion	1988, 2000
	Intergroup Relations	1990, 2000
	Work Organizations	1991
	Culture	1993, 2002
	Family Mobility	1994
	Multiculturalism	1994
	Gender	1996
	Emotions	1996
	Markets	1996
	Markets and Exchange	1996
	Mental Health	1996
	Religion and Culture	1998
	Daily Spiritual Experiences	1998, 2004
	Art	1998
	Jobs	1998
	Mental Health	1998
	Multi-Ethnic United States	2000
	Information Society	2000-2006, 2010+

22) <http://www.norc.uchicago.edu/GSS+Website/>

모듈	주제	년도
	Freedom	2000
	Health Status	2000
	Prejudice	2002
	Doctors and Patients	2002
	Quality of Working Life	2002, 2006, 2010, 2014
	Employee Compensation (see Shared Capitalism)	2002, 2006
	Altruism	2002, 2004
	Adult Transitions	2002
	Mental Health	2002
	Immigration (3 card)	2004
	Genes	2004
	Altruistic Love	2004
	Guns	2004
	Spiritual Transformations	2004
	Daily Spiritual Experiences	2004
	Catholics	2004
	Alcohol	2004
	Voluntary Associations/Social Networks	2004
	Science,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s	2006-2014
	Shared Capitalism (see Employee Compensation)	2006, 2010, 2014
	Mental Health II	2006
	Number Known	2006
	Gun Control	2006
	Disabled	2006
	Mental Health I	2006
	Self-Employment	2008
	Jewish Identity	2008
	Social Inequality	2008
	Terrorism Preparedness	2008
	Global Economics	2008
	CDC High Risk Behaviors	1988-2010
	Sexual orientation	2008
	Clergy/Sex	2008
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Modules	Role of Government	1985, 1990, 1996, 2006
	Social Networks & Support Systems	1986
	Social Relations & Support Systems	2001
	Social Inequality	1987, 1999, 2009
	Family & Changing Gender Roles	1988, 1994, 2002, 2012
	Work orientation	1989, 1997, 2005
	Religion	1991, 1998, 2008
	Environment	1993, 2000, 2010
	National Identity	1995, 2003, 2013
	Citizenship	2004, 2014

3. other GSS Variables(includi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출처 : GENERAL SOCIAL SURVEYS, 1972-2014: CUMULATIVE CODE BOOK, April 2016

| 표 4-17 | 2006, 2008, 2010 GSS의 주제모듈별 설문지 주제

모듈	주제	년도
1. General Social Survey Topical Modules	AIDS 위험도(CDC High Risk Behaviors)	2006, 2008, 2010
	종교윤리(Clergy/Sex)	2008
	장애(Disabled)	2006
	급여 및 보상 체계(Employee Compensation) (see Shared Capitalism)	2006
	글로벌 경제(Global Economics)	2008
	총기규제(Gun Control)	2006
	유태인 정체성(Jewish Identity)	2008
	정신건강 I (Mental Health I)	2006
	정신건강 II (Mental Health II)	2006
	배경지표(Number Known)	2006
	고용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2006, 2010
	과학(Science)	2006, 2008, 2010
	자영업(Self-Employment)	2008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	2008
	급여 및 보상체계(Shared Capitalism) (see Employee Compensation)	2006, 2010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	2008
	테러 대응(Terrorism Preparedness)	2008
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Modules	환경(Environment)	2010
	종교(Religion)	2008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	2006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	2008
	노동 지향(Work Orientation)	2006

3. other GSS Variables(includi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출처 : GENERAL SOCIAL SURVEYS, 1972-2010: CUMULATIVE CoDE Book, March 2011

3) UN 도시지표(UNHABITAT's Urban Indicators)²³⁾

유엔 인간거주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a Settlements: HABITAT)는 전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세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중심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UN 도시 지표 설계하였다. 이 지표는 총 5개 분야로 나뉘었으며 인간 기본권 확보와 빈곤의 해소, 시민 중심적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20개의 주요 지표(20 Key indicators), 13개의 확장지표(13 Extensive indicators), 9개의 체크리스트(9 Check-lists)로 구성된다. 5개 분야는 주거, 사회발전과 빈곤 해소, 환경관리, 경제발전, 거버넌스이다.

| 표 4-18 | UN 도시지표 항목

분야	정책목표	정책지표
주거	• 적절한 주거권 촉진	• 건물내구도
		• 주택 밀집률
		• 적절한 주거권
		• 주택가격과 임대료
	• 거주기간 안정 제공	• 안정된 거주기간
		• 인가된 주택비율
	•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 제공	• 퇴거율
	• 신뢰를 위한 동등한 접근 제공	• 소득대비 토지가격 비율
• 기본서비스 제공 촉진	• 주택재정상황(1년간 주택구입시 저당 대출 대 비저당권 대출비율)	
	• 안전한 식수 공급률	
	• 향상된 위생시설 공급률	
사회발전과 빈곤의 해소	•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평등한 기회부여	• 서비스 연계율
		• 5세이하 유아사망률
		• 범죄율
		• 도시폭력정도
	• 사회적 통합 증진과 소외집단지원	• HIV 감염자수
		• 빈민지역 거주자 비율
	• 거주지 발전을 위한 성 평등 촉진	• 문맹율
		• 성별 관점포함
• 학교 입학률		
• 여성의원수		
환경관리	•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거주지 형성촉진	• 도시인구 성장률
		• 거주지 계획
	• 물 수요공급관리의 효율성 증진	• 물 소비율(가구당)
		• 물 가격
	• 도시오염완화	• 폐수 처리 형태
		• 고체 폐기물 처리율
		• 일반 고체폐기물 수거율
	• 재난방지와 재건축	• 재난방지와 경감을 위한 시설
		• 재난위험지역이 있는 가구수
	• 효과적이며 친환경적 교통시스템구축	• 출퇴근 시 평균소요시간
• 출퇴근시 교통수단		

23) 2004년 이후 변동 없음

분야	정책목표	정책지표
경제발전	• 지역환경계획과 지역 아젠더 21조약과 관련된 여러기제들에 대한 지지	• 지역환경계획
	• 중소기업 지원강화와 여성창업 지원	• 비공식부문 여성고용 비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증진과 생산적 고용기회의 증진	• 도시 총생산 • 실업률
거버넌스	• 분권화와 지역자치 강화	• 분권화정도 • 지방정부수입
	• 시민 참여 증진 및 지지	• 시민 참여도 • 투표참여율 • 시민 단체수
	• 투명하고 책임감 있으며, 효율성 있는 마을, 도시, 대도시지역의 거버넌스	• 투명성, 책임성

4) EU 도시의 지속가능한 지표(Urban sustainability Indicators)

EU 도시의 지속가능한 지표란 유럽재단에서 1998년에 발행한 도시지속가능성 지표 보고서에 제시된 지표이다. 2015년에 발간된 「Indicators for sustainable cities」에 따르면 기존 15개 지표에 1개 지표(지역별 고유한 지속가능성)가 추가되었다. 도시 지속가능성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4-19 | 도시 지속가능성 지표 주요 지표

구 분	지 표
세계 기후(Global climate)	• 온실가스 총 배출량(CO ₂ , CH ₄ , N ₂ O, CFCs, halon)
대기질(Air quality)	• 연간 대기질 관련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
산성화(Acidification)	• 헥타르당 아산화황(SO ₂), 아산화질소(NO ₂) 침전량(desposition)
생태계 독소화(Ecosystem toxification)	• 독소 물질(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에폭시, 에탄 등) 배출량
도시 이동성 또는 클린 교통 (Urban mobility/clean transport)	• 대중교통, 도보 연간 이용자수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 연간 폐기물 처리량: 폐기물 소각량, 매립량, 재활용 폐기물
에너지 소비(Energy consumption)	• 재생에너지, 전기, 가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 연간 사용량
수자원 소비(Watery consumption)	• 가정용, 산업용, 건물, 상업 부문 수자원 연간 소비량
소음(Nuisance)	• 소음, 악취, 오염에 영향 받는 인구 비율
사회정의(Social justice)	• 빈곤, 실업, 교육, 정보, 훈련, 레저 접근성의 부족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 비율
주거환경(Housing quality)	• 노숙자 수, 무주택자 수
교통사고 발생률	• 범죄율, 교통사고 발생률
경제도시의 지속가능성 (Economic urban sustainability)	• 도시 마이너스(city minus)의 총 개인 소득: 도시 재정 적자, 환경비용, 연간 1인당 오염피해
녹지, 공공 공간, 유산 (Green, public space and heritage)	• 녹지, 공공 공간, 지역유산 비율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 사회활동 참여비율(도시개선 및 삶의 질에 대한 협회에서 활동적인 구성원) • 투표율(지방선거에 참여한 인구 비율)
고유한 지속가능성(Unique sustainability)	• 도시별로 정의되는 방식 다름: 환경, 사회, 경제적 범주에서 도시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고유한(독특한) 요소 또는 사건의 범주를 나타냄

출처 : EU Science for environment Policy, 2015, Indicators for sustainable cities, p.20

5) 뉴욕 도시정책지표

뉴욕시 도시정책지표는 도시행정업무를 대민과 관련되는 6개 분야로 나누고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분야에는 공공안전 및 집행, 공중보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시경제, 도시환경, 시민서비스가 포함된다.

| 표 4-20 | 뉴욕의 도시정책 지표

분야	지표		
공공안전 및 법집행	• 중범죄-총건수	• 살인 및 과실치사	• 총기사용 경찰관수
	• 가정폭력 관련 구속건수	• 가정폭력 위반 보호명령위반 구속건수	• 음주운전 구속
	• 도심평균승용차 속도	• 민간화재사망자	• 교통사고
	• 시민민원 총제기건수	• 총교통사망자수	• 보행자사망
	• 30일 이내 도로파손 보수율	• 가로등 10일 이내 보수율	
공중보건	• 결핵환자발생수	• 에이즈환자발생수	• 해충관리불만 접수건수
	• 응급실 방문건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 아동학대/보호태만 보고건수(총건수 /1일단위/월별단위)	• 입양건수 • 평균입양완료기간(년)	• 아동복지국 지원 탁아소 등록아동 수
	• 아동지원 성금 모금액	• 공립학교 등록학생수	• 특별교육 등록학생수
	• 신설학생좌석수	• 학교로 복귀한 무단결석자수	• 아동 천식 입원율
	• 신생아 천명중 영아사망자수	•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수율	
도시경제	•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수	• 지역유치 민간기업수	• 지역내 영화 및 TV 촬영일수
	• 총건축허가건수		
도시환경	• 연방기준 충족 방출수 비율	• 월별 보수계획 및 완료율 - 하수처리장	• 공장 재건축 - 시작건수
	• 총 주택가 재활용율	• 일일 쓰레기 매립량	• 거리청소율 67~100%의 청소만족도를 보인 지역수
	• 삶의 질 팀 - 현장조사수	• 삶의 질 팀 - 불법개조 적발건수	• 불법낙서 검거수
시민서비스	• 시민위험제거 요청 일일이내 해결율	• 조사완료율	• 기일내에 조사완료하지 못한 민원수
	• 장애인 주차허가 : 평균대기시간	• 승인후 6개월내에 설치되는 신호등 비율	• 선행신호 : 9일 이내에 교체 또는 보수되는 비율
	• 도로파손 : 30일 이내에 보수되는 비율	• 굴착공사 요하는 누수불평 30일내 처리율	• 24시간이내 하수구 막힘 관련 불평 해결률
	• 건설관련 등록 불평건수	• 건설관련 해결 불평건수	• 최초 건축계획검사까지 소요되는 평균일수
	• 조사완료된 위급상황관련 불평건수	• 엘리베이터관련 불평평균 해결시간	• 비긴급상황관련 불평 평균해결시간(일)
	• 민원서 답변기간(일)	• 전화관련 불평처리기간	• 접수된 불평건수
	• 불평 해결건수	• 출생증명서 수취까지의 평균소요일수	• 사망증명서 수취까지의 평균소요일수
	• 당면 긴급상황 불평 평균조사		

6) 뉴욕 사회지표(New York Social Indicators Survey : NYSIS)²⁴⁾

콜롬비아 대학교의 사회지표 조사 센터는 불평등과 조사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 지표 조사 센터는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뉴욕시 및 기타 지역의 사회 서비스 관리자, 계획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고유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발된 뉴욕의 사회지표는 4개 분야(도시 인지도, 건강과 교육, 재정과 사회자산, 경제와 사회상황)로 구성되어 있다.

| 표 4-21 | 뉴욕 사회지표

분야	지표	질문내용
도시 인지도	· 도시만족도	· 살기 좋은 도시 여부
		· 지난 몇 년간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는지 여부
	· 경찰 보호	· 경찰보호의 안전성
		· 공립학교 수준
건강과 교육	· 건강상태	· 건강상태
		· 활동(업무)하는데 있어서의 건강상태
	· 교육	· 고등교육 이수 여부
재정과 사회자산	· 재정상태	· 가구의 전체 자산(순자산)
		· 자가소유 여부
	· 사회자산	· 친척 또는 친구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
경제와 사회상황	· 경제상황	· 빈곤선 기준의 가구 소득
		· 돈이 부족하여, 공공요금 체불한적이 있는지 여부
		· 돈이 부족하여, 굶은적이 있는지의 여부
	· 사회상황	· 주거미달여부
		· 1인당 방수
		· 이웃사람들과의 관계
		· 밤거리 안전도
		· 범죄피해 여부
		· 가족구성원의 보험 가입 여부

출처: <http://cupop.columbia.edu/research/signature-research-areas/nyc-fact-sheet>

24) <http://www.columbia.edu/cu/ssw/projects/surcent/index.html>

7) American Census Bureau ²⁵⁾

(1) 미국 인구 조사

구분	설문내용
가구주 설문	• 가구원 수
	• 주택 소유 형태
	• 연락처
	•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혈통(히스패닉계 등)
	• 인종
	• 집 이외 타 거주지
가구원 설문	•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
	• 성별
	• 생년월일
	• 혈통(히스패닉계 등)
	• 인종
	• 집 이외 타 거주지

(2) 미국 지역사회 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 ²⁶⁾

미국 인구조사국은 모든 카운티,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 하와이 원주민 본토에서 미국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지역사회 조사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매년 실시하며, 중요한 경제, 사회, 인구통계 및 주택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 지역사회 조사는 2010년 인구조사의 일부분으로서, 2010년 인구조사는 인구수 파악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 지역사회 조사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에만 제공하던 자세한 정보를 매년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미국 지역사회 조사는 1996년에 전국적으로 몇몇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미국 전체 카운티에서 실시되고 있다. 유형별 질문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25) <http://www.census.gov/>

26)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acs/>

Administrative
이름
연락처
가구원 수
가입 날짜
Basic (Population)
나이
성별
히스패닉계 유무
인종
가구주와의 관계
Social (Population)
혈통
시민권 유무
장애유무
학력 수준
최근 1년간 출산 유무
조부모의 손자 돌봄 정도
가정 내 주 사용 언어
이혼 유무
결혼 유무
군복무 기간
출생지
취학 등록 자녀 수
1년전 거주지
학부 전공
전쟁 참전 기간
장애등급별 적절한 VA(Veterans Affairs) Service 수혜 정도
출생지, 자국 체류 기간

Financial (Housing)
상점 및 병원 수
공공요금
아파트(Condominium) 비용
보험료
이동주택(Mobile Home) 비용
주택 부채
토지세
임대료
주택 및 토지 거주권(사용권)
자산가치
Physical (Housing)
토지면적
농지 매매(Agricultural Sales)
침실 수
주택 난방료
주방 시설
배관 시설
통화 서비스 가능
방 수
주택 형태
교통시설
입주 연도
주택건립 연도
Economic (Population and Housing)
노동계층(Class of Worker)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s) 혜택
의료보험 혜택
소득
자동차
전년도 고용 상태
산업
출근 상황
직업
근무지
취업 상태 및 구직활동

자료: http://www.census.gov/acs/www/about_the_survey/questions_and_why_we_ask/ 에서 세부질문 제공

8) 시애틀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표(Indicators of sustainable community)²⁷⁾

1993년 시애틀은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였고, 당시 지표는 4개 영역(환경, 인구와 자원, 경제, 문화와 사회)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1995년 지표를 재정비하여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1998년 3차 정비, 2004년 4차 정비하여 총 5개 분야(환경, 인구와 자원, 경제, 청소년과 교육, 건강과 지역사회)에 40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 표 4-22 | 시애틀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표

분야	지표		
환경	• 야생연어 회귀율	• 공기 오염정도	• 자연생태의 보전(건강)
	• 농지침식(지형침식)	• 도보-자전거 친화적인 거리	• 오픈 스페이스 마을
	• 손상되지 않은 지면		
인구와 자원	• 인구	• 물 소비	• 고체쓰레기 생성과 재활용
	• 오염방지	• 지역 농장 양성	• 이동이 잦은 운송거리와 연료소비
	• 재생가능한-재생불가능한 에너지 사용		
건강과 지역사회	• 저체중 출생아	• 어린이 천식병원	• 선거참여
	• 도서관과 지역사회 센터 이용률	• 예술에 대한 대중관심(참여)	• 원예
	• 근린지역	• 삶의 질 인식	
경제	• 수입 1달러당 에너지 사용	• 고용의 집중화	• 미고용
	• 개인수입의 분배	• 건강보호 비용	• 기본수요에 필요한 노동
	• 적당한 주택가격	• 빈민가정 어린이	• 지역사회 활성화
	• 비응급상황에서 보유한 응급실 비용		
청소년과 교육	• 고등학교 졸업자	• 교육의 다양성	• 예술교육
	• 학교자원봉사율	• 청소년관련 지역사회서비스	• 법(정의)의 형평성
	• 성인교육	• 청소년 범죄	

2012년에는 행복 이니셔티브(The Happiness Initiative)가 시작되었다. 행복 이니셔티브는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과 사회의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갖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애틀의 행복 이니셔티브는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진 행복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개발되고 제공된 도구와 자원을 사용하는 지역의 행복 이니셔티브로 시애틀의 지속가능한 지표의 5번째 개정 지표이다. 이 지표는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에 기반하고 있다.

27) <http://sustainableseattle.org/programs/regional-indicators/> <http://www.happycounts.org/>

9) 휴스턴의 지역 조사(Houston Area Survey)²⁸⁾

휴스턴의 킨더 연구소(The Kinder Institute)는 1982년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휴스턴 지역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18세 이상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며, 표본크기는 초기 412~550 가구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650가구, 2010년과 2011년에는 750가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조사부터는 9개 권역 1,300명의 응답자를 확대 포함하였다.

조사내용은 교육, 범죄, 건강관리, 세금 및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차별 철폐 조치에 대한 가치판단, 지역개발 및 보행자 중심의 도시, 이동성과 교통, 토지이용규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평가, 낙태, 동성애, 가족 가치에 대한 태도변화 등이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4-23 | 휴스턴의 지역 조사 항목

조사영역	세부문항		
경제	• 지역의 경제상황 평가	• 국가경제	• 미래 전망
빈곤	• 빈곤 확대	• 복지 제도	• 기타 빈곤 프로그램
소수 민족 관계	• 전반적인 관계 평가	• 집단간 상호작용 정도	
신규 이민	• 신규 이민자의 태도	• 재난 경험(카트리나 등)	
차별에 대한 믿음	• 차별에 대한 직접 평가	• 인지도 차별에 대한 추가 측정	• 집단 불평등에 대한 이해
편견 및 구제방법	• 차별 철폐에 대한 태도	• 기회 형평성 보장	• 근린주구 조성의 영향
	• 기타 개인적 편견 지표		
교육	• 학교의 질	• 학교 정책	
범죄 및 공공 안전	• 범죄 두려움	• 사형	• 총기 소지
	• 약물 및 알코올	• 감금	
건강과 질병	• 개인 건강	• 건강정책	• 정신 건강
세금과 사회자본	• 세금 부과	• 자원봉사	• 사회 자본 지표
도시 비전	• 도시와 교외지역	• 중심부의 어메니티	• 이동성과 혼잡
	• 계획과 토지이용규제	• 정치	
환경적 태도	• 지역 오염	• 국가 및 세계적 우려상황	
성(gender) 역할과 "가족 가치"	• 변화하는 미국의 가족	• 여성의 평등	• 낙태 권리
	•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	• 피임	• 안락사
	• 포르노	• 기타 시민의 자유권	
종교와 정치	• 종교성	• 정치 제휴	• 정부의 역할
국제 관계	• 지속적인 문제	• 냉전 시대(1982-1993)	
개인 속성	• 응답자 특성	• 언어 능력	• 휴스턴으로 이동
이민 패턴	• 국가 기원	• 인종 특성과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 사회경제적 지위	• 직업 경험	
기타	• 가족 상황	• 조사 특성	

28) <http://kinder.rice.edu/has/>

10) 보스턴 지표 29)

보스턴재단, 보스턴 지역재단은 지역사회 자선가, 노조위원장, 사회인사 등과 함께 보스턴과 주변 대도시지역 계획위원회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보스턴 지표는 2000년에 처음으로 공표되었으며 2008년까지 공적토론, 시민의식 공유, 정보공유를 통해, 10개 분야로 세분화 시켰으며 시민들이 보스턴과 그 주변지역을 이해를 시키는 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70여개의 광범위한 목표, 150여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표 4-24 | 보스턴 지표

분야	정책목표	지표
도시 활력	• 시민 건강에서 보스턴의 경쟁우위	• 인종, 민족 다양성, 외국 태생 인구, 시민담론의 기회(포럼 등)
	• 높은 비율의 사회자본	• 이웃에 대한 신뢰도, 자원봉사 활동
	• 인구학적 대표성을 갖는 리더십	• 여성 임원 비율, 의원의 인종과 성별 다양성
	• 높은 투표 참여율	• 등록 선거자수, 투표율, 경쟁선거 비율
	• 건강한 공동체와 인종 관계	• 증오범죄(hate crime) 유형 및 수, 인종에 따른 거주지 분리정도
	• 지역사회의 대한 안정성과 투자	• 특정기간 가구 이동 비율, 소기업 대출
	• 통합 환경	• 언어적 고립성과 다언어 접근성, 보편적 접근성
	• 정보 접근성	• 도서관수, 공동체 발행 신문
	• 비영리 분야의 강화	• 비영리 단체 예산 및 유형
	• 공공자원과 자선활동	• 자선단체 수, 예산, 기부금
문화생활과 예술	• 문화 및 예술에서 보스턴의 경쟁우위	• 예술관련 사업체 수, 예술의 대한 국가지원금
	• 신나는 지역 목적지	• 관광객수, 문화 교육, 이벤트 등의 참여도
	• 문화참여의 공평한 기회	• 아동관련 예술 시설, 무료 입장권 또는 할인권 대상 시설
	• 예술단체의 공동체 기여	• 분야별 예술 단체 위치, 예술종사자 가구
	•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	• 비영리 예술기관 대표의 다양성, 공공 민족 행사
	• 예술교육 기회	• 공립학교의 예술 담당 교사, 예술 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방과후 예술 활동 참여 어린이
	• 예술에 대한 공공자원과 자금	• 연도별 예술지원 자금
경제	• 부양에서의 경쟁우위	• 고학력자 비율, 혁신역량 측정을 위한 특허권수, 연구개발비 및 벤처 자본 자금
	• 경제적 강점과 회복력	• 산업별 취업자수, 실업율, 중소기업, 사무실 및 호텔 공실률
	• 경제적 형평성	• 저소득층, 인종/민족별 가구평균소득, 인종/민족별 실업률 및 교육, 빈곤가정 비율
	• 부담가능한 생활비	• 경제 자립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 숙련 노동력	• 교육정도, 직업훈련 및 취업대기리스트, 숙련불일치
	• 경제 유동성	• 가구소득대비 지역대학 학비, 2년제대학 졸업자수
	• 시예산의 재정건전성	• 메사추세츠주의 총 수입과 지출, 보스턴시의 총 수입과 지출, 소득 분야에 따른 세금 부담률
교육	• 교육에서의 경쟁우위	• 교육정도, 4학년/8학년의 NAEP 점수결과
	• 학습준비도와 준비된 학교	• 높은질의 선행교육접근성, 학교별 입학율, 특수인구를 위한 공립학교 등록수
	• 학교선택	• 유형별 학교
	• 높은 질의 문화와 환경	• 신체활동과 건강식에 대한 접근성,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의 접근성, 공립학교 편의시설
	• 높은 질의 교수법	• 높은 자질을 가진 교사수, 학생들의 다양성과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킬 교사 수, 교원 1인당 학생수(공립학교 기준)
	•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 특별활동 기회, 학교일을 배우기 위한 학부모 집단 및 자원, 학교와 비영리 파트너십
	• 준비된 학생	• 공립학교 높은 출석율, 안정된 입학율, 낮은 정학/퇴학율
	• 높은 학업성취	• 1학년 DIEBLS 읽기 점수, 3학년 읽기 능력, 8학년 수학능력, 10학년 MCAS 능력

29) <http://www.bostonindicators.org/>

분야	정책목표	지표
	• 대학 입학과 졸업	• AP 와 SAT 점수, 4년 졸업비율, 고등교육 입학율
	• 경력향상을 위한 교육	• 직업 및 기술 훈련 자격증비율, 커뮤니티 칼리지 3년 졸업율, ABE ESOL 대기 명단 수
	• 교육을 위한 공공기금	• 조기교육 및 케어를 위한 기금, k-12 교육을 위한 메사추세츠 기금, 고등교육 기금부서
환경과 에너지	• 환경과 에너지에서의 경쟁우위	• 온실가스 배출
	• 환경관리	• 글로벌 자원의 1인당 소비당 생태 발자국, 폐기물 및 재활용 톤수 및 요금
	• 환경적 정의와 형평성	• 어린이 공공 보건(천식환자 수 등), 환경정의인구, 환경오염지역
	•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 안정성	• 보스턴과 뉴잉글랜드의 기후변화추세, 녹색건물 및 교통(LEED 인증 건물), (주 별) 대체 연료 비교
	•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토지 이용	• 스마트 성장, 주거 밀도 및 서비스
	• 깨끗한 공기	• 미세먼지농도 변화추이, 지역내 오존농도, 저탄소배출자동차
	• 깨끗하고 풍부한 물	• 보스턴 강과 하구에서 수영가능한 날, 신선한 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	• 도시 야생동물과 자연지역 보호면적, 생물 다양성(새들의 개체수 및 종류)
	• 접근 가능한 녹지 휴양공간	• 녹지공간 분포, 국립공원의 입장객수
	• 아름답고 견고한 지역사회	• 수목피도, 지역사회 정원수, 보행도로와 자전거길
	• 환경과 공공용지를 위한 일관된 공공 지지	• 환경과 공공용지를 위한 기금
	• 건강에서의 경쟁우위	• 성인비만율, 보험료
건강	• 건강한 생활에 대한 접근성	• 건강한 음식 및 운동(운동 장소, 자전거 도로)에의 접근성, 보건소 (community health) 접근성
	• 인종/민족별 위험 요인에서 건강 격차 해소	• 저체중신생아율, 비만율, 만성질환율(당뇨, 심장병), 기대수명
	• 건강한 아동과 청소년	• 정신건강, 출생율, 건강행동, 위험행동
	• 건강행위 증가	• 영양과 아채 소비(일일 아채 섭취량), 흡연율, 정기적 신체활동 참여
	• 만성질환예방	• 비만율, 천식진단율,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율, 성병률
	• 건강유지비와 공공지출의 균형	• 공중보건 지출 수준, 저렴한 건강 관리(1인당 건강 지출액)
주거	• 주거에서 보스턴의 경쟁우위	• Case Schiller의 주택가격 지표, 모기지론 이용률
	• 모든 거주자에게 알맞은 주택	• 평균주택가격, 복합 주택과 교통비 부담, 주거비 부담
	• 적정가격 주택의 공정한 분배	• 적정가격 주택공급률
	• 공정주택거래	• 인종/민족별 주택 접근성, 주거 밀도
	• 적절한 주택공급	• 가구주 수의 변화, 적절한 주택 공급(총 공실률, 소유자 공실률, 임대 공실률 등)
	• 적절한 주택생산	• 적절한 주택 생산(1인가구 주택 수, 다가구 주택 수 등)
	• 노숙인 예방	• 노숙인 및 노숙 어린이 수
	• 건강한 가정과 주택	• 주택 소유비용, 방치된 소유물, 입류비용
공공안전	• 주택을 위한 공공기금	• 주택을 위한 공공기금 추세
	• 공공안전에서의 경쟁우위	• 자치구 안전 및 방어를 위한 연방정부 기금
	• 낮은 범죄율	• 범죄 유형의 추세
	• 공공안전과 삶에 질에 대한 인식	• 공공 거주민이 인식하는 안전, 삶의 질에 대한 인식
	• 강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연계망	• 이웃신뢰도, 혐오하는 범죄유형, 가정폭력비율, 강한 지역사회조직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지적 환경	• 청소년 범죄율, 학교에서의 비행청소년비율, 특별활동시간에 학교 이탈자 수
기술	• 공공안전을 위한 자금마련 및 지지	• 보스턴 경찰의 자금 동향, 범죄예방을 위한 메사추세츠 기금, 연방기정국을 위한 기금
	• 기술에서의 경쟁우위	• 연구, 개발, 벤처 자본 기금, 1인당 특허권
	• 기술을 가진 노동력	• STEM학위 소지자비율, 하이테크 클러스터 고용(하이테크 설립, 하이테크에서 고용자 비율 등)
	• 기술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	• 가정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율,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율, 지역사회 과학기술 접근성(비영리 기술 센터 등)
교통	•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기술 사용	• 보스턴 공립학교에서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기술 사용, MCAS STEM
	• 교통수단에서의 경쟁우위	• 국내외 향상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유형, 가구수입 중 교통비 지출비율
	• 통합된 지역교통체계	• 지하철 중계율, 가구별 자동차주행거리, 주된 교통수단
	• 균등하고 질 높은 교통 접근성 향상	• 건강한 교통 수단 접근성, 학교에 걸어가갈 수 있는 아동(어린이보호구역내의 아동 수), MBTA 역에 대한 접근성, 출퇴근시 걸리는 시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	• 자동차 소유가구, 저탄소배출차 이용여부, 온실가스 배출농도
	• 적절한 공공 기금	• 연방정부의 교통기금 조성

출처: <http://www.bostonindicators.org>(2016.06 조회)

11) 캐나다의 지속가능성 지표(Indicators for sustainability) 30)

전 세계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계획의 성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2년 국제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ies International)가 지표를 수립하였다. 이는 캐나다 국제 개발처(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를 통해 제공된 캐나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정량, 정성 지표 모두를 포함하며, 경제를 비롯한 환경, 사회 영역으로 구분된다.

| 표 4-25 | 캐나다의 지속가능성 지표

분야	지표	세부지표	
경제	• 고용/실업률	• 불완전고용/고용/실업률	• 지역경제에서 녹색 일자리 비율
		• 근로자의 평균 교육 기간	
	• 경제성장	• 연간 GDP 성장률	• 연간 GNP 성장률
		• 순 수출 성장률	•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	• 녹색공간	• 총면적 대비 보존지역/저수지/수로/공원 비율	• 도시 지역 및 인구 크기 대비 도시내 나무 비율
	• 온실가스 저감/에너지 효율	• 도시별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재생에너지원에서 오는 도시에서 소비되는 총 에너지 비율
	• 이동성	• 교통수단 부담률	• 평균 통근 시간과 비용
	• 수질/가용성	• 수질 이용 총량	• 수질 지수/점수
		• 적절하고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 대기질	• 입자상 물질 수준(PM10 - mg/m3)	• 입자상 물질 수준(PM2.5 - mg/m3)
	• 폐기물/재사용/재활용	• 재활용률(폐기물 전환 비율)	• 고체 폐기물 발생량
사회	• 완벽한 근린주구/압축도시	• 단거리내에서 지역/근린주구 서비스의 접근	• 범죄율
		• 소득 분배와 불평등	
	• 주택	• 사회적/저렴/우선 순위 주택 비율	• 부동산 유형별로 주택 부분의 실패 (Breakdown)
	• 공공 공간의 질	• 좋은 상태의 도로율	• 도시 지역 및 인구 크기에 대비한 녹색공간(공공 공원)의 범위율
	• 교육	•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 수	• 성인 문맹률
	• 위생	• 대안적(효과적)인 위생 하수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수	
	• 건강	• 사망률/기대수명	•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30) http://www.mayorsinnovation.org/images/uploads/pdf/2_-_International_Case_Studies.pdf

12) 런던 서베이(Annual London Survey)³¹⁾

2000년 이후 런던은 매년 범죄, 치안, 환경, 교통 등을 포함한 주요 문제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런던 서베이 결과는 시민들의 의견 및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책 결정 및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2015년 런던 서베이는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18세 이상의 런던 거주자 3,8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2015년 조사는 살기 좋은 런던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이 조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런던 거주민들이 삶의 질에 만족하고 이러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런던 거주민들이 생활하고 일하기 위한 성공적인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엇인가?

셋째, 도시에서의 경험과 즐거움을 위한 수단으로 런던의 생활의 다양한 측면의 순위와 만족도의 균형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 표 4-26 | 런던 서베이 지표(2015년 기준)

영역	지표	
런던의 생활	• 런던 거주 기간	• 생활지역(local area) 거주기간
	• 런던 지역의 만족도	• 생활지역 만족도
	• 생활지역의 다양한 측면의 동의정도(고령층과 젊은층과의 관계가 좋다/다른 인종 및 종교 지역간 관계가 좋다/이웃간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 등)	
미래의 런던	• 런던생활에서의 개선점	• 생활지역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예: 많은 거리, 광장, 공원이 매력적이고 역동적이다/새로운 발전은 사람들의 모든 수요를 충족한다 등)
	• 전반적인 건설환경(built environment) 만족도	
문화 및 스포츠	• 런던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영소의 다양화,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 문화 활동 참여 기회 등)	• 런던의 문화 및 스포츠에 대한 만족도(런던은 창의적이고 문화적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에게 기회이다/런던은 관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 전반적인 문화 및 스포츠 영역의 만족도	
주거	• 런던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보다 많은 사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민간주택은 보다 저렴해야 한다 등)	• 런던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민간임대 주택의 가용성과 경제성/품질 만족도/신규주택이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는지 등)
	• 전반적인 주거 분야 만족도	
교통	• 런던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대중교통은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다/대중교통은 신뢰할 만하다/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등)	• 런던의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저공해 버스와 택시와 같은 녹색교통, 대중교통 네트워크 확대, 대중교통 서비스 신뢰성 등)
	• 전반적인 교통 분야 만족도	
환경	• 런던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깨끗한 공기/공원 및 녹색공간 접근성 확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	• 런던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공기 질/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 지역의 재사용 및 재활용 서비스의 가용성 등)
	• 전반적인 환경 분야 만족도	
경제	• 런던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공정한 생활 임금 제공/인구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학교, 병원 설립/국내 및 국제 비즈니스 및 투자 유치 등)	• 런던의 경제에 대한 만족도(생활임금, 높은 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 보장을 위한 지원/ 혁신과 기술 개발 등)
	• 전반적인 경제 분야 만족도	
안전	• 런던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신뢰할 만한 경찰/안전한 교통 서비스/지역사회 사람들간의 좋은 관계 등)	• 런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사업/가로조명/위험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등)
	• 전반적인 안전 분야 만족도	
런던의 전반적인 경험	• 런던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주택, 주거비, 경제, 인구 증가, 환경, 건강서비스 등)	• 런던 생활의 가장 좋은 점(다양성, 예술, 교통 서비스 등)
	• 런던 생활의 가장 나쁜 점(거주비, 교통혼잡, 인구과밀, 저렴한 주택 부족 등)	• 미래 런던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저렴한 주택, 다른 주거 선호, 인구 증가, 건강 서비스 역량, 불평등 등)

31) <http://data.london.gov.uk/dataset/annual-london-survey-2015>

13) 도쿄도 도시지표³²⁾

도쿄도 도시지표는 도쿄도의 정책목표와 실적수준을 도민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지표로 작성하였으며, 1999년 99개 항목으로 구성된 'Tokyo Checkup list 99'(1999년)을 기반하고 있다.

도쿄는 「천객만래의 세계도시 - 도쿄」라는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누구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쿄',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쿄', '선구적인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는 도쿄'를 실현하기 위한 16개의 정책 목표, 35개의 전략 대책을 마련하였다.

| 표 4-27 | 도쿄도 도시정책 지표

기본목표	정책목표	정책지표
누구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쿄	• 녹지와 문화가 풍부한 도시 형성	• 녹지율(구부, 타마부) • 도쿄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 직주균형의 도시 실현	• 도심 3구로의 통근통학 시간이 편도 1시간 미만의 사람의 비율 • 타마 지역에서 도구부의 통근률
	• 원활한 사람·재화·정보의 흐름으로 도시의 편리성 향상	• 자동차 혼잡시 평균 통행 속도 • 도쿄권 철도의 혼잡률 • 트럭의 적재 효율
	• 개성과 능력이 풍부한 인재 육성	• 도립 고등학교 중도 퇴학율 • 도립 고등학교 평가위원 중, 학교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위원의 비율 • 도립 4개 대학의 사회인 입학자수 • 도립 4개 대학의 산/학/공 제휴에 의한 공동 연구수
	• 기업의 경영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활성화 도모	• 도내의 사업소 개설율 • 기업이 대학에 제출한 연구 개발비 • 타마 지역(하치오지시, 히노시) 제조품 출하액 • 아키하바라 지구의 IT관련 산업 신규 입지 사업체수 • 도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관광 소비액·생산 파급효과액의 비율 • 섬실마리 지역의 관광객수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도쿄	• 지역내 위험을 감소하여 안전 거리 실현	• 도로의 골격 방재축 형성율 •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시가지 (불연 영역율³³⁾ 40%미만의 면적) • 중소 하천 유역에서의 치수 안전도 달성률
	• 도쿄의 환경 개선	• 이산화질소 환경기준 달성도 • 디젤차의 배출가스에 의해 폐암으로 사망하는 위험 • 도로주변 주거지역에서의 야간 소음의 요청 한도³⁴⁾ 초과율 • 다이옥신류가 사람의 몸에 섭취된 양(폭로량) • 적정관리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의 삭감률

32) 동경구상(東京構想, THE TOKYO PLAN 2000)

33) 불연영역률이란 시가지의 「불타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 건물의 불연화율이나 방재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도로, 공원 등의 정비 상황으로부터 산출. 불연영역률이 40% 이상에 이르면, 시가지의 소실률은 급격하게 저하됨

34) 요청한도란 구·시읍면장이 도로 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차량 통행의 금지, 최고 속도의 제한, 서행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

기본목표	정책목표	정책지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쿄	• 환경 부하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 이산화탄소 배출량 • 열대야의 날자 • 폐기물의 최종 처분량 • 산업 폐기물의 재이용률 • 누수율
	• 사회자본의 정비를 통한 장기 수명화로 도시의 기능 유지	• 하수도 시설의 장기 수명화 • 도영주택의 장기 수명화 • 도쿄도내 주택의 평균 사용 연수 • 도쿄도내의 중고 주택 유통 건수
	• 지역의 케어 능력을 높여 가능한 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65세 이상 인구 명당의 특별 양호 노인 가정 정원 수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비율 • 복지/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제삼자 평가 실시 • 건강 수명 (65세 평균 자립 기간) • 알레르기 질환(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의 인구 천명당 병자수
	•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구현	• 0, 1세의 보육 서비스 대기 아동 수 • 아이의 윤리관, 규범 의식 정도 • 중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수 비율
	• 일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기 쉬운 사회 실현	• 장기 실업률 • 도립 기술 전문학교 수료생의 취직률 • 여성(30세~39세)의 고용률 • 고령자(60세~69세)의 고용률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 불합리한 사회적 제약을 없애, 개인의 의욕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육아 휴업 정도의 정비율 • 개호 휴업 정도의 정비율 • 65~74세 노인의 사회적 활동 시간 • 65~74세 노인의 학습·연구 활동 시간 •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율
	• 도민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	•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등으로 판단이 곤란한 문제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 대처하고 있는 도민의 비율 • 도청의 IT화 진척도
선구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도쿄	• 도쿄권 메갈로폴리스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21세기의 일본건인	• 수도권 3 환상도로 정비율 • 도쿄만의 컨테이너 취급 화물량 • 도쿄권의 통행자 비율
	• 도쿄의 매력을 높여 세계에 으뜸 가는 국제도시 도쿄	•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회사수 • 외국인 여행자수 • 외국인 유학생수

14) NAPC 사회지표(National Association of Planing Councils' Social Indicators)

미국 비정부조직인 NAPC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이라는 목표 하에 사회지표의 전국적 표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APC는 표준적 지표 개발과 회의를 통해 지역민의 생활과 복지 수준 개선·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전국 규모에서 커뮤니티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NAPC 사회지표 부문은 7개 분야로 복지와 안전, 생산적 복지, 교육, 지역참여, 보육과 환경, 교통,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 표 4-27 | NAPC 사회지표

분야	지표
건강관리와 안전	• 인종별 출생률 1000명당 거주지의 유아 사망률
	• 출생 시 몸무게 2,500그램 미만의 유아 비율(현재 생존한 유아 중)
	• 태어나 처음 3개월 동안 보호기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의 비율
	• 최근 면역력을 지니고 있는 2살 아이들의 비율
	• 청소년 자살률
	• 사망보고서에 따른 인구 십만명 당 사망 나이의 변화비율(암, 심장질환, 뇌혈관 장애 등)
	• 인구 십만명 당 질병 재발생률 비율(암, 심장질환, 뇌혈관 장애등)
	• 65세의 삶의 기대 수준
	• 인구 십만명 당 범죄비율
	• 격하고 심한 위반행위(범죄)로 체포된 17세 이하 소년들의 수
	• 건강보험 보고서에 의한 18-64세, 65세 이상의 거주 비율
	• 건강보험을 가진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 비율
	• 민간 의료 보장제도 서비스를 받은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 비율
	• 비보험가입자들의 병원비 지원비율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 수
	• 지역 사회의 오염물질 남용 방지를 위한 정화 프로그램에 투입된 인구수
	• 65세 인구 또는 그이상의 인구 당 환자방문 일수(가정방문간호)
	• 일반적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18세 또는 그 이상의 성년비율
	• 18세 이상 또는 그이상의 성인 비만률
	• 지난 한달 동안 약물이나 담배, 술에 빠져든 8세~11세 학생 비율
경제적 복지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률
	• 연방 빈곤수준 100% 이하에서 생활하는 18세 이하 아동들의 백분율
	• 급식을 무료로 혹은 보조받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백분율
	• 노인층 빈곤
	• 인종/민족별 빈곤비율

분야	지표
	• 직업 순(純)성장
	• 연평균 임금
	• 실업률
	• 소득의 30%이상 집세로 내는 전세자(renters) 백분율
	•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children by employment status of parents)
	• 한 가정 당 임금이나 월급을 받는 직업수
	• 임금격차 - 상위/하위 5번째
교육준비	• 최고교육수준이 고졸인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시민 백분율
	• 최고교육수준이 대졸인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시민 백분율
	• 최고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시민 백분율
	• 최소 12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출산아수(live births)
	• 공립학교의 중퇴율
	• 표준화된 읽기/수리 시험의 학업성취도율
	• 고교 진학률
	• 병설 유치원이 있는 공립학교 백분율
	• 영어가 제 2언어인 취학연령의 아동들의 백분율
	• 영어가 제 2언어인 시민들의 백분율
	• 초, 중, 고교에서 교양과목 지도에 배당된 주당 시간
	• 고교졸업자로서 2년제나 4년제 교육기관 진학률
공동체 참여	• 보통선거에서 선거자격이 있는 투표자 백분율
	•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 사람들의 백분율
	• 주당 7시간 이상 자원 봉사한 것으로 보고 된 시민들의 백분율
	• 65세 이상으로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된 시민들의 백분율
양육, 포괄적인 환경	• 과거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것으로 보고 된 시민의 백분율
	• 10세부터 14세 까지 소녀들의 출산 수
	• 15세부터 19세까지 여성들의 출산
	• 아동학대나 아동경시의 확인된 사례
	• 지방 법집행기관에 보고 된 가정폭력
운송	• 노인학대, 경시와 착취라고 확증되어 밝혀진 사람수
	• 적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에 접근해 있다고 보고 된 시민 백분율
인구통계	• 장애인을 위한 운송체제/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운송수단의 평균수
	• 연령별 인구
	• 인종/민족별 인구
	• 성별 인구
	• 인구성장

15) 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Quality of Life Reporting System(QOLRS) ³⁵⁾

캐나다 지방 자치단체 연맹(The 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FCM)은 지역의 수
요를 충족(경제성장, 빈곤, 노숙자, 범죄 감소, 깨끗한 공기 제공, 문화기회 확대 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QOLRS를 실시하였다.

1996년 16개의 커뮤니티로 시작하여 현재 7개 주(provinces), 24개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으며,
24개 커뮤니티는 캐나다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회원에는 최소 200,000명이 포함된다.
이 지표는 10개 영역 8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지표			
인구통계학적 배경 (10)	•인구증가	•가구규모	•가족 구성	•평균소득
	•세입자 & 소유자	•인구 이동성	•이민(자)	•모국어 사용
	•소수 민족	•원주민 인구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 (10)	•주택지불능력	•주택소유자 구입능력	•핵심 주택 수요	•불량주택
	•노숙자의 탈피 (Changing Face of Homelessness)	•공실률	•임대주택	•월 임대료
	•주거비	•과밀 거주		
시민참여 (3)	•투표	•여성정치인(시정에서 여성비율)	•자원봉사	•기부
지역사회, 사회인프라 (10)	•사회주택 대기자 리스트	•임대주택(Rent Geared to - Income Housing)	•아동돌봄 지원	•사회서비스 및 문화활동
	•여가시설	•문화시설	•장기보호시설	•여가프로그램
	•도서관	•보건의료법체계		
교육 (5)	•교육수준	•고등학교 수료	•학생-교사 비율	•종합 학습 지수 점수 (Composite Learning Index Score)
	•교육전문가			
고용과 지역경제 (9)	•사업부도(파산)	•개인파산	•시간당 임금	•소득 변화
	•주택건설 허가	•실업률	•이민자 실업률	•고용의 질
	•노동력 재배치			
자연환경 (10)	•대기질	•통근거리	•교통수단	•밀도
	•물 소비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Waste Diversion)	•친수목적의 수질
	•음용식수 수질	•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개인과 지역사회 건강 (10)	•체중미달 신생아	•청소년 출산	•조사망률	•유아사망률
	•체질량 지수	•흡연상태	•기대수명	•신체활동
	•천식	•정신건강		
개인의 재정 보장 (10)	•기초생활수급자	•고용보험	•저소득층 비율	•빈곤아동
	•소득격차	•사회복지비용	•근로 빈곤층	•지역사회 경제성
	•교통 경제성	•식품 불안정성		
개인 안전 (9)	•청소년 범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형법 범죄
	•1인당 경찰수	•무기위반(비폭력)	•약물 위반	•교통사고 사망
	•응급 서비스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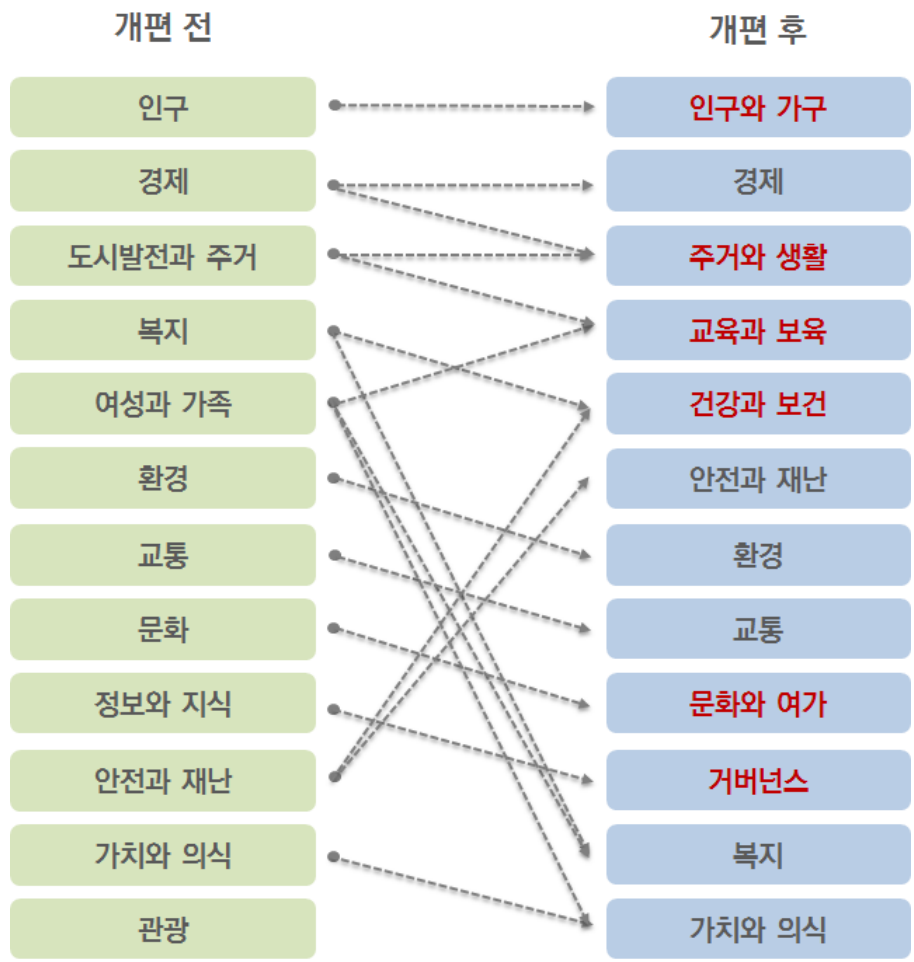
35) <http://www.fcm.ca/home/programs/quality-of-life-reporting-system.htm>

제3절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안)

1.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구성

1) 지표 분야의 재구성

기존 지표체계의 12개 분야를 검토하여 인구와 가구, 경제, 주거와 생활, 교육과 보육,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거버넌스, 복지, 가치와 의식의 12개 분야로 재구성하였다.



| 그림 4-1 | 서울서베이 지표체계

2) 지표체계 영역별 개편 전·후 비교

개 편 전		
12개 부문 42개 영역 227개 지표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	서울평균인 서울거주 외국인	14
경제	경제기반 기업환경 인적자원역량 생활환경	34
도시발전과 주거	주거환경 생활환경 교육환경 재정수준	21
복지	사회적 약자보호 건강한 삶 노후생활	25
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자연환경 폐기물 환경 거버넌스	21
교통	교통 인프라 교통 서비스 환경친화적 교통	21
문화	시민문화 활동 시민문화 진흥 문화기반 환경 문화시장 환경	23
정보와 지식	투명행정 정보활용과 소비	6
여성과 가족	성 평등성 건강한 가정 보육환경	14
가치와 의식	일과소비 가족규범 시민의식	17
안전과 재난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대응	18
관광	도시 브랜드이미지 관광자원 관광산업 관광서비스 여가관광환경	13

개 편 후		
12개 부문 33개 영역 213개 지표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와 가구	서울보통사람 서울거주 외국인	21
경제	경제기반 기업환경 인적자원역량	17
주거와 생활	주거 소비 지역인프라	20
교육과 보육	교육환경 보육환경	11
건강과 보건	건강한 삶 지역보건	11
안전과 재난	재난안전 교통안전 사회안전	19
교통	교통 인프라 교통 서비스 보행환경	26
환경	대기와 녹지 수질과 폐기물 에너지	19
문화와 여가	문화활동과 향유 문화기반 문화시장	21
거버넌스	투명행정 정보지식 시민참여	12
복지	사회적 약자 보호 고령자 생활 성 평등성	19
가치와 의식	가족과 공동체 포용성 정체성	18

* 수정된 부분은 빨간색 표시

2.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안)

1) 지표 총괄³⁶⁾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안)은 12개 분야, 33개 영역, 213개 지표(배경지표 제외)로 구성하였다.

분야	영역	지표				지표수
인구와 가구 (21)	서울보통사람	•중위연령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비율	•거주기간	12
		•혼인상태	•종교	•학력	•직업	
		•합계출산율	•베이비붐세대 비율	•노령화지수	•마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수	
	서울거주 외국인	•성별	•연령	•거주기간	•출신국적	9
경제 (17)	경제기반	•체류자격	•주거유형	•살의질 만족도	•문화활동	8
		•체감물가수준				
		•지역내 총생산	•소득증가율	•사업체 창업률	•지식창출역량	
	기업환경	•실업률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대비 R&D 투자비 중	•고용률	5
		•사무실임대료	•노동분쟁 건수	•사무실 연상면적비율	•컨벤션수용능력	
주거와 생활 (20)	주거	•도심권차량속도				10
		•노동유연성 비율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	•고급인적자원 역량	•고등교육인력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보급률	•아파트거주가구 비율	•아파트가격	
		•공공임대주택 수	•거주지 선택요인	•이사계획	•자거보유 비율	
	소비	•준주택거주가구 비율	•아파트 전·월세 평균가격			6
		•유통시설	•공공요금 수준	•소비자물가지수	•(주관적)소득인식 수준	
		•고용형태	•부채유형			
교육과 보육 (11)	지역인프라	•문화시설	•의료시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생활권 공원면적	4
	교육환경	•가주지역 교육만족도	•평생교육참여율	•교원 1인당 학생수	•고졸생의 대학 진학률	7
		•시설학원수	•교육재정 지원액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수		
	보육환경	•보육시설 이용률	•공공보육시설 비율	•보육방법	•보육시설만족도	4
건강과 보건 (11)	건강한 삶	•흡연율	•비만율	•기대여명	•주관적 건강수준	8
		•우울	•평균운동시간	•만성질환여부	•음주율	
	지역보건	•식중독사고 발생건수 및 환자수	•감염병 환자수	•지역생활안전		3
안전과 재난 (19)	재난안전	•풍수해 피해액	•주택침수 세대수	•붕괴사고 발생건수	•화재 발생건수	8
		•화재 사상자 수	•119 구조 처리건수	•119 구급 이송건수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	
	교통안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인명 피해 수	•보행자교통사고 인명 피해 수		3
	사회안전	•도시위험도	•강력범죄 발생건수	•청소년범죄 발생건수	•야간보행만족도	8
		•자살률	•고독사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족안전유형	
교통 (26)	교통 인프라	•시내버스수	•도시철도 연장	•버스전용차로 연장	•도로연장	11
		•버스정류장수	•자동안동수단 설치율	•저상버스 도입률	•자전거 도로율	
		•공유차량대수	•전기차량대수	•장애인콜택시 대수		
	교통서비스	•지하철 최고 혼잡도	•교통수단이용만족도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율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 통행속도	10
		•자전거 이용률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대중교통 이용객수	
		•65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수	•장애인콜택시 30분 이내 탑승률			
	보행환경	•보행환경 만족도	•보도 면적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연장	•보행전용 거리지정 구역 연장	5
		•보행환경개선 장소 수				

36) 신규지표는 녹색 표시

분야	영역	지표				지표수
환경 (19)	대기와 녹지	•미세먼지 오염도	•NO ₂ 농도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6
		•가로경관 녹지율	•녹지환경 만족도			
	수질과 폐기물	•서울한강 수질오염도	•서울지천 수질 오염도	•음용식수	•물재이용	7
		•생활쓰레기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량	•생활쓰레기 매립 의존도		
	에너지	•가정용 전력 소비량	•물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6
		•자원절약재활용 참여율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량			
문화와 여가 (21)	문화활동과 향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용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지역문화예술 참여율	9
		•문화환경 만족도	•여가활동유형	•휴가활동 경험률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권수	
		•고궁입장객 수				
	문화기반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 유산 잠정 목록	•도서관	•전시시설	•공연시설	7
		•공공체육시설	•영화관람시설	•지역문화시설		
	문화시장	•공연 건수 및 전시 회수	•시지정 전문예술 단체 수	•문화관련 사업체 수	•문화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5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 수				
거버넌스 (12)	투명행정	•청렴도지수	•정보공개비용			2
	정보지식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SNS 이용률	•공공와이파이	•오픈데이터	5
		•서울시 포털 이용만족도				
	시민참여	•자원봉사참여율	•시민 기부	•투표율	•사회참여유형	5
복지 (19)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사회적약자 취업률	•사회복지시설 수	•장애인재활시설 수	7
		•장애인사망률	•장애인사망연령	•사회복지 예산비율		
	고령자 생활	•노인의료복지시설 보급률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급률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형태	•독거노인 비율	8
		•노후희망활동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노인 1인당 의료비	
	성 평등성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율	•성별 비정규직 비율	•가사노동 분담정도	4
가치와 의식 (17)	가족과 공동체	•가족의 통합성	•가정생활 만족도	•다문화가정 비율	•반려동물 보유가구수	5
		•한부모가구 수				
	포용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신뢰	•사회적 차별	7
		•계층귀속의식	•계층이동가능성	•사회적 지원망		
	정체성	•가치관	•직업만족도	•행복지수	•고향인식도	5
		•시민자부심				

2) 영역별 지표

(1) 인구와 가구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서울 보통 사람	•중위연령	•서울시민의 중위연령 파악	•서울시 전체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히 균등하게 2등분하는 연령	•행정자료 - 행정자치부: 1세별 주민등록인구	○		
	•평균 가구원수	•가구당 가구의 평균 구성원 수	•세대당 평균 인구수	•행정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		
	•1인가구 비율	•1인가구의 추이를 파악 하기 위한 지표	•1인가구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조사	○		
	•거주기간	•서울에 거주한 기간조사	•가구원이 서울에 거주한 평균기간 산출	•가구조사	○		
	•혼인상태	•서울시민의 혼인상태 파악	•가구의 미혼, 결혼, 이혼, 사별, 별거 등의 혼인상태에 대한 세부사항 조사	•가구조사	○		
	•종교	•서울시민의 종교현황 파악	•가구의 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세부적인 종교활동 조사	•가구조사	○		
	•학력	•15세 이상 시민의 학력 분포 파악	•가구의 학력 구성비 파악	•가구조사	○		
	•직업	•서울시민의 직업별 현황 파악	•가구의 직업별 종류에 따른 서울 시민 직업조사	•가구조사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가임여성 1만명당 합계출산율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베이비붐세대 비율	•서울시 인구의 베이비붐 세대 비율 파악	•1955년~1963년생 비율	•행정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노령화 지수	•서울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파악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행정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수	•만18세(미성년자) 이하 자녀를 둔 가구수를 파악하여 인구관련 정책에 활용	•만18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수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조사			○
서울 거주 외국인	•성별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의 성별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별 조사	•행정자료 -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 현황	○		
	•연령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의 연령현황 파악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의 연령	•행정자료 - 통계청: 체류외국인 통계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거주기간	•서울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거주 기간을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출신국적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 파악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의 국적	•행정자료 -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 추이	○		
	•체류자격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조사	•행정자료 - 서울시: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		
	•주거유형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주거유형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거 유형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삶의 질 만족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삶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파악	•서울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파악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문화활동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문화활동을 위해 찾는 시설 및 이용정도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및 이용행태 조사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	○		
	•체감물가수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서울 물가수준	•서울거주 외국인들의 체감 물가수준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		

(2) 경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경제 기반	•지역내 총생산	•서울의 거시경제규모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 지역내총부가가치(기초가격) + 순생산물세 (2005년 기준)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소득증가율	•인구규모와 지역내 총생산과 함께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음	• $\{(\text{당해년도 가구소득}/\text{전년도 가구소득})-1\} \times 100$	•행정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신분류), 도시(명목), 도시2인이상 근로자 가구 기준	○		
	•사업체 창업률	•연간 경제활동의 성과, 특히 사업활동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 $(\text{당해년도 창업 업체 수}/\text{당해년도 총 사업체수}) \times 100$	• 행정자료 - 서울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	출처 추가
	•지식창출역량	•도시경제의 혁신활동의 성과를 종합 판단하기 위한 지표	• $\text{총 출원건수} = \text{특허} + \text{실용신안} + \text{디자인} + \text{상표}(\text{당해년도})$	•행정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현황	○		
	•실업률	•경기의 주기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자료로 정책적 대응을 위한 판단 자료로 활용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외국인 투자유치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적 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	•행정자료 -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현황	○		
	•전국대비 R&D 투자 비중	•서울경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 연구개발 인건비등의 경상지출과 기계장치, 토지, 소프트웨어 등에 지출된 자본지출 등의 상대적 규모	• $(\text{서울의 R\&D 투자규모}/\text{전국의 R\&D 투자 규모}) \times 100$	•행정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s.go.kr): 연구개발활동조사	○		
	•고용률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기업 환경	•사무실 임대료	•도시내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의 임대료를 파악하여 기업활동과 기업유치에 필수적 요소로 분석함	•서울 지역의 사무실 임대료 값(4분기 기준)	•행정자료 - 부동산 114/메이트플러스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출처 추가
	•노동분쟁 건수	•근로 종사자들의 노동분쟁 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여건 개선을 추구	•고용노동부의 연차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조사	•행정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시도별 노사분규건수	○		
	•사무실 연상면적 비율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허부구조로서 오피스의 수급여건을 판단	• $(\text{사무실 면적}/\text{건축물 총면적}) \times 100$	•행정자료 - 건축기획과: 건축물연면적	○		
	•컨벤션수용능력	•동북아 컨벤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물적 인프라 환경 파악	•서울 소재 컨벤션수용 인원 •서울소재 MICE 참가자수	•행정자료 - 한국관광공사: 컨벤션 수용현황 -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 MICE 행사통계	○		
	•도심권차량속도	•도시간의 차량속도를 파악하여 시간손실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 시킴	•도심의 승용차 차량 속도	•행정자료 - 교통정보센터: 차량통행속도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인적 자원 역량	•노동유연성 비율	•임시직, 일용직 근로 형태 파악	•{(임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전체 취업자} ×100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		
	•수도권내 연구개발 역량	•경제발전의 주된 인적자원으로 연구개발 인력과 고학력 인력을 파악하여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지표임	•{(수도권 소재 연구원 당해년도 연구원 수+수도권대학 석박사 졸업자수)/인구}×1,000	•행정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시도별 졸업현황(석박사) - 통계청: 시군구별 주민등록 인구(한국인)	○		
	•고급인적자원 역량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존재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직업별 취업자 수)×100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_행정구역(시도)_직업별취업자	○		
	•고등교육인력	•고급인력 배출 Capa 측정 지표	•서울 소재 대학의 일반대학 학생 정원(대학생 수, 대학원생 수)	•행정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cesi.kedi.re.kr)		○ 37)	

(3) 주거와 생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주거	•주거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주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주택보급률	•주택의 양적 충족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정책의 대표지표	•(주택현황/일반가구수)×100	•행정자료 -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2005년부터)	○		
	•아파트거주가구 비율	•주거환경을 특징짓는데 있어 주택 유형별 비율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특히 아파트는 서울을 대표하는 주택유형으로 거주자의 편의성과 환경성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유형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	•(아파트 수/총 주택수)×100	•행정자료 -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2005년부터)	○		
	•아파트가격	•거주지 마련에 드는 경제적 부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아파트 m ² 당 평균매매가격	•행정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 가격동향조사	○		
	•공공임대주택 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행정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임대주택건설실적	○		
	•거주지 선택요인	•가구주의 거주지 선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가구주가 거주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이사계획	•가구주의 5년 이내의 이사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가구주의 5년 이내 이사계획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자가보유비율	•주택재고가 가구수에 비해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준주택거주가구 비율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로, 서울내 주택 빈곤층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아파트 전·월세 평균가격	•주거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아파트 m ² 당 평균전세가격, 아파트 평균월세가격	•행정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 가격동향조사			○

37) 기존 지표체계의 '서울 대학생 수' 지표명과 산출방법 수정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소비	•유통시설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도매센터 등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일반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도매센터/인구수)×100,000	•행정자료 - 소상공인지원과: 유통업체현황(구별)	○		
	•공공요금 수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의 한 가지 요소인 공공시설 및 서비스(전기, 수도 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지급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의 가격 변동을 측정(2010=100)	•행정자료 - 통계청: (품목성질별) 소비자 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시민경제생활의 추이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행정자료 - 통계청: (품목성질별) 소비자 물가조사	○		
	•(주관적)소득인식 수준	•가구 소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1~10점)	•가구조사	○		
	•고용형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상용고용, 임시고용, 자영업 등) 및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 등) 조사	•가구조사	○		
	•부채유형	•가정생활의 부채 유형 파악	•가구의 부채 원인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지역 인프라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주민들의 기초적인 문화접근성을 보장하는 인프라	•{(공공도서관+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문예회관+지방문화원)/인구수}×100,000	•행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의료시설	•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을 포함하는 시설로 의료분야의 기초생활서비스 제공판단	•{(의원+병원+종합병원+치과+한의원+부속의원+특수병원+조산소...)의 병상수/인구수}×10,000	•행정자료 - 보건 의료정책과: 의료기관(구별)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주거지 주차시설 공급수준 파악(아파트와 기타주거 구분) •주택가주차장 = 노상의(구영+거주자우선) + 노외의 구영 + 건축물 부설 중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주차면수를 의미함	•(주택가 주차장 주차면수/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100	•행정자료 - 주차계획과: 주택가주차장	○		
	•생활권 공원면적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생활주변 녹지공간의 양을 측정하여 녹지사업의 개선점 발굴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공원면적 현황	•행정자료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1인당 공원면적)	○		

(4) 교육과 보육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교육 환경	•가정지역 교육만족도	•중고교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게 함	•가구주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 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평생교육참여율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도로, 자치 구간 평생학습의 참여정도의 차 이를 보여주는 지표	•25세 이상~65세 미만 성 인 인구 중 전년도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 •가구의 전년도 평생교육 경험 률	•행정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성 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가구조사	○		
	•교원 1인당 학생수	•초중등교육의 질의 측정 및 자 치구간 교육격차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	•(학생수/교원수)×100	•행정자료 - 서울시교육청: 2013 간 편한 서울교육통계	○		
	•고졸생의 대학진학률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률은 지역간 학력격차를 나타내 는 지표	•(대학교 진학생수/졸업생수)×100	•행정자료 - 서울시교육청: 상급학 교 진학률	○		
	•시설학원수	•지역간 교육시설 격차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시설 학원 수는 중요	•학교교과 교습학원(입시검정 및 보 습+국제화+예능+기타) + 평생직 업 교육학원(직업기술+국제화+인 문사회+기타)	•행정자료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 육통계연보	○		
	•교육재정 지원액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액(본청 편성분 제외)	•행정자료 - 행정과, 학교지원과: 교 육재정 지원 현황	○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제도교육에 외국인어 들어오고 있 는 시기에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를 파 악	•행정자료 - 서울시 교육청 2013 서 울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보육 환경	•보육시설이용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서울시 아동, 여성정책의 핵심사업이며, 아동 과 여성복지의 기초적 지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보육대상 아동수)×100	•행정자료 - 출산육아담당관: 보육시 설이용(구별)	○		
	•공공보육시설비율	•공공보육시설수의 증가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공공보육시설수(국공립보육시 설수+직장보육시설수+법인시설 수)/전체보육시설} ×100	•행정자료 - 출산육아담당관: 보육시 설이용(구별)	○		
	•보육방법	•미취학자녀의 보육방법 •보육시설 이용률로 대체할 수 있 는 지표	•가구의 미취학아동 보육방법 조사	•가구조사	○		
	•보육시설만족도	•보육시설 이용 및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 는 지표	•가구의 보육시설별 이용만족 도 조사	•가구조사	○		

(5) 건강과 보건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건강한 삶	•흡연율	•흡연은 개인건강의 위협 요인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 요인임	•표준화 값 사용, 현재 흡연율은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 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분율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비만율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며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주원인임	•BMI(체중/신장)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15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사람수×100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기대여명	•시민들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지표임	•0세기준의 기대여명	•행정자료 - 통계청: 생명표(전국) - 통계청: 시도별 생명표(3년주기)		○ (38)	
	•주관적 건강수준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임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그리고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우울	•시민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지표임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그리고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평균운동시간	•시민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지표임	•하루 평균 걷는 시간 조사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만성질환여부	•시민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지표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천식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의 분율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음주율	•흡연 못지않게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음주율을 확인하는 지표임	•고위험음주율: 최근 1년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 인구 중 주 2회 이상 음주하고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이상인 사람의 분율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
지역 보건	•식중독사고 발생건수 및 환자수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지표	•식중독 사고 발생건수 •식중독 사고 환자수	•행정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통계시스템			○
	•감염병 환자수	•지역건강과 관련되는 지표	•감염병(전체법정감염병/특정감염병) 환자수	•행정자료 - 서울통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
	•지역생활안전	•주거지역의 생활안전 관련 심각성 정도를 파악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거지역의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범죄/폭력, 쓰레기 방치, 주차 질서 등의 심각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	•가구조사	○		

38) 지표명 변경 : ‘평균수명’ → ‘기대여명’

(6) 안전과 재난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재난 안전	•풍수해 피해액	•한해동안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 보존하여 재해 대책 업무의 기본자료로 활용	•풍수해로 인한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피해액 총액	•행정자료 - 하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		
	•주택침수 세대수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주택침수 세대수	•행정자료 - 하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
	•붕괴사고 발생건수	•건축물, 시설물 등의 붕괴사고는 도 시공간의 노후화에 따른 재난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건축물, 시설물 등의 붕괴사고 발생건수	•행정자료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화재 발생건수	•화재현황을 취합, 분석하여 화재발 생 추이를 분석하여 화재예방 및 진 압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	•실화, 방화, 기타에 의한 화재 발생 총 건수	•행정자료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발생현황	○		
	•화재 사상자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기능해 볼 수 있는 지표	•(화재로 인한 사망, 부상, 실종 자수/인구수)×100,000	•행정자료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발생현황	○		
	•119 구조 처리 건수	•구조활동의 발생건수는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한 처 리로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119구조활동 실적의 처리건수 /인구수)×10,000	•행정자료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 응과: 재난사고 구조활동		○ 39)	
	•119 구급 이송 건수	•구급활동 이송현황은 인명구조와 관 련된 것으로 생활안전에 중요한 요 소	•(119구급활동실적의 이송인원 /인구수)×10,000	•행정자료 - 소방방재본부 재난대응과: 119구급활동실적		○ 40)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고 후 구조대 현장출동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	•(119 구조활동 5분 이내 출동 건수/119 구조활동 전체 출동 건수)×100	•행정자료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교통 안전	•교통사고 발생건 수	•대표적인 재난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을 통해 교통정책 입안시 참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 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		
	•교통사고 인명 피해 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사망자와 부상자로 나뉘 수 있으며 이는 사고의 규모를 측정케 함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 사망 자 수+부상자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 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보행자 교통사고 인명피해 수	•보행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교통지 표 중 중요한 지표	•보행자 교통사고 인명피해 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 전과: 사고유형별 교통 사고 현황	○		
사회 안전	•도시위험도	•자연재해, 핵폐기물, 방사능 사고, 전염병, 안전사고 등 사회의 위험으 로부터의 도시 안전성을 파악	•우리사회 위험정도의 심각성을 5점 척도로 조사	•가구조사	○		
	•강력범죄 발생 건수	•강력, 폭력으로 인한 살인, 강도사건 의 발생빈도	•5대 범죄 중 살인, 강도사건 발생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 발생현황		○ 41)	
	•청소년범죄발생 건수	•청소년의 극단적인 사회일탈 행위위 험을 파악하여 청소년 보호대책 및 교화수요를 파악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형법범위에 저촉되는 행위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소년 범죄 현황	○		

39) 지표명 변경: '구조 발생건수' → '119 구조 처리건수'

40) 지표명 변경: '구급 발생건수' → '119 구급 이송건수'

41) 지표명 변경: '흉악사건 발생건수' → '강력범죄 발생건수'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사회 안전	•아간보행만족도	•아간보행 만족도 파악	•가구의 아간보행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자살률	•정신적인 건강문제와 관련되는 지표 임	•(고의적 자해 및 자살자수/인구 수)×100,000	•행정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고독사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적 고립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무연고 사망자 수	•행정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고독 사실대분석보고서			○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 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아동인권 의 사각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며 각종 범죄 발생원인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노인학 대 등 가정폭력 발생건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가정 폭력 발생현황	○		
	•가족안전유형	•전년도 경험한 가족안전 유형에 대해 파악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경험한 가족 위험 유형 조사	•가구조사	○		

(7) 교통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교통 인프라	•시내버스수	•도시간 비교지표로 도시의 인구대비 시내버스 공급수준 척도로써 대중교 통의 시설공급수준을 파악	•(도시형버스+좌석버스+순환버 스)/서울시 주민등록인구(단위: 만명)	•행정자료 - 교통개선총괄반: 서울 시 시내버스 현황	○		
	•도시철도 연장	•도시간 비교지표로 도시의 인구대비 도시철도시설 공급수준척도로써 대 중교통의시설공급수준 파악	•서울시 지하철 연장(서울시계 내)/서울시 주민등록인구(외국 인 포함)	•행정자료 - 교통정책과: 지하철운 행현황	○		
	•버스전용차로 연 장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 하는 척도	•버스전용차로연장(가로변버스전 용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서 울시 주민등록인구(단위: 만명)	•행정자료 -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		
	•도로연장	•도로의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그 대 상으로 함	•도로연장	•행정자료 - 도로계획과: 도로율	○		
	•버스정류장수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 하는 척도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수+ 가로변 버스 정류장 수	•행정자료 -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정류장 현황	○		
	•자동이동수단 설치율	•시민의 이동 편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도시철도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수평자동보도 설치율 파악	•(자동이동수단(엘리베이터, 에스 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수 평자동보도) 설치역/서울시 모 든 도시철도역 수)×100	•행정자료 - 도시기반시설본부: 지 하철 승강 편의	○		
	•저상버스 도입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표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대수, 누 적도입대수	•행정자료 - 희망서울 생활지표		○ 42)	
	•자전거 도로율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 를 위해 자전거 도로율을 파악	•(자전거 도로연장/전체도로연 장)×100	•행정자료 - 보행자전거과: 자전거 도로 현황 - 도로계획과: 도로율	○		

42) 지표명 변경: '저상버스 도입대수' → '저상버스 도입률'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교통 인프라	•공유차량대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유도시 정책의 성과 중 하나인 공유차량(나눔차) 현황 파악	•공유차량 대수, 대여소수, 우선 주차면수	•행정자료 - 교통행정과: 나눔차 보급현황			○
	•전기차량대수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정책의 성과로서 현황 파악	•전기차량 대수, 대여소수, 우선 주차면수	•행정자료 - 대기관리과: 전기차 보급현황			○
	•장애인콜택시 대수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현황 파악	•장애인콜택시 대수	•행정자료 - 택시물류과: 장애인 콜택시 현황			○
교통 서비스	•지하철 최고 혼잡도	•대중교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하철의 이용실태와 서비스 여건 파악	•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이용승객의 평균재차인원(노선별 최고 혼잡)으로 2년마다 홀수년도에 조사	•행정자료 - 교통정책과: 지하철운행현황	○		
	•교통수단이용 만족도	•교통수단이용 만족도 및 불만이유를 조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 파악	•가구원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의 시민이용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버스이용정보시스템 설치율	•버스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이용안내 단말기 설치율	•(단말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수/전체 버스정류장수)×100	•행정자료 - 교통정보센터: 정류소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대수	○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통행속도	•버스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높은 통행속도는 통행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다양한 버스 운영방법의 도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	•연도별 버스통행속도	•행정자료 - 교통정보센터: 차량통행속도	○		
	•자전거 이용률	•에너지절약과 대체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도 파악	•가구원의 이동수단 및 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	•가구조사	○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가구원 대상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전기차 등 대체연료차량이 최근 점차 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대체연료차량대수/전체 차량 등록대수)×100	•행정자료 - 친환경교통과	○		
	•대중교통 이용객 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	•대중교통 이용객수	•행정자료 - 교통정책과: 수송수단별 여객수송현황			○
	•65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 파악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수	•행정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
	•장애인 콜택시 30분이내 탑승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현황 파악	•(콜택시 신청 후 대기시간30분 이내 탑승 건 수/총 탑승건 수)×100	•행정자료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현황			○
	•보행환경 만족도	•보행자의 질적 보행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향후 보행자 우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표로 중요	•가구원 대상 보행자의 주거지, 도심의 보행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보행 환경	•보도 면적	•보행환경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주요 보행로에 대한 시민 보행의 쾌적한 정도를 파악	•보도 연장 및 면적	•행정자료 - 보도환경개선과: 특별 시도상 보도현황		○ 43)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연장	•최근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 필요	•생활권 보행자 도로연장	•행정자료 - 보행정책과: 보행자우선도로 조성현황	○		
	•보행전용 거리 지정 구역 연장	•최근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 필요	•도로연장 (혹은 면적)	•행정자료 - 보행정책과: 서울시내 보행전용거리 운영현황	○		
	•보행환경개선 장소 수	•서울시의 보행환경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서울시의 다양한 보행환경개선 사업 실시 개소 수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가능)	•행정자료 - 보행정책과: 보행환경개선 사업 현황			○

43) 지표명 변경: '보도 연장 및 면적' → '보도 면적'

(8) 환경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대기와 녹지	•미세먼지 오염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도와 도로먼지 오염도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점 발굴	•PM10과 PM2.5의 서울시 환경기준 및 오염 농도	•행정자료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44)	
	•NO ₂ 농도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양과 2차 생성 오염물질량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	•서울시 환경기준 및 NO ₂ 농도	•행정자료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서울시민의 가장 큰 민원인 소음 실태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도로변을 대상으로 측정	•일반 주거지역의 도로변 낮 소음도	•행정자료 - 생활환경과: 소음도	○		
	•지하시설 실내공기질	•시민들이 장시간 체류하는 공공시설 실내공간의 공기질을 측정하여 개선의 필요성 파악	•지하철,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의 PM10 농도	•행정자료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 서울시설공단: 지하도 상가 공기질 측정결과	○		
	•가로경관 녹시율	•일상생활에서 도시민이 눈으로 체감하는 녹음의 양을 측정하여 도로변 식재와 관련된 녹지사업의 개선점 발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평균	•행정자료 - 조경과: 가로녹시율	○		
	•녹지환경 만족도	•서울시 녹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공원 및 녹지정책에 반영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수질과 폐기물	•서울한강 수질오염도	•서울한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파악하여 관련 효과평가 및 정책방향 설정	•잠실, 노량진, 행주의 BOD	•행정자료 - 물관리 정책과: 수질현황	○		
	•서울지천 수질오염도	•서울시 지천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조사하여 오염도 정도와 개선점 파악	•서울 지천의 BOD	•행정자료 - 물관리 정책과: 수질현황	○		
	•음용식수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음용식수를 조사하여 상수도 사업의 개선점 발굴	•가구의 수도물 이용정도과 주 음용식수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물재이용	•빗물, 하수처리수 등을 청소, 조경, 화장실 등에 재사용하는 양으로 도시물순환량 파악	•자치구 빗물이용량, 중수도량,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을 자치구로부터 집계	•행정자료 - 물관리정책과	○		
	•생활쓰레기 발생량	•쓰레기 무배출의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일반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줄임	•생활쓰레기 배출량	•행정자료 -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재활용량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 음식, 건설,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상태 파악	•생활, 음식, 건설, 지정 부문별 재활용량	•행정자료 - 자원순환과: 폐기물 재활용 현황	○		
	•생활쓰레기 매립의존도	•서울의 자체처리기반 확보 및 처리과정의 부산물도 최대한 자원화하는 정도를 파악	•생활폐기물 대비 매립지 반입량	•행정자료 -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자원순환과 폐기물기획팀: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		
에너지	•가정용 전력 소비량	•서울 시민의 전력 소비량을 파악해 에너지량 확보 대비	•서울 시민의 가정용 전력소비량	•행정자료 - 한국전력공사 출자관리팀: 전력사용량 (용도별)	○		
	•물 소비량	•서울 시민의 물 소비량(상수도소비량으로 제한)을 파악해 상수량 확보에 대비	•서울 시민의 상수량 소비량	•행정자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상수도급수현황	○		

44) 산출방법에 PM2.5 추가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파악해 에너지 정책수립에 기여	•서울시의 연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행정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에너지·자원절약에 참여하는 활동형 시민의 발굴 확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행정자료 - 기후변화대응과: 에코마일리지 사업성과	○		
	•자원절약재활용 참여율	•서울시민들이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파악	•가구별 생활 에너지 절약 정도 (장바구니 사용, 아름다운가게 나눔장다, 중고품점 녹색가게 이용, 음식을 옥내처리기 사용 여부 등) 조사	•가구조사			○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량	•서울시 온실가스배출 감축 정책에 활용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량 조사	•행정자료 - 도시가스협화 도시가스월보			○

(9) 문화와 여가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문화 활동과 향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 참여에 대한 지표	•가구원의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과 스포츠 경기 관람 여부 조사	•가구조사		○ 45)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비용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 비용에 대한 지표	•가구원의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과 스포츠 활동에 소비한 비용 조사	•가구조사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지난 1년간 시민들이 학교교육 외에 경험한 문화예술교육(강좌 또는 강습 등) 경험 유무 조사	•가구원이 지난 1년간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공예,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의 교육 경험 유무 및 기간 조사	•가구조사			○
	•지역문화예술 참여율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축제,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참여 정도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파악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축제, 지역문화시설(문화센터, 도서관 등)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가구조사			○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	•가구원의 서울의 문화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여가활동유형	•시민들이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한 여가 및 레저 활동 분야	•가구원이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어떠한 여가 활동을 하는지 조사	•가구조사		○ 46)	
	•휴가활용 경험률	•삶의 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휴가활용 경험 파악	•지난 1년간 휴가를 사용한 경험에 있는지 여부 조사	•가구조사			○
	•고궁입장객 수	•대표적인 전통적 문화유산인 고궁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왔느냐로 문화유산의 홍보관리실적 파악	•고궁(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종묘) 입장객수	•행정자료 - 문화재청 공능활동과: 고궁이용자 현황	○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권수	•대표적인 문화활동의 하나로서 도서관 이용 및 독서 실태 파악	•해당년도의 공공도서관 총 도서대출 권수(백만권)	•행정자료 - 도서관 관리시스템			○

45) 기존 지표('예술관람률', '영화관람률', '스포츠 경기 관람률', '전통예술공연 관람률') 통합

46) 기존 지표 '여가레저 활동'의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수정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문화 기반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유산 잠정목록	•관광자원에 대한 확대 노력 및 가치 보유정도	•세계문화유산 및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후보 수 파악 •세계문화유산 등재후보 수에 대 한 파악	•행정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 이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도서관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생활기초시설	•국공립, 공공, 대학, 전문 도서 관 개소 수	•행정자료 - 전국도서관통계 조사 (http://culturestat.mcst .go.kr)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 r/index.do)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현황	○		
	•전시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로 전시시설은 박물관, 미술관을 포함하 며 시민의 문화접근성 담보	•전시시설 수(박물관, 미술관 수)	•행정자료 - 역사문화재과, 문화정책 과 : 문화공간(전시시 설)	○		
	•공연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로 공연시설은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을 포함하며 시민의 문화 접 근성을 담보	•공연시설 수(종합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공연장)	•행정자료 - 문화정책과: 문화공간 (공연장)	○		
	•공공체육시설	•국공립 체육시설은 일반시민들의 문 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케 하며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서 역할	•공공체육시설 면적	•행정자료 -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 설 현황	○		
	•영화관람시설	•공연시설 중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화 된 시설로 시민의 문화접근성 정도를 보여줌	•영화관 수, 스크린수	•행정자료 - 문화산업과: 문화공간 (영화관)	○		
	•지역문화시설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시설로 각 지역의 문화환경 척도가 됨	•지역문화시설수	•행정자료 - 문화정책과 문화기반팀: 지역문화시설현황	○		
문화 시장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공연건수와 전시 횟수를 통해서 문화 시장 환경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미술 전시 횟수, 국악행사 건수, 음악행사 건수, 무용행사 건수, 연극행사 건수	•행정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 예연감	○		
	•시지정 전문예술 단체수	•문화생산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시지정 전문예술법인 지정단체 수	•행정자료 - 문화예술과: 전문예술법 인 지정단체	○		
	•문화관련 사업체수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체 현황을 알아 보기 위한 지표(출판, 음반, 게임, 영 화, 방송, 공연, 기타)	•문화관련 사업체수	• 행정자료 - 서울시: 사업체 기초통 계조사	○		
	•문화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문화예술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현황 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문화프로그램별 지원 건수 및 액수	•행정자료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현황	○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 수	•문화예술 상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등 문화예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 인력 규모를 파악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도 파악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	•행정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

(10) 거버넌스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투명 행정	•청렴도지수	•서울시의 청렴도지수 조사를 활용, 공표하여 대상기관의 부패방지에 일조하기 위한 지표	•자치단체별 청렴도 지수	•행정자료 - 감사담당관,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지수(자치단체별)	○		
	•정보공개비용	•행정정보가 얼마나 공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표	•(전부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건수 ÷ 총 처리건수) × 100	•행정자료 - 정보공개정책과: 안전행정부정보공개시스템 (http://open.go.kr)	○		
정보와 지식 활용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무선통신 비중의 증가 속에 새로운 정보기기의 보급사항을 파악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 기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TV 등 보유현황 조사	•행정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SNS 이용률	•최근 스마트폰 등 발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이용실태 파악	•가구원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파악(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행정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 인지도, 이용률, 이용만족도 파악	•공공와이파이 인지도, 이용률, 이용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오픈데이터	•오픈데이터 정책의 인지도, 이용률 파악	•오픈데이터 정책의 인지도, 이용률 조사	•가구조사			○
	•서울시 포털 이용만족도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률과 만족도 파악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률과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시민 참여	•자원봉사참여율	•주인의식을 지닌 성숙한 시민으로 비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을 고양시키는데 일조	•가구원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여부 및 분야별 참여율	•가구조사	○		
	•시민 기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시민참여의 방안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기부 문화의 활성화는 공동체 지향의 성숙한 시민상을 대변	•가구원의 유형별 기부형태조사	•가구조사	○		
	•투표율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파악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투표율	•행정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현황	○		
	•사회참여유형	•서울시민의 사회참여 유형 파악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참여한 사회참여 유형(단순 문의, 민원 제안 및 제기, 정책제안 등)조사	•가구조사			○
	•자원봉사유형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활동 유형 파악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유형(환경보전, 자녀교육, 사회약자돌봄, 문화예술 등) 조사	•가구조사	○		

(11) 복지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전체 인구에서 법으로 지정된 저소득층 인구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인구 수)×100 •전체, 노인, 장애인 비율 각각 산 출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47)	
	•사회적약자 취업률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지표의 대표적 성과지표 (outcome)	•장애인 취업률 •노인취업률(65세 이상) •여성취업률	•행정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구인구직 취업동향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회복지시설 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공급(input)지표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행정자료 - 통계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16년도)	○		
	•장애인재활시설 수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능력 향상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시 설+주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 생활기정	•행정자료 -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사망률	•장애인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장애인사망자수/장애인구수) ×100	•행정자료 - 장애인복지지원과	○		
	•장애인사망연령	•장애인사망연령을 확인하여 평균수명 확인	•장애인 사망연령	•행정자료			○
	•사회복지 예산비율	•전체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	•(사회복지예산/전체예산)×100	•행정자료 - 예산담당과: 전체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
고령자 생활	•노인의료 복지시설 보급률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임	•《노인의료복지시설수(노인요양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 인요양병원)/노인수》×100,000	•행정자료 - 어르신복지과: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급률	•치매노인, 외병노인 증가로 지역사회내 이들 노인을 위한 이용시설인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나타내는 대표 적인 지표	•《재가노인복지시설수(방문요양 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단기 보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재 가노인지원서비스)/노인수》 ×100,000	•행정자료 -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 복지시설현황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형태	•노인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형성하 므로 건강과 활력을 얻음	•가구원(65세 이상 대상)이 정기적 으로 활동하는 유형별 사회활동에 대한 참가 여부 조사	•가구조사	○		
	•독거노인 비율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복 지측면의 보조 필요성 증대를 보여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인구수/전 체 노인수)×100	•행정자료 - 어르신복지과: 독거노인 현황	○		
	•노후희망활동	•노후에 희망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노후에 희망하는 활 동(소득창출, 취미/교양, 종교, 자 원봉사, 자기개발, 손자녀 양육), 소득활동 방식, 소득수준을 조사	•가구조사	○		
	•노인 자살률	•고령화사회의 노인소외, 노인자살 현상 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65세 이상 자살 사망자수/65세 이상 인구)×100,000	•행정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노인 빈곤율	•고령자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달(또는 중위소득 50%미만)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노인 1인당 의료비	•고령층의 의료비 정도를 파악	•65세 이상 가구의 의료비 조사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성 평 등 성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이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로서 여성고용 증진정책의 수요를 판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성별 임금 격차율	•남성 근로자의 임금(100으로 기준)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	•(여성월급여액/남성월급여액)×100	•행정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전국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성별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는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을 포함	•(비정규직근로자/근로자수)×100	•행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가사노동 부담정도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부담정도를 통해 성차별적 역할정도를 파악	•가구의 남녀별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역할 부담 정도 조사	•가구조사	○		

(12) 가치와 의식

영역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유지	보완	신규
가족과 공동체	•가족의 통합성	•가족생활중 가족의 통합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가치관을 파악	•가구원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조사	•가구조사	○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측정	•가구원의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상태에 대해 조사	•가구조사	○		
	•다문화가정 비율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정 비중 파악	•결혼이민자(한국국적 미취득자+한국 국적취득자)+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	•행정자료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현황			○
	•반려동물 보유가구수	•건강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수요 파악	•반려동물 보유실태(개, 고양이, 새 등 기타 동물)	•가구조사			○
	•한부모가구 수	•일반가구 중 한부모(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 가구/일반가구)×100	•행정자료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한부모 가구현황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포용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가구원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	•가구조사	○		
	•외국인에 대한 태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가족,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정도	•가구원의 외국인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	•가구조사	○		
	•사회적 신뢰	•일반사람, 이웃, 공공기관의 신뢰 수준 파악	•가구원에게 가족, 이웃, 처음만난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정도에 대해 조사	•가구조사	○		
	•사회적 차별	•우리 사회의 사회적 차별 가능성 고수준 요인 파악	•가구원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에서 차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요인에 대해 조사	•가구조사	○		
	•계층귀속의식	•서울시민의 계층의식 파악	•가구원의 계층 귀속의식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계층이동가능성	•본인의 노력에 따른 자신과 자녀의 계층이동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정도를 파악	•가구원에게 본인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을 조사	•가구조사	○		
	•사회적 지원망	•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존재 여부 파악	•신체, 경제,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존재여부를 묻는 조사	•가구조사			○
정체성	•가치관	•가구원의 직업관, 일과 여가, 소비, 외모에 대한 가치관 조사	•가구원의 더 좋은 직장에 대한 이직의사, 여가시간 확보 정도, 브랜드 선호도, 성형수술 등에 대한 인지도 조사	•가구조사	○		
	•직업만족도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업이 있는 가구원의 현재 직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	•가구조사	○		
	•행복지수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상태를 지수화 함	•가구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관적 행복상태에 대한 조사	•가구조사	○		
	•고향인식도	•서울시민이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 파악	•가구원이 서울이 고향이라고 느끼는 정도 조사	•가구조사			○
	•시민자부심	•서울시민의 자부심 파악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 인식 정도 조사	•가구조사			○

2016 서울서베이

발행인	박 원 순
편집인	최 영 훈
발행일	2016년 12월
발 행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02-2133 - 4278~9)
제 작	통계데이터담당관 안 정 준 통계데이터분석팀장 황 선 아 담 당 원 유 복
편집 · 인쇄	다옴복지회 (02-2266 - 0412)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416-10

* 본 보고서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